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I

(I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I

(I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일러두기

1. 이 책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2021**년도 세계유산 홍보지원 (한국의 서원)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제학술포럼의 성과물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2. 이 책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학술회의와 워크숍 등에서 축적된 모든 자료를 주제별(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Ⅱ. 서원의 보호 및 활용)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3. 이 책과 관련한 사항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3673-5443)

목차

2장. 서원의 보호 및 활용

2.a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차)	006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006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021
2.b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차)	031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031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092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주변 환경 및 경관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110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체계 점검 및 실행과제	138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140
2.c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3차)	164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164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	169
한국의 서원 개요 및 OUV 설명	219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설명	236
2.d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4차)	239
한국의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239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245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	250
2.e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	261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261
활용-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고찰	279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등재서원을 중심으로)	288

목차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298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312
불교문화와의 만남: 템플스테이	327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336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347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379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	388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	397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	406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414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427

2장

서원의 보호 및 활용

2장 서원의 보호 및 활용

2.a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차)

서원 보존 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1. 서론

서원은 학문적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과 제향을 담당하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관이다. 조선 중기의 최초 건립 이후 서원은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전국에 700여개가 넘는 서원이 세워질 정도로 성행하였으며, 4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으로서 도서 출판의 기능, 교육의 장소, 학문의 실천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원은 건축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 중, 서원 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¹

이뿐만이 아니라, 서원은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가 198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 했다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하는 하는 것²은 국제적으로도 서원이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21

2.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12

이처럼, 서원의 가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 무형유산적인 제향의식, 배향 인물 및 전적, 고문서, 목판, 금석문, 등 유·무형 문화재가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정립도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서원은 이렇게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재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과 더불어 행정적인 뒷받침이 학술적인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원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정책과 행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 예산과 보수정비 등의 행정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한 행정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토 대상 및 범위

서원의 행정적 검토 대상 및 범위는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검토의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 서원의 지정 사유, 예산, 종합정비기본계획 등,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서원 관련 정책의 방향, 서원의 보수정비·유지관리 예산의 구성방향, 서원 정책과 행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서 문화재청이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국가지정 서원

연번	지정번호	사적명	소재지	지정년도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순흥면 내죽리 151	1963.1.21
2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안강읍 옥산리 7	1967.3.8
3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칠보면 무성리 500	1968.12.19
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도산면 토계리 680	1969.5.28
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황룡면 필암리 378-379	1975.4.23
6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1978.3.31
7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연산면 임리 74외 5필지	1993.10.18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007.10.5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2009.5.26

3. 서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적 활동 검토

서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이 9개소, 그 외 시·도 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23개소³ 정도로 아직 많은 서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념물에 속하며,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서원에 대한 행정활동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활동을 근거로 행정을 하게 되며,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재의 지정과 관리 및 보호, 공개, 보조금 및 경비 지원 등으로 문화재청의 행정활동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원에 관한 문화재청의 정책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재청의 행정 또는 정책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근거로 행정을 하게 되며, 문화재청의 서원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권 정비사업에는 2007년에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2011’⁴에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교 문화 관광 자원화’에서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이 유교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⁵, 사업 내용은 주로 관광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원의 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하나의 분야로서 문화재청의 2004~2019년도로 계획된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사업에 의해 서원·향교 및 문중·개인 등의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일반동산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⁶

3.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7

4. 2007, 문화재청,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2011』, 문화재청, p209

5. 2010.06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경상북도, p11

6. 2011,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1.3.31. 기준)

표 2.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추진 현황

구분	연도	조사지역	조사실적	비고
학술용역 (직접수행)	05까지	경북, 경남 일원	옥산서원 등 74개소 27,887점 조사	용역 보고서 발간
	06	서울, 경기 일원	동묘 등 26개소 10,941점 조사	
	07	경기 일원	광주정씨 종택 등 14개소 18,615점 조사	
	08	서울·경기지역	진주강씨 등 4개소 12,655점 조사	
	09	충청, 기 조사 지역 보완조사	이순신종가 등 31개소 5,241점 조사	-
	10	경북 북부 지역	영주지역 1개소 15,042점 조사	-
	11	대구 지역	대구지역 1개소 12,000점 조사	-
	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등 151개소 102,381점 완료	
국고 보조	04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	대구 도동서원 등 284개소 35,949점 조사	조사 완료
	05	대전, 충북 등 9개 시·도	충북 총령서원 등 272개소 38,400점 조사	
	06	06 대구, 대전 등 9개 시·도	대전 문충사 등 275개소 36,570점 조사	
	계		831개소 110,919점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특별히 서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건조물 문화재지정 관리, 동산문화재 지정관리, 문화재보수정비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서원에 관한 보존·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 서원에 대한 행정적 검토

(1) 서원의 지정 사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원은 전국에 국가지정 사적과 시·도 기념물로서 지정된 것이 130여 개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이 국가 사적으로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서원이 그 대상이 되며, 그 지정 사유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서원 등과 같이 연속유산으로서 서원이 가진 완전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서원의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되며, 이를 토대로 전국에 국가 지정 서원 후 보군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 지정 사적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념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1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을 살펴보면,

구분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에서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체크 항목을 살펴보면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④연혁·유래 및 특징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을 위한 각 항목과 지정 기준을 종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역사적·학술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기념물이 사적으로서 지정이 되며, 그 가치의 평가는 시대의 전반적 이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등으로 그 가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서원의 지정사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된 서원은 크게, 사액서원이거나,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 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명한 배향인물, 그 외 서원 내 보물이 존재하거나,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로 지정사유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서원의 국가 지정검토 시에, 사액서원·미철폐 서원이 국가지정사적으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현존하는 이 두 가지 서원에 대한 검토와 정책,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 사액서원·미철폐 서원의 틀을 구성하는 것도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접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국가지정 서원의 지정사유

번호	지정 서원	문헌	인물	사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비고
1	사적 제 55호 영주 소수서원	지정사유는 일제시대부터 고적을 1963년 사적으로 일괄 재 지정함.						최초 사액서원.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배향.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제1403호)
2	사적 제 154호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여 사적으로 지정 보존						사액서원. 이언적 배향.

번호	지정 서원	문헌	인물	사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비고
3	사적 제 166호 정음 무성서원	봉심안, 강안, 삼원록, 원규 등의 귀중한 서원자료	-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	-	-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	-
4	사적 제 170호 안동 도산서원	-	-	-	선조 8년(1575) 국왕에게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면서 영남지방 유학의 중심지가 됨	상덕사 (보물 제211호) 란 사당과 전교당 (보물 제210호)	사액 서원	이황, 조목 배향.
5	사적 제 242호 장성 필암서원	-	하서 김인후	-	-	-	-	사액서원
6	사적 제 260호 안동 병산서원	-	-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	-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
7	사적 제 383호 논산 돈암서원	-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로 김집, 송준길, 송시열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창건 당시의 서원구조 양식이 전승되고 경역내 의 돈암서원 비 (인조 23년 1645년 건립)에 의해 역사적인 유래가 확실	예학의 산실이었던 학당(응도당)을 갖추고 있음.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
8	사적 제 488호 달성 도동서원	-	-	-	-	-	-	-
9	사적 제 499호 함양 남계서원	「어정오경백편」 (御定五經百篇) 5권, 「경서 정문」(經書正文) 4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	조선시대 5현 (五賢) 및 동국(東 國) 18현 (十八賢) 중의 한 분인 일두 (一蠹) 정여창(鄭汝昌)	-	전저후고 (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 (前學後廟)의 배치양식으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서원의 양식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의 방형연지 2개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	-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 사액 서원.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2) 예산

서원의 보수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크게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재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이 검토하고 교부한다.

보조금은 크게 성격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통상 서원 보존정비의 경우,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한 예산과, 당해 문화재의 정비를 포함한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관광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에 기획재정부가 교부하는 광특 시도자율편성사업 예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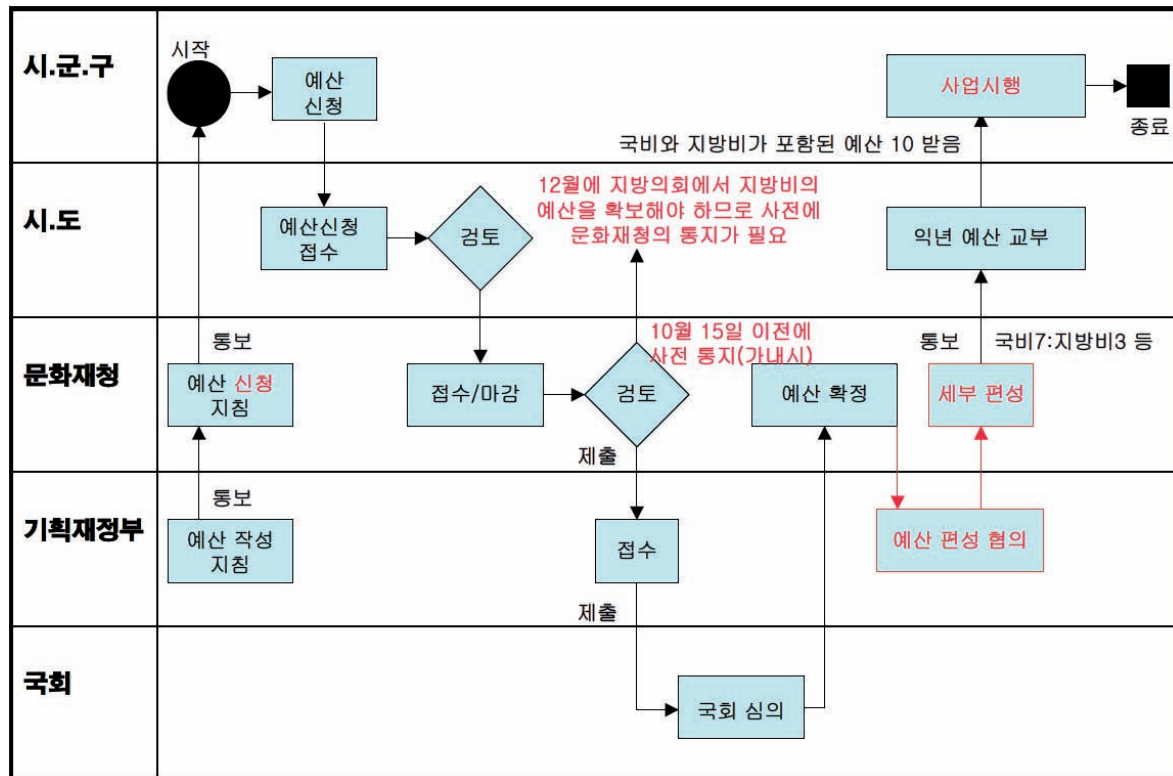


그림 1. 국고보조금에 의한 예산 지원 프로세스

단순히 사적 지정 건수 491건에 대해 서원 9건이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서원의 비율은 1.83%이다.

예산 배정의 경우, 사적의 훼손도나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예산 편성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원이 차지하는 1.83%를 기준으로 예산의 가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보수정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예산을 살펴보면, 서원의 예산은 평균인 1.83%보다는 약간 높은 2.37%의 비율을 차지한다. 2001년에는 전체 보수정비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에 비하여 서원 보수정비 예산은 0.06%로서 큰 폭으로 줄어든다. 2002년도에 들어서 1%대로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이후에는 전체 예산의 증감에 상관없이 점차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0.18%라는 낮은 예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⁷.

이러한 비율의 증감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자체의 관심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체의 예산 신청이 없으면 문화재청의 검토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해 서원에 관련된 예산은 없게 된다.

두 번째로, 문화재청 내에서도 지역의 담당자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이해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비율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 담당자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7.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7

표 4. 각 연도별 보수정비예산에 대한 서원 보수정비예산 비율

년도	전체 보수정비 예산(천원)	전체 보수정비 예산 증감	서원 보수정비 예산(천원)	비율
2000	292,073,370	△증127,237,253	6,928,571	2.37%
2001	284,343,542	▽감 7,729,828	168,000	0.06%
2002	337,740,044	△증 53,396,502	3,362,142	1%
2003	381,277,402	△증 43,537,358	100,000	0.03%
2004	385,574,937	△증 4,297,535	2,857,143	0.74%
2005	238,397,427	▽감147,177,510	4,007,143	1.70%
2006	257,757,704	△증 19,360,277	3,578,571	1.40%
2007	251,940,850	▽감 5,816,854	1,538,571	0.61%
2008	294,217,375	△증 42,276,525	1,192,000	0.40%
2009	345,544,557	△증 51,327,182	1,742,000	0.50%
2010	339,521,779	▽감 6,022,778	602,000	0.18%

세 번째로는 각 서원이 국가 사적 지정 전에 시·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거나, 서원 내에 국보, 보물, 지방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보수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는 국가지정 사적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원의 경우, 문중이라는 최소한의 관리체제가 유지됨으로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5. 국가지정 서원 내 문화재 지정 현황

연번	지정번호	사적명	지정 문화재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소수서원소장판목(시도유형제331호),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시도유형제330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제485호), 주세붕초상(보물제717호), 소수서원문성공묘(보물제1402호), 소수서원강학당(보물제 1403호), 서충대친림연회도(시도유형제238호))
2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
3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
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상덕사부정문 및 사주토병(보물제211호), 시사단(유형문화재 제33호)
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제587호), 하서선생문집목판(시도유형제215호),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 목판일괄(시도유형 제216호)
6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
7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 응도당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 유경사(충남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원정비 (충남문화재자료제366호)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보물 제350호))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국가 사적 지정 전 경남기념물 제91호, 일두선생 문책집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6호), 개암선생 문책집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7호)

그리고 각 서원별 보수정비 예산⁸은 문화재청의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1년의 12년간 서원에 지원된 총예산은 약 299억 8천만원이며, 이를 일반적인 보수정비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①당해문화재 보수정비, ②문화재 주변정비, ③편의시설 정비, ④방제·방재 시설정비, ⑤전시·교육시설 정비, ⑥그 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내용 등을 살펴보면, 6개의 항목 중에 문화재 주변 정비에 지원된 예산이 34.2%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9개 서원 전반에 걸쳐 부대시설,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시·교육 시설 정비가 31%를 차지하며, 전시관과 교육관 시설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의 유물전시관 이 외에는, 옥산서원, 필암서원 등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해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이며, 25%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은 당해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서원의 경우, 주변정비, 전시·교육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의 경관과 전시·교육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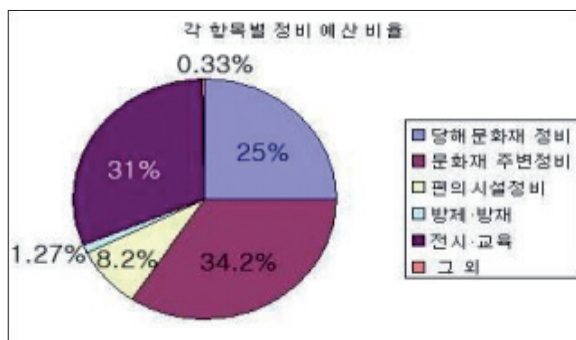


그림 2. 서원의 각 보수정비 항목별 예산 비율

그 외에는 편의시설 정비가 8.2%,로 주차장, 안내판, 화장실 등이 정비의 주요한 내용이며, 방제·방재에 1.27%, 그 외 종합정비기본계획이 1건으로 0.33%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정비기본계획의 경우는 정읍 무성서원이 해당되며,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하여 현재 3건이 수립되어 있다.

8. 함양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2006.7)

표 6. 각 정비 내용별 보수 예산 현황

① 당해문화재 보수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383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	142,857	-
사적 242	필암서원	토지매입	4,285,714	-
사적154	옥산서원	포사채, 경각, 민구제 등 보수	140,000	-
사적 55	소수서원	경렴정 보수, 배수로 정비	70,000/35000	당해+주변
사적 55	소수서원	경렴정 보수, 배수로 정비(6m), 외각담장(150m)	220,000/110,000	당해+주변
사적 166	무성서원	현가루, 병기창 보수	285,714	-
보물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단청	60,000	-
보물 1403	소수서원	강학당 단청	97,143	-
사적 55	소수서원	학구제건물보수	57,143	-
보물 350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장원 사당기단, 단청보수 강당 기단보수	150,000	-
사적 383	돈암서원	담장보수	10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협문보수	28,571	-
사적 170	도산서원	동재변와 등 건물보수	180,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전사청 개축 등	14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비각기단보수, 담장 및 석축 보수	35,000 /17500	당해+주변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단청 및 강학당 등 보수	175,000	-
사적 488	도동서원	건물보수, 안내판 정비 등 주변 정비	350,000/116,667	당해+주변+편의
사적 154	옥산서원	고직사 보수	100,000	-
사적 170	도산서원	도산서당, 장판각 및 협문 등 노후 건물 지붕보수 등	140,000	-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기와고르기, 당간지주 주변 철책보수	190,000/95000	당해+주변
사적 154	옥산서원	역락문 보수	35,000	-
사적 260	병산서원	배수로정비, 기단보수	35,000/17500	당해+주변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개축, 건물단청, 구인당 변와보수	571,429/285,715	당해+편의
사적 260	병산서원	만대루 안전진단, 만대루 보수 실시설계	100,000	-
사적 170	도산서원	역락서재,진도문보수(단청), 고막이 및 아궁이보수, 배수로정비	-	-
사적 55	소수서원	관람로 정비, 취한대, 안내소 기와변와	330,000/110,000	당해+주변+편의
사적 499	남계서원	풍영루, 경판고 보수	250,000	-
합계			7,484,524	-

② 주변정비 보수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55	소수서원	초가. 방앗간 등 건물 건립, 부대시설 조성	2,400,000	-
사적 383	돈암서원	진입로 및 배수시설 정비	28,571	-
사적 242	필암서원	부지성토, 배수 등 부대시설 정비	428,571	-
사적 154	옥산서원	진입로 정비	5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성토등 부대도목 우수, 오수관로 도로개설, 배수시설, 지중화사업(전기)	4,285,714	-
사적 154	옥산서원	진입로정비(200m)	5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조경식재, 부지정리, 주차장화장실건립	2,571,429/1,285,715	주변+편의
사적 383	돈암서원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142,857 /71,429	주변+편의
사적 55	소수서원	철책보수	228,571	-
사적 383	돈암서원	주변환경 정비(지장물 철거)	280,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사적지 진입로 바닥정비	105,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진입로 정비	35,000	-
사적 170	도산서원	전선지중화, 화장실 개축	350,000 /175,000	주변+편의
사적 154	옥산서원	노거수 정비	5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500,000/250,000	주변+편의
합계			10,225,238	-

③ 편의시설 정비 보수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166	무성서원	화장실 개축	100,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주차장정비	50,000	-
합계			2,444,526 ³³	-

④ 방재·방제 보수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154	옥산서원	보안시설 설치	10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5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병 방제	42,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사당, 강당, 현가루, 강수재, 내삼문, 비각 4동, 방염제 도포	1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수목병충해 방제	42,000	-
사적 154	옥산서원	도난감지시설보수	1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42,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80,000	-
합계			376,000	-

⑤ 전시·교육시설 정비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242	필암서원	진덕원,송의관 건립, 경역 내 DC-TV 설치	3,600,000	-
사적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기본설계 용역	5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전시관증축 및 내부전시시설 설치	2,000,000	-
사적154	옥산서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1,00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전시관 건축공사	1,000,000	-
사적 242	필암서원	송의관, 진덕원 건립 마무리 공사	30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500,000	-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900,000	-
사적 166	무성서원	정비계획 수립	100,000	-
합계			9,350,000	-

⑥ 그 외 정비 예산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166	무성서원	정비계획 수립	100,000	-
합계			100,000	-

※ 토지매입은 당해문화재 정비용으로 본다. 또한 신축, 부속건물은 주변경관 정비용으로 취급하며, 사업내용이 당해문화재정비, 주변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 복합적인 내용일 경우, 1/n으로 산정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종합정비 기본계획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각 사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으는 목적이 있다. 말 그대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현황파악이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단.중.장기 계획 하에서 보존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세 번째는 앞의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청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의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어디를 보수정비 해야 하는지 등,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다각도로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이러한 보존관리가 적절히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법령 개정, 지침, 내부적인 방침 등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은 국가사적 9개소에 대해 3개소(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유산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9개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문제점

서원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인문학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어떤 기관이 수행하는지가 중요해진다.

기존 3개소의 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길건축사사무소, 명지대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등으로, 경험이 많은 기관이 선정되어 무난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건축적인 관점이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원과 같이 인문학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수립된 서원 3개소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첫 번째 목적인 자료 수집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서원이 기록된 문헌조사는 하였지만, 서원의 인문학적인 검토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다.

서원이 성립된 시대의 배경, 인물의 연구, 이후의 인문학적 변화, 서원 소장의 인문학적 자료의 검토 등이 부족함으로서, 다른 문화재보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한 서원의 가치를 잘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서원의 인문학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간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 서원 전체에 걸친 서원의 인문학적 연구가 선행된 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의 현황 조사에 있어서, 서원 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인문·건축·경관이 서원 구성의 3요소라고 한다면, 경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서원이 지향한 경관적 요소가 무엇이고, 지금의 현황에 대해 개선해야할 경관과, 지켜야할 경관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용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있어서 문화재 구역만을 용역의 범위로 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 설정을 주변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까지로 확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야말로 진정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활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제향, 서당, 선비문화 체험 등으로 서원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원만의 이야기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문학적 연구에 의해 각 서원마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며,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고,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산 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연차계획과 예산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검토는 문화재청에서 서원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행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로는 문화재청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문화재청에서 서원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서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없지만, 동산문화재의 현황파악 차원에서 서원, 향교 및 문중, 개인 등의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일반동산문화재를 일제조사하고 있으며, 사적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2010년도에 『서원보존정비관리방안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이어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출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원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찾아내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원이 가진 인문학적 연구를 위해 “서원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9개 서원의 종합정비 기본 계획 수립”, 사액서원·미훼철 47개 서원의 지정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일체화되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정사유 분석에서도, 사액서원·미훼철 47개 서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서원이 가진 연속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예산에 있어서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시, 교육, 주변정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서원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향후 인문학 연구,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지정 9개 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서원의 보존관리는 물론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경관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원의 구성요소인 인문, 건축, 경관 등의 전문가 참여와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서원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학술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세계유산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학계의 학술적인 노력과 함께 문화재청의 정책적 지원이 일체화 될 때, 세계유산으로 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1. 서론

한국의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 관리된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국내법은 물론이고,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유산협약’ 및 이와 관련된 지침, 헌장, 선언문, 문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글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되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으로 약칭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의 서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내용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특정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해당 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문화유산이 운용지침에 명시된 1). 등재 기준 1-6항목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고, 2).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고, 3).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

세계문화유산의 관리는 세계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데 가장 중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원의 올바른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이다. 운용지침에 명시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이들 서원에 적용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된 일반 사항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이유는 그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체약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단히 소중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이 훼손이나 망실로 인해 소멸된다면 전 인류의 유산에 있어 아주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점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 그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운용지침 4). 세계적 가치가 있는 특정 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운용지침 6) 이들 유산을 “미래세대로 전승”함을 목적으로 운용지침을 적용하고 있다(운용지침 7).

이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 목표’(운용지침 25)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he 5Cs, 운용지침 26).

- 1).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를 제고한다.
- 2).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을 보장한다.
- 3). 계약국의 효과적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의 개발을 촉진한다.
- 4).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지를 증진한다.
- 5).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을 증대한다.

이 전략 목표는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2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당시에는 4개 전략 목표) 대표성, 균형성 및 신뢰성을 갖춘 '세계유산목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 목표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서술문'을 채택하는데, 이 서술문은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후 당해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를 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운용지침 51).

3. 진정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운용지침에 명시된 진정성의 충족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문화유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과 이후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의미와 연계하여 진정성의 전 국면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토대”를 구성하는데, 이는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운용지침 80)

진정성과 관련해서,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적이나 구역에서의 해당 유산에 대한 재건축(복원, reconstruction)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된다. 재건축(복원)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운용지침 88)

진정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각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문화 안에서도 상이할 수 있다.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문화유산을 대할 때 주로 그 유산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운용지침 81)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해당 유산의 “진정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신청 계약국은 우선 진정성을 구성하는 적용 가능한 중요한 속성 일체를 파악해야 한다. 진정성에 관한 기술은 진정성이 위의 주요 속성 각각에 어느 정도 내재해 있는지 또는 이와 같은 각 속성에 의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운용지침 85)

1994년 11월 1일에서 6일까지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 회의’에서 채택된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세계 여러 곳의 문화 및 유산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 이런 이유로,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모든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정성을 충족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 근거해서 해당 문화유산이 진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화재가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판단 기준은 운용지침 8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국의 서원’의 진정성과 연계시켜 순서를 조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신과 감성 (spirit and feeling)

정신이나 감성과 같은 속성을 진정성을 충족하는 조건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신과 감성’은 해당 유산의 전통이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는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운용지침 83) ‘한국의 서원’은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신과 감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산수가 빼어나서 유가(儒家)가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하기에 좋은 곳에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 주변이나 영역 안에 새로 건물을 세울 경우 서원 건립의 정신과 감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심신을 단련한 정신적 배경에는 그들이 지향한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깊게 깔려 있다. 유가들에게 천(天)은 자연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리이자 종교적 근원으로 파악되어, 하늘의 섭리는 최선의 도덕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천도는 인간을 통해 이해, 실현되는 존재로 규정한 유학에서는 하늘의 근본적인 덕성이 인간의 심성 속에 내재한다고 보고, 인간 도덕의 근원을 하늘에 둔다. 서원이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에는 유가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정신은 서원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서원 주변은 사람들로 넘치는 시정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입지와 주변 환경 (location and setting)

‘한국의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은 ‘정신과 감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에 적용된 내용과도 관계가 크다. 한국 서원의 효시로 꼽는 백운동서원(1550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음)이 1543년 세워진 이후, 조선시대의 많은 서원은 군현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이면서,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산수가 수려한 곳에 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입지와 주변환경은 ‘한국의 서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의 서원’ 주변경관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사상과 한국의 전통자연관을 반영하고, 서원이 들어선 장소는 유가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천인합일을 체득하는 경관이였다. 유가들은 또한 서원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돌·물·지형·산 등에 도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이 유가들의 세계관으로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서원의 입지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도산서원의 모체가 된 도산서당을 짓고 난 다음 이항이 쓴 「도산잡영(陶山雜詠)」에 잘 묘사되어 있다. 「도산잡영」은 도산서당 주변의 경계에 대한 이항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충만해 있다. 이항은 도산서당 일대에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에 이르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몽천, 열정,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등의 경물을 통해 그의 유가적 자연관을 펼쳤다. 그런데,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과 환경은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되고 안동호에 담수가 되면서 크게 변하였다.

유교건축이 남향을 하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과 대비해, ‘한국의 서원’ 중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남향이 아닌 좌향으로 서원의 중심 건물을 배치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옥산서원은 서쪽을 향하도록 중요한 건물들을 배치하여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도동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고 자리를 잡게 함으로서 주변 자연 지세에 잘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함으로서 자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조선 시대 서원의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을 지금도 잘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정성의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서원 주변에 새로 건물을 세울 경우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유가들이 서원을 조영하면서 형성한 주변경관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훼손된 서원주변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예를 들어, 필암서원 주변에는 교육관과 유물전시관이 들어섰고, 옥산서원 남쪽에도 유물전시관이 조성되었으며, 남계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등은 주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동서원은 서원 앞을 지나는 도로의 확장, 주변에 난립한 건물들로 경관이 훼손되었고, 병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변의 백사장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

3) 용도와 기능 (use and function)

서원의 용도와 기능은 조선 사회의 종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제향 기능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서원’의 용도와 기능은 진정성의 충족 및 지속성의 관점에서도 현대적 활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기획이 요구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철학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하였고, 당시 공론을 꾸려가는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 교육의 실현 장소, 도서의 보존과 출판, 그리고 도덕의 실천 장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한국식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속한다.¹

1. 이해준·김덕현·이왕기,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0).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1981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한국의 서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서원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4) 형태와 디자인 (form and design)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시 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의 배치, 형태, 디자인 등이 진정성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점검되어야 하고, 동시에 보존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진정성은 곧 해당 유산의 신뢰도와 진실성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원’의 형태 및 디자인에 대한 진정성은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 근거해서 특성을 형성하는 판단 기준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5) 재료와 구성 물질 (materials and substance)

재료와 구성 물질은 앞에서 언급한 ‘형태와 디자인’과 함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건물의 주요 부재가 목조인 경우, 건물을 수리, 보수하면서 해당 건물의 진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조 문화유산의 보존은 원 재료의 보존과 상관없이 그 유산이 보유한 가치에 근거한다는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된다.

6) 언어 및 기타 형태의 무형 유산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조선 시대의 서원은 주지하듯이 기본적으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원의 제향은 무형유산의 지속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기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진정성이 강조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진정성에는 환경, 장소, 유산의 특징은 물론이고, 해당 유산에 대한 가치와 그와 연관된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서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경, 장소, 유산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지 진정성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4. 완전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완전성은 원래 자연유산에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유산의 전체성 및 본연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관점에서 문화유산에도 적용된다. 해당 유산이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에 근거해서 판단한다.(운용지침 88)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2. 당해 유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3. 개발 및/또는 방치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문화유산의 경우, 당해 유산의 물리적 구조 및/또는 중요한 특징은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퇴락 과정의 영향은 제어되어야 한다. 당해 유산이 지닌 가치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의 상당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의 고유 독특한 특질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 경관이나 역사적 고장, 기타 생활유산에서 발견되는 관계 및 역동적 기능 역시 유지되어야만 한다.(운용지침 89)² 이런 이유로 완전성의 충족은 유산의 ‘보전’과 크게 관계 된다. ‘한국의 서원’이 운용지침에서 요구하는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서원 건립 당시의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5.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이고, 등재 당시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추후에 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운용지침 96) 이런 이유로 인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운용지침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의 구비와 보호 경계선의 표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법률, 규제, 제도 및/또는 전통적 보호와 관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충분히 표시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체약국 측은 신청 유산을 위해 국가, 지역, 지방 및/또는 전통 차원의 보호 조치가 완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용지침 97)³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법률, 규제 대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를 개발이나 변화로부터 확실하게 유산을 존속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체약국은 이와 같은 대책이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운용지침 98)

경계 표시는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경계선은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식화 되어야 한다.(운용지침 99)

2) 완충지대의 설정

유산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곳은 반드시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운용지침 103)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완충지대란 당해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이곳에는 신청유산의 보호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법률 및/또는 관습상의 제재가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구역이다.

2. 문화유산에 대한 완전성 요건의 적용 사례는 현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발 중이다.

3.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는 세계유산 지정구역에 대응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여기에는 신청 유산을 둘러싼 인접 환경과 중요 경관은 물론이고 신청 유산과 그것의 보호를 위한 지원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다른 구역 및 속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운용지침 104)

완충지대 설치안이 제외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경우, 신청 문건에 완충지대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야 한다. (운용지침 106) 완충지대는 일반적으로 신청 유산의 일부가 아니지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후 완충지대에 가해지는 변경 사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운용지침 107)

운용지침의 완충지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0미터 이하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원 건립의 정신, 입지와 주변환경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관리 체계

운용지침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유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 체계의 목적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운용지침 109)

체약국은 세계유산을 위해 효과적 관리 활동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 체약국은 유산 관리자, 관리 담당 기관 및 기타 파트너, 유산 관리의 관련 이해 당사자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운용지침 117)

각 신청 유산은 가급적 참여적 수단을 통해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상술한 적절한 관리 계획이나 기타 문서화된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운용지침 108)

효과적 관리 체계는 신청 유산과 그것의 문화적, 자연적 맥락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관리체계는 상이한 문화적 관점과 가용 자원,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 체계상에는 전통적 관행, 기존의 도시 또는 지역 계획 메커니즘 및 기타 공식, 비공식의 계획 통제 메커니즘이 결합될 수 있다. (운용지침 110)

관리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운용지침 111)

- a) 당해 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철저한 이해의 공유
- b) 계획,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
- c)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
- d) 필요한 자원의 할당
- e) 역량 구축 및
- f) 관리 체계의 작용에 관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설명.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을 신청할 경우, 통합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청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운용지침 114) 연속유산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여 관련되는 구성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운용지침 137)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 a) 동일한 역사-문화적 집단
- b) 지리적 지대를 특징짓는 동일 유형의 유산
- c) 동일한 지질, 지형학적 구조, 동일한 생물지리 권역 또는 동일한 생태계 유형

단, 당해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 족하며, 개별 구성요소 모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신청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 계획이나 다른 관리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약국은 이와 같은 관리 계획이나 체계가 언제쯤 수립될지, 새로운 관리 계획이나 체계의 준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국은 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당해 유산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다른 문건(예: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운용지침 115)

4) 지속 가능한 사용

세계유산은 생태학적,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현행 용도와 예정 용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계약국 및 파트너는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사용이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그 용도는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일부 유산의 경우 사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운용지침 119)

5)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대한 반응적 모니터링

반응적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이란 세계유산사무국과 유네스코의 다른 기관 및 자문기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계약국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보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사무국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관련 보고서 및 영향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반응적 모니터링은 또한 이미 등재되었거나 또는 등재 예정인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예견될 경우에도 적용된다.(운용지침 169)

6) 위험에 처한 유산의 결정

문화유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결정된다.(운용지침179)

- a) 확실한 위험: 유산의 위급함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 i) 재료의 심각한 훼손
 - ii) 구조 및/또는 장식을 구성하는 요소의 심각한 훼손
 - iii) 건축 또는 도시계획상 일체성을 이루는 내용의 심각한 퇴색
 - iv) 도시나 지방의 공간 또는 자연환경의 심각한 악화
 - v) 역사적 진정성의 중대한 상실
 - vi) 문화적 중요성의 중대한 상실
- b) 잠재적 위험: 유산의 본질적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에 직면한 경우
 - i) 보호의 규제를 저하시키는 유산의 법적 지위 변경
 - ii) 보존정책의 부재
 - iii) 지역계획 프로젝트의 위협적 영향
 - iv) 도시계획의 위협적 영향
 - v) 무력 분쟁 사태의 발발 또는 위협
 - vi) 지질, 기후, 또는 기타 환경요인으로 인한 점진적 변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결정이 되고, 계약국이 위험 요소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문화유산은 운용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해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6. 결론

이상,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세계유산은 한 민족,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지방 또는 지역이 그곳에 소재하는 어떤 유산을 자신만을 위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 세계유산은 모든 국가, 사람,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하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세계유산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가장 중요시 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서원 건립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변환경과 경관의 보전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b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차)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소수서원의 연혁

소수서원은 중종 37년(1542)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이곳 출신 유학자 안향(安珦)을 제사하기 위해 숙수사지(宿水寺址)에 사당을 세워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그 이듬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이름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1544년(중종 39)에는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를 배향하였으며 1633년(인조 11)에 문민공(文敏公) 주세붕(周世鵬)을 추향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안향의 11대손이자 경상감사였던 안현에 의해 서원의 재정이 보강되었고 1548년(명종 3)에 퇴계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서원을 공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1550년(명종 5)에 사서오경(四書五經), 성리대전(性理大全) 등 내사본(內賜本)과 명종친필로 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을 받음으로서 우리나라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이 서원은 조선 고종 때의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철폐되지 아니한 전국 47개 서원중의 하나로 그 명맥을 이어 왔으며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전까지 수 천명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행사만 치르고 있다.

현재 서원은 사적 제55호로 63.1.21에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소수서원을 들어서면 좌우에 수령이 수 백년이 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이 옛 숙수사지였음을 알려주는 숙수사지 당간지주(宿水寺址幢竿支柱)를 첫 눈에 볼 수 있다. 동쪽으로는 죽계(竹溪)라 불리우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죽계천변 암벽에는 주세붕이 쓴 것으로 전하는 백운동(白雲洞)과 경(敬)자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퇴계 이황이 명명한 취한대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문인 지도문(志道門) 전면에는 주세붕이 서원 창건 시에 지었다는 경렴정(景濂亭)이 있고 경렴정 맞은편에는 서원의 제향 시에 제물의 흠결을 알아보던 성생단(省牲壇)이 있다. 정문을 지나면 백운동이한 현판이 붙은 강학당(講學堂)이 있는데 내부에는 소수서원이란 편액이 걸려 있으며 이는 별도로 보물 제 1403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학당의 조금 뒤쪽으로 해서 좌측편에는 보물 제 1402호로 지정된 문성공묘(文成公廟)가 자리하고 있어 서원의 제향의식을 행하고 있다. 강학당 뒤쪽으로 일신재(日新齋)와 직방재(直方齋)라 편액된 동·서재(東·西齋)가 있으며 그 우측에 지락재(至樂齋)와 학구재(學求齋)가 있고 좌측에는 서원의 서적을 보관하던 장서각(藏書閣)이 있고 그 뒤편에 제향 때 쓰는 제기와 음식물을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이 있다. 그 옆에 근래에 지은 영정각(影幀閣) 있어 안향을 비롯한 주세붕, 이황, 허목, 주자 등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다. 안마당으로 조금 들어가면 서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사료관(史料館)이 있으며 그 좌측편에 서원의 관리인이 거처하던

고직사(庫直舍)가 자리하고 있다. 서원 뒷마당에는 서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은 충효교육관(忠孝敎育館)있어 일반인들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충효교육관 앞마당에는 이곳이 절터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연화대좌, 광배를 비롯한 많은 불교 유적이 놓여 있다.

서원의 바깥에는 탁청지(濯淸池)란 방형의 연못이 있으며 지금은 없어진 2층누각의 자리가 있다. 탁청지 건너편에는 광풍대(光風臺)가 있어 서원 경치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그 외에도 국보 제 111호인 회현영정(晦軒影幀)과 보물 제 717호인 주세붕 영정(周世鵬 影幀), 보물 제 485호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 경북유형문화재인 서충대친림연회도(瑞蔥臺親臨宴會圖), 소수서원 현판(紹修書院 懸板), 죽계지 판목(竹溪志 板木)등 수많은 문화재와 서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소수서원은 후대의 서원처럼 일정한 배치법식이나 건물 격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불교문화의 조화속에서 자리잡은 초기 서원의 자유스러운 배치방식을 볼 수 있다.

2. 세계유산 신청 서원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부서의 역할과 업무

영주시에서는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관내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내에 문화예술과(문화재관리담당)를 설치하였으며 특별히 소수서원의 관리를 위하여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을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주된 업무는 영주시 문화재 및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연장 및 공연자에 관한 사항, 출판사, 인쇄소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 등록·관리, 종교의식용 면세물품 증명 발급·관리, 문화원 육성 지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육성 및 문화 진흥활동 지원, 예술업무 종합계획 수립, 예술단체 행사 등, 지역전통예술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예술 육성 및 진흥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 천연기념물, 유적지, 전적지 관리,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향토유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 그 밖의 문화관광 행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은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4개분야의 담당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소수서원을 비롯한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관리담당에서 맡고 있다.

한편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은 소수서원의 관리와 박물관 및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세계유산 신청 서원의 보존관리 재정(과거, 현재, 향후 미래)

소수서원은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오는 건물과 토지가 제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소수서원이 보유한 재산은 건축물로 사적 제 55호로 지정된 소수서원 본 건물과 토지 47필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등 약간의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로는 소수서원 건물(군성공묘, 강학당, 학구재, 지락재, 장서각, 전사청, 영정각, 사료관, 고직사 등) 1곽이 있으며, 토지는 소수서원 인근의 토지와 야산 등 약 47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 수출되는 수입이 소수서원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유동성 자산인 현금은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1건이 있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나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입은 소수서원소유 토지를 개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받는 도조가 년 450만원정도이며 영주시에서 임대한 소수서원 임대료가 년 1,500만원정도이며 기타 행사시 찬조금이나 잡수입이 약간 있어 이것으로 소수서원에서 필요한 연간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지출로는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년 60~70만원, 춘추향사비(2회)가 1회 250만원으로 500만원, 당회(2회)가 1회에 70~80만원으로 년 150~160만원, 세알례(1회)가 1,000천원 등 고정적으로 년 800~900만원 정도가 지출되며, 기타 외부 행사 참여 등으로 1년 약 1,000 ~ 1,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입과 지출내역을 볼 때 서원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충당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서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유럽에서도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4. 세계유산 신청 서원의 현재까지 보수내역

소수서원은 1542년 사당을 신축한 이후 1543년 강학당의 신축 등이 있는 이후부터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쳤으며 지금도 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중건 및 보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년도	내용	금액(만원)	비고
1542	신축	-	-
1651	강학당 중건	-	-
1652	지락재 서까래 보수, 강학당 양벽과 사벽 공사, 단청공사	-	-
1654	전사청 서까래 교체	-	-
1657	경렴정 철거후 재건	-	-
1677	강학당 창과 벽체 수리	-	-
1689	경렴정 누수 부분 수리, 난간 철정(鐵釘)수리	-	-

년도	내용	금액(만원)	비고
1691	경렴정 현판 수리	-	-
1692	명륜당 남쪽, 동쪽 담장 개축, 동북 양쪽의 섬돌 개축	-	-
1704	명륜당 앞 대문 개축	-	-
1711	사당 보수	-	-
1714	경렴정 중건	-	-
1716	경렴정 단청 공사	-	-
1723	강학당 중수	-	-
1730	학구재 서쪽 방 및 동쪽 마루 1칸 중수	-	-
1763	경렴정 기와 보수	-	-
1769	경렴정 북쪽 담장 개축	-	-
1782	명륜당 중수(툃마루 보수, 난간 신설, 마루 분합 높임)	-	-
1790	전사청 기둥, 창호 문지방, 기와보수	-	-
1791	직방재, 신방 계단보수, 강학당 계단, 기와보수	-	-
1799	직방재, 신방, 강학당, 문성공묘 기와보수. 지락재 중수	-	-
1805	일신재 신축, 학구재 중건	-	-
1832	지락재 중수, 학구재 보수, 강학당 중수	-	-
1939	일신·직방재 중수	-	-
1958	명륜당 보수	-	-
1966	지락재 및 협문 보수, 학구재 해체 보수	90	-
1974	명륜당 번와, 영정각 신축 등	1,500	-
1975	일신·직방재 보수. 경렴정 번와, 기단보수	-	-
75~77	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신축 1동	1,000	-
1982	경보기 설치(영정각), 담장 신축	-	-
1983	협문 신축	100	-
1984	보 및 도수로 공사	5,700	-
1985	명륜당 번와, 문성공묘 협문보수, 전사청 기단 보수 등	3,000	-
1985	지락재 보수	-	-
1986	문성공묘 번와, 전사청보수, 주차장 확장, 담장 신축, 제방축조, 취한대 신축 등	15,000	-
1987	매표소 신축	750	-
1989	학구재보수, 서고 보수, 안내판 조감도 설치	2,000	-
1991	일신재 번와 및 벽체 보수, 주변정비	5,500	-
1991	명륜당 보수(일부 번와)	500	-
1991	교육관 및 사료관 신축	132,800	-
1994	지락재 보수	950	-

년도	내용	금액(만원)	비고
1995	경계석 설치, 화단 조성, 카프포장	5,000	-
1996	문성공묘, 전사청, 장서각, 강학당 등 보수	18,000	-
2000	강학당 보수, 지락재 보수, 경렴정, 취한대 보수	5,500	-
2001	탁청지 발굴 조사 복원	-	-
2005	학구재 해체 보수	-	-
2006	직방·일신재 보수	-	-
2007	건물 단청, 창호보수, 벽체 보수	-	-
2009	경렴정 해체 보수	-	-
2010	협문보수, 주변정비공사	-	-

5.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수립년도 및 수행 내용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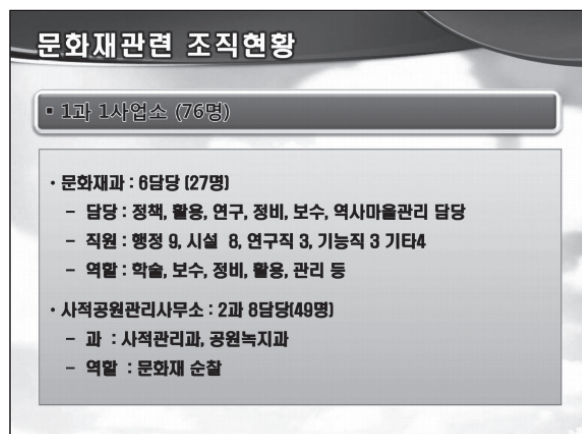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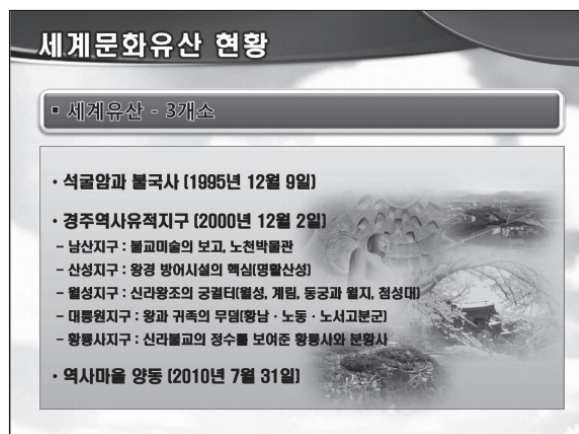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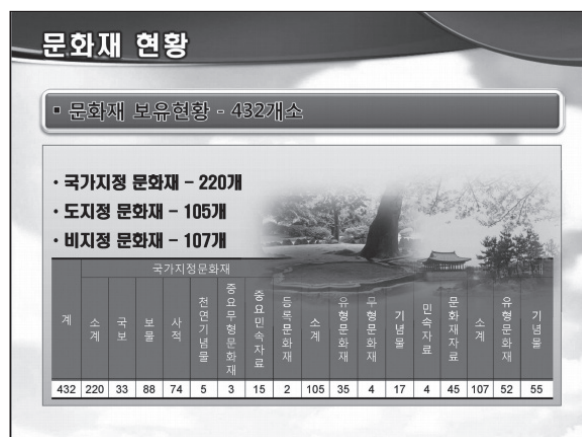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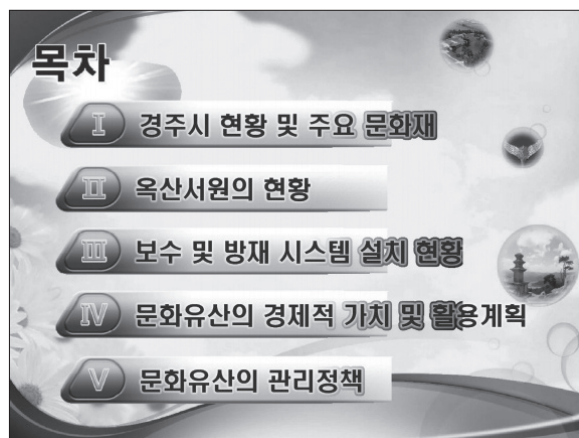
소수서원은 2003년 강학당과 문성공묘 실측조사 보고, 2012년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 등 건축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종합정비 계획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예산 70,000천원을 확보하여 서원내외의 자연환경이나 조경,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선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6. 세계유산 신청 서원 담당자가 생각하는 해당서원의 보존관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과제

서원의 고유한 목적중의 하나인 강학에 대한 기능이 근대 학문의 도입과 함께 사라지고 현재는 선현에 대한 제향기능만 남아 있어, 출입하는 유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규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연중 청소년, 일반인 등을 상대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서원의 교학적인 기능을 잇게 한다든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일부 서원에서 실시하는 서원스테이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기타 기업체 연수, 교육부와 연계하여 서원 교육 체험학습 활동을 정규 학과의 하나로 인정하게 하는 등 늘 사람이 올수 있고 살아있는 서원으로의 역할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원의 교육적인 기능이 과거의 전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대 생활과는 맞지 않은 면이 있어 활성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이 서원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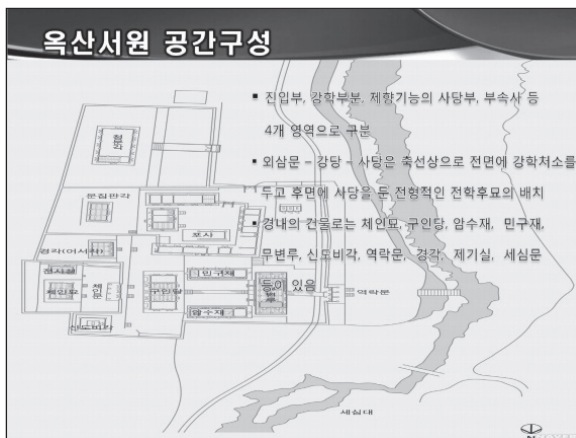




II 옥산서원의 현황

옥산서원 창건

-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을 제향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선조 5년(1572년)**에 창건
- 400년을 존속한 한국의 대표적 사학기관으로 한국 고유의 유교 문화를 대표하고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제향의례, 강학의례, 고문서, 전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
- 사적 154호 지정
- 이언적 수필고본(보물 제586호)를 비롯하여 소장 삼국사기는 1512년 경주에서 판각된 4차 간본(보물 제525) 3질 9책 50권으로 전질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임



옥산서원 공간구성

- 전입부, 강학부분, 제향기능의 사당부, 부속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 외삼문 - 강당 - 사당은 축선상으로 전면에 강학처소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두,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
- 경내의 건물로는 제인묘, 구인당, 암수재, 민구재, 무변루, 신도비각, 역락문, 경각, 제기실, 세심문

세계유산 옥산서원 등재기준

-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평가기준 중 iii, iv, v, vi에 적합한조건 충족
- 기준(iii) : 문화적 전통,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기준(iv) : 인류역사의 단계를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
- 기준(v) :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정주지 토지이용의 탁월한 사례
- 기준(vi) :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 연계



옥산서원 - 종합안내판



赤樂門- 서양의 정문



대국연화문양 심방목



명당수 인입

누각 및 누마루 형태의 무변루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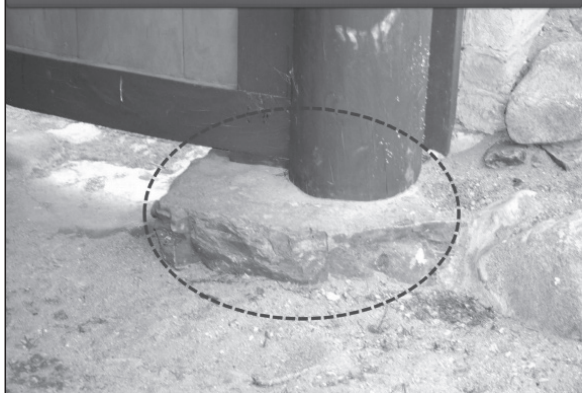
無邊樓 - 樓間에 해당되며 밑의 계단을 오르면 구인당의 앞마당에 이를



덤벙주초 - 자연과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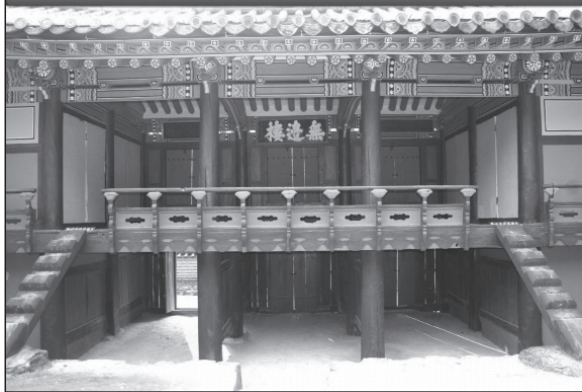
덤벙주초 - 자연과 조화



무변루 거자난간대



무변루 정면



閣修齋 - 동재로써 서재인 민구재와 더불어 유생들이 수학하며 거처하는 곳



敏求齋 - 동재로서 유생들이 수학하며 거처하는 곳



求仁堂 - 강당으로서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학문의 토론장소
옥산서원 편액은 주사 김정희가 씀



옥산서원 편액



옥산서원 편액



구인당 자연석 기단과 활주



經閣 - 각종 판각과 어서를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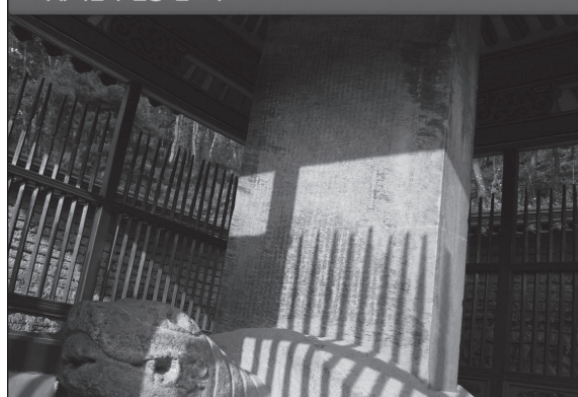
體仁廟 - 이언적의 위패를 보관



神道碑 - 회재 이언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건립함.
비문은 고봉 기대승이 짓고, 아계 이산해가 글씨를 씀.



회재 이언적 선생 신도비



유물전시관 - 고문서, 전적 등 각종 유물을 보관(2010년 건립)



洗心臺 - 회재선생이 즐긴 4山 5臺 중 하나
 4山 : 도덕산, 무악산, 화개산, 자옥산
 5臺 : 觀漁臺, 詠歸臺, 濯纓臺, 澄心臺, 洗心臺



옥계



세심대 목조 나루다리



II 보수 및 방재 시스템 설치 현황



보수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15,000	
관리사보수, 건물보수, 변압보수 외 13건	'1995~2008	6,600	
유물전시관 건립	2009	4,200	
화장실 신축, 역락문보수, 종합안내판 정비 등	2010~2011	1,200	
불량가옥 및 토지매입	2012	3,000	유네스코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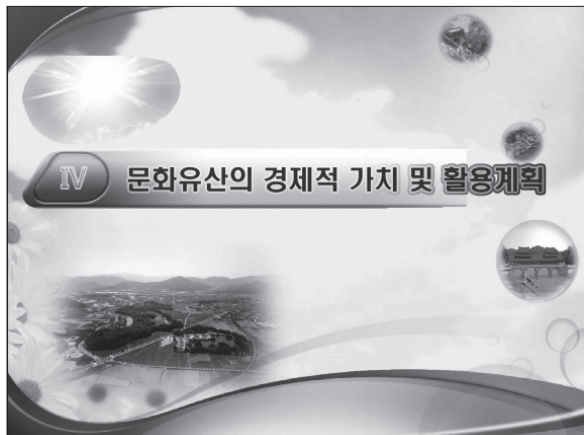
※ 종합정비계획 수립 : 70백만원 (2013. 5. 용역시행 중)
 정밀실측 : 150백만원 (2013. 5. 용역시행 중)

방범 · 방재시스템 설치 현황

사업명	대수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46		130	
CCTV	12	2012	80	
불꽃감지기	11	2012	50	
옥외소화전	5			고가수조방식
소화기 등	18			

※ 화재 대응 매뉴얼 : 2012. 6월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 방화관리자 지정, 신고 및 연락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동산문화재 소산 계획 등

IV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계획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문화유산의 등재 의미

- 문화유산은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재
- 유교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제고
- 국내외 관심 집중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제적 관점의 문화유산

- 세계유산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세계문화유산에 맞는 체계적 보존, 활용과 관광인프라 확충근거 마련

문화유산의 활용계획

다양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 경주설화, 서원의 역사, 유학이념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활용
- 전통건축양식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문화자원 발굴(9개서원 비교)

세계문화유산의 글로벌화

- 문화의 상호연대와 교류 - 경주세계문화 expo 해외 개최
- 경주~이스탄불 2013, 경주~앙코르 2006

옥산서원 체험교실 및 고택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연중계속
- 내용 : 유교문화체험, 민속문화체험, 농촌체험, 건축물 및 문화재 탐방



문화유산의 관리정책

문화유산 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 사적지와 일상공간의 단절 - 관광코스 유도화
- 관광객의 도심 유입 취약으로 지역경제 기여 미흡
- 서원의 우수한 건축성 홍보
- 보존과 개발을 지역적, 공간적으로 안배하거나 이전하는 정책 필요

법·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 세계문화유산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타법보다 우선 적용
-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 보존중심의 관리정책에서 보존과 활용의 조화 추구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개관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
-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영남유학의 총 본산이며 한국 유학의 연원으로 자리 잡음

1) 沿革

- 1561년(명종16) - 도산서당, 농운정사 창건(퇴계)
- 1570년(선조 3) - 퇴계선생 역책(12월 8일, 향년 칠십)
- 1574년(선조 7) - 도산서원 건립(유림 발기)
- 1575년(선조 8) - ‘도산서원’ 사액/ 편액 한석봉 필
- 1792년(정조16) - 과거시험 도산별과 시행(시사단)
- 1969. 5. 28 - 사적 제170호 지정(면적 : 324,945㎡)
- 2011. 4. 20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준공
- 2011. 12. -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 一般現況

- 위 치 :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번지(토계리 680번지)
※『택리지(擇里志)』 계승(溪勝)의 제일로 기록
- 배향인물 : 퇴계(退溪) 이황(李滉), 월천(月川) 조목(趙穆)
- 서원향사 : 음력 2월 · 8월 중정일/ 도산서원운영위원회
- 관람인원 : 240,000명(입장수입 185백만원)

3) 문화재현황

문화재명	지정명	규모	비고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	324,945㎡	건물17동
전교당	보물 제210호	1 동	강 당
상덕사	보물 제211호	2 동	사 당
시사단	지방유형33호	1 동	-

4) 부설 양사 기구

구 분	설립	목 적	대 상	실적
선비문화 수련원	2001	도덕입국 윤리실천 주체 양성	학생교원, 군인, 기업인, 일반인	60,000명
거경대학	2006	성학십도 생활화 선생 경 사상 계승	학생, 일반인	5,000명

2. 보존관리 현황

1) 保存管理組織



2) 運營體系

• 안동시 문화예술과

구 분	계	5급	6급	학예사	7급	기능	비고
현원	12	1	3	1	3	4	-

• 도산서원관리사무소

- 1977.1.1 도산서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거 사무소 개소

구분	계	5급	별정 6급	7급	9급	기능	비 고
인원	17	1	1	1	1	5	청원경찰4, 환경미화원3 공익요원3

업무	내용
문화재의 원형 보존	서원에 상주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 파손 및 훼손여부를 조사 및 안동시에 보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비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수목관리와 환경정리 문화해설사 사무실 및 매점 관리 관광지 부대시설 운영에 효율화
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선비문화체험 연수생 교육을 통해 겸손과 배려하는 정신함양 선비문화체험 수련생 다양화에 상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문 관광객관리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정신문화 중심도장으로서 역할 수행 전통문화의 가치제고와 감각적인 홍보활동 실시다양한 홍보자료 배부 및 관광객에게 정보제공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및 운영	관람료 수익의 용도에 관한 사항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화재예방 및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

• 당회

- 정원 : 없음
- 구성 : 전·현 임사 등
- 임무 : 최고의결기구, 규정 제개정 등 중요사안 의결
 - 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② 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의 선임
 - ③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 등은 당회를 통해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 정원 : 13명
- 구성 및 임무

• 위원장 : 1명, 제반운영사항 총괄

• 위원 : 7명. 예결산, 임사후보자, 중요사안 및 당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 상임위원(별유사) : 3명. 존현의례봉행, 위원회실무처리, 위원장 보좌

• 감사 : 2명. 운영위원회 업무감사

표1.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구 분	임원구성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①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상임위원 3명	② 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 후보자 확정
	위원 7명	③ 원무 처리규정변경(1981년 추가) ④ 재산의 취득 및 처분(1981년 추가)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981년 추가)

3) 보존관리현황

• 보수현황/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69-70	96,600	96,600	-	-	정화보수(문공부 직영)
72	-	-	-	-	공개관람료 징수
74	-	-	-	-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설치
75	2,061	2,061	-	-	진입로 개설 1.5Km
77	7,109	-	3,595	3,595	서원 광장 조경
78	3,714	-	1,857	1,857	굴뚝 및 기반보수
79	19,697	13,787	2,956	2,954	경보기, 보안시설(장판고 외)
80	1,760	-	880	880	경보기 설치(동□서광명실)
82	3,147	-	1,574	1,573	안내판 이건
83	26,168	-	13,084	13,084	화장실 신축(9.19평)
84	45,000	30,000	6,000	9,000	소화전 시설
88	11,000	11,000	-	-	배수로 설치, 휴관매설
88	3,000	-	-	3,000	주차장 배수로 복개공사
89	19,580	13,580	3,000	3,000	장판각 및 도산서당 보수
90	40,000	-	40,000	-	서원실축(영남대학교)
93	100,000	-	-	100,000	안내소 신축
93	1,000	-	-	1,000	사주문 보수
94	15,000	-	-	15,000	주차장 간이 상수도 설치
94	9,000	-	-	9,000	하고직사 외 4개소 보수
94	6,000	-	-	6,000	옥진각 전기보수
94	8,000	-	-	8,000	적외선 감지카메라 설치
94	-	-	-	-	방연제 도포
97	40,000	-	20,000	20,000	수거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신축
97	40,000	-	20,000	20,000	"
98	428,571	300,000	64,285	64,286	전사청, 상고직사, 하고직사, 농운정사, 동광명실보수
99	571,420	400,000	85,714	85,715	
2001	200,000	-	-	200,000	관리사무소 홍보관 설치
2001	80,000	-	-	80,000	
2003	700,000	35,000	105,000	245,000	옥진각, 안내판, 주변정비 등
2004	-	-	-	-	방충작업
2007	200,000	-	-	-	도산서당, 장판각 협문 번와 보수

연도별	예산액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07	180,000	-	-	-	동·서재보수, 진도문, 협문, 동·서광명실보수
2009		-	-	-	소화시설 증설 <전통 사업과>
2010	500,000	-	-	-	전선 지중화, 화장실 개축
2011	130,000	-	-	-	역락서재, 진도문 등 단청

• 도산서원 성역화사업 / 박정희대통령 지시내용

- ① 창건 당시에 남아 있는 목재 등 원자재를 손실하지 않고 제 위치에 잘 복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 ② 각 건물 지붕의 처마끝 솟기와의 끝을 흙으로 하지 말고 백토를 하거나 내림막새기와를 사용하라.
- ③ 각 건물의 단청은 현충사(이순신사당) 영빈관 단청을 참고할 것.
- ④ 서적, 판각, 유물 등은 습기, 온도조절과 제충장치를 갖춘 전시관을 따로지어 보관할 것. (외부는 한식, 내부는 현대식)
- ⑤ 서적류는 서고를 정리하여 집중 보관할 것.
- ⑥ 영구보존물은 목록대장을 비치하고 중요 서적류는 영인본을 제작하여 원본에 촉수(觸手)를 금할 것.
- ⑦ 담장은 현재보다 높이 쌓고 아산 현충사와 같이 사괴석 담장으로 할 것.
- ⑧ 산림전문가[산림청]의 도움을 받아 아카시아 등 잡목과 잔소나무는 제거하고 벗겨진 땅은 잔디나 풀로 입히는 등 조림녹화에 힘 쓸 것.
- ⑨ 배산(背山)에는 철조망을 쳐서 통행을 막고 경내 분위기 조성할 것.
- ⑩ 당초보다 초과되는 예산은 별도 책정할 것.

• 보존관리 현황

- 인근지역은 원형보존 및 주변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됨.
- 도산서원은 산과 강, 서원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음
- 도산서원 사적 170호(1969. 5. 28.) 지정 보호
 - ※ 보호구역 : 324,949m²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내에서 보존사업 수행
- 유교문화권개발사업 퇴계의 학림 및 유적지 복원사업 완료

• 문화재 환경보존

- 주변 환경정비 : 집성촌 형태 유지 보존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 완료
- 식생보존 : 전통수종 식재 별도 조정 및 식재계획 불필요
- 일부 외래종 및 부조화된 수목 제거 / ※ 금송 문제
- 주변 훼손 방지 : 문화재보호법으로 주변경관훼손 방지

• 해당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조례, 규정 등 수립 사항

- 1977년 :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설치, 관리운영조례 제정 공포

3.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 종합정비계획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유적 및 유구정비	1969~70년 보수정화사업 환원	담장, 기단, 계단
	건축물 정비	
	동몽재 or 역락서재 재현	관계전문가 의견
경관정비	코어존과 버퍼존 설정	진정성, 완전성
	도산서원 접근로 재현	퇴계구곡, 예던길
	진입로 및 운영대 석축정비	경관 저해 석축
	열정, 정우당, 몽천	
주변정비	유물전시관 이건	옥진각 이건
	고직사 정비	
	금송 정비 및 槐花木 枯死	경관 저해, 완전성, 진정성 저해
	관람편의 시설 정비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관리주체에 따른 문제점파악	

4. 향후 과제

□ 성역화사업으로 변형되어버린 원형 복원 추진

- 담장 높이를 관란헌(觀瀾軒)에서 낙동강의 물결이 보이도록 낮춤
 - 토석담, 사괴석 담장으로 변형
 - 서원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잃음
- 사장(死藏) 되어버린 열정(冽井)의 기능 복원
 - 열정은 퇴계 선생께서 도산서당의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
- 역경(易經) 정괘(井卦) ‘정열한천식(井冽寒泉食)’에서 취함.
- 우물은 마을이 떠나도 옮겨가지 못하고, 길어도 줄지 않으며, 오가는 사람 모두가 즐겨 길어 마시는 것과 같이
- 주인 없는 무궁한 지식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꼭 필요한 인물이 되라는 교훈
- 화강석 다듬돌로 바꾸어버린 서원 내 계단을 자연석으로 복원
 - 서원 경내에 부설되어 있는 계단(정문, 진도문, 상덕사 입구 등)은 성역화사업 시 화강석 다듬돌로 교체되어 정형화됨

□ 동몽재(童蒙齋)를 복원함으로써 도산서원 건축물의 완전성 회복

- 서원관리체계의 문제점
- 국가지정인 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광역보존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보존 및 복원행위는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 중심 점적 보수에 집중
-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하향식 보존관리 및 점적·물리적 문화재 중심 유지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가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 국가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설계에 한정, 서원 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어렵다.
-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원 관리의 불편이 있고, 전통경관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 서원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준공공단체 수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안동시,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전문가 및 단체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구상하여, 도산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지자체-서원 운영위원회>의 순환적 체계에서 도산서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재구성 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단체인 도산서원 보존협의체를 수립하여 관련 집단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원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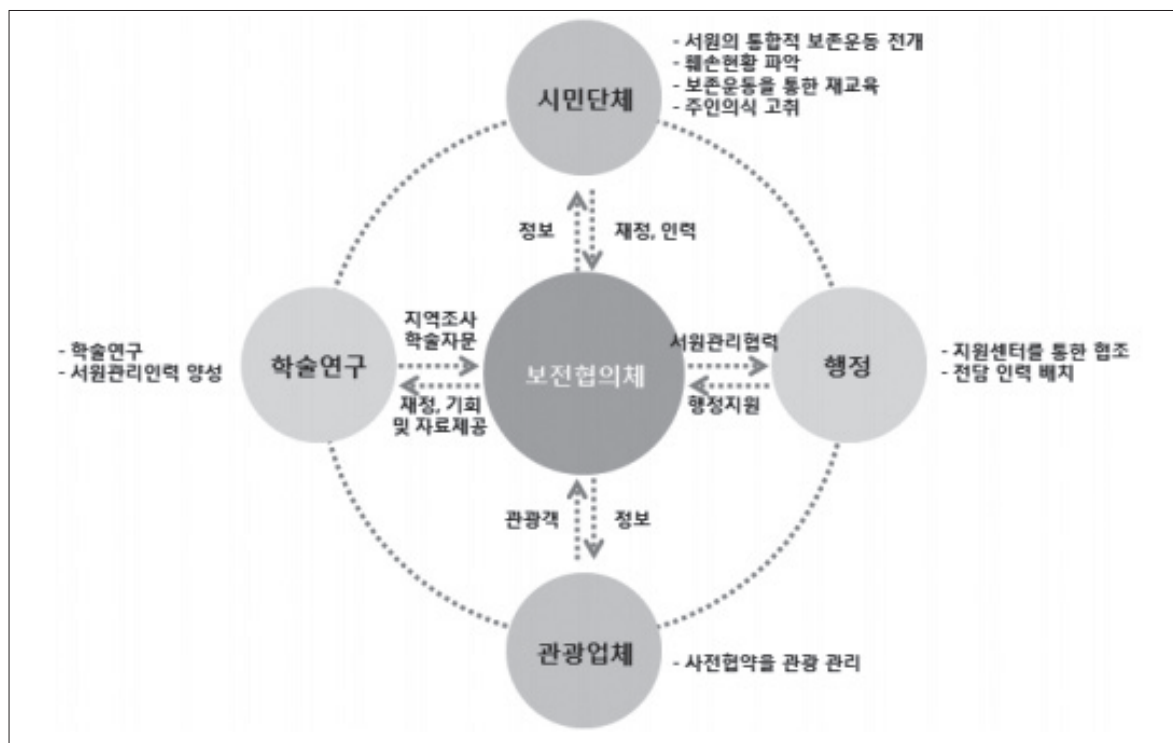


그림 1. 보존협의체를 활용한 협업네트워크 구상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일반현황

1) 概觀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
-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서애의 인품과 학문적 성취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서애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헌 1000여종 3000여책 소장

2) 一般現況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1번지
- 건립년도 : 1614년(사액년도, 1863년)
- 배향인물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수암(修巖) 류진(柳軫)
- 문화재지정 : 사적 제260호(1978년) ※ 보호구역 : 22,562㎡
- 소 유 자 : 병산교육재단
- 향 사 일 : 음력 3월 · 9월 초정(初丁)일

3) 沿革

- 1572년(선조 5) : 풍악서당을 풍산에서 병산으로 이전
- 1592년(선조 25) : 임진왜란 때 소실
- 1607년(선조 40) : 서애 류성룡 선생 역책
- 1614년(광해군 6) : 존덕사(尊德祠) 창건 선생 위패 봉안
- 1629년(인조 7) : 선생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진(軫) 배향
- 1863년(철종 14) : ‘병산’ 사액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
- 1978년 3월 31일 : 사적 260호 지정
- 1991년 :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설치, 관리운영조례 제정 공포
- 2010년 7월 31일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 양동 세계유산 등재
- 2011년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2. 보존관리 현황

1) 역사적 배경

-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柳軫)을 배향한 서원이다.
-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헌 1000여종 3000여 책이 소장
- 선생 역책 후 제자들과 유림이 뜻을 같이 하여 사당(존덕사)을 세우고 위패를 모시고 선생의 학덕을 기리며 향사 제향

2) 유산의 가치

- 화산(花山)을 배경으로 한 건물군(群)은 접근하면서 보여지는 중첩된 지붕들이 산자락의 흐름을 조금도 거슬리지 않으면서 공간의 위계질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自然)에 대한 선조들의 외경심은 만대루(晩對樓)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서원 입지는 주변의 자연 풍경에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 자연의 일부분을 만대루 밑에 옮겨와 작은 동산을 만들고 작은 대나무를 배경으로 그 그림자 밑을 잉어가 뛰어 놀았을 작은 연못과 화장실의 애교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연관
- 만대루 밑을 지나면서 보여지는 병산서원의 편액의 주건물과 뒤로 이어지는 사당까지의 공간 질서는 엄격하면서도 주변자연과 내외공간의 연결은 뛰어난 공간연결수법을 보여준다.

3) 세계유산 진정성

- 병산서원이 매력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 자연경관 그리고 뛰어난 건축미에 있다. 낙동강과 백사장 그리고 병산이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병산서원은 서원건축의 백미
- 병산서원은 건축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의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이 건축이야말로 우리의 산하를 알고 그 속에 건축을 엮어 만든 길잡이가 되는 사례
- 우리나라 최고 서원으로 자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배치, 존현양사(尊賢養士)로 대별되는 서원의 기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겸손과 절제를 추구하는 선비정신과 생명과 평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선비들의 교육적 이상을 실천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4) 보존관리조직

- 안동시 문화예술과

구분	계	5급	6급	별정6급	학예사	7급	기능
현원	12	1	2	1	1	3	4

- 하회마을관리사무소

※1991년 4월 1일 하회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거 사무소 개소

구분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별정7급	기능	청원경찰	기타
인원	13	1	1	1	1	5	4	환경미화원3 공익요원3

- 병산서원 임원, 유사 조직

구분	원장	도유사	재유사	유사	인사위원회	비고
인원	1	1	2	4	5	

표1.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

업무	내용
문화재의 원형 보존	세계유산 하회마을 보존관리, 하회마을 주민과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 극대화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마을 내 환경미화 경관 훼손 요소의 단속 및 철거
문화재 활용	관광객을 위한 마을안내와 마을 축제 등의 행사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안내
관광객 관리	관광객 안내, 관람권 매표, 차량통제 및 질서유지

5) 보존관리현황

- 현재 보존상태

- 서원과 인근지역은 원형보존 및 주변경관보호 문화재보호법 보호
- 병산서원은 산과 강 그리고 서원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음

- 보존관리 실태

- 문화재 지정현황

- 병산서원[사적 260호(1978. 3. 31.)]/보호구역 : 22,562㎡

- 보존정비계획/일반원칙

- 유적지구 대부분 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의 규정보호
- 문화재보호법 규정 의거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내에서 보존사업 수행

- 과학적 학술적 연구
 - 정밀 실측: 세계유산 등재 정밀실측 **2012~2013년**
 - 시굴 발굴조사: 원형의 변화없이 당초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시굴 발굴조사 불필요
- 보수 정비 및 복원
 - 보수 및 복원 방안: 원형 보존상태 양호
 - 기록화 방안(도면, 영상물, 기타 관련자료 수집)
- 관련유적지에 대한 정밀실측설계도 발간
- 문화재 환경보존
 - 주변 환경정비: 집성촌의 형태 유지보존 주변 정비 필요
 - 식생(환경) 보존
- 서원 경내 전통수종 식재 별도의 조경 및 식재계획 불필요
- 주변 경관 일부 외래종 및 부조화된 수목 제거
 - 주변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집행으로 주변경관훼손 방지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
 - 핵심지대: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된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완충지대(buffer zone): 문화재보호법 경관보호구역(500m) 활용
- 해당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조례, 규정 등 수립 사항
 - **1991년**: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설치, 관리운영조례 제정 공포

3.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1) 보존관리계획

- 주차장 이전
 - 서원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마련한 주차장이 서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저해
⇒ 현 위치 동쪽으로 **200m** 정도 이전, 서원의 진정성 회복
- 서원 입구에 있는 미술관 매입, 서원 박물관으로 활용
 - 서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완전성 회복
⇒ 전시기능을 통해 서애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복원

- 병산서원 주변 마을 경관 요소 복원 필요
 - 병산서원 앞 낙동강변 소나무 숲 복원
 - ⇒ 병산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복원

2) 종합정비계획 내용

구 분	정 비 대 상	내 용	비 고
병산서원 및 그 주변 일곽 정비	건축물 정비	- 훼손, 변형된 부분 확인 후 원형으로 환원	-
	설비시설 정비	- 소방 방재 시설 정비 - 배수로 정비	-
	관람편의시설 정비	-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 관리사무실, 안내소 등	-
	조경 정비	- 광영지 정비 - 수목 정비	-
그 외 주변정비	마을 정비	- 주변 가옥 및 건축물정비	-
	경관 정비	- 병산십경 파악 및 정비 - 수목 정비	-
	관람편의시설	- 주차장 이건 - 휴게시설 정비	-
	동선계획 정비	- 탐방로 정비 - 진입로 정비	-

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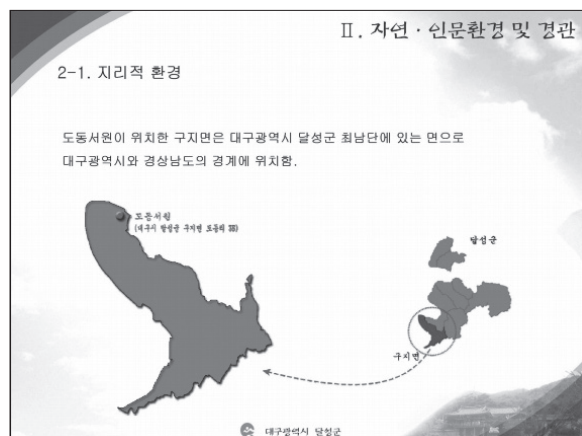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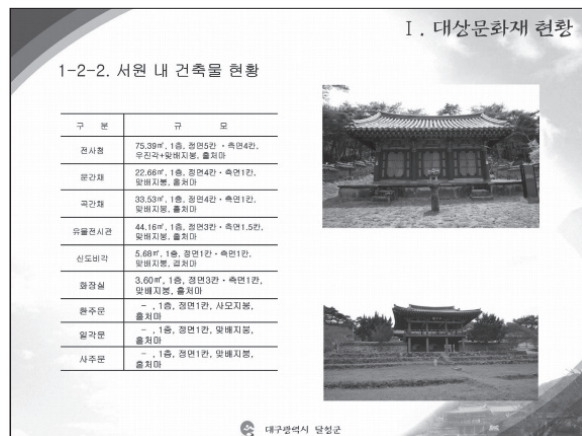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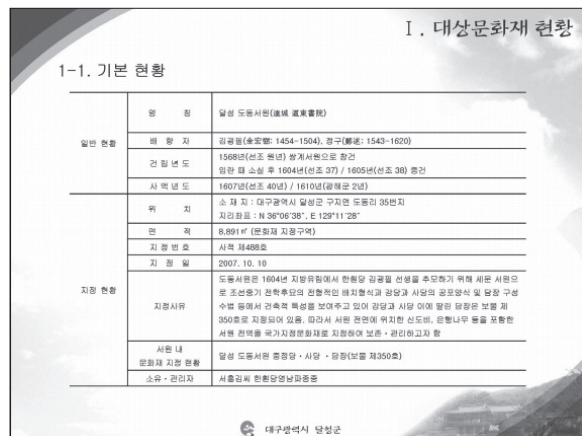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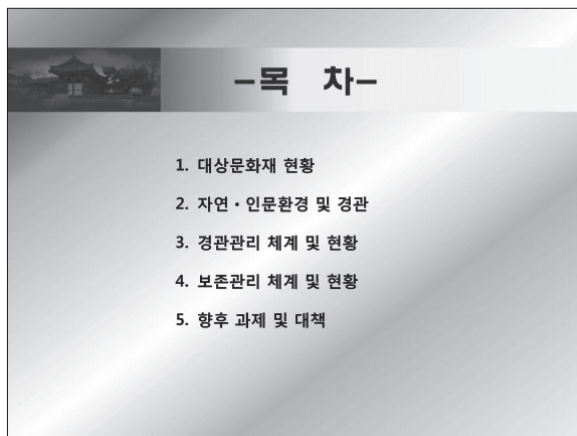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핵심지대(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와 완충지대(경관보호구역-500m)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계획을 수립한다.

4. 향후 과제

1) 종합정비계획 반영 내용

- 주차장 이전 :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으로 이전
- 주변경관복원 : 전통 수종으로 교체경관 복원
- 병산서원 건축물 및 조경 원형복원
 - 만대루 계단 원형 복원
 - 광영지(光影池) 주변 정비 및 서원 내 배수로 정비
 - 만대루 보물 지정
- 문화관광해설사안내소, 관리사무실, 유림사무실 신축
- 미술관 매입 철거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2. 입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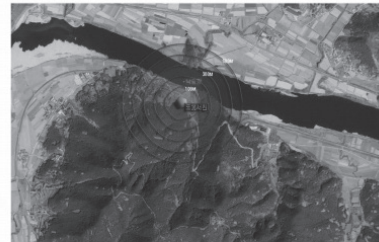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3. 자연환경 분석

2-3-1. 지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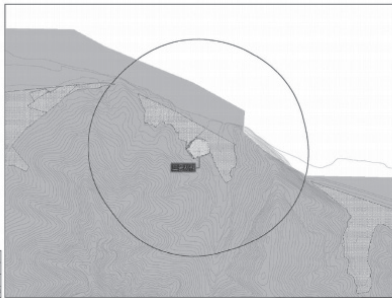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1. 도시계획 현황



지역내외지역
농·어촌지역
자연농림지역
자연농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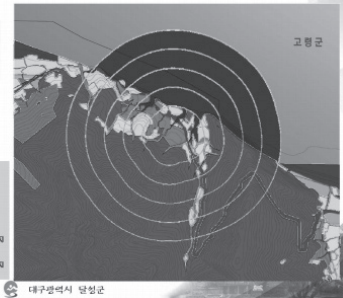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2. 지목 현황

	지	목
종류	면적(㎡)	비율(%)
농지	2%	4%
산지	60%	60%
기타	3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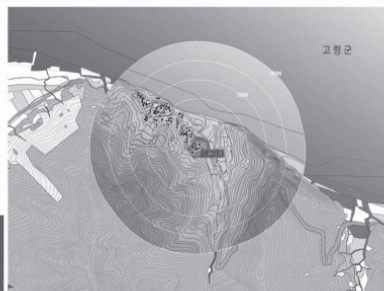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3.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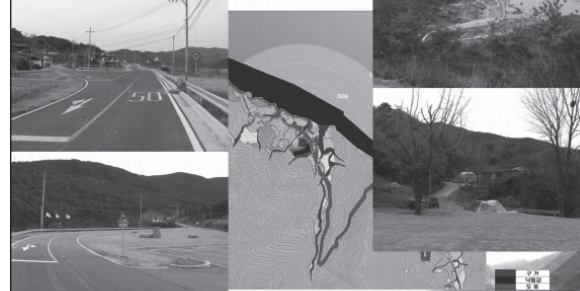
문화재
문화재(1호)
문화재(2호)
문화재(3호)
문화재(4호)
문화재(5호)
문화재(6호)
문화재(7호)
문화재(8호)
문화재(9호)
문화재(1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4. 도로 및 하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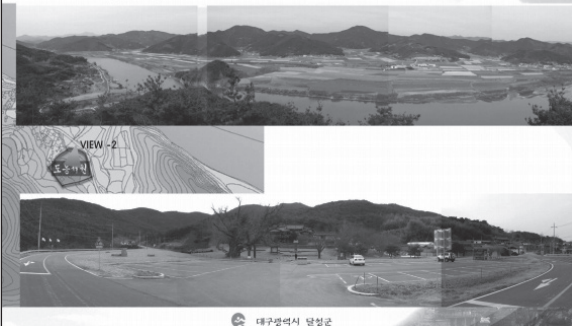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5. 경관분석



대구광역시 달성군

II. 자연·인문환경 및 경관

2-4. 인문환경 분석

2-4-5. 경관분석



III. 경관관리 체계 및 현황

3-1-1. 구역설정 기준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간 구역

문화재의 고립화 및 왜소화를 방지하고 역사문화환경 주변의 배경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 일정 부분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함.

2)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공간 구역

문화재 주변의 산지 경관 및 수경관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산림이나 수계 주변을 자연경관 보호지역으로 설정함.

3)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역

기존 용도지역 및 지목별 현황, 도시계획 현황, 기존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세분화하고 기준안을 마련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III. 경관관리 체계 및 현황

3-1-2. 구역설정 기준

4) 문화재 및 주변 현황분석 자료 반영

- 문화재 및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 건축물, 도로 현황을 고려함
- 경관, 시계분석 자료를 통해 인지성, 조망권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함.
- 도동서원과 인접한 관수정(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6호)의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함.
- 서원과 인접한 마을의 주택, 농가시설 등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개축, 재축에 따른 구역 설정 및 허용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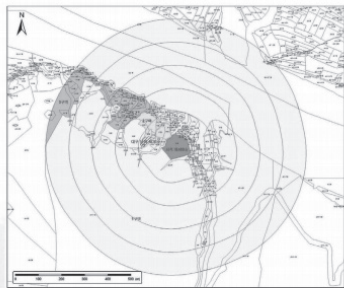
5)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방안

-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경관상의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III. 경관관리 체계 및 현황

3-2.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분	현황 기준	
	문화재	경관지형 (300m 반경)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폐축단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지단형, 용도, 용적률, 용도, 용적률 등 기타 규정 위반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1. 보존관리 재원 및 재정 계획

- 종합적인 보존관리 계획 미수립으로 요인 발생시 단계계획에 따라 조치.
- 문화재보수경비 국고보조사업(문화재청)에 의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예산 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용역 진행 중인 종합정비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재정계획 포함.
- 보수정비사업 투입 예산 총액 (1973-2012년) : 1,549,533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2-1. 보수정비 현황

년 도	사 업 내 용	예산(국·비·지·방·비)
1973	- 내삼문 보수 - 석물담장 현재높이 34cm - C형 단칸벽 설치 1개 - 일교관 설치 1개 - 수물루 신축(2층 현상) 1동 - 총투입 보수공사	7,085,000
1975	- 내삼문 단청 - 총탄소 재배 정비 - 석물담장 현재 보수	6,480,000
1976	- 벽간 보수공사 1.7기 - 일교관 도장기 및 현상 물기	3,782,000
1977	- 용목대 계단 및 기단공사 - 벽공사 및 미로공사 - 일교관 보수공사 - 일교관, 용목대 계단 현재복원	4,678,000
1979	- 관리사 보수 6.65동	2,915,000
1981	- 관리사 확장보수 1동	2,188,000
1988	- 자연석 축대 보수 및 신축 - 사당 좌·우·미로 기단벽 설치 - 내·외삼문 전면계단 축대 보수 - 담장 7m, 용목대 복원 - 광물 방출 및 방열도 도로 29.2동	37,119,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2-2. 보수정비 현황

년 도	사 업 내 용	예산(국·비·지·방·비)
1992	- 소철관 설치	102,700,000
1992	- 용담담 보수 29동 - 고적사 보수 23동	16,951,000
1994	- 용담소 도랑이보수 3.59동 - 용담소 1동 보수	42,079,000
1995	- 사당사당 기단보수 37.2㎡ - 광암 현(미) 보수 - 거지사 보수 24.91㎡ - 거지사 보수 24.93㎡ - 용담소 보수 25.0㎡	27,873,000
1996	- 용담소벽(문화재청관리) 복원(시행)	
1997	- 용담소벽 복구 1.24동 - 용담소 보수 6.78동 - 내삼문, 용담소, 수물루 전면 계단 보수	41,040,000
1997	- 용담소 신축 1동 - 용담소 설치 1기 - 부지선도 및 주차장 설치 - 조망공사 1회	93,490,000
1998	- 대수로 설치 및 양장 보수 78m	15,210,000
1999	- 유물전시관 건립 1동 13.06평	100,000,000
2004	- 사당 정비 및 기단 보수	44,194,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2-3. 보수정비 현황

년 도	사 업 내 용	예산(국·비·지·방·비)
2005	- 도남정지사 복원 (CCTV 90%, 화재·열선정지기 6회분)	63,344,000
2006	- 광암 및 사당 기단 보수 129.52㎡ - 사당 극락이 재사벽 마라공사 49.8㎡ - 사당 단청 79.79㎡ - 방화시스템 구축 (방범·경보설비: CCTV, 화재감지기, 자동소방기)	61,225,000
2010	- 광암 도리 이상 재배 보수 - 수물루 기단고르기 및 단청 - 신도묘역 기단고르기 및 단청 - 주현정비(석축 보수, 안내등 설치, 관리사 진입로 정비, 관행나무 보호막 설치 등)	312,370,000
2010	- 방화시스템 구축 (소형설비: 방수총, 소화관)	225,181,000
2012	- 용담소벽조사 (광암 및 사당 정밀실측, 그 외 간이실측)	150,000,000
2012	- 용담소벽계획 수립 - 건물 중 (용역기간 : '12.12.28~'13.08.24)	56,000,000
	합 계	1,549,533,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3-1. 보존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1) 지자체(달성군)

- 업무 전담 인력 없음.
- 문화재청과 문화재팀(행정직, 학예직, 기술직 각 1명)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와 겸임.
- 보존관리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 일상관리.
- 건물 노후 등 요인 발생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거 보수정비사업 시행.
- 현상변경 허가 기준 등에 의거 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2) 서원(문중)

- 서원리서 문중 내 별도의 관리체계나 운영 조직 없음.
- 대대로 현존한 지역에 세기해 온 8개 문중을 중심으로 한 지역유형이 공동체제로 행사 봉행 및 서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3-2. 보존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3) 현장관리인력(문화재안전경비원)

- 주·야간 상시 근무 (8명: 2인 1조, 2교대)
- 문화재 감시·순찰 및 방화, CCTV 등 방재시설 관리, 제초작업 등 환경경비 수행

4) 기타

-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 (탐방객 안내 및 해설)
- 문화재지킴이 활동 (수시 모니터링, 환경경비 등 자원봉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4-1. 안전관리(소방) 계획 현황

1) 방재시설 현황

구분	소화기		소화전 (호스릴)	방수층	CCTV	화재 감지기	속보기
	분할	합계					
소방설비	40	6	3	3	9	8	1
소방물수 (수원)	약 140ton (지하수조: 사당 뒤편 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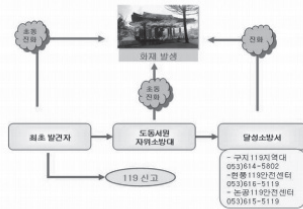
2) 비상연락망

대구시제1안전관리소	대구소방본부	달성소방서
주 10533803-4119 야 10533803-4049	119 상황실 053550-4000	주 10531615-6155 야 10531615-1119
문화재청(문화재안전과)	도청서기	대구광역시(문화재과)
주안 042481-6820-2 야안 042481-4051	국회사 10531617-7629 국사부 0-10531659-4107	주 10533803-3750 야 10533803-2000
기타 유관기관	달성군청(문화체육과)	달성경찰서
선형 : 1588-3119 문부 : 1377-9090	주 10531658-3162 야 10531658-2222	주 10531611-0182 야 10531611-0344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4-2. 안전관리(소방) 계획 현황

3) 비상연락 체계
도

※ 유사시 최초 출동: 달성소방서 구지지역대
- 출동거리 및 시간: 10km / 10분 소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4-3. 안전관리(소방) 계획 현황

4)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시행: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인력에 의한 화재 초동 진화행동요령
숙지, 화재 발생시 문화재 피해 최소화 ⇒ 2009년 최초 작성 후 매년 보완 개선.
-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연 2회(산불, 재난 관련업무 담당부서, 관할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의용소방대 등 훈련 참여).
- 취약시기별 재난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점검 시기	점검 명	주요 점검대상	점검 표
매월초	○ 문화재 안전관리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시설 ○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소방시설 점검표 문화재 안전점검표
2월	○ 해빙기 안전점검	○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문화재 안전점검표
6월	○ 풍수해 안전점검	○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문화재 안전점검표
2월 11월	○ 화재예방 안전점검 ○ 산불예방 안전점검	○ 각종 소방, 가스, 전기 설비 ○ 유류 및 가스저장고 등 ○ 문화재 주변 인접 산림	소방시설 점검표 가스설비 점검표 전기설비 점검표 산불예방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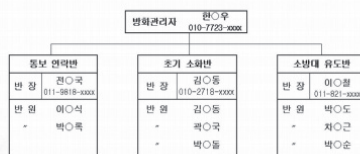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IV.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4-4-4. 안전관리(소방) 계획 현황

4)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전문업체에 방화관리업무 위탁: 방재시설 정기점검(월 1회) 및 미비사항 보완.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주·야간 상시감시체계 구축.
- 자위소방대 구성: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마을 주민 등 ⇒ 유사시 초동대응 태세 확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V. 향후 과제 및 대책

5-1. 보존관리의 문제점

1) 원 경관의 훼손 문제

- 원형경관과 경내·외 시설시설물과의 경관적 부조화.
ex.) 전면부 주차장과 종교도로, 편의시설(버스정류장, 음수대, 경자, 화장실, 안내판 등),
유지관리시설(소화전, 보안등, 방범카메라 등).
- 서원 우측에 자리잡은 민가(마을)와 서원건물간의 경관적 부조화.
- 서원 경내 및 주변의 조경경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형 식재경관의 변형.

2) 보존관리체계의 문제점

- 건축물 중심의 관리 및 예산 투입 ⇒ 인문·무형적 가치의 연구 및 개발 소홀.
- 보존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유지·관리, 조사·연구 등 서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야별로
분리 ⇒ 제도 개선 및 통합된 관리시스템의 마련 필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V. 향후 과제 및 대책

5-2. 개선 방안

1) 향후 과제 및 대책

- 서원 및 주변 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재설정(조정).
- 서원 경내 조경경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현상변경 허가기준 항목 추가(조경) ⇒ 주변 건물, 시설물의 형태, 색채, 자생식 등 조화 유도.
- 9개 서원 공동의 경관관리지침, 통합관리기구(혹은 시스템) 마련.
- 제형의례·강학 제형 등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 서원과 인접한 도동리에 충효체험관 및 숙박등 건물 완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중.
- 행정기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 유도.

2) 기타사항

- 서원 관련 기초자료의 재검토 및 확충 (ex. 중건년도, 사액년도, 본축시설물 명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돈암 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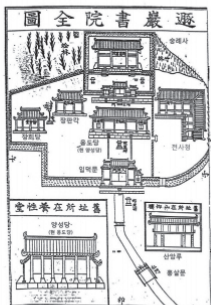
1. 창건배경 및 연혁

충청지방에 有司들이 사계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김장생의 부친이 설립한 정희당과 김장생 자신이 강학하던 양성당을 중심으로 서원을 건립하여 후진 양성

- 1634(인조12) : 연산면 하미리 숲말에 창건, 사계 김경생 봉안
- 1658(효종 9) 신록재 김집, 1688(숙종 14) 동춘당 송준길 1695(숙종 21) 우암 송시열 등향으로 각각 추배
- 1660(현종 1) : '蕉巖'이라 사액
- 1881(고종 18) : 현재의 위치로 이건
- 1971 : 용당동 이전

2. 특징

- 부자(김장생, 김집)가 문묘에 종사된 유일한 서원
 - 배향인을 모두가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先正堂院
 - 효종 10년(1659)에 이어 현종 원년(1660)에 중흥 사액된 특별한 서원
 - 1871년 대한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서원
 - 김장생이 완성한 하록 5가제도의 건축학적 특징이 적용된 건물 구조
- ➡ 기호유교학파의 본산이며 예학의 근거지



01

1. 돈암 서원 현황

3. 배향 인물

-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문인으로 조선 예학의 태두
 - 김집, 송시열, 송준길, 윤순거 등 대유학자를 배출
- 산죽재 김집(金集, 1574~1656)
 -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활발한 학술활동과 아버지 김장생과 더불어 예학의 기본적인 체제 완성

4. 관련 유물

- 내장판: 사계전사 등 7집 7,379판각
- 영정류: 사계 김장생 영정 등 12점
- 교지류: 사계 김장생 문묘 배향 교지
- 저서류: 가례집합 등 11점
- 간찰류: 사계간찰 등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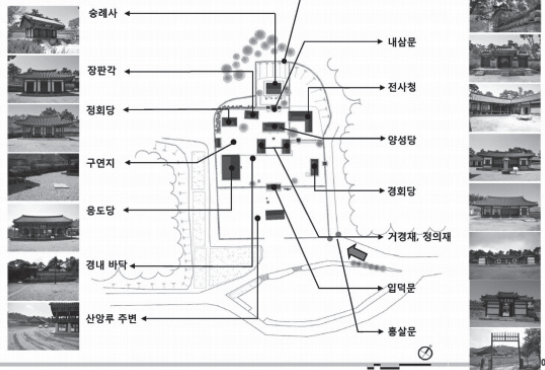


-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72)
- 노론의 영수, 김장생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우고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룸

02

I. 돈암 서원 현황

5. 건축물 현황



03

II. 돈암서원 보수내역

년 도	사업내용	자 입 비 (단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사립비 비 고
1974~1979	장관각, 말안정, 외삼촌, 삼양루(현사청), 용동대, 장성 보수	29,480	5,000	23,900	580
1985~1989	삼양루(현사청), 장관각, 내삼촌 보수, 단청, 복수교 정비	70,000	5,000	65,000	
1990~1991	용동대, 말안정, 내삼촌 보수, 화정실 신축	193,000	24,000	169,000	
1994~1999	창간각, 전차지, 외삼촌 재해복구, 기복소, 사물계, 사주, 천희대 보수, 고지서 개작, 거문계, 정려대 복원	844,547	338,000	494,000	14,547 사적지임 이후
2000~2004	용동대, 사주 보수, 전진로, 석역, 복수교, 개단, 대성 보수	289,378	190,000	99,378	
2005	삼양루 복원, 주자정 및 진립로 정비	572,857	170,000	402,857	
2007	전차지 시설 보수, 침로보수, 주변 정자(민간) 개제, 대성길 복원	400,000	266,000	134,000	
2008	돈암리 유문 토지 매입 및 지장품 철거	2,330,000		2,330,000	
2009~2010	제안정지 시설 설치(방파제공사, 초하문)	400,000	280,000	120,000	
2009~2013	충장정방계개수 공사, 복지 및 민가 개량, 철거, 단사선, 화정당, 유림사 보수, 연곡마을, 주자정 조성 등	8,550,000	3,300,000	5,250,000	
		13,629,262	4,576,000	9,088,135	15,127

04

III. 돈암서원 정비사업 추진 계획

1. 정비사업 내용(2009년 수립)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계	211,035㎡	27,535	
보상	민가 및 토지 매입 면가8등, 토지87,041㎡ 공정, 상가 매입		10,000	
주요 계개공사	단원문화재 정비	건물5호, 마당, 담장 정비	1,815	
교육 문화사업	교육시설 정비	유물장 및 예학관 건립	8,000	
채광공사	채광공간 조성	전통온돌 6동, 자재의제 등	5,190	
편의공간	편의시설 조성	주자당, 화장실, 파고라 등	420	
조경 및 기타 도시설치	기타 도시설치	우회도로 개설, 전선주 지중화, 조경	3,850	

○ 재원확보

- ※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의거 문화재 보존 및 정비
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우선순위

구분	사 업	내 용
1단계	• 기반사업	- 건물, 토지매입 - 광장 정비 - 화장실 건립
2단계	• 핵심사업	- 유물관, 예약관 건립 - 체험시설(한옥마을) 조성 - 연지조성, 초당건립
3단계	• 주변마무리 사업 • 관리운영사업	- 조경, 배수로, 석축

-108-

III. 돈암서원 정비사업 추진 계획

2. 종합배치계획



Lee

III. 돈암서원 정비사업 추진 계획

3. 활용계획

○ 유교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

- 사계 김장생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학자로 기호고문화의 뿌리를 형성한 인물로 그의 학문과 사상을 후세에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 전통문화인류로서 긍지를 함양토록 함

○ 역사문화관광코스 제공 관광객 유치

-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운종고택, 계백장군, 관학사, 향계사, 개탄사지, 향산방 전적지, 탑침호 저수지 등이 있는 바, 주변 자연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제공, 관광객을 유치토록 함

○ 지역특산을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 논산은 딸기를 비롯하여 감귤의 첫달, 연산 대추, 오물계, 양론의 굴감 등 많은 지역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바,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계기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4. 관리·운영계획

- 현재 돈암서원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됨

구분	주관	장단점
1안	논산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의 보호, 관리 활동 용이 - 인접한 계백장군 묘, 백제 군사박물관 등과 연계관리 가능
2안	관산김씨 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운영 등 전문지식 미흡으로 관리부실 우려

07

IV. 서원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구분	현황 및 문제점	대책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논산간 국도, 호남선 철도가 통과 • 접근성이 뛰어나나 진출입 환경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환경 적극 개선 • 관광요사로 활용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후기 율곡(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서울, 경기, 충청, 진라도를 대표하는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서원임에도 인지도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활용방안 마련 및 홍보 • 유물관, 예학관 등 도입 활성화
유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숭례사, 용도당, 양성당, 장판각, 거경재, 정외재 등 유적 관리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시설물 정리가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을 보수 정비 • 역사성을 더욱 부각 • 교육장으로 활용
주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전면부에 마을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전신주가 노출, 유적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및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우선 제거 및 자체원 조성
편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를 찾는 탐방 및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방향표시판 등 편의 시설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 • 관광객 적극 유치

강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
기호문화의 중심유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존 방안 마련

08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필암서원 현황

- 문화재명 : 장성 필암서원(長城 筆巖書院)
- 지 정 별 : 사적 제242호(1975. 4. 23. 지정)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외 46필지(장성군 필암서원로 184)
- 부지면적 : 48,303㎡(지정구역 5,832㎡ 보호구역 42,471㎡)
 - 소유별 : 국유 6,816㎡(14필지), 군유 32,712㎡(27필지), 필암서원 8,775㎡(6필지)
- 소유자 : 필암서원(울산김씨 문정공 종중)
- 시설현황
 - 필암서원 : 확연루, 청절당, 동재, 서재, 우동사, 장판각, 전사청, 한장사, 고직사 등
 - 유물전시관 : 목조 지하1층, 지상 1층 538㎡, 2008년 5월 개관, 보유유물 3,795점
 - 집성관 : 철콘 지하 1층, 지상 1층 1,986㎡, 2010년 3월 개관, 교육과 숙박시설
 - 전통조경 : 42,471㎡, 유물전시관, 집성관, 정자, 연못, 화장실, 주차장, 조경 등
- 연혁
 - 1560년(명종15) 하서 선생 타계
 - 1590년(선조23) 하서 선생 서거 31주년 즈음 유생 공의로 장성 기산 아래 창건
 -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으로 소실
 - 1624년(인조2) 황룡면 증산동 龜山洞마을에 다시 세움
 - 1658년(효종9) 호남 유생들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 올림
 - 1659년(효종10) 사액에 대한 왕의 허락 받음
 - 1662년(현종3) 필암(筆巖)이란 선액(宣額)을 받음
 - 1672년(현종13) 3월 증산동에 물난리가 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현 위치로 이건
 - 1777년(정조1) 고암(鼓岩) 양자징(梁子徵) 추배(追配)
- 보유 문화재
 -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 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 文籍 一括) : 14책 64매
 - 지유 제215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문집 목판(長城 筆岩書院 河西先生文集 木板) : 650판
 - 지유 제216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목판 일괄(長城 筆岩書院 河西遺墨木板 一括) : 56판

2. 보존관리 현황 및 과제

1) 필암서원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 부서의 역할과 업무

- 필암서원은 장성군과 서원 소유자인 울산김씨 문정공중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원 보수와 주변 시설물(화장실, 유물전시관, 집성관, 전통조경지 등)은 장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서원 내환경정비는 고직사에 거주하는 문중 관리인(김창봉)이 관리하고 있다.
- 장성군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와 문화예술단체 등을 담당하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지 홍보와 축제를 담당하는 관광진흥담당, 관광지를 개발하는 관광개발담당,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관광담당, 테마파크·관광지를 관리하는 테마파크담당,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육지원담당 등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연차적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문화재지정 및 해제, 매장 문화재 관리,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자료 발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필암서원 보수·관리업무는 문화예술담당에서 필암서원 보수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테마파크담당에서 유물전시관(원진각)·수련관(집성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필암서원의 보존 관리 재정

-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2000년 이전의 필암서원 보존 관리 재정은 문중에서 부담하는 춘·추향제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였으나, 2013년 현재에는 장성군에서 필암서원 내 시설물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시설관리비로 13,020천원, 필암서원 백일장, 선비학당, 생생문화재 활용 등 서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로 66,200천원, 유물전시관, 수련관 운영 관리비로 84,220천원 등 총 163,220천원의 예산으로 필암서원 및 주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 앞으로 시설물 관리 운영 뿐만 아니라 필암서원과 주변시설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3) 세계유산 신청 서원의 현재까지 보수 내역

- 필암서원 보수·정비사업 추진내역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등 문헌이 비교적 잘 보관중인 1990년 이후의 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00~2008년 사업은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	17,760,721	10,504,306	6,923,405	-
1990	옥외 소화전 설치	35,000	17,500	17,500	-

연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1991	내삼문 보수	7,142	5,000	2,142	-
1992	동·서재 등 보수	77,580	54,306	23,264	-
1993	청절당, 확연루 보수	71,428	50,000	21,428	-
1995	담장 보수	15,000	10,500	4,500	-
1996	화장실 개축	50,000	-	50,000	-
1997	청절당, 고직사 등 보수	100,000	70,000	30,000	-
1998	유물전시관 건립	797,143	250,000	547,143	-
2000	토지매입, 건물 보수 등	4,300,000	3,000,000	1,300,000	-
2002	오수처리시설 설치	428,571	300,000	128,571	-
2003	부지조성, 발굴 등	2,571,428	1,800,000	771,428	-
2004	전통조경, 주차장, 화장실 등	2,571,429	1,800,000	771,429	-
2005	진덕원, 송의관 건립	3,600,000	1,800,000	1,800,000	-
2006	유물전시관 증축	2,000,000	1,000,000	1,000,000	-
2008	진덕원, 송의관 마무리	576,000	288,000	288,000	-
2009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60,000	42,000	18,000	-
2010	전통조경지 재선충병 방제	60,000	42,000	18,000	-
2011	재난방재시스템 설치	340,000	238,000	102,000	-
2012	시설물 차폐용 조경	100,000	7,000	30,000	-

4)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년도 및 수행 내용

- 필암서원 기본계획은 1998년 7월 필암서원 성역화사업 기본계획(280억) 수립 후 문화관광부에 필암서원 성역화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절차(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검토를 거쳐 2002년 3월에 당초 사업규모보다 축소된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기본 계획(177억)이 승인되었다.
- 필암서원 주요내용으로는 주변 토지매입, 건물 보수, 유물전시관 증축, 수련관 건립, 전통조경, 주차장 설치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계	-	177억원	-
1차년도	2000~2001	43억원	· 기본계획 용역,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 편입토지 매입 · 서원 보수 및 주변 기반정비
2차년도	2002	4.3억원	· 오수차집관로 설치

구 분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3차년도	2003	25.7억원	· 성토 등 부지 조성(오수, 배수, 도로 등) · 도로개설및주차장설치 · 지중화사업 및 배수시설 설치
4차년도	2004	43억원	· 전통 조경 및 조경 시설물 설치 · 유물전시관 증축
5차년도	2005	61억원	· 관리시설 및 휴게시설 · 수련관(진덕원, 송의관) 건립

-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은 **2010**년에 필암서원 집성관을 건립하여 최종 마무리 되었으며 총 사업비 **16,047**백만원(국비 **9,988**, 지방비 **6,059**)이 소요되었다.

-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전 · 후 비교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5) 필암서원의 보존 관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과제

- 필암서원은 문중 소유(울산김씨 문정공 종중)로 서원 자체 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추후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필암서원 주변 경관 보존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내 주택을 건축할 경우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이 포괄적으로 세세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위 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에 대한 세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지붕 형태, 벽체 마감 등)

표1. 필암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필암서원 인접 주택



필암서원 인접 체육시설

- 세계유산 등재 지표 중 하나인 진정성은 필암서원 기본계획에 따라 건립된 유물전시관, 수련관의 규모가 필암서원에 비해 웅장하고 이격거리가 가까워 필암서원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필암서원과 건물간 일부 차폐조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정성 복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필암서원 활용 사례



청년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활동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필암서원 선비학당



청림문화 체험교육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함양 남계서원 현황

1) 연혁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위치한 함양 남계서원은 1972년 2월 16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어 오다가 2009년 5월 26일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회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간 핵심공간이자¹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림세력들의 관념세계가 반영된 성리학적 이상세계였다.²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조선시대 5현(五賢) 및 동국(東國) 18현(十八賢)중의 한 분인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소수서원(백운동서원)에 이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사액서원이다. 1566년(명종 21)에 나라에서 ‘남계’라는 사액을 내려 공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정유재란(1597)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1603년(선조 36)에 나촌(羅村)으로 옮겨지었다가, 광해군 4년(1612) 옛터인 지금의 위치에 다시 지었다. 숙종 때 개암 강익, 동계정온을 더하여 모셨다. 조선 후기 1868년과 1871년에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적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던 47개 원사(院祠)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은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의 기능만 남아있으며, 왕이 하사한 서적과, 노비, 토지 중 현재까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권, 『경서정문』(經書正文) 4권, 『고려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어 제례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2) 주요 역사인물(일두 정여창)



함양 상림공원의 일두 정여창 흉상

① 실천유학(성리학)의 대가

- 동방 5현, 동국 18현으로서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234개 향교와 9개의 서원에서 배향하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이며 실천유학자이다.
- 성리학자로서 이기론, 심성론, 선악천리론 등의 사상을 기초로 소학과 가례의 실천적 효행에 모범을 보였다.

② 충과 효의 실천 생애

- 충과 효를 실천한 일두 선생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며 특히 부모에 대한 효행은 삶의 전부였다고 칭해진다.
- 일두 정여창의 생애

1. 이미영, 2006

2. 이상해, 1998 ; 김상협, 2000

연도	주요 내용
조선 세종 32년 (1450년)	5월 5일 함양 지곡면 개평에서 정육율과 경주최씨 사이에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
17세(세조13)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다 아버지 전사, 전쟁터의 함경도로 달려가 시신을 찾아 운구하여 묘소를 마련하고 시묘생활
22세(성종2)	경기도 이천에서 이관의 선생 문하에서 성리학의 기초를 확립
24세(성종4)	동생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수학
27세(성종7)	상경하여 김종직 문하에서 사서를 깊이 연구하고 한훤당 김굉필과 함께 도의를 강설
31세(성종11)	성균관에유학,같이수학한14인중일두는도학에전념
33세(성종12)	하동 약양정으로 내려가 학문을 연구
34세(성종14)	어머니 권유로 사마시에 2등으로 급제하고 성균관에 유학하여 성리학의 대가로 추앙받았으며, 이후 김일손, 강훈, 김종직 등과 자주 만나 강론
36세(성종17)	모친상(함양군수 조위가 조문함, 3년상) 치름
39세(성종20)	가족을 데리고 약양으로 이사하여 학문을 연구
40세(성종21)	김일손과 16일간 두류산을 등정, 대과 준비를 위해 성균관에 입학하니 성종은 그의 학행을 알고 소격서참봉을 제수(직접 벼슬을 내림)하였고, 문과급제 후에는 예문관검열에 보직
41세(성종22)	세자 연산의 시강원설서로 특진하여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음
44세(성종25)	외직을 자원하여 안의현감(종5품)으로 부임, 왕도정치를 실현
49세(연산4)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난언죄를 적용, 9년 시한으로 종성으로 귀양(관청 화부로 노역)
54세 (연산 10.1504.4.1)	유배지인 종성에서 서거-제자들이 2개월 동안 운구하며 6월에 수동면 승안산에 묘소를 마련
1507년(중종12)	대광보국송록대부 우의정으로 증직
1552년(명종7)	남계서원에 봉향
1568년(선조1)	문헌공 시호가 내려짐
1584년(선조17)	안의면민이 향사당 건립(경상남도 문화재)
1610년(광해2)	문묘에 종사

③ 추모 및 기념행사의 지속

- 일두 정여창 선생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함양 상림공원 다별당에서 기념행사를 실시(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유도회, 남계서원에서 후원)
- 행사의 주요내용은 가묘제, 작헌의례, 송모 시가행진,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한시 및 추모 시집 발간, 기념문집 발행 등으로 구성

3) 소장자료³⁾

(1) 소장 자료의 전래

서원은 도서를 보관하고 간행하는 도서관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남계서원도 건립 초기부터 서적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원장인 강익은 유사를 임명하여 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기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서를 늘여갔다.

3. 「남계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백지국(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남계서원의 「서원보부록」에는 기증, 원비(院備), 내사(內賜) 등의 방법으로 서적을 마련한 방법과 서책의 목록, 권수가 기재되어 있다. 기증은 지방관과 중앙의 관료, 함양의 사림들이었고, 사액을 내릴 때 교육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내려준 내사본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서원에서 돈을 마련하여 구입한 서책들이었다. 특히 지방관들이 기증한 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나 고을 수령이 순행이나 부임 인사로 서원에 들러 알묘하면서 책을 기부하였고, 서원에 모셔진 선현의 후손이나 외손 등 혈연 관련이 있는 고을 수령들이 책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지방관이 보낸 책은 자기의 책일 경우도 있고, 현직에 있을 때 관권을 이용하여 간행한 책인 경우도 있고, 또한 예전에 고을에서 간행해서 관아에 보관하고 있는 책을 보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서적의 종류는 논어, 시경 등 경전류, 근사록,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 성리서류, 사략, 통감, 춘추 등 역사서, 그리고 문집류 등이었다. 서원도서가 경사류, 문집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서의 편파성, 편당성, 학문 경향의 침체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는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학문 경향과 사회 지향을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계서원의 도서들은 정유재란 때 왜군들의 분탕질로 모두 약탈되거나 불타버렸다. 심지어 내사받은 서적도 분실할 정도였다. 전란 뒤에 도서 확보에 노력을 하여 향교의 서적을 옮겨오기도 하고, 지방관의 기증, 사림들의 회사, 서원에서의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종이를 구입하다가 판본이 있는 전라도 고을에 보내 책을 찍어오기도 하였다.

남계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적관리에 유의하여 습기 찬 책들을 햇볕에 내어 쪼이는 장서(曝書)를 하기도 하였고, 간혹 도서를 간행하기도 하고 간행한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도 갖추고 있다.

(2) 소장자료 현황 및 발간

남계서원은 경남지역 내 중요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서원 중 하나이다. 남계서원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는 다음과 같다.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는 당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서원 소장 도서의 목록을 조사하여『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目錄考』를 간행하였다. 성균관대학의 이춘희 교수가 전국을 실지 답사해 가며 조사·정리한 것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전국에 남겨둔 47곳의 서원 중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36곳이었다. 이 중 강원도의 褒忠祠와 忠烈書院은 한국 전쟁 때 소실되어 실재 현존 서원 수는 34곳 이었다. 지방별로 보면 경상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그 다음이 경기도 11곳, 충청도 5곳, 전라도 3곳, 강원도 3곳 순이다. 34곳의 서원중 실지 답사하여 서책의 유무를 확인한 곳은 17곳, 서신에 의해 확인 한 곳은 서원이 4곳으로 총 21곳의 서원에서 藏書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계서원의 경우 59種 317冊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目錄考』의 원문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남계서원 소장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것 중 가장 상세한 것은 2005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이다. 당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경상남도 10개시·군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44곳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 : 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1,2}와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책판목록』 3종 3종의 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계서원에는 『寒州先生文集』·『桐溪先生文集』·『松灘集』등 여러 학자들의 문집류를 포함한 고서류가 147건, 각종 장부와 통문, 간찰 등의 고문서가 717건, 현판을 포함한 민속·유물자료가 5건,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책판 377건이 소장되어 있다.

(3) 서원의 조직·운영 관계자료

서원의 조직·운영 관계자료는 남계서원지(瀨溪書院誌)를 비롯하여 경임안(經任案)·원생록(院生錄)·부보록(裋寶錄), 그리고 이들 단회성(單回性) 기록을 종합한 존위록(尊衛錄) 등이 있다.

가. 남계서원지(瀨溪書院誌) : 필사본으로 남계서원 건립연혁, 배향인물 등 사적(事蹟)을 기록하고 있다. 일제시대 서적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담당관의 「출판허가(出版許可)」의 검인이 찍혀있으며 내용 중간에 검열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본의 출판문에 대한 검열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범례에 의하면 원지는 1875년(乙亥)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로 편찬된 것이다. 내용은 권 1·2(一·二)로 나누어져 있다. 권 1에는 지명연혁·서원사적, 권 2에는 별묘사적(別廟事蹟), 선생사실절략(先生事實節略), 뇌계선생사실절략(濡溪先生史實節略), 개암선생년보절략(介庵先生年譜節略), 동계선생년보절략(桐溪先生年譜節略), 송탄선생사실절략(松灘先生事實節略) 등이 실려 있다. 남계서원에서는 이상의 『남계서원지』 외에 2종의 남계서원지를 소장하고 있다.

※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계서원지』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瀨溪書院誌』(등록번호 : a44013242;y01)
- 남명학교문헌시스템 소장 『瀨溪書院誌』(소장번호)

나. 경임안류(經任案類) : 경임안(經任案)은 원생안(院任案) 또는 원임록(院任錄)이라고도 하며 원장(院長), 유사(有司), 전곡유사(典穀有司) 등 서원 임원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으로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던 인물들이 실려 있다. 경임안은 성책(成冊)된 분량만큼 명단을 추기(追記)하다가 문서가 마멸, 혹은 훼손이 있을 경우 다시 별책(別冊)을 정서(正書)하였다. 1612년(광해 壬子) ~ 1682년(숙종 壬戌) 71년간의 경임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란으로 인해 이때의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다. 원록류(院錄類) : 원록(院錄)은 원생록(院生錄), 입원록(入院錄), 서원유생안(書院儒生案)이라고도 하는데 서원에 입적(入籍)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초기의 원록을 보면 정구에 하응도, 박이장, 하혼안도, 문경호, 정경운 등 남명(南冥)의 핵심 문도들이 망라되어 있어 남계서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라. 부보록류(哀寶錄類) : 부보록(哀寶錄)의 용도와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는 1565년(명종 20)강익의 43세 때의 연보에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 「부보(哀寶)」란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곡을 모은다는 뜻으로 부보록은 일종의 기부금 장부라 할 수 있다. 부보록에는 「가보(加寶)」란에 그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보한 내역을 살펴보면 벼, 콩, 서적(書籍), 노비(奴婢), 어물(魚物), 염(鹽), 종이 등 다양하였다. 남계서원에 있어서 부보의 관행은 서원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교육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마. 존위록류(尊衛錄類) : 남계서원의 역대 사적 중 원생안(원록) · 경임안 · 부보록 3편을 각각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존위록은 「朝野縉紳」 및 「嶺南名門」 태반이 입록되어 있는 서원의 400년 사적(事蹟)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존위록은 1961년 겨울에 원의(院議)로써 간행에 착수하여 1962년 가을에 완성, 배포하였다. 편찬은 각 문중별로 정단을 통해 이를 편집, 간행하였다.

존위록은 모두 4종류가 있는데 먼저 제출한 단자(單子)를 편차를 거쳐 편집한 초고본(草稿本),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서한 초본(抄本), 그리고 이것을 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있다. 발문(跋文)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웅만한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바. 참제록류(參祭錄類) : 참제록(參祭錄)은 서원의 춘추제향(春秋祭享) 때 헌관(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 판진(判陳), 집사(執事), 학생(學生) 등 직임(職任)을 맡은 사람을 기록한 명단이다.

(4) 소장자료사진



일두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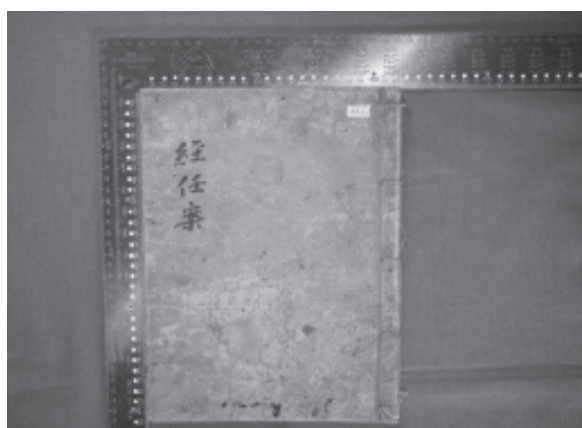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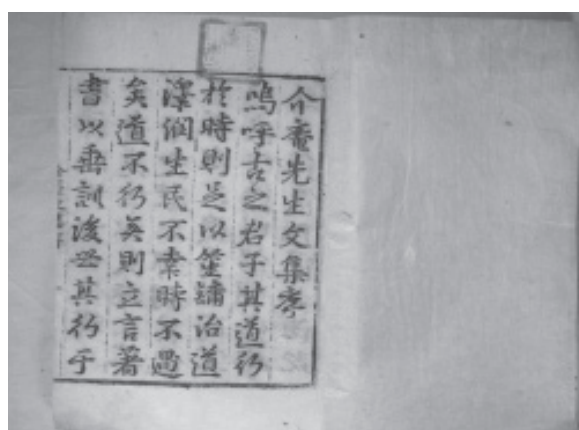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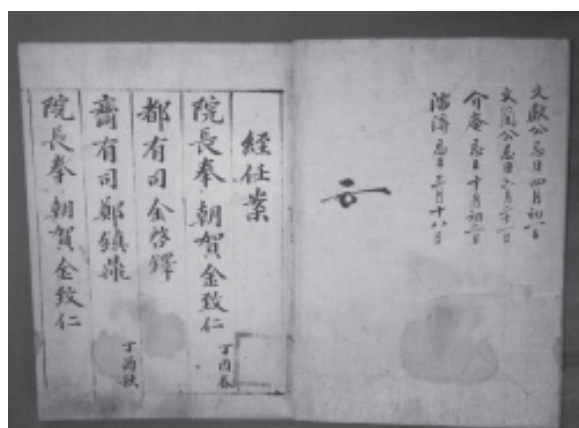
남계서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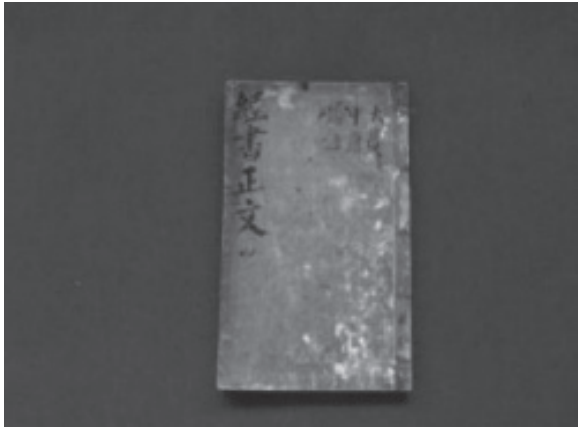


개암집



경암안





경서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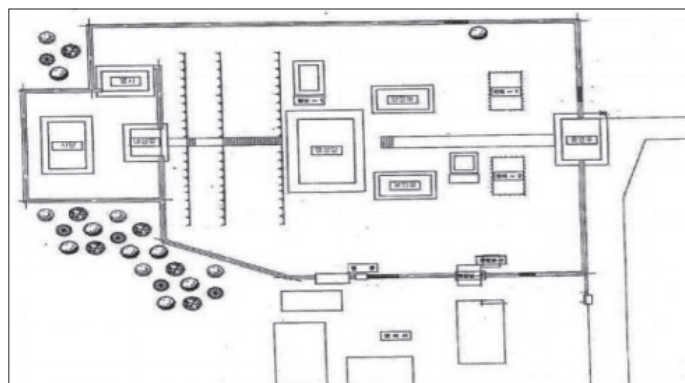
어정오경백편



4) 남계서원의 구조 및 경관

(1) 배치

남계서원의 건축구성은 조선시대 서원의 특징과 같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양식을 따르고 있다. 뒤쪽 높은 곳에는 제향공간인 사당, 동무, 내삼문이 있으며, 앞쪽 낮은 곳에는 강학 공간인 강당(명성당), 동재(양정재), 서재(보인재), 장판각, 풍영루, 비각이 있다. 특히,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의 방형연지 2개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원건축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배치도

남계서원의 주 출입구인 풍영루는 정면3칸, 측면2칸 5량구조에 팔작지붕, 겹처마이며 하부 기둥은 팔각형의 장대석주로 하였고 누마루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강당은 겹처마이고 평면의 구성은 방1칸, 대청2칸, 방1칸으로 전면에 마루를 두고 개방하였으며 강당 전면 좌우에 대청으로 동서재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양재는 경사지에 배치되어 1칸은 방, 1칸은 누마루 형식의 대청으로 하였으며 동재를 양정재, 애련헌, 서재를 보인재, 영매헌이라 하며 전면에 현판이 걸려있다. 동서재 앞에는 각각 방지를 두었고 서재 앞에는 신도비와 맞배지붕의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강당의 측면에 정면2칸, 측면 1칸의 판장벽과 판장문으로 된 우진각 지붕의 장판각이 배치되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의 5량 구조 맞배지붕 겹처마로 전퇴를 두고 개방하였으며 동무는 정면 3칸의 3량 구조 맞배지붕이고 내사문은 정면 3칸의 맞배지붕 평대문 형식이다.

(2) 남계서원의 입지와 의미⁴

서원의 입지는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는 관학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행정적으로 조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서원 제도에 함유된 유가적 은둔사상 등과 연계되어 있음도 중요 사유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우주의 이치를 궁리하며 성정을 도야해야 한다는 성리철학은 거경궁리(居敬窮理)의 공간으로서 자연의 질서를 배우기 적합한 기준 또한 입지 선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요구되었다.

“좌강(左江) 안동, 우강(右江) 함양”이라는 말은 함양 사람들이 이 지방을 자랑할 때 쓰는 말로 곧, 낙동강의 동쪽 땅인 안동과 낙동강의 서쪽인 함양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남계서원은 일찍이 영남지방의 많은 서원 가운데서도 우 함양의 기틀을 이룬 정여창을 모신 서원으로서 오랜 세월 역사와 더불어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남계서원의 풍수 지리적 면모는 표고 443.2m의 연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좌우로 뻗어 나온 산줄기가 에워싸고 앞으로는 남계천이 흐르고 있다. 연화산은 정여창의 생가인 개평마을의 조산(朝山)을 이름으로서 생거사유(生居死幽)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⁵

주산 좌우에는 낮은 봉이 감싸고 백암산을 안산으로 득수 형국을 이루는 구릉에 위치하여 신향인좌(申向寅坐),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지에 자리 잡았다. 전방은 원경으로 저봉이 우뚝 솟아 시각적 초점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위요경관을 이룬다.⁶ 남계(瀟溪)라는 명칭은 수동의 물 수(水)자와 연관되며, 넘칠 람(瀟), 계곡 계(溪)는 풍수적으로 물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태인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을 이루는 명처에 자리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4. 발췌 :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4호(2009년 10월) 「치와 화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노재현 · 심상섭 교수

5. 최기수, 2007

6. 양수룡, 1979

한편, 그림 1의 풍수사신사와 연계시켜 볼 때 남계서원은 풍수 혈자리에 강당이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사당이 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서원의 배치와는 다른 구조이다.⁷

특히, 남계서원 사당 뒤쪽 배산에 해당하는 승안산 기슭에는 정여창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어 생과 사의 중용공간 거점에 서원이 놓여 있음도 매우 주목된다.

특히, 남계서원은 남계천 너머 정여창이 태어나 살던 개평마을이 원경으로 조망되는 비산비야의 소구릉지에 위치하는데(그림 2 참조), 서원에서 전망이 가장 탁월한 사당 담장아래 배롱나무 옆에 서면 근경으로 원평마을 일대가 차경되고 남계천 너머 개평마을 원경권역까지 광역경관으로 전개된다.

강익기가 명종 21년(1566년)에 기술한 남계서원기⁸에는 건물에 대한 이름붙이기의 연유와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리학적 가르침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유래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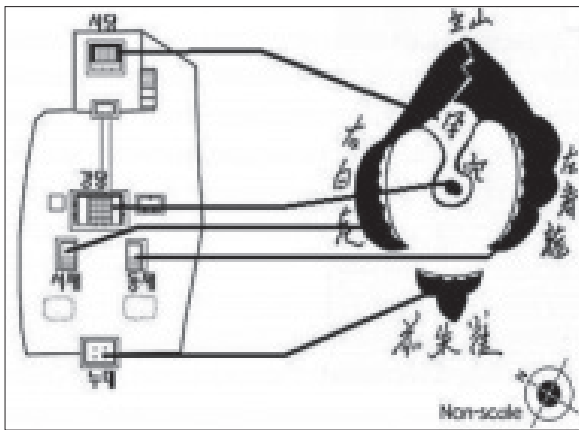


그림 1. 남계서원의 배치와 풍수사신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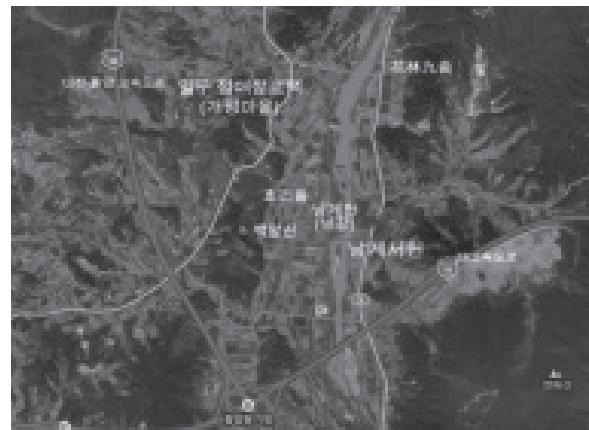


그림 2. 위성지도

표 1. 남계서원 건물명에 깃든 의미

건물용도	명칭 또는 기호		의미	비고
서원	남계서원		서원이 남계수 위에 있음	풍수적 연화부수형 형국, 유교예제와 풍수조화
강당	명성당(明誠堂)		중용의 명치성의(明則誠矣)의 뜻을 따름	서원 중심으로 강학과 토론의 장소
강당 협실	좌	거경(居敬)	정자의 말씀 거경궁리(居敬窮理)	성현의 말씀
	우	집의(集議)	맹자의 말씀 집의이생(集議以生)	
재실과 동헌	동	양정재(養正齋)	역경의 몽이양정(蒙以養正)	원장과 원생들의 숙식 및 독서공간
		애련헌(愛蓮軒)	주돈의 애련설 · 연꽃을 사랑하는 집	
	동	보인재(輔仁齋)	증자의 이우보인(以友輔仁)	
		영매헌(永梅軒)	군자의 거처 · 매화를 읊는 집	

7. 장영훈, 2005

8. 함양문화원, 2001

건물용도	명칭 또는 기호	의미	비고
대문	준도문(遵道門)	도를 준수하는 문	사당으로 이르는 경계
사당	-	북현무 조산	선조 또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제사공간
장판고	장판각(藏板閣)	-	관본이나 서적 보관 장소
루	풍영루(風詠樓)	남주작 안산, 풍수 비보책	유생들의 서작, 사색 및 여가공간, 풍류처
제기고	전사청(典祀廳)	-	제사에 필요한 제기 마련 장소
고직사	-	유교적 하위 위계	서원의 관리, 식사준비, 원노들의 거처

남계서원의 서원명에서 발견되는 공간성과 풍수사신사의 공간의미는 누와 사당 그리고 강당의 배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동재의 애련헌(愛蓮軒)은 주돈의 애련설과 함께 서원이 입지한 연화산과 일체감이 반영된 풍수적 연화부수형의 형국론을 대입시킨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강당과 동서재에서는 맹자의 집의이생(集議以生), 증자의 이우보인(以友輔仁)은 학문수양의 인성론을, 정자의 거경궁리(居敬窮理)는 학문수양의 방법론을, 증용의 명칙성의(明則誠矣)는 교육의 의미론을, 역경의 몽이양정(蒙以養正)은 교육의 목적론을 성리학적 가르침 등과 연계하여 표상화시키고 있다.

한편, 사당과 강당 그리고 동재와 서재, 누삼문의 명칭을 풍(風)과 수(水), 매(梅)와 연(蓮), 정(正)과 인(仁) 등으로 부여하고 있는 등 풍수적 관점이 깊숙이 개입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곧 서원이라고 하는 강학기능과 제향기능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공간의 물리성 뿐만 아니라 지향하고자 한 정신적 의미까지 일체화시킴으로써 건축을 주도한 개암 강익선생 등 일두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의 사상이나 철학 또는 현실적 욕망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간성을 정신세계로 확장시키고자 한 형이상학적 경관짜임을 발견하게 된다.

(3) 남계서원의 조영 연대기⁹⁾

시기	조영내용	비고
1552년	강익과 서구연 등에 의해 서원 건립 결의	-
1559년	강익과 군수 윤확이 강단 역사를 마침	강당
1561년	묘우(廟宇)의 구역이 완성	사당
1564년	동서재와 연지 조성	-
1566년	남계서원으로 사액	-
1597년	정유재란으로 서원 소실, 위한 임시 봉안	-
1605년	나촌(羅村)으로 이건	-
1605년	사우 이건, 위판 봉안	-
1612년	남계의 구지(舊地)로 서원 이건	-
1634년	강익의 사당을 남계서원으로 이건, 별묘형성	-

9. 발췌 :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4호(2009년 10월) 「치와 화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노재현 · 심상섭 교수

시기	조영내용	비고
1675년	동계 정온 등을 추가 배향	-
1779년	묘정비 조성	-
1841년	풍영루 건립, 1847년 소실, 1894년 중수	-
1868년	철폐령에 따라 별묘 훼손	-

5) 주요 건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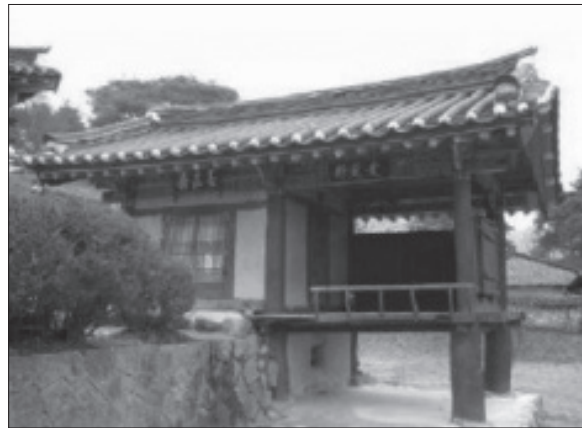
남계서원 전경



풍영루



영매헌과 보인재



애련헌과 양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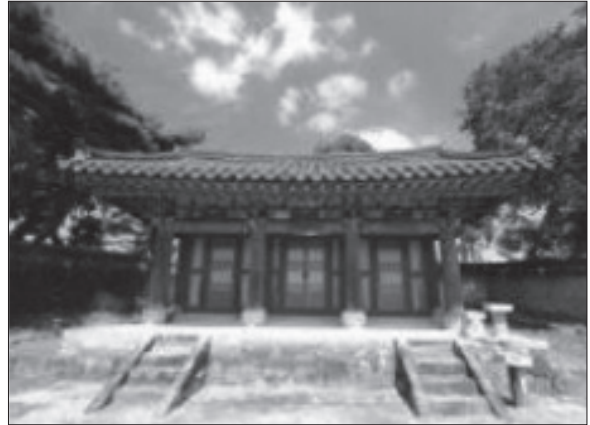
명성당



비각



내삼문



사당



연지(東池)



2. 주요사업현황

1) 보수내역

일자	사업비	내 용
계	688,715천원	-
1984.10.29 1984.12.21	5,662천원	제실 보수
1990.04.12 1990.06.22	18,550천원	-
1992.07.15 1992.10.12	17,970천원	경판각, 화장실 보수
1994.07.20 1994.09.06	43,200천원	사당, 내삼문 보수
1996.07.22 1996.10.01	40,400천원	보인재, 양정재보수, 홍살문 해체 후 신설
1997.12.27 1998.07.01	145,630천원	별사, 비각 보수

일자	사업비	내 용
2004.08.16 2004.11.30	35,673천원	보인재, 풍영루 좌측담장 보수, 연지석축 보수, 연지배수로 보수, 양정재 기단 보수(미장철거, 강회다짐)
2006.05.18 2006.07.12	38,582천원	남계서원주변 송림 보호공사 - 재선충 방제, 대나무 등의 잡목제거
2006.10.16 2007.01.14	47,830천원	담장보수 L=75.8m (A구간4m, B구간 13.3m, C구간 17m, D구간 41.5m)
2010.10.19 2011.01.16	49,039천원	남계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옥외소화전 : 자탐시설 8개소
2011.03.22 2011.05.20	35,086천원	남계서원 CCTV설치공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CCTV9대 설치, 감시 및 제어 녹화시스템 1식 (관리사에 비치)
2011.12.14 2013.02.22	211,093천원	남계서원 보수공사 - 풍영루 1식, 경판고 1식, 담장 보수 L=44m, 화장실 정비 1식

2) 향후 보존계획

- 현재 풍영루, 경판고, 화장실, 담장의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보수 및 주변 정비 등 시행 예정
- 서원종합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서원주변정비 계획

3. 보존관리체계 현황

1) 관리주체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2) 관리자

연번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055-960-4372	-
2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주사	배성호	055-960-4641	-
3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주무관	조영정	055-960-4447	-
4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주무관	문정원	055-960-4535	-
5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주무관	임민규	055-960-4253	-

3) 관리부서의 역할과 업무

- 남계서원의 보존 및 보수정비사업 추진
- 남계서원의 세계유산등재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 추진

- 향교 서원 관련 업무
- 전통사찰관련 업무
-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 문화재 조사 발굴 및 지정
- 문화유산 관리
-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영향검토
- 민속마을지정 및 지원 유지관리
- 문화원 사업 중 사학적인 사항
- 역사적 선현 발굴 및 관리
- 문화유산 관련 도서발굴 및 편찬 발간
- 그 밖에 문화재관련 행사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 박물관 등록 및 지도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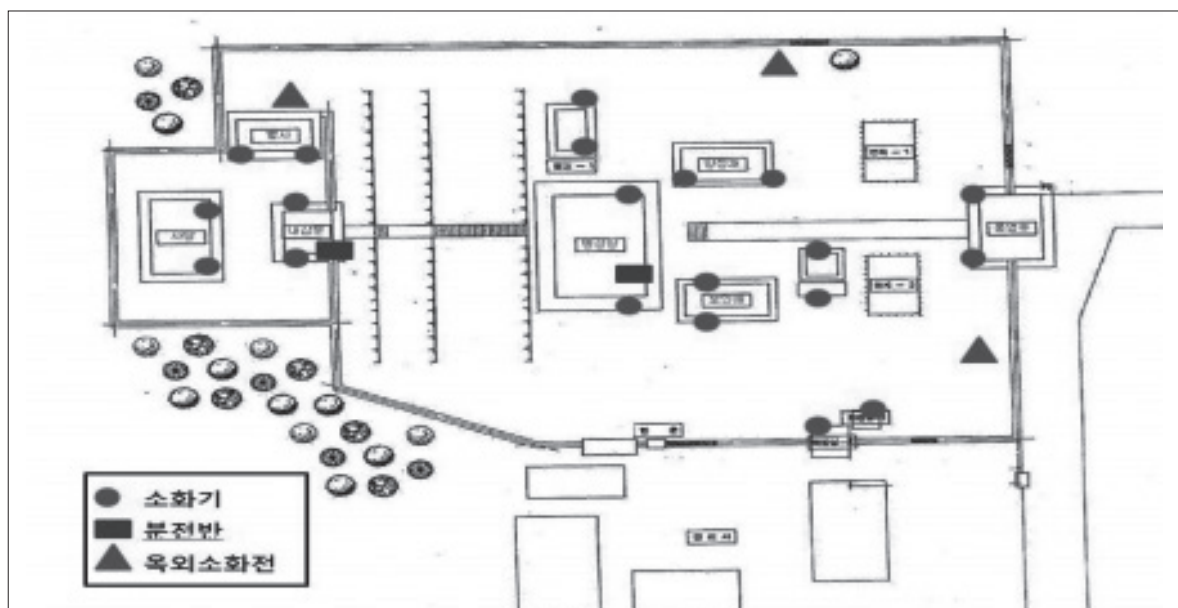
4. 화재방재체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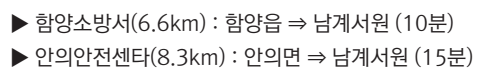
1) 남계서원의 소방방재체계 현황

(1) 방재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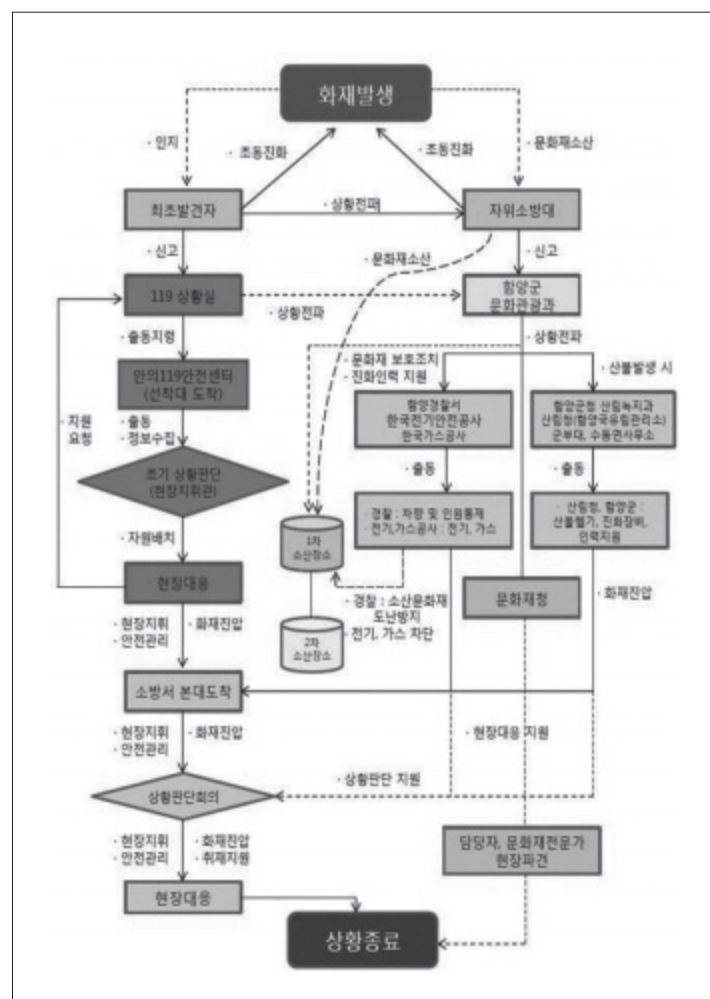
구분	분말소화기	옥외소화전	CCTV
소방설비	20개	3개소	9개소

(2) 소방설비 배치도





(1) 신고 및 연락체계도



(2) 비상연락망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함양군)	· 피해현황 및 상황 파악 및 보고 · 화재 및 산불 진화 지원 · 문화재보호대책 수립 시행 · 복구계획수립 및 시행	055)960-5160 055)960-5162
경 찰 서 (수동파출소)	· 문화재도난, 훼손방지 경계강화 · 문화재 긴급 피난로 확보	112 055)962-1112
소 방 서 (함양소방서)	· 화재예방 및 문화재지역 우선 진화 · 문화재 긴급 소산 차량지원	119 055)960-9211
산 림 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산림항공관리소)	· 산불관련 상황 전파 및 정보제공 · 산불진화헬기 급파, 산불진화활동 전개 · 문화재지역 산불 우선진화 조치	1688-3119 055)960-2550 055)960-2803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 전기로 인한 화재시 현지 조사 및 파견 협조	1588-7500 055)943-1282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가스로 인한 화재시 현지 조사 및 파견 협조	1544-4500 055)746-0019
문화재청	· 비상단계 체계 가동 및 재난상황대처 · 현지조사단 파견 · 재난상황 취합 및 응급조치, 피해확산 · 방지대책 수립지시	주:042)481-4931 야:042)481-4651

3) 관할 소방서 현황(함양 소방서)

(1) 인원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90	1	2	6	5	13	28	35
현원	87	1	2	6	16	17	15	30

(2) 시설 및 장비

가. 소방차량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굴절 사다리차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기타
26	5	3	1	1	1	5	1	2	7

나. 소방용수시설

계	저수조	급수탑	소화전	농촌형 소화전
306	5	0	122	69
				110

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함양관리소) 현황

(1) 인원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경
				소계	조종사	정비사	
25	3	1	9	10	5	5	2

(2) 시설 및 장비

- 헬기 5대 (대형 3대, 중형 2대), 관용차 3대

5.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현황

1) 사적 지정면적 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계	5필지	-	13,830	4,810	-	-
1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01월 26일	임	5,788	976	함양군	-
2	"	586-1	대	5,088	3,194	남계서원	-
3	"	587-5	대	150	150	함양군	-
4	"	665	대	1,550	354	"	-
5	"	718	도	1,254	136	국(건설부)	-

2) 건축물 소유권 현황

명칭	수량(면적)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풍영루	1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남계서원	함양군	남계서원
비각	1	"	"	"	"
양정재	1	"	"	"	"
보인재	1	"	"	"	"
명성당	1	"	"	"	"
전사청	1	"	"	"	"
내삼문	1	"	"	"	"
사당	1	"	"	"	"
별사	1	"	"	"	"
화장실	1	"	"	"	"

6. 관련법규 검토

- 함양 남계서원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다.
- 함양 남계서원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다.

7. 방문객 통계수치¹⁰

- 설문 결과, 응답자(유효포본 250명)의 15.2%가 최근 3년 내 서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수치를 1년 단위로 단순 평균하면 1년에 약 5%정도가 서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됨
- 이를 함양군 전체 관광객(2012년) 4,676,738명에 적용시켜보면, 약 233,837명 정도의 관광객이 서원의 관광수요인 것으로 파악됨

서원문화 관광객 방문경험	
있음	없음
15.2%	84.8%

8. 기타계획

1)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서원주변을 정비하여, 교육 및 체험 시설 조성으로 서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2) 사업범위

- ① 사업명 : 남계, 청계 서원 주변 정비사업
- ② 대상지 :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 ③ 사업기간 : 2011.09~2013.09(2년)
- ④ 사업비 : 3,729백만원
- ⑤ 조성면적 : 63,092㎡ (건축면적 : 539.57㎡, 산림복원 : 920㎡)
- ⑥ 주요시설 : 체험동 외 8종, 부지조성 1식

10. 함양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2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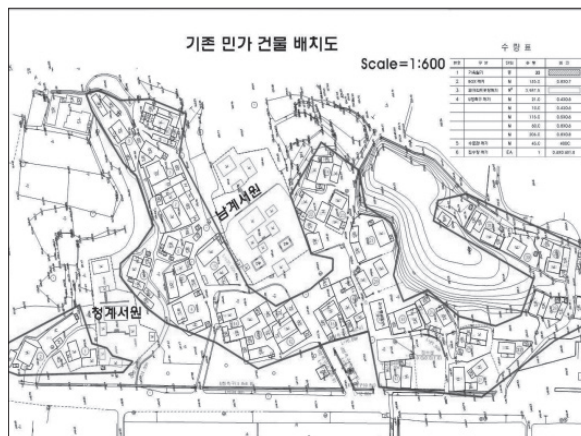
(3) 추진상황

- 2009.12: 남계, 청계서원 사업부지내 지장물 보상
- 2010.10: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 2011.01~06: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 2011.09: 착공
- 2012.04: 문화재 자문의원 사전 자문(3회)
- 2012.06: 문화재청 현상변경 재심의 - 보류결정
- 2012.0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4명 현장 확인 (의견: 신청건물 면적축소 및 재배치, 조경시설 재검토 등)
- 2012.07.04.: 문화재청 재심의 - 사적분과위원회(순천시 낙안읍성내)
- 2012.07: 설계변경에 따른 군의회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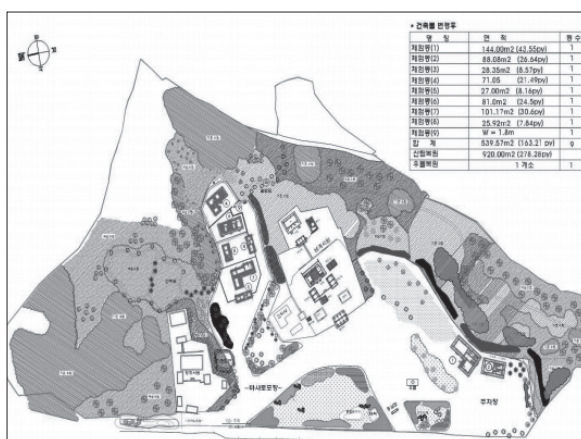
(4) 사업현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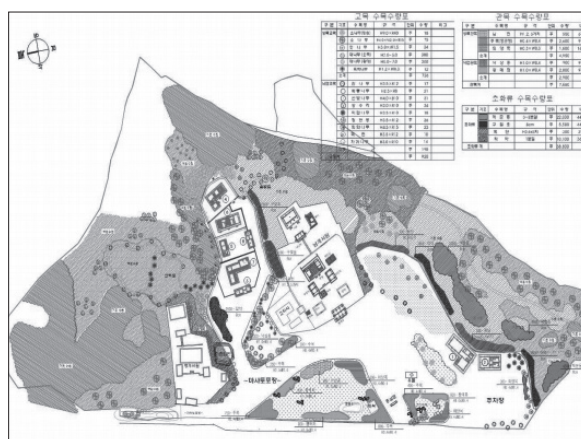
착공 전



기존 민가 건물 배치도



시설배치도



조경계획도

9. 영향요인과 향후 과제

- 향후 서원의 강학기능을 보강하고 채용의 성리학 교육 강화로 서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유네스코 등재 이후 관광객의 증가 등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
- 일두기념사업회에서 매년 학술회의 개최 및 사상연구
- 지역 유림들의 자체교육장 활용 및 활성화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 개관

- 신라말 태산군수를 지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주벽으로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등 향현(鄉賢) 7위를 배향
- 마을내 민가와 어우러져 있으며 건물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소박하게 꾸며졌고 외삼문 대신 2층 누각인 현가루가 들어서 있는 특징
- 조선말 서원철폐령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호남 유학의 본산으로 1906년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중심으로 항일의병을 창의한 역사적 현장

1) 연혁

- 고려시대 - 고운 최치원을 모시는 태산사 건립
- 1483년(성종14) - 현 위치로 태산사 이건
- 1615년(광해7) - 태산서원 건립
- 1696년(숙종22) - ‘무성서원(武城書院)’이라 사액
- 1784년(정조8) -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모셔옴
- 1844년(헌종10) - 사우 중수
- 1828년(순조28) - 강당 중수
- 1968년 12월 19일 - 사적 제166호 지정 (지정구역 5,521㎡)
- 2011. 12. -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 일반현황

- 위 치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
- 배향인물 :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영천(靈川) 신잠(申潛),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눌암(訥菴)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성재(成齋)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관(金灌)
- 건물현황 : 사우, 강당, 현가루, 강수재, 전사청, 강당, 비각4동
- 서원향사 : 음력 2월 중정(中丁)/무성서원 모현회 (대표 이치백)

2. 보존관리 현황

1) 보존관리조직

- 정읍시 문화예술과

구분	계	5급	6급	7급	9급	무기계약(기간제)
현원	12	1	1	2	1	7

- 무성서원 임원 조직

구분	계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총무	이사
인원	27	1	4	1	1	20

- 기타

- 상시 관리인 1명, 문화유산해설사 3명

2) 소방계획

- 소방시설 현황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옥외소화전 2개소)

- 소화기 비치 (건물별 3기)

- U안전관리시스템 장비 설치

- 경광싸이렌 1개, 화재센서 8개, 카메라 1개 등

- 화재방재 체계 운영 (정읍소방서 칠보지역대)

- 소방인력 : 4명

- 장 비 : 소방차 2대

3) 보수정비사업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75	2,995			2,995	현가루 지붕보수, 사우 지붕보수
76	10,000	3,000	2,000	5,000	사우 · 내삼문 담장설치
83	18,909	12,669		6,240	강수재보수, 비각보수
83-84	14,900	10,460		4,440	사당보수
89	14,285	10,000		4,285	강당보수, 방충방염제 도포
92-93	30,000		10,000	20,000	담장설치, 내삼문보수, 협문보수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93	60,000		30,000	30,000	사우보수, 현가루보수
94	40,000	28,000	6,000	6,000	사우단청, 담장설치 비각이전
97	62,451	43,716	9,367	9,368	현가루단청, 담장보수, 강수재 지붕보수
97-98	39,480	27,636	5,922	5,922	사우 · 강당 · 내삼문보수, 석축 및 배수로정비
98-99	120,000	84,000	18,000	18,000	현가루보수(기단, 문짝), 비각보수, 마당정비
00-01	89,989	62,992	13,498	13,499	화장실신축, 홍살문개축, 사우 지붕보수
04월 05일	62,234	43,564	9,335	9,335	사우 지붕보수및단청, 현가루 단청
8	192,000	134,400	28,800	28,800	전사청 개축
10	200,000	140,000	30,000	30,000	마당정비, 지장물 매입 및 정비
11	50,000	35,000	7,500	7,500	주차장 조성
12	100,000	70,000	15,000	15,000	지장물(주택) 매입 및 정비
12	100,000	70,000	15,000	15,000	정밀실측(1차분)
13	80,000	56,000	12,000	12,000	정밀실측(2차분)
13	200,000	140,000	30,000	30,000	전선지중화, 주변정비

4) 일반관리

- 무성서원 사적 166호(1968. 12. 17.) 지정 보호 (지정구역 : 5,521㎡)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보존사업 수행
- 상시관리인이 환경정비 실시 및 문화재 위험요소 제거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적용을 통해 무성서원 환경 저해요소 사전 차단
- 무성서원은 성황산을 등지고 형성된 마을내 위치하여 주민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재 보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5) 무성서원 소유 토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비고
칠보면 무성리	347	1,058	대지	-
-	348	202	"	-
-	349	572	"	-
-	496	344	"	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적(㎡)	지 목	비 고
-	497	321	"	보호구역
-	498	238	전	보호구역
-	500	1,428	종교	문화재구역
-	502	393	대지	보호구역
-	503	331	"	보호구역
-	504	446	"	보호구역
-	505-1	1,349	"	보호구역
-	505-2	13	도로	보호구역
-	506-1	155	대지	-
-	506-2	83	"	-
-	522-1	195	"	-
-	523	595	"	-
-	산14	28,066	임야	-
계	17필지	35,789	-	-

3.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1) 수립년도 : 2007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소요예산(천원)
1단계	건축물 정비 : 강수재, 현가루, 고직사	1,808,580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및 비석군 이전 정비	
2단계	건축물 정비 : 사우, 강당	150,000
	서재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흥학재 터 시굴조사	
3단계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640
	무성서원의 영역 확장	

4. 관리운영방안

- 시설관리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관리
- 각종 안내판, 표지판 등의 점검 및 보수
- 환경관리
- 조경관리 및 수목 방역작업
- 경내 제초작업 및 쓰레기 등 오물 수거
- 하절기 해충과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
- 홍보관리
- 역사적, 문화적, 자연경관적 차별화 상품개발 및 홍보
- 전통놀이, 문화행사 등 관광이벤트 유치 및 서비스 개선
-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통한 인적서비스 질 향상
- 탐방객관리
- 시설에 대한 원형유지 범위내에서 이용을 극대화
- 탐방객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5. 향후 과제

1) 조망권 확보 및 환경정비

- 무성서원 진입로 입구에 있는 민가를 매입·철거하여 조망권 확보
- 사우 후면으로 이어지는 성황산 자락 수목 전지 및 잡목 제거
- 마당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 개설

2) 시설물 복원을 통한 원형 회복

- 멸실된 홍학재 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 추진
- 강수재와 전사청 영역에 전통담장 설치하여 경관 보호

3)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 관람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음수대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

4) 소장 서적에 대한 역사성 규명

- 성종 17년(1486) 이후 쓰여진 강안, 원규, 봉심안 등 고문서에 대한 번역, 고증을 통해 역사성 재조명



※ 1910년대 무성서원 주변 현황(칠광십현도-채용신 작)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1. 서원 건축물 현황

현재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은 모두 9곳이다. 그동안 각 서원은 나름대로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관계없이 서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서원의 역사성과 특성이 다르고 해당 지자체, 서원과 관련된 인사의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계획을 추진해 오기도 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방해시설물이 되는가 하면, 예산확보가 더디어 옛 모습을 지니고 있던 곳은 진정성 확보가 오히려 유리해 졌다. 현존하는 서원 건축물 및 시설물을 통하여 보존 관리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1. 등재대상 서원의 구성건축물

구 분	교육관련 건물			제향관련 건물	부속건물	기타시설물
	강당 (講堂)	재사 (齋舍)	경각 (經閣)			
소수서원 紹修書院	강당	직방재, 일신재, 학구재, 지락재	장서각	문성공묘, 영정각, 전사청	비각, 고직사, 四柱門, 당간지주, 누각, 외문,	총효관, 사료관, 안내판, 석조물, 소화전
남계서원 濫溪書院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사당, 전사청, 관세대, 정료대	비각, 석물, 고사, 내삼문, 누각	장사각, 안내판, 소화전, 석조물 등
옥산서원 玉山書院	강당	동재 서재	경각, 장판각	사당, 전사청	누각, 비각, 고사, 내삼문, 외삼문	소방시설물
도산서원 陶山書院	도산서당 농운정사 강당	동재 서재	동·서광명실, 장판각	사당, 동·서세기고	상·하고직사, 내삼문	유물전시관, 담장,
필암서원 筆岩書院	강당	동재 서재	경장각, 장판각	사당, 전사청	내삼문, 누각, 고사	유물전시관, 연수원, 화장실, 조경시설
도동서원 道東書院	강당 (中正堂)	동재 서재	장판각	사당, 전사청, 蒸飯閣	누각(水月樓), 내삼문, 四柱門, 고사	공중화장실, 임시시설물, 소화전
병산서원 屏山書院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사당, 전사청, 관세대, 정료대	누각, 내삼문, 누각, 외삼문	소화전
둔암서원 遯巖書院	강당, 응도당	동재 서재	장판각	사당, 전사청	내삼문, 비각, 고직사, 靜會堂, 入德門,	산양루, 화장실, 석조물, 설비기구, 가로등, 쇠석갈기
무성서원 武城書院	강당	강수재		사당, 전사청	비각, 내삼문, 협문, 누각, 고직사	펌프실, 전신주, 가로등, 소화전

2. 서원 건축물 훼손요인

1) 자연환경적인 요인

- 자연풍화작용 : 병충해, 습기, 누수 등에 의한 부패, 산성비로 인한 풍화 가속
- 자연재해 : 폭풍우, 강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훼손

2) 도시사회적 요인

- 고속도로 및 국도, 철도 개설, 항만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변경관 훼손
- 문화재 위치변경으로 인한 고유한 경관을 상실하는 것 등
- 신도시 개발, 주거지 개발, 지역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경관훼손, 위치변경
-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권역의 확대와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
- 도심의 이동과 확산 등으로 인한 개발압력과 경관훼손

3) 생활환경적 요인

- 유지능력 부족
 -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치, 도난으로부터 노출
 - 지속적인 관리가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한 관리능력 상실
 - 간단한 보수조차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의태심
 - 각종 생활도구의 변화(보일러 시설, 현대식 가구, 가스, 가전제품 대형화 등)
 - 보온 및 단열을 위한 현대적 재료 사용(시멘트, 유리,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
 - 부주의에 의한 화재 등

4) 제도적 요인

-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에 부여하는 행정에 비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배려부족.
- 생활환경이나 보존능력, 관리방안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관리체계
- 전통공법, 전통기법을 무시한 품셈, 획일화된 시방서
- 증가되는 문화재 수에 비해 관리하는 일선 전문요원 부족,
-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부족.
- 세분화, 다양화 되는 문화재 추세와 체계적인 관리 부실

표2. 서원 건축물 훼손요인

훼손요인		내 용
자연	자연풍화	병충해, 습기, 누수, 산성비 등에 의한 부패
	자연재해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개발	국토개발	자동차 도로 및 철도 개설, 교량, 터널, 송전탑, 항만시설 등으로 인한 당해 문화재 훼손, 문화재 주변경관 훼손
	도시개발	일반택지개발, 주거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확장및개설,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이전, 주민 편의시설 건설 등
	도심팽창	고층화 현상, 문화재 주변의 상업지구화
생활	기능 및 용도변경	교육기능의 상실, 관광자원화로 인한 박제화 된 건축물, 제한의식의 간소화
	유지관리능력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빈약한 재정
	소유주의식 부족과 부주의한 관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의태심, 간단한 보수 기피현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생활패턴과 도구의 변화	간편한 냉난방시스템, 위생설비의 실내화, 가구의 대형화, 가전제품 이용, 편리한 생활환경 추구
	시공법과 재료의 변화	전통적 시공법 변화, 현대적인 시공법 응용, 생산성이 높은 전동도구 사용, 고가의 전통재료, 간편한 전통재료 생산, 효율성 높은 단열재 사용, 간편한 현대재료 사용 (시멘트, 유리, 철, 플라스틱 등) 전통기법에 맞지 않는 품셈
제도	개발우선주의행정	단체장의 업적우선 행정, 개발행위의 홍보성
	문화재 행정	문화재행정부서 기피, 문화재행정 전문가 부족, 행정이 전문지식부족으로 보존정책 오류
	시공편의주의	현재기법과 현대도구의 사용, 전통기법의 왜곡, 기술자 부족, 공사비 절감을 위한 간편시공, 전통재료 조달의 어려움과 고가, 경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편의한 조경공사
	문화재관리방법	지정 문화재 수의 증가와 문화재 관리요원의 부족, 문화재 관리 교육 부족, 긴급 보수 대처방법 미숙

3. 건축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리

1) 서원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소수서원

<경내 경관>

- 강당 북편에 건립되어 있는 사료관의 진정성 문제
- 서원 북편에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으로 건립된 충효교육관의 규모, 건축양식, 서원내 역사적 건축물과의 부조화 문제
- 충효교육관의 규모가 서원 내 건물 중에서 가장 크고, 기존 건축물을 압도하는 경관구조

<건축물>

- 근래에 건립된 서원 부속건물(사료관, 충효교육관 등)을 제외하고 서원 내 건물은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건립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기타>

- 각종 방재시설(소화전, 방수용구 함 등)의 색깔과 디자인이 드러나 보이면서 역사적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 제월루 복원 계획의 진정성 문제

(2) 남계서원

<경내 경관>

- 풍영루 좌우의 담장 높이가 너무 높아져 원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 강당 서측에 적벽돌로 건립된 장서각의 진정성 문제
- 강당 서북벽 모서리에 붙여 세운 소변기와 칸막이의 경관문제

<기타>

- 안내판 디자인 및 색상이 서원 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음
- 경내에 세워진 “靜肅”, “遁道”비의 진정성 및 역사적 건축물과의 경관문제
- 서원 주변 정비계획에 따라 민가 철거 후 전시 및 교육관, 체험시설 계획의 검토
- 소화전 등 시설물 디자인과 색깔이 서원 내 역사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3) 옥산서원

<경내 경관>

- 서원 내 경관은 대체적으로 진정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 서원 내 건축물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 소방시설물이 눈에 잘 띄어 서원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경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4) 도산서원

<경내 경관>

- 일부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서원 내 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담장이 궁궐담장과 같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변형되면서 진정성을 훼손한다.
-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만든 유물전시관(옥진각)이 들어서면서 서원 내 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축물>

- 유물전시관(옥진각)의 건축양식이 철근콘크리트구조에기와지붕을올려진정성이훼손된다.

<기타>

- 서원앞강 건너에 정조대에 건립한 시사단(試士壇)과 도산서원과 의경관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5) 필암서원

<경내 경관>

- 서원 경내에 경관을 훼손할만한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 서원 내 건축물은 건물 보수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진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타>

- 소화전과 같은 시설물이 경관적으로 서원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 서원 주변 지형과 경관이 많이 변형되어 진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원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화장실, 가로등)과 석재 기념비 등이 서원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6) 도동서원

<경내 경관>

- 경내에는 서원의 경관을 훼손할만한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 서원 내 건축물은 건물 보수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진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타>

- 소화전 같은 시설물이 경관적으로 서원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7) 병산서원

<경내 경관>

- 서원의 경관을 훼손할만한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 서원 내 건축물은 건물 보수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진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타>

- 서원 전면의 백사장이 피서지로 활용되면서 많은 차량과 방문객으로 인해 경관의 진정성이 훼손된 가능성이 있다.
- 소화전과 같은 시설물이 경관적으로 서원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8) 돈암서원

<경내 경관>

- 돈암서원 정면에 최근 건립한 산양루(山仰樓) 건축양식의 진정성이 의문시 된다.
- 산양루 건립으로 인해 기존의 서원 진입로와 홍살문 위치가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관의 변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변 경관의 진정성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응도당 우측에 건립된 공중화장실은 벽돌조로 건립되었고, 경내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잘 되는 곳에 있어 서원 경관의 진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원 경내 바닥에 깔아놓은 쇠석은 전통적인 서원조경 방식이 아니어서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 서원 내 건축물 중에는 산양루의 건축양식과 구조가 돈암서원의 전체적인 배치구조 및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진정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 기타 건축물의 경우 사소한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성을 저해할만한 것이 아니다.

<기타>

- 서원 내에 최근 세운 각종 석조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경관적으로 진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등 각종 설비기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건축경관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소화전,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이 경관적으로 서원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 돈암서원 주변 경관정비계획이 예산안 책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서원에 인접하여 교육관, 유물전시관, 체험학습관 등을 건립하고, 서원 전면을 공원화 하여 누정과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서원경관의 진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9) 무성서원

<경내 경관>

- 서원 중심 경내에는 경관을 해칠만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없으나 부속공간인 수직사후면에 소방 펌프실이 경관의 진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건축물>

- 강당 동측 담장 밖(수직사 후면)에 콘크리트구조에 기와지붕을 올린 소방 펌프실이 건립되어 있다. 건축양식이나 경관적으로 진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 경내의 가로등, 소화전, 소화 설비함과 같은 시설물이 경관적으로 서원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표3. 서원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구 분	항 목			
	경내경관	주변경관	건조물	기타
소수	-사료관의 진정성 -충효 교육관 규모와 양식	-서원 후면의 선비촌 경관 -선비촌의 시설물	-충효교육관의 구조와 규모	-소화설비 디자인 -제월루 복원계획
남계	-풍영루 좌우 담장 높이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진입로 및 포장재료 -서원 주변 방치 민가	-적벽 돌구조의 장서각 -강당뒤 소변기	-안내판 디자인 -진정성 없는 경내비석 -소화설비 디자인 -서원주변 정비계획
옥산	-없음	-서원 주변 통나무 화장실	-없음	-소화설비 디자인
도산	-외래수종 식재 -서원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담장 -유물전시관	-서원 진입로의 진정성 -성토된 서원 앞마당 지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유물 전시관 (옥진각)	-서원 앞 시사단과 서원의 경관적 연계성
필암	-없음	-서원 앞 유물전시관 (원진각)과 수련원 -서원 앞 조경시설물 -서원 앞 개천정비 -편의시설 (화장실, 가로등)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도동	-없음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앞 공중화장실 -서원 앞 각종 시설물 (휴게실, 음수대)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병산	-없음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앞 개인 건축물 -훼손되는 소나무 숲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피서지화 되는 백사장
돈암	-산양루의 위치와 주변담장 -홍살문의위치변경과진정성 -응도당 옆 벽돌조 화장실 -서원 경내 채석	-서원전면의공장, 창고시설물 -응도당 후면의 펌프실	-산양루의 건축 양식	-서원경내각종석조시설물 -실외기등현대기구의노출 -소화시설물, 가로등디자인 -서원주변 정비계획
무성	-수직사 후면의 펌프실	-서원 앞 담장 전신주 -서원주변 민가 건축양식	-펌프실의 건축구조와 양식	-소화시설물 디자인 -가로등 디자인

2) 관리 현황

(1) 일상적인 건축물 관리 현황

- 서원 관리자에 의한 시설물 관리(건물훼손 점검, 태풍, 폭우, 폭설 후 점검)
- 서원 관계자(원장, 장의, 유림 등)의 육안관찰에 의한 관리
-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에 의한 문제점 확인
- 인터넷 등 제보에 의한 건물 문제점 확인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이 아닌 비정기적, 비계획적 건물관리
- 건물 이력관리가 체계화, 전산화 되지 못함

(2) 보수관리 현황

-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수비를 지원
- 문화재보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액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 원형유지를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훼손된 건축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필요에 따라 화장실 신축도 보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서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책정되기도 한다.
- 문화재청 예산과 별도로 서원 주변에 지원시설을 만들거나, 도로신설, 경관조경 등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

(3) 정비관리 현황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 정비내용은 건축물 신축, 주변 경관 정비로 구분
- 건축물 신축은 주로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거나 훼손된 건축물 복원, 훼손되지 않았으나 기록에 남아 있는 건축물 복원 등이다.
- 주변 경관 정비는 국토건설, 도로신설로 인해 주변경관 정비

4. 서원 건축물 관리

1) 목적

서원 건축물의 관리는 서원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육안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후상태나 훼손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2) 보존 관리를 위한 점검

(1)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건물 이력을 관리하고, 각종 필요사항을 점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서원 내 각 건축물에 대한 이력, 건축물의 중요도, 점검항목 외에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둔다.

(2) 초기점검

서원 내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에 초기 점검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정기점검

정기적 점검으로서 서원 내 건축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을 한다. 숙련된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상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외관형태 및 구조적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4) 긴급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인 손상을 점검하는 것이다. 육안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요청하도록 한다.

(5)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훼손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 시험 등 검사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근접점검이다.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특수장비 및 관련 기술자와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는 관련 도면 등에 기록하며, 건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건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제시한다.

3) 점검 메뉴얼과 사후 처리

- 건축물의 관리상태에 따른 정기 점검내용 체크리스트 작성
- 서원의 건축물 관리는 초보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메뉴얼 작성
- 건축물 안전점검 메뉴얼에는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도 포함하도록 한다.
- 건축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메뉴얼에 대한 교육

5. 서원 건축물 보존 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

1) 기단 부

기단석 균열, 탈락, 기단상부 강회다짐 마감면 균열, 침하, 부서짐 현상, 빗물 들어침 현상, 빗물 고임현상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점검을 통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축 부

- 흙벽: 육안으로 흙벽에 갈라짐현상, 외벽바름탈락현상, 목부재와사이틈벌어짐현상, 수분침투 현상, 얼룩짐현상, 벽화손상, 색바램현상등이보이면점검을통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 돌쌓기 벽: 균열현상, 돌 탈락현상, 줄눈 탈락현상, 회바름 탈락현상 등이 나타나면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벽돌 벽: 육안으로 백화현상, 균열현상, 부식현상, 표면 탈락현상, 줄눈 탈락현상 등이 나타나면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목재 벽: 목판 갈라짐 현상, 목판 떨어짐 현상, 목판 틈 벌어짐 현상, 목재 부식 현상, 습기현상, 쥐 썰음 현상 등이 나타나면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옥개부

기와 깨짐현상, 기와 표면의 탈락(동파가 원인), 기와의 탈락, 기와 흘러내림, 와구토 탈락, 와초, 나무, 풀 등의 자라남, 기와 열 뚫어짐, 기와 간격 벌어짐, 솟기와열 이탈, 용마루(내림마루, 추녀마루) 곡선 뚫어짐, 용마루(내림마루, 추녀마루) 기와 내려앉음, 용마루 기와 이탈, 홍두께 흠 노출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붕목부재에서흰가루가 떨어지는현상, 습기로 인해부식되는 경우, 천장에바른흙이나회가 떨어지는 현상, 서까래가 처지는 현상, 대공이 처지거나 틀어진 경우 등은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4) 천장

누수로 인한 얼룩, 빗물 떨어짐, 변색, 부식, 처짐, 이음과 맞춤의 이완, 천장재료와 벽의 벌어짐, 표면재료 탈락, 결로현상 등이 보이면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주요 구조체(기둥, 창방, 평방, 중하방)

습기 침투 흔적(얼룩, 맑은 날 습기 등)이 발견되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이면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뼈대 부재에 동물이빨 흔적이나 구멍이 발견되면 관리인은 구

멍을 막고 동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뼈대 부재에 송곳구멍과 같은 작은 구멍이 생기거나 흰가루가 묻어나오면 병충해일 가능성이 크고, 확산이 강하므로 발견 즉시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기둥 하부는 습기로 인해 부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치를 이용하여 소리를 들어 부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망치로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나면 심각한 상태이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었을 경우 망치 외에 뽕죽한 송곳으로 부식부위를 찔러보는 것도 확인의 한 방법이다. 부식된 것이 확인되면 관리인은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표4. 서원 건축물 점검내용

항목	점검내용	원 인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배수나환기가잘안된다. 인접된곳에 배수로나샘가능성
	균열이 발생했다	초석이 약해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석질이 부석부석해 진다	석질이 약하다
	기울어져 있다	한쪽지반이약하다. 적심설치가불량하다. 지진, 지하수 등에 의해 변형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지반이 약해 침하가 생겼다.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기단토또는지정이깎여졌다. 기단및토사가유출되었다.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빠지거나 부식되었다.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부러지거나 부식되어 내려앉았다.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기둥이 기울거나 마루틀이 신축되면서 마루판을 밀었다.
마 루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져 밀이 보인다	마루청판이 신축되어 마루판 사이에 틈이 생겼다.
	비바람이 들어쳐 빗물이 고인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거나, 기와에 누수현상이 생겼다.
	하부에 빗물이 들어친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다. 기둥이 높다.(중층건축물)
	밀둥이 썩었다	비바람이 들어친다. 해충이 생겼다.
	얼룩이 지거나 곰팡이가 생겼다	습기가 심하다. 단청이 안되어 있다.
기 둥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흰개미가 생겼다.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위 아래로 틈이 벌어져 있다	목재의일반적인현상이다. 틈의폭에따라점검수준결정
	기울어지거나 뒤들려 있다	지반의 부동침하, 주요 구조부재 부식에 의한 현상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난다	흰개미의 피해 또는 균에 의한 부식
벽	흙벽 표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짐	접착력이 부족함. 기둥이 기울어짐
	벽(벽화)에 얼룩이 져있다	풍우로 습기가 들어침. 결로현상
	벽과 벽선, 인방 사이가 벌어짐	기둥, 벽선이 기울어짐
	판벽의 판재가 탈락됨	목재의 수축
	화방벽의 석재가 탈락됨	시공부실로접착력떨어짐, 건물이기울어짐, 진동충격으 로 부재간 접착력 떨어짐
지붕	기와 열이 틀어져 있다	태풍 또는 지진에 의한 현상
	기와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홍두께흙과 기와 접착불량. 건물 주변의 진동
	용마루 선이 바르지 않다	용마루기와 이탈. 종도리 부식으로 처짐

항목	점검내용	원 인
지붕	와구토가 떨어졌다	기와의 이동, 진동, 충격, 재료 분리
	추녀마루선이 고르지 않고 추녀끝이 처졌다	추녀마루 기와의 이탈. 추녀의 부식으로 처짐
	회첨골 추녀에 얼룩이 생김	회첨부분 누수
	처마선이 고르지 않다	연목이 누수로 부러짐. 기와무게로 처짐
창호	문이 잘 여닫히지 않는다	문이 틀어짐. 문선이나 기둥이 기울어짐. 문인방이 처짐
	문틀이 크게 벌어졌다	건물이 기울어짐
	동저귀가 흘러거린다	문선이 수축됨. 돌저귀가 녹슬음

표 5. 서원 건축물 점검내용의 단계별 조치사례

항목	점검내용	단계별 조치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단	기단 상부에 잡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기단석 일부가 내려앉았다	●				"
	기단 상부 강회마감이 떨어졌다	●				"
	기단석이 떨어졌다		●			전문가 점검
	기단석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		●			"
	기단이 흘러내려 초석밑이 보인다.				●	긴급보수
	기단 주위의 바닥이 높아졌다			●		전문가 점검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			전문가 점검
	균열이 발생했다			●		"
	기울어져 있다			●		"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		"
	태풍 후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	긴급보수
마 루	마루로 개미가 다닌다	●				시군에 신고
	틈 사이에 흰가루가 묻어 나온다			●		전문가 점검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		"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		"
	마루판이 볼거지고 휘어져 있다		●			"
	마루판 사이로 밀이 보인다			●		"
	동귀틀이 내려 앉았다		●			"

항목	점검내용	단계별 조치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동	하부에 빗물이 들어친다	●				관리인 보수
	기동에 청태가 끼었다		●			전문가 점검
	기동 밑이 희게 변했다		●			"
	밑둥이 썩었다			●		전문가 점검
	뒤틀이고 기울어 졌다			●		"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		"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		"
	기동을 두드리면 빈 소리가 난다		●			"
	기동부재에 틈이 벌어졌다		●			"
벽	심벽의 표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짐			●		"
	심벽 표면에 얼룩이 짐		●			"
	심벽과 기동, 벽선 사이의 틈이 벌어짐			●		"
	판벽이 헐려하여 판재가 탈락	●				관리인 보수
	화방벽 표면 갈라짐	●				"
	화방벽 석재 탈락			●		긴급보수
지 붕	수키와 열이 비뚤어졌다	●				관리인 보수
	옹(추녀)마루 선이 일정치 않다			●		전문가 점검
	수키와 이탈로 홍두께흙 노출됨				●	긴급보수
	회침추녀에 얼룩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회침에 빗물이 떨어진다				●	긴급보수
	회침골 추녀가 내려앉았다				●	"
	지붕 위에 와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천정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		"
	추녀나 처마에 벌집을 지었다	●				관리인 보수
	추녀에서 흰가루가 떨어진다		●		●	긴급보수
	추녀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추녀끝이 약간 처졌다			●		"
	추녀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서까래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서까래 끝이 약간 내려앉았다			●		"
	서까래 끝이 많이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항목	점검내용	단계별 조치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창 호	문(창)종이가 찢어졌다	●				관리인 보수
	문(창)고리가 떨어졌다	●				"
	문(창)의 돌쩌귀가 떨어졌다	●				"
	문(창)이 바람에 펄럭인다	●				"
	문(창)이 잘 열리지 않는다		●			전문가 점검
	문(창)살이 떨어졌다		●			"
	문(창)이 틀어졌다			●		"
	문(창)틀이 틀어졌다			●		"
	문(창) 목재가 부식되었다			●		"
	문(창)을 도난당했다				●	신고 후 보수

6. 서원 건축물 보존 관리 원칙

1) 공통사항 : 사당, 강당, 외삼문, 내삼문, 동서재, 제기고, 수직사 등

-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동재, 서재

- 공통사항 포함
- 동서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할 경우 규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지자체)과 범위와 형식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동서재 활용을 위한 보수 범위는 원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한다.
- 외부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나무, 대나무, 발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그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3) 수직사

- 공통사항 포함
- 거주를 위한 보수 정비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는 가능한 한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냉방기 외부기기, 외부 연료통 등은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로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현대적인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단열을 위해 창호를 달 경우 기존 창호안쪽에 달고 크기와 모양은 기존 창호를 준용하도록 한다.
- 바닥마루를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개수해서는 안된다.
- 마루벽을 제거하여 큰방으로 구조 변경해서는 안된다.
- 마루 후면에 덧대어 새로운 벽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부엌바닥은 원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시공방법을 모색한다.(복원가능성)
- 부엌 상부에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주택과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본채의 외부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마폭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료와 형태는 본채와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채 내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채 외부로 덧붙인 욕실은 설치할 수 없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4) 담장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 외부로 시멘트, 금속 및 플라스틱 재질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5) 마당

- 마당은 흙바닥, 마사토 깔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적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공동화장실

- 서원 내에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작성된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자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 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 외부형태는 조선시대 건축양식으로 한다.
- 화장실 내부의 설비시설이나 기기가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외부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전통적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7. 서원 건축물 및 시설물 보존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가 현대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서원은 그 가치가 점점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원의 기능이 변하고, 서원에 대한 문화적 요구가 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 본래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서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 유산적 가치는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훼손 요인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훼손 요인의 문제점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풍화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습기는 지붕 등과 같은 곳에 누수가 일어나거나 내부공간에 통풍이 잘 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목부재에 나타나는 흰개미의 병충해도 목조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훼손 요인은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할 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로부터의 완벽한 방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 정기 점검 및 보수와 시의 적절한 보수·관리를 통해 훼손을 억제
- 간단한 보수만으로도 보수 회전시간을 늘일 수 있다.

2) 도시·사회 환경

‘개발과 보존’이라는 현대사회의 민감한 문제 때문에 항상 ‘보존’보다는 ‘개발’우선위주로 행정력이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도시화 현상은 문화재 주변 지가(地價)를 상승시키고, 지가 상승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발된 후에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발 전 계획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문화재보존을 행정의 우선순위로
- 사전에 서원의 역사 문화 환경 관리계획을 작성

3) 생활환경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에 따라 서원을 관리할 인적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원이 점점 공가화(空家化) 되어 가고 있다. 극히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대부분 건축물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공가화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그동안 간단한 보수조차도 정부의 지원에 의해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자에게 의타심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 서원 공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인근 유적과 연대하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간단한 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4) 행정 및 제도적 환경

건축물 중에서는 원형보존이 잘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양한기능과요구를수용하면서 최선의 보존방안을 도출해 낼 수있도록해야 한다.

복원 문화재는 가능한 한 원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수공사 설계에서도 재료와 공법을 원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문화재 시공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품셈, 시방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 시공업체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청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행정요원의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재 수가 많아지고, 세분화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 행정업무를 효율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함께 문화재관리 방안에 대한 DB화, 전산화작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서원의 특징과 기능을 살리면서 최선의 보존방안 도출
-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행정과 시공품질 모색
- 서원 문화재 행정업무 효율화, 전문성 제고
- 서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방안 모색

8. 맺음말

세계유산 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은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서원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시대성, 장소성, 예술 및 기술 등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 건축은 단순히 건축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나아가 역사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서원 건축물의 보존 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관리방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서원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 과제는 관리방법의 체계화, 관리능력의 합리화, 관리 방법의 전산화이다. 서원 건축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1차 관리가 중요하다. 보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는 전문가의 능력이 요구되지만, 문제점 발생을 늦추거나 최소화 하는 것은 1차 관리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원 관계자의 1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서원의 보존 관리를 담당할 지자체의 인원배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물의 보존 관리는 당분간 서원 관계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인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서원의 건축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원 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서원 건축물 관리를 위한 지침, 매뉴얼을 작성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서원 관계자에 대한 건축물 관리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세 번째,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의 전문성이 향상 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 건축물을 잘 관리하여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한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주변 환경 및 경관보존관리의 당면과제

1. 서론

우리나라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는 시대정신을 품고 있는 교육적 장소이자,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건축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문화경관으로, 최근 서원의 유산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은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토대로 서원 경내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과 주변 경관의 유산적 가치를 정리해 보고, 이를 보존·회복하기 위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1, 그림 1, 2).

표1. 등재 대상 서원개요

구 분	주 소	면적	비고
영주 소수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8,657㎡	사적 제 55호(1963.01.21.지정)
함양 남계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	4,810㎡	사적 제 499호(2009.05.26.지정)
경주 옥산서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20,063㎡	사적 제 154호(1967.03.08.지정)
안동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323,110㎡	사적 제 170호(1969.05.28.지정)
장성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5,832㎡	사적 제 242호(1975.04.23.지정)
달성 동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서로 726	8,891㎡	사적 제 488호(2007.10.10.지정)
안동 병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22,620㎡	사적 제 260호(1978.03.31.지정)
논산 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 3길 26-14	5,548㎡	사적 제 383호(1993.10.18.지정)
정읍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4,093㎡	사적 제 166호(1968.12.19.지정)



그림 1. 등재대상 서원 위치도



그림 2. 동동서원 전경

2. 등재대상 서원의 경관적 가치

1)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태학적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장소성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기초로 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성리학의 윤리학적 교육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산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장으로 우주와 이치를 궁리하며 성정(性情)을 닦는 공부 방법이었으며,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학문적 위한 수단이었던 때문이다.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거경궁리(居敬窮理)’의 공간이자, 자연의 질서 있는 변화를 보면서 천리(天理)의 묘용(妙用)을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도량(道場)이다. 이에 퇴계 이황은 도산(陶山)에 거처하면서 주위의 자연으로부터 심오한 이치를 깨닫고 즐거움을 느낀 것이다(그림3).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려는 성리학적 이상을 살아 숨 쉬는 공간 속에서 인간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관계로 사고를 확대하여 사원의 입지와 배치에 스며들게 하였다. 그러므로 서원은 교육공간이라는 건축물 집합체의 차원을 넘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을 융용시켜 엮어낸 조영물이다. 이에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건축물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 심성의 본질과 근원을 깨닫고자 하는 대상이자 바탕으로서 자연산수와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생태학적 사고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통하여 궁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자연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서원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인식의 태도는 오늘날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생태학적 사고를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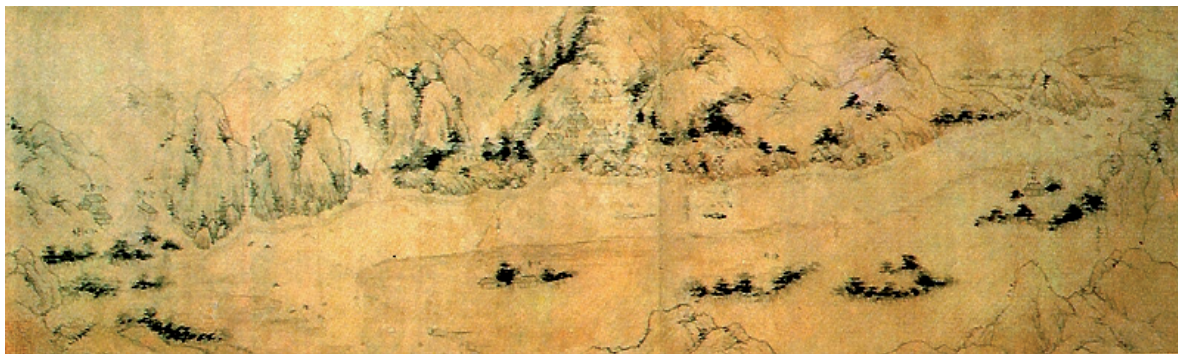


그림 3. 도산서원도¹⁾

2) 입지에 적용된 전통적 지리관의 적용

서원의 입지는 대개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절터 또는 퇴락한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 선현의 연고지에 건립되는 경우, 서원에 배향된 선현들이 살았을 때 세운 서당이 발전한 경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입지와 관련된 특징은 각 지역의 아름다운 경승(景勝)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원은 조정(朝廷)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관학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사학으로써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독립되어 있었고, 제도 자치에 함유된 유가적(儒家的) 은둔사상(隱遁思想) 등과 결탁되어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립되었다. 이 중 자연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 잡은 서원들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에

1.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 강세황(1712~1791)이 영조27년(1751)에 도산서원의 실경을 그린 것이다.

는 전통적인 지리관으로서 풍수지리가 적용되었는데, 그 예로서는 도산서원의 경우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종산을 영지산으로 삼고, 여기에서 분지한 도산을 주산으로, 좌청룡으로는 동취병, 우백호로서 서취병, 안산으로서는 인위적으로 쌓은 시사단을 취하고 있다. 형국적으로는 화심반개형(花心半開形), 오지탄금형(五指彈琴形)으로 설명된다. 또한 병산서원은 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나온 주맥 상에 위치하며, 서원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병산의 형세가 좌측이 매우 높고 우측이 낮은 형태로 균형이 맞지 않고, 강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돌아 흐르는 모양새로서 소위 급히 떠미는 ‘밀개형’이라 한다(표2,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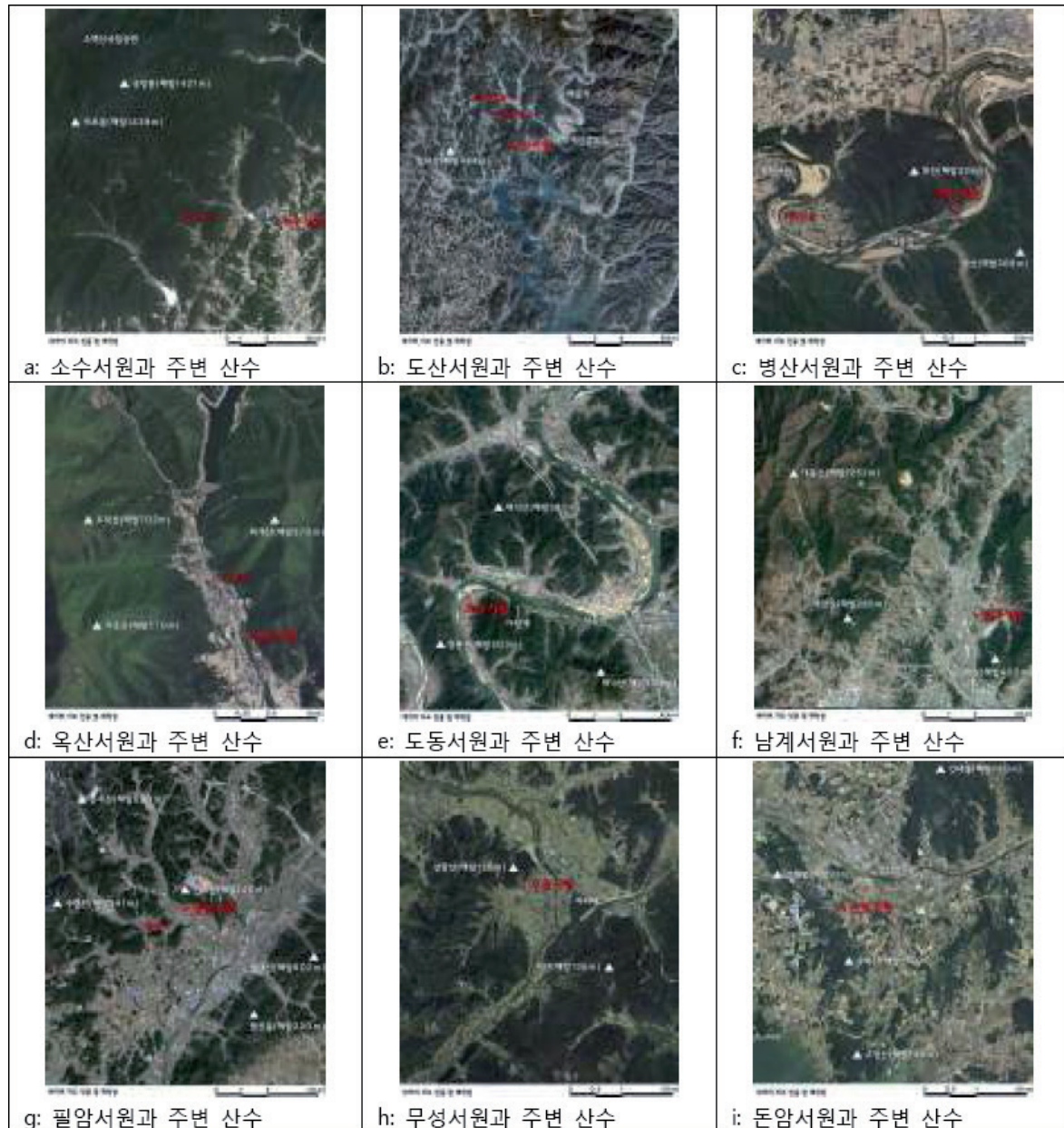


그림 4. 등재대상 서원과 주변 산수체계(자료제공: 김영모)

표2. 서원의 입지와 산수의 관계

구분	산					수	비고
	종산	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조산)		
영주 소수서원	소백산	영귀봉	-	-	연화봉	죽계수	-
함양 남계서원	-	연화산	-	-	백암산	남계천	-
경주 옥산서원	-	도덕산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	자계(紫溪)	-
안동 도산서원	영지산	도산	동취병	서취병	시사단	낙동강	화심반개형
장성 필암서원	축령산	연화산	기산	추산	장산	문필천	단봉함서형
달성 도동서원	-	대니산	-	-	청룡산, 제석산	낙동강	-
안동 병산서원	-	화산	-	-	병산(문필봉)	낙동강	밀개형
논산 돈암서원	-	고정산	-	-	-	연산천	연화부수형
정읍 무성서원	성황산	-	-	-	시산(장군봉)	자라내	-

3) 유식(遊息)공간인 누각에서 주변 조망으로의 경관적 가치

서원의 공간구성은 ‘존현강도(尊賢講道)’와 내용적 측면의 ‘장수유식(藏修遊息)’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바, 이는 장수하는 공간과 유식하는 공간으로 대별되어야 하고, 두 공간이 조화롭게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남계서원(濫溪書院) 풍영루(風詠樓)의 기문(記文)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서원은 거경(居敬)·집의(集義)의 공간뿐만 아니라, 발서(發舒)·휴양(休養)의 공간도 구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거경과 집의로 설명되는 장서의 공간은 강당과 사당영역으로 긴장과 공경의 공간으로 대표되고, 반면 정신과 성정을 풀어내는 유식의 공간은 서원의 주변 절승이 될 수 있고, 서원 마당 안의 연못을 비롯한 조경시설이 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을 건축화시키는 누각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적 차원에서 조성된 누각은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원의 누각은 서양의 초점 투시도적 방식과는 달리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시선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양의 유목적(遊目的) 관조방식을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 건축되었다. 객관적 사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이와 같은 관조방식은 조망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변으로 개방되고 보다 높은 위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 등재 대상 서원은 유학이 추구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선택하고, 자연적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위계적으로 분절 배치한 엄숙정제(嚴肅整齊)의 예(禮)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그 외부·내부·주변의 개방적 경관, 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內庭) 경관, 간략한 조경의 식재(植栽) 경관, 서원 주위의 암석과 계류로 이루어진 유식(遊息)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 예로서는 남계서원의 풍월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병산서원의 만대루, 도동서원의 수월루, 필암서원의 학연루, 무성서원의 현가루, 돈암서원의 산양루 등은 중층의 누각형태를 취하며, 주변으로 개방된 구조를 갖는다. 서원의 누각은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그 이치를 깨달아 인간의 성정을 닦고자 하는 성리학적 교육관이 실현된 장소이며, 동양적 관조방식이 접목되어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대상으로 삼는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6).



그림 5. 등재대상 서원의 내·외·주변의 개방적 경관(출처: 문화재청, 2013)



그림 6. 등재대상 서원의 유식공간으로서의 누각(자료제공: 김영모)

3. 등재 대상서원의 경관보존실태

등재 대상 각 서원의 경관 보존관리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연혁 및 공간특성, 주변 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현황분석과 둘째, 원경적 측면의 주변과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진입부 분석과 셋째, 중경적 측면의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부 분석과 넷째, 근경적 측면의 서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원 내부분석과 다섯째 관람동선 및 행태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관람동선 분석을 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1) 함양 남계서원(咸陽 藍溪書院)

(1) 일반현황

-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
- 시대: 조선시대(1566)
- 배치형태: 전학후묘
- 배향인물: 정여창, 강익, 정은
- 소유자: 국유, 사유
- 관리자: 함양군



그림 7. 함양 남계서원의 일반현황

2. 본 장의 경우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연구(문화재청 2012)”를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 진입부

- 수동길(남계서원 전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은 서원과 조화롭게 개선 필요
- 서원 위치를 알리는 정보시설 추가 필요
- 원색의 지붕과 낙후된 가로 및 담장 등의 이질적 이미지의 인접 민가는 서원과 어울리도록 정비가 필요



그림 8. 함양 남계서원의 진입부 현황

(3) 주변부

- 수동길~남계서원 연계동선 주변으로 입지한 페슬레이트 건축물과 낙후된 취락지 건축물은 개선 및 제거 필요
- 주변에 입지한 청계서원 내 공공시설물은 남계서원 공공시설물과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그림 9. 함양 남계서원의 주변부 현황

(4) 서원 내부

- 각 요소별 설명안내판 신규설치 필요
- 노후화된 소화기 및 파손된 소화전 교체 필요
- 연못의 기능과 역할, 의미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로 고유 장점 강화 필요



그림 10. 함양 남계서원의 내부현황

(5) 관람동선

- 청계서원과 연계되도록 확실한 동선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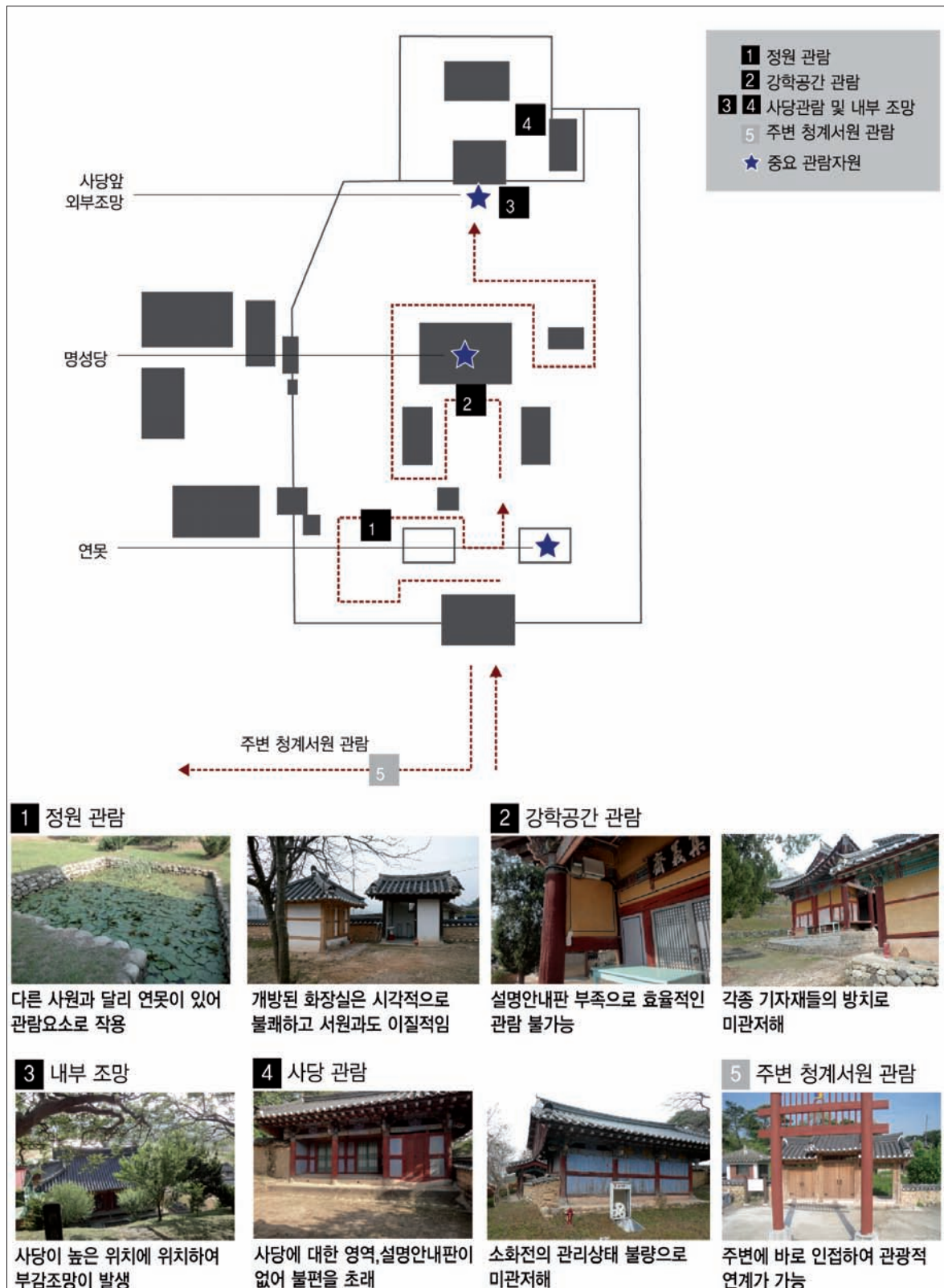


그림 11. 함양 남계서원의 관람동선 현황

2) 경주 옥산서원(慶州 玉山書院)

(1) 일반현황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 시대 : 조선시대(1573)
- 배치형태 : 전학후묘
- 배향인물 : 이언적
-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 관리자 : 경주시



그림 12. 경주 옥산서원의 일반현황

(2) 진입부

- 옥산서원길에 색채로 인해 돌출되는 광고물은 개선 및 관리 필요
- 독락당과 자개천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옥산서원으로 유도하는 안내시설 설치 필요
-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고 임시 시설처럼 보이는 관광안내소는 교체 필요



그림 13. 경주 옥산서원의 진입부 현황

(3) 주변부

- 서원으로 진입하는 자개천변에는 조망과 휴식이 가능한 휴식 공간 설치 필요
- 서원 주변의 공원조성부지 내 혼재되어 있는 공사시설물은 관리 필요
- 너럭바위 주변의 주의안내판은 색채 등의 개선 필요



그림 14. 경주 옥산서원의 주변부 현황

(5) 관람동선

- 독락당으로 연결되는 자개천에는 안전성을 고려한 교량 설치 필요
- 고직사 협문을 서원 정문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도안내판을 재배치하여 바른 관람동선 유도



그림 16. 경주 옥산서원의 관람동선 현황

3) 달성 도동서원(達城 道東書院)

(1) 일반현황

- 소재지 : 대구 달성구 구지면 구지서로 726
- 시대 : 조선시대(1605)
- 배치형태 : 전학후묘
- 배향인물 : 김굉필, 정구
- 소유자 : 도동서원
- 관리자 : 달성군, 서흥김씨 한훤당영남파종중



그림 17. 달성 도동서원의 일반현황

(2) 진입부

- 북서측에서 진입하는 MTB코스(다람재길)에는 도동서원 진입을 알리는 안내시설 및 상징시설 도입 필요
- 도동리 마을길 내 공공시설물은 도동서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 필요
- 도동나루(자전거휴게소)에는 도동서원을 상징할 수 있는 전망공간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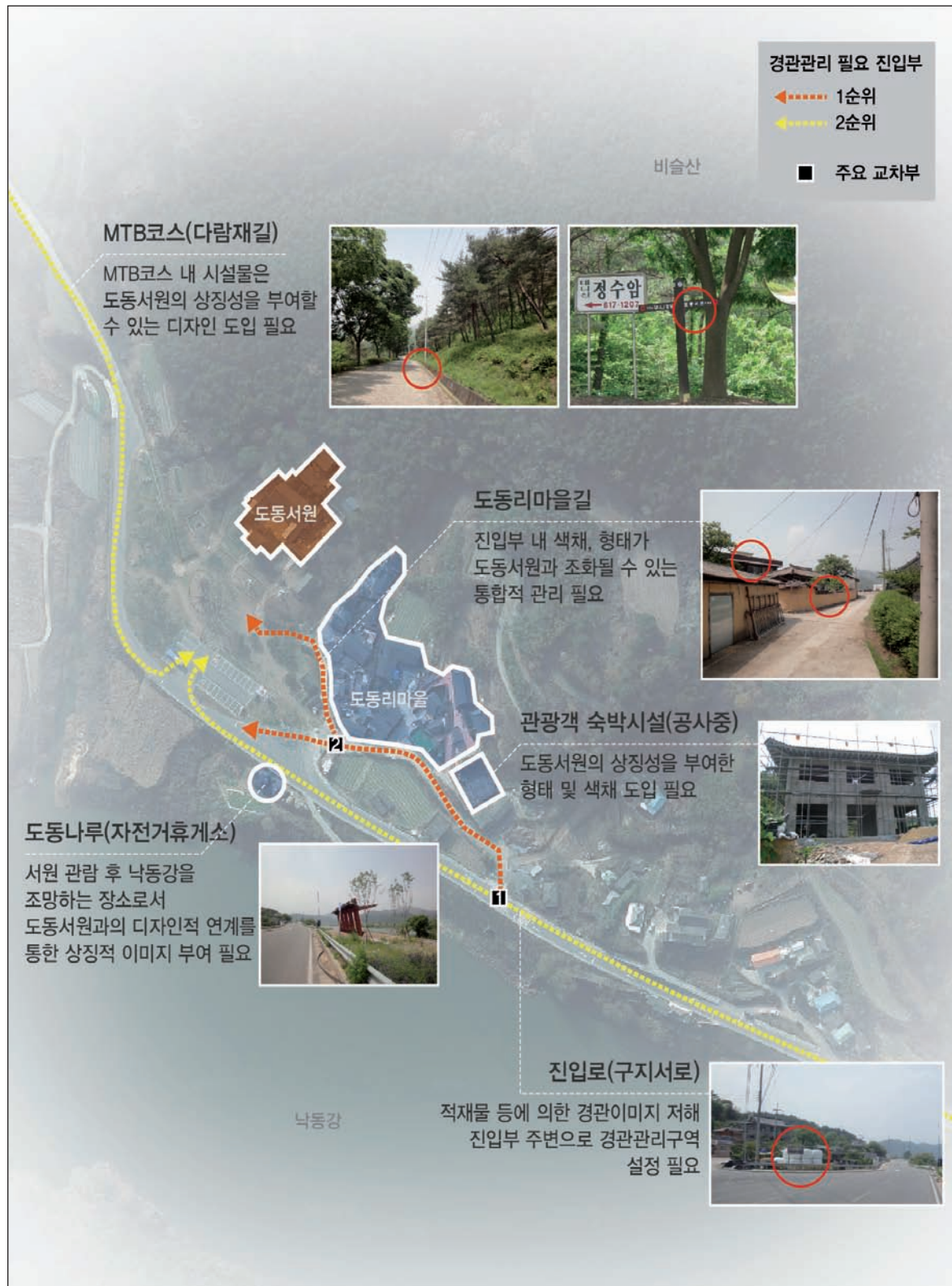


그림 18. 달성 도동서원의 진입부현황

(3) 주변부

- 이용이 불가한 유물전시관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필요
- 관리사무소와 관광안내소는 기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필요
- 보물로 지정된 담장은 담장을 따라 동선을 조성하고 설명안내판을 배치하여 주요관람자원임을 알리고 주변의 인공시설에 대한 차폐 혹은 제거 등의 관리 필요



그림 19. 달성 동동서원의 주변부 현황

(4) 서원 내부

- 서원 뒤편으로 배치된 기계실은 제거하거나 관광객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중요 관람요소인 담장이미지와 이질적이고 돌출적인 보안등은 돌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서원 내부 경관을 가장 저해하는 시설인 소화시설은 재디자인 하여 존재감을 유지하되 어울리도록 유도



그림 20. 달성 도동서원 내부 현황

(5) 관람동선

- 서원~숙박시설(가칭, 충효예절관) 연결로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유도안내판 설치 필요
- 서원~숙박시설 연결로에는 야간이용을 고려하여 조명시설 확충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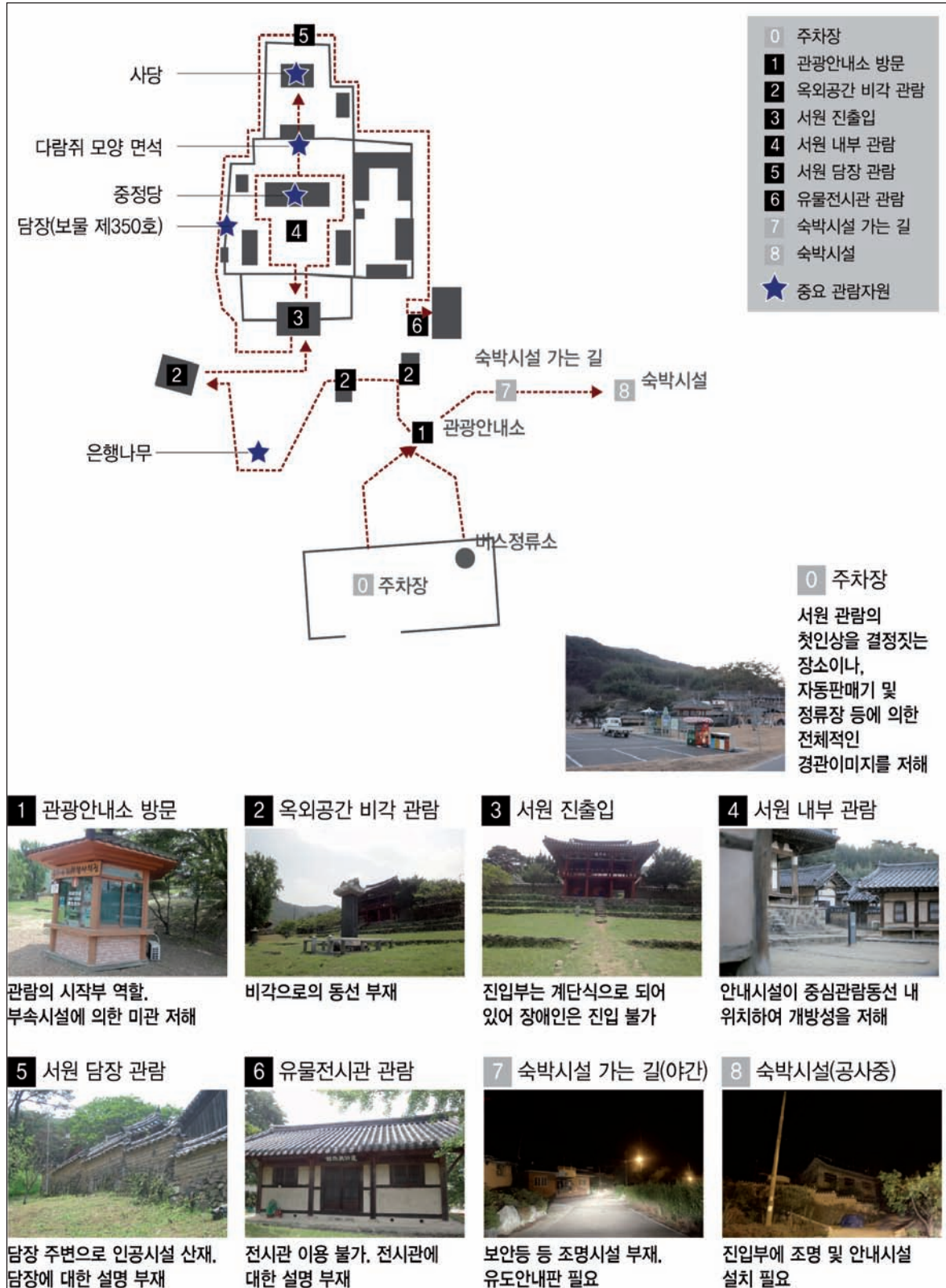


그림 21. 달성 도동서원 관람동선 현황

4. 등재대상 서원의 경관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1) 등재 대상 서원의 주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존구역의 설정

현재 등재대상 9개 서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주변 문화적 맥락의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재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거나 매우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다. 예로서는 소수서원은 동측의 죽계천을 경계로 탁청지 일원까지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산인 영귀봉과 전면의 죽계천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도산서원의 경우는 좌우의 동취병과 서취병의 지정범위에 일관성이 없으며, 전면의 시사단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필암서원의 지정구역은 서원의 담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후 후면의 주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금번 등재신청 시 개발행위로부터 서원의 원형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경관특성을 고려한 보존구역(주산, 좌청룡, 우백호, 명당수, 안산 포함) 및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그림 22,23).



그림 22. 서원의 경관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범위 및 경관관리대상



그림 23. 등재대상 서원의 보존구역 조정

2) 등재대상 서원의 외부 조망대상으로의 가시성 확보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은 서원의 입지론은 ‘산자락에 자리를 정하고 앞으로는 물을 끌어안는 형국’인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설명되어지는 바, 첫째는 풍수적인 사신사를 갖춘 국(局)의 형태를 갖춘 경우, 둘째는 주산-안대(안산)의 배치축을 갖는 경우, 셋째 주산만을 배치축으로 취하는 경우, 넷째 안대만을 배치축으로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즉 사신사와 명당수는 서원의 입지에 적용된 풍수적 명당의 요건이 되고 있고, 주산-안대에 의한 배치축의 논리는 서원의 좌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유식 공간인 누각에서 조망대상으로서의 사산과 명당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산과 명당수는 전면에 바라다 보이는 주경관으로서 나타나며, 좌우의 산은 부경관으로서 조망된다. 현재 등재 대상 서원은 모두 배산임수형의 입지조건을 취하고 있다. 예로서는 소수서원은 영귀봉을 주산으로 하고 안산으로는 연화봉을 택하여 좌향을 정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죽계천을 명당수로 취하고 있다. 남계서원은 연화산을 주산으로 전면으로는 멀리 백암산을 조산으로 조망하며 전면에는 남계천을 두고 있다. 무성서원은 성왕산에서 발원한 서원 뒷산을 주산으로 하여 앞으로는 시산을 안대로 삼고 그 사이에는 자라내가 흐르는 입지적 특성을 보여준다(표3, 그림 24).



그림 24. 고문헌 자료를 통해본 서원의 배산임수형 입지형태(자료제공: 김영모)

향후 서원의 경관적 특징으로서 안에서 밖으로 조망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면의 안산과 명당수, 좌우의 산은 서원의 원형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시각적 개방성과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병산서원의 경우 만대루에서 바라볼 때 최근 진입부에 신설된 주차장과 무분별한 교목의 식재로 인해 전면의 안산과 명당수의 조망이 차단되고 있으며, 도동서원 경우도 원형경관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누각의 전

면에 위치한 안산과 명당수로의 조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며, 주변에 위치한 민가와 산경과의 조화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 서원의 전면에 개설된 도로와 대규모 주차장은 유생들의 소요와 산책의 공간이었던 강이나 하천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원의 원형경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위치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표3. 등재대상 서원별 주요건축물과 누각에서의 주요 조망대상

구분	주요건축물					누각에서의 주요 조망대상
	사당	강당	동재	서재	누각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명륜당	일신재	직방재	경림정	경(敬)자 바위, 죽계수(명당수), 송림
함양 남계서원	사당	명성당	양정재	보인재	풍월루	백암산(안산), 전담
경주 옥산서원	체인묘	구인당	만구재	암수재	무변루	무학산(안산), 자계(명당수)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전교당	박약재	홍의재	광명실	낙동강(명당수), 동취병, 서취병
장성 필암서원	우동사	청절당	진덕재	송의재	확연루	장산(안산), 기산, 증산(좌청룡), 추산(우백호)
달성 도동서원	사당	중정당	거인재	거의재	수월루	제석산(안산), 낙동강(명당수)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	입교당	동직재	장서실	만대루	병산(안산), 낙동강(명당수), 광영지(지당), 백사장
논산 돈암서원	유경사	양성당	거경재	정의재	산양루	연산천(명당수), 전담
정읍 무성서원	사우	명륜당	장수재	홍학재	현가루	시산(안산), 자라내(명당수)

3) 서원으로의 조망확보와 주변 민가와 조화

대부분의 서원은 마을과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하거나 산중, 또는 계곡이나 강가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마을과 인접하여 마을의 배면이나 마을내, 그리고 마을 주변에 건립되기도 한다. 산중이나 계곡 등에 위치한 서원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서원 건립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변 경관은 조영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민가와 함께 위치한 서원의 경우, 민가와 서원 사이에 경관적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등재 대상 서원 중 남계서원은 남계리의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원의 진입부 도로를 따라 민가들이 들어서 있어 서원으로의 가시가 어렵다. 이는 무성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도동서원은 서원의 우측으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마을이 위치하여 남계서원 보다는 가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서원과 민가의 경관적 부조화 문제는 배치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접한 민가의 지붕형태, 색채, 재료 등과 같은 건축적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조화된 서원의 원형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예를 들면 민가와 인접하고 있는 도동서원의 경우는 서원과 민가 상이에 시각적 완충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서원으로의 가시성을 확보하거나 서원의 배경경관을 보존해야 한다(그림25).



그림 25. 등재 대상 서원의 가시성 확보 및 주변 민가 및 경물과의 조화

4) 서원 경내·외에 신축된 건축물 이전

서원은 지역이나 학맥에 따라 입지와 배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형적인 서원은 선현에 대한 향사 기능과 강학기능이 중심이 되고, 이를 위한 보조시설이 전체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형적인 구성은 1970년 문화재성역화사업과 2000년대에 이루어진 유교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서원의 건축물이 복원 되거나 보수되는 문화재 수복측면에서는 실효를 거두었지만, 이와 함께 건립된 교육·서비스시설은 서원의 건축공간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예로서는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의 경우 서원의 경내에 대규모 유물전시관을 신설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서원의 원형 건물로 착각하게 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신축건물의 폐해는 필암서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원 보다 3배나 큰 유물전시관, 교육체험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부속 시설들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필암서원의 모습을 가리고, 규모면에서 압도하여 필암서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표4, 그림 26). 향후 등재대상 서원의 경우 과거 건축물과 시설물의 복원 및 보수 사업이 전체적 공간을 크게 왜곡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문화재의 부속시설인 교육관, 전시관 등이 경내에 위치, 대형화로 대상 문화재 가치저하 야기하고 있는 바, 향후 서원이 과거 교육철학이 담긴 지성의 장소 및 현대 시대전승의 장으로서, 미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 진정성의 토대위에 “원형유지” 및 “원형복원”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4. 서원의 경내·외 신축건물 현황

구 분	신축건물	건립연도	비고
영주 소수서원	유물전시관	1982년	사적 제 55호(1963.01.21.지정)
	사료전시관, 충효교육관(교육시설)	1991년	
경주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2006년	사적 제 154호(1967.03.08.지정)
안동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1970년	사적 제 170호(1969.05.28.지정)
장성 필암서원	진덕원, 송의관(교육시설), 유물전시관	2000~2009년	사적 제 242호(1975.04.23.지정)
달성 도동서원	유물전시관	2001년	사적 제 488호(2007.10.10.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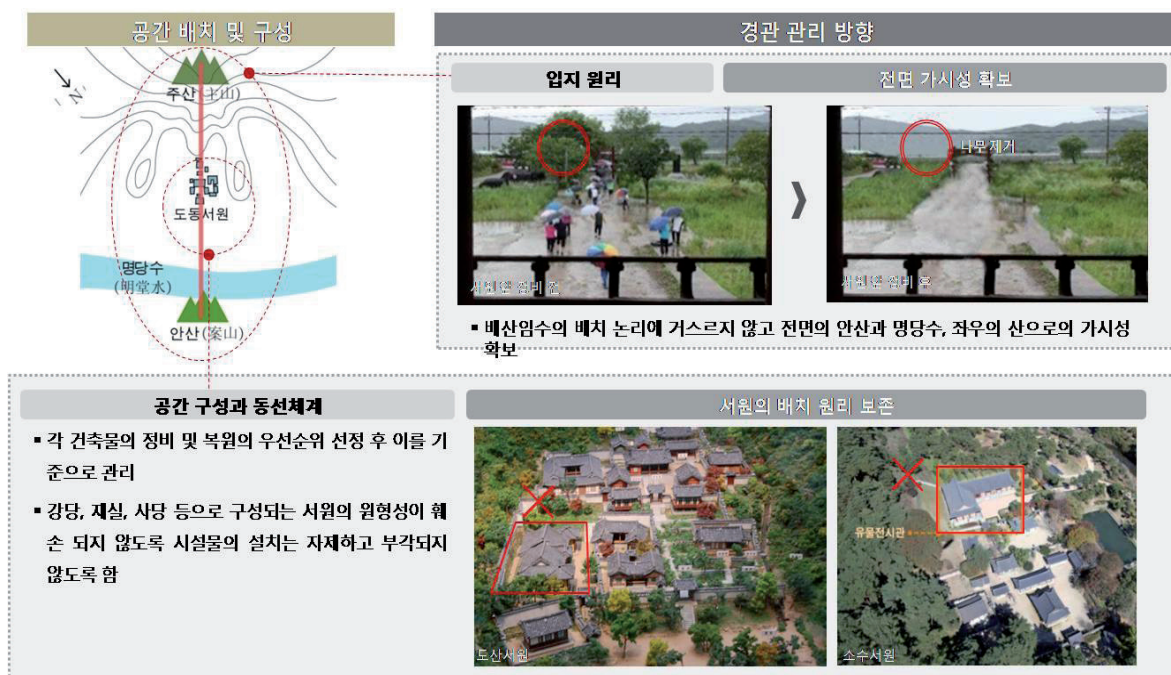


그림 26. 등재대상 서원의 외부 조망대상으로의 가시성 확보 및 경내 신축건물

5) 식생 원형경관의 회복

서원의 식재경관은 배경으로 나타나는 자연산림과 조영 당시에 재식된 경관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 전자가 주변의 산림개발 및 훼손으로부터 배경경관으로의 보존이 요구된다면 후자는 서원에 식재된 수종과 식재방법, 식재위치에 대한 고증을 토대로 한 복원 및 정비와 관련된다(표5). 현재 등재대상 9개 서원의 배경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산림은 광역적·장기적인 관리문제이므로 보다 시급한 서원 경내·외의 수목식재의 문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원의 조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서원에 적합하지 않는 수목들이 식재되어 원형의 식재경관이 왜곡되고 있다.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에 식재된 일부 외래수종은 제거되어야 하며, 앞서 문헌을 바탕으로 고증된 수목들은 추후 조경정비공사에 우선적으로 식재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식재 위치와 과도한 식재의 문제이다. 일부 서원에서는 최근 외래수종이나 부적합한 수종을 제거하였지만 식재되지 말아야 할 공간에 불필요하게 많은 수목이 채워진 문제를 보인다. 서원에서의 사당과 강학공간은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비워두는 반면 누각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공간에 제한적으로 수목이 식재된다. 서원에 식재된 수목은 성리학자의 지조와 곧은 절개, 고매함 등을 상징하기 위한 비덕(比德)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그림 27).

표5. 문헌·도형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경내·외에 식재된 수종

구 분	문헌자료	기록에 나타난 수종	현존 노거수(경내)	현존 노거수(경외)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잡록, 원종입의, 종죽기 등	송백, 대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숲(1500년대)
함양 남계서원		매화, 대나무, 연꽃		
경주 옥산서원	이언적의 시 노수신, 이준(1573)	소나무, 대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향나무, 촉백나무(1920년대)	회화나무, 은행나무 (1500년대)
안동 도산서원	도산잡영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회화나무(1930년대 이전) 매화나무(1930년대 이전)	왕버들 (자연발생 추정)
장성 필암서원	사당, 경장각 건물벽화	매난국죽, 소나무, 포도, 소철파초, 연꽃 등	-	은행나무(1700년대)
달성 도동서원	기대승“고봉집”3권	주변송림	배롱나무(1900년대)	은행나무(1607년)
안동 병산서원			배롱나무(1573) 무궁화, 감나무, 주목(1920년대)	
논산 돈암서원	“양성당기”	소나무, 대나무	향나무(1700년대)	소나무숲, 대나무숲
정읍 무성서원	-	-	-	-



그림 27. 등재 대상 서원의 원형 식생경관 회복 및 정체성에 입각한 시설물 배치

6) 현대 시설물의 경관적 조화

현재 서원의 관람편의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시설과 편익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등과 같이 조경시설물의 현황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시설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시설물 유형별로 형태와 재료의 통일성이 없고 과도한 배치로 인해 산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내시설은 서원마다 또는 서원 내에서도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혼재로 가독성을 저하시키고, 설치되는 장소도 동선체계와의 연관성이 없어 관람객의 이용에 비효율적이다. 특히, 서원에 설치된 각종 기념비와 표석은 불필요한 시설 중 하나이며, 서원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서원 경·내외에 도난,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저수조와 소화전, 배전반 등의 기반시설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위화감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등재 대상 서원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표6).

표6. 등재대상 서원별 의견

구분	의견 제시	내용
영주 소수서원	해설사	가림막 설치 시 소화전 기둥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 필요 선비촌 연계동선 내 조명시설 파손(시급한 복구 필요)
함양 남계서원	관리자	안내시설 높이가 낮아 편의성 고려 부족/ 음수대 철거 요망
경주 옥산서원	해설사	서원 내 잉여 공간 활용성 부족 (예, 휴게의자 설치 등) 기타: 독락당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거주자에게 불편 초래
안동 도산서원	관리자 / 해설사	숙박 대체시설과 연계하는 동선(숲속길) 내 시설 부재/ 서원 내 가로등 부족
장성 필암서원	관리자	가로등 주변으로 CCTV 설치 필요/ 안내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감독기관의 지속적 관심 필요
달성 도동서원	해설사	소화시설 위치의 부재 및 가림막 시설 훼손
안동 병산서원	관리자	대학생들의 교육, 세미나 장소 및 휴게시설 부족/ 서원 주변으로 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
논산 돈암서원	관리자 / 해설사	취수장을 가릴 수 있는 차폐식재 필요/ 야간 CCTV 주변으로 인지성 부족 홍살문 재배치 필요/ 서원 전면공지에 대한 활용방안 필요 서원 내부 바닥은 마사토 포장에 타당하다 생각함 (옛 정취 복원) 화장실이 이동할 예정이므로 화장실 배치를 고려한 계획 필요 안내판 글씨가 너무 작아 인지성 부족 안내판은 재질로 인한 광반사가 발생함 인지성 부족/ 하수구는 미관개선 필요
정읍 무성서원	관리자 / 해설사	담장보다 과도한 소화전 규모/ 주변 역사마을과의 연계적 측면 부족 비석위치 재설정 필요/ 홍살문 내 주차공간으로 활용 주변으로 입지한 주택가에 의한 인지성 부족 체험학당의 활용성 증대 필요(예, 서예, 가훈쓰기, 탁본 등)

출처 : 문화재청, 2012

상기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요구된다. 먼저,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거나 이전을 시키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유지 및 관리시설 등)은 설치장소와 형태, 재료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야 한다.

5. 요약

서원은 조선시대 사회윤리를 보급하고 향촌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간 핵심공간이자 현재까지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성리학적 이상세계가 반영된 역사문화경관의 전형이다. 본고는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변 환경 및 경관적 가치 구명 및 향후 조선시대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제언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먼저 등재 대상 서원에서 주변 환경과 경관적 가치 구명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성리학적 이상은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생태적 사고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서원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본질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 서원은 주변 산수가 빼어난 곳에 입지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고자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리관인 풍수지리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전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셋째, 유식적 차원에서 조성된 서원의 누각은 동양의 유목적 관조방식이 반영되어 경관의 본질은 체득하는 차경의 동아시아 경관의 정수가 내재된 경관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서원 경관의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건축물에 한정된 물리적 경계가 아닌 서원의 장소적·입지적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존구역의 설정을 통해 보존·관리해야 할 서원의 경관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서원 주변지역의 과도한 개발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의 무분별한 설치로부터 서원과 외부의 주요경관요소 사이에 상호·시각적 개방성과 가시성을 확보하여 보존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원 경·내외 원형경관의 고증을 통해 향후 정비·복원 계획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건축·조경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서원의 주변경관 뿐 만 아니라 통합적인 역사문화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2. 실행기구의 역할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 보존관리계획에 근거한 실행기구의 역할 요제

- | | |
|----------------------|------------------------------------|
| 1. 계획의 배경 | 8. 관광계획 |
| 2. 계획의 목표와 범위 | 8.a 방문객 관리 |
| 3. 관리법 및 관리계획 | 8.b 관광의 실행 |
| 4. 실행계획 | 8.c 홍보 방안 |
| 5. 실행주체 | 9. 방재 및 위기관리 |
| 6. 유형·무형 유산의 보존 | 9.a 기후 및 지형 |
| 6.a 유형유산 | 9.b 화재 |
| 6.b 무형유산 | 9.c 홍수대, 지진 및 산사태 |
| 6.c 토지이용현황 | 9.d 긴급 위기관리 |
| 6.d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 연구 |
| 6.d-1 개발압력 | 11. 보존 및 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의 제공처 |
| 6.d-2 환경적 압력 | 11.a 물리적 환경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 제량 |
| 6.d-3 자연재해 및 재난 대비 | 11.b 주민의 현장관리 및 무형자원 전수와 관련된 인력 교육 |
| 6.d-4 방문객 및 관광산업의 압력 | 12. 재정 |
| 7. 기관계획 | 13. 모니터링 |
| 7.a 서원 기관의 구성 | |
| 7.b 서원 기관의 특성 | |
| 7.c 기관계획의 실현 | |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물리적, 비물리적 통합관리
모니터링의 통합적 체계 마련

3 보존관리 현황 : 소수, 도산,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p>전반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됨</p> <p>1. 서원 내에 추가된 건물들에 대한 진정성, 완장성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유산관리에서의 장기적 보존관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권역으로 쓰이는 건물 등에 대한 향후 조치 준비 - 이전 노비들의 존재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점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추가논의 - 향후 진정성에 관련된 논의 필요 - 선례준 조성에 대한 당위성 설정 추가 필요 <p>2. 보존환경 훼손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답장 길게의 기록들의 전도사고로 인한 훼손발생 우려 	<p>전반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됨</p> <p>1. 70년대 성역화 사업으로 인한 존치들에 대한 진정성, 완장성 관점에서 대우의 합의점 도출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당을 돌담으로 바꾼 담장 보수복원 행위에 대한 진정성 논의의 당위성 문제 - 70년대에 지어진 '유물전시관' 같은 건물이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필요 - 향후 세계유산 기증에서의 도산서원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계획 개념이 잘 사항이어서 매우 중요 - 용장기 및 장기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을 기반으로 하여 단계별 합의 및 실행지침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p>2. 보존환경 훼손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시대 사용으로 인한 통풍문제로 유산의 보존환경훼손문제 - 돌담으로 바꾼 담장으로 인한 배수문제 발생 	<p>전반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됨</p> <p>1. 진정성, 완장성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유산관리에서의 장기적 보존관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입구에 위치한 현 주차장은 서원의 진정성과 완장성에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 - 서원 주변 생활공간(주거지)과 관련하여 장기적 계획 필요 <p>2. 보존환경 개선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개선 필요 - 병산서원의 경관과 관련하여 과대한 시제(배운 앞의 개나리 및 만대루 앞 식재)에 대한 정비 필요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들어가는 말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유산인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672여개 서원 가운데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갖춘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차분하게 조사 정리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운영, 활용, 보존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저력의 원천을 찾아내고 다듬어 국내외 빛나는 문화 유산으로 보듬는 일은 비록 늦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한국의 서원은 용도 폐기된 역사적 유물인가 아니면 사당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한 측면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서원에서는 양대 기능의 하나인 향사는 지역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직접적 교육 형태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문화체험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승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룰 문제는 한국서원이라고 하는 포괄적 대상 뿐만이 아니라 등재 대상인 9개서원의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관리라 함은 등재대상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서원을 중심으로 한 환경과 건물이 관리되고 있느냐는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며, 운영측면에서는 서원이 어떤 조직을 두고 서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계승하여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서원의 전반적 운영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을 돕는 방계 기구와 그 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운영 일반을 토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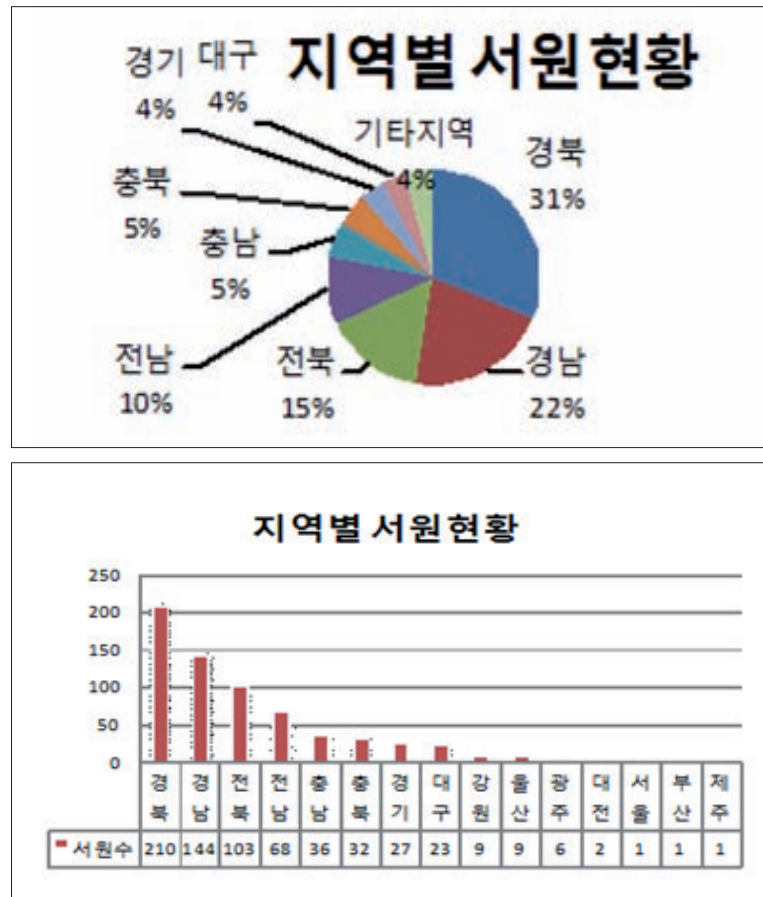
서원들이 안고 있는 관리 운영의 과제 부분에서는 서원의 관리 운영 사례와 조례나 규칙 제정 현황, 향후 검토되어야 할 운영과제로서의 네트워크 구성 문제와 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 서원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전국 서원 분류별 통계현황

1) 지역별 분포현황

표1. 지역별 서원분포

지정번호	지정명칭
경북	210
경남	144
전북	103
전남	68
충남	36
충북	32
경기	27
대구	23
강원	9
울산	9
광주	6
대전	2
서울	1
부산	1
제주	1
총계	672



최근 자료(2012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서원의 숫자는 총 672개(표1 참조) 서원으로 조사되었다. 대원군 시기 서원철폐령으로 남은 47개 사원 가운데 서원으로 남한에 존속되었던 숫자가 22개소(표2 참조)였음에도, 현재 672개소로 다시 복원 혹은 신설되거나 명칭을 변경 하는 등을 통해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당시 훼손된 서원 가운데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복설된 서원이 273개소로 조사 되었다.

표2. 대원군 당시 미훼손된 남한의 서원

書院名	所在地	年度	配享人物	姓氏
용연서원 (龍淵書院)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2리	1691년(숙종 17)	한음 이덕형 (漢陰 李德馨 1561-1631)	廣州
			용주 조 경 (龍洲 趙綱 1584-1669)	漢陽
노강서원 (鷲江書院)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695년(숙종 21)	정재 박태보 (定齋 朴泰輔 1654-1689)	潘南
우저서원 (牛渚書院)	경기 김포시 감정동	1648년(인조 26)	중봉 조 헌 (重峯 趙憲 1544-1592)	白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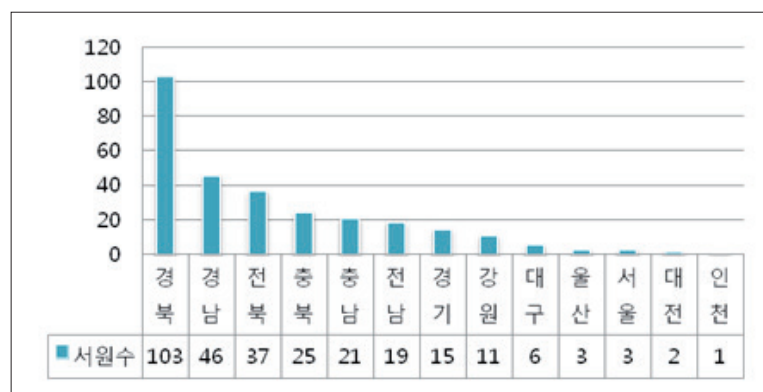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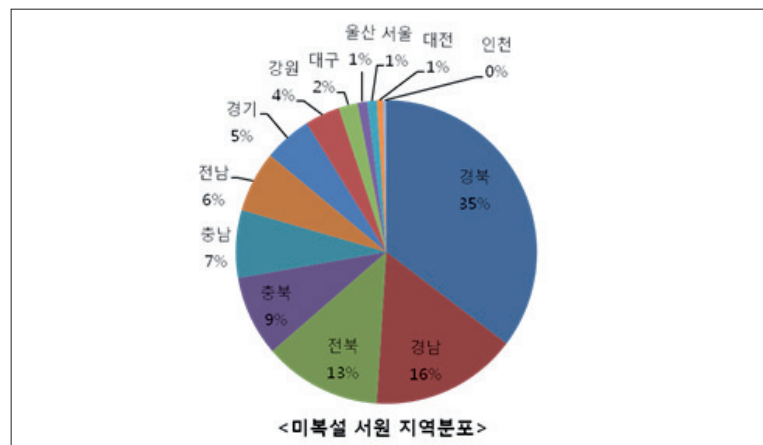
書院名	所在地	年度	配享人物	姓氏
파산서원 (坡山書院)	경기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1568년(선조 1)	율곡 이이(栗谷 李 珥 1536-1584)	德水
			청송 성수침(淸松 成守琛 1493-1564)	昌寧
			우계 성 혼(牛溪 成 渾 1535-1598)	昌寧
			절효 성수중(節孝 成守琮 1495-1533)	昌寧
			휴암 백인걸(休菴 白仁傑 1497-1579)	水原
덕봉서원 (德峰書院)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	1695년(숙종 21)	양곡 오두인(陽谷 吳斗寅 1624-1689)	海州
심곡서원 (深谷書院)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1649년(효종 0)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	漢陽
사충서원 (四忠書院)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1725년(영조 1)	몽와 김창집(夢窩 金昌集 1648-1722)	安東
			소재 이이명(疏齋 李頤命 1658-1722)	全州
			한포재 이건명(寒圃齋 李健命 1663-1722)	全州
			이우당 조태채(二憂堂 趙泰采 1660-1722)	楊州
돈암서원 (遯巖書院)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1633년(인조 11)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	光山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1574-1656)	光山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	恩津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	恩津
노강서원 (魯岡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1675년(숙종 1)	문정공 윤항(文貞公 尹煌 1572-1629)	
			윤문거(尹文舉) 윤선거(尹宣舉) · 윤증(尹拯)	
창렬서원 (鴻山彰烈祠)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1717년(숙종 43)	임계 윤 집(林溪 尹 集 1606-1637)	坡平
			추담 오달제(秋潭 吳達濟 1609-1637)	海州
			화포 홍익한(花浦 洪翼漢 1586-1637)	南陽
무성서원 (武城書院)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696년(숙종 22)	해운 최치원(海雲 崔致遠 857-?)	慶州
			영천자 신잠(靈川子 申潛 1491-1554)	高靈
필암서원 (筆巖書院)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1590년(선조 23)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	蔚山
소수서원 (紹修書院)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42년(중종 37)	근재 안축(謹齋 安 軸 1282-1348)	順興
			원지 안 보(員之 安 輔 1302-1357)	順興
			신재 주세붕(愼齋 周世鵬 1495-1554)	尙州
도동서원 (道東書院)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동	1568년(선조 1)	한훤당 김광필(寒暄堂 金宏弼 1454-1504)	瑞興
금오서원 (金烏書院)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동	1570년(선조 3)	야은 길 재(冶隱 吉 再 1353-1419)	海平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	善山
			신당 정 봉(新黨 鄭 鵬 1467-1512)	海州
			송당 박 영(松堂 朴 英 1471-1540)	密陽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1637)	密陽

書院名	所在地	年度	配享人物	姓氏
남계서원 (藍溪書院)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552년(명종 7)	일신재 정여창 (日新齋 鄭汝昌 1845-1910)	河東
			송암 강 익 (松菴 姜翼 1523-1567)	晉州
			동계 정 온 (桐溪 鄭蘊 1569-1641)	晉州
			임계 유호인 (林溪 俞好仁 1445-1494)	高靈
			송탄 정홍서 (松灘 鄭弘緒 1571-1648)	河東
서악서원 (西岳書院)	경북 경주시 서악동	1563년(명종 18)	김유신 (金庾信 595-673)	金海
			고운 최치원 (孤雲 崔致遠 857-?)	慶州
			설 총 (冰月堂 薛聰 ?-?)	慶州
옥동서원 (玉洞書院)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1518년(중종 13)	방촌 황 희 (龍村 黃喜 1363-1452)	長水
옥산서원 (玉山書院)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72년(선조 5)	회재 이언적 (晦齋 李彦迪 1491-1553)	驪州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1574년(선조 7)	퇴계이 황 (退溪 李滉 1501-1570)	眞寶
흥암서원 (興巖書院)	경북 상주시 연원동	1702년(숙종 28)	동춘당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1606-1672)	恩津
병산서원 (峯山書院)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동	1863년(철종 14)	서애 유성룡 (西厓 柳成龍 1542-1607)	豐山
			수암 유 진 (修巖 柳 珍 1582-1635)	豐山

대원군 당시 훼손되었으나 미복설된 서원에 대한 조사에서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지역별 미복설 서원 분포

지역	서원수
경북	103
경남	46
전북	37
충북	25
충남	21
전남	19
경기	15
강원	11
대구	6
울산	3
서울	3
대전	2
인천	1
총계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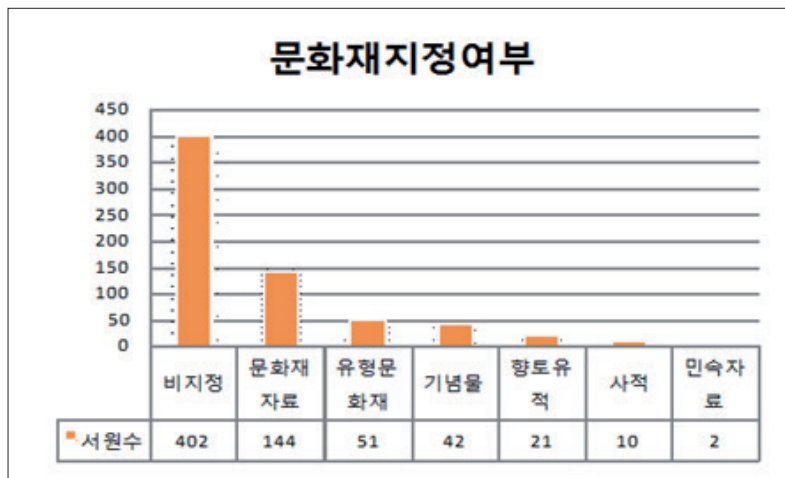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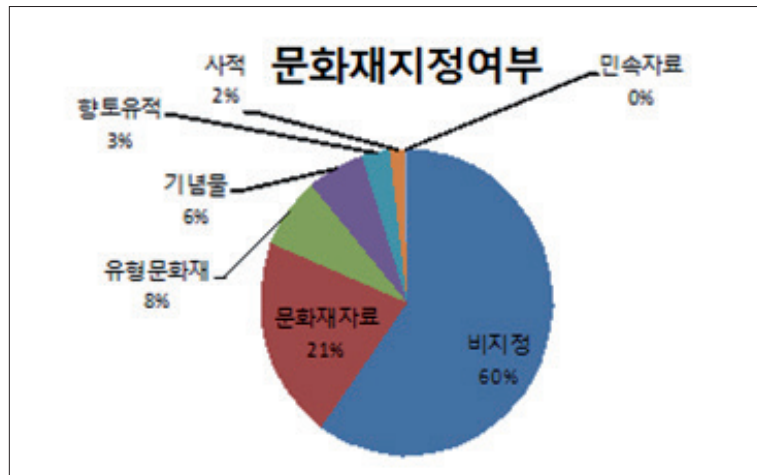


통계 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국 서원 분포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 지역의 서원 복원이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2) 문화재 지정추이

표4. 문화재 지정서원

유형별	서원수
비지정	402
문화재자료	144
유형문화재	51
기념물	42
향토유적	21
사적	10
민속자료	2
총계	672



672개소의 현존 서원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270개소(사적10, 문화재자료144, 유형문화재51, 기념물42, 향토유적21, 민속자료2)이며, 2010년 12월 기준 문화재청의 조사통계 당시 문화재지정 총 숫자가 167개에 불과했지만 2년동안 103개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총 672개소 가운데 비지정 문화재 서원은 402개소로 비지정 서원과 문화재지정 서원은 60%:40% 정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서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 의한 바도 그 영향이 크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원된 서원의 증개축과 관련되어 서원 자체의 재정적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키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원이 유림들의 소유가 많은 관계로 이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원 개보수에 필요

한 재원을 유림들이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서원에서 주향되어 있는 문중에서 재정을 부담하기도 하여 증개축과 향사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향내 유림들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문중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문화재 지정을 통해 서원 증개축과 향사봉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원 출입자들의 연령 또한 고령화가 가속되어 서원을 관리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되는 경우이기도 하다.

표5. 2010년 12월 기준 서원의 문화재 지정 통계(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0.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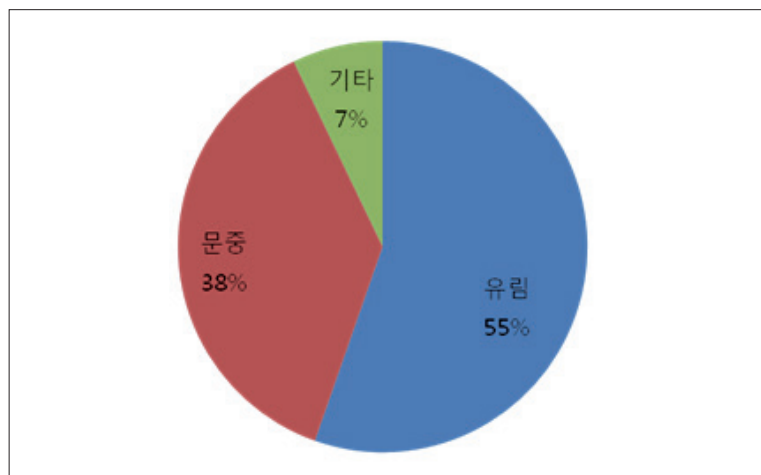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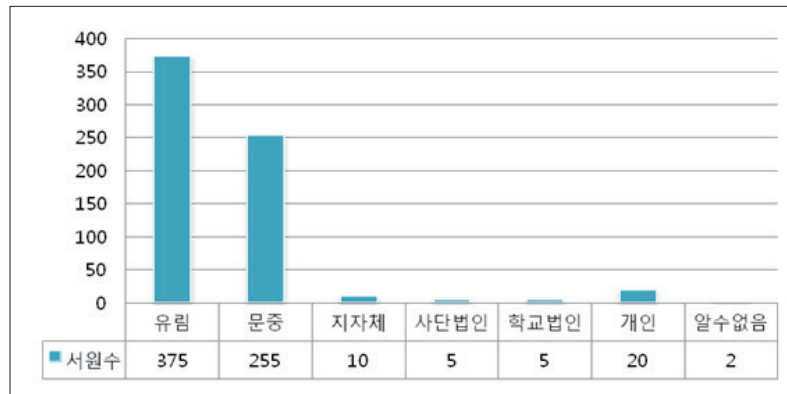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00	2	1	30	0	6	1	9	31	13	26	36	108	63	193	182	0
국가지정	사 격	9			1								1	1	1	4	1	
사도 지 정	시도유형문화재	19								6	3		2			6	4	
	시도기념물	34			1					3		3	1		7	12	7	
	시도민속자료	1														1		
문화재자료		104			3		1	1	1	4		1	14	21	8	16	36	
지정 계		167			6		1	1	1	12	3	4	18	22	16	37	47	
비지정		533	2	1	25		4		8	19	10	22	18	86	47	156	135	

3) 관리 주체별 서원의 관리 현황

표6. 서원 관리주체

유형별	서원수
유림	375
문중	255
지자체	10
사단법인	5
학교법인	5
개인	20
알 수 없음	2
총계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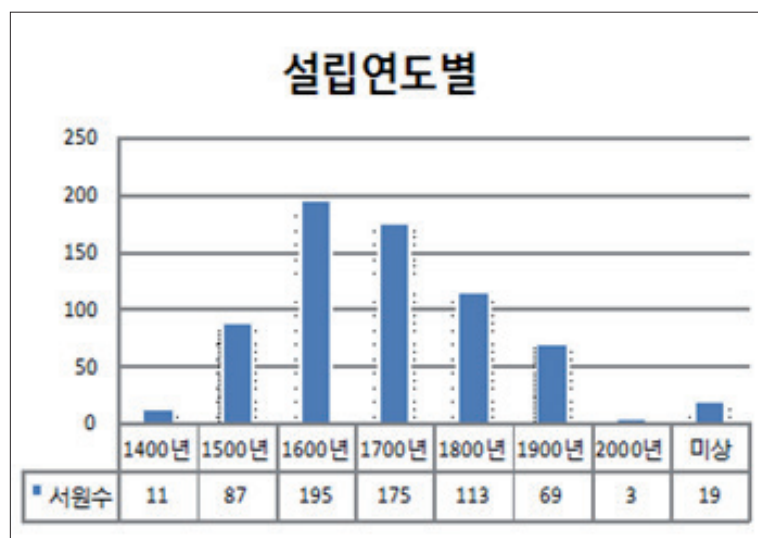
현재의 서원 형태 조사에서 이를 관리 주체별로 조사해 볼 때 유림이 관리하는 곳은 375개소(6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문중으로 255개소(3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관리 10개소, 사단법인 5개소, 학교법인 5개소, 개인관리 2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림이라 할 때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지역 유림들이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문중이라 할 때는 단일 문중에서 설립한 서원이거나 혹은 유림들이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주향의 후손들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처럼 관리사무소를 서원에 두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새로 복원 혹은 중수 되는 과정에서 관리 운영이 자치단체로 기부채납 되거나 소유권만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경우를 말한다. 사단법인으로는 5개소(사충, 설봉, 송록, 장절, 충현서원)가 있으며 학교로 귀속된 곳 또한 5개소(병산, 역동, 구계, 화산, 백학서원)이며 20여개소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4) 최초설립연도별 통계

표7. 설립연도별 서원

연대별	서원수
1400년	11
1500년	87
1600년	195
1700년	175
1800년	113
1900년	69
2000년	3
미상	19
총계	672



현존하는 서원의 설립연도에 대한 현황을 년도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명종(1534~1567) 년간부터 임진왜란을 거쳐 숙종(1661~172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만조 교수의 서원 철폐령 이전의 서원 사우 현황표에 의하면 순조(1790~1834) 년간까지 서원 471개소, 사우 492개소로 총 사원(祠院)이 93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서원수(672개소)와 미복원 서원수(273)개소를 합치면 944개소에 이르고 있어 신설된 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우(祠宇)가 서원(書院)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고 볼 수 있다.

표8. 서원 철폐령 이전의 서원 사우의 합계자료(정만조 교수,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인용) *()는 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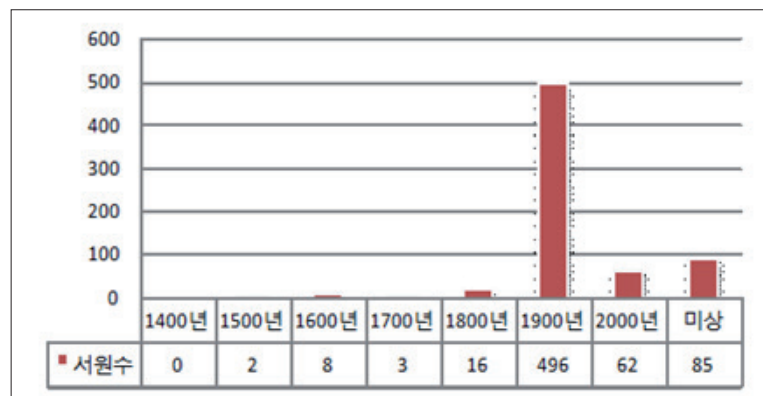
	경상	전라	충청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계
명종	12(5)	3	1(2)	1(2)	1	1	2(4)	1	22(13)
선조	25(3)	3(9)	7(3)	6	8(1)		3(4)	1(2)	63(22)
광해군	12(3)	5(4)	6(1)	2	1	2		1(1)	29(9)
인조	11(9)	6(7)	5(1)	2(2)	-1	2(2)	1(2)	1(1)	28(25)
효종	10(2)	5(3)	2(1)	4	3	2(3)	1	-1	27(10)
현종	14(6)	8(4)	8(3)	5(2)	2	4	4(1)	5(3)	46(23)
숙종	76(61)	27(40)	27(25)	19(8)	5(8)	4(8)	6(15)	2(9)	166(174)
경종	2(5)	3(4)	3(2)		-1	-2	-4	-2	8(20)
영조	6(46)	4(22)	1(14)	1(7)	1(16)	2(14)	1(17)	2(9)	18(145)
정조	-2	2(1)		-3					2(6)
순조이후				1				-1	1(1)
미상	5(9)	1(14)	-6	-3	1(3)	-7		-1	7(43)
계	173(151)	77(108)	60(58)	41(28)	22(30)	13(40)	18(47)	13(30)	417(492)

출처 : 정만조 교수,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인용

5) 현존 서원의 복원 및 중수 관계 통계

표9. 설립연대별 복원 및 중수서원

연대별	서원수
1400년	0
1500년	2
1600년	8
1700년	3
1800년	16
1900년	496
2000년	62
미상	85
총계	672



철폐된 서원 사우들은 대원군이 하야한 후 다시 복원 혹은 중수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서원들은 1900년대에 복원 혹은 중수되었다. 표에 나타나듯이 1900년대에 복원 혹은 중수된 서원은 496개소에 달하는데 이를 시기별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78개소가 복원되고 해방 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9년까지가 109개소, 1970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동안 295개소의 서원이 다시 복원되거나 중수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64개소가 복원 정비되었다.

2. 등재 대상 서원의 관리 운영 현황

1) 등재대상 서원의 개요

항목	기존 상황	필요한 변화
소수서원 (紹修書院)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내죽리 151-2에 위치해 있으며, 7,504㎡(보호구역)가 사적 제55호('63. 1. 21 지정)로 지정되어 보존	이 서원은 동학서묘(東學西廟)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강학당, 문성공묘, 사료관, 영정각, 고직사, 일신재, 직방재, 장서각, 학구재, 지락재, 전사청, 겸령정, 충효교육관, 취한대 등이 남아있다
남계서원 (濫溪書院)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810㎡(지정구역)이 사적 제499호	이 서원 앞으로는 남강의 지류인 위천이 평야를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제향공간으로 사당, 동무, 내삼문이 있고, 강학공간으로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풍영루가 있다. 동재와 서재 앞에는 방형 연지가 각각 하나 있으며, 서재 앞에는 신도비와 비각이 있다. 배치형식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축선 배치를 하고 있다. 서원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그 옆에 하마비 1기가 있다.
옥산서원 (玉山書院)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동 권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26,075㎡이 사적 제154호('67. 03. 08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서원의 공간구성은 무변루가 중심이 되는 진입부, 강당이 중심이 되는 강학 부분, 제향 기능의 사당 부분 및 부속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인당 뒤 서북 모서리에 기대승이 찬한 신도비와 비각이 있고, 중앙 뒤편에는 분장된 곳에 사묘인 체인묘가 있으며 내삼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다. 그 동편에는 경각, 곧 어필각과 문집판각이 있어 내사전적, 회재문집 및 판본 등이 수장되어 있다가 전시관이 들어서면서 수장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서 서북으로 700m 떨어진 화개산 아래에는 회재의 별장이자 서재였던 독락당이 있다.
도산서원 (陶山書院)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32,556㎡(지정구역)가 사적 제170호('69. 5. 28 지정)로 지정	건물은 경사지에 전학후묘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상덕사(사당), 내삼문, 전사청, 전교당, 동재, 서재, 상고직사, 장판각, 광명실, 하고직사, 도산서당, 농운정사, 열정(우물)이 남아 있다.
필암서원 (筆巖書院)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5,831㎡(지정구역)가 사적 제242호('75. 4. 23 지정)로 지정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강학공간은 전당후재(前堂後齋) 형식의 배치를 하였다. 현재 우동사(사당), 내삼문, 청절당, 동재, 서재, 전사청, 장판각, 학연루, 고직사, 경장각, 한장사 등이 남아 있다.
도동서원 (道東書院)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891㎡(지정구역)가 사적 제488호('07.10. 10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서원의 전면에는 낙동강이 200여 미터 앞에 흐르고 수령 약 400년의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으며, 후면에는 임야로 송림이 있고 서편에는 도동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서원은 중심축을 따라 수월루(水月樓), 환주문(喚主門), 중정당(中正堂), 내삼문, 사당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으며, 통로와 계단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항목	기존 상황	필요한 변화
병산서원 (倂山書院)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하회마을이 세계 문화유산 으로 지정되면서 동 권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22,620㎡ (지정 구역)가 사적 제260호 ('78. 3. 31)지정)로 지정	병산서원은 화산을 등지고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 으로 앞산인 병산을 바라보고 병산 아래로 크게 휘도는 낙동강 줄기와 그 앞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백사장이 큰 특징이다. 건물은 경사지에 전학후묘로 배치되어 있으며, 존덕사(사당), 내삼문, 입교당, 동재, 서재, 전사청, 장판각, 만대루, 복례문, 고직사, 광영지(연지) 등이 보존 되어 있다.
돈암서원 (遡巖書院)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74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2,106㎡ (지정구 역:5,548㎡, 보호구역:36,558㎡)가 사적 제 383호('93. 10. 18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돈암서원은 고정산 줄기가 이어지는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배 치는 전학후묘의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응도당, 송례사(사당), 장판 각,정회당, 전사청, 양성당, 경회당, 거경재, 정의재, 입덕문, 산양루 등 의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무성서원 (武城書院)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5,521㎡ (문화재구역 1,428 보호구역 4,093)가 사적 제166호('68. 12. 19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서원은 성황산을 등지고 앞으로 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으 로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변에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전면에는 농 경지가 펼쳐져 있다. 건물은 평지에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였다. 현재 태산사(사당), 내삼문, 강당, 현가루(외삼문), 강수재, 전사청, 비 각4동 등이 남아 있으며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 등재대상 서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관하여

(1) 관리조직의 구성현황

구 분	관할주체 행정조직	관리전담인원	소유주	비고
영주 소수서원	영주시청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수서원(8), 시립박물관(5) 등 13명	소수서원 유림	사적제 55호 (1963.01.21.)
함양 남계서원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5명	원내 및 기타 서원답:남계서원 원 외:함양군청	사적제 499호 (2009.05.26.)
경주 옥산서원	경주시청 문화재과	역사마을관리담당 8명	옥산서원 유림	사적제 154호 (1967.03.08.)
안동 도산서원	안동시청 도산서원관리사무소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17명	도산서원 유림	사적제 170호 (1969.05.28.)
장성 필암서원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3), 테마파크담당(2), 과장 등 6명. 서원관리인 1명 상주	울산김씨 문정공 종중	사적제 242호 (1975.04.23.)
달성 동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팀(3), 서원내 관리 및 안내(3), 문화재 안전경비원(8) 등 14명	서흥김씨 한훤당영남파종중	사적제 488호 (2007.10.10.)
안동 병산서원	안동시청 하회마을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13명	병산교육재단 (풍산중고교 지원재단)	사적제 260호 (1978.03.31.)
논산 돈암서원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담당(6), 관리인 및 문화해설 사(12) 등 18명	돈암서원 유림	사적제 383호 (1993.10.18.)
정읍 무성서원	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5), 상시관리인 (1), 문화유산해설사(3) 등 9명	무성서원 유림	사적제 166호 (1968.12.19.)

등재대상 서원인 9개 서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서의 경관보존과 건물 유지보수,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사무소를 두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서원은 소수서원과 도산

서원이 이에 해당하며 서원에 직접 근무하지는 아니하지만 서원을 포함하는 인근 민속마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근에 파견되어 있는 곳은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이다. 장성군에서는 서원 인근에 있는 유물전시관과 체험숙박시설인 집성관 관리를 위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재 담당을 두고 관리인을 두거나 문화유산 해설사 등을 배치해 두고 있는 곳은 남계, 필암, 도동, 돈암서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9개 서원 공히 관리 형태는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원관리는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재관리를 위해 고정 근무자를 두거나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 서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중수 혹은 개보수를 주도하여 해당 사실조차 소유주인 유림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관계로 서원이나 향교가 가지고 있던 그 지역만의 고유한 건축적 특성이나 정신적 표상물 등이 지역적 특징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재건축되어 지는 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관리주체와 역사, 당해 건물에 깃들여 있던 스토리들이 민멸되는 일도 발생된다고 하니 향후 건물 개수와 관련되어서는 관리 주체인 유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운영조직의 구성현황

구 분	운영주체	운영 조직 및 임원	소속유림	주요활동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 당회, 임원회의	원장(1), 재유사(齎有司2), 도감(3), 감사(2), 별유사(12) ¹	소수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함양 남계서원	남계서원 원회	원장(1), 외임(1), 내임(1)유사(2), 직월(1)	남계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1), 운영위원회 위원(25), 유사(1), 재무(1)	옥산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 당회, 운영위원회	당회(정원없음)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13)	도산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문중	원장(1), 도유사(1), 별유사(1), 집강(8)	필암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1), 위원회(20), 유사(3)	도동서원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 당회	원장(1), 도유사(1), 재유사(2), 유사(4), 인사위원회(5)	안동지역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 총회	원장(1), 수석장의 외 각 부문 장의(20)	논산지역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정읍 무성서원	무성서원 모현회	원장(1), 부원장(4), 사무국장(1), 총무(1), 이사(20)	정읍지역 유림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 문화재지역 경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실질적인 서원 운영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운영해오던 유림 중심의 서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院規)를 바탕으로 원장(院長), 강장(講長), 훈장(訓長) 등의 원임이 있었다. 원장은 산장(山長), 혹은 동주(洞主)로 지칭되며,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로서의

1. 원장은 본원의 대표로서 향사를 주재하고 서원업무를 총괄하며, 당회의 의장이 된다. 재유사는 향사의 제반의식을 점검하며, 별유사는 향사를 돕고 서원업무에 적극 동참(삭망 분향례)한다. 도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향사를 돕고, 본원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록의 작성, 유대 및 회계보고의 의무를 진다. 감사는 본원의 사업전반을 감사하여 당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구실을 담당하였다. 서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원장은 퇴관한 관료이거나 당대의 명유석학(名儒碩學)이 맡는 것이 관례이었다. 강장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강문을 담당하고, 훈장은 학문 근면과 훈도를 책임졌다. 그밖에 서원 관리를 위하여 재장(齋長), 집강(執綱), 도유사(都有司), 부유사(副有司), 직월(直月), 직일(直日), 장의(掌議), 색장(色掌) 등의 직책을 두었다. 이러한 재임(齋任)의 선출은 추천 제도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3년이 통례이나, 원장은 일기(一期)의 향사, 혹은 종신직이었다.

현재는 대체로 전통적인 임원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훈장, 재장, 집강 등의 교육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서원의 주요 운영기능으로는 제향과 예결산 관계, 임원선임과 재산관리인데 대부분 서원의 경우 서원소유의 재산이 여유가 있는 곳은 운영이 원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향 측의 문중 도움을 받아운영하는 편이다. 서원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지고 출입 유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서원 설립의 취지였던 지역 혹은 후학 중심의 서원운영에서 봉향위의 후손중심으로 서원출입자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는, 주향 후손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향봉행의 궁극적 책임을 저야 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셋째는, 서원에 소속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경작세(도지)를 받아 제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농촌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작세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 관계로 봉제사에 어려움을 겪는 서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서원 유림들의 역량으로 운영예산을 충족해야한다면 결국은 주향 후손들의 재정적 부담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들은 당해 지자체에 운영과 관련된 제향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의 경우 당해 서원 시설을 유료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취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서원 사용료를 납부 받을 수 있으나 여타 서원들은 현재 관람료를 징수치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문화재 서원에서의 입장료 문제는 서원 운영 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 문화재 서원과 당해 지자체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3) 외부 운영지원 조직

서원이 존치하는 지역적 특성이나 후학들의 운영 방식 따라서 서원별로 다양한 보조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서원과 관련된 인물 현창과 관련하여 관련 유력 인사의 노력 혹은 지역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서원기능과 운영의 외연(外延)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 및 시설확장을 한 경우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교와 퇴계선생의 정신계승 노력과,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와 성리학의 정신세계를 연구 선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산청의 덕천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광주의 월봉서원 등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서원을 지원하는 각종 모임체가 결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도산서원의 경우 도운회, 박약회, 퇴계학회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등은 주향자를 선양하는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어 각종 학술대회나 주기(週期)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분	운영지원조직 및 시설	주요활동	소재지	비고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박물관 ²	소수서원 유물 및 영주지역 기증유물 보존 및 전시	영주	25,000여점의 유물소장 및 전시 관련 연구 및 책자발간 병행
	선비촌 ³	영주선비문화 체험 및 숙박	영주	년간 40,000여명 체험 및 숙박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한국의 선비정신 체인을 위한 훈련원		년간 60,000여명 선비정신교육 실시
함양 남계서원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회	학술회의 등 일두 정여창 선생관련 기념사업 거행	함양	2003년 설립(사단법인)
경주 옥산서원	회재 이언적 기념사업회	회재 이언적선생 기념사업	서울	2011년 설립(사단법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⁴	도덕입국 윤리실천 주체 양성	안동	2001년 개원 60,000명 수료
	국학진흥원	북부 유교권 유교문화 연구현장 도산서원 서적 및 판각관리	안동	경상북도와 안동시 공동건립
	거경대학 ⁵	성학10도생활화, 경사상 계승	안동	2006년 개강, 5,000명 수료
	국제퇴계학회, 퇴계학회	퇴계 이황선생의 학문과 사상연구 전파	서울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도운회 ⁶	학술대회 개최	안동중심	도산서원 당회 참여
	박약회 ⁷	퇴계 이황선생의 학술과 사상선양	전국	학술회의 및 유적지 탐방 행사 시행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원진각)	하서 김인후선생과 관련된 유물 보존 및 전시	장성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로부터 3,795점의 유물을 기증받음
	하서선생기념사업회	하서 김인후선생 기념사업	장성	연구책자 발간 등 사업 시행
	집성관	필암서원 부설의 다양한 서원 체험 및 숙박시설 구비	장성	2011년 개관 위탁
달성 도동서원	한훤당선생 기념사업회	한훤당 김광필선생의 기념사업	대구	2010년 등록(사단법인)
안동 병산서원	서애선생 기념사업회	서애 류성룡선생의 기념사업	서울	1976년 설립(사단법인)
논산 돈암서원	사계. 신독재 양선생기념사업회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기념사업 시행	서울	1990년대 설립(사단법인)
정읍 무성서원	고운국제교류사업회 면암 최익현선생 기념사업회	고운 최치원 선생과 면암 최익현 선생의 기념사업 시행	서울	양 기념사업회 2009년 설립(사단법인)

2. 소수박물관은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유물을 비롯하여 영주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소수서원 인근에 2004년 9월 22일 개관했다. 소수박물관은 3,196.71㎡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졌으며 전시실과 수장고, 학예실, 훈증실 등을 갖추고 있다. 소수박물관은 2만 2,24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623점을 전시하고 있다. 소장유물로는 사서삼경을 비롯한 고서가 5,711점, 교지와 명문 등 고문서가 1만 731점, 죽계지목판과 성학십도 등의 책판이 1,146점, 간찰과 현판 2,512점, 기타 민속품 약 3,000점이 있다.
3. 소수서원 서원촌으로 조선시대 선비와 상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수서원 인근에 조성된 전통 민속마을이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 고택, 김상진 가옥 등 기와집 7채와 장휘덕가옥, 김뢰진 가옥, 김규진 가옥, 두암 고택 가람집, 이후남 가옥 등 초가집 5채는 가족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도로 개방된다. 매년 5월 경에 선비문화축제와 또 고택에 따라 옷놀이, 제기차기, 장작패기, 지게지기, 새끼꼬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4.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도산서원 인근 퇴계종택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도산서원수련원으로 시작한 이래 학생, 교원, 공무원, 군인 등을 중점적으로 연수해오다가 사회단체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지금까지 각계에서 1만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서원 교육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퇴계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전승해 가고 있다.
5. 도산서원 운영위원회가 2006년에 시작한 학교로 퇴계 이황 선생의 심법인 경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박3일의 수양위주의 단기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다.
6. 도운회는 퇴계선생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7. 박약회는 박문약례(博文約禮)의 약자로 1987년 7월 도산서원 박학재에서 퇴계선생을 사숙하는 후학들의 학계(學界)로 시작되었다. 그 뒤에 모임을 거듭하면서 중앙과 전국지부로 확대되었고 각종 연수활동과 연구활동, 사회계몽 활동, 국내외 교류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국 유림조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4) 등재대상 서원의 주요 사회교화 활동(향사제외)

오늘날의 서원이 서원자체의 교육기능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교육이 부활되고 있다. 소수서원의 원종완의에 의하면 “서원을 세운 본 뜻은 오로지 선비를 양육하는 데에 있다. 실로 선비를 잘 기르지 못하면 서원이 없는 거시나 다름없다. 지금은 비록 물자가 고갈되었지만, 선비를 기르는 일 한가지만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중략) 이에 50석을 배정하여(관청에서 배정함을 말함) 선비를 기르는 경비로 삼는다. 추수가 끝나면 이를 별도로 창고에 두어 교학외의 경비로 절대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벌로 다스리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다. 서원은 물자가 끊어져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 지원이나 비용 보조를 받아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 선도적인 서원의 경우 시설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시설을 별도로 설립하여 서원의 교육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수서원의 경우를 보면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중심으로 소수 서원, 소수박물관, 인근의 금성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15,000명 규모에 달한다.

도산서원의 경우는 더욱 일찍 정착되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국학진흥원과 같은 독립된 연구 교육 기관과, 도산서원 부설 전통예절교육원, 거경대학을 비롯하여 인근의 안동예절학교 등이 하나의 거대한 군락을 이루면서 퇴계선생을 중심으로한 안동의 정신문화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 전통문화체험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주부과거제	주부	시, 서, 화 백일장, 전국 주부 참가, 축하연, 전통놀이, 전통공연
전통복식전	일반	의례복 전시, 선비복 전시, 평상복 전시, 복식 착용체험, 전통놀이 체험
과거시험재현	일반	조선시대 과거현장 체험, 시상식, 축하연

◎ 예절교실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어린이 예절교실	유치부	인사예절, 언어예절, 기본예절, 전통문화체험
청소년 인성예절교실	초·중·고 학생	인사예절, 언어예절, 기본예절, 다도예절, 전통문화체험, 올바른 학교생활
청소년 예절캠프	초·중·고 학생	전통예절, 인성예절, 한문교육, 다도예절,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올바른 학교생활
어머니 인성예절교실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 자녀교육 방법, 기본예절
가족예절교실	가족단위	가족의 소중함, 역할 바꾸기 연극, 가족 간의 대화, 가정예절,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한문교실	일반	육서의 이해, 한문의 구조, 문법, 해석법, 대학,中庸, 논어, 맹자
전통의례교실	일반	예절의 기본원리, 가정의례, 통과의례(관혼상제), 배례법
선비문화교실	일반	세사풍속, 전통문화 일반, 교양강좌, 선비정신

◎ 연수/위탁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유림지도자 연수	전국 유림	유림 자체 프로그램, 유림 자질향상, 단합대회
공무원 연수	공무원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공직자의 자세
직장인 연수	일반직장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직장예절
학생 위탁연수	초·중·고 학생	전통예절의 이해, 기본예절 익히기, 심신수양법, 올바른 가치관, 인성교육
군인 위탁연수	군인(장병, 장교)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대학생 전통문화 체험	일반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 특별체험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국제유교 학술대회	전국 유림	유림 자체 프로그램, 유림 자질향상, 단합대회
저소득층 자녀 체험교육	저소득층 초·중 학생 (학교 및 지자체 추진)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공직자의 자세
외국인 체험교육	외국인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직장예절
다문화가정 체험교육	다문화가정	전통예절의 이해, 기본예절 익히기, 심신수양법, 올바른 가치관, 인성교육
군인 위탁연수	군인(장병, 장교)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대학생 전통문화 체험	일반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구 분	사회교화활동	운영주체	사업실적	비고
영주 소수서원	서원선비체험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년간 1만명규모	체험 및 숙박 선비촌 2005년 개시 선비문화수련원 2011년 개시
	영주 선비문화축제	영주시청	매년 약5만명 방문 참여	다양한 선비문화 체험 축제
	소수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문화유산 해설참여)	소수서원시립박물관	매년 35만명 (관람객 기준)	2010년 기준 서원문화 체험
함양 남계서원	남계서원과 일두선생 고택연계 문화 탐방	기념사업회, 함양군청	매년 2만여명 (관람객 기준)	서원문화 체험 및 연계숙박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문화유산 해설참여)	옥산서원 및 양동마을 관리사무소	매년 8만여명 (관람객 기준)	2011년 기준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거경대학	매년 6천명	선비문화수련원 2001년 개시 거경학당 2006년 개시
	도산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문화유산 해설참여)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매년 20만명 (관람객 기준)	2011년 기준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 선비학당 ⁸	필암서원 집강	연인원 15,000명	1999년부터 매주 2회
	필암서원 및 유물기념관 탐방 및 체험	필암서원 및 유물관리소	매년 11만명 (관람객 기준)	2010년 기준

8. 장성군에서는 학문을 숭상하고 호국충절 정신이 투철한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바람직한 정신문화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필암서원에서 선비학당을 운영해 오고있다. 1999년 4월 29일 필암서원내 청절당에서 강사(훈장, 박래동동양학연구원 원장)를 초빙하여 주 3회 2시간씩 매회 20여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효경, 하서 김인후 등 장성출신 학자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것이다.

구 분	사회교화활동	운영주체	사업실적	비고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集成館) 선비체험*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매년 2,000명	2011년부터 개시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달성군, 도동서원	매년 2만5천명 (관람객 기준)	2010년 기준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 및 하회마을 문화탐방 및 체험	안동시청 하회마을보존회 등	매년 1백만명 (관람객 기준)	2010년 기준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 문화학교* (인문학강좌, 주말문화교실 등)	논산시, 돈암서원	년간 3,000명	
	돈암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논산시, 돈암서원	매년 6만8천명 (관람객 기준)	2010년 기준
정읍 무성서원	무성서원 문화탐방 및 체험	정읍시, 무성서원	매년 3만5천명 (관람객 기준)	2011년 기준

(5) 9개 서원 건축 및 시설물의 현황

등재대상 서원의 경관과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심포지움에서 이왕기 교수에 의해 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된 바가 있다. 현 9개 서원의 관리운영 현황이라는 측면에서 지적되었던 관리 현황의 평가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적시하고자 한다.

구 분	항 목			
	경내경관 유지	주변경관	건조물	기타
소수	양호하나 -사료관의 진정성 -충효교육관 규모와 양식 문제점	-서원 후면의 선비촌 경관 -선비촌의 시설물	-충효교육관의 구조와 규모	-소화설비 디자인 -제월루 복원계획
남계	양호 -풍영루 좌우 담장 높이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진입로 및 포장재료 -서원 주변 방치 민가	-적벽돌 구조의 장서각 -강당뒤 소변기	-안내판 디자인 -진정성 없는 경내 비석 -소화설비 디자인 -서원주변 정비계획
옥산	-양호	-서원 주변 통나무 화장실	-없음	-소화설비 디자인
도산	양호하나 -외래수종 식재 -서원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담장 -옥진각 문제점	-서원 진입로의 진정성 -성토된 서원 앞마당 지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유물전시관(옥진각)	-서원 앞 시사단과 서원의 경관적 연계성
필암	-양호	-서원 앞 유물전시관(원진각) 과 수련원 -서원 앞 조경시설물 -서원 앞 개천정비 -편의시설(화장실,가로등)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9. 집성관은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교육 체험장을 말한다. ‘문불여 불불여 장성에서의 1박2일 캠프’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인후 선생의 일대기, 조선 왕세자 교육 체험,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인종을 향한 충절, 조선시대의 왕세자 교육, 청렴정신 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관초기인 2011.8월부터 2011.10월까지 매회 30명씩 7회를 실시하여 모두 183명이 참여하였다. 관외에서는 광주, 보성, 무안, 경기도, 대전 등지에 참여 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두번째 나라 한국 체험” : 2011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0. 돈암서원에서는 매년 돈암서원 인문마당, 국악공연, 명사초청 특강, 향시 재현행사, 학술세미나 등을 정례화하여 돈암서원 강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돈암서원 정례 문화 체험 행사와 연계하여 기호학과 유적답사와 고택스테이 등을 펼치고 있는데 충남도와 논산시, 공주대학, 돈암서원이 연계하여 사계와 신독재 선생의 예학정신을 현창하는데 협동노력하고 있다.

구 분	항 목			
	경내경관 유지	주변경관	건조물	기타
도동	-양호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앞 공중화장실 -서원 앞 각종 시설물 (휴게실, 음수대)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병산	-양호	-서원 앞 주차장 -서원 앞 개인 건축물 -훼손되는 소나무 숲	-없음	-소화시설물 디자인 -피서지화 되는 백사장
돈암	양호하나 -산양루의 위치와 주변담장 -홍살문의 위치변경과 진정성 -응도당 옆 벽돌조 화장실 -서원 경내 채석	-서원 전면의 공장, 창고시설물 -응도당 후면의 펌프실	-산양루의 건축양식	-서원 경내 각종 석조시설물 -실외기 등 현대기구의 노출 -소화시설물, 가로등 디자인 -서원주변 정비계획
무성	-수직사 후면의 펌프실	-서원 앞 담장 전신주 -서원주변 민가 건축양식	-펌프실의 건축구조와 양식	-소화시설물 디자인 -가로등 디자인

(6) 서원 관리 운영 조례의 제정 현황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인 대상 9개 서원은 전통적으로 서원 운영에 대한 영(令), 방(榜) 원규(院規), 입의(立議)를 정하여 현판에 새겨 유생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린다. 서원 운영과 서원 건물의 증개축 등 서원 제사(諸事)는 이 규칙에 의해 결정 했으며 지금도 원내 관련 업무는 전통 방식에 의해 의결 집행한다.

주요 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9개의 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서원별로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산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관리하고 있다. 당해 9개 서원의 보존과 관련된 법령, 조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	서원관련 조례, 규정, 시행규칙, 지침	타 지역과의 항목 차이점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도동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돈암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사적지관리지침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무성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문화재보존관리지침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사적지 관리지침	
	전라남도 문화재보존 관리책임제 시행규정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필암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관별	서원관련 조례, 규정, 시행규칙, 지침	타 지역과의 항목 차이점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도산, 병산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소수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소수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양동마을(옥산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남계서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3. 효율적 서원 운영을 위한 노력

1) 서원의 목적사업 운영현황

전국 서원에서 제한적으로 템플스테이에 상응하는 서원스테이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승려와 신도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쉽게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원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냉난방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설을 개보수 하기 전에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10~20명 규모가 입재하여 교육을 받던 장소이기 때문에 협소한 동서재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원 인근에 체험 학습장을 신축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활용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활용방법	활용내용	활용장소	활용시간	활용대상	비고
제향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	대성전 사당,재실,전사청	제향시간내	유림,문중	모든향교와 서원
한자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습	명륜당,유림회관, 강당,재실	주말 또는 방학	초,중등학생	도시 또는 도시인접 학교와 서원,유림회관
예절교실 (총효교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습(문광부지원프로그램)	명륜당,강당,재실, 유림회관	주말 또는 방학	초,중등학생	도시 또는 도시인접 학교와 서원,유림회관
동아리 학습	취미나 학습 등 공동목적으로 결성된 동아리 활동	명륜당,강당,재실	주로 하절기	대학생, 일반인	역사성이있는 서원
한옥체험	전통적인 한옥 경관을 느끼고 휴식을 위하여 인근 전통가옥과 연계	재실	주말 또는 방학	가족, 일반인	전통마을과 인접한 서원으로 소수,
현장답사	향교와 서원의 역사와 건축, 경관에 대한 답사학습,인근 전통가옥과 연계	유교유적 및 주변경관	불특정시간	학생 및 일반	9개 사적 서원이 대표적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서원의 역사와 인물,유적중심으로 전시	전시장 및 서원영역		학생 및 일반	소수,도산,자운, 필암,덕천.

다만, 사당의 신성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모범적 사례가 되는 서원운영사례

전국 670여 곳의 서원 중 대부분의 서원이 제사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강학기능은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되어 버렸다. 현재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서원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소개하는 서원들은 서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원이 해당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곳들이다.

(1) 지자체가 관리 운영의 중심에 나선다.

서원의 구성원들은 향사봉행의 오랜 전통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전승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버린 교육적 기능 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현대사회학습이나 문화체계와는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고자 하는 문경의 근암서원의 경우는 이를 자인(自認)하여 제향공간인 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원 경역을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원과 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적 서원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편이하게 현대적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원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자체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과내 지역 학생,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지역문화 알리기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한자교육을 중시하여 경시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지역 내 학생들의 70%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토록 하는 붓을 조성한 바도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한 한 학예사 개인의 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대항목	개최시기	운영내용
서원 스테이	연중 상설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전통보존 및 민족성 고취하고 서원 기능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여 전통예절, 심신수양, 경전읽기,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하며 일일체험,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서원 아카데미 개설	상시운영	연령과 유형별, 이용단위별로 인성교육과 청정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심성도야를 목표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 구비 (초급한문, 명심보감, 소학 등)하고 직장인들과 성인들의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과 수련, 체험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진행
한자왕 선발대회 개최	매년 1회 개최	전통교육에 대한 이해도모와 지역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 매년 9~10월경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로 운영계획
사회단체 행사개최	연중 개최	관내 각 사회유림단체에서 추진하는 전통행사 및 정기총회 등을 서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원을 활용.
음악회 등 예술 공연 개최	연중 정기개최	각종 음악회 및 예술 공연을 연 중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자는 취지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	연중 운영	지역 학생들에게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자긍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 선비복장입기 체험, 선헌뵙기, 인성교육, 전통놀이체험 등이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

즉 서원 운영을 문화재 활용 담당자가 직접 맡아 운영하면서 관내에 적합한 프로그램 들을 상황에 맞게 제대로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겠다.

(2) 서원 고유의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직할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봉 기대승 선생을 모시고 있는 월봉서원이 '2011 문화재 생생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돼 신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다. 특히 월봉서원에서는 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철학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서삼경을 이용한 '논어 산책·비움과 버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고전 아카데미가 그것인데 논어 원전해석을 통한 인간 공자와 그의 사상에 대해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을 펼쳐가고 있다.

월봉서원에서는 민관합동(서원과 광산구)으로 월봉서원 드라마 판타지아, '광산 500년 역사 초대장을 찾아서', 고품격 서원 문화살롱, '살롱 드 월봉'(salon de Wolbong), 월봉서원 MD(Music Design) 프로젝트, 고봉 어린이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월봉서원 자경(自警) 기록 카드 '도라봄' 운영, 광주 8경(빙월당과 황룡강 물안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서원 앞에 합숙 체험이 가능한 기숙사 명성재를 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3) 서원 문화학교의 상설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설봉서원은 이천시의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와 (社)雪峯書院의 「설봉서원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이천시는 서원운영에 관한 財政을 지원하고 (사)설봉서원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춘 것이다.

현재의 서원은 지난 2007년 4월 13일 준공되어 136년 만에 다시 복원된 건물이다. 이천시 관고동 설봉공원 6,612㎡ 부지에 대성전, 동·서재, 내·외 삼문 등 건물 10채를 갖추고 있는데 설봉서원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학과 예절을 배우는 “하계학생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 ‘오경’을 배우는 과정을 개강하여 전통예절을 배우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체험 교육 1천741명, 평생교육의 일환인 일반인 교육 1만2천572명, 외국인·다문화가정·기업 등 수시위탁교육 2천371명 등을 배출했으며, 4천354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4) 서원 문화 복합시설과 연계축제 시행

영주시는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각종 체험 연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 연수 축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영주의 정체성 고양에 앞장서고 있다. 즉 소수서원과 연계하여 선비촌, 선비문화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 소수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일일 500명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45명의 체험보조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연간 외국인 8,000명, 내국인 2만명 이상을 유치하여 체험및 학습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수박물관의 전시 및 체험기능, 선비촌의 숙박및 전통문화 체험기능, 소수서원과 선비문화 수련원의 교육기능이 계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서원활성화의 전형으로 새로운 서원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부터 영주시 선비문화축제를 소수서원과 선비촌, 영주시내 일대에서 개최하여 서원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비정신함양 활동을 정례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5)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현장 문화축제의 전개

서원인물을 현장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곳의 대표적 사례로경남 산청의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한 남명선비문화축제를 들 수 있다.

남명 선비문화축제는 실천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주제로 남명 선생 묘소 참배, 선비학춤공연, 남명선생 제자들의 의병출정식, 남명제, 남명 선생 얼 이어 받기, 경남 어린이 학생백일장, 어린이 민속놀이경연대회, 진주검무와 악가무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서예체험, 인쇄문화체험, 선비복장 입어보기 체험(사진 찍기), 어린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등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명의 흔적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남명 유적순례, 전통혼례 재현 행사, 지리산 야생화의 한방약초 전시회, 민속놀이 체험을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남명선비문화 수련원을 현재 공사 중에 있다.

(6) 서원시설 부족을 해소할 인근 지역의 선비문화 수련시설의 설치

안동과 도산서원은 가장 광범위한 정신문화적 요소를 구비한 지역으로서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국학진흥원 등을 연계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현재 운영중이다. 연수내용은 선비문화와 현대교육, 선비의 몸과 마음, 선비와 생활예절, 안동의 정신과 문화, 유학과 선비문화 체험 등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 필요한 교육항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 참조)하고 있다. 운영성과는 2002년 개설 후 교직원, 공직자, 경제인단체, 학생, 학부모 등이 202기에 걸쳐 10,783명 수료하였고 시설로는 2009년 국, 도, 시비 등 30억을 투입,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선비문화수련원’ 건립하였다.

4. 서원 관리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서원 운영 조례의 제정 필요(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들에 대한 보존과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나 규칙의 경우 대부분이 입장료에 관련된 것이거나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제 범주의 조례에 국한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서원 관리 운영과 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보존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근래 경기도에서 도차원의 향교 서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앞서 살펴 보았던 현재의 관련 조례처럼 시설사용을 규제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강제적 조례가 아니라 향후 서원 향교가 지역문화 자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는 도차원의 조례제정을 먼저 추진하여 도내 서원 향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정체성 고양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주요내용은 서원 향교 활성화를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되 자립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며 기부금품과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사업을 적시하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와 협업할 경우 공동 지원도 가능케하며 서원 향교에 기부금을 낼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과 민관(民官)이 공동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토록하고 도(道)단위의 서원향교를 공동 지원할 향교서원 운영사업단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한 인력수요를 도(道)단위로 묶어 공동 지원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제정 프로젝트는 어느 지역보다 진일보된 미래지향적 서원 향교 발전 방안을 담고 있어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추진되는 조례의 내용을 예시하고자 한다.

2) 서원의 기부채납 혹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서원의 적극적 참여)

서원을 유림이나 문중, 혹은 개인의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여 개방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이나 문중 단일 선조를 배향하는 서원에 대해서 공공재로 판단토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림이 소유한 서원 가운데 정상적인 서원시설을 갖춘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이미 공공화된 민족 교육문화 자산의 영역에 이미 편입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림들이 재정부족과 노령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서원 본연의 기능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서원의 가치를 향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유림들의 동의하에 제향공간을 제외하고 기타 공간에 대해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거나 공공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서원의 관리운영에 사회적 공익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서원이 모시고 있는 선현들의 정신적 자산과 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원 네트워크 구축(소유자 + 관리자 + 운영자의 결합)

서원은 더 이상 유림들만의 자산은 아니다. 규모면에서 실질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유림들이나 후손의 힘만으로 향교와 서원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포천시청과 관련 유림, 이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려는 교육청과 문화원, 문화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해야 이를 보존할 수 있을뿐더러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은 유림들이 겨우 향사나 지낼 뿐 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 활용하기도 하고 제향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거나 문화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활용단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선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 향교와 지역 네트워크는 가장 1차적 보존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서원간 1:1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매결연 및 부설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내 관련기관(국문학,사학,철학,한문 등)과 1:1 서원 네트워크 혹은 지역내 1행정기관과 서원간의 1:1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서원 사주의 청결유지와 보존 활용이라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갈 필요가 있다. 근간에 지역사회 출신의 정년퇴임 교수를 서원장으로 초빙하여 상설 강좌를 개설하거나 일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들이 엮보이는 서원들이 있다.

4) 서원시설의 위탁에 대한 유림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

많은 유림들은 서원이 존현(尊賢)의 공간인 관계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근암서원이나 설봉서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의 공공화는 서원 관리운영의 효율화 뿐만이 아니라 서원이 받고 있는 분들의 선양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향사시설을 제외한 서원 공간에 대한 운영의 위탁이라는 항목을 서원 유림들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서원답의 적은 소출로 제향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춘추향을 제외하고는 자물쇠로 잠가놓는 서원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목재건축은 갈고닦고 사람의 훈기가 없이는 보수만 반복할 뿐이다. 자치단체,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학자,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위탁은 서원의 수명을 오래 끌고 갈 것이다.

나가는 말

전통서원에 대한 문화코드로의 인식전환 필요

옛날에 왕조에서 사액서원이라는 당근으로 교육열을 채찍질 했다면 현대사회에서 서원을 중앙과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교육기구에서 문화코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문화코드를 구시대의 유물로 내버려 두는 일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손실이라고 하겠다.

서원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다. 이미 가장 중요했던 양사의 기능이 없어진지 오래인 만큼, 관리운영자로 합의된 소수의 유림들이 서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수하고 부속된 전답의 소출을 받아 봄가을로 향사를 올리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다.

서원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운동은 망각되고 정체된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국가적 자긍심으로 삼고 그 본래의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승계되어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 운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관리 운영의 대안을 찾아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서원 관리와 운영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 이미 관리 측면은 문화재적인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한 향사만을 위한 운영조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관리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라는 제도적 측면이 보장되어가듯이 운영 측면에서도 지자체와 사회단체, 유림단체,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유림들의 과도한 노고도 줄어들어야 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문화자산으로 양성해가는 문호(門戶)를 열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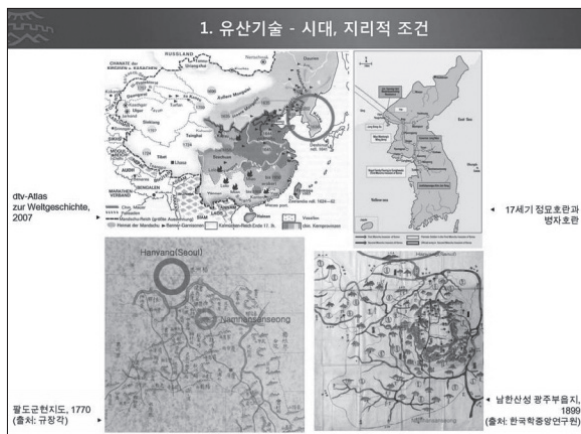
서원과 향교를 중심을 한 전통시대의 교육문화자산은 제도적으로 보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정신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들 피속에 남아있는 역동적 개혁과 사회발전,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동방의 유태인이라 비유하는 것처럼 재빠른 산업화와 마케팅은 결국 한국 서원문화가 지향했던 3가지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며 지금도 역동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서원이 전통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던 지식인들의 용광로였다할 수 있다. 서원의 기능이 전통시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도 함께 더불어 갈 중요한 문화코드의 하나로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교육과 서원(書院) 목적하던 정신적 기반 즉, 인문학에 바탕한 휴머니즘(仁)과 사회정의(義)와 국내외의 평화적 질서구축(禮), 운영주체인 인간의 청빈과 검소 나아가 환경생태 보호(智)를 바탕으로 세계사에 기여(信)할 때 인류평화의 주체(大同和平)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꿈꾸는 새로운 교육 계몽운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c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3차)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남한산성 세부시설 개요

지역	길이(m)	면적(m ²)	비고
본성	7,545	2,126,637	1624 수축
1 남옹성	426	2,381	1638 축성추정, 1638, 1779 증·개축
2 남옹성	318	3,583	1638 축성추정
3 남옹성	125	839	
장경사신지옹성	159	1,447	
연주봉옹성	315	865	1624 축성
통암성	2,120	7,137	1686 축성, 1705 포혈증축
한봉성	1,093	-	1693 축성
신남성 동문대	134	1,381	1719 신남성 축성
신남성 서문대	121	998	1753 신남성 암문대축조
총길이	12,356	2,145,268	-

1. 유산기술 - 남한산성 문화재 지정현황

* 지정 문화재 현황(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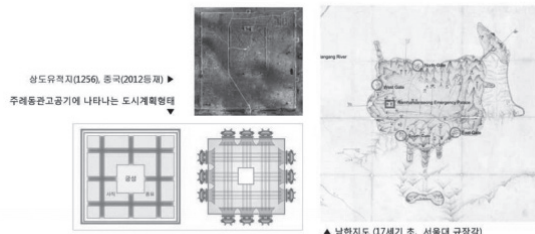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년월일	사진자료
국가 지정 (2)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1963. 1. 21	
	제490호	남한산성 행궁	2007. 6. 8	
도지정 (10)	유형문화재 (6)	제1호 수어장대 제2호 송월전 제3호 정랑당 제4호 현절사 제5호 침괘정 제6호 연무관	1972. 5. 4	
	문화재자료 (2)	제14호 지수당 제15호 장경사	1983. 9. 19	
	기념물 (2)	제111호 망월사지 제119호 개원사지	1988. 12. 12 1989. 12. 29	

* 미지정 문화재 200여건(매사지 및 이아터, 행장관행, 금석문 등)

2. 등재신청기준 (iii)

기준 iii 특정 기간이나 문화 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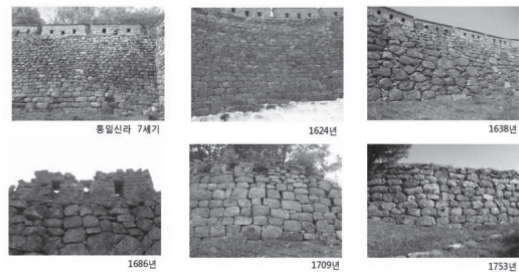
- 남한산성은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이다.
- 남한산성은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시의 임시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 도시이다.



2. 등재신청기준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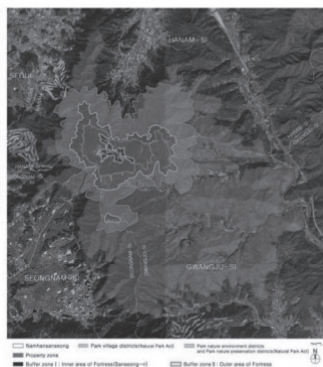
기준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술 또는 기술적인 공체로서의 탁월한 사례

- 남한산성은 험한 지형을 활용하여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낸다.



3. 완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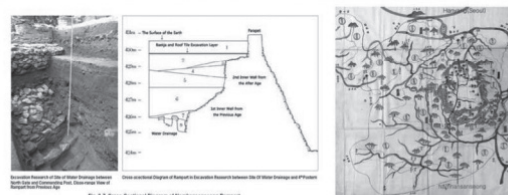
- 남한산성 OUV 재방구성요소는 핵심지대에 포함되어 적절하게 잘 보존됨
- 성곽을 둘러싼 지역은 모두 유산의 배후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완충구역으로 설정됨
-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보존관리 단일 민간인전담기구



3. 진정성

남한산성은 자연 지세, 건축 구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진정성 확보

성곽과 산성 도시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역사적 구성 요소는 다양한 사료에 의해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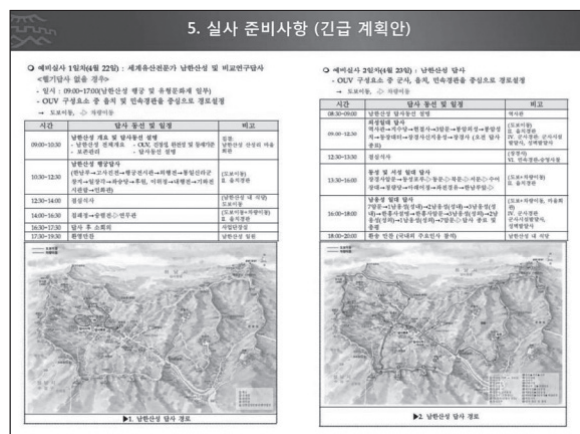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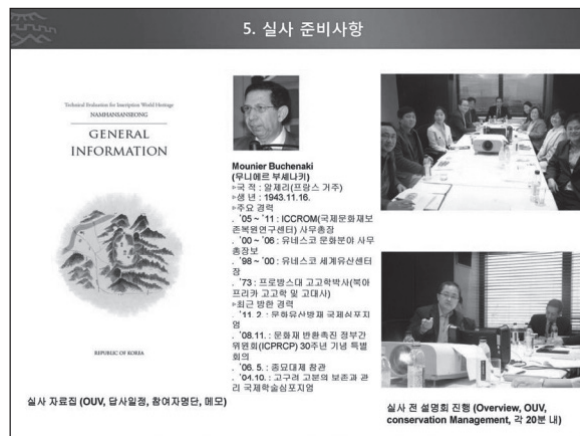


3. 진정성 관련 사료(고문서, 고사진, 발굴조사, 연구)



3. 진정성 관련 사료(남한산성 행궁)





5. 실사 준비사항(현장 설명 안내판)

Dismantlement and Repair of the Stone Structure and Wall of Seomunsa East-West Communal Post

Details of the Work

The stone structure was severely damaged and the stone part of the wall was almost as it was left to collapse. Consequently, the dismantlement and repair work was carried out.

- The stone structure was dismantled after identifying the stone with anchors. The wall was dismantled in order to repair the stone structure.
- The stone structure was dismantled after identifying the stone with anchors. The wall was dismantled in order to repair the stone structure.
- The stone structure was dismantled after identifying the stone with anchors. The wall was dismantled in order to repair the stone structure.

Process of Dismantlement

Before the Work Dismantlement of the Wall After the Work

현장 설명 개별 안내판
(유산기술, 보존관리역사, 법적근거, 재현현황)

5. 실사 준비사항(전시시설: 진정성)

현공 홍보 전시관 고지도, 고사진전

5. 실사 준비사항(안전시설)

현공 홍보 전시관 고지도, 고사진전

6. 보존관리 - 남한산성 보호관리 조직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조직도

의용소방대,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원봉사단, 광주시 소방서, 상생리 파출소, 의용소방대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조직도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경기도지사)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반 (남한산성문화유산팀장)

학술분과	관리·조성·홍보 분과	주민참여분과
추진위원	추진위원	추진위원
추진위원 4명	추진위원 17명	추진위원 4명
업무지원단	업무지원단	업무지원단
문화재청, 국제고목과 업무담당 사무관, 경기도 문화유산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명), 경기도 문화유산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조종목과 과장, 남한산성 문화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문화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문화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업무담당 사무관

주민 등재 반대 서한 발송

주민대표자 요구사항

-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각종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구두 요구사항)
- 위 행정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될 때까지 연행 불법행위 단속 중지
- 남한산성 공용 유류 주자장, 문화재 복원사업, 남한산성 문화재(총제) 관리권 귀속
- 남한산성 산성리 '마을기업' 설립 시 각종 공공사업 우선 시행사업자로 보장
- 남한산성 새마을회 외 외부 '문화재 지킴이', '각종 시민단체 및 NGO' 참여 배제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공개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 등재반대 서한 발송 (2014.2.28 발송)

주민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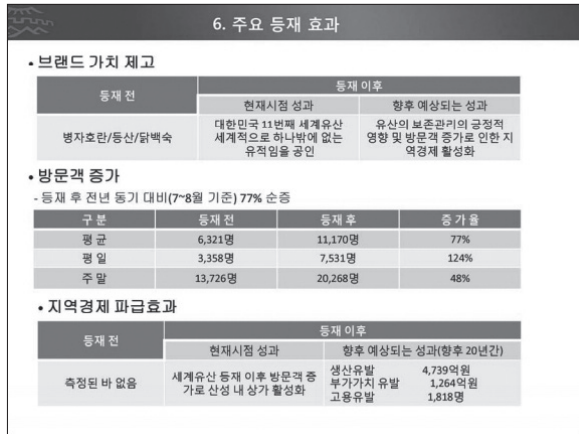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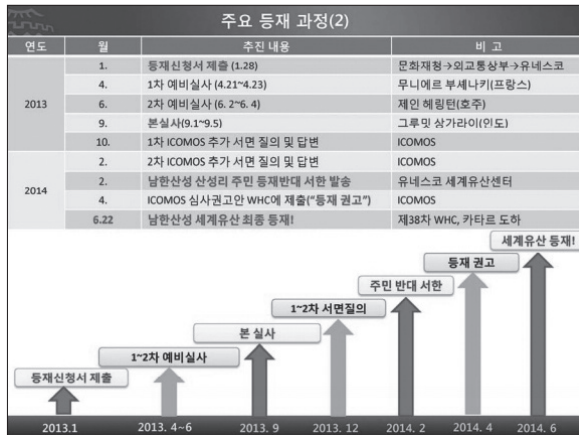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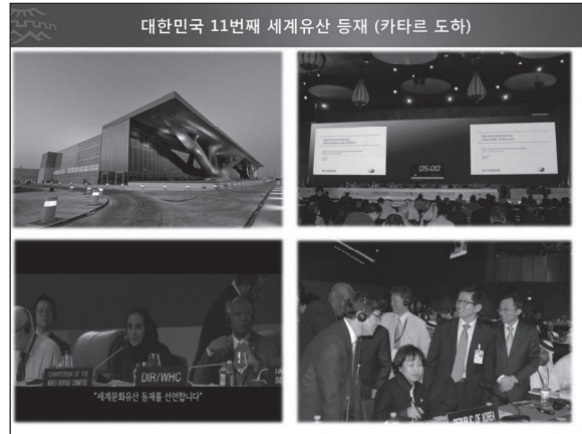
참여: 문화유산지킴이, 문화유산탐험대, 송별전제향, 고고학탐험대

협력: 음식문화개선, 술바람책방, 마을신문, 고사진전

교육: 역사아카데미, 문화재지도만들기, 해설사워크숍, 뉴스레터

예비 실사 (1~2차)

현공 홍보 전시관 고지도, 고사진전



조직 변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정원: 1단장, 2명, 15명)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정원: 1센터장, 3파트, 16명)		
단장	사업단 업무 총괄	1명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1명
기획 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단 운영계획수립, 유관기관 협조행정, 예산, 지출, 회계 등	8명	기획 협력 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센터 운영계획수립, 경영평가, 감사시설운영, 예산, 회계, 회계 등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유산 등재 추진등재 신청서 작성 등학술연구 및 교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공연·전시·교육·축제 프로그램 운영종합정보 마케팅(온·오프라인)	
문화 유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콘텐츠 개발 및 운영공연·전시·축제·영상 개발교육·체험·주민협력 사업	6명	유산 활용 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술연구 및 교류국내외 세계유산 교류 협력학술심포지엄 개최, 연구총서·국제지널 발간유네스코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방문자센터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유산 복원·정비문화재 복원·중간·보수 등미지정 문화재 발굴 등		유산 보존 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유산 보존 관리남한산성 관리 일원화남한산성 박물관(전시관) 건립추진문화재 복원·중간·보수 등미지정 문화재 발굴 등	6명

예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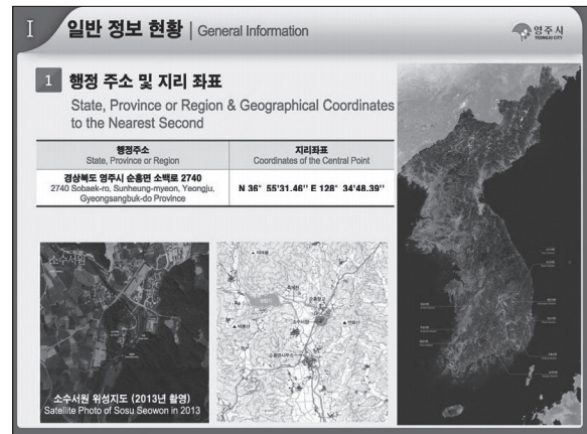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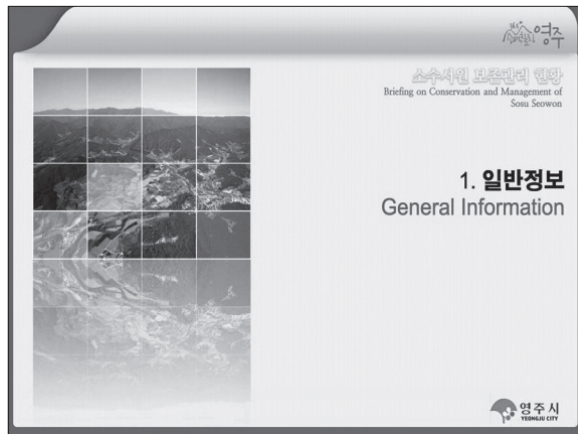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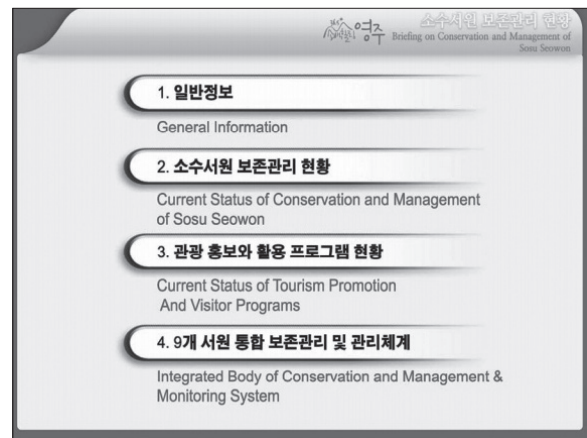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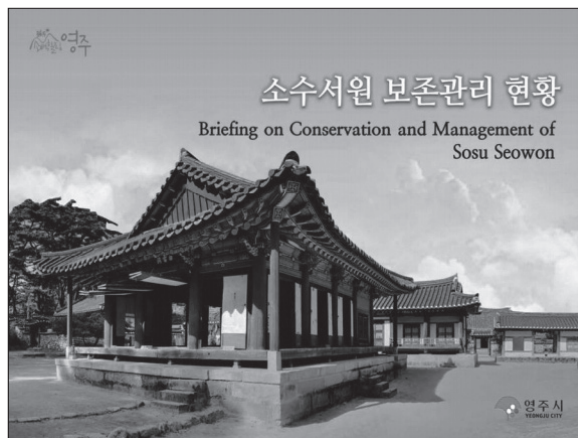
구분	2015년 예산(백만원)			2014년 예산(백만원)			증감(백만원)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총계	10,125	5,217	4,908	4,537	1,382	3,155	5,588	3,835	1,753
인건비	889	-	889	827	-	827	62	-	62
관리비	510	-	510	493	-	493	17	-	17
사업비	8,726	5,217	3,509	3,216	1,382	1,834	5,510	3,835	1,675
연구·보존 및 활성화	472	-	472	487	-	487	-15	-	-15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200	-	200	200	-	200	-	-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400	200	200	80	30	50	320	170	150
세계유산 보존관리	7,654	5,017	2,637	2,449	1,352	1,098	5,205	3,665	1,539

▷ 등재 이후 국·도비 예산액 123% 증액(4,357백만원→10,125백만원)
 -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비 271% 증액 (1,352백만원→5,017백만원)
 - 경기도 위탁사업 내용 변경 (등재 추진→역사문화 명소화)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

소수서원 보존관리 현황



I 일반 정보 현황 | Gener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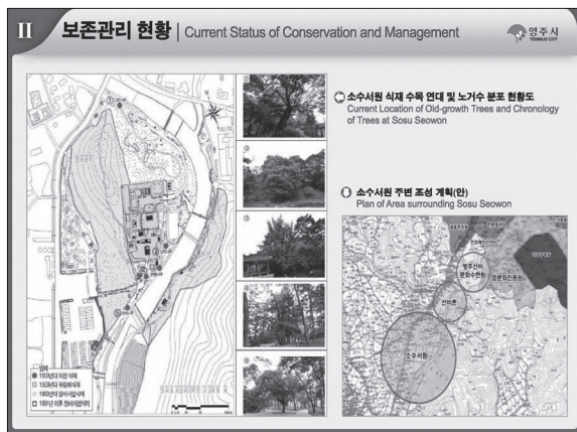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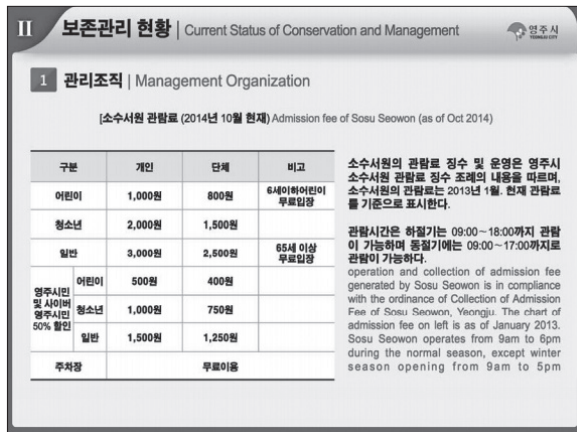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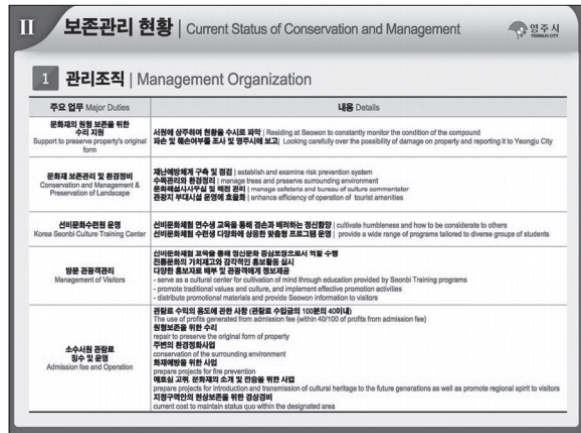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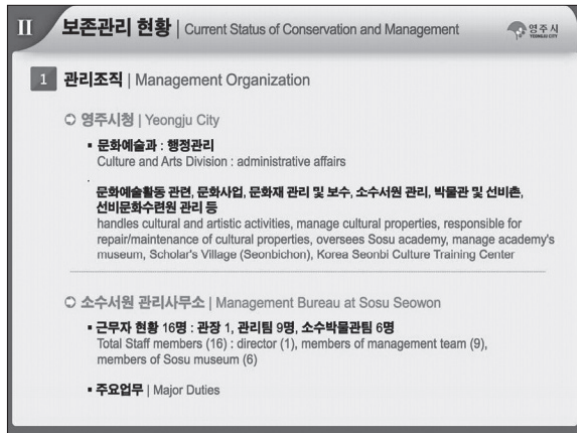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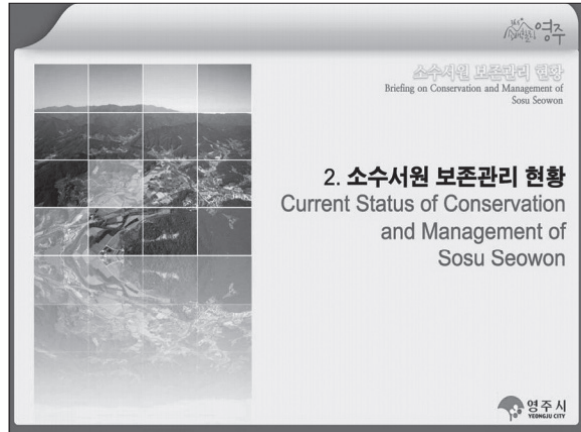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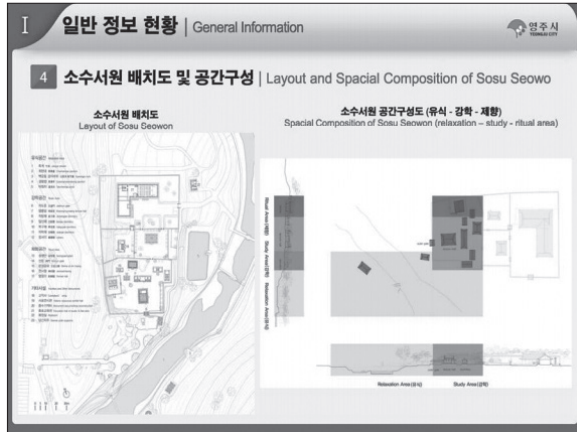
2 지정 문화재 현황 |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t Sosu Seowon

종별 Category	지정번호 Designation No.	명칭 Name	지정년월일 Date of Designation
국가 지정 State Designation	국보 National Treasure	111 안향초상 Portrait of An-hyang	1962.12.20.
	사적 Historic Site	55 소수서원 Sosu Seowon	1963.01.21.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Shrine of the Lord of Literary Achievement)	2004.04.06.
	보물 Treasure	1403 소수서원 강학당 Lecture Hall	2004.04.06.
		59 속수사지 왕간지주 Flag Pole Support on Soku Temple Site	1963.01.21.
		485 대성자성문선왕전회도 Confucius and His Disciples	1968.12.19.
		717 주세붕초상 Portrait of Ju Se-bung	1981.03.18.
시·도 지정 City/County Designation	유형 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y	238 세종대왕립면회도 Royal Banquet at Seochongdae Pavilion	1988.09.23.
	330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 Name board inscribed with King Myeongjong's calligraphy	2001.11.01.	
	331 소수서원 소장 판목 Woodblocks	2001.11.01.	

I 일반 정보 현황 | General Information

3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유산구역(㎡) Area of Nominated Property (㎡)			완충구역(㎡) Area of Proposed Buffer Zone (㎡)			합계(㎡) Total Area (㎡)
사유지 Privately owned land	국·공유지 Publicly owned land	소계 Total	사유지 Privately owned land	국·공유지 Publicly owned land	소계 Total	
18,480	545	19,025	1,076,768	339,067	1,415,835	1,434,860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소방 방제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구분 Category	소화기 Fire extinguishers		소화전 Fire hydrants	CCTV	경비시스템 Security systems	등짐펌프 Backpack pumps
	분말 Dry power	청정 Clean agent				
소방설비 fire-fighting facilities	33	3	2	9	3	10
소방용수 fire-fighting water	수원 : 상수도 Source of water: waterworks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Guards & Facilities

경북소방본부 Headquarters of Fire Department in Gyeongseongbuk-do 119 상황실 Control Tower 053/950-3911	소수서원 Sosu Seowon 054/639-7891	영주시 재난상황실 Control Tower in Yeongju City 054/639-6875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주 042/481-4931 하 042/481-4651	영주시 Yeongju City (문화예술과) (Culture and Arts Division) 주 054/639-6003 하 054/639-6222	영주경찰서 Yeongju Police Department 054/632-0112
기타 유관기관 Other Related Departments 한국전기안전공사 054/630-4200 군부대 054/632-4099	순흥면사무소 Sunheung Town Office 054/639-7633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042/481-4119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Guards and Facilities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 1km, 5분소요(순응면 119 지역대) In 1km by 5 mins
일일 방호(안전 순찰) 횡수 Number of Daily Patrol	➡➡ 상시 순찰 Patrolling around the clock
소방 훈련 횡수 Number of Fire Drills	➡➡ 연 2회 Twice a year
소방 점검(안전 관리) 횡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 월 2회 Twice a month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 대응 체계 구축/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Establishment of fire prevention system and standard procedure for disaster response
- 소수서원 화재 대응 매뉴얼 비치**
Prepared guidelines of disaster response procedure at the compound
- 문화재 안전경비원 상시 근무(2인 1조 주야 교대근무)**
Employed security guards working 24 hours a day (two guards working shifts day and night)
-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야간 당직자 2인 근무**
Management Office at the academy with two employees working at night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CCTV/화재감지시스템 설치 (24시간 감시알림체계)
Installation of CCTV and fire detection system covering 24 hours a day

- 관리사무소 화재감지시스템 및 CCTV 24시간 모니터링**
Installed fire-detection system in management office and CCTV cameras operating 24 hours a day
-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소방서 연계 작동**
establish fire-fighting system : interconnected operation of fire departments in the case of fire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자체 소방조직 : 자위소방대 구성 | Organizing self-protecting fire fighters

- 자위소방대 대장 : 재난상황 총괄 지휘 및 임무지시**
Director of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 responsible for control and commanding the team in the case of emergency
- 자위소방대 : 대장 부재시 총괄 지휘 및 유관기관 업무연락**
fire-fighting manager: in charge of control and commanding in the case of emergency in the absence of the director and contacting related departments
- 통보연락반 :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 담당, 자위소방대 소집,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Liaison office :
- responsible for reaching emergency contact in the risk situation and assembling self-protecting fire fighters
- responsible for letting related department know the latest condition of emergency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소수서원 내 소방설비 배치도 및 소방차 진입로
Arrangemen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side the compound and route designed for fire trucks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화재 진화훈련 현황 | Photos of Fire Drills



○ 소방방재시설 작동 기능 검사 및 소방 안전관리 점검
Photos of inspection on the fire safety and management &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I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8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고문서 8건 10점, 고도서 257건 704점, 회화 7건 7점, 책판 19건 922점, 현판류 11건 11점 등 총 302건 1,654점 등 소수박물관 수장고 보관 관리(현재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유물의 전산화 및 목록화를 완료)
housed 1,654 records including 10 old documents in 8 kinds, 704 old books in 257 kinds, 7 paintings in 7 kinds, 922 woodblocks for printing books in 19 kinds, 11 nameboards in 11 kinds in the repository of Sosu Museum. All records stored in Sosu Seowon have been digitalized and sorted in list.

소수서원 보존관리 현황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osu Seowon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III 관광 홍보와 활용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1 방문객 편의시설 |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0	1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s
1	2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1	0

2 서원 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설립배경

III 관광 홍보와 활용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3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 | Walking the Path of Seonbi
- 죽계구곡(竹溪九谷) 이야기길 | Story Way of Bamboo Tree
- 소수서원 유생 자격증 | Certificate of Confucian scholars at Sosu Seowon
- 성리학 외국어 교실 | Class of Neo-confucianism in foreign language
- 소수서원과 연결되는 위.수탁시설
Programs consigned with and entrusted by Sosu Seowon
 1. '선비촌'에서는 선비문화 체험과 한옥 숙박체험을 운영
Experiencing culture programs and activities like sleeper at Hanok are offered at Seonbi Village
 2.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기 위해 선비정신육성교육, 안성교육, 예절교육,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Educational programs of traditional culture, courtesy, character-building, cultivation of Seonbi mind offered at Korea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III 관광 홍보와 활용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3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선비촌 전경
View of Seonbi Village



선비문화수련원 전경
View of Korean Seonbi Cultural Training Center

소수서원 보존관리 현황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osu Seowon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IV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 (2015.04.00)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소수서원 보존관리 현황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osu Seowon

감사합니다

영주시
영주

• 소수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00분(설명 및 관람 80분 + 이동 20분)

* 9개 서원 종합 총평 = 소수박물관 강의실 준비

장소	주차장	당간지주	관행청 (유식)	강학당 (강학)	문성공포 (제향)	청서각	일신계 & 직달재	시료전시장	충효고목관	소수박물관
시간	-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전체 설명 (10분)	- 설명 1분 - 공사현장 (5분)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영상 5분 [도동계] - 모충관리 [20분]	- 설명 1분 - 관람 30분
내용	• 연시 - 서원&지세 [각 3-5명]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현장 설명 - 공사현장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 설명 박정진 전문위원

영주시
YONGJU CITY

• 소수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00분
(설명 및 관람 80분 + 이동 20분)

• 검토사항

1. 서원 유물 참여연월 ?
2. 선비촌 조망점 동선 고려 ?
3. 강학당 공사진행 브리핑 준비 ?
4. 9개 서원 총평, 강의실 준비 ?

[소수박물관 내]

영주시
YONGJU CITY

소수서원 실사 동선(안)
Inspection Route of Ssu Seowon

남계서원 보존관리 현황

남계서원 보존관리 현황 브리핑 자료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mgye Seowon

개요

Overview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2. 보존관리 현황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3. 관광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 Management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Ⅱ 행정 주소 및 지리 좌표

State, Province or Region & Geographical Coordinates to the Nearest Second

행정 주소 State, Province or Region	지리 좌표 Coordinates of the Central Point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8-11 Namgyeseowon-gil, Sudong-myeon, Hamyang-gun, Gyeongsangnam-do Province	북위 35° 32'54.57" 동경 127° 46'59.71" N 35° 32'54.57" E 127° 46'59.71"

1. 일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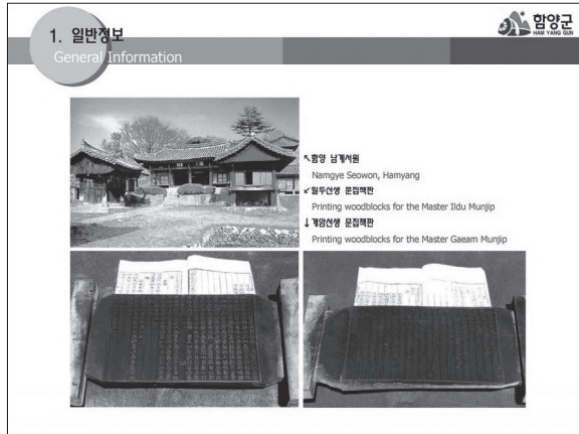
General Information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Ⅱ 지정문화재 현황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t Namgye Se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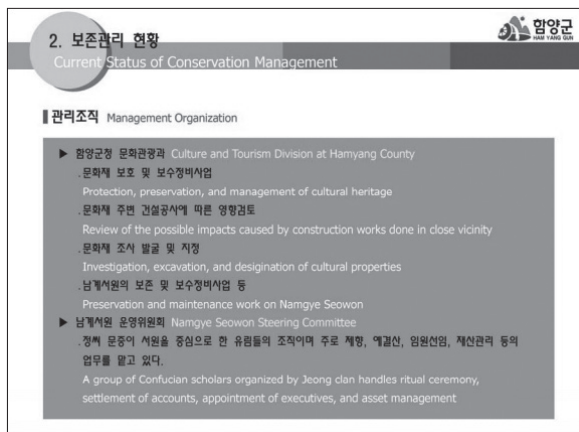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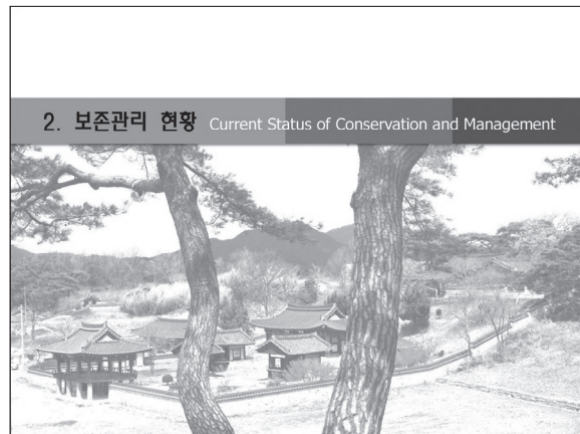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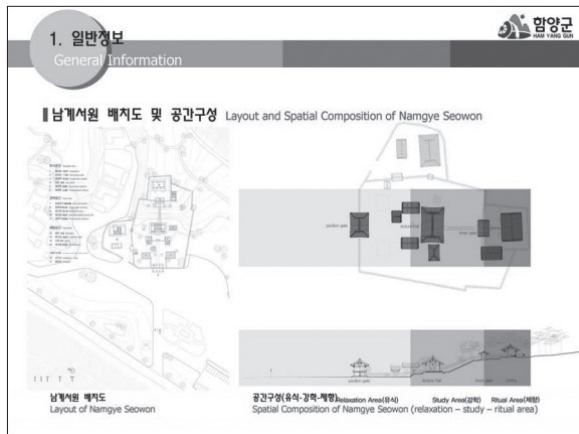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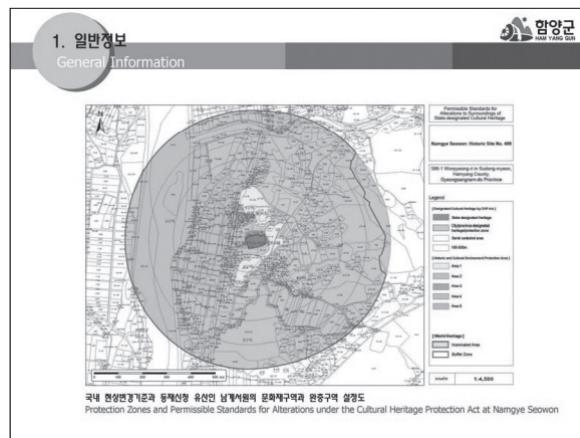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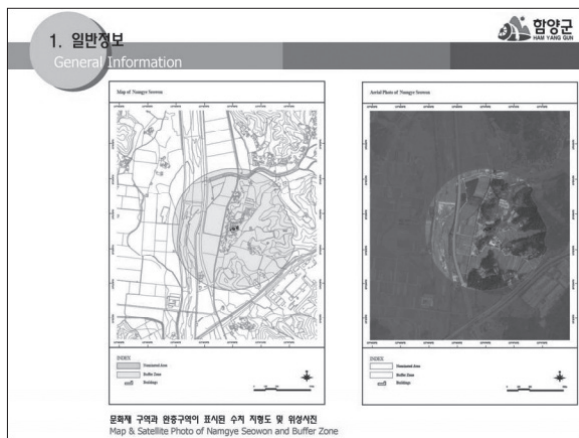
종류 Category	지정번호 Designation no.	명칭 Name	지정 연월일 Date of Designation
국가 지정 State-designated Heritage	사적 Historic Site	499 함양 남계서원 Hamyang Namgye Seowon, Hamyang	2009.05.26.
시·도 지정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유형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166 일두선생 문집책판 Printing woodblocks for the Master Jidu Munrip	1979.12.29.
		167 계암선생 문집책판 Printing woodblocks for the Master Gyeam Munrip	1979.12.29.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유산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			완충구역 면적(㎡) Area of Proposed Buffer Zone (㎡)			전체 면적(㎡)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3,098	0	3,098	771,145	136,085	907,230	910,328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구분 Category	구성 Composition	주요임무 Major Duties
서원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장 1명 Rector (1)	- 제향 관련사항 Matters concerning sacrificial rites
	외임 1명 External appointee (1)	-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교신 Preparation of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내임 1명 Internal appointee (1)	- 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등 임명선출 Appointment of the administrative staff, including the rector, administrators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s
	유사 2명 Administrators (2)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Acquisition and disposal of properties
	재무 1명 Financial officer (1)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남계서원 주변현황 및 계획 Current Status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Plan of Namgye Seowon

▶ 토지이용계획 Land Utilization Plan



남계서원 주변 토지이용계획
Utilization Plan of Land in Vicinity of Namgye Seowo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소방 정책 시설 현황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at Hamyang County

구분 Category	소화기 Fire-extinguishers		소화전 Fire hydrants	CCTV cameras	불꽃감지기 Flame detectors	연기감지기 Smoke detectors
	분말 Dry powders	청정 Clean agents				
소방설비 Fire-fighting equipment	13	0	3	9	8	10
소방용수 Fire-fighting water	수원 : 청수도 Source of Water : Waterworks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소방 정책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함양소방서 Hamyang Fire Department 119 상항실 055)960-9282	남 계 서 원 namgye seowon 055)962-1438	함양군 재난상황실 Hamyang County Control Tower 주 055)960-5202 야 055)960-6666
문화관광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주 042)481-4831 야 042)481-4851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at Hamyang County 주 055)960-5160 야 055)960-6666	함양경찰서 Hamyang Police Department 주 055)960-0112 야 055)960-0112
계파 유관기관 Related Department 한국전 지역안전공제회 055)940-1282 군부대 055)960-5803	수동면사무소 Sudong Town Office 주 055)960-5450 야 055)960-5450	전 립 방 Korea Forest Service 042)481-4119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at Hamyang County	남계서원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Namgye Seowon
-과장 : 정대훈 010-3200-9151 Director -팀장 : 서영호 010-5249-9126 Manager -담당 : 정혜진 010-4144-2743 Person in charge	-남계원장 : 정현성 010-9010-8992 Rector -현직관리 : 윤석구 010-3333-7362 Local Manager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10km, 10분 소요(함양소방서) Hamyang Fire Department within 10km, taking 10 mins
일일 방화(안전 순찰) 횟수 Number of Daily Patrol	장시 순찰 Patrolling 24 hours a day
소방 훈련 횟수 Number of Fire Drills	연 2회 Twice a Year
소방 환경(안전 관리) 점검 횟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장시 점검 Patrolling 24 hours day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대응 계획 구축/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Establishment of fire prevention system and disaster response procedure
- 남계서원 화재대응 매뉴얼 비치
Placement of scripts declaring disaster response procedure at Namgye Seowon
- 문화재 안전경비원 상시 근무(2인 1조 주야 교대근무)
Safety doormen working shifts at the management office of Namgye Seowon
- 남계서원 관리사무소 야간 당직자 2인 근무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work for Namgye Seowo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CCTV/화재감지시스템 설치 (24시간 감시알림체계)
Installed CCTV cameras and fire detectors (24/7 surveillance system)

- 화재감지시스템 및 CCTV 24시간 모니터링
Constant monitoring of CCTV cameras and fire detectors
- 소방망제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소방서 연결 작동
Established system of fire-fighting : Operation with interconnected fire departments upon emergency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자체 소방조직 : 자위소방대 구성
Firemen independently organized by Namgye Seowon : composition of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자위소방대 대장 : 재난상황 중괄 지휘 및 업무지시
Director of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 command in the case of disaster

방화관리자 Fire-fighting manager

통보연락반 Liaison Division


-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 담당, 자위소방대 소집
In charge of reaching emergency contacts and call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in the case of disaster
-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Send news and alerts to related department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남정서원 내 소방 관리 배치도
Lo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화재 진화훈련 현황
Photos of Fire Drills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s & Management

▶ 방문객(최근 6년) Visitors in Recent 6 Years

연도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문객 Persons	300,689	341,401	321,401	292,024	287,541	264,148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s & Management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Training of Culture Commentators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탐방객 안내 및 해설
Operating Culture Commentators ⇒ guide visitors and provide description of cultural heritage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 보수교육, 워크숍(년1회), 국학리원 간담회, 안전 및 진찰교육(분기 1회)
Training culture commentators ⇒ education for repair works, workshops (once a year), training of good service and safety (once a quarter)

해설사의 교육, 배치, 관리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Training, allocation, management of culture commentators are supported by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at Hamyang County

외국어 통역해설사 운영 ⇒ 매일 해설사1명 배치 (방문객의 따라 중국어,영어,일본어 해설사 배치)
Provide interpreter ⇒ daily commentators depending on the language of visitors, including Chinese, English, Japanese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모니터링 현황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 건물 관리 일시 (근무자 정보)
Employee Contact Info (Building Management)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역별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사)남정서원 Namgye Seowon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at Hamyang County
연락처 Contact Info	055-962-1438	연락처 Contact Info	055-960-4256
담당자 Person in charge	윤석구	담당자 Person in charge	서원용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보수정비 실적현황(최근10년)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11 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백만원) Costs (1. million won)
2004	동·서계 건넌 및 통풍로 적벽 담장 보수 Repaired stylobate of two dormitories, and fence left to pavilion	36
2006	서원 주변 송림 보호사업 Started projects on the protection of pine forest surrounding the academy	39
2007	서원 담장 보수(75.8m) Restored walls stretching 75.8m	48
2010	소화시설 및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Established fire-fighting equipment and crime prevention system	50
2011	통풍로·경관도 보수, CCTV 설치 Repaired pavilion, installed CCTV cameras	238
2013	정밀실측 조사, 안전판·소화기함 설치 Worked on precise measurement, installed the cover of fire-extinguisher, direction board	200
2015	종합정비계획 수립 Establishe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50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 mid/ long-term Plan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단기 Short-term	고각서 및 서원 담장 보수, 서당 벽과 벽계 보수 Repair of shrine floor/walls, caretakers' building, fence
	서원 내 전기 지중화, 공사 소화전 자체시설 설치 Work of underground utility and electric works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covering fire hydrants inside the compound
	경관도 및 화랑실 단청, 서원 내 수목 정비 Rearrangement of plants and trees, multicolored wooden building
	서원 앞 공터 정비(농경지 복구) Restoration of the fields in front of the academy
중기 Mid-term	화랑실 철거 및 담장 설치, 홍살문 위치 조정 Relocation of red-spiked gate, demolition of restroom, installation of fence
	고각서, 문헌계 벽체 보수, 통풍로·경관도 단청 Renovation of caretaker's building, stylobate of study hall & pavilion
장기 Long-term	동·서계 벽체 보수, 서원 주변 수목 정비 Rearrangement of plants and trees around Seowon and restoration of the roof of dormitories
	한글판 문헌(영자) 정비 Reorganization of direction board in English
	서원 및 주변 복원에 대한 연구용역 Employment of researchers on restoring surrounding environment
	서원 전경조수 및 마을 경관 정비 Rearrangement of environs of the village and natural surroundings
	남정서원 주변 경관 전망성 있는 복원 Restor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based on the authenticity
	한글 판권 연속 출판 연구용역 Employment of researchers for utilization of Hanok culture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남정서원 춘·추기 제향행사 등
Ritual Ceremony in spring/fall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 일두선생 문집책판(제166호), 경암선생 문집책판(제167호) 등 다량의 기록유산 함양박물관 소장, 관리
Housing and managing a wide range of inheritance records, including printing woodblocks for Master Ildu Munjip and Master Gaeam Munjip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1	1	1	1	1	0

■ 서원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남계서원 춘·추기 제향행사 등 Ritual Ceremony in spring/fall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 일두선생 문집책판(제166호), 경암선생 문집책판(제167호) 등 다량의 기록유산 함양박물관 소장, 관리
Housing and managing a wide range of inheritance records, including printing woodblocks for Master Ildu Munjip and Master Gaeam Munjip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1	1	1	1	1	0

■ 서원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Currently Active Programs

▶ 교육 : 서군자, 석영교육(상시)
Education : Four Gracious Plants (Korean traditional painting), Korean Traditional Calligraphy (offered at anytime)

▶ 서원 스테이(1박2일) : 다도, 국궁, 예절교육
Seowon Stay (2 days) : tea ceremony, traditional archery, education of propr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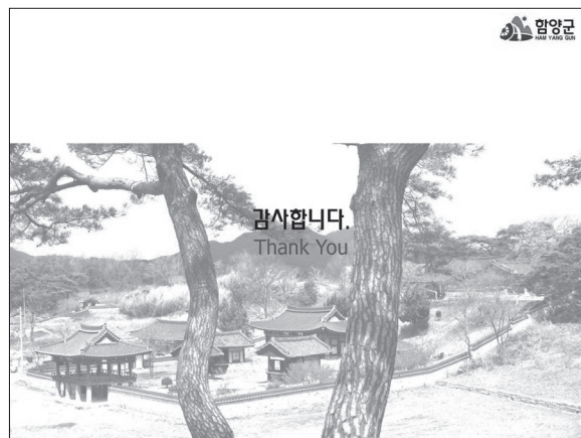
▶ 강학 :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보감 교육 계획
Study area : Planning to teach traditional medicine at Daegu Haany University
- 8월 : 50명(1일), 12월 : 50명(30일)
Aug 1st : 50 students, Dec 30th : 50 students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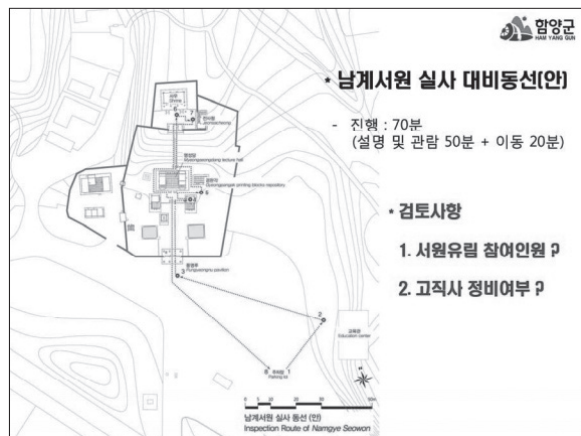
▶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 (2015.04.00)
Integrated body to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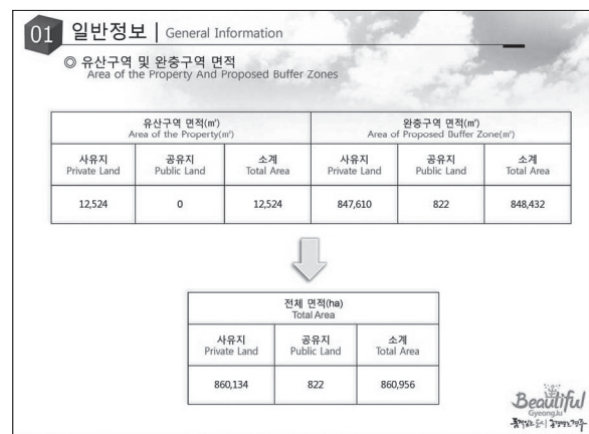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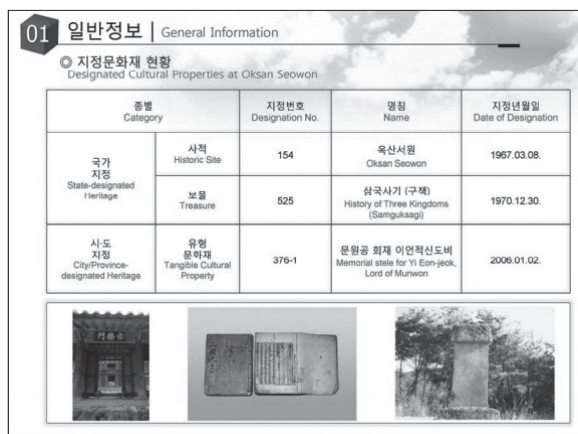
▶ 남계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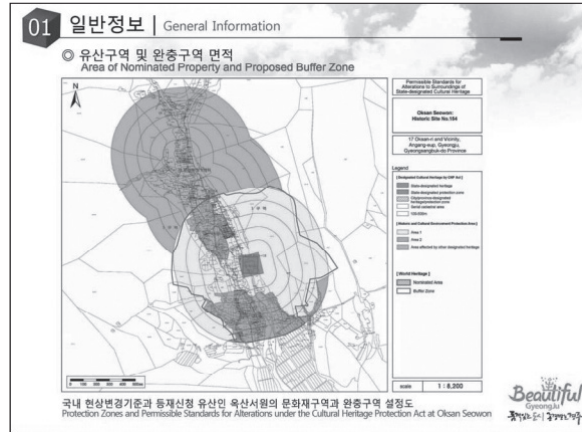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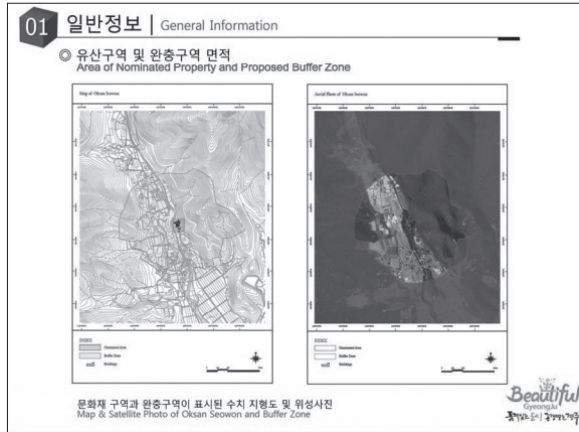
- 진행 : 70분(설명 및 관람 50분 + 이동 20분)

장소	주차장	교육관	홍명루 (유식)	형성당 (강학)	동,서재	경향각	사우 (제향)	전사청	주차장
시간	~ 5분	~ 보존관리 (20분)	~ 설명 5분 (관람)	~ 설명 5분 (건축)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용차 관람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관람 1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5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 설명 함양군 청년후 교수 청년후 과장	• 설명 청년후 교수	• 설명 청년후 교수	• 설명 청년후 교수	• 설명 청년후 교수	• 설명 청년후 교수	• 설명 청년후 교수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옥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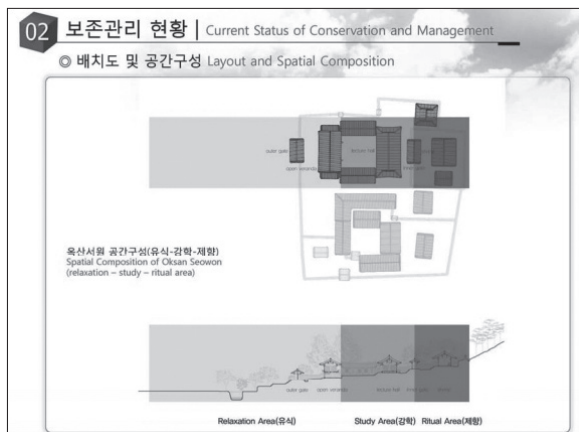
경주시 Gyeongju City	문화관광실 문화재과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건물유지보수, 수목 식재 및 관리, 병충해 방제 등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사항 : 서원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 General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clud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management of trees and plants, prevention of damage from insects : Seowon restoration and maintenance & projects utilizing Seowon culture
	현장 순찰 주무관 Patrol Officer at site	다른 서원에 없는 현장 순찰 : 서원 전반의 관리 점검 Patrol officer at Oksan (not offered by other Seowon) : handle general management of Seowon
서원 문중 Head of Clan	포사(고직사) 상주 관리 Managers at Caretaker's Building (24/7)	재래행사 일부 보조 및 건물 개량관리 Management of opening and closing of Seowon and assist of ritual ceremonies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 옥산서원 운영위원회 Oksan Seowon Steering Committee

구분 Category	구성 Composition	주요임무 Major Duties
서원 운영위원회 Oksan Seowon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1명 Chairm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서원 행사 관리 Management of ritual rites - 서원 재산(토지) 관리 Management of assets and land owned by Seowon - 기타 옥산서원 운영관리 Other operating management
	위원 30명 Members (30)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경주시자연문화유산관리 Gyeongju City Control Tower	경북소방본부 Headquarters of Gyeongbuk Fire Department	경주시소방서 안강 119 안전센터 Gyeongju Fire Department Angang Emergency Department
주 : 054779-6509 야 : 054779-6222	119 상항실 053950-3911	054745-2105 054778-0653
문화재청(문화재안전과)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Safety Standards)	옥산서원 Oksan Seowon	경주시청(문화재과) Gyeongju City Hall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주 : 042481-4820 야 : 042481-4651	주:010-6529-7786 야:010-3511-4712	주 : 054779-6102 야 : 054779-6222
기타 유관기관 Related Departments	안강읍사무소 Angang Town Office	경주경찰서 Gyeongju Police Station
산림청1588-3119 군부대054772-1113	054779-8031	주 : 054112 야 : 054741-7000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정보 연락단 Liaison Division	초기 소환단 First Response	구급단 Relief Unit	보호단 Protection Unit
성명 Name	성명 Name	성명 Name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Info	연락처 Contact Info	연락처 Contact Info	연락처 Contact Info
이후 After	이후 After	이후 After	이후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신고 및 안내전화, 관측기 관측 종료 119, notify to related department, signal warning CCTV 모니터링 상항현과 member CCTV and send ne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방활동 Operate fire-fighting activities using equipment at site 소방용수조 보수작업 Work on preservation of water and water su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 대피유도 및 화재예방 활동 In charge of life-saving activities, lead evacuation, carrying important properties outside 비밀검정, 방화물건의 경비, 출입문의 통제 등 In charge of preventing fire from developing to large scale fire, safeguard properties taken out, control around station 각종 건물입구 확보, 위험물 등 소탕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작업 등 In charge of securing all entrance and exit, removal of obstacles for fire-fight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 응급처치, 응급처치 Responsible for providing emergency treatment to person with asphyxia or who is severely injured 사망자 안치 및 부상자 병원후송 및 치료조치 Responsible for laying body in state, sending the injured to the hospital and providing necessary treatments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경주시청 문화재과 Gyeongju City Hall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옥산서원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Oksan Seowon
- 과장 : 이윤희 010-5533-2552 Director - 담당 : 이철환 010-3511-3245 Manager - 담당자 : 김성수 010-2523-6158 Assistant Manager	- 서면대표 : 이윤 011-523-2295 Director - 현지관리 : 고재우 054-762-8719 Local Manager
-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 약 6km, 차량 약 10분 소요(경주 소방서, 안강 119 안전센터) Gyeongju Fire Department & Angang Emergency Department within 6 km, taking 10 mins
- 일일 방화(안전 순찰) 횟수 Number of Daily Patrol	- 상시순찰 Constant patrolling
- 소방 훈련 횟수 Number of Fire Drills	- 연 2회 Twice a year
- 소방 활동(안전 관리) 횟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 월 1~2회 once or twice a month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대응 매뉴얼 : 2009년 수립, 매년 수정 보완 Establish fire prevention system and risk response procedure : established in 2009, has been updated and modified every year
- 안강읍사무소 주재 소방훈련 연 1회 실시,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소방전문인력 통하여 월 1~2회 소방발생시출발 - Fire-fighting drills offered by Angang town office once a year - Inspection on fire-fighting equipment by experts from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at Gyeongju City once or twice a month	- 소방안전관리업체(금강방재)가 분기별 작동기능점검 Quarterly inspection on the operation of equipment
-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정기점검 월 1회 Fire drills and regular inspection on fire management once a month	- 산불발생시 서원의 안전을 위해 방화대 확장 작업 Expansion of firebreak in the case of wildfire
- 훼손된 배수로 및 변형된 바닥배수구 보수 후 배수기능 회복 Regain of full function of water pipes after repairing damaged pipelines and distorted floor sewage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서원 경내 순찰 및 일지 작성 | Personnel patrolling inside the compound and keeping daily log

재난 및 화재대응을 위한 CCTV 운영 : 11대
Operate CCTV for risk preparedness and fire-fighting : 11 cameras
※ 경주시통합관제센터 24시간 감시
※ 24/7 Surveillance system with Control Tower at Gyeongju City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장비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 Detection System

구분 Category	소화기 Fire-extinguishers	옥외소화전 Outdoor fire hydrants	CCTV	불꽃감지기 Flame detectors	열감지기 Heat detectors	연기감지기 Smoke detectors
소방설비 Academy compound	8	1	5	12	11	25
소방용수 (양동) Fire-fighting water supply	고가수조 75톤 75 tons of water tank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 Management

방문객(최근 6년) Visitors in Recent 6 Ye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2,547명 Persons	21,268명	23,372명	25,118명	25,200명	25,500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1명 배치
Operate culture commentator ⇒ 1 personnels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모니터링 현황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 건물 관리 및 유지 (근무자 정보) Contact Info of Employees in Building Management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of Department	옥산서원 고직사 Caretakers' building at Oksan Seowon
연락처 Contact Info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담당자 Person in charge	연락처 Contact Info
	담당자 Person in charge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보수정비 실적 현황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백만원) Costs (won)
1995-2008	건물보수, 관리사보수, 역학문 보수 등 13건 13 times of restoration works on buildings and caretakers' buildings,	8,541 6.5 billion won
2009	유물전시관건립 Establishment of exhibition hall	1,000 1 billion won
2010	유물전시관건립, 토지매입, 역학문 보수 등 Purchase of land, restoration of doors, establishment of exhibition hall	423 423 million won
2011	화장실신축1동, 변위보수, 노거수정비 등 Establishment of new restroom building, other restoration works	1,121 1.1 billion won
2012	토지 및 건물매입, 종합정비계획수립, 정밀실측, 방범시스템설치 Purchase of land and building,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completion of precise measurement of buildings, installation of crime-prevention system	3,350 3.3 billion won
2014	고간채, 연구재 보수 Restoration of support facilities	300 300 million won
2015	구인당 보수 Renovation of shrine	250 250 million won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 단기계획(2015~2018년), 중기계획(~2021년), 장기계획(~2025년)
※ Short-term Plan (2015~2018), Mid-term Plan (~2021), Long-term Plan (~2025)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관람편의시설 정비 Renovation of Visitors' Amenities	· (주차장, 탐방로, 휴식공간, 편의시설물) 설치 Creation of parking lot, visitors' trail, relaxation area, amenities	단기 Short-term Plan
서원영역 정비 Maintenance of Environ.	· 건축물 정비 : 지붕, 벽체, 기단, 단청정비, 기타정비 Renovation of buildings including roof, walls, stylobate, colorful wooden buildings	단기 Short-term Plan
	· 시설물 정비 : 배수로 정비, 수목수목시스템, 청정소화기, 화재경보기 Restoration of facilities including water pipes, fire-fighting system, clean agent, fire alarm	단기 Short-term Plan
	· 식재정비 : 이질수목정비 Rearrangement of plant and trees	단기 Short-term Plan
	· 관람편의시설 : 안내판 및 이정표, 벤치, 음수대, 피고라, 분리형휴식등, 자전거 보관소, 야간조명, 탐방로 Restoration of amenities: signboards, direction boards, bench, drinking fountain, trash can, bicycle station, streetlights, trails	단기 Short-term Plan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 단기계획(2015~2018년), 중기계획(~2021년), 장기계획(~2025년)
※ Short-term Plan (2015~2018), Mid-term Plan (~2021), Long-term Plan (~2025)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주변영역 정비 maintenance of surrounding environment	· 주변의 경관저해 건물의 정비 Restoration of buildings undermining surrounding environment - 옥산리 1525고향식당, 옥산리 1526(옥산식당) : 매입 - 옥산리 1536(고향식당) : 보상협의 중	단기 Short-term Plan
	· 관광지원시설정비 : 관광안내소(사무실)-리모델링 Remodel of tourist information center	중기 Mid-term Plan
	· 주변정비 - 자연환경 정비(식재, 수로, 계방, 다리, 노후가옥, 전주, 불향시설물 정비 등) Rearrangement and restor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중기 Mid-term Plan
	· 진입로정비 및 열길 복원 - 서원 진입로정비(서원마을-유물전시관) 및 주차장 정비서원 열길 복원 Rearrangement of entrance way to Seowon and restoration of old roads	중기 Mid-term Plan
마을영역 정비 Rearrangement of Seowon Village	· 마을정비 : 서원마을정비 Reorganization of Seowon Village	장기 Long-term Plan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안)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of Oksan Seowon

02 보존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제향의례
: 분향례(1, 15월), 정월례 (1월5월), 춘추 향사 등
Memorial rites
: biannual rites of spring and autumn, ceremony on 1st and 15th of month, ceremony on Jan 5th

● 기록유산 보존관리 :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Relic exhibit hall

옥산서원 제향의례 모습
Photos of Ritual rites at Oksan Seowon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Beautiful Oksan Seowon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0	1	1	1	1	0

○ 서원 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서원 홍보 (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 "차향 가득한 옥산서원" (시기 : 5월~12월), Oksan Seowon, Scent of Tea (May - Dec)
- 다도체험, 민속놀이 등 Programs for tea ceremony, traditional games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Beautiful
Gyeongju
문화도시경주

0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2015. 4)
Integrated body to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감사합니다
Thank you

Beautiful
Gyeongju
문화도시경주

· 옥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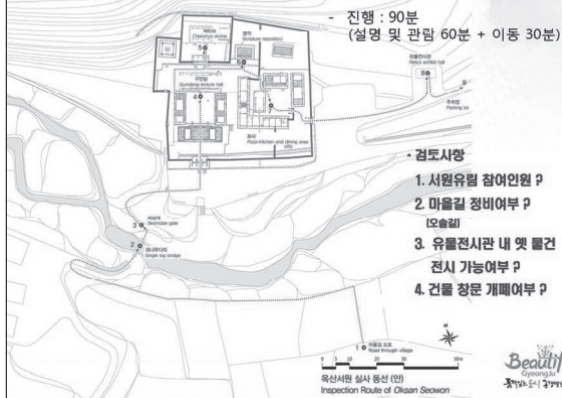
- 진행 : 90분(설명 및 관람 60분 + 이동 30분)

장소	마을길 도로	옛나무다리	세심대 (부식)	구인당 (강학)	계인묘 (제향)	경각	묘사	유물전시관	주차장
시간	-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0분	- 보존관리 (20분)	- 설명 1분 - 관람 3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관람 20분 (이동 설명)	- 5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 설명 이수환 교수	* 설명 이수환 교수	* 설명 강주식 김형철 팀장	* 설명 이수환 교수	* 설명 이수환 교수	* 묘사 강주식 김형철 팀장	* 설명 이수환 교수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Beautiful
Gyeongju
문화도시경주

· 옥산서원 실사 대비동선(안)

- 진행 : 90분
(설명 및 관람 60분 + 이동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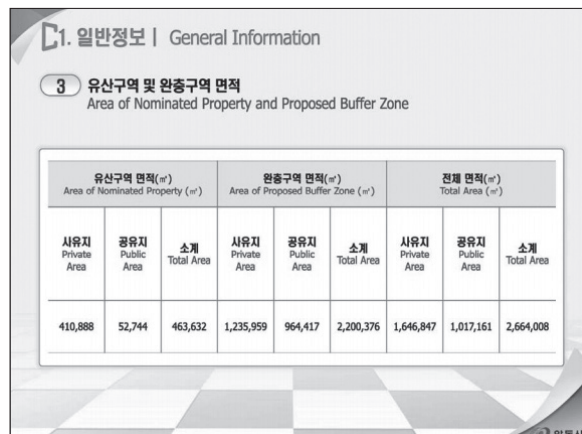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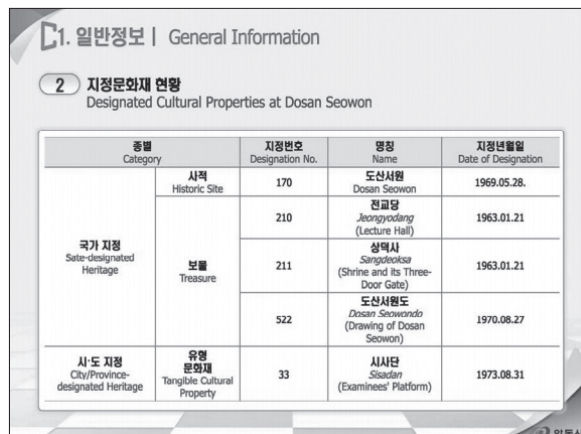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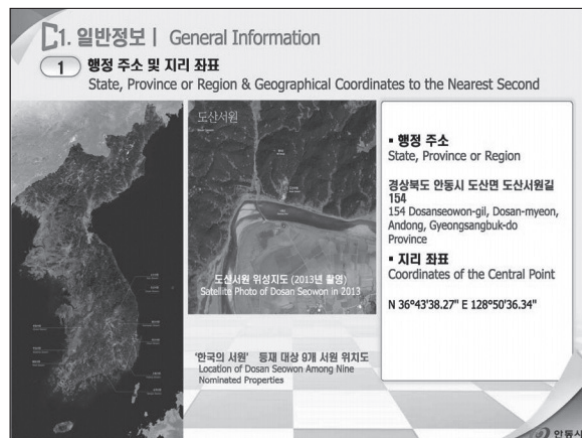
· 검토사항

1. 서원유형 참여인원 ?
2. 마을길 정비여부 ?
(오솔길)
3. 유물전시관 내 옛 물건
전시 가능여부 ?
4. 건물 청문 개폐여부 ?

옥산서원 실사 동선 (안)
Inspection Route of Okasan Se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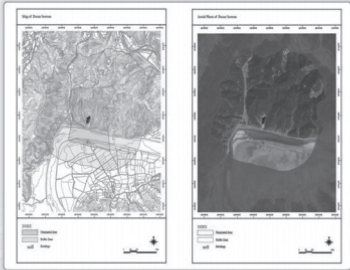
Beautiful
Gyeongju
문화도시경주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C1. 일반정보 | General Information

3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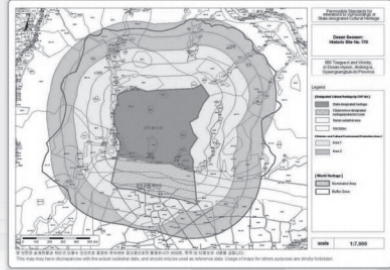


문화재 구역과 완충구역에 표시된 수치 지형도 및 위성사진
Map & Satellite Photo of Dosan Seowon and Buffer Zone

인동시

C1. 일반정보 | General Information

3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국내 현상변경기준과 등재신청 유산인 도산서원의 문화재구역과 완충구역 설정도
Protection Zones and Permissible Standards for Alteration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t Dosan Seowon

인동시

인동시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2. 보존관리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인동시

C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1 관리조직 | Management Organization

안동시청 → 문화복지국 → 문화예술과
Andong City → Department of Culture & Social Welfare Service → Division of Culture & Art

문화재 환경정비 및 문화유산 관리 등 : 서원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 : In charge of repair and conservation of the academy, operation of programs utilizing Seowon culture


인동시

C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1 관리조직 | Management Organization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 at Dosan Seowon

보존관리, 환경정비, 관광재관리 등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 management of visitors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	구성 Composition	주요업무 Major Duties
 문화예술사 8명 8 Culture Commentators	직원 11명 11 employees	① 문화재의 환경 보존을 위한 수리 지원 Support for repairs to maintain the cultural heritage in its original form ②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비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 ③ 방문객 관리 Management of visitors ④ 도산서원 관할료 징수 및 운영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osan Seowon admission fees

인동시

C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1 관리조직 | Management Organization

서원조직 | Organization of Dosan Seowon

도산서원운영위원회
Dosan Seowon Steering Committee

구분 Category	구성 Composition	주요업무 Major Duties
운영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1명 Chairman (1)	①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Drawing up budgets and settlement of execution
	상임위원 3명 Permanent members (3)	② 원장,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 후보자 확정 Confirmation of candidates for rector, administrative staffs, members of the operating committee, auditors
	위원 7명 Members (7)	③ 원무 지리규정변경 Alter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감사 2명 Auditors (2)	④ 재산의 취득 및 처분 Property acquisition and disposal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Other matters deemed important

인동시

C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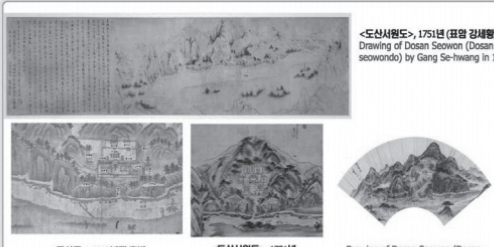
1 관리조직 | Management Organization

선비문화 수련원 Korea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구성 Composition	주요업무 Major Duties
도산서원 부설 Affiliated with Dosan Seowon	임원 15명 Board members (15)	① 국민 인성함양 Provide character-building
	지도위원 24명 Members of direction committee (24)	② 선비문화 수련 Cultivate the culture of Seonbi
	직원 15명 Employees (15)	③ 퇴계 선생 사상교육 등 Teach philosophy of Toegye Yi Hwang

인동시

C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 도산서원 배치도 및 공간구성 Layout and Spatial Composition of Dosan Seowon



<도산서원도>, 1751년 (표창 강세황)
Drawing of Dosan Seowon (Dosan seowondo) by Gang Se-hwang in 1751

<도산도>, 1600년대 후반 (황한 김상직)
Drawing of Dosando in the late 1600s

<도산서원도>, 1721년 (정재 정선)
Drawing of Dosan Seowon (Dosan seowondo) by Jeong Seon in 1721

Drawing of Dosan Seowon (dosan seowondo) by Jeong Seon in 1721

인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 도산서원 배치도 및 공간구성 Layout and Spatial Composition of Dosan Seowon

도산서원 배치도(휴식지, 서학지, 제례지)
도산서원 공간구성(휴식·연구·제례)
Relaxation Area(휴식지) Study Area(서학지) Ritual Area(제례지)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Guards & Facilities

연동시재난통합상황실 Andong Control Tower	경상북도소방본부 Headquarters of Fire Department in Gyeongsangbuk-do	연동소방서 Andong Fire Department
주) 053)803-4119 0) 053)803-4949	119 상황실 053)715-2300	119 상황실 054)855-8119
문화재청(안전기준과)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Safety Standards)	도산서원 Dosan Seowon	연동시(문화예술과) Division of Culture and Art, Andong City
주) 042)481-4820 * 2 0) 042)481-4651	관리사 : 054)940-3791 관리사 : 054)954-3669	주) 054)940-5237 0) 054)940-4322
기타 유관기관 Other Related Department	경상북도청(문화유산과)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in Gyeongsangbuk-do	연동경찰서 Andong Police Department
산림청 : 1588-3119 Korea Forest Service 군부대 : 054)941-3468 Military Camp	주) 053)950-3716 0) 053)950-2214	주) 054)850-9224 0) 054)850-9329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연동시청 문화예술과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at the Division of Culture and Art in Andong City	도산서원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at Byeongsan Seowon
-과장 : 김재교 010-3540-4818 Director -담당 : 손상박 010-8831-3664 Manager	-문종대표 : 이동구 010-2520-1305 Head of Clan -현지관리 : 임덕섭 010-5540-9576 Local Manager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도산119지역대 : 5km(15분 내외) Dosan Emergency Department within 5 km, taking 15 mins
-일일 방화(안전 순찰) 횟수 Number of Daily Patrol	상시순찰 Patrolling 24 hours a day
-소방 훈련 횟수 Number of Fire Drills	연 2회 Twice a year
-소방 환경(안전 관리) 점검 횟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상시 점검 Constant inspection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대응 매뉴얼 구축
Establishment of fire prevention system and disaster response procedure
- 소방 및 재난안전훈련 연간 12회(월 1회) 자체훈련 실시
Internally carrying out fire and disaster drills once a month, 12 times a year
- 서원 경내 순찰 및 일지 작성
Patrolling inside the compound and keeping a daily patrol log
- 재난 및 화재대응을 위한 CCTV 운영 : 15대
Operation of CCTV cameras for risk and fire-fighting response : 15 CCTV cameras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장비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 Detection System

화재감지기 Fire detectors		옥외 소화전 Outdoor fire hydrants	방수총 Fire hose nozzles	감지기 Detectors			소화기 Fire extinguishers
수신기 Fire detector	속보기 Fire alarm		분출 Flame	연기 Smoke	열 Heat		
1	1	4	6	8	43	13	28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Range of Fire Extinguishers Covering the academy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도산서원 화재 진화훈련 Photos of Fire Drills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4.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Visitors

방문객(최근 6년) | Visitors in recent 6 ye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43,867 persons	278,944명	251,000명	238,300명	245,930명	251,743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8명 배치 | Operate culture commentators → 8 persons
- 외국어 통역 해설사 운영 → 영어, 일본어 가능자 각 1명
Provide interpreter → including two interpreters in English and Japanese, respectively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5 모니터링 현황 |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 건물 관리 일지(근무자 정보)

Building Management Logs (employee contact information)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s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of Department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 at Dosan Seowon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Division of Culture and Art in Andong City
연락처 Contact Info	054-840-6575	연락처 Contact Info	054-840-5237
담당자 Person in charge	김준규	담당자 Person in charge	손상락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6 보수정비 실적 현황 (최근 5년)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4 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천원) Costs (won)
2011	역락사재, 진도문 단청 Restoration of various facilities at Seowon	130,000 130 million won
2012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수립, 방화관리운영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and maintenance plan, worked on precise measurement of the academy,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service	413,000 413 million won
2013	방화관리운영 Management of fire-fighting service	26,000 26 million won
2014	농운정사, 전교당 보수 Renovated lecture hall and dormitory	170,000 170 million won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7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short·mid·long-term plan

구분 Categories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유적 및 유구정비 Restored Historic Site and Rel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9~70년 보수정비사업 원형 복원 Restoration works done on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사과석은 토석담, 다듬돌은 자연석으로 복원 Replace of hexahedron-stones with sand, and artificially refined stones with natural ones 사원의 질서된 아름다움 보존 Retention of restraint beauty of Dosan Seowon 	장기계획 Long-term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정비 Restoration works done on buildings 소방방재 시설, CCTV 등 화재발생에 대비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CCTV to enhance fire preparedness 배수로 정비 습기로 인한 건축물훼손 방지 Upgrade of water pipes to prevent damages caused by humidity 	계속사업 In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명재, 역락사재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복원 Renovation of dormitory and library as suggested by experts 	중기계획 Mid-term Plan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경관정비 Preservation of Natural Surroun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세계유산 지정성, 원형성 확보 designation of the property area and buffer zone, securing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World Heritage 	단기계획 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계국, 퇴계 애당집 조성 도산서원 정근로 재현 Recreation of the entrance road themed by Toegye Recreation of the Road of Toegye 	중기계획 Mid-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로 및 윤영대 경관 자해 석축 정비 Redesign of the entrance road Restoration of stonemasonry which previously undermined the view of Seowon 	중기계획 Mid-term
주변정비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우당, 동헌 정비, 월정 기능 복원 restoration works on facilities including shrine 	단기계획 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물전시관 복원각 사원 전담부 이관 Relocation of entrance way to Exhibition Building 	장기계획 Long-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 고좌사 정비 Renovation of caretakers' building 	단기계획 Short-term
도산서원 활용 Utilization of Seowon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원 경관자해 외래수종 정비 Relocation of foreign-species trees undermining the landscape of Seowon 	단기계획 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편의 시설정비 Updated amenities 	단기계획 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내, 읍수대 등 공간디자인 적용 정비 Updated amenities 	단기계획 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The Korea Seonwbi Culture Training Center 	계속사업 In Process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안)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of Dosan Seowon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8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재향의례 : 분향례(1, 15월), 정말례(1월5일), 춘·추 향시, 도산별과 등
Memorial rites including biannual rites of spring and autumn, rites on 1st and 15th of month, ceremony held on Jan 5th, *Dosan byeolgwa*

- 기록유산 보존관리 : 퇴계선생문집 외 자료 한국학진흥원 위탁 보관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Collected Works of Toegye entrusted to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인동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8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연구사업 등
Research Activities

- 연구원 : 퇴계학연구원, 국제퇴계학회, 대학부설퇴계연구원 등
Research center : Toegye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Symposium of Toegye, college affiliated with Toegye research center

- 퇴계사상보급 : 박약회, 도원회, 퇴계학진흥원협의회 등
Disseminate the philosophy of Toegye : Advanced Study of Toegye, *Bagyakhwe*, Dowoonhwe

- 유족지 유계 : 월란책회 등 9개 유계활동
Nine activities to promote and continue the works of Toegye

- 시해준책운동 : 퇴계학의 해외 확산으로 인류평화에 기여
contributed to the world peace by internationally expanding the influence of Toeg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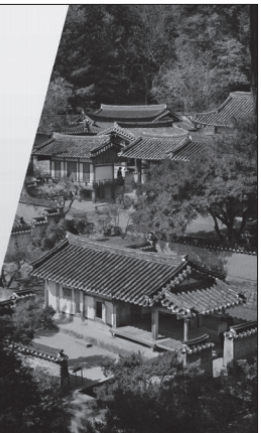
인동서

인동서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편의시설 |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	-	1	2	1	1



☑ 자원 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도산별과
Dosanbyeolgwa

도산서원 선배문화수련원
The Korea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of Dosan Seowon

연도별 Year	기수 Numbering of group of students who completed program since 2002	교육인원 Number of Students
2002~2012	1,446기 / 1,446 graduates	98,971명
2013	466기 / 466 graduates	35,564명
2014	762기 / 762 graduates	55,503명
계 / Total		190,038명

인동시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 (2015.04.00)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is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도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Dosan Seowon

감사합니다
Thank you

인동시



• 도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15분(설명 및 관람 85분 + 이동 30분)

* 시사단 포함 (1인)

장소	주차장	시사단 (유식)	현연대 (유식)	농운정사	도산서당 (강학) & 달유사	동-서당명실	전교당 (강학)	삼익사 (제향)	유물전시관	관리사무소
시간	- 5분	- 설명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설명 1분	- 설명 1분	- 설명 10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 설명 정운주 교수	• 공사 진행 (공사감독관)	• 도산서당 등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사무소 소개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도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15분
(설명 및 관람 85분 + 이동 30분)

* 시사단 포함 (1인)

검토사항

1. 서원유류 참여인원 ?
2. 시사단 조망 가능여부 ?
3. 농운정사 현장 관계자 설명여부 ?
4. 절우사 식재 가능여부 ?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5. 절우사쪽 조망점 오솔길 ?
6. 유물전시관 관람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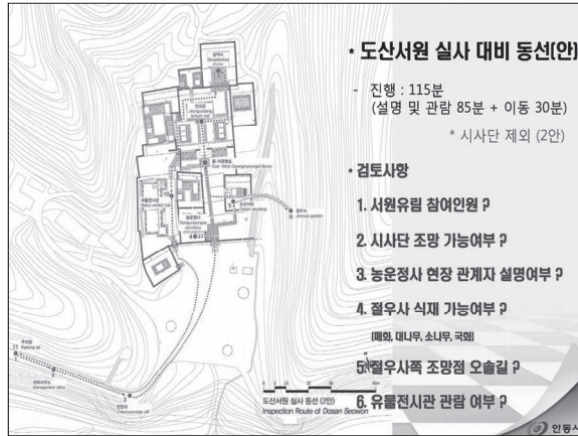


• 도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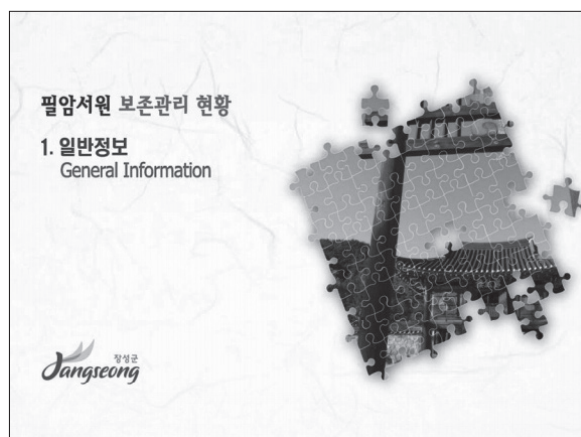
- 진행 : 95분(설명 및 관람 65분 + 이동 30분)

* 시사단 제외 (2인)

장소	주차장	관리사무소	현연대 (유식)	농운정사	도산서당 (강학) & 달유사	동-서당명실	전교당 (강학)	삼익사 (제향)	유물전시관	주차장
시간	- 5분	- 설명 10분 (관람 20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설명 1분	- 설명 1분	- 5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 사무소 소개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공사 진행 (공사감독관)	• 도산서당 등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설명 정운주 교수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필암서원 보존관리 현황



7 일반정보 | Gener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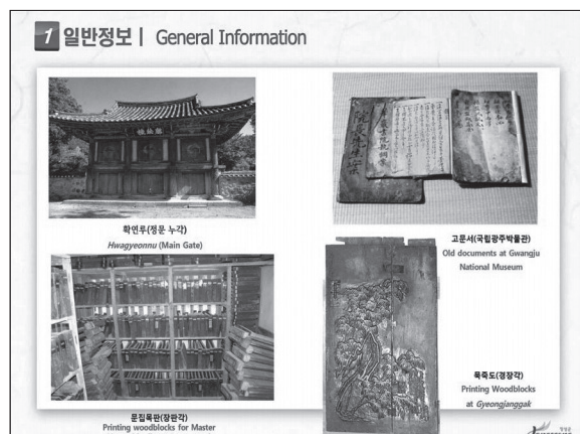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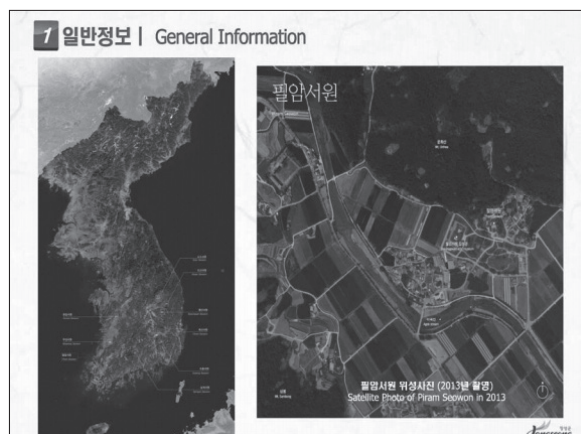
1 행정 주소 및 지리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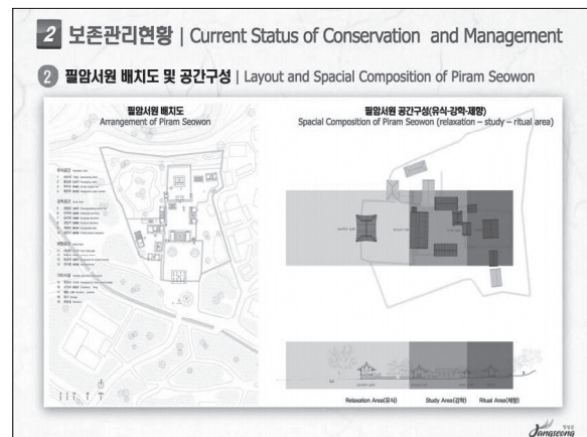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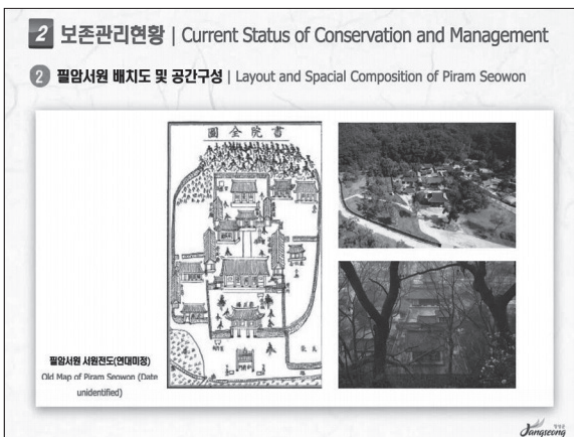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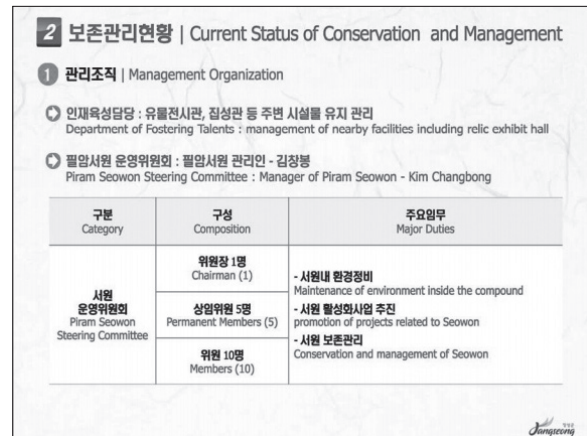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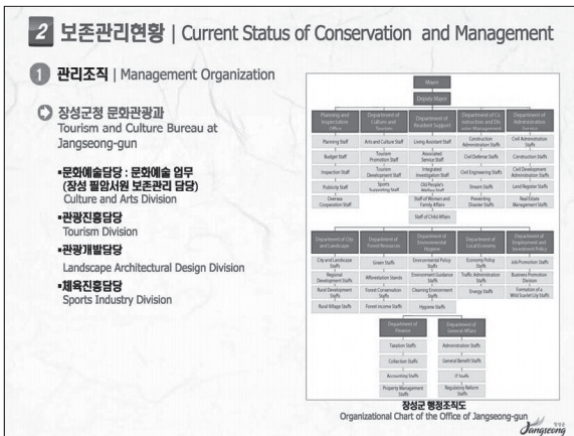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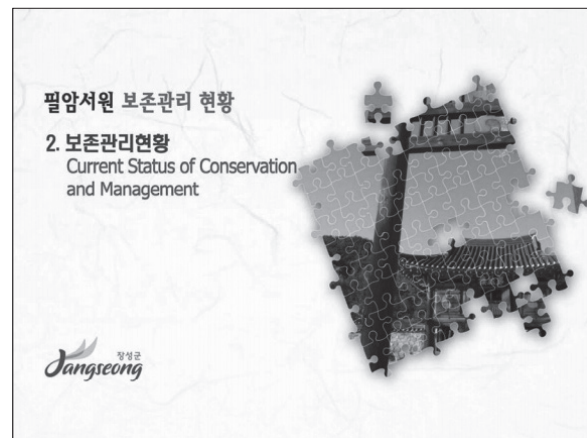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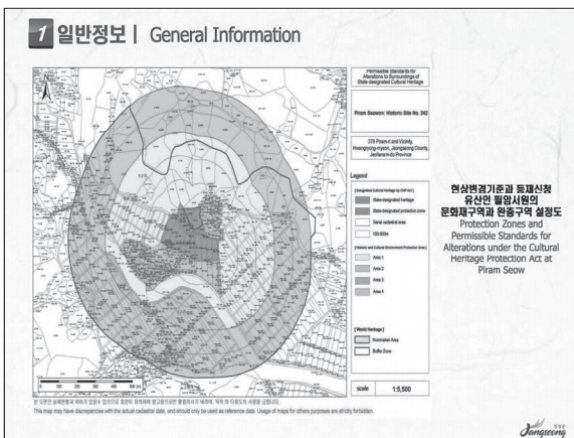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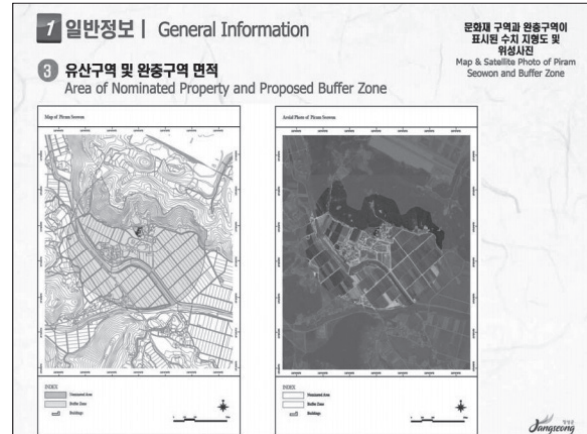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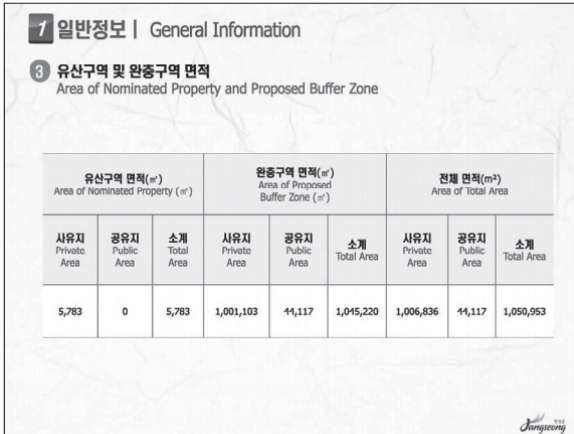
State, Province or Region & Geographical Coordinates to the Nearest Second

행정 주소 State, Province or Region	지리 좌표 Coordinates of the central point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로 184 184 Piramseowon-ro, Hwangryong-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Province	N 35° 18'38.82" E 126° 45'10.28"

2 지정문화재 현황 |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t Dosan Seowon

종류 Category	지정번호 Designation No.	명칭 Name	지정년월일 Date of Designation
국가지정 State-designated Heritage	사적 Historic Site	장성 필암서원 Piram Seowon, Jangseong	1975.04.23.
	보물 Treasure	필암서원 문적일괄 Documents of Piram Seowon in a lump	1975.05.01.
사·도 지정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유형 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y	필암서원 아사산생 문집목판 Printing woodblocks for Haseo Munjip	1999.07.05.
		필암서원 아사유목 허반일괄 Printing woodblocks in a lump for Haseo's posthumous works	1999.07.05.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소방방재 및 도난방지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Crime Prevention

구분 Category	소화기 Fire-extinguishers			옥외 소화전 Outdoor fire hydrants	방수총 Fire hose nozzles	CCTV cameras	불꽃 감지기 Flame detectors
	분말 Dry powder	CO2	청정 Clean agents				
소방설비 Fire-fighting Equipment	14	4	1	3	2	5	10
소방용수(수원) Fire-fighting water	약 50ton(지하수조) 50 tons of underground water tank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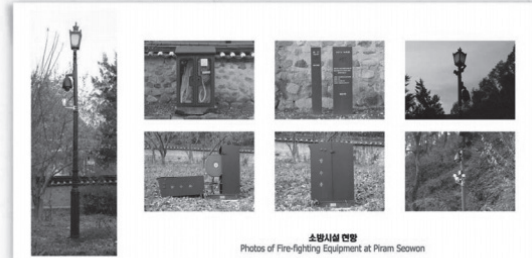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소방방재 및 도난방지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Crime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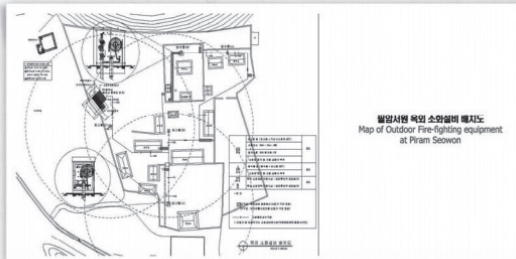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소방방재 및 도난방지 시설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Crime Prevention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장성군재난 종합상황실 Jangseong Control Tower 주 : 061)390-7495 야 : 061)390-7222	담양소방서 Damyang Fire Department 119 상황실 061)390-0900	장성119/설계119 Jangseong/Samyegye Fire and Emergency Department 061)393-2119/394-8119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관리)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itage Conservation Bureau) 주 : 042)481-4820 야 : 042)481-4651	담양서원 Piram Seowon 010-5596-8808 061)392-9908	장성군청(문화관광과) Jangseong County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주 : 061)390-7225 야 : 061)393-7103
기타 유관기관 Related Department 사무지령 선월동 061)420-4611 군부대 061)390-4443	함평면사무소 Hwanggyong Town Office 061)390-6992	장성경찰서 Jangseong Police Department 주 : 061)392-0112 야 : 061)393-2306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재난 감시 인력 및 시설 현황 | Current Status of Guards and Facilities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Jangseong County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담양 : 오 순 교 010-3607-8189 - 담양지 : 전 월 호 010-3977-7103	담양서원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Piram Seowon - 문화대표 : 김만수 010-2779-9766 - 현지관리 : 김창봉 010-5596-8808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 담양 방화(안전 순찰) 횡수 Number of Daily Patrol - 소방 훈련 횡수 Number of Fire Drills - 소방 합동(안전 관리) 점검 횡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약 6km, 약 15분 (장성119안전센터) 약 12.3km, 약 18분 (설계119안전센터) Jangseong Fire Department within 6km, taking 15 mins Samgyegye Fire Department Within 12.3km, taking 18 mins 상시순찰 Constant Patrolling 연 2회 Twice a year 월 2회 Twice a month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화재 진화훈련 현황 | Photos of Fire Drills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4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Visitors & Management

방문객(최근 6년) | Visitors in Recent 6 Ye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2,200명	109,500명	110,500명	131,200명	178,600명	179,500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training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10명 배치
Offers culture commentators → 10 commentators available

Jangseong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5 모니터링 현황 |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건물 관리(근무자 정보)

Building Management Logs (employees contact information)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Identification	담양서원 고직사 Caretakers' building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Jangseong County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연락처 Contact Info	010-5596-8808	연락처 Contact Info	061-390-7225
담당자 Person in charge	김창봉	담당자 Person in charge	전월호

Jang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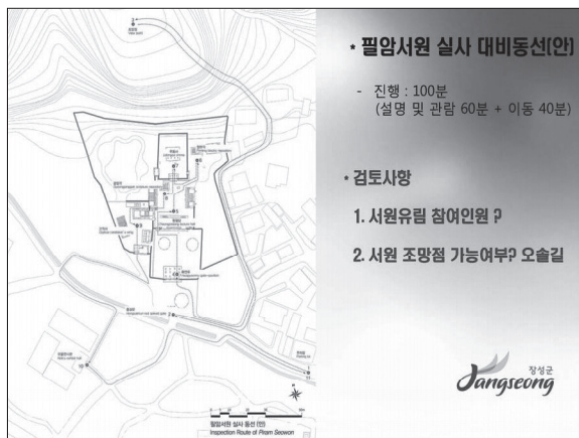


• 필암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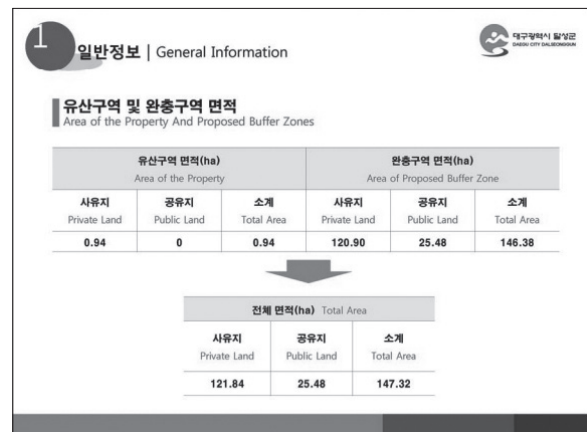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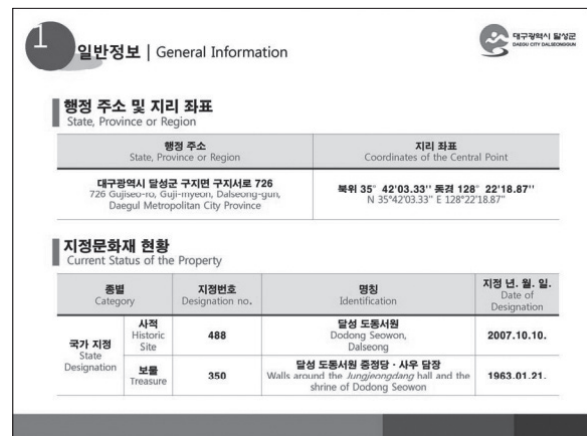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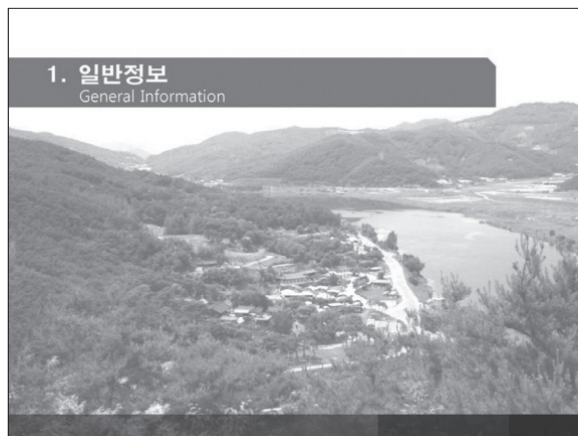
- 진행 : 100분(설명 및 관람 60분 + 이동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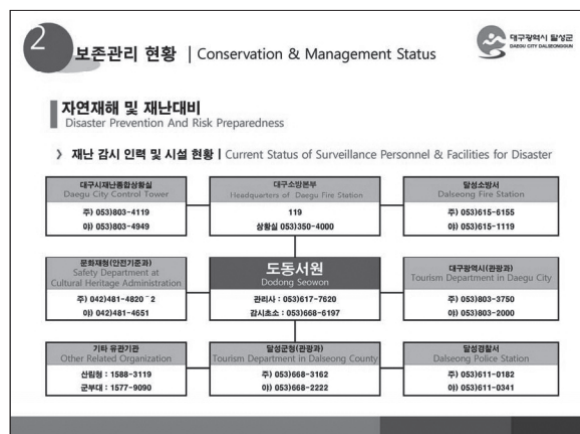
장소	주자장	홍살문 출 역안루	후동사 회산 (유식)	창정당 (강학)	일편각 (유학)	후동사 (제향)	경향각	고제사	유물전시관	주자장
시간	~ 5분	~ 설명 5분	~ 설명 5분	~ 보존관리 (20분)	~ 설명 1분 ~ 관람 1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 관람 1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관람 20분 (이동 설명)	~ 5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2~5명)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창성군청 호순교 담당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전남도청 필암서 담당	• 설명 창성군청 호순교 담당	• 인사 --서원&지자체 (각 2~5명)

Jangseong 창성군



도동서원 보존관리 현황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비상연락 체계 | Emergency Contacts

달성군청 관광과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Tourism Department in Dalseong County	도동서림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of Dodong Seorim
- 관광 : 포춘식 010-8580-9390	- 문종대표 : 김수영 010-3823-9092
- 관광 : 조준미 010-4640-9987	- 한지관리 : 한진우 010-7723-1088
- 담당 : 김재근 010-4745-3338	

▶ 비상점검 체계 / Emergency Check System

-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Station	: 10km, 15분 10 km away, taking 15 mins
- 화력 방호(안전 순찰) 횟수 Number of Daily Patrol	: 상시 순찰 Patrolling 24 hours a day
- 소방 훈련 횟수 Number of Fire Drills	: 연 2회 Twice a Year
- 소방 훈련(안전 관리) 점검 횟수 Number of Inspection i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 월 1회 Once a Month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Implementation &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시행 : 화재예방 활동 및 자체인력에 의한 초동 진화
⇒ 2009년 최초 작성 후 매년 보완 갱신
Created risk response procedure and has been implemented : fire-prevention and first-response exercise by on-site personnel
⇒ First started in 2009 and has been modified and updated every year
-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연 2회
(산불·재난 관련업무 담당 부서, 경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의용소방대 등 훈련 참여)
Joint fire dril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 twice a year
(members from the followings will participate - department in charge of wildfire & disaster, fire department in jurisdiction, police station, medical center, volunteer fire department (VFD))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팔암사당 정판각
Jangpangak at Piram Seowon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취약시기별 재난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Hold regular inspection for disaster prevention during the season prone to disaster in order to modify areas requiring improvements

시기 Period	점검내용 Details	주요 점검대상 Subject to Inspection	점검표 Table
매월초 Beginning of month	문화재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on Cultural Property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점검 Fire-fighting equipment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Properties & facilities owned by Seowon	소방시설 Table of fire-fighting equipment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2월 Feb	해빙기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during Thawing Season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Stonemasonry, shaft base, walls, others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6월 Jun	폭우철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during Stormy & Monsoon Season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Stonemasonry, shaft base, walls, others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2월 Feb 11월 Nov	화재예방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산불예방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on Wildfire Prevention	각종 소방, 가스, 전기 설비 Fire-fighting, gas, electric equipment 유류 및 가스저장고 등 Electricity & oil storage 문화재 주변 인접 산림 Surrounding forests	소방시설, 가스설비, 전기설비, 산불예방 Table of fire-fighting equipment, gas & electricity facilities, wildfire prevention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소방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 → 방재시설 정기점검(월 1회) 및 유지관리
Tasks related to fire prevention is entrusted to professional organization
⇒ inspects facilities for disaster prevention once a month and maintaining the property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Safety and patrol personnel are placed, all of whom are licensed in fire & safety management
⇒ established 24/7 surveillance system

▶ 자위소방대 구성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마을 주민 등 재난발생시 초동대응
Self-protecting fire fighters are organized
⇒ safety & patrolling personnel and local residents responsible for first-response in case of emergency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취약시기별 재난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Hold regular inspection for disaster prevention during the season prone to disaster in order to modify areas requiring improvements

시기 Period	점검내용 Details	주요 점검대상 Subject to Inspection	점검표 Table
매월초 Beginning of month	문화재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on Cultural Property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점검 Fire-fighting equipment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Properties & facilities owned by Seowon	소방시설 Table of fire-fighting equipment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2월 Feb	해빙기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during Thawing Season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Stonemasonry, shaft base, walls, others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6월 Jun	폭우철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during Stormy & Monsoon Season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Stonemasonry, shaft base, walls, others	문화재 안전 Table of safety checks on cultural properties
2월 Feb 11월 Nov	화재예방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산불예방 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on Wildfire Prevention	각종 소방, 가스, 전기 설비 Fire-fighting, gas, electric equipment 유류 및 가스저장고 등 Electricity & oil storage 문화재 주변 인접 산림 Surrounding forests	소방시설, 가스설비, 전기설비, 산불예방 Table of fire-fighting equipment, gas & electricity facilities, wildfire prevention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소방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 → 방재시설 정기점검(월 1회) 및 유지관리
Tasks related to fire prevention is entrusted to professional organization
⇒ inspects facilities for disaster prevention once a month and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property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Safety and patrol personnel are placed, all of whom are licensed in fire & safety management
⇒ established 24/7 surveillance system

▶ 자위소방대 구성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마을 주민 등 재난발생시 초동대응
Self-protecting fire fighters are organized
⇒ safety & patrolling personnel and local residents responsible for first-response in case of emergency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화재 진화훈련 현황 Photos of Fire Drills



화재 진화훈련(외부)
Fire drills outside the property



화재 진화훈련(내부)
Fire drills inside the property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소화전 소화 범위 Range of area covered by fireplugs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 Management

방문객(최근 5년) Number of Visitors In 5 Years

연도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명수 Persons	22,547	21,268	23,372	25,118	21,786	19,767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 Management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 Operation for Culture Commentators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탐방객 안내 및 해설
 - 해설사의 교육, 배치, 관리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협조
 - Offering culture commentators at site
 - assisting visitors and providing commentaries
- 외국어 통역 해설사 운영 요일별 근무자 5명
 - 영어, 일어 가능자 각 1명 포함
 - Interpreters available 5 personnel per week
 - including two in English and Japanese, respectively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모니터링 현황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건물 관리 일지 (근무자 정보)
Contact Info of Employees in Building Management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달성군청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도통서림 고직사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달성군청 관광과
연락처 Contact Info	053-617-7620	연락처 Contact Info	053-668-3162
담당자 Person in charge	한진우	담당자 Person in charge	김재근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보수정비 실적 및 향후 재정 계획(최근 10년) Performance on Repair/Maintenance in Past 10 Yrs & Financial Plan for Next 10 Yrs

연도 Year	사업 내용 Details	사업비(천원) Costs (won)
2003	사당 방수와 기단 보수 Repaired shrine stylobate	44,194
2005	도난방지시설 설치 Installed anti-theft system	63,344
2006	사당 및 경당 보수 등 Repaired shrine and lecture hall	133,629
2008	방재시설물 구축정비, 경보설비 Established fire & crime prevention & alarm system	61,225
	방재시설물 구축정비비 Established fire prevention facilities	225,181
2010	경당 해체 보수, 수월루 및 비각 단청 등 Remodeled lecture hall, Suwol, a stone stile, wooden building, and others	312,380
2012	정밀측량 Operated precise measurement	150,000
	종합정비계획 수립 Establishe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56,000
2013	방화재 도포 Applied flame resistant on facilities	63,886
	관공시설물 정비 Restored public facilities	66,172
2014	사당 기단보수, 주변 정비 Restored stylobate at shrine and rearranged surrounding nature	24,637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단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Short / Mid / Short-term Plan)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건축물 정비 Maintenance of Buildings	건축물 정비 - 보수 및 해체 수리(동·서재/기단/경당/일당/지붕), 단청(바수/사당/사대문) - 보존(기단) 등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east, west dormitories/stylobate/stains/walls/roof, wooden building shrine, inner door to shrine - 훼손된 부분은 원형복원 Destroyed properties are subject to restoration to original form	중기계획 (2015년 부족시행) Midterm Plan (partially implemented in 2015)
사적경관 (사당내부 정비) Maintenance of Property Inside Seowon	시설물 정비 - 소독, CCTV 등 방재시설 다량인 정비(화재대응) - 배수로 및 여랑 정비(습기로 인한 건축물훼손 방지) - 가로등, 배수관, 배선 등 전기시설 정비(안전사고) Rearrange of facilities regarding disaster & fire prevention (i.e. fireplugs, surveillance cameras) Maintenance of sewer and garden (prevent damage on building from humidity) Safety & Management on power facilities like streetlights, distribution boxes, wiring	단기계획 Short-term Plan
조경정비 Maintenance of Landscape	조경정비 - 사당 내부 화초 및 수목 정비 - 화초 정비(단기·중기·단기) Garden (mowing grass, restoring floor)	단기계획 (2015년 부족시행) Midterm Plan (partially implemented in 2015)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단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Short / Mid / Short-term Plan)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주변경관 정비 (사당외부 정비) Maintenance of surrounding landscape (outside Seowon)	건축물(마을) 정비 - 주변 가옥 및 건축물 정비 → 마을(민가)와 사당간 경관부조화 개선 Restoration of buildings in premise → improvement of discordance of landscape between town and seowon	장기계획 Long-term Plan
	경관 정비 - 사적유산구역과 종주구역 지정상 보존 Conserving authenticity of world heritage and buffer zone - 관망 및 배후 수목 정비 Maintaining trees in the back and front - 화랑로, 진입로, 노면 등화 구간 휴식 정비 Rearrangement of poorly-designed visitor passage, entrance way	중기계획 Mid-term Plan
	시설물 정비 - 문화재 안내문, 이정표 등 정비 (안내문 디자인가이드 라인 적용) - 조경정비 개선을 위한 주차장 이설 Relocation of parking lot to improve surrounding landscape - 관공시설물, 물수레, 배수정류장 등 편의시설 정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Maintenance of accommodations like bus station, drinking fountain, tourist information center (followed by guidelines of public facilities)	중기계획 (2015년 부족시행) Mid-term Plan (Partially completed in 2013)
사당 활용 (Programs utilizing Seowon Culture)	사당 문화 체험 프로그램 - 관공,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Operation of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and study - 유교문화 관련 행사, 전시회, 연구사업 등 추진 Events related to Confucianism, exhibitions, research programs support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ince 2014	계속사업 In process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제향의례: 분향례(1,15일), 춘·추 향사(2·8월 중정일), 묘제(10월 2일)
Memorial Rites: ceremony on 1st and 15th of month, spring/fall ceremony in Feb and Aug, ceremony at the grave on Oct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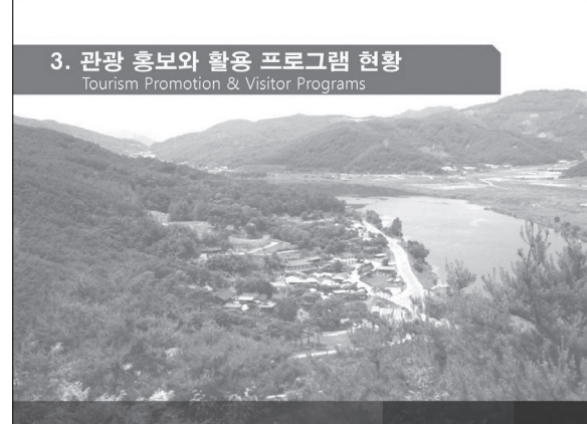




2 보존관리 현황 | Conservation & Management Status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책판(경한목), 고서, 고문서 등 주요 소장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
: Major materials such as printing blocks, old books and documents are entrusted to and stored at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for Visitors

숙박시설 Lodges &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Office
0	1	1	2	1	0

▶ 서원 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Seowon (Websites and promotional pamphlet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교육, 제향 등)
Currently active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of Seowon, experience of ritual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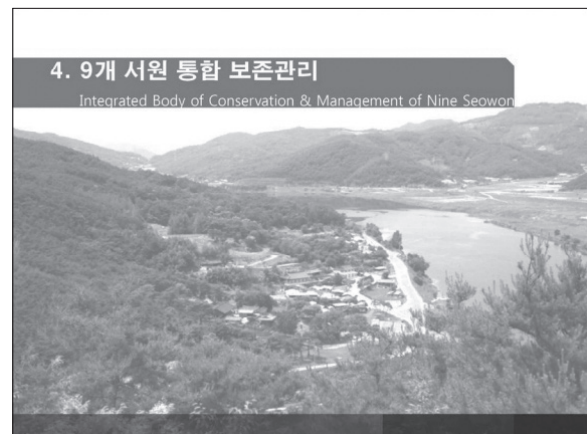
- 도동서원 학술대회('道, 東에서 꽃피다 - 도동서원의 재조명')
→ 대구문화예술위원회 (2013.10.15)
Dodong Seowon Symposium ("The Way" Blossoms in the East)
→ Daegu Culture & Arts Center | 2013.10.15
- 도동서원 사액봉행 학술연구
→ 사액봉행 재현 (2013.9.7)
Symposium of Dodong Royal Charter
→ Recapture of moment receiving royal charter and marching down from capital city to Dodong Seowon on Sep 7th 2013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도동서원 학술대회('道, 東에서 꽃피다 - 도동서원의 재조명')
Dodong Seowon Symposium ("The Way" Blossoms in the East)

사액봉행 재현
Recapturing the moment of receiving royal charter on Sep 7th 2013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Nine Seowon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2015.4)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 on Apr, 2015

▶ 통합관리단 역할 Role of Integrated Management Body

- 모니터링(9개 서원 통합방재관리 및 건축물 & 시설물 등)
Fire-fighting management on nine Seowon, buildings and facilities at the compound
- OUV 학술연구, 교육(인문+세계유산)
In charge of OUV Symposium, educational programs in humanities and cultural heritage
- 홍보(활용) 등
Public Relations or promotion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2015.4)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 on Apr, 2015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2015.4)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 on Ap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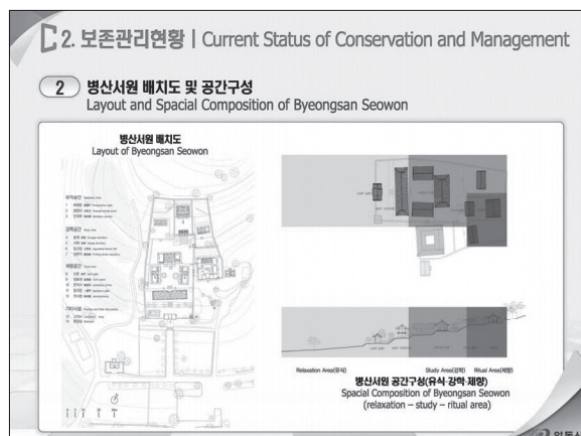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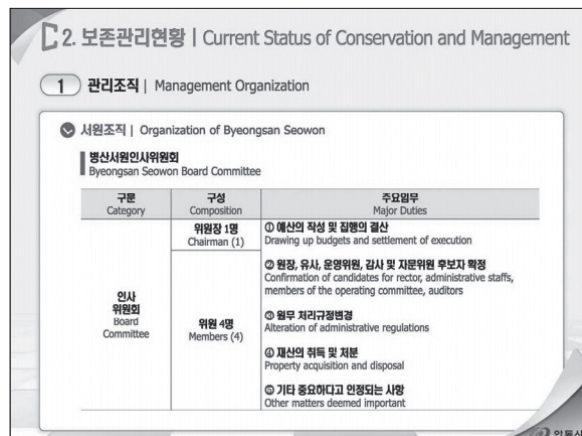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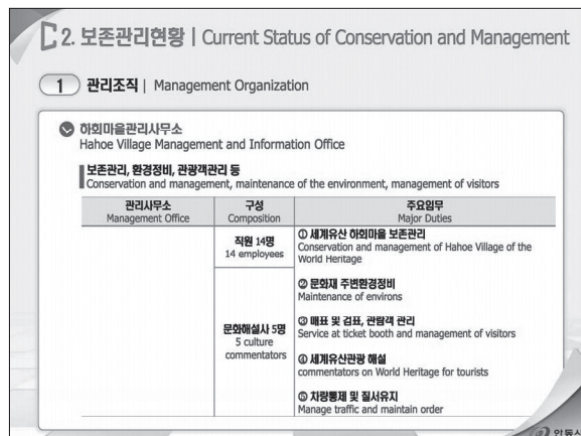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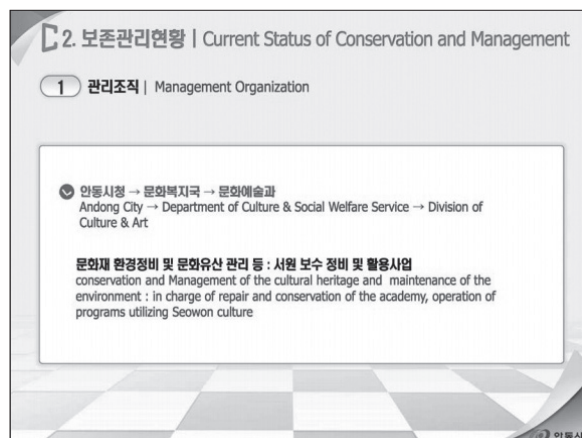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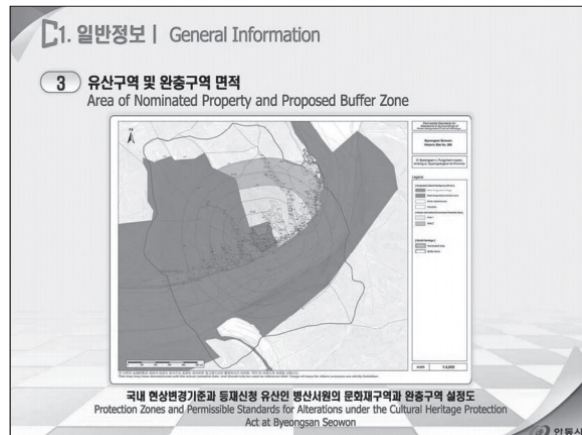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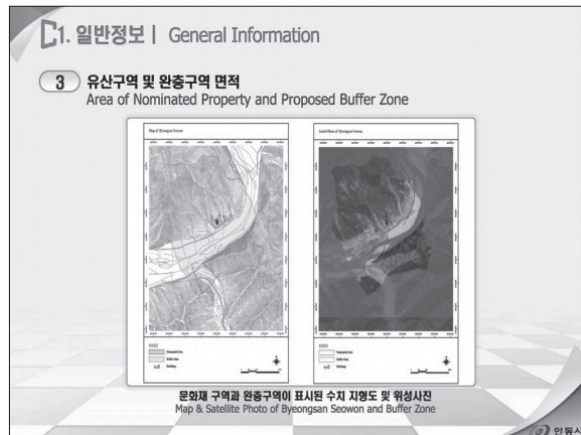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2015.4)
Integrated Body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 on Apr, 2015





<div> <div>대구광역시 달성군</div> <div>Dalseong-gun City Hall</div> </div> <div> <div>• 도동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div> <div>- 진행 : 90분(설명 및 관람 60분 + 이동 30분)</div> </div>										
장소	다원재	주자장	문행나루 (문석)	종정당 (강학)	장판각	사우 (재향)	종정당	고제사	루충전시관	주자장
시간	- 설명 5분 → 5분	- 설명 5분 → 5분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관람 3분	- 설명 1분 → 관람 3분	- 설명 30초 → 복층교차 (20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인사 5분
내용	• 설명(경관) → 서원토지지제 (가 3-5분)	• 인사 → 서원토지지제 (가 3-5분)	• 설명(강학)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학생교육 제형프로그램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 설명 1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인사 → 서원토지지제 (가 3-5분)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at the Division of Culture and Art in Andong City	병산서원 비상연락망 Emergency Contacts at Byeongsan Seowon
-과장: 김재교 010-3540-4818 Director	-문종대표: 류연옥 010-3207-0581 Head of Clan
-담당: 손상택 010-8831-3664 Manager	-현지관리: 배영권 010-9535-5515 Local Manager
-소방서 위치 Location of Fire Department	해회 119지역대 : 5km(15분 내외) Hahoe Emergency Department within 5 km, taking 15 mins
-일일 방화(안전 순찰) 횟수 Number of Daily Patrol	상시순찰 Patrolling 24 hours a day
-소방 훈련 횟수 Number of Fire Drills	연 2회 Twice a year
-소방 훈련(안전 관리) 점검 횟수 Number of Inspec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상시 점검 Constant inspection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화재대응 매뉴얼 갖춤

Establish fire prevention system and disaster response procedure

소방 및 재난안전훈련 연간 12회(월 1회) 자체훈련 실시

Internally carrying out fire and disaster drills once a month, 12 times a year

서원 경내 순찰 및 일지 작성

Patrolling inside the compound and keeping a daily patrol log

재난 및 화재대응을 위한 CCTV 운영 : 15대

Operation of CCTV cameras for risk and fire-fighting response : 15 CCTV cameras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장비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 Detection System

화재감지기 Fire detectors		옥외 소화전 Outdoor fire hydrants	방수총 Fire hose nozzles	감지기 Detectors			소화기 Fire extinguishers
수신기 Fire detector	속보기 Fire alarm			불꽃 Flame	연기 Smoke	열 Heat	
1	0	3	0	0	7	40	21

※수원: 수원64㎜이상, 관경 80㎜로 공급상수도

Source of water : municipal waterworks with 80mm in length and 6kg/ar and higher in water pressure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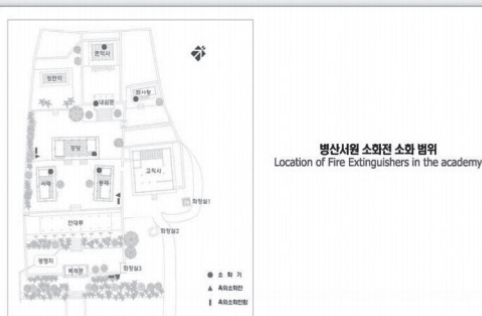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화장비 현황 Current Statu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Fire Detection System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3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병산서원 화재 진화훈련 Photos of Fire Drills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4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 Current Status of Visitors

방문객(최근 6년) | Visitors in recent 6 ye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99,590명 persons	225,559명	193,303명	188,040명	223,073명	206,775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5명 배치 | Operate Culture commentators → 5 personnels

외국어 통역 해설사 운영 → 영어, 일본어 가능자 각 1명

Provide interpreter → including two interpreters in English and Japanese,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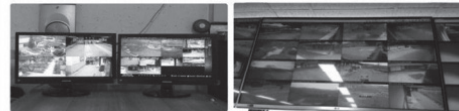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5 모니터링 현황 |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건물 관리 일지(근무자 정보) Building Management Logs (employee contact information)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of Department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 at Hahoe Village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Division of Culture and Art, Andong City
연락처 Contact Info	054-854-3669	연락처 Contact Info	054-840-5237
담당자 Person in charge	배영권	담당자 Person in charge	손상택



안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6 보수정비 실적 현황 (최근 5년)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5 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천원) Costs (won)
2010	소방시설, 배수로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Restoration of water pipes	150,000천원 150 million won
2012	정밀측량 Operation of precise measurement	200,000천원 200 million won
2015	광장지, 주차장이전 Relocation of pond and parking lot	850,000천원 850 million won

인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7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 단기계획(2015~2018년), 중기계획(2021년), 장기계획(2025년) | * Short-term Plan (2015~2018), Mid-term Plan (~2021), Long-term Pla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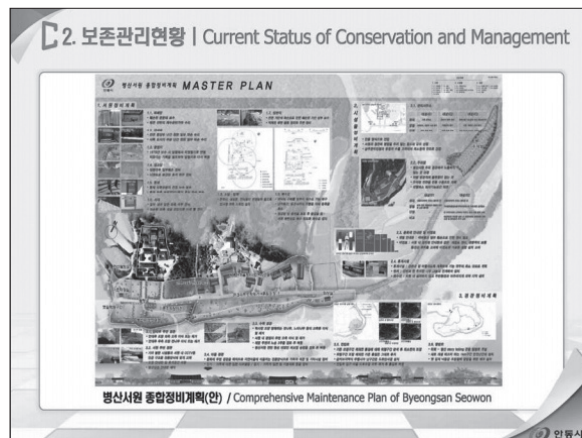
구분 Category	장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사적정비 Maintenance of Historic Site	· 건축물 정비 restoration works done on buildings · 훼손 건물 등 고문서 및 사진에 토대로 복원 후 원형복원 Restoration of damaged buildings to the original forms based on the old documents corresponding damaged buildings	Mid-term plan
	· 설비시설 Facilities · 소방방재 시설, CCTV 등 화재발생에 대비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CCTV to enhance fire preparedness · 배수로 정비 등기후 안전 건축물훼손 방지 Upgrade of water pipes to prevent damages caused by humidity	Short-term plan
	· 관람시설 Visitor facilities · 안내판, 안내문 및 이정표 문화재 디자인가이드라인 정비 Rebuilding of guidelines on signboards and direction posts · 화장실, 편의시설 및 안내소 계획 Establishment of plan 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office and public restroom	Short-term plan
	· 조경정비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gardening · 광장지 복원정비, 사적 주변의 수목 정비 Plantation and reorganization of trees around the academy · 광장지 석축정비, 사적 주변의 수목 정비 Restoration of stonemasonry of the pond	Started in 2015

인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구분 Categories	장비 내용 Contents	비고 Remarks
주변환경 정비 Maintenance of environs	· 마을 정비 Reorganization of the village · 주변 가옥 및 건축물 정비 Restoration of surrounding buildings and houses in premise	Long-term plan
	· 경관 정비 Reorganization and rearrangement of natural surroundings · 병산실경 복원, 수목 정비, 수목 재배 및 관리 병산실경 복원, 수목 정비, 수목 재배 및 관리 ·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진정성 보존 preserved authenticity by designating the property area and buffer zone	Mid-term plan
	· 관람시설 Visitor facilities · 주차장 이전, 휴게시설 정비 Relocation of parking lot, renovation of visitor's resting place · 안내판, 배수관 등 공공디자인 적용 정비 Reorganized signboards in uniform and drinking fountain	Started in 2015
	· 동선정비 Redesign of visitors way to Seowon including entrance road to Seowon · 탐방로, 진입로 위험구간과 노면 상태 불량 구간 정비	Short-term plan
사적 활용 Utilization of Seowon	· 사적 문화 재향 프로그램 Programs utilizing Seowon Culture · 강학,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Programs related to Seowon education · 유교문화유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Promotional programs of Confucianism	In process

인동시



2. 보존관리현황 |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8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제향의례 : 분향례(1, 15일), 정월례(1월5일), 춘·추 향사, 도산별과 등
Memorial rites : biannual rites of spring and autumn, rites in every 1st and 15th of month, ceremony held in Jan 5th

❖ 기록유산 보존관리 : 시매선생문집 외 목판 한국학진흥원 위탁 보관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Collected Works of Seoae entrusted to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인동시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편의시설 |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	-	1	1	1	0

❖ 사적 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 |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인동시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발동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연도 Year	프로그램 Program	수료인원 Number of Students Completed	비고 Remarks
2014	사원향사(춘, 추)제향 Ritual Ceremony Experience program (spring/fall rites)	100	2회
	사원강학 Study at Seowon	231	4회
	사원스tay 체험 프로그램 Seowon Stay Program	510	17회
	병산서원 인문학강좌 Arts and Humanities Class	950	20회
	소계 Total	1,791	43회
2015	사원향사(춘, 추)제향 Ritual Ceremony Experience program (spring/fall rites)	0	Started in Apr
	사원강학 Study at Seowon	0	Started in Apr
	사원스tay 체험 프로그램 Seowon Stay Program	0	Started in Apr
	소계 Total	0	Started in Apr
	계 Total	6,187	

인동시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활용 프로그램** | Active Programs

안동시

병산서원 보존관리 현황
Briefing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Byeongsan Seowon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동시

• 병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10분(설명 및 관람 80분 + 이동 30분)

장소	주차장	준의사 (제향)	임교당 (강학)	서재 (강학)	인대루 (유식)	주차장
시간	- 5분	- 설명 1분 - 말포 20분	- 설명 5분 - 보존관리 (20분)	- 설명 2분 (문물품)	- 설명 3분 - 휴식 20분	- 5분
내용	• 인사 - 서원&지자체 (각 3-5명)	• 설명 - 김익현 교수 - 유한석 유서	• 설명 - 김익현 교수 - 안동시 - 손상학 명달	• 설명 - 김익현 교수	• 휴식 - 말포 물가시 - 휴식 연장	• 인사 - 서원&지자체 (각 3-5명)

안동시

• 병산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10분(설명 및 관람 80분 + 이동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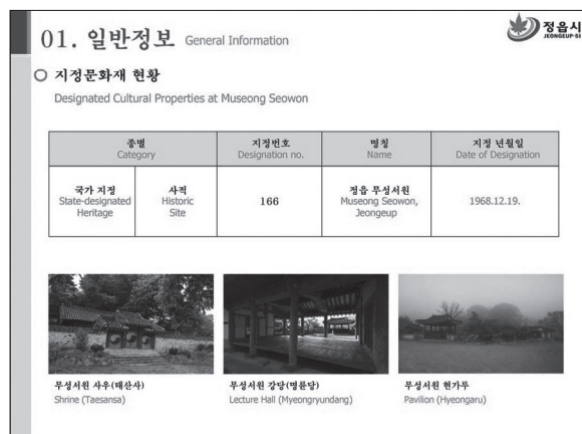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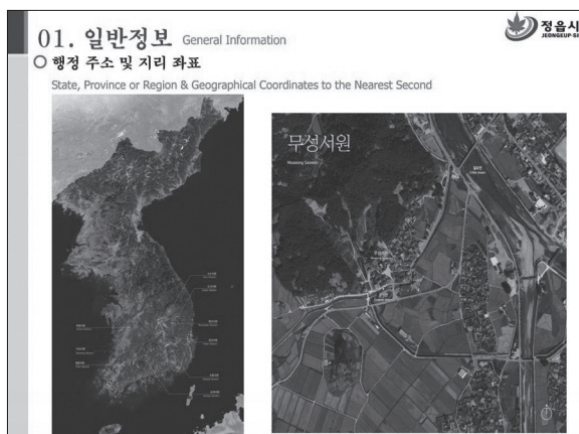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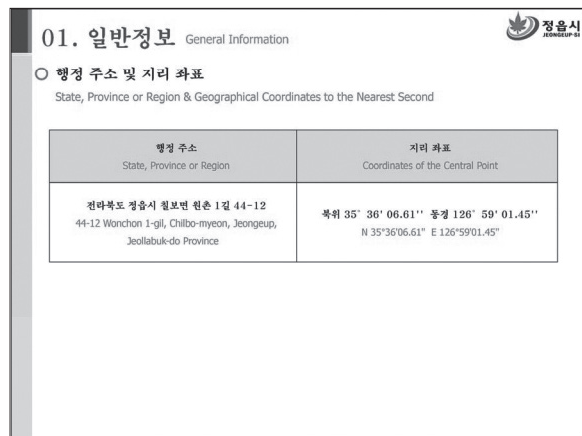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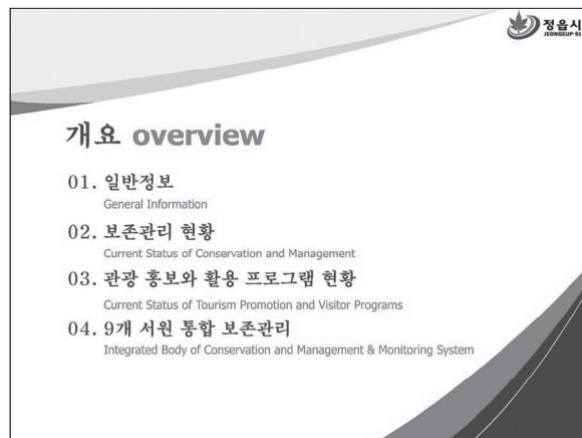
• 검토사항

1. 서원 유람 참여인원 ?
2. 말포 가능여부?
3. 고직사(cctv 모니터) 관람여부 ?
4. 임교당에서 다식여부 ?

병산서원 실사 동선 (안)
Inspection Route of Byeongsan Seowon

안동시

무성서원 보존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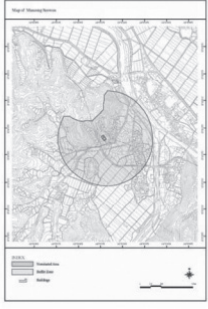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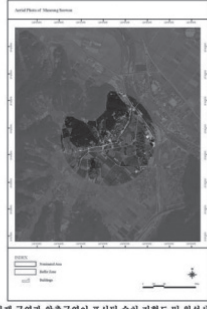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유산구역 면적 (㎡) Area of Nominated Property (㎡)			완충구역 면적 (㎡) Area of Proposed Buffer Zone (㎡)			전체 면적 (㎡) Total Area (㎡)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1,779	0	1,779	771,375	15,360	786,735	773,154	15,360	788,514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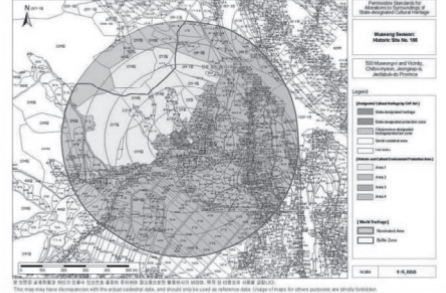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문화재 구역과 완충구역이 표시된 수치 지형도 및 위성사진
Map & Satellite Photo of Museum Seowon and Buffer Zone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국내 현상변경기준과 종래신설 유산인 소수서원의 문화재구역과 완충구역 설정도
Protection Zones and Permissible Standards for Alteration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t Museum Seowon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무형서원 배치도 및 공간구성
Layout and Spatial Composition of Museum Se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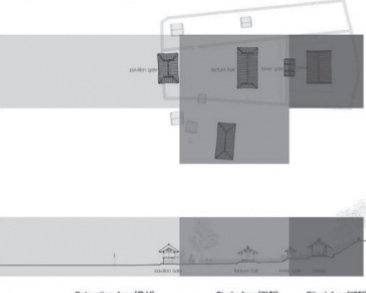
무형서원 주변 현황도 - 칠강실현도(배움원, 1910)
Environments of Museum Seowon in 1910



무형서원 배치도
Layout of Museum Seowon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무형서원 배치도 및 공간구성
Layout and Spatial Composition of Museum Seowon



공간구성도 (휴식-강학-제향)
Spatial Composition of Museum Seowon (relaxation - study - ritual area)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 무형서원 배치도 및 공간구성
Layout and Spatial Composition of Museum Seowon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Programs Related to the Presentation and Promotion

0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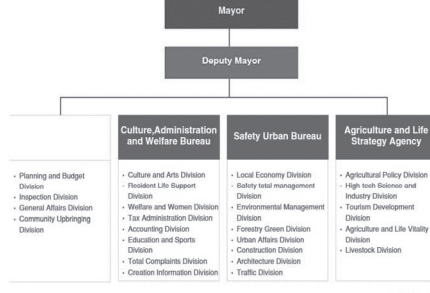
▶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4개 팀)
Office of Cultural Art at Jeongeup City

- 문화예술팀
Cultural Art Division
- 문화재팀(무형서원 보존관리 담당) : 문화재 업무지원, 문화재 자료조사 및 지정, 전통사찰 보존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업무
Cultural Heritage Division (in charg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operation exclusively in cultural heritage, handling of cultural heritage survey and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temple, repair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 approval of permissible standards for alteration, examination of possible effects on cultural assets caused by construction works, operation of traditional funeral service and survey cultural indicator
- 예술진흥팀
Advanced Arts Division
- 예술회관관리팀
Managing Arts Center Divisi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정읍시청 행정조직도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정용식
Minister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
 - 화재대응 체계 구축/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완료
Completion of establishing fire prevention system and risk response procedure
 - 구성직원 화재대응 매뉴얼 명시
Located directions declaring standard procedure for disaster response at the compound
 - 구성직원 권리사무소 주간근무 1인
An employee working night shifts at management office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CCTV/화재감지시스템 설치 (24시간 감시알림체계)

Installed CCTV cameras and fire detectors (24/7 surveillance system)

· 화재감지시스템 및 CCTV 24시간 모니터링

Director of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 command in case of disaster

·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소방서 연계 작동

Established fire-fighting system : Operation wit interconnected fire departments upon emergency



2015년 CCTV 카메라설치 (50,000만원)
Installed CCTV camera in 2015 (50 million w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자체 소방조직 : 자위소방대 구성

Firemen independently organized by Seowon :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 자위소방대 대장 : 재난상황 총괄 지휘 및 임무지시

Director of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 command in case of disaster

· 방화관리자 : 자위소방대 대장 부재시 총괄 지휘 및 유관기관 업무연락

Fire-fighting manager : in charge upon the absence of the director and contact related departments to command duties

· 통보연락반

Liaison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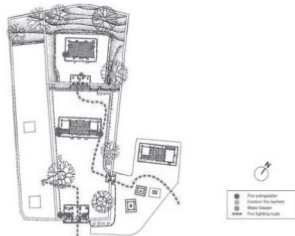
▶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 담당, 자위소방대 소집

In charge of reaching emergency contacts and call self-protecting fire department in case of disaster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무성서원 내 소방 설비 배치도
Map of Fire-fighting Equipment at Museong Seow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Disaster Prevention And Risk Preparedness

▶ 화재 진화훈련 현황 Photos of fire drills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s & Management

▶ 방문객(최근 6년) Visitors in Recent 6 Ye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8,000명 Persons	32,000명	35,000명	38,000명	43,000명	45,000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탐방객 안내 및 해설
Operating Culture Commentators ⇒ guide visitors and provide description of cultural heritage

※ 해설사의 교육, 배치, 관리는 전담부서 일조

Assisted by Jeonbuk for education, allocation, management of commentators

· 외국어 통역 해설사 운영 ⇒ 요일별 근무자 1명(영어가능자 1명)

Operating interpreter ⇒ one employee (English)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모니터링 현황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 건물 관리 일지 (근무자 정보) Contact Info of Employees in Building Management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무성서원 고지사 Caretakers' Building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Office of Culture and Art
연락처 Contact Info	011-289-6292	연락처 Contact Info	063-539-5181
담당자 Person in charge	안성열	담당자 Person in charge	서인석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보수정비 실적 현황 (최근 10년)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10 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원천) Costs (won)
2004	사우 지붕보수 및 단청, 현가루 단청 Repaired roof, floor, base of shrine	62,234 62 million won
2005		
2010	마당정비, 지장물 매입 및 정비 Renovated garden and purchased nearby obstructive buildings	200,000 200 million won
2011	주차장 조성 Created parking lot	50,000 50 million won
2012	지장물(주택) 매입 및 정비, 정밀실측(1차) Purchased obstructive buildings and employed experts for precise measurement (1st)	200,000 200 million won
2013	정밀실측(2차), 전선지중화, 주변정비 Employed experts for precise measurement (2nd) and worked on underground utility and electric works and rearranged surrounding environment	280,000 280 million won
2015	지장물(주택) 매입 및 정비, 한식당정비, 종합정비계획 수립 Purchased obstructive buildings and built Korean traditional walls and establishe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100,000 100 million w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계별 정비계획 : 단기·중기·단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단계 Level	정비 내용 Details	비고 Remarks
단기 Short-term	노후 건물정비 restoration of old buildings	
	수목, 포장정비 restoration of road paving, trees	
	주차장 확대 expansion of parking lot	
	편의, 휴게시설 계획 establishment of plan for resting area and other amenities	
중기 Mid-term	서원 홍보물 제작(10개서원 통일) production of promotion material of Seowon (identical for nine Seowon)	
	서원 활용 프로그램 연구용역 employment of research experts for programs utilizing Seowon culture	
장기 Long-term	전통 단청 보수 사업 remodel of painted wooden buildings	
	서원 근경 마을 정비 지속 사업 restoration of village in perimeter	
	서원 앞 주변 건물정비 매입 purchase of buildings in front of Seowon to renovate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향후 종합정비계획 (단계별 정비계획 : 단기·중기·단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mid-long-term plan

※ 무성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7년)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of Museong Seowon

※ 2015년 3월 종합정비계획 (50,000원) 발주
Commissioned to experts o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March 2015 (50 million w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무성서원 춘기 제향행사 Autumn Ritual Rites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무성서원지 (국립중앙도서관 보관)
Documents of Museong Seowon stored in National Museum of Korea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0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1	1	1	1	1	0

○ 서원홍보(팝플렛 및 관련 책자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 Visitor Program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Currently Active Programs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Bringing Seowon Back to Life

0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0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0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Programs Related to the Presentation and Promotion


0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0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 (2015.04.00)
Integrated body to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감사합니다 Thank you




정읍시
 JEONJU-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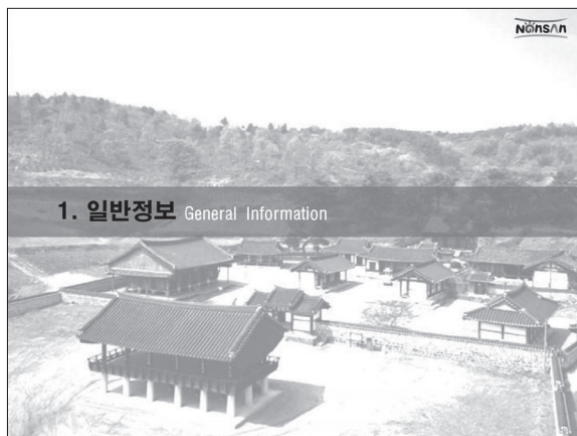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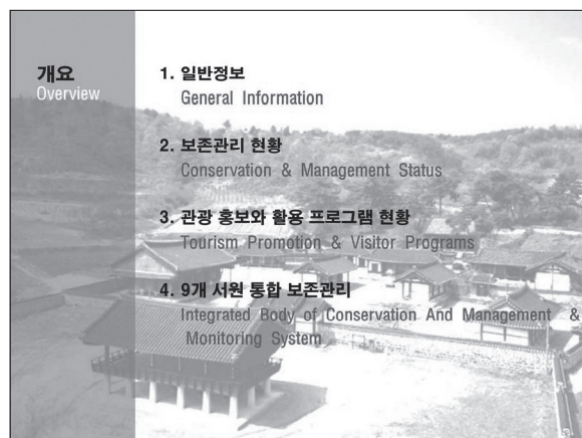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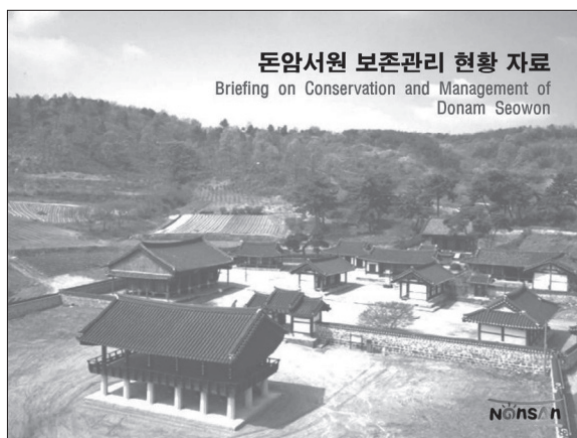
• 무성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70분(설명 및 관람 50분 + 이동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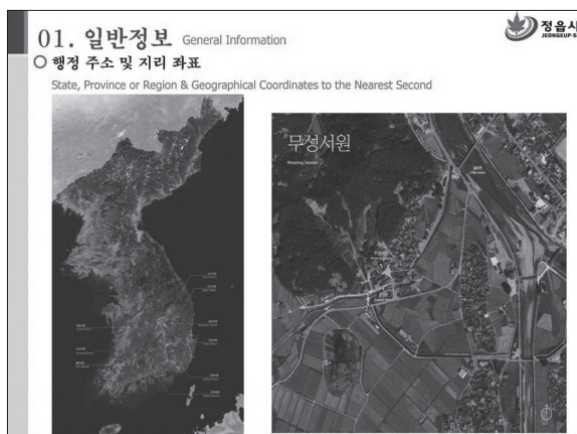
장소	아울림	홍살문(무식)	한가루 앞 (유식)	명륜당 앞 (광학)	사루 (재형)	명륜당	광주재	그적사	주자당
시간	- 5분	- 이동	- 설명 5분 (일지)	- 설명 5분 (간축)	- 설명 30초 - 관람 1분 (이동 설명)	- 연주 10분 - 포충관리 (20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5분
내용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 설명 -한성일 관장 (매곡안씨종파서포장)	• 설명 -한성일 관장 (매곡안씨종파서포장)	• 설명 -한성일 관장 (매곡안씨종파서포장)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문화재실사) 장광서 관람관 과정	• 연주 - 태성사 (문화재실사) • 설명 장광서 관람관 과정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장광서 관람관 과정	• 설명, 취재 포니뉴스포럼 • 설명 장광서 관람관 과정	• 인사 -서원&지자체 (각 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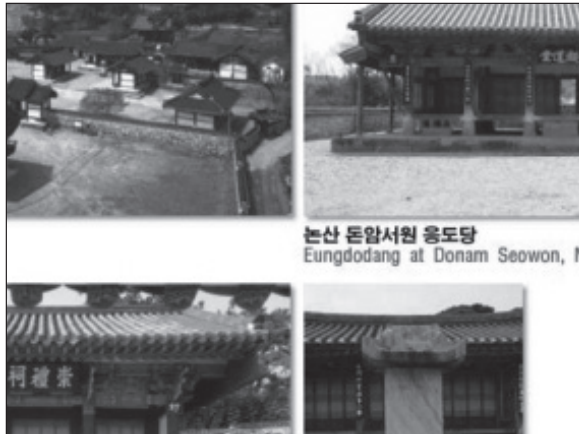
돈암서원 보존관리 현황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행정 주소 및 지리 좌표 State, Province or Region & Geographical Coordinates to the Nearest Second	
행정 주소 State, Province or Region	지리 좌표 Coordinates of the Central Point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26-14 Im 3-gil, Yeonsan-myeon, Non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북위 36° 12' 33.21" 동경 127° 10' 50.75" N 36° 12' 33.21" E 127° 10' 50.75"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지정문화재 현황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t Donam Seowon			
종별 Category	지정번호 Designation no.	명칭 Name	지정 년월일 Date of Designation
국가 지정 State-designated Heritage	사적 Historic Site	383 논산 돈암서원 Nonsan Seowon, Nonsan	1993.10.18.
	보물 Treasure	1569 논산 돈암서원 종도당 Eungdodang at Donam Seowon, Nonsan	2008.07.10.
시·도 지정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유형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155 돈암서원 유경사 Yugyongsae, Donam Seowon	2000.01.11.
	문화재자료 Cultural Heritage Material	366 돈암서원 월경비 Wongyeongbi, Donam Seowon	2000.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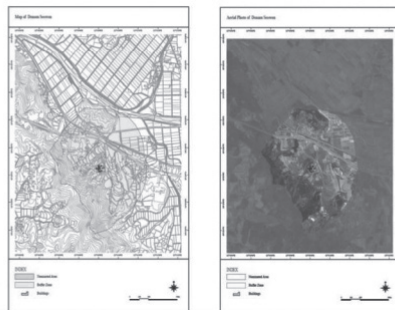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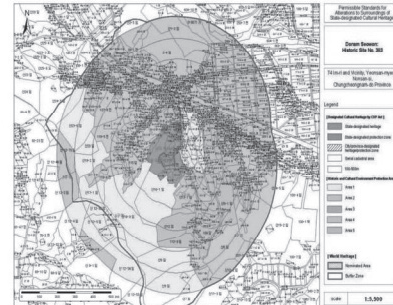
Area of Nominated Property and Proposed Buffer Zone

유산구역 면적(㎡) Area of Nominated Property (㎡)			완충구역 면적(㎡) Area of Proposed Buffer Zone (㎡)			전체 면적(㎡) Total Area (㎡)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사유지 Private Area	공유지 Public Area	소계 Total Area
7,700	0	7,700	1,044,618	91,149	1,135,767	1,052,318	91,149	1,143,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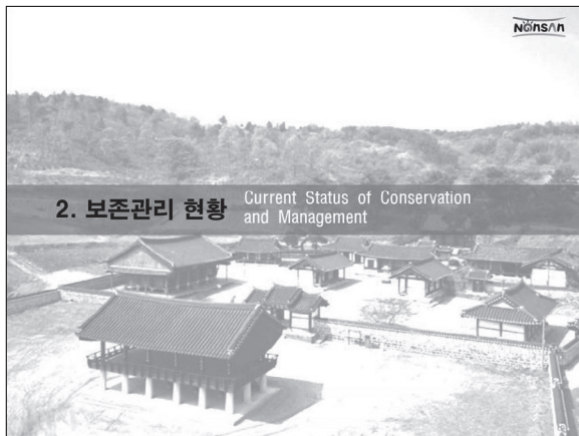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1. 일반정보 General Informatio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공연축제팀)

Culture & Tour Division

(Culture & Art Department,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Performance & Festival Department)

※ 문화재팀 : 돈암서원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 등 주관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in charge of repair and maintenance of the academy and projects utilizing Seowon culture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 돈암서원 고직사 Gojksa (caretakers' building) at Donam Seowon

- 돈암서원 내 고직사에 관리인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A manager and culture commentator dispatched to the building

: 서원 유지관리 등에 관여

Taking part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eowon

▶ 돈암서원 운영위원회 Donam Seowon Steering Committee

- 돈암서원 운영주체는 돈암서원 총회로, 서원을 중심으로 한 논산지역 유림들이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 업무 수행

Donam Seowon Steering Committee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group, composed of regional Neo-Confucian scholars. It is responsible for memorial rites, preparation of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financial management.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관리조직 Management Organization

구분 Category	구성 Composition	주요임무 Major Duties
운영위원회 Donam Seowon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1명 Chairman (1)	· 제향 관련사항 ritual related affairs · 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budget planning, execu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수석장의 외 각 부문장의 20명 Chief counselor and 20 counselors	· 회장, 각 유사, 운영위원 등 임원선임 appointment of operating committee members including chairman (rector), administrators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assets

NONSA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 방문객 및 방문객 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Visitors & Management

▶ 방문객(최근 6년) Visitors in Recent 6 Years

연도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명수 Persons	69,764	68,789	70,553	78,519	78,500	85,00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현황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Operation of Culture Commentators

- 운영일: 주 6회(화~일) Office Day: Tue ~ Sun (6 days a week)
- 운영인원: 1명(다문화유산과 순환식 근무)

Operating personnel : one personnel at site and other employees at other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working shifts

-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Office Hour: 10 am ~ 5 pm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모니터링 현황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 건물 관리 일지 (근무자 정보) Contact Info of Employees in Building Management			
상주 관리소 Management Office (24/7)		지자체 담당부서 Department of Regional Autonomous Body in Charge	
명칭 Name	본암서원 고직사(경회당) Goyiksa (Caretakers' building)	부서명 Name of Department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Culture & Tourism Division at Nonsan City
연락처 Contact Info	041-736-0096	연락처 Contact Info	041-746-5414
담당자 Person in charge	김종환, 전일화, 한상철, 신승식	담당자 Person in charge	이수태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보수정비 실적 현황 (최근 5년)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on Maintenance and Repair in Recent 5years		
연도 Year	사업 내용 Projects	사업비(천원) Costs (won)
2011	- 토지 및 노후 민가 철거, 경회당 유경사 전사형 보수 Removed old residences and restored shrine and study hall -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등 Built parking lot for Hanok Village	8,500,000 8.5 billion won
2014	- 한옥체험3촌 조성, 조경 정비 등 Created three sub-towns at Hanok Village for visitors programs and reorganized surrounding environment	2,875,000 2.8 billion won
2015	- 단위문화재 정비, 예학관 건립 등 Established Yashakgwan	3,636,000 3.6 billion wo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향후 종합정비계획(단기·중기·장기)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ree levels : Short · mid · long-term plan	
구분 Category	정비 내용 Details
단기(15년까지) Short-term plan (~2015)	한옥마을 주변 조경정비 Reorganization of landscape around Hanok Village 본암서원 마당 정비 Renovation of garden 홍살문 이전 등 단위문화재 보수정비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relocating Red Spiked Gate
중기(16~18) Mid-term plan (2016~2018)	화랑실 이전, 영진필포실 이전, 상암루 주변 담장 정비 Relocation of engine pump room, restroom Renovation of walls around pavilion 서원 주변 지형 원형복구 사업 Repair of projects on terrains surrounding Seowon in their original form 본암서원 진입로 정비 및 우회도로 개설 Redesign of entrance way to the academy and paved new roads for detour
장기(18년이후) Long-term plan (2018~)	본암서원 주변 전신주 지중화사업 Work of underground utility and electrical work around Donam Seowon 본암서원 앞 경관 정비사업 Restoration of natural surrounding in front of the academy 본암서원 전체 조경정비 Restoration of the whole landscape of Donam Seowon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본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Establishe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of Donam Seowon	
○ 수립년도 Year of Establishment	
- 2009. 07 수립 : 문화재청 승인 Established in July 2009, approv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2012. 08 보완 : 계획 변경(안) 문화재청 승인 Improved in Aug 2012 : approval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n Alteration of Plan	
○ 용역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Employed experts from Outside Department :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2.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Management	
무형 및 기록유산 보존관리 현황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Inheritance Records	
▶ 제향의례 Memorial rites : 분향례(1, 15일), 정알례(1월5일), 춘·추 향사 등 biannual rites of spring and autumn, ceremony on 1st and 15th of month, ceremony held on Jan 5 th	
▶ 기록유산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heritance Records : 본암서원에서 관리 중이던 기록유산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2015년 완료되었으며, 서원 및 관계자들과 협의 후 공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Documentation project of inheritance records completed in 2015 Planning on ways to entrust records to public museum after having discussions with members of Seowon and other related employee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방문객 편의시설 Amenities

숙박시설 Lodges and Hotels	문화시설 Cultural Facilities	관광안내소 Information Center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주차장 Parking Lot	매표소 Ticket Booth
1	0	1	1	1	0

서원홍보(홈페이지 및 팸플렛 등) Promotion of the Property

(Website and promotional pamphlets)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Currently Active Programs	
▶ 2012년부터 매년 2회 “인문학 강좌와 음악회”, “과거재 재현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됨 Programs including “Concerts And Humanities”, “Recreation of Ritual Ceremony” are offered twice a year since 2012. “Bring Seowon Back to Life” is selected as an excellent program.	
▶ 향사 행사 운영 : 조선시대 과거재 재현 행사 운영(매년 1회) Operation of Recreating Ritual Ceremony in Joseon Dynasty (once a year)	
▶ 서원 예절학교 운영 : 하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예절 학교 운영 Operation of courtesy and propriety program : Class offered to elementary students during summer vacation	

Nonsan

3. 관광 홍보와 활용 프로그램 현황

Current Status of Tourism Promotion And Visitor Programs

|| 현재 진행 중인 활용 프로그램 || Currently Active Programs

Nonsan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Nonsan

4. 9개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및 관리체계

Integrated Bod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System

|| 9개 서원 통합관리단 법인 설립 예정 (2015.04.00) ||

Integrated body to oversight nine Seowon to be established in Apr, 2015

Nonsan

감사합니다.
Thank You

Nonsan

• 돈암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00분(설명 및 관람 70분 + 이동 30분)

참조	주차장 (주차비)	충실문 (유치)	당심당 (당학)	윤도당 (당학)	정희당 (당학)	장판각 (당학)	상덕사 (재학)	윤도당 (당학)	경희당 (고학사)	주차장
시간	- 5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5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5분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설명 1분 - 말로 20분	- 명상 10분 - 보존관리 (30분)	- 설명 30초 (이동 설명)	- 5분
내용	- 인사 - 서원(유지)지제 (각 3-5명)	- 설명 - 이항기 교수	- 설명 - 이항기 교수	- 설명 - 이항기 교수	- 설명 - 이항기 교수	- 설명 - 이항기 교수	- 설명 - 이항기 교수 - 말로 - 김선희 장의	- 설명 - 이항기 교수 - 보존 - 윤선서 - 고문헌 발달	- 인사 - 서원(유지)지제 (각 3-5명)	- 인사 - 서원(유지)지제 (각 3-5명)

Nonsan

• 돈암서원 실사 대비 동선(안)

- 진행 : 100분
(설명 및 관람 70분 + 이동 30분)

• 검토사항

1. 서원유림 참여인원 ?
2. 알도 가능여부 ?
3. 서원 앞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

돈암서원 실사 동선 (안)
Inspection Route of Donam Seowon

한국의 서원 개요 및 OUV 설명

한국의 서원 OUV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의 서원이란?

한국의 서원(書院)은 조선 시대에 사림(士林) 세력이 성리학이 이상으로 하는 인성(人性)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사림'이란 '유교 경서(經書)를 독서하는 선비 집단'을 말한다.

조선시대 서원 건립의 의의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6세기에 세워진 시대적 산물임.

한국의 서원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사림 세력의 성장을 보여줌.

한국의 서원의 주요 기능

- 학문의 연구와 제자 양성
-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선현에게 제향
- 도서 수집, 보존, 출판
- 향촌 교화,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

-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
- 1542년 8월 15일 안향(安珦) 사우 건립 시작
- 1543년 8월 11일 사우에 안향 영정 봉안
- 사당 동쪽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건립
-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본으로 삼음
- 1550년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음

세계유산 등재 준비 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준비 9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한국의 서원이 건립된 장소

한국의 서원은 군현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이며 산수가 수려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서원은 봉향하고자 하는 선현(先賢)과 연고가 있는 곳에 주로 건립되었다.

뒤로는 나지막한 산(山)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곳이다.

소수서원이 건립된 장소



회현 안향의 고향, 독서한 곳

소수서원이 건립된 장소



소수서원이 건립된 장소



남계서원이 건립된 장소



남계서원이 건립된 장소



남계서원이 건립된 장소



옥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옥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옥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도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퇴계 이황이 학문하며 제자를 양성한 곳(도산서당)

도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도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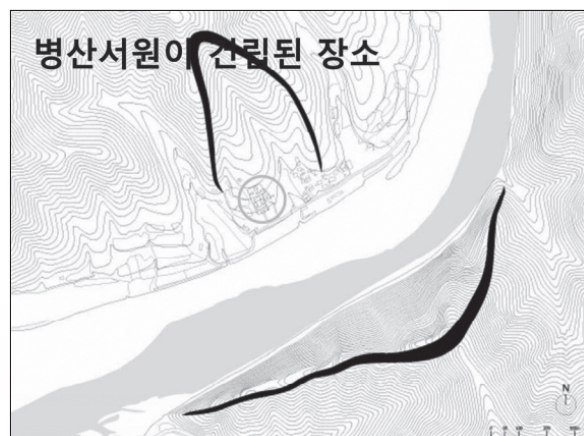


도산서원이 건립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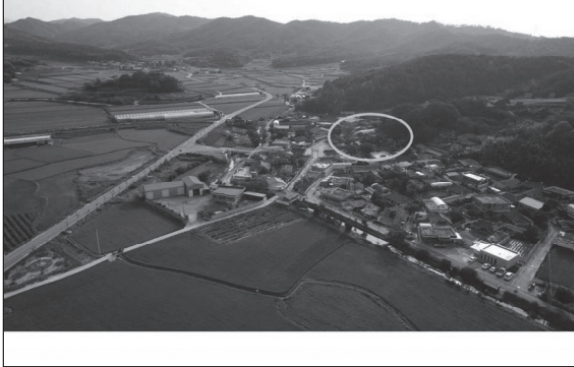


필암서원이 건립된 장소





무성서원이 건립된 장소



무성서원이 건립된 장소



무성서원이 건립된 장소



돈암서원이 건립된 장소



돈암서원이 건립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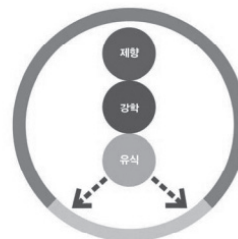
돈암서원이 건립된 장소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

- 유식(遊息)을 위한 유식공간
- 강학과 독서를 위한 강학공간
- 선현께 제향하는 제향공간
- 서원의 제반 기능을 지원하는 지원공간

한국의 서원의 공간구성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

소수서원 공간구성



소수서원 유식공간



소수서원 경령정

소수서원 유식공간



소수서원 강학공간



소수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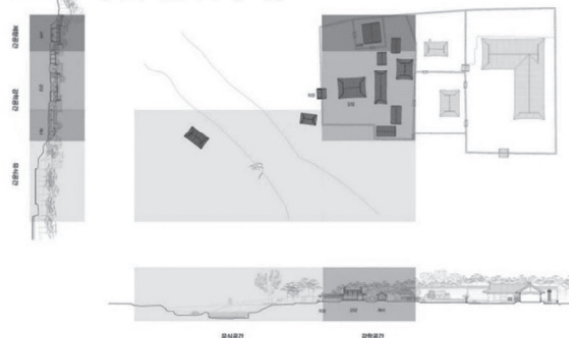
소수서원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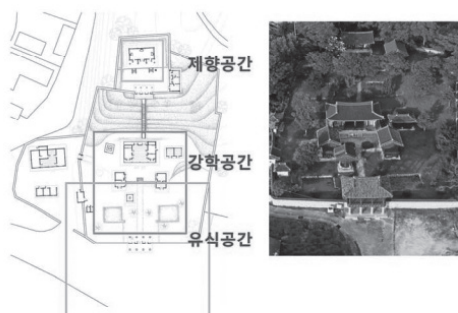
소수서원 제향공간



소수서원 공간구성



남계서원 공간구성



전학후묘(前學後廟, 혹은 상묘하학 上廟下學) 배치
전재후당(前齋後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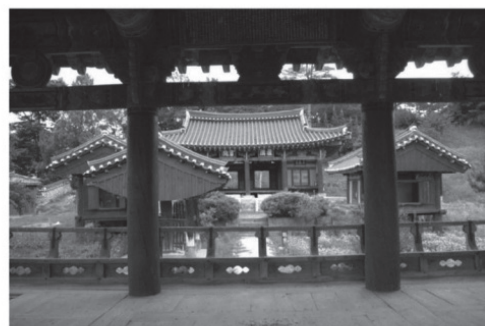
남계서원 유식공간



남계서원 유식공간



남계서원 강학공간



남계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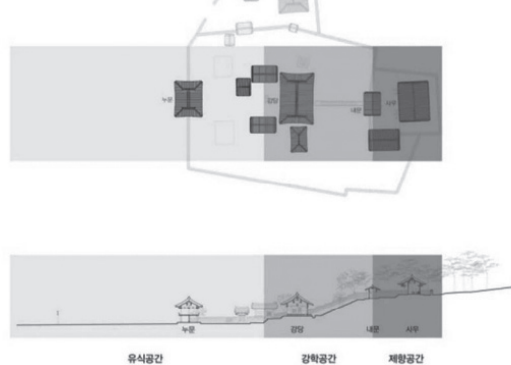
남계서원 제향공간



남계서원 제향공간



남계서원 공간구성



옥산서원 공간구성



옥산서원 유식공간



옥산서원 세심대(洗心臺) 너럭바위

옥산서원 유식공간



옥산서원 강학공간



옥산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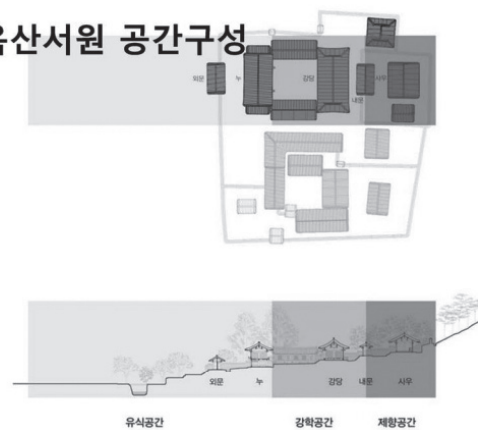
옥산서원 제향공간



옥산서원 제향공간



옥산서원 공간구성



도산서원 공간구성



도산서원 유식공간



도산서원 유식공간



도산서원 강학공간



도산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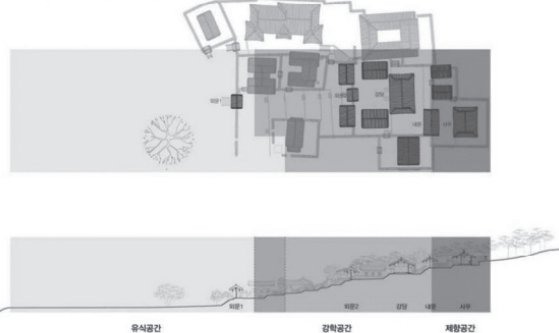
도산서원 제향공간



도산서원 제향공간



도산서원 공간구성



필암서원 공간구성



전학후묘(前學後廟, 혹은 상묘하학 上廟下學) 배치
전당후재(前堂後齋)

필암서원 유식공간



필암서원 유식공간



필암서원 강학공간



필암서원 강학공간



필암서원 제향공간



필암서원 제향공간



필암서원 공간구성



도동서원 공간구성



도동서원 유식공간



도동서원 유식공간



도동서원 강학공간



도동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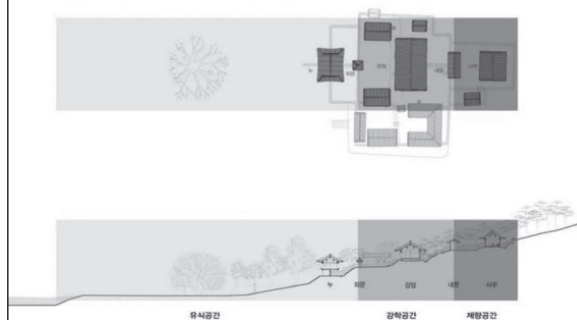
도동서원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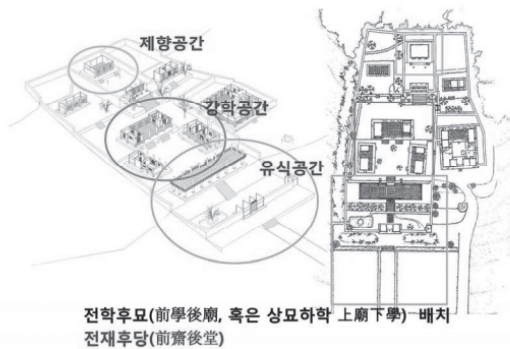
도동서원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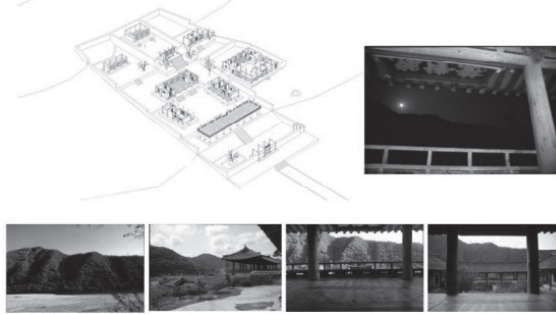
도동서원 공간구성



병산서원 공간구성



병산서원 유식공간



병산서원 유식공간



병산서원 강학공간



병산서원 강학공간



병산서원 제향공간



병산서원 제향공간



병산서원 공간구성



무성서원 공간구성



무성서원 유식공간



무성서원 유식공간



무성서원 강학공간



무성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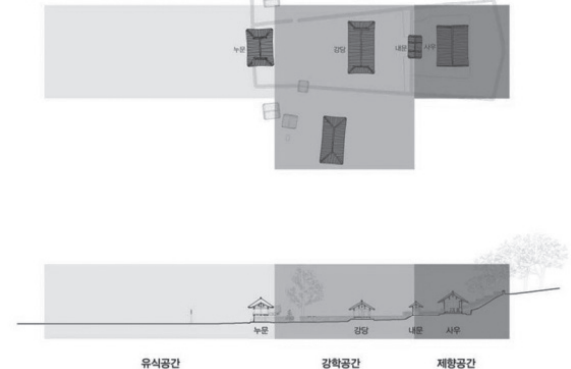
무성서원 제향공간



무성서원 제향공간



무성서원 공간구성



돈암서원 공간구성



돈암서원 유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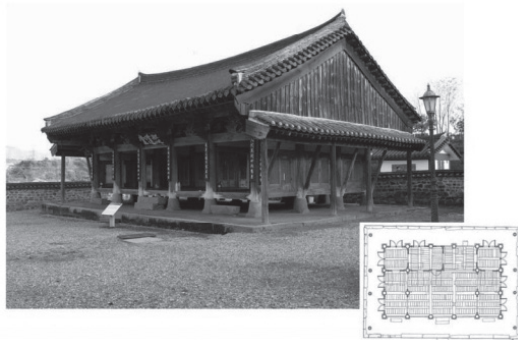
돈암서원 유식공간



돈암서원 강학공간



돈암서원 강학공간, 응도당



돈암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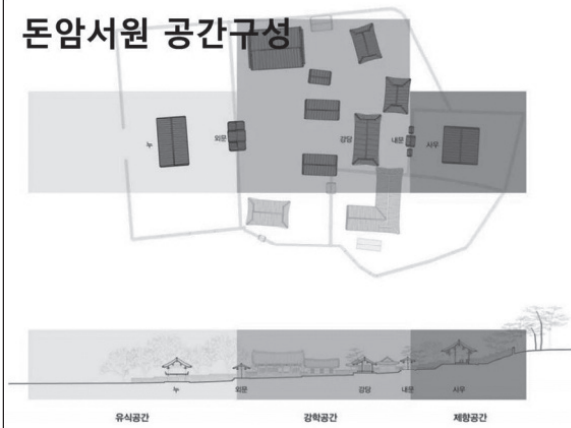
돈암서원 제향공간



돈암서원 제향공간



돈암서원 공간구성



조선시대 서원의 기록유산 : 전적



조선시대 서원의 기록유산 : 목판



‘한국의 서원’의 특성 1

1.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2

2.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3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4

4.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한국의 9개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5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의례, 사상, 전통과 유형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6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7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8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사상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의 특성 9

9.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 한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요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구비 입증

- 등재요건 6항목 중에서 한 항목(혹은 그 이상) 충족
- 완전성 구비
- 진정성 충족
- 보호 관리계획 구비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i

- ii)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 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i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교류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조선사회에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었다. 현존하는 600여 개의 한국의 서원 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ii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ii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였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 전통을 보여주는 특출한 사례가 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v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v

조선시대의 서원은 건축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것임을 보이는 탁월한 사례에 속한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림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람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건축적 앙상블의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vi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vi

사림 교육기관인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신앙, 살아있는 전통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vi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충유(崇儒)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우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향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설명



Concepts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CMP)

5C Strategic Objectives of C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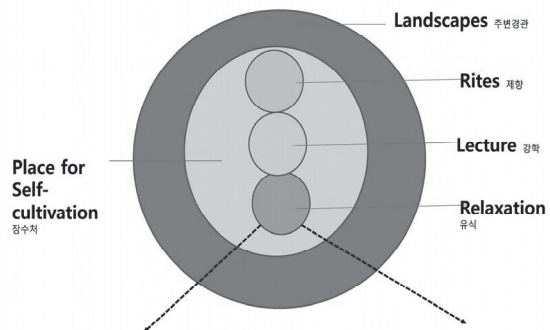
Conservation	Reasonable Conservation System Maintaining Original Form and Securing Convenience for Users
Capacity-building	Strengthened Administrative Specialty and Support for Conservation Building up Conservation Capacity of Each Stakeholder Establishment of Conservation Consulting Body
Communication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Seowon Communities Improving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Promotion and Participation System for Visitors
Credibility	Respect for 'communities' Willingness for Seowon Management Concrete Management Tools Guaranteed by Law
Community	Maintenance of Traditional Rules and Communities Improvement of Utilization Conditions

Justification for Criteria

- (ii) Seowon of the Joseon Dynasty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Neo-Confucian philosophy in East Asia in the medieval period.
- (iii) Seowon of Joseon developed and took root over a period of 400 years as a living tradition of Neo-Confucianism in Korea.
- (iv) Seowon of the Joseon period are an outstanding example of an ensemble of nature and architecture.
- (vi) The private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are repositories of the Confucian scholars' philosophy and activities.

Seowon OUV diagram

서원개념 다이어그램



Delineation Principles for the Property Zone and Buffer Zone

Property Zone: 유산구역

Same as the property boundaries of the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으로 지정된 유산구역

Buffer Zone: 완충구역

- 1) 현행 문화재보호법 Domestic Law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1964: 500m Protection Area: 500m 보호구역
Land Use Plan, Farming Law...: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등 현행 관련법
- 2) 조망 경관 Viewscapes
Mountain Tops + Flatland 500m
조망 경관이 산(山)인 경우: 최고봉선라인
조망 경관이 평지(平地)인 경우: 500 보호구역라인





Diagram illustrating the Protec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 The system consists of a central Cultural Heritage Area and an outer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rea.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rea to the boundary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rea is 500m.

```

graph TD
    App[Application] --> L1[1. Submission of Application  
(Drawings, Photos)]
    L1 --> LG1[Local Government]
    LG1 --> SC1[2. Application Reviewed]
    SC1 --> LG2[3. Professional Reviews]
    LG2 --> SC2[4. Review and On-site  
impact evaluation]
    SC2 --> LG3[5. Review Delivery]
    LG3 --> SC3[6. Meeting, Review]
    SC3 --> CHA[30. Final report]
    CHA --> App
  
```

classification	context	building & place	object	activity
Relaxation	stream, river, spring, pond, old tree, four gentlemen (cherry blosso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mountain peaks, mountain ridges ...	red gate with spiked top, dismounting stone, outer gate, pavilion gate, pavilion, pond pavilion...	objectified natural monuments such as the Gyeongja rock, Seodmae rock...	self discipline
Study	arrangement, order, symmetry	lecture hall, printing blocks repository, scripture repository, dormitory, caretakers' wing, stone lantern, torch stand	plaques, books, printing blocks, stationary, lecture equipment	education, learning
Rites	location (deep, high point)	spiritual tablet, shrine, jeonsecheong, storage for ritual vessels, saengdan, gwonsaem (stand for wash-basin), mangnyeui (stand for torch)	ritual vessels, attire, furniture, paintings	rituals....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rocess of nominating Confucian Academies in Korea for the World Heritage List. It begins with the Administrator of CHA, who oversees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Sub-Committee). This committee then interacts with Local Governments, Regional Councils of 9 Sessions, and Experts. These entities submit a 'Design Change/Inscription-do' to the Ministry of Culture (MOC). The MOC then coordinates with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fucian Academies and the Council for Promotion of the Inscription of Confucian Academies in Korea for the World Heritage List. The final step is the nominat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llegible]

Monitoring System and Implementation Method

Four Areas + Indicators for Monitoring

Physical Environment	Individual Bui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rehensive Evaluation, Build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s, Building Maintenance
	Landscape of the Property and Buffer Z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ural Landscape, Living Landscape, Seasonal Landscape
Cultural Environment	Village Settlement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e of residents Change of ownership
	Intangible Heri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e of farmland uses and ownership Agricultural Income per household
Economic Environment	Production/ Agricultural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e of farmland uses Proportion and Income of Farming Household
	Sustainable Tourism and Visitor Ame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io economic elements, Culture & tourism elements, Community based elements Resting facilities, Food Stalls, Information board
Managemen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ation, Applicable Laws and plans, Disaster preven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Budget, Promotion, etc.

Promotion and Education



Various Plans and Supporting Materials for Seowon's conservation

Maintenance Plan for Sosu Seowon in Yeongju, Yeongju City, 2014.

Maintenance Plan for Hamnyeong Seowon in Hamnyeong, Hamnyeong County.

Maintenance Plan for Oksan Seowon in Gyeongju, Gyeongju City, 2014.

Maintenance Plan for Dosan Seowon in Andong, Andong City, 2013.

Maintenance Plan for Piram Seowon and its islets in Jangjeon, Jangjeong County, 2002.

Maintenance Plan for Dodong Seowon in Dalseong, Dalseong County, 2013.

Maintenance Plan for Byeonsang Seowon in Andong, Andong City, 2013.

Maintenance Plan for Museong Seowon in Jeongseup, Jeongseup City, 2007.

Maintenance Plan for Donam Seowon in Nonsan, Nonsan City, 2010.

Basic Maintenance Plan and Survey for Donam Seowon, Nonsan City, 1995.

Basic Plan for a Project to Turn Seowon Culture into Tourism Resources, CHA, 2006.

The 2010 Manual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onfucian Academies, CHA, 2010.

The 2010 Basic Survey and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Landscape Maintenance Standards for Historic Sites, CHA, 2010.

Cultural Heritage Technology Strategy Pla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HA, 2011.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onservation Measures for Cultural Heritage Adapting to Climate Change, CHA, 2012.

Five-year Basic Plan for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2012/2016), CHA, 2012.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Permanent Monitoring of World Cultural Heritage and Reorganization, CHA, ICOMOS-Korea, 2012.

Development of Public Space Design for Landscape Management of Confucian Academies and Country Schools, CHA, 2012.

Statistic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2013.

Exemplary application of monitoring indicators for World Heritage in Korea, CHA, ICOMOS-Korea 2013.

Medium- and long-term planning research of harmful organism for outdoor lumber cultural assets at climate change response, CHA, 2013.

2.d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4차)

‘한국의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1.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 현황

1) 보전상태와 주요 문제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2018)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의 보전상태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수공사

- 콘크리트 등 새로운 재료 사용

(2) 기록화

- 단청 등의 정밀조사, 복원도 작성

(3) 지원·서비스 시설

- 양식, 형태, 디자인

(4) 주변 경관

- 인접 활용시설, 마을, 주변 시설물, 도로와 주차장, 조경

(5) 자연재해

-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집중강우와 강풍¹⁾, 지진 대비

2) 이코모스 세계유산 등재 평가서의 권고사항

이코모스의 세계유산 등재 평가서 권고사항 중 보호·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발 중으로 평가한 내용

- 통합 관리 문서

- 위험 대비 계획 및 체계

- 9개 서원을 하나의 문화재로 통합 설명

1.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현상이다.



(2) 당사국 고려 사항

-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문서의 개발을 완성할 것
- 9개 서원을 하나의 문화재로 통합 설명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

2. 유산의 보호·관리 체계

일반적으로 유산관리 체계의 틀은 다음과 같이 3개 범주,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²

표 1. 유산관리체계의 일반적 틀

범주	구성요소	설명
	- 법적 틀	법적 근거
	- 제도적 틀	조직과 의사결정
	- 자원	작동을 위한 인적, 재정적, 지적 자원
	- 계획	
	- 실행	
	- 모니터링	평가의 자료
	- 성과	목표 달성
	- 산출물(output)	유산과 사회 지원,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것
	- 개선	모니터링, 산출물·성과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 결여된 부분과 새로운 요구에 대응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체계란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관리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목표와 과정, 성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³

표 2. 세계유산 관리의 전형적인 목표와 성과, 산출물, 과정의 관계

성과 1	성과 지표 목표 달성 확인	산출물 성과에 기여	과정/산출물 지표 과정의 효율성, 산출물의 질,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확인	유산 과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만족 영향 받는 다른 성과들 - 방문자 인식과 지원 증대 - OUV와 다른 문화적 가치의 증진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 (방문 시간과 회수) - 질적 지표 (방문자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방문자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 (방문 시간과 회수) - 질적 지표 (방문자 만족, 정확성) - 적시성 (성수기에 시간 지키기) - 양립성(방문자 희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방문 시간과 회수) - (표지판, 음성 안내, 웹 플랫폼, 순환 개관 등으로) 방문자 여정을 계획, 실행, 모니터링 한다.

2.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53쪽

3.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106, 107쪽

성과 2	성과 지표	산출물	과정/산출물 지표	유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산 주변 지역사회의 변형 영향 받는 다른 성과들 - OUV와 다른 문화적 가치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제 자료에서 고용 수준 등의 추세 - 범죄, 뺑뺑이, 반달리증 같은 사회적·환경적 통계의 추세 - 새로운 형태의 유산 지원 - 방문자가 지역에서 숙박하는 연간 일수 - 지역 관광, 재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의 유산 친화형 사업 기획 - 새로운 협력관계, 새로운 후원자 -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한 새로운 인재 모집 - 도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 (예로 자금 조달이나 협력자/신입직원/직장 창출 수)와 빈도 (예로 재방문자) - 질적 지표 - 적시성 - 포용성 - 유산 요구와 양립성 - 책무의 범위와 기간 - 지역사회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관련 시장 기회 확인 - 협력자와 투자 유치 -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한 창업 자금 -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성과 3	성과 지표	산출물	과정/산출물 지표	유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UV와 그 밖의 문화적 가치 보호 	(효과적인 성과 지표가 없으면 관련 산출물과 과정의 평가에 근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산출물: 지붕 수리 - 두 번째 산출물: 유적지 돌봄의 장기 비용 절감 / 관리 절차단순화 - 첫 번째 산출물: 새로운 자료 - 두 번째 산출물: 통계, 추세 - 세 번째 산출물: 부식 메커니즘 이해 / 보존 접근방법 개선 / 저렴하고 단순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지표(수와 전체 면적) - 유효성(디자인과 수명) - 적시성 - 비용(적정 가격, 관리를 위한 접근 용이성) - 환경(0km 재료) - 양적 지표(자료, 기간) - 질적 지표(자료 이중화, 정확성, 관련성) - 적시성(계절적 변동) - 비용(일상적인 재정 조달로 지속 가능) - 자료 접근/사용 	<p>사례 1 유산의 속성을 위협하는 불안정하고 비가 새는 지붕 수리와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접근로 확보</p> <p>사례 2 환경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p>

3. 보호·관리 관련 법제 문제

「문화재보호법」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법에서 규정한 보호·관리의 기준·방법과 『세계 문화유산의 관리(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등 유네스코의 매뉴얼·지침과 버라헌장(Burra Charter) 등 이코모스 헌장에서 제시된 국제적 기준·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의 명칭부터 종합정비계획, 세계유산 시행계획, 유산관리계획 등으로 다르며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 국내외의 법적, 제도적 규정을 통합해서 ‘한국의 서원’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매뉴얼(『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해서 ‘한국의 서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통합 매뉴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복잡하게 시행되는 국내외의 관련 제도에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 표시는 세계유산센터와 문화재청에 신축·복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 표시는 세계유산센터(ICOMOS)와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에서 신축·복원 사업을 심의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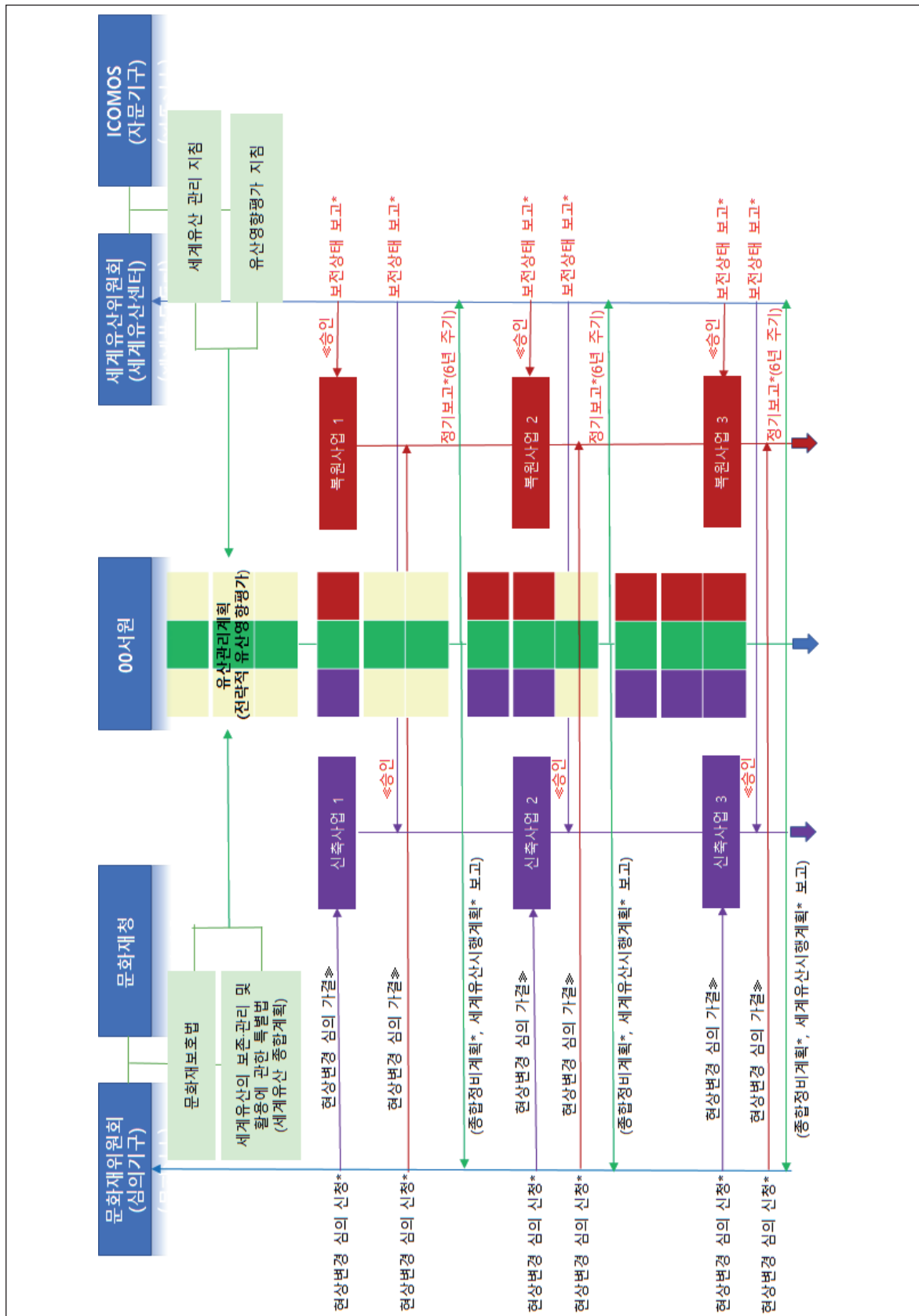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서원’ 보호·관리계획의 활용 절차와 방식

4. 보호·관리의 주체 문제: 주민 참여

보호·관리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호·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관, 전문가,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이 협치(governance)를 이루어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9개의 서원이 모두 국가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각 서원의 조직이 보호·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관리에서 주민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와 같이 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결성해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유산의 보호·관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주민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유산의 보호·관리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그 핵심 요건은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의 참여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유산을 장기적으로 보호·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버라 헌장」(2013)의 ‘버라헌장 과정(The Burra Charter Process)’에는, 서원과 같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의 모든 단계에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가 관여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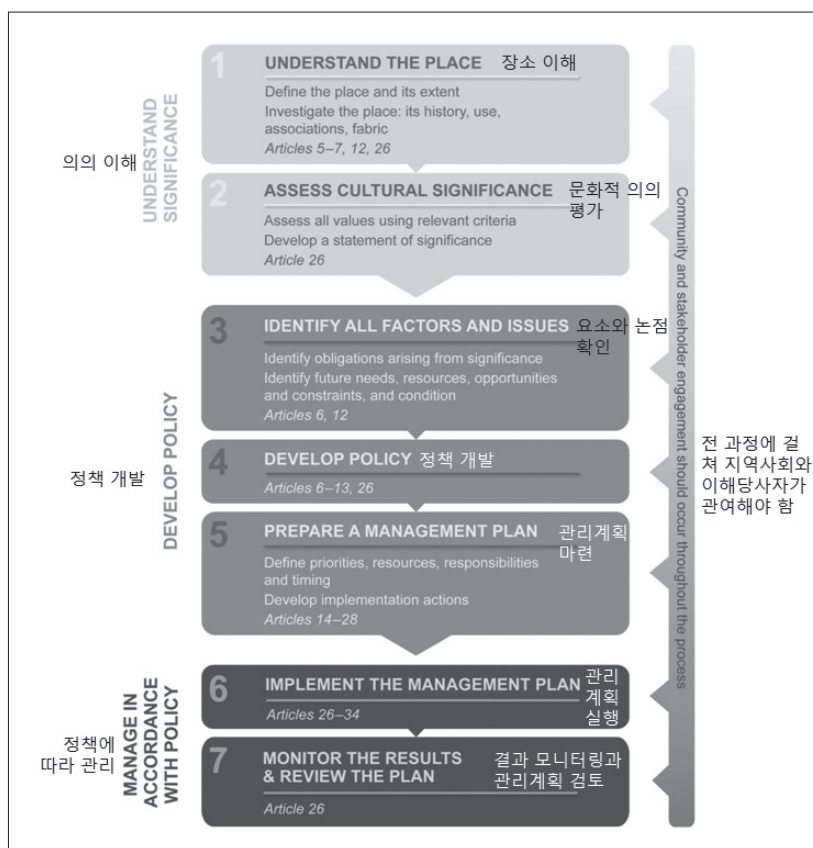


그림 2. 버라 헌장의 과정

‘한국의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에도 주민 참여는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주민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⁴

표 3.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

항목	기존 상황	필요한 변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리만을 지향 - 주로 방문자·관광객을 위한 보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함께 추구 - 지역 주민을 우선, 더 고려해 보호·관리
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자체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관계자, 주민 등 이해당사자 집단을 아우르는 협치
지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대립하는 계획, 관리 - 지역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주민에 의한 계획과 관리 -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리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각 - 섬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역, 국제 체계의 일부로 계획 -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으로 관리(유산구역, 완충구역, 주변 환경)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 - 국가적 관심사로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자산으로도 생각 - 국제적 관심사로도 생각
관리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인 대응 관리 - 기술 전문가의 방식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적응 관리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으로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재원으로 충당
관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 의한 관리 - 전문가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수에 의한 관리 - 지역 지식 활용

4. Adrian Phillips가 자연유산에 대해 개발한 ‘보호지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참고했다.(Phillips, A. ‘Turning ideas on their head: the new paradigm for protected areas’, in: The George Wright Forum 20, No. 2. 2003, 8~32쪽,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16쪽에서 재인용)

연속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1. 통합 관리란 무엇인가?

통합 관리라는 용어는, 유산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지만, 45년 이상 쓰이고 있다. 처음에는 통합 보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 용어는 펍 좁은 의미로 쓰였다. <1975 건축유산에 관한 유럽 헌장(The 1975 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합 보전은 세심한 복구 기술을 적용하고 적절한 기능을 올바르게 선택함으로써 성취된다.” 이와 함께, 이코모스의 <암스텔담 선언(Declaration of Amsterdam, 1975)>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 보전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사람들의 사회적·물리적 현실의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통합 보전의 원칙을 적용할 때 [지방정부는] 도시와 전원의 지역사회가 처한 기존 사회적·물리적 현실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과거를 희생하고 세워질 수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된다.”

그것에서는 또한 건축유산의 보전을 도시 및 지역 계획과 통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10년쯤 뒤에 <워싱턴 헌장(Washington Charter, 1987)>에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정책의 통합을 모색했다.

“역사 시가지와 그 밖의 역사 도시지역의 보전은 모든 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도시·지역 계획을 위한 일관된 정책의 구성 요소이어야 한다.”

유산 보전이 전체적인 발전 의제에 통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유산 담론에서 점점 더 관심을 끌기 시작함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에 유산 보전 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SD)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1995년 ICCROM은 통합 도시·지역 보전(ITUC) 프로그램을 열었다.¹ 통합 보전에 대한 ITUC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SD에 대한 첫 명시적 언급이었다. “통합 보전은 도시와 지역의 기본 계획과 관리 안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화유산을 발전과정의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환경적·물리적 차원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² 통합적 유산 관리는 보전을 문화 정책의 영역 너머로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유산의 보호는 발전 과정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 유산의 보호가 보전 문제 너머로 확대되고 SD의 다양한 차원들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유산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이코모스의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 2005)>에서는 유산 가치에 대한 주변 환경의 기여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퀘벡 선언(Quebec Declaration, 2008)>은 유형 요소(유적지, 건물, 경관, 경로, 대상물)를 무형 요소(기억, 서사, 문서, 축제, 기념 행사, 의식, 전통 지식, 가치, 재질감, 색채, 냄새 등)와 연결해 무엇이 장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장

1. Jokilehto, J. (1999). Integrated Territorial and Urban Conservation, ITUC, Programme - Phase I (1994 - 1998): Summary Report. Rome: ICCROM

2. Zancheti, S. (2003) quoting H. Stovel, ITUC lectures.

소에 정신을 부여하는지 설명했다. 두 선언은 문화유산 유적지의 중요한 속성들이 모두 그것의 보호구역 경계 안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산 장소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양한 집단의 지원과 협력,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전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이제 사회적 요소들이 건축적·역사적 요소들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보존해야 할 특질에는 한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다. 이런 새로운 동향에 따라 보전의 지평이 확장되었으며 보전이 더 넓은 지역적·도시적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 필요한 것이 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부로 보는 통합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산을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2011)>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유산관리의 다른 중요한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고용, 재정 흐름, 그리고 웰빙의 측면에서 유산 개발이 지역 공동체에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전체적인 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을 것, 그리고 “유산 관광 관련 수익을 보전과 유산 관리 비용,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국가·국제 관광회사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플로렌스 선언(Florence Declaration, 2014)>과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과 세계유산협약 과정의 통합 정책(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5)에서 유산 관리를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다. 더욱이 이 모든 문서들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합 유산관리의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 모든 발전 정책에 유산 보전을 통합함
- 유산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통합함
- 그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전 목적을 성취할 기회를 증가시킴
- 보전은 중요하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어떻게 통합하는가?

관리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는 어떤 조직이 하는 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1. 통합 관리는 접근방법이다. 조직이 모든 관리 측면들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2. 통합 관리는 과정이다. 하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에서 하는 관리 활동의 모든 측면들이 하나의 관리 체계에 통합되어 있을 경우.

3. 통합 관리는 성과다. 조직에서 하는 관리의 모든 측면들이 계속 하나의 체계로 수행되고 의도한 결과를 산출할 경우.

관리의 용어로 해석할 때, 첫 번째 차원은 한 조직의 비전, 임무, 목적과 목표에 관련된다. 두 번째는 관리 전략, 체계, 그리고 과정에 관련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련된다.

통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리계획에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계획을 사용하는 체계에 그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 관리는 정책 수준, 계획 수준, 프로젝트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수준에 포함된 부분의 수가 둘 이상이므로 통합은 수준들을 가로지른다. 정책 수준에서 보전을 발전 전략에 포함시키고 경제적·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전을 증진함으로써 통합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이 수준에서 필수적이다. 이 수준의 부문에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다른 전문분야(역사, 건축, 지리, 고고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가 포함된다.

계획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 정부 부서와 적절한 개발 통제 메커니즘 사이의 조정이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해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계획의 영역에는 주거, 교육, 문화, 기반시설, 여행 등이 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지역 문화, 경제 활동, 환경 특성, 물리적 환경 등 지지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프로젝트에 포함하면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 요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설계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와 관리의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협치 체계의 분열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책임 소재의 중복은 통합 관리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유적지 수준에서는 유적지와 넓은 주변 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결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유적지가 직면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부족함으로 종종 유적지 관리가 분열된, 부적절한 활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총체적인 시각을 개발하면 유적지 관리를 통해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것도 모든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의사소통과 조정이 없이는, 또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동반자 관계를 개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여러 동반자들과 일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개발함으로써 유적지 관리자는 한 사람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해치지 않도록, 또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유적지 유산관리에 통합적 접근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통합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 설명,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전체적인 발전 전략의 일부로 만듦으로써 통합 보전은 유산이 다른 많은 발전의 경쟁적인 이해관계들 속에서 그것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자리매김 한다. 유산이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정치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일반 대중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의 가치를 과거에 대한 연결고리이자 미래를 형성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할 때만 얻을 수 있다.

3. 서원의 통합 관리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iii)을 충족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연속 세계유산 유적지의 9개 구성 요소는 대한민국의 6개 지방에 위치한다.

이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언급되었다.

- 문화 전통
- 교육적·사회적 활동, 많은 부분이 계속되고 있음
- 기능
- 계획
- 건축

그러나 세계유산 신청 평가에 제시된 대부분의 속성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현행 보호·보전·관리 상태에 만족하였지만, 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할 때 당사국에 다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 서원들의 총괄 관리 문서 개발을 완성할 것.
-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 설명하는 방식을 좀더 개발할 것.

‘한국의 서원’의 9개 유적지에 대한 관할권에는 현재 문화재청의 주도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연속 세계유산의 관리에 개입하는 관련자들과 법적 도구가 다수임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관리 접근방법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계속 바뀌는 세상에서 관리 비전을 충족하는 관리 활동을 “정적인” 관리 문서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조직,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자원 등 네 요소는 전략적 관리에 필수적이다. 그것에서, PEST(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소들이 조직의 수행과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SWOT, 비용편익분석, 가상(what-if)분석(여러 시나리오 비교), 위험도 분석 같은 여러 분석을 통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확인함으로써 비전에 도달하는 길이 열린다.

총괄하는 관리 문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유형 유산과 그 주변 환경

보호

보전

문화재와 연관된 무형 유산

연속성

전승

문화재의 자연 요소

보호

보전

유산 지식의 전파

설명

해석

‘한국의 서원’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시설

기반시설

문화재 내부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용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

삶의 질

웰빙

경제 발전

관광

관광목적지/ 장소 브랜딩

마케팅

해석

기반시설

교통

시설

서비스

방문객 관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리 활동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에 나열한 모든 관리 영역을 하나의 비전으로 포괄해야 한다. 비전에는 유산 가치의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통합 관리의 기본 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에서 유산 가치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잘 정립된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물리적·인간·기술·정보·시간·물질 자원에 대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관리 비전의 매개변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따라 당사국에 전체 세계유산 문화재를 위해 “총괄 관리 문서”를 개발하고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를 개발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통합 관리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 정책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 경남 함양 남계서원(瀟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경북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의 9개 서원이다.

이들 9개 서원은 16세기 중반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어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한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 서원은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통해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9개 서원으로, 이들 9개의 연속유산이 지닌 완전성과 진정성을 요약하여 강조한다면

- 1) 400여 년 동안 원형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지성의 요람이자 한국의 대표 서원이라는 점,
- 2) 조선 서원의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인 강당, 사우, 누각 등 건축물의 탁월한 사례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원래의 지형,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 3)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 기록유산이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무형유산으로 제향과 의례들은 지금까지 보존, 전승되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특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서원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며,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서원에 깃들여 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향후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세계에 그 가치를 새롭게 알리게 되었다.¹

1. 이상해, 2019,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9호, 한국서원학회.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2. 연속 유산 9개 서원의 통합 성격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의 연속 유산으로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중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었다.

주지하듯이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기준(iii)에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이다라고 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총평으로 지적하고,

-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대표적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
-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 교육기관으로서 탁월한 증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9개의 각 서원들이 독특한 배경과 성격, 문화 유산을 전승하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이들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합쳐져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일 것이다.

제향의례, 서원이 자리 잡은 위치와 배치 공간의 탁월함, 유산 보존의 온전함, 각 서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 수장한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 현판과 기문 등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유지, 전승, 존속된 유산이다. 이러한 연속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criterion(iii)					criterion(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건축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 도입	●	●	●	◎	건축 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 주체	●	◎	●	●	배치 방식	●	●	●	◎
옥산서원	출판 활동	●	◎	●	●	누각 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 형성	◎	●	●	●	경관 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 방식	●	◎	●	◎	평지 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 체계	●	◎	●	◎	경사 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 활동	◎	◎	●	●	누각 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 활동	●	◎	◎	●	입지 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 심화	●	●	●	◎	강당 특화	◎	◎	●	◎

이를 통하여 이들 9개 서원이 지닌 독특하거나 특별한 모습들이 종합되고, 이들이 합쳐져 9개 서원이 연속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9개 서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의 마련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물론 9개 서원은 지역과 건립 주체가 다르고 건립 이후의 활동과 문화가 독특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화된 문화유산 가치를 귀중하게 전승해 왔고, 이를 상대적으로 강조 특화하여 계승·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지닌 통합적인 성격을 인정받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연속적 문화 유산으로서의 특성도 통합하여 관리, 계승·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연속 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지닌 통합적인 성격은 크게 1)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으로 상징적인 유산이라는 점, 2)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이었다는 점, 3)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기능이 모두 갖추어져 특성을 보여준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4) 조선시대 선비문화, 유교문화의 자료관·박물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1)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이들 고급 지성들의 개성과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은 현대 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 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2)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또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자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각각 특징 있는 여러 모습들로 밝혀진다. 9개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그들 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 ‘결집’, ‘소통’, ‘대변’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론 형성과 사회적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만의 특성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활동 거점으로 국난기에 의병창의라든가, 연명상소, 격렬한 학문토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3)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모든 서원을 상징하는 사우와 강학공간과 함께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소수서원의 경림정,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돈암서원의 응도당 등은 대표적 건물들이다.

4) 유교문화 자료관·박물관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9개 서원에 소장된 고서, 고문서, 그리고 목판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출판물은 주로 제향인물의 문집, 저작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을 위한 목판도 소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강학 규약, 강학 내용, 평가, 그리고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 당시의 학적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구조, 교육과정 등을 전해주는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이들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서원문화유산들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통합 관리 정책 방향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결정문에 보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등재결정문(2019. 7) 중 “보호관리 요건”에서 개별 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메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위험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내용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권고 사항으로 9개 서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을 마련할 것을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할 것
- 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이라고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등재 직후인 2019년부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기본적인 9개 서원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완비하기에 이르렀고, 2020년 7월부터는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 보존관리 통합 모니터링
- 통합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등 9개 서원의 현장관리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²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박성진 선생의 발제를 참조 바람]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그 문화유산 가치와 특성이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볼 때에 연속특성으로 특화되고 부각되어 전승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9개 서원의 통합관리는 필요하고 그 방향의 설정이 기대되는 것이다.

2. 함양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2006.7)

사실상 향후 통합 관리의 범위, 방향 등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또 대체로 체계적인 보존관리, 통합 가치의 체계화, 향후 전승과 연계 활용 등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지적한 것처럼 등재 이후 원활한 통합관리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조직)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 통합관리 조직은 9개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 관리, 계승 활용하도록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서원운영자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는 다소 미흡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향후 통합 관리의 정책과 그 방향을 4가지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통합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이다. 9개 서원의 보존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관리단에서는 이를 운영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개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통합 보존 관리 계획(보존, 정비, 활용)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통합 계승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9개 서원의 통합, 연계 가치를 최대한 알리고 홍보하며 계승,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승·활용·교육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이다.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정리해 알리는 종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과 서원 홍보·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도 제안하여 본다. 서원의 문화유산 자료들은 다양하고 특징적인 고문서 자료들과 제향인물 관련 문집과 목판 등의 자료들, 기문 현판 등 금석문 자료 등 독특한 자료들, 그리고 서원과 제향인물 관련 역사적 사건과 관련 유적, 일화, 전설 등이 전해진다. 이들을 모으고 아카이브화 하여 공개하고 자료전시관을 건립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4. 통합 관리 정책 과제와 방향

1) 통합 보존 관리

한국의 서원 보존 및 관리체계는 등재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즉 (1) 9개 서원의 보존·관리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점, (2) 한국의 서원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각

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 서원 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미하지만, (3) 서원유산이 목재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4)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조례를 제정하여 유산의 통합관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각개 서원의 보존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9개 서원의 통합적인 보존관리가 과제로 지목된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등재 권고 사항에서 신청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등재 이후 준비할 때에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사국인 한국에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
- b)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해설 개발

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등재신청서에서 개별 서원별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설정하였었다. 그러나 연속유산으로 등재와 더불어 9개의 연속유산이 지니는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통합관리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원통합관리단에서는 지자체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9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계획을 작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등재 이후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통합관리를 시행하기로 하고, 통합관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서원통합관리단에서는 서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보존, 정비, 활용)을 편찬하여 이를 9개 서원에 지침서로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9개 서원별로 보존 정비 활용계획, 건물 복원, 수리 등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9개 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주변 경관,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과 회합공간, 지원 공간으로 구분된다. 9개 서원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이러한 서원의 경관과 공간이 온전하게 보호, 관리됨으로써 유지된다. 통합관리단에서는 연속유산 9개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등재 이후 보존현황 통합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담당 서원유사 선정)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비교 분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역 서원과 지자체와 공유,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속한 유산관리,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존 관리와 관련 방문객 무인계수기 설치를 완료(2021년 6월)하였고,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대책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리 평가체제도 첨가하여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관리할 관리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합 계승, 활용

다음은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통합 특성을 계승, 홍보, 특화하는 연계 활용이다.

한국의 9개 서원은 각각 독특한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저명 성리학자 추숭·제향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 철학적 사색과 문학적 창의성을 공감하게 하는 우수한 경관 자원까지 갖추고 있다. 즉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며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이다. 그리하여 각 서원별로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자원들을 콘텐츠 화하여 다양한 수요층과 대상,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별 서원별 독자적 활용은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를 연계하여 계승, 활용하는 9개 서원 통합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연속유산으로 지정, 특화된 한국의 서원 문화 특성과 종합성(경관, 지성, 교육, 의례, 인물, 유적)을 연계, 상생하여 콘텐츠 화하여 통합 활용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역사 배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9개 서원들의 독자성과 함께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성을 연계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서원문화를 보다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연속유산으로서의 9개의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과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연계, 통합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안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발제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1) 한국의 서원 9개의 연계 투어, (2)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3)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개최 등을 제안하여 본다.

1안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이는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을 탐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서원이 보여주는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으면 한다. 이 서원 투어는 9개 서원으로 지역성을 상징하며 그 서원이 지니는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 각각 독특한 서원문화를 함께 살피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9개 서원 유림, 전통문화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 관리자 등 문화유산 관련 인력 등으로 하고, 권역별 3개 서원을 묶어 3개 코스를

- 1코스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2코스 :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3코스 :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로 정하고 월 1회씩 3개월 연속 운영(코스별 운영, 토요일~일요일)하며, 총 12회로 4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운영은 서원전문가(통합관리단, 전문위원)의 인솔, 특강으로 진행하고, 해당 서원들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과 안내자료 준비하고, 참가자들은 소감 및 답사 기행문을 제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세부 일정은 서원 소개[안내], 건물, 경관, 건축 특성, 제향, 자료 문서 등 [탐방 체험], 제향인물 및 다양한 역사, 활동 설명[특강, 토론], 사색 체험 등등으로 구성하여 각 서원의 특화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서원의 공통적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 서원 문화투어와 연계하여 관련 서원의 유림 교류회도 같이 시행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을 협의하고 점검하는 교류모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영남권과 호서·호남권으로 나누어 지역간 교류를 연대·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안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이는 한국의 서원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활용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테마는 세계유산 지정과 관련된 한국의 서원 특성을 보여주는 서원들을 연계하여 탐방하면서 연속 체험하고, 서원별 비교 체험도 가능하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이다. 대체로 테마는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당호,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대상층은 서원 관련 유림이나 제향인물의 후손, 서원관련 연구자,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서원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2회씩 12회를 운영하며,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으로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 선택)하도록 한다. 테마별로 특별 강사 및 인솔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및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은 상세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획과 구상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테마를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로 정한다면 매월 주제와 해당 서원을

- 1월, 7월; 교육 강학: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2월, 8월; 경관(구곡) 문학: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3월, 9월; 건축 당호: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4월, 10월; 제향 의례: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5월, 11월; 인물사상 학맥: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6월, 12월; 도서·출판: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등으로 선정하여 일정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예컨대 ‘書院의 山水와 講會 및 山水實景’ 체험으로 테마를 잡아 도산서원(天光雲影), 옥산서원(風月無邊), 필암서원(廓然大公), 도동서원(秋月寒水), 남계서원(吟韻詠歸), 병산서원(翠屏晚對) 등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서원의 강회, 시회를 함께 열어 그 성격을 이해하고, 서원 경관과 저명인물들의 시문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를 겸하는 방안 등등이 모색, 기획될 수도 있을 것이다.

3안 「한국 서원문화축제」 개최: 9개 서원이 교류, 연계하는 한국의 서원문화 축제를 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매년 특화된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알리고, 계승과 활용, 보존관리를 지속화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매년 주제별로 특화하여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서원문화를 재조명, 널리 알리고 전국 9개 서원 관련 유생들과 서원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회의 개최
- 서원관련 문화 답사, 기행
- 특화된 서원문화 이벤트 개발 (도산 별시, 강학거점례, 사액봉행제, 제향의례, 상소활동 등)
- 9개 서원 홍보와 전시
- 영상, 예술 공연, 책자 발간

등을 구안하여 조직화하고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지역, 혹은 서원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3) 통합 정보서비스와 해설·홍보자료 간행

세계유산 등재시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등재 이후 곧바로 통합관리단은 통합 해설, 안내서와 함께 브로슈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대한 유산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통합 정보 서비스와 홍보·해설 : 이와 함께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구축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홍보 및 해설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9개 서원 자료를 통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k-seowon.or.kr)’를 개설하였는데 9개 서원의 역사, 서원의 공간체험, 소통과 교류, 디지털 아카이브, 9개 서원 VR과 로드투어 영상 등을 수록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향후 9개 서원 통합홈페이지에 각 서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점, 개별 서원의 독특성, 등재기준 등을 추가하여 소개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총 4개 국어로 통합홈페이지를 확장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통합관리단에서 발간한 책자와 제작 영상들이 모두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계획된 3D영상도 업데이트되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세계유산 지정 홍보 표지식도 서원마다 건립되어 연속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홍보영상도 다양하게 제작되어 방송된다. 또 일반인들을 위한 서원 브로슈어(통합, 서원별) 제작되었는데 이들 자료도 각 서원에 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며 QR 코드로 영상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2회 발간되는 9개 서원의 소식지이자 홍보지인 『서원산책』도 3호가 발간되었고 4호가 편집 중이다. 이를 통하여 9개 서원의 특성과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 통합 해설서 간행 :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여러 형태의 종합 해설, 안내서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홍보, 활성화하고 있다. 종합해설, 안내서로는 예컨대 서원백서 발간을 필두로 서원자료집, 사진집, 안내서 등으로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 『세계

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도면집』, 『한국의 서원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이 그것이고, 곧이어 간행될 교양총서로 9개 서원의 역사, 문화 유산 특징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한국의 서원』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 통합 해설 교육 실시: 세계유산 소개, 통합 해설을 위한 교육,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지역의 서원 관리자, 학예사, 해설사들은 해당 서원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유산의 성격, 연속유산 중에서 해당 서원이 지닌 독특한 성격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연속유산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서원의 홍보와 해설, 활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것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단은 9개 서원 전체 및 개별 서원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개 서원의 통일된 해설 자료[교육교재]를 편찬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문화유산 해설사와 서원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교육 콘텐츠는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의 등재 가치와 통합 성격에 대한 해설, 서원 간의 연계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그리고 해당 서원의 역사, 제향인물, 건축물, 관련 유물 등으로 이 교육을 토대로 지식과 성격을 공유하여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9개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원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원 소개와 홍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당 서원과 연속유산 특성을 고려한 제향 프로그램, 강학 프로그램, 교류와 유식 프로그램 등을 교육 프로그램과 공유하여도 좋을 것으로 본다.

4)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 진행과 서원 관련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가 이루어졌으나, 발제자의 의견으로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와 계승,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를 보다 다양하게 점검, 정리하여 널리 알리고 자부심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단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향후 과제이자 통합관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발간한 9개 서원 관련 도록 및 홍보물, 사진 등을 통하여서 알려지듯이 9개 서원과 관련된 기록 자료들을 전자 아카이브로 만들어 연구자나 관련 서원관계자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서원 학술 연구: 학술연구는 크게 9개 연속유산의 세계유산 가치와 향후 보존관리에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2) 서원 OUV 보호를 위한 분야별 학술연구가 이루어졌으

면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통합 보존관리와 관련한 지속적 분야별 연구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9개의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성을

- 9개 서원별 학술회의

- 주제, 분야, 유산 성격별 서원 학술회의

로 나누어 보다 깊이 살피고 결과를 단행본으로 모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9개 서원 각각의 역사와 문화, 지성적 활동, 문화유산과 학맥, 기타 고문서 등 자료 등을 모아 종합안내와 해설서로 정리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그리고 한국의 9개 서원이 지닌 공통적 특징을 주제별로 나누어 서원의 경관, 건축, 교육과 성리학, 제향의례, 학맥과 인맥,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 네트워크, 고문서와 전적, 목판과 출판문화 등을 주제로 비교하고 그 특성을 연구 정리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구서로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 서원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 다음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자료들의 보고로, 아주 다양하고 특별한 형태의 역사성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전해진다. 그리하여 유교문화 자료관, 박물관이라고도 칭해지기도 한다. 특히 9개 서원은 교육과 의례의 거점이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런 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남아 전하는데 서원운영과 관련된 자료로 학적부와 원임안, 강학 규약, 강학 의례, 그리고 서원의 인적구조, 교육 과정, 노비와 전답 등의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고문서, 출입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다양한 고서와 책판, 문집 등 소장전적 목록들이 자료로 남겨져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과거 서원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원의 고문서와 전적, 기문과 현판, 금석문 등등 기록 자료들의 아카이브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미 기존의 연구와 정리를 통하여 다양한 관련 도록 및 홍보물, 사진 자료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유물관 자료관에 전시되기도 하였지만, 9개 서원과 관련된 이들 기록 자료들을 전자 아카이브로 만들어 연구자나 관련 서원관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2.e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

1. 머리말

이번 제2차 서원 워크숍의 목적은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세계유산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¹

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서원별로 필요한 당면 과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시(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보다 품위 있고 풍부하며, 교육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증 받는데 좋은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워크숍의 4개 주제 중에서 제1, 2주제는 기록자료의 확보와 연구에 대한 것이라면, 제3주제는 보존과 관리 문제를 다룬다. 필자가 다루는 제4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의 기록자료를 정리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 부분이다. 이 부면의 논의는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 보존관리와 함께 ① 전승주체의 문화유산 이해와 관심(참여),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라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평가 요소와 직결되는 중요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서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교육, 홍보자료들을 발간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기획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필자는 (1) 서원 교양해설, 홍보자료의 유형과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 기획, 편집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3) 편찬 추진의 로드맵과 효율적인 편찬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서원별로 바람직한 교육·홍보자료의 편찬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필자의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한다.

1. 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141-153

2. 서원 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앞선 제1주제(이수환 교수), 제2주제(김덕현 교수)의 발제에서 확인되듯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은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체계화할 기초자료들로 400-500년의 오랜 역사를 증빙하면서 한국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강할 데이터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귀중한 서원의 기록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기록물 연구 조사는 주로 학술논문의 자료로, 혹은 연구자 중심 단순 유물조사로 그쳐 널리 홍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리하여 전문연구서나 학술자료집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홍보 브로슈어는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한편 최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① 기존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치되거나 선후 갈등이 있던 논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자원의 활용과 유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 ② 官 주도의 보존일변도에서 민간 주도 및 상호 협력(지원), 효율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보존 ⇒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재 ⇒ 문화유산], [官 주도 ⇒ 민간 주도 및 상호협력]의 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서원도 이런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서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후손이나,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연구전문가들에만 집중되었다. 또 서원관계자나 후손, 일부 전문연구자들만이 서원의 가치와 내용을 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와 의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방관하는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다 큰 목표는 서원문화유산이 현재에 살아 숨쉬고, 보다 폭넓은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계승하려는 의지,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²

그리고 이들 서원기록문화 자료들은 그러한 활용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귀중한 기초자료원이 되어 줄 것이다. 다만 이들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이 알기 쉽고 가치 있게 인식되고 계승되려면 현재보다 몇 배 이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용을 위한 마인드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자랑스런’, ‘미래의 경쟁력이 될’ 한국의 브랜드 가치인 서원문화. 그것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또 알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을까? 나아가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혹평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향 중심의 서원 기능,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제향인물의 행적 소개로 비쳐진 측면이 더 크고, 그래서 서원문화가 지닌 정신사·지성사적 품격과 수준,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2. 이해준, 「서원 기능의 보존과 올바른 활용방향」, 『2010 서원연합회 발제문』, 2010 이해준,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 남역사문화연구원, 『옛사람들의 학문과 생활-충남의 유교문화-』, 201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특히 이는 요즈음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스테이와 체험이 확대되는 추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서원별 차별성과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요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도 있다. 서원의 이러한 활용가능성, 경쟁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실태는 기본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원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 연구에 의하면 ①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 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 ③ 수직적 교육중심의 정적인 분위기 형성 ④ 문화재, 인물 중심의 서원문화이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³

물론 현재 성균관과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아직도 서원문화 소재의 적극적 활용이나 아이디어 개발 측면에서 숙제가 많다.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 - 서원별 특성이 부각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원의 활용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그래서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⁴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이와 겸하여 효율적인 교육 체험을 위한 자료집의 개발, 제작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서원 교육, 홍보자료 편찬 현황과 문제점

1) 유형별 편찬 현황

서원의 교육, 홍보용 발간(편찬)물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자료모음 성격의 서원지 편찬, ② 전문 연구 학술서, 그리고 ③ 홍보용 브로슈어가 대종을 이룬다. 물론 이들 이외에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향후 추구해야할 ④ 교육, 체험 자료집을 편찬한 특별한 경우도 있다.

(1) 書院誌, 書院資料集

전통적인 한적본 형태로 각종 서원자료 자료(원문)들을 모아 수록한 유형과 서원고문서 자료를 모아 간행한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書院誌의 전형을 이룬 주세붕 편찬의 『竹溪志』를 시발로 『迎鳳志』, 『吳山志』 등으로 이어진 16-17세기의 서원지의 전통은⁵ 19세기말 20세기에 이르러 『무성서원지』(1884, 1936), 『남계서원지』(1935), 『소수서원등록』(1937), 『돈암서원지』(1958), 『필암서원지』(1975) 등으로 이어진다.

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4.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 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중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 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5. 정만조, 2006, 「조선시대 書院誌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제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조준호, 2010, 「書院誌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한국학논총』 제33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이러한 유형의 전통을 이어 20세기 후반에 편간되는 서원지들은 서원연혁, 제향인물 관련 중요 자료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번역하는 정도에 그치고 편찬 당시의 활동상과 규약과 의례, 재산과 물품 등등의 현황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다만 『돈암서원지』(1994)의 예에 서 보는 것처럼 연구논문(해설) 형태로 ‘서원의 기원과 역사’, ‘한국유학의 기호학과’, ‘건물’, ‘제향인물’ 등을 함께 수록하여 돈암서원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서원을 총람하는 형태로 『전남의 서원·사우』(1988, 전남도·목포대), 『충남의 서원·사우』(1999, 충남도·충남발전연구원), 『경기도 서원총람』(200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이 편찬된 적이 있고 고을별로 향교와 서원을 정리해 편찬한 경우도 적지 않다⁶. 그런가하면 한국서원연합회는 2011년에 『한국서원총람』상·하권을 2,500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발간한 바 있다. 대개 이들의 내용구성을 보면, ① 연혁, ② 제향인물의 행적, ③ 건축현황, ④ 관련유적과 유물, ⑤ 기타 등이고, 원고의 분량도 한 서원당 50매 내외의 분량이어서 아주 개략적인 소개 수준을 넘지 못한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문연구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자료집 형태의 서원지들이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원 고문서 자료집성 형태의 서원지가 바로 그것이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옥산서원(1993), 도동서원(1997) 자료를 영인, 출간하였는데 이들 자료집은 기존의 연혁관련, 제향인물 관련 자료 이외에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상, 조직과 운영, 경제실상 등등 서원문화의 생생한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들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해제만이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한 서원문화사의 종합 정리까지는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⁷

소수서원에서 편찬한 『紹修書院誌』(2007)의 경우는 각종 서원관련 문서자료를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입의, 향사와 고유, 영정, 강학, 현판·석각, 시부, 산문, 문헌, 건축물, 유적, 유물, 임원록, 당회와 운영 등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 원문을 번역 편찬하였다.⁸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고문서집성』으로 서원소장 고문서를 영인하여 편간하였는데 제20책으로 병산서원(1994), 제24책으로 남계서원(1995), 제25책으로 덕천서원(1995), 제29-30책으로 용연서원(1996), 제50-51책으로 용산서원(2000) 등을 발간한 것이 그것이다⁹.

(2) 연구학술서

9개 서원의 경우 의외로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주제로 다루면서 학술서로 발간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한국국학진흥원, 『서원을 찾아서』, 2005.

7. 다만 옥산서원의 경우는 자료집의 앞에 서원의 역사,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사회적 기능, 소장자료의 해제를 수록하고 있음.

8.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2007, 국립광주박물관)이라는 특별기획전 도록에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인종과의 만남, 조선 성리학파 하서, 선비정신과 시세계, 하서와 필암서원, 하서의 문묘배향 등 기획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9. 고문서나 전적 등 서원소장 자료들을 모은 자료집의 경우는 목적이 학술자료용으로 수요층이 전문 연구자들이므로 별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본 발표초록의 [부록] 서원별 자료정리 현황을 참조

오히려 龍山書院¹⁰, 화양동 서원¹¹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 처럼 서원의 격이나 위상보다 전승주체나 의지가 큰 곳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시도되었다.

물론 9개 서원의 경우 제향인물 관련 행적과 사상, 추승활동을 다룬 학술세미나는 서원별로 대부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물도 적지 않은 양이 나왔다.¹² 이들 제향 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연구는 전문서로서 풍부한 내용과 높은 수준을 대변하지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문연구의 더 큰 문제점은 연구 분야별로 극히 정밀한 주제와 대상들을 다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서원의 종합가치, 이해 교육, 전승의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체나, 편집 형태, 그리고 디자인의 면에도 무신경하여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분량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즉 전문적인 글, 특수한 분야,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를 일반인의 입장, 식견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하기란 결코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자료를 보고 해당 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종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연구와 학술세미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곧바로 이들이 전승, 이해, 교육, 활용에 연계될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칫 편견과 거부감, 경외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더욱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교양총서 발간 사업은 이 같은 연구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안동서원기행』이나 『퇴계인물씨리즈』(이항, 유성룡, 김성일, 정구, 조목, 장현광, 정경세, 이현일, 이만부, 이상정, 류치 명, 이진상 등)같은 기획물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홍보용 브로슈어

마지막으로 홍보 브로슈어가 있다. 현재 우리가 현지에 가서 접하게 되는 서원안내자료(관광 홍보 브로슈어)는 우선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문화재, 제향인물 중심의 해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다.

물론 일반인의 서원 이해와 관람에 기초적, 사전적 지식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서원의 홍보용 브로슈어들을 보면 거의 모든 서원이 비슷한 체제와 내용이며, 차이가 있다면 아주 욕심을 부려 적은 면수에 너무 많은 자료를 넣으려는 경향과, 반대로 다소 무성의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듯 한국 서원의 크고 웅대한 가치와 의미가 너무 소략하게, 것처럼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10. 한국학중앙연구원, 『龍山書院』, 2005, 집문당. 학술논문집으로 연구주체는 慶州 龍山書院 재지사족의 향촌지배(李樹煥), 慶州 龍山書院 運營과 慶州崔氏家の 역할(安承俊), 龍山書院과 教育活動(丁 淳佑),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鄭萬祚), 朝鮮後期 書院의 特性和 行政官廳(朴丙鍊) 등이다.

11. 국립청주박물관, 『화양서원 만동묘』, 2011, 통천문화사. 전지도록인데 논고로 화양동서원의 역사(이해준), 조선성리학과 만동묘(지두환), 화양구곡의 현양과 상징, 화양구곡도(윤진영), 우암선생 瀛州訣書와 만동묘 건립(박준호) 등을 수록하였다.

12. 필암서원의 경우처럼 하서 김인후의 추승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하서 학술재단은 1986년 창설된 이래 각종 학술회의 개최와 하서의 학문과 사상연구, 하서전집 발간, 연구서 발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관련 연구서로는 각책마다 1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화』라는 연구총서를 4책이나 발간하였다.

서원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하여 무형적인 역사와 정신, 교육, 의례 등을 포함하는 유산이어서 내용 구성과 자료선별, 전달의 방식 등 편집에 많은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내용구성상의 문제점이다. 내용구성상 대부분이 제향 인물 중심의 행적사이거나, 건축물 중심이다. 우리의 문화재 정책이 유형문화재 중심이어서 주로 서원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설명문, 안내문도 모두 건축물 중심으로 해설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제향인물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서원의 종합적인 문화사와 연계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질 교육, 홍보자료에는 이러한 건축물과 제향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경관, 제향이나 교육 의례, 정신과 사상, 기타 무형의 유산까지로 그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을 대상한 서원해설, 교양서의 편찬 필요
- 간략한 가이드 북, 교육 보조재료의 편찬 필요

2) 문제점과 과제

(1)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서원교육, 홍보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요약할 수가 있다. 즉 ① 내용 구성 ② 대상(수요층) ③ 전문연구의 주제 분산성 ④ 교육, 홍보, 편집의 마인드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서원을 홍보하는 책자들의 가장 먼저 지적되는 내용 구성문제는 대부분은 연구서, 학술서의 경우 제향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을 다룬 것, 혹은 서원의 건축물을 다룬 것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각 서원의 문화특성과 연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향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인물 추송의 성향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제향인물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해당 서원의 교육, 문화적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면 문제이다. 영웅적, 전기적인 제향인물 설명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원의 역사와 정신에 연관되는 부분의 비중을 높여 의미가 더욱 고양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원의 다양한 역사와 성격은 제향인물의 생존했을 때와 사후 문인이나 후학들의 배출과 그들의 추송활동, 나아가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향인물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자칫 이같은 서원의 역사와 변천, 다양한 성격을 소홀히 하거나 논외로 하기가 쉽다. 더 많은 이야기꺼리와,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소개는 유형적인 건축물, 문화재 중심 경향이 일반적이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분명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서술의 내용이 서원의 경우에서는 가구 기법이나 형태에 더하여, 성리학적 경관개념, 위계와 배치구조, 교육·강학·제향·거접 등 서원 기능과 연관되는 의미 등이 함께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과 서원공간의 가치는 역사와 인물,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그 의미를 살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서원은 주지하듯이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던 곳이었다.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내용에 포함, 혹은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원의 건축물과 공간은 조선시대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선비들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선비들이

-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사회사적 활동
- 교육, 강학, 제향 및 각종 사회 교화
- 도서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
- 학맥의 거점으로 학문적 이론과 행동양식
- 향약, 의병, 상소, 당쟁, 학문토론 등등 역사적 사건의 장소

등등으로 활용했던 유적, 유물, 정신들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알리고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명확한 수요층(대상)

다음은 수요층(대상)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이 불특정 다수, 수요층을 무작위로 하여 자료를 배포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예컨대 서원관련 교육, 홍보자료로 편찬·간행된 전문연구서, 인물추송 자료, 관광안내 브로슈어 등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제공될 자료는 없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연구서를 보면서도 어렵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향인물 관련 도서를 보면서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지-서원과 연관된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 이러한 수요층(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편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원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일반시민들의 수준과 관심, 유림들의 수준과 관심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는 마치 불특정한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의 밥상을 차려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과 다름없다. 어쩌면 일방향이 획일화된 자료로도 서로 다른 생각(수준)의 사람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주요 대상, 수요층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하고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서원을 바라보는 주요 대상(수요층)을 선정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 및 홍보자료를 편찬하는 것이다. 대상(수요층)에 따라 인식과 관심(기대)이 다르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접근 방식과 자료 선정, 구체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도 어려운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서원의 교육과 홍보를 생각하면서 서원 관련 연구자, 후손, 유림의 경우를 일단 논외로 하면, 우리가 수요층으로 손꼽아 볼 대상은 대개

- 가) 서원과 유교문화에 부정적 이해를 가진 일반인
- 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 다) 초·중·등 학생들
- 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자들(문화해설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면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비단 어린 학생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층위의 수요층들이 서로 다른 눈으로 서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는 과연 우리가 주된 수요층을 이들 중 대체 어느 층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마 우리의 현실로 보면 ①초·중·등, 청소년층(중고생)이 가장 먼저일 듯하고, 다음으로 ②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③서원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할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 서원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동시에 추진할 수도, 또 여건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의 요구와 수준, 기호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¹³⁾

- [서원자료집 - 인물 연구서 - 홍보브로슈어] 사이에 블루오션이 있다.

그리고 ①의 초·중·등, 청소년층(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용 해설서(간략한 가이드 북, 30-50면 정도 분량)가 합당할 것이고, ②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이 대상층이라면 당연히 전문서의 내용을 축약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서원소개, 해설서(일반교양서, 250-300면 정도 분량)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③의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보조 자료(교육교재)의 편찬이 계획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이들의 체제와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그 대강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3) 교육, 홍보마인드의 부족

끝으로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이다. 잘라서 말한다면 현재의 서원은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나, 그 어려움에 대하여 큰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적당히 만들거나 진행하더라도, 알아서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과 상상, 도덕과 인성에 무지한 부류로 팔목상대라도 할 기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도 서원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무시 못할 사실이다. 물론 그들이 유교문화의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해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이유는 유교문화가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이어서 극복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13. 사실은 서원연합회나 서원학회가 이런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의 의도적인 평가절하와 악평, 민족주의 인사들의 自省論, 여기에 더하여 서구화, 산업사회화가 진전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모든 부정적 요인들의 진원지가 바로 ‘서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원과 같은 인물, 유교문화유적은 다른 유적에 비하여 경쟁력도 떨어진다. “靜的.教育的”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그런 까닭으로 지루함을 유발하고, 그리고 재방문 비율이 가장 적은 문화유산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흥미롭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유적도 아니다. 오히려 “정신과 학문, 내면적 문화를 가치로 하는 유교문화 유적”을 머리 아픈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문화”나, 우리가 강조하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을 준비하지 않은 채, 건축물, 특정 인물(조상자랑),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 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전달 방식, 전승 활용할 대상 자료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 그런 이유를 인식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할 의향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에 무신경, 소극적이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양하고 풍부한 서원의 문화자료들을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잘 포장하여 재생 활용하여야 하고, 그래야 이들 문제점과 한계가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만 한다면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흥미롭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된다.

4. 편찬 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이상에서 교육·홍보자료 편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편찬 추진의 과정과 유형별 바람직한 구체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진 방안 예시들이 여러 서원의 자료 편찬에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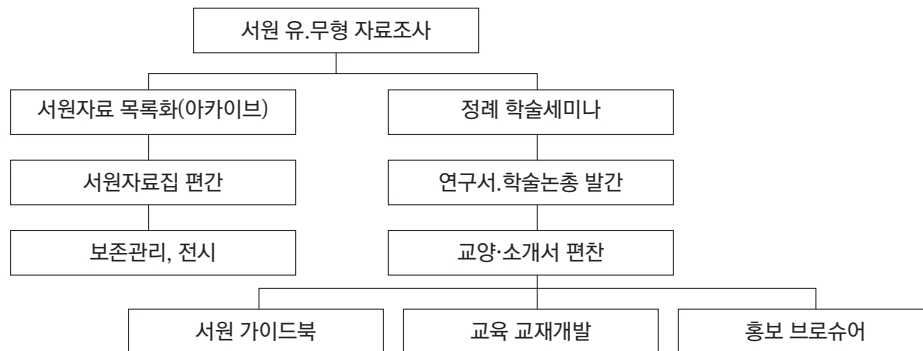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등재추진단에서는 2012년도 예정사업으로 한국서원문화 학술연구 (『한국의 서원』)¹⁴와, 등재서원 특성 학술연구(『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¹⁵ 및 책자 발간을 기획 추진 중이다. 또한 기록문화(문헌) 자료와 무형문화(의례, 제향) 자료정리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서원지 편찬 논의를 참조). 그리고 교육과 제향 의례 부분은 제3차 서원워크숍(6. 15일 개최 예정)에서 방향을 정하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업과 연계선 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14. 『한국의 서원문화』는 한국서원의 문화사적 가치와 의미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총정리하되 학술 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하여 1책(350-400면 내외)을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내용은 서원총론(이배용) / 역사와 변천(정만조) / 자연경관(김덕현) / 건축문화적 특징(이상해) / 교육과 강학(정순우) / 성리학과 시문(권오영) / 제향의례(정승모) / 운영과 경제기반(이수환) / 향촌사회와 서원(이해준) / 장서(도서관)과 출판문화(옥영정) 등이다.

15.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제하에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표상하는 9개 지정대 상 서원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하며, 필진은 서원 특성에 따라 2-4명이 분담 집필할 예정이며, 350면 내외의 분량으로 기획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한국서원문화의 특성(총론) / 소수서원 / 남계서원 / 옥산서원 / 도산서원 / 필암서원 / 도동서원 / 병산서원 / 돈암서원 / 무성서원 / 한국서원의 현황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이들 작업은 한 국의 서원 전체를 묶는 작업으로 서원별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서원의 주체적 이고 독자적인 교육·홍보자료 기획·편찬이 요청된다.

편찬물의 유형은 수요층에 따라, 그리고 분량, 내용수준에 따라 여러 종류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육, 홍보물의 편찬 유형으로는 ①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 ② 교양·소개서, ③ 가이드 북, ④ 교육프로그램 교재, ⑤ 홍보 브로슈어 등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대상층과 편찬 목적에 따라 각각 내용 구성(체제)와 편집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1)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¹⁶

교육, 홍보자료가 제대로 편찬되려면, 이에 앞서 다양한 서원관련 유형·무형의 자료를 완벽하고,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는 일과, 서원의 가치와 역사를 학술적,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들 각 서원에 남아 전하는 자료, 일부 분산 소장된 자료, 문헌으로 검색되는 자료 등등 서원관련 유형 무형의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편간하거나 아카이브화 하는 일이 우선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¹⁷.

결국 이들 조사 정리된 자료들은 해당 서원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유인할 것이고, 연구와 조사 성과가 교육과 홍보의 대상 폭, 내용의 질을 결정하며, 나아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원형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학술회의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서원문화의 종합, 집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순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제향인물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주제를 보다 넓혀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서원별로 매년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성격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관련 연구단체나 지역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이다.

16. 이 중 서원자료집의 경우는 서원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이수환 교수의 논의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17. 이혜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141-153.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서원 제향인물의 사상과 학맥, 정치적 활동, 서원의 경관과 건축특징, 유·무형 서원 문화유산 등등으로 정하여 정례적인 연구를 진행시켰으면 한다. 학술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그 결과는 서원학술총서(연구서, 논문집) 형태로 발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연구주제와 연구분야 선정에서 가능하다면 9개 서원 중에서 해당 서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차별성 있는 키워드를 부각하여 알리고, 이를 현재적으로 재조명, 계승, 활용하려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병산서원의 장서 기능,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제향 의례전통, 도산서원·옥산서원·병산서원의 학술논쟁과 학맥, 옥산서원과 도동서원의 다양한 서원 운영 조직, 경제관련 고문서, 무성서원의 향학당 사적, 최치원 영정과 문집발간, 한말 의병과 향약(동약), 필암서원의 서원고문서와 장판들 등등은 별도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정도로 특징이 부각된 예들이다.¹⁸ 바로 이러한 각 서원의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가 기획된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들 전문적인 연구서나 자료집 편찬은 전문연구자의 수요와 기대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들의 서원에 대한 관심 충족과 이해, 가치 바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의 수준과 기대치, 알고 싶은 내용이 전문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 서원 교양, 소개서, 교육용 ② 서원 가이드 북,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③ 교육 보조 교재 발간 같은 교육과 홍보용 자료의 편찬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2) 서원 교양 소개서(○○서원의 역사와 문화)¹⁹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문학술서는 일반인에게 서원의 가치와 문화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 브로슈어로는 서원의 가치, 특성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 즉 서원의 성격과 문화사를 알기 쉽게 종합정리한 교양 소개서(해설서)의 편찬을 기대한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서원 교양 소개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원 교양 소개서는 대상층을 일반인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이면 이해할 정도의 평이한 문체와 사진, 삽도 및 자료가 많이 수록된 정감 있고 흥미로운 체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을 전문

18.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신청서(2011) : 紹修書院(1543년) ; 최초의 서원, 제향의식 과 의례(장서, 유물, 건축 서원형), 蕺溪書院(1552년) ; 향촌교화, 玉山書院(1573년) ; 다양한 운영주 체, 서원경제, 건축기록 (장서, 문서, 경관), 陶山書院(1574년) ; 퇴계 이황과 강학 전통(학통, 강학 자료, 경관), 筆巖書院(1590년) ; 서원 문서와 제향인물 유적 유물(학맥, 정치), 道東書院(1605년) ; 경관과 변천사 자료, 屏山書院(1613년) ; 자연과 조화된 서원 건축경관의 전형, 서원건축, 遯巖書院(1634년) ; 호서 예학의 산실(학맥, 출판), 武陵書院(1696년) ; 향민교육과 강학, 향약, 한말의병(최치 원, 강습례, 의병) [()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향후 연구의 진전을 기대].

19. 『○○서원의 역사와 문화』 『퇴계 이황과 도산서원』 같은 방식도 좋을 것이고, 서원별 문화 특성 과 강점(경관, 건축, 인물, 강학, 제향, 자료 등등)이 책의 타이틀로 강조되면 이상적인 것임

기획자에게 맡기거나, 아예 유가지로 편찬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²⁰ 그래서 체제와 분량은

- 신국판 변형, 300면 내외
- 원색, 2,000부(유가 판매 : 3,000 - 5,000부)
- 학술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고교졸업생 정도의 이해 수준)
- 기존 연구성과 요약, 정리. 충실한 자료 예시(사진, 삽도, 자료의 비중 30-40%)

로 하고, 집필진은 해당 서원의 문화사적 특성에 따라 서원연구의 분야별 전문가(지리, 경관, 건축, 역사, 교육, 의례, 사상, 고문서, 기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내용과 체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해당 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되, 기본적으로 포함할 내용(목차, 주제)은

- 화보
- 서원 입지와 경관, 풍수
- 창건과 역사변천
- 제향인물의 행적
- 서원의 건축물과 배치
- 교육, 강학, 제향 의례
- 조직과 운영, 서원경제
- 사족활동(학맥, 정치)
- 장서와 출판
- 전적, 고문서와 유물
- 현판, 금석기문
- 서원 관련 문화유적
- 일화와 전설
- 주요자료 원문 / 연표 / 기타

등을 참조하여 서원의 성격에 맞게 추가 보완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한국의 대표서원으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는 9개의 서원은 공통적으로 수려한 경관과 전통 있는 건물들, 제향 인물의 학문·사상·행적, 서원의 지성사·사회사적 활동, 제향의례의 전통, 각종의 문화유산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해당서원이 지닌 보편적 성격(서원의 역사·인물·건축·교육·제향·활동 등 종합)과 여기에 각각의 서원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격(해당 서원의 지역별, 학맥별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²¹, 그리고 유·무형의 자원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20. 그리고 이 작업은 가능하면 有價 販賣할 계획으로 기획 편찬하는 방안이 좋을 듯싶다. 팔리는 책, 사서 보는 책이 될 만큼의 경쟁력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팔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정 부수를 구입, 배포하는 MOU를 편집 기획(출판)사와 맺고 유가 판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집필자 선정과 원고작성을 서원(지자체)가 맡고 편집디자인만을 이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21. 앞의 주 14) 참고.

그리고 서원별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특성을 좀더 부각할 주제들도 구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무성서원 같은 경우 무성서원의 역사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 孤雲 崔致遠의 생사당과 丁克仁의 향학당
- 申潛의 5부학당과 생사당
- 도내 유생의 청액상소와 연액 의절
- 최치원 영정 이안과 桂苑筆耕 발간
- 武城 액호와 絃歌樓
- 무성서원의 강습례 전통
- 勉菴 崔益鉉의 의병 창의와 무성서원

등과 같이 무성서원만의 특수한 역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해당 서원만의 주제어들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²² 이런 특성이 예감되는 독특한 서원문화사 주제들에 대하여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한 정리를 한 후 교양서의 편찬에 반영하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교양.소개서의 편찬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서원의 가치와 의미, 특성 종합)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수요층, 대상의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의 기술(편찬,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된 셈이다.

결국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후속 작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즉 위에서 살핀 전문연구서나 종합적인 교양 해설서를 활용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활용 자료집으로 발제자는 (3) 서원 가이드 북, (4)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교육 보조 교재 발간이 후속작업으로 병행되기를 기대한다.²³

3) 서원 가이드-북(유가 판매도서)

앞에 제시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소개서는 상세하고 종합적인 300면 내외의 저서 형태라면 이를 원본 텍스트로 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축약한 40~50면 정도 분량의 『○○서원 문화 가이드 북』을 편찬했으면 한다. 이 서원 가이드 북은 홍보 브로슈어의 단편성을 보완 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서원 문화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알리는 전달 매체로 이용되었으면 한다.

내용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자료와 앞에 제시한 서원 교양 소개서를 활용하되, 일반인이나, 교사, 학생, 유림, 전문가들에게 ‘알고 싶은 서원 지식’, ‘알리고 싶은 서원문화’ 아이템을 조사하여 이들 중 수요자 수준

22. 필자는 돈암서원의 경우도 . 정회당, 아한정, 양성당의 강학 전통. 사계 김장생의 실천 예학과 호 서산림 . 17세기 기호사림의 首善之地 . 정묘의병과 문인들의 참여, 활동 . 문집과 예서의 출판사 업(장판각 자료) . 대표적인 서원건축(응도당) . 개화기 근대학 교로의 일신(찬명학교)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홍보 브로슈어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에 맞는 소주제를 8~10개 정도(Q&A) 선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가이드 북의 경우 [서원문화]와 [제향인물]을 나누어 제작하는 방안도 유용할 듯하다.²⁴

그리고 서원 가이드 북은 무엇보다 편집상 간결하고 쉬운 문체, 삽도·자료·사진의 다양한 수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편집기획자, 교사(만화, 문학, 문화)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수요층의 기대와 호기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의 경우 좀더 확실한 경쟁력의 확보, 편찬기획의 수준의 담보, 일반교양인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어찌면 전문출판사와 함께 3,000 원~5,000원 정도의 유가 판매용으로 기획 출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직하다.

4) 교육 보조자료 개발

끝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보조자료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 스테이가 일반화 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목표,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사실 교육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명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체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육자료의 제작, 수요층에 맞는 주제별 교육·체험 자료를 먼저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선도기관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학생, 성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비문화체험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문화체육관광부, 2009)를 편간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초, 중등학생 (2박 3일, 1박 2일, 1일), 대학생 체험과정 (1박 2일), 외국인 다문화가정 체험과정(2박 3일, 1박 2일), 외국인 체험과정(2박 3일), 그리고 성인일반 체험과정²⁵ 등으로 대상에 따른 체험이 진행되며 각기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글로벌 인재양성전통과 현대의 접목, 예절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인간양성,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도산서원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체험 대상과 일정을 마련하여 한문·예절·인성·역사탐방·전통놀이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 교육자료』(소수서원 예문관 선비촌, 2009)라는 체험교육 지침서를 만든 바 있고, 2010년에는 박석홍 편 『선비문화를 찾아서』(영주시, 52면)라는 교육보조 자료를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24.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대동문화재단, 2007)라는 책자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분량이 신국판 220면으로 좀 많으나 전기, 소설형식으로 평이한 문체, 흥미로운 목차 구성, 다양한 삽화(사진, 그림) 등으로 좋은 사례가 되어 준다. 이 책자의 독후감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도 발간하였다.

25.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체험에는 문화단체(전통예절), 교원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사회단체, 가족 체험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서원연합회도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원스테이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운영하면서 공통 자료집으로 『서원문화체험(2010)』과 『서원스테이(2011)』를 편찬 보급한 바 있다²⁶ 이밖에도 퇴계학연구회가 주관한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회”라든가, 필암서원에서 교육관인 집성관을 준공한 이후 선비학당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등등이 모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²⁷

그러나 이들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교재의 내용과 대상별 교육과정의 철저한 점검이 없이 어쩌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어쩌면 요령있는 교사나 지도사, 그런가하면 스타급 해설자가 모두를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듯도 느껴진다.²⁸

다음에 직접 9개 서원의 예는 아니지만, 몇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예시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예감하여 보고자 한다.

(1) 『白鹿洞書院』과 『嶽麓書院(史話)』

발제자는 이 대표적인 중국 서원의 교육 및 홍보 자료에서 우리의 교재 개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白鹿洞書院』(黎華 편)은 백록동서원 의 홍보 브로슈어 형태로 변형 4.6배판 24면의 분량이다. 수록내용은 연혁 개요, 100년전 옛사진, 白鹿洞賦, 저명인의 詩文, 柱聯, 書畫, 朱子白鹿洞教條, 朱子家訓, 金石文, 朱熹讀書法, 白鹿洞의 역대명인 肖像, 현대 풍광, 주요활동(학술활동) 등이다. 이 책을 예시한 것은 수록 내용들이 모두 백록동서원의 역사와 정신, 전통을 설명할 때 직접 확인해야할 사진이나 원자료(원문)를 가능하면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발제자가 보기에는 홍보물을 겸한 교육 교재로 이용이 가능할 만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도 현재의 서원 홍보 브로슈어의 분량을 좀더 늘려서(16절 → 4절), 해설, 설명시에 시각 자료로 예시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嶽麓書院(史話)』(朱漢民, 鄧洪波 著, 2009, 호남대학출판사)는 악록서원의 보다 분명한 색깔을 가진 교육 교재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4면의 분량이지만, 글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량이고 대부분이 삽도 사진, 자료들이다.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서원의 역사에 따라 創建(북송) 鼎盛(남송) 延續(원명) 再興(청대) 變革(學制)의 5시 기로 구분하고 각기 3-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간략한 해설과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물 고적이라 하여 유적 유물을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소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사, 지도자(안내자), 해설자용 자료집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록된 자료는 중요 관련 유적(사진), 암각서 금석문(탁본), 시문 원문(책자, 비문), 고문서(원문), 유품, 영정(사진), 전적의 주요내용, 옛사진, 원규 등등이다. 특히 수록된 다양한 자료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자료, 없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 꼭 내용을 소개하여야 하는 특별한 자료들까지 성의 있게 수록하여 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자료의 성격과 전승 상황에 따라 사진, 상상도, 사료, 탁본, 회화, 고문서, 유 물, 삽화 등으로 다양하게 편집한 아이디어도 활용할 점이다.

26. 서원연합회, 『서원스테이 사업(6개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27. 필암서원, 『山仰會報』제15호, 2010.

28. 월봉서원, 『월봉서원 생생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2009.

9개 서원의 경우 자료량이 충분하므로 조금만 유의하면 핵심, 중요, 특기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지도서로서, 혹은 교보재 모음과 해설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교육(워크숍)을 받은 교사, 안내, 해설자가 수요층(대상)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선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의 성격이면 좋을 것이다.

(2) 소수서원『선비문화를 찾아서』

두 번째로 소개하여 예시를 삼고자 하는 자료는 소수서원의 『선비문화를 찾아서』(영주시, 박석홍 편, 2010, 52면)라는 책자이다.

이 책자는 청소년용으로 4.6배판 52면의 원색으로 만화, 삽화, 사진 등을 혼용하여 주제별로 구성한 책자이다. 솔직히 대상층(수요층)이 분명하지 않고, 너무 많은 량, 모두 다 수록하려는 욕심 때문에 다소 방만하고 핵심 컨셉과 키워드가 분산된 느낌이다. 또 편집상의 기교나 매끄러움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수요층의 기호나 관심을 유발하려는 노력과 아이디어는 대단하다. 수록대상 유적은 소수서원(1-20면), 선비촌(21-27면), 소수박물관(28-34면), 선비문화 수련원(35-38면), 순흥권의 문화유적(39-51면)을 망라하여 영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20면 정도의 소수서원 부분에는 전경, 약사(년표), 경관, 건물, 영정, 전시유물, 제향인물(안향, 주세붕, 이황, 안축, 안보) 등이 다양한 사진, 삽화, 자료, 일화의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후 개정판을 낸다면, 서원만 소개하는 자료로 분리하고 편집상의 욕심을 줄여 약간 번다하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면 어떨까 한다. 분량도 2배 정도 늘려 40~50면으로 한다면 편집의 산만함과 답답함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산정과 편집 기획을 함께 논의할 편집(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위원회에 자료를 잘 알고 동원하는 전문가(연구자, 서원유림)와, 수요층별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전달할 교사나 해설자, 편집기획자, 그리고 삽화, 사진 같은 작업을 도와줄 예술인(교사)가 함께 참여 한다면 훨씬 완벽한 교육, 체험의 교육 재료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Q&A 형식의 기획개발도 고려)

(3)『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

이 책자는 필암서원의 제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한 전기물로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과 대동문화재단에 의하여 2007년에 기획 발간된 것이다. 신국판 220면, 원색으로 김병효가 짓고 백정환이 삽화를 그렸다. 소설 형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며, 사진·삽화가 많아 글의 분량도 많지 않다. 편집 기획도 정겨우며, 목차도 ‘전라도 장성 맥동에 큰별 내리고’ ‘스승 면양정 송순과의 인연’ ‘대과에 급제하던 날’ ‘인종이 선생에게 목축을 내린 사연’ ‘난산에 통곡소리 애절히 번지고’ ‘백년초해를 지은 뜻은’ 등으로 흥미롭고 평이하다.

이 책자는 전기이면서, 교육체험의 독후감 작성용 텍스트로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부록편에 필암서원과 하서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책자를 읽고 제출한 독후감을 뽑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파주문화원에서 발행한 『큰스승 육곡 이이의 삶과 사상

(2007)』,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 사상(2007)』도 마찬가지로의 평이한 문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반이 알기쉽게 구성 정리한 것임을 편집자는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는 200여 면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많은 학생들이 일고 체험하는 교육자료로는 다소 많은 분량이며, 가능하다면 다른 서원의 경우 교육자료로 만들려면 50면 내외로 축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²⁹

(4) 교육 콘텐츠의 개발

또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개발한 콘텐츠의 선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의 병산, 남계서원 원문자료 제공이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조선교육 한마당 ‘기록 자료로 본 서원’에서는 교육, 재정, 규범, 운영, 제향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서원 창건, 강학일기를 활용하여 서원의 창건과 강학절차 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도 탑재되어 있다. 유교 문화박물관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자료를 만나는 박물관 자료마당이 마련되어 있다.³⁰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소재 하는 콘텐츠의 개발, 자료의 온라인 소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가능하다.

활용가능성, 차별화, 경쟁력을 고려한 이들 서원별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더욱 효율적인 서원교육과 체험을 약속할 것이다. 물론 현재 성균관 산하에서 결성된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이나 소수 서원 등 일부 규모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 및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서원별 특성이 부각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개발 - 자원의 활용 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종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29.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체제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백일현 이삼 전 기)』(백제군사박물관, 2007)같은 경우 전기 형식으로, 초등생용이며, 아주 간결, 작은 분량(독후감, 발표용)이다. 삽화(사진)와 글의 비중이 반반 정도이며 4.6배판 60면 분량인데,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30.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edu.ugyo.net), 유교문화박물관(http://www.confuseum.org)

5. 맺음말

발제자는 서원의 교육과 홍보 마인드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시하여야 할 것이 고품격과 지성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원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현재적 의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자, 계승 활용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부정적 인식도 없지는 않지만 3-400년 전의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서원문화자원은 무엇보다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다. 어느 문화자원보다도 훨씬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문화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의 측면에서도 재생과 활용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인물 추숭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문에 그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퇴색해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수많은 서원들이 남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 복원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그 활용률은 10% 정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원활용의 우선 순위에 따른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들 다양하고 서원별 특성이 내재된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관리하여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문화자원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필자는 서원의 문화와 그 기능을 단순한 제향 공간으로 自足하거나, 혹은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것을 보면서, 서원문화의 지속가능한 활용, 혹은 현대적인 계승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그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고찰

1. 서론 : 서원 활용의 중요성

서원은 조선시대 학문의 중심지로서, 향촌사회의 문화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원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일부 서원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적 요소로만 취급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자원을 살펴보면 유교와 불교문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교문화자원은 서원과 향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서원을 보존·활용하는 것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즉,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다시 바라보면 300~400년 전의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¹고 할 수 있다.

서원의 활용에 있어서 과거를 그대로 계승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중과 괴리되지 않고 새로운 21세기형 서원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논어』에 나오는 孔子와 子張의 문답을 통해서도 변화에 대한 유교적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장이 “열 세대의 뒤를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본받았으므로 그 손익을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본받았으므로 그 손익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주나라를 계승하는 나라가 있다면 비록 백 세대 뒤라도 알 수 있다.”²라고 하였다.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損益과 加減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전통문화 계승만이 해답은 아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전통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것이고, 원형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사적지 등으로 묶여 공공적 활용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교문화의 거점인 서원을 역사·문화적 명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교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이 무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전통방식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서원은 지역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되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문화는 전통의 올바른 계승과 아울러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재창조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가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의 원형을 통해 재창조가 가능하므로 원형보존에 대한 문제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며, 원형을 통해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 원형과 활용, 유형문화와

1. 이해준, 「기호유교문화와 자원활용」, 『畿湖儒敎文化와 遼巖書院』,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대전일보사, 2011, 7쪽.

2. 『論語』「爲政」: 子張問十世, 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

무형문화, 이념적 관점과 문화재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학술회의를 통해 서원과 향교 등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토론의 결과물이 도출된바 있다.³ 필자는 이러한 자료 검토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서원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 활용 현황

최근 서원이 복원되고 신설된 것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 7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서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보존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복원 당시에는 많은 재원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서원의 본래 기능이나 현대적 활용을 감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만 복원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리 부실로 연결되어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버려지기도 한다. 복원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복원과 더불어 활용에 대해서나 관리 문제를 깊이 생각했어야 한다. 단순히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건물을 아름답게 복원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서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활용은 대국민 서비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개 문중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활용 공간이 되어야 보존과 활용, 관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안동의 도산서원 인근에는 현대식으로 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4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주 소수서원 인근에도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을 운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두 곳은 모두 국고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또한 광주 월봉서원의 철학스테이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장성의 필암서원에는 유물 전시관과 아울러 숙박을 겸한 교육공간도 있고, 용인 심곡서원은 정비를 거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경주의 서악서원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천 설봉서원에서도 인문학 강좌와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문경의 근암서원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구 구암서원은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열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괴산의 계남서원은 부설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 소수서원, 필암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등에는 박물관이나 유물관이 개설되어 서원의 역사와 선현들의 유적을 통해 인문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영천 임고서원은 충효관을 운영하며, 안동의 고산서원과 묵계서원은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천의 문헌서원, 양산의 남강서원, 강진의 군자서원, 대전의 숭현서원 등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서원스테이 사업

3. 『우리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2001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종교문화원 형 발굴 및 활용방안』(2008, (사)한국종교문화연구소),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2009,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제언』(엄서호, 2010,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세미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2009년,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년, 문화재청), 『문화재유형별 활용 길라잡이』(2011년, 문화재청), 『도봉서원 활성화 방안 연구』(2011년, 도봉서원 학술토론회), 『畿湖儒敎文化와 遯巖書院』(2011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전일보사)

을 통해 청소년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⁴ 가운데 정읍의 무성서원과 함양의 남계서원은 아직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존재하는 전제 서원 가운데 이상에서 언급한 서원 이외에는 대부분 유사한 전공 학생들의 답사나 극소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안배를 통해 서원 활용의 범위를 넓히거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활용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활용의 문제점

서원을 당장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다. 서원의 정비와 환경 조성,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 예산의 확보, 홍보의 문제, 현대화의 문제,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 상시 개방의 문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별 서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연구기관, 유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상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서원 활용의 문제점 또는 걸림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유교는 그동안 봉건의 잔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으며, 유림은 권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제거하지 않고는 서원 활용은 물론 유교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고려해서 유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유교의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 없이는 결코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

둘째, 유교의 사회적 기여와 봉사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배출된 인물들을 선비라고 통칭한다면, 선비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했던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인이 오늘날 유림이나 유교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여와 봉사 활동을 병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표 1. 서원의 활용 현황

소유지	서원명	교육내용	비고
경북 영주	소수서원	예절교육, 한문강습, 다도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경북 영덕	남강서원	경전강독, 인성교육	학생대상교육
경북 안동	묵계서원	전통공연, 문화탐방, 숙박체험	선비문화체험
경북 안동	고산서원	숙박체험	선비문화체험
경북 안동	도산서원	철학강의, 문화탐방, 교육	선비문화수련원, 퇴계종택
경북 문경	근암서원	한학교육, 민속놀이, 예절교육	문경문화원
경북 경주	서악서원	전통공연, 체험활동, 강연회	경주향교 연계

4.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제55호,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제154호,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제166호,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제170호,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제242호,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제260호, 논산 돈암서원(遡岩書院) 제383호,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제488호,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제499호.

소유지	서원명	교육내용	비 고
경북 영천	임고서원	인문학강좌	총효관
경남 산청	덕천서원	문화탐방, 예절교육	남명학연구소
경남 함양	남계서원	서원견학, 한문교육, 전통복식	학생대상교육
경기 용인	심곡서원	지역문화탐방, 전통예절, 인성교육	학생대상교육
경기 고양	행주서원	역사문화탐방, 예절교육	학생대상교육
경기 파주	자운서원	교양강좌, 지역문화탐방	파주문화원
경기 이천	설봉서원	한문교육, 교양강좌, 예절교육	선비문화체험
경기 안성	우저서원	예절교육, 소학강좌	안성문화원
서울 도봉	도봉서원	역사탐방, 교양강좌	도봉문화원
전북 전주	황강서원	예절교육, 소학강좌, 다도교육	학생대상교육
전남 장성	필암서원	교양강좌, 전통교육, 체험학습	필암서원 연수원
전남 하동	죽수서원	역사탐방, 전통공연, 문화체험	지역시민단체
전남 영암	국암서원	다례, 전통의상, 서원견학	학생대상교육
충북 괴산	화양서원	전통체험, 문화탐방, 교양강좌	지역시민단체
충북 괴산	계암서원	교양대학 운영	지역 유림
충남 논산	돈암서원	예절교육, 한문교육, 체험	지역시민단체
광주 광산	월봉서원	전통공연, 문화강좌, 체험교육	지역시민단체
대전 서구	송현서원	서원안내, 전통교육, 문화강좌	선비문화체험

자료: 한국서원연합회(2011)자료와 필자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셋째, 유교의 현대화와 서원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향교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열린 유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상시 개방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물론 모든 서원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지역별로 안배하여 점차 확대시켜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의례와 복잡한 형식을 현대에 맞게 개선하는 현대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서원의 활용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서원 활용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3. 활용의 당면 과제와 활용 방안

1) 활용의 당면 과제

문화재는 이제 단순히 정적인 보존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나 도시나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민간개발업자까지도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활용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⁵⁾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공간이며 역사, 교육, 인물, 기록 등 우리의 훌륭한 문화 유산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이다. 최근 서원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이해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서원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활용 방안과 프로그램은 고답적인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대중에게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율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당면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활용 시설 확보(Hard ware)이다. “문화재 활용의 근간은 보존이다.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용을 생각할 수 없다.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은 활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⁶⁾ 아울러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 즉 화장실, 세면장, 숙박시설, 식당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서원 건축과 조화를 이루며 신축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서원의 본래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며 동·서재와 기타 공간을 활용해 교육과 숙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원 활용은 사찰에서 시행하는 템플스테이와 다른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원의 현황으로는 인력 및 시설 등 부족한 면이 많아 경제성도 떨어진다.

둘째는 인적 자원 확보(Human ware)이다. 서원은 교육기능과 제향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향에 필요한 인력은 유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교육과 체험 등의 활동에 적합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유교에 대해 금장태는 “유교조직의 성격이 이미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므로 시대변화의 추이에 더욱 멀어져 가고 대중화되지도 못하고 있다.”⁷⁾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원의 운영주체가 연로한 유림 집단이나 문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과 체험, 관광안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도 없는 학교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들 무슨 의미를 주겠는가. 유교나 서원에 대한 비전문가가 서원에 거주하거나 운영을 담당한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님이 없이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서원에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78쪽.

6.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83쪽.

7.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 248쪽.

셋째는 프로그램 개발(Soft ware)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한정적이다. 서원이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 출입하는 공간이라면 오늘날도 그러한 기능을 회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원의 특징을 살려 특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공통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통프로그램은 유교 경전과 한문교육, 예절교육, 서예 등 전통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느 서원에서나 활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특별 프로그램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적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가 구별 없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서원의 이미지를 제고하지도 못하고 대중적 지지나 관광 명소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

2) 활용 방안

서원은 중요한 문화재로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서도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항목에서 ‘서원·향교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보존 항목에서는 서원·향교 등의 문화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요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서원의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이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서원 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서원의 가치와 기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⁸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을 살려 관광, 교육, 산업, 상품, 콘텐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⁹ 이해준 교수는 유교문화 자원 활용의 기본방향을 1)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산, 2) 도덕성, 공공성 기반의 확보, 3) 활용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복원이라고 제시하며¹⁰ 첫 번째 항목에 가치 재생산을 언급하였다. 서원의 가치는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적 측면을 모두 함축한 장소라는 점에 있지만 조선시대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는 한 활용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교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21세기형 서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원 건축물은 비록 과거의 건물이지만 활용의 내용에서까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활용의 의미도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는 서원 활용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야 한다. 교육인지, 체험인지, 관광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 한 개의 서원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역량에 비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서원 활용이 갖는 정신적 가치-선비정신, 전통에 대한 가치, 현대적 가치-에 대해 명백한 정립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현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 유림, 서원 관계자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문화재청, 2009, 25쪽)에서는 “가치의 확대 과정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가치의 재인식, 가치의 전환, 가치의 극대화, 가치의 융합, 가치의 재창조 등이다.”라고 하였다.

9.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33쪽.

10. 이해준, 「기호유교문화와 자원활용」, 『畿湖儒敎文化와 遼巖書院』,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대전일보사, 2011, 11~14쪽.

다음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안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필자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김양식 박사는 서원 활용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육·학습공간으로의 활용, 둘째는 전통 문화 체험공간으로의 활용, 셋째는 축제공간으로의 활용, 넷째는 수행공간으로의 활용, 다섯째는 문화콘텐츠 문화요소로서의 활용, 여섯째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다.¹¹ 사실 서원 활용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것을 공간적 차원의 활용에 국한해서 언급하며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서원 공간을 활용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예학, 성리학, 인성 교육, 한문교육, 경전교육, 고전 배우기, 다도교육, 한시작법 등과 같은 분야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유교적 특징을 담아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현대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비들이 최고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던 공간이 서원이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능을 살려 나갈 수 있다. 과거 선비들이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배웠다면 오늘날은 모든 국민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 서원의 문화를 설명하는 경시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서원에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덕망 있고 지식을 갖춘 어른이 있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서원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이름만 빌리는 서원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행위가 서원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어른을 서원에 출입하도록 하고, 그분을 잘 모시는 행위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서원의 위상은 저절로 정립될 것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심적 고통을 안고 학교 생활을 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덕망 있는 어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인성교육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둘째, 유교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체험은 체류자 또는 방문자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은 관례, 혼례, 제례, 강학례, 고유, 분향, 향사례, 기로연, 속수례, 향음 주례, 사상견례, 향사례, 투호, 수행, 전통 음악, 서예, 시조, 서화, 차, 한복체험, 전통놀이, 탁본 등이다. 이밖에도 유교문화와 관련이 없지만 전통문화의 범주에서 도자기 만들기과 천연염색, 공자의 六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避靜이나 사찰에서 실시하는 수행의 방법처럼 유교식 靜坐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이다. 전통문화를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자연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로 나누어진다. 자연적인 요소에는 마을경관, 수자원, 수목, 기후, 환경 등을 들 수 있고, 문화적인 요소에는 역사, 건축, 축제, 농사, 음식, 제사 등 유·무형의 인위적인 요소를 말한다.¹²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서원의 관광자원은 축제, 박물관, 유품전시, 한시백일장, 한복패션쇼, 국악한마당, 서원음악회, 가훈 짓기, 유가행렬, 효 가요제, 4대 동거 가문 표창 등이다. 서원에서 반드시 전통 음악만 연주해야 하는가? 서양의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활용

11. 김양식,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 『도봉서원활성화 방안 연구』, 도봉구청, 2011, 32~34쪽.

12.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58쪽.

방식도 보고 즐기는 관람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관광 형태도 기존의 단순한 여행 형태에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직접 참여하는 체험관광형태로 바뀌고 있다. 즉 국민들의 관광 현상이 활동, 모험, 공상, 향수, 그리고 이국적 체험 등이 강조되는 체험지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4. 향후 과제와 전망

우리는 이제 전통문화를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보존한다면 어떠한 것을 보존할 것인가? 보존에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현대에 맞게 변형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유림이라는 집단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는 유림만의 전 유물이 아니다. 서원과 같은 유교문화는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유산이며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계승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것들을 잘 선택하여 계승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3년 상을 지내지 않는데 3년 상을 지내도록 요청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시대가 변한 만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유교는 時中之道를 중요하게 여긴다. 불변하는 도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도리를 찾아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중 지도다. 15세기의 옷을 21세기에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2012년,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었다. 드라마 대장금을 시작으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최근에 유행된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비롯한 K-POP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한류 열풍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자국민보다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류에 대해 기쁨과 우려가 동시에 다가옴을 부정할 수 없다. 세계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며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니다. 즉, 내실을 갖추고 외연이 확대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한류의 모습은 내실 없이 외연만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13.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52쪽.

한류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공된 문화현상의 기저에 깔린 정신을 발굴해서 세계화시켜야 한 다는 말이다. 근본이 없이 가지만 왕성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오랜 역사와 문화의 바탕에 깔린 정신적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발굴되지 않고서는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열풍도 한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 모른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다양한 사상적 토대 위에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유교라는 뿌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며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뿌리다. 따라서 유교라는 뿌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한류의 근본정신을 알릴 수 없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희망할 수도 없다. 유교를 뿌리로 하는 우리의 정신문화는 서원이라는 독특한 아카데미를 통해 보존, 계승되고 있다.

유행은 한 때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유행을 만드는 정신적 뿌리는 영원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류 열풍의 근본 뿌리인 유교와 유교의 전통을 계승한 서원문화는 미래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원형보전 원칙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되면서도 박제화 된 역사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속에서 함께 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서 문화재와 문화재 또는 사람, 장르, 매체 등을 결합하여 융합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융·복합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서원도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서의 만남, 溫故知新, 法古創新의 자세로 서원 활용에 임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서원이 될 것이다.

성균관에서는 1990년대에 유교 현대화 3대 지표로 유림조직의 대중화, 유교이론의 현대화, 선비정신의 실천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말만 있을 뿐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원 활용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고견을 모아 정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서 문화적 재창조를 위한 과제는 바로 안주의 편안함이 아니라 개혁에 따르는 진통을 감내하는 용기와 신념에 기반한다.”¹⁵ 공자를 표현하는 “繼往聖 開來學”은 과거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원은 그 가운데 핵심에 놓여 있는 자원이다.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의 유형과 형태,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¹⁶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유림과 전문 학자들의 실천 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14.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80쪽.

15.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 256쪽.

16.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9, 35쪽.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

1. 유산의 ‘활용’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조건

‘유산’에 관련된 어휘의 정의나 개념을 면밀하게 짚어가며 학술적 논의를 전개해 온 전통이 우리 학계에 항상 있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도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다르고, ‘보존’과 ‘보전’이 다르고, ‘복원’과 ‘재현’이 다르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논의는 학자들 간에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비해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유사한 논의를 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언젠가부터 거부감을 주지 않는 친숙한 일상용어로 우리 사회에 이미 자리매김을 해버리지 않았나 싶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9년 4월 문화재청은 행정 조직을 재편하면서,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정책과 동급으로 문화재 활용이라는 이름을 내건 하나의 국(局)을 새로 만들었다.¹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활용’이라는 행위는 이제 보편화된 전략이자 목표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그런데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선 던져보고 싶다. 현재, 문화재청은 ‘활용’의 영문표기를 ‘Promotion’이라는 어휘를 택하여 그 의미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한편, 유산보존에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들이 지난 50여 년간 제시해 온 제반 보존원칙에서 우리의 ‘활용’에 가까운 용어로 오히려 ‘사용’, 즉 ‘use’라는 어휘를 쓰며 그 내용을 정리해 왔다. 이 내용을 추적해보면, 유산의 사용 혹은 활용이라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할 기본 조건들, 때로는 매우 불편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짚어 보고자 한다.²

유산의 보존에 관련된 여러 국제원칙은 현재 90여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1964년의 베니스헌장을 꼽을 수 있다.³ 베니스헌장 5조는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활용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여러 조건을 일깨운다.

“Article 5.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is always facilitated by making use of them for some socially useful purpose. Such use is therefore desirable but it must not change the lay-out or decoration of the building. It is within these limits only that modifications demanded by a change of function should be envisaged and may be permitted.”⁴

1.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 행정 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2009.04.28.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346395§ionId=b_sec_1&mn=NS_01_02

2. 이 부분은 2011 ICOMOS General Assembly Scientific Symposium에서 발표했던 본인의 논문의 내용을 참고로 했다. Sohyun Park, 2011 “Precautions for Heritage to be a Driver for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Related Principles manifested in the ICOMOS Charters” <http://icomos.org/en/component/content/article?id=477:icomos-17th-general-assembly-scientific-symposium-proceedings>

3. 문화재청 (2010),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박소현

4. 베니스헌장 제5조. <http://icomos.org/en/charters-and-texts>

이 원칙에 의하면, 유산의 보존은 항상 유산의 활용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socially useful purpose)”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특정 유산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특정 유산이 갖는 가치의 해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용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각 참여주체들 간에 공감대를 갖는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산활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소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의 주요 이슈는 ‘지역활성화’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유산활용의 스펙트럼은 실로 넓고 다양한데, ‘지역활성화’라는 주제를 매개로 하여 도시개발, 지역개발의 영역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이런 노력에서 명백히 지적하고, 인정하고, 경계를 해야 할 내용을 도출해보지 않았고, 논의와 합의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본질상 피할 수 없는 상충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산-보존-활용-개발’로 이어지는 연동 개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산-보존-활용-개발, 이 연동 개념에서 인정해야 할 사항을 국제보존원칙 내용에 근거하여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⁵

- 1) 지역개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유산의 활용과 유산의 보존에는 필연적으로 유산가치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
- 2) 개발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산에 위협적인 요소를 내포해 왔고, 이는 향후에도 그럴 소지가 크다. (개념적으로 개발과 보존에 관한 이분법적 논의는 언젠가부터 구태의연하게 들리고, 개발과 보존은 공존할 수 있다는 언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개발이 갖는 여러 속성은 근본적으로 유산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3) 유산의 진정성은 지역개발에서 대표적으로 추구되는 목표의 하나인 경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타협해도 되는 성질의 개념이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산의 진정성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현장에서는 유산의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 4) 여러 보존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눈여겨볼 만한 개념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 socially useful purpose’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적절한 사용 appropriate use’ ‘현명한 사용 wise use’ ‘안정적 개발 stable development’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등등은 유산활용이 지역개발의 매개로 활용될 수 있는 중재적 영역의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우리나라 유산보존 관련 분야에서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수사에 그칠 수 있겠으나, 보존과 개발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고한 전략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5. Sohyun Park, 앞의 논문. () 안의 내용은 부연 설명을 위해 이번에 추가된 부분.

- 6) 여러 가치충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산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기
에, 더욱 창의적인이고 세심한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1. 유산보존에 관한 국제원칙 현장에서 유산활용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정리.

TYPE	YEAR	PARTIAL LIST OF ICOMOS DOCUMENTS, REVIEWED	KEY CONCEPTS
CHARTER	1964	VENICE CHARTER	Use for socially useful purpose
	1981	FLORENCE CHARTER, HISTORIC GARDENS	Access restriction, everyday use, occasional use, public use,
	1987	WASHINGTON CHARTER,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	effective conservation, new functions and activities, adaptation coherent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990	CHARTER FOR THE ARCHAEOLOGICAL HERITAGE	land use control, integral to land use, planning, and development
	1996	CHARTER FO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struction works, insensitive /commercial exploitation, access control,
	1999	CULTURAL TOURISM CHARTER	Excessive/poorly-managed tourism, too much tourism related development, sustainable way, poverty alleviation, revenue derived from tourism
	1999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Continuous us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approaches, sustainability
	1999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Sustainable preservation/development policy, integrated within the needs of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2003	ICOMOS CHARTER- PRINCIPL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For any change of use/function, conservation and safety conditions needed
	2003	ICOMOS PRINCIPLES FOR WALLPAINTINGS	Restrict regional, urban or architectural development, control public use
	2008	CHARTER ON CULTURAL ROUTES	Activity of social/economic interest, stable/sustainable development, Appropriate/sustainable use, public use plan, rational management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new economic strategies for marketing/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sites, equitable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to all
DECLARATION	1972	RESOLUTIONS,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TO ANCIENT GROUPS OF BUILDINGS	Contemporary architecture introduction, feasible in town-planning scheme/future development, in acceptance of existing fabric
	1975	RESOLUTIONS, CONSERVATION OF SMALLER HISTORIC TOWNS	Economic function of small town-no disruption/dereliction, Respect scale, character, visual qualities, town fabric, appropriate new use,
	1982	DECLARATION OF TLAXCALA	Regional planning means, fight for socio-economic conditions/quality of life
	1982	DECLARATION OF DRESDEN	New social use, use of great public significance, residential use
	1993	GUIDELIN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ENSEMBLES AND SITES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change, economic and social goals including tourism
	1996	DECLARATION OF SAN ANTONIO	Authenticity,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al tourism, revenue

TYPE	YEAR	PARTIAL LIST OF ICOMOS DOCUMENTS, REVIEWED	KEY CONCEPTS
DECLARATION	1998	STOCKHOLM DECLARATION	Right to wise and appropriate use,
	2005	XI'AN DECLARATION,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Management of setting, planned creative acts, effective planning, comprehens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or systems

출처: Sohyun Park (2011).

2. 유산활용의 관점에서 본 서원의 최근 풍경과 보존관리 상의 쟁점

2013년 12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유산 목록 가운데, 2015년 1월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으로 서원을 공식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9개의 서원에 대한 현장 점검 답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다.⁶ 그동안 신청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온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의 현황을 재점검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원의 활용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⁷

유산활용이라는 측면에서 9개의 서원이 갖는 고유특성인 ‘교육’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서원 유산의 내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강학의 전통을 이어 현재에도 수강생들이 정기적으로 강당 등에 모여 학습을 하는 경우이다. 참여대상과 방식에서 각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9개 서원 대부분에서 유산공간을 여전히 사용하며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역사성이 있는 유산 공간 자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서원 유산 내부에 관련 공간을 신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역사성 있는 서원 경내에 새로운 교육관련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70~8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었고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첫째 유형에서의 쟁점은 해당 유산의 자체를 교육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르는 훼손의 위협에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가 어떤 근거로 사용제한 등의 대처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가이다. 몇 백년을 견뎌온 목조건축인 서원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일반인이 상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이미 일정 건물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더 확산되리라 전망한다. 이 추세로 보면, 교육공간은 별도의 건물에서 제공되는 것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서원의 내부 구역에 건립된 유물관과 교육관 등의 지속적 이용과 관련된 쟁점이 또한 존재한다. 서원의 ‘원형보존’ 혹

6. 이번 현장 점검 답사 때 도움을 주신 9개의 서원과 해당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점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논의 및 합의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7.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 중 보존관리 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원이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다. 신청서의 보존관리 파트는 목원대 이왕기교수님, 배재대 최중현교수님 그리고 저자가 함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은 ‘진정성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70~80년대에 새로 지어진 서원 내의 교육관련 시설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취할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점이라 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철거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여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가동 할지, 70~80년대 유산보존 역사의 증거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존중하여 해석하고 보존할 것인지 등등 세심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둘째 유형은 서원 유산의 인접 외부공간에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추가 건립하여 그곳에서 교육, 전시, 집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필암서원 주변의 박물관 및 청소년교육 등 지원시설; 도산서원의 선비수련원 등; 소수서원의 선비촌; 옥사서원의 박물관 등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계서원의 경우 현재 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서원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둘째 유형에서의 쟁점은 역시 서원 주변에 새로 건립되는 교육 및 체험시설의 품격, 규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원과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적절한 균형과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유산-보존-활용-개발의 연동관계로 인한 위험성이 서원유산을 오히려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유산-보존-활용-개발의 연동된 추진은 사실 현재 지역개발의 동력이 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개발 개념과 내용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 서원유산을 통한 교육과 체험을 앞세워 관광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지역개발의 효과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의 추진을 위한 재원도 문화재청이 아닌 정부부처로부터 받게 되고, 지향하는 가치도 역사보다는 문화를 더 강조한 관광개발이 우선시 될 소지가 크다.

셋째 유형은 인근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교실로 가서 예절교육 등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서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서원유산의 물리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유산 자체의 훼손에 관한 우려가 없고, 오히려 교육내용과 전달방식 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들을 크다.⁸

8. 유산 교육의 내용 개발을 위한 해석, 표현, 홍보, 시행 등은 유산보존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9개 서원 모두 나름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재신청서 부록에 첨부될 보존관리계획에 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유형1. 도산서원 건물 직접 활용



유형2 남계서원 주변신축시설 활용



유형3. 동동서원 기관방문 교육

사진출처: 박소현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아우르면, 결국 서원의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있는 각종의 다양한 개입 및 행위들은 방문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visitor service) 와 내용 경험 (visitor experience) 로 대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⁹ 먼저 서원의 활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visitor service), 예를 들면 화장실, 안내소, 주차장, 접근로, 식수대, 등등 이 필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이 서원유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설치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이룬다. 더욱이 9개의 서원이 하나의 연속 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9개 서원에 설치된 안내판의 통일된 양식같은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서비스는 서원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고, 특히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품격은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9. 서원활용의 종합적 점검을 'visitor service' 와 'visitor experience' 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체계는 Christian Cameron 교수와의 현장점검 및 신청서검토 종합토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로 했다. 최 종희의, 2014년 4월 10일 오전 10시-12시, 서울 '경희궁의 아침' 회의실, 녹취메모 보관: 이상해 박 소현.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함에 있어 화장실을 포함하는 기본서비스 시설의 공동개선이 시급함

사진출처: 박소현

한편,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의 경험 (visitor experience)을 기반으로 서원의 활용이 의미있어 지는데, 이 때 경험하는 내용의 도출은 서원과 서원 기능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표현, 전달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9개 서원 각각이 가지는 특별성도 중요하지만, 연속유산으로 함께 등재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9개 서원이 하나의 유산으로서 제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홍보 및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 예로, 각각의 서원 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안내브로슈어, 및 지도 등등은 현재 9개 서원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해당서원에 관한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9개 서원을 하나의 세트로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창의적으로 개발, 표현,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 통합적 내용 경험의 총괄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할 것인가도 합의를 해야할 이슈이다. 현재 연속유산 서원의 통합적 보존관리기구의 간사역할을 (사)서원연합회의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맡고 있는데, 등재 이후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통합 보존, 관리, 활용하는 실무주체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어야 한다.

3. 보존관리 현황: 사적종합정비계획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의 관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보존관리 수단의 대표적인 예는 크게 두 부류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서원의 여러 보존관리 현안들은 단계별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들인데 이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이 지원하는 사적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제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

표2.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제도적 지원 체계

출처: 박소현 (2011)



표2와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종합정비계획은 국가가 지정한 사적에 대해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문화재 자체의 원형보존, 보수, 정비에서부터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 향후 보존관리 작업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¹⁰ 최근 이 계획의 중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부각되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사적 483개소에 대해 180여 건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¹¹

한편, 보존관리 계획의 제도적인 수단으로 사적종합정비계획이 갖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의 사적종합정비계획은 이전의 것에 비해 그 내용의 질이 훨씬 높아진 면도 있지만, 사적종합정비계획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질이 높아지려면, 이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정상적 가동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되어야 하리라 본다.¹²

10. 문화재청, 2009,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박소현, 2011, “세계유산보호체계와 국내유산보호체계 비교,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종합정비계획’을 중심으로” ICO-Forum 발표자료.

11.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놀와. p.107,

12. 사적종합정비계획의 문제는 비단 서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적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각 단계별 문제점은 심층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것은 추 후 논의 한다.

표3. 사적종합정비계획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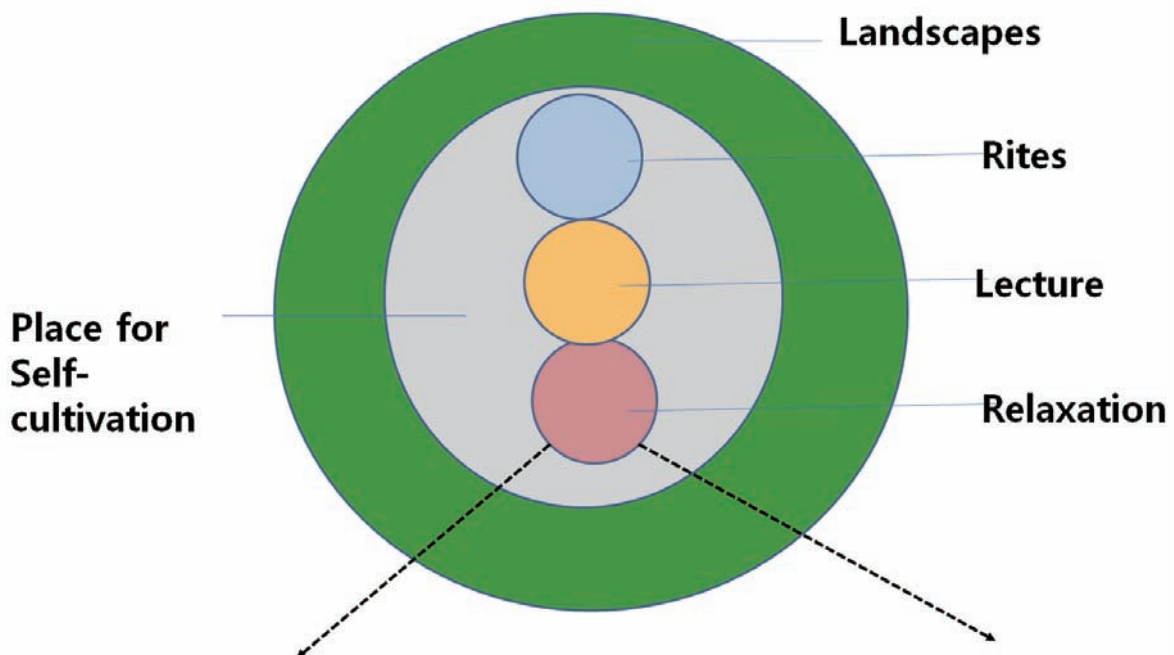
출처: 박소현 (2011)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77호 (2009.9.27 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른 관리단체 선정, ‘시행령’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정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원형 보존 •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 • 무분별한 과잉복원 지양 •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 환경 종합적 고려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합리적 조화 도모,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이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
계획수립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단체 (법 34조 근거)
계획수립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혹은 10년단위 정비계획 수립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은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수립
추진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전에 추진계획 작성 •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목적 및 방침 /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 추진일정 / 향후 시방안 / 기타

9개 서원 모두가 국가지정 사적인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적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몇몇 계획은 비교적 내용이 좋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고, 특히 구체적인 실행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활용계획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항들로, 주변 환경의 정비와 개발에 대한 태도이다.

표4. 서원의 OUV를 내포하는 공간체계의 다이어그램

출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2014



서원이 갖는 중요성, 즉 자연환경-제향-강학-유식의 공간체계를 존중하며 비교적 무난하게 주변환경 정비가 이루어진 곳도 있으나, 아직 이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로, 무성서원의 주변환경에 대해 적절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한편, 주변 환경 개발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한데, 체험관, 유물전시관 등 부대시설의 계획이 종합정비계획의 자체 내용으로 제안되기도 하고, 타 관광계획에 의해 제공된 시설들을 제어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결국 유산활용의 명목으로 개발과 관광에 대한 경계심을 자발적으로 해제해 버린 우리사회의 정황도 있다. 9개 유산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속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남계서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9개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의의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일로 하나를 꼽으라면, 등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보존관리 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에 의해 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용해 왔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해오던 보존관리 방식을 한 번 더 상향시켜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9개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전 세계와 후대에 좀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보존관리 상의 문제점 혹은 부족한 점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고, 9개 서원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현황을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9개 서원 모두, 보존관리 상의 아쉬운 점들을 현재 다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적 심정적 지원을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점이 현명하게 사용 하게 되길 희망한다.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1. 서론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 등재대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의 자치단체,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공동으로 등재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2016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달성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의 하나가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이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이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기원은 조선시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교육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었는데 중앙에 대학적인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사학인 서원과 관학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한국인 교육열의 출발점이었으며, 한국 교육입국의 상징적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한국 교육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하다. 서원은 건축미도 뛰어나 건축문화유산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원은 교육과 제향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는 유교의 중심 기관이다. 이제 서원은 한국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이 지닌 진정성,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기에 지금 한국 정부와 문화계는 서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672개의 서원이 있다. 그런데 이들 서원의 현실을 살펴보면 서원의 제향과 교육 기능 두 가지 기능 중 제향 기능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교육 기능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교육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서원이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원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교문화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시대와 맞지 않은 낡은 과거 유산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서원을 교육 기관으로서 큰 비중을 두지 않다 보니 서원의 운영 시스템은 취약하다. 서원의 현재 인적 구성, 공간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구조 등 운영 시스템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서원은 살아있는 교육, 문화공간이 아니라 박물관 속의 박제화된 유물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본고는 서원의 현 실태를 개선하여 서원이 다시 우리시대 중요한 교육기관,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서원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서원이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기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¹

1. 본고는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윤유석, 임영상, 박성진, 최정준, 이성학, 윤여빈, 이지훈, 김선혜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인 『경기도 유교 문화 현 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연구』 내용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보 고서에 인용한 글은 일일이 주를 달지 않았다.

2. 서원의 역사와 현재 모습

1) 서원의 역사와 가치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주자가 백록동에 서원을 세운 남송시대와 원, 명을 거치면서 성행하였다. 한국에서 서원의 역사는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을 창건한데서 시작되었다.²

조선의 교육 체제는 중앙에 국립대학 격인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관학인 향교와 사학인 서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이 번창할 때는 서원과 성격이 비슷한 사우까지 포함하면 서원은 909개소였다. 관학인 향교를 포함하면 조선후기에 지방에는 1,200여개의 학교가 있었다. 이처럼 잘 짜인 교육 시스템이 조선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³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서원은 구성원들이 배우고 본받고 싶은 분을 모셔서 제사를 지냈고, 여기서 선비들이 길러졌다. 조선시대 서원 건물은 호화롭게 지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지녔을 경우라도 규모는 작았으며 질박하였다.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과 정신을 중시하는 선비가 공부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기 때문이다.⁴ 서원은 이처럼 조선시대 교육의 중심기관이면서, 제향을 통해 유교의 전통, 유교 사회 문화 체제를 유지시키는 문화기관 이기도 하였다.

2) 서원의 현재 모습

(1) 서원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서원 수는 672개소이다. 서원은 향토유적을 포함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70개소이다. 2010년 12월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숫자가 167개소에 불과했는데, 2년 동안 103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비지정 문화재 서원은 402개소로 비지정 서원과 문화재 지정 서원은 6:4 정도이다.

서원이 빠른 속도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복원된 서원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서원 자체의 재정적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서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유림들이 충당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서원을 출입하고 운영하는 유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서원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의 하나이다.

서원을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672개소 중 유림이 관리하는 곳은 375개소 (65%)이고, 문중이 255개소(3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10개소, 사단법인 5개소, 학교법인 5개소, 개인관리 20개소 등이다. 여기서 유림이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관리권을 지역 유림들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문중이라 함은 단일 문중에서 설립한 서원이거나 혹은 유림들의 관리가 불가능 한 경우 주향의 후손

2. 「서원」, 『한국민족문화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985&cid=404&categoryId=404>)

3. 강진갑 외, 2013, 『경기도 유교 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연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5쪽.

4. 최준석, 「서원」(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2&contents_id=4433),

들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처럼 관리사무소를 서원에 두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와 새로 복원 혹은 중수 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이 자치단체로 기부 채납되거나 소유권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경우를 말한다. 사단법인으로는 사충서원, 설봉서원, 송록서원, 장절서원, 충현서원 등 5개소가 있으며, 학교로 귀속된 곳 또한 병산서원·역동서원·구계서원·화산서원·백학서원 등 5개소이다. 20여 개소는 개인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2) 서원의 교육 기능 약화

현재 서원 상당수는 제향 기능만 남아 있고 교육의 기능은 매우 약해졌다. 그러다보니 특히 민간에서 관리하는 서원의 경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며 언제나 문이 닫힌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복구한 서원이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몇몇 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散在)하는 서원 상당수가 해당되는 문제이다.

3. 한국사회 인문학에 대한 관심 고조와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

1) 한국 사회에 부는 인문학 열풍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인문학 강좌에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인문학자들이 모였다 하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였는데, 여기저기서 인문학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기업 정신이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을 결합하는데 있다고 발언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⁵⁾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자세를 찾기 시작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하는데 비해 행복을 느끼는 국민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8,402달러였고, 2011년에는 2만 2,489달러였다. 2.7배나 성장하였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산업화를 19년 만에 달성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은 크게 늘어났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8,402달러였고, 2011년에는 2만 2,489달러였다. 2.7배나 성장하였다. 그런데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민의 수는 1993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은 52%이다. 1%도 늘지 않았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회지표 중 하나가 기대수명이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201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27세이다. 2010년 유엔이 조사한 세계 기대수명인 67.9세, OECD 국가 평균 78.9세보다 높다. 19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1.93세였는데, 40여 년 만에 31%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의료

5. 강영안, 2013, 「이웃의 인문학: 이웃은 누구인가?」, 『2013년도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 이웃의 인문학』,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수원시·한국연구재단, 7쪽.

시스템 개선, 국민의 영양상태 개선의 결과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객관적인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다.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012년에는 24위였고, 2013년에는 27위로 떨어졌다. 자살률은 세계 2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자살을 하였다. 2010년 OECD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2.6배 높다. 더욱 문제는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2005년 남자는 45.1명 여자는 18.6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남자가 49.6명, 여자가 21.4명으로 남자는 10%, 여자는 15% 늘어났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⁶

행복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2010년 한국을 방문 하여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에서의 불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하위 수준이어서 놀랍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고 풀이 죽어 있다고 하였다. 에드 디너 교수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성취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슬픔, 권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낄수록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한국사회의 물질주의에서 찾고 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면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할 수가 없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었으면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나면 집의 크기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⁷

2013년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OECD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중 54.9%가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OECD 기준으로 고소득층인 사람 중에서도 24.0%가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주관적인 행복감이 상승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유한 재화의 많고 적음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 물질주의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주의와 더불어 주위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같은 공동체

6. 강진갑, 2013,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문화융성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김장실 국회의원실.

7. 강진갑,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문학」, 『경기신문』 2013년 4월 3일자.

8. 「현대연구 "OECD기준 중산층 55% '나는 저소득층'"」, 『연합뉴스』 2013년 8월 27일자.

에 속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이다.⁹ 한국인들은 그동안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그 결과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물질적인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훌륭한 관계 맺기이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학교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제자와의 관계 등에서 만족하는 이들은 설사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타인과의 관계만 만족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양자가 모두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조건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 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문학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천천히 관찰하게 해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나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나와 관계를 가진 타인, 그리고 인류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¹⁰ 피로한 사회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이들이 인문학에서 그 길을 찾으려 하기에 인문학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행복이 인간관계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사회의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살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호해 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판적 시민 정신이다. 인문학의 본질은 비판정신이다. 인문학은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에 계도 필요하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¹¹

2)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의 현장을 가보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은 문사철(文史哲)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한국 인문학 역사에서 유학을 빼놓을 수 없다. 유학이 문사철을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인문학 열풍의 현장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유교는 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인가?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우리 시대의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유학은 우리시대에도 통용되는 인문학이 될 수 없는가? 유교에 대한 현대 한국인들의 반

9. 강진갑, 앞의 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문학」.

10. 강진갑, 「치유와 희망의 인문학」, 『경기신문』 2013년 5월 16일자.

11. 강진갑, 2013,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과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문화제 50주년 기념 문화포럼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 와 수원화성문화제 자료집』, 9-13쪽.

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유교가 여성 차별적이고, 충과 효를 강조하는데서 보듯이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 정실주의와 보수적이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1985년과 2005년도 통계청의 종교인 통계를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등 한국의 모든 종교의 신자가 늘고 있는데, 유독 유교만 신자 수가 483,366명에서 104,575명으로 78.4%가 줄었다. 한국 사회는 유교를 버리고 있다.¹²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교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도 1919년 5월 4일 일어난 신문화운동 시기에 유교는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탄받았다. 세계 문화를 주도해 온 강대국 중국이 19세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속절없이 무너지자, 중국 지식인들은 그 원인이 유학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체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¹³ 20세기 들어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유교를 멀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유교에 대해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한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조선시대 유교의 역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세계 학계에서도 유교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 이들 국가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고 유교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힘을 유교에서 찾으려 하였다. 학계의 평가는 이처럼 달라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한국 유교가 조선시대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발전된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라서 현대 자본주의와 맞지 않아서인가?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대부분이 지금부터 1,500년에서 2,000년 이전 시기, 유목사회 또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나 지금 세계 종교로 인류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유교만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필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것이 이유라 생각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는 모두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의 경전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 이기 힘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계적인 종교는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정리되어 오늘을 사는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유교는 어떠한가? 유교도 그 발상지인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각각의 시대에 맞추어 끊임없는 재해석의 과정을 밟아왔다. 성리학이나 양명학, 실학 모두 당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20세기 한국사회는 전반기에 식민지를, 후반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상적으로 서구사상이

12. 강진갑, 2014,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유교와 유학」,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칼럼 일흔 한 번째 이야기. (<http://www.itkc.or.kr/itkc/post/PostServiceDetail.jsp?menuId=M0491&clonId=POST0019&postUui=uui-05cf172d-7a06-4266-ad49-207d>)

13. KBS 인사이드 아시아 유교제작팀, 2007, 『유교 아시아의 힘』, 예담, 405쪽.

14. 강진갑, 앞의 글 「인문학도시 수원 만들기과 수원 화성문화제」, 16-17쪽.

유입되면서 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는 20세기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¹⁵

그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유교와 유학이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가치체계이고 현세에 별 쓸모없는 낡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유교에 대한 냉담은 유교 자체에 대한 보수정보다는, 재해석하여 시대에 맞는 변화의 기회를 놓친 유교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유교가 지금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유교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 유학자 장재(張載)는 모든 사람이 동포라는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효라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 모든 사람은 나의 동포요, 여타 사물과 생명들은 내 친구이다. 군주는 집안의 만이에 해당하고 대신들은 그 만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내 집 어른을 받드는 것이고, 힘없고 외로운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내 자식을 거두는 일과 같다. 위대한 자는 이 덕성이 몸에 밴 사람이요, 현자는 우리 중 뛰어난 사람이다. 천하에 고단하고 병든 사람, 부모 없고 자식 없고 지아비 없는 사람 이 모두 나의 형제이다. 넘어지기도 호소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 덕성을 지켜가는 것이 아들 된 도리요, 이 길을 싫어하지 않고 즐겨 따르는 자가 진정한 효자이다. 이 덕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패덕이요, 인간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장재는 사회적 약자야말로 우리 형제인데 이들을 돕는 것이 효자라고 하고있다. 효를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효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장재에게서 읽을 수 있다.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성인은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사람 모두를 동포로 보자는 퇴계와 장재의 글은 사해동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인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다. 이 두 가지 인용 사례가 유교에 내포되어 있는 인류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효를 강조하는 서원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세계인을 같은 동포로 보고, 아프리카 어린이를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 빈곤지역 사람들을 돕자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국과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도 유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서원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일이 이러한 일들이 아닐까?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가 유교와 서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5. 박연규, 2013, 「율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운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논평, 프린트본.

유교를 우리 시대에 맞는 가치,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 시대의 훌륭한 문화자산이 되게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한 재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서원이 앞서서 이를 연구, 교육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유교가 변할 때 일반인들은 유교를 우리 시대의 소중한 문화, 정신적 자산으로 받아들일 것이다.¹⁶

4. 서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개선 방안

1) 한국인들의 선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를 길러낸 교육기관인데, 선비에 대한 한국인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14년 2월 중앙일보에 실렸다. 한국인 75%가 선비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12%에 불과하였다. 조선 시대 유교 사회를 이끈 선비를 좋게 보고 우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 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5.1%는 그 이유로 선비의 ‘인격 수양’을 23.7%는 ‘청렴’을 들었다. 선비정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권위주의’ ‘당파 싸움’ ‘융통성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선비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가 각각 41.55와 45.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¹⁷ 선비 정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으로 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통계는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유교가 다시 우리 사회의 문화자원, 정신 자원이 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회적 신호라 생각된다.

왜 유교와 유학을 우리 시대의 문화자산, 정신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국 역사에서 전통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조선 시대 문화이다. 조선 시대 문화는 유교문화이다. 때문에 우리가 전통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유교와 유학을 버릴 수 없다. 유교와 유학을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인문학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교와 유학이 우리 시대의 문화 자원, 우리 시대 문제에 답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화 작업을 계속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유학과 유교의 현대화는 서원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위기에 처한 세계 어린이를 돕는 일과 같은 조그마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서원 활성화 기본 방향

서원의 활성화는 서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강학 기능 즉 교육, 연구 기능을 회복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유학에 대한 재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과 인성교육, 한문교육, 경전교육, 고전 배우기, 다도교육, 한시 작법 등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6. 강진갑, 앞의 글「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유교와 유학」.

17. 「국민 75% 선비정신 중요」, 『중앙일보』2014년 2월 23일자.

그리고 서원을 유교문화 체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체험은 체류자 또는 방문자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관례, 혼례, 제례, 강학례, 고유, 분향, 향사례,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투호, 수행, 전통 음악, 서예, 시조, 서화, 차, 한복체험, 전통놀이, 탁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공자의 육예(六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피정이나 사찰에서 실시하는 수행의 방법처럼 유교식 정좌(靜坐)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서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1) 활용 시설의 확보

활용 시설 확보이다. 먼저 서원 자체를 활용하여야 하지만 교육 기능이 확대되면 인근의 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서원이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위로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경북이나 경남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남명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유학 연구와 편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철학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호유학이 경기실학, 위정척사의 호국 의병운동으로 확대되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에 한국기호학연구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 논산 시 또한 김장생·김집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기호유학 선양기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도 경기유학의 중심 거점이 건립되어 타 지역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도 경기국학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2) 인적 자원의 확보

인적 자원 확보이다. 제향에 필요한 인력은 유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교육과 체험 등의 활동에 적합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유교에 대해 금장태(서울대 교수)는 “유교조직의 성격이 이미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전통을 고수 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므로 시대변화의 추이에 더욱 멀어져 가고 대중화되지도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서원의 운영 주체가 고령층 중심의 유림 집단이나 문중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하여 유교 교육과 체험, 관광안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사도 없는 학교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님 없이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서원에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3)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한정적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최고의 지식인이 출입한 공간이었다. 오늘날도 그러한 기능을 회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원의 특징을 살려 특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통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통 프로그램은 유교 경전과 한

문교육, 예절교육, 서예 등 전통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느 향교·서원에서나 활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특별 프로그램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적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효 가족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효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획은 효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우리시대에 맞는 가족 사랑으로 재해석하는 일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효행상 대상자 선정 방식부터 바꾸어 보자. 자 기희생적인 효를 실행한 사람 외에 즐겁게 효를 행한 사람에게도 효행상을 시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우리 시대 며느리와 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효, 가족 사랑운동을 펼쳐나가자, 효 가족사랑 매뉴얼을 개발하여 효를 즐겁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해 줄 ‘효 가족사랑’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사랑 프로그램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쓰기,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캠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캠프 등이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님께 감사장 드리고, 부상(副賞)으로 어머니 일 도와주는 증서를 증정하기(예; 어린아이가 설거지 5번 해 드리기 등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UCC공모전 개최, 청소년이 부모에 보내는 영상편지 쓰기, 청소년의 가족 사랑 토론회 등이 있다. 며느리와 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며느리들의 부모 모시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새로운 부모사랑, 가족사랑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토론의 장 ‘며느리들의 수다’, 딸의 입장에서 효에 대해 토론하는 ‘딸들의 푸념’을 생각할 수 있다. 며느리들의 수다’와 ‘딸들의 수다’는 토론 형식, 또는 연극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받는 부모되기 프로그램으로는 가칭 부모들이 효도 받는 방법 경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명절 준비를 가족 모두가 같이하기 캠페인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프로그램이다. 며느리들이 명절 때의 동수준은 거의 중노동 수준이다. 이제 이 노동을 아버지, 딸, 사위, 아들이 함께하자는 캠페인을 서원에서 먼저 실천해보자¹⁸

5. 서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법률 및 조례 제정

서원활성화는 정부의 지원과 법 제도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 서원 공간 운영, 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근거로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서원을 활성화 시키는 관계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서원 활성화를 위한 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18. 강진갑, 2013, 「우리 시대 유교는 왜 필요한가」, 『유교 문화현대화를 위한 서원 향교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경기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과천향교, 19-20쪽.

(1) 지방자치단체 서원관련 조례 제정 현황

현재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표1. 지역별 서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2004.7.5.
경기 이천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07.7.2.
경북 안동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2010.1.7.
전남 장성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1.5.13.
충남 서천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9.28.

지방자치단체의 서원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이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이다. 둘째,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지역문화 발전이다.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우이다. 셋째, 서원의 운영 및 관리이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서천군 문헌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이다.

조례의 주요 조항으로는 첫째, 수행 사업 관련 조항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수행 사업 규정, 춘추 제향 봉행,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 선인들의 유적 발굴 및 선양사업,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원의 시설 관리·운영,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둘째, 관리·운영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 이용 및 관람에 관한 규정, 서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 자료의 관리 및 반출에 관한 규정,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셋째, 관리·운영의 위탁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의 기간·성격·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청문에 관한 사항 규정,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 수탁자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수시 점검과 지도감독에 응해야 함을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다섯째, 편의시설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등이 있다.

여섯째,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관련 조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서원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수목의 손상에 대한 변상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5개 서원 조례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서원 관련 조례 조항의 항목 비교

조항 항목		구강서원	설봉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문헌서원
수행사업 관련		○	○	-	-	○
관리운영 관련	운영 주체	○	○	-	-	-
	시설 이용 및 관람	-	○	○	○	○
	사용	-	-	-	○	○
	자료의 관리 및 반출	-	-	-	○	
	운영비 지원	○	○	-	○	○
위탁 관련	위탁운영 기간 및 성격	○	○	-	○	○
	수탁자의 의무사항	○	○	-	○	○
	위탁의 취소 및 청문	○	○	-	○	○
	변상책임	○	○	-	○	○
	보고 및 지도감독	○	○	-	-	○
운영위원회 관련		-	-	-	○	-
편의시설 관련		-	-	-	○	○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	-	-	○	○

5개 자치단체의 서원 조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서원의 운영규정에 대한 시·군·구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있으나 지역의 향교와 서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부재하다. 둘째, 관람과 사용, 위탁과 수탁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중장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셋째, 관람자, 사용자, 위탁자, 수탁자가 자치법규를 지켜야하는 주체인 경우가 많으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문중, 지역유림, 지역주민, 민간, 지자체의 행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부재하다. 넷째, 도산서원을 제외하고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법규를 통해 서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도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서원을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사회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원의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 정신문화유산이자 교육문화유산인 서원이 현대 사회에 맞게 기능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서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자치단체는 서원의 효과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서원의 지원에 따른 운영의 효과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원의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인성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례는 서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서원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나. 조례 제정 방향

조례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원의 활성화 계획 수립, 운영 자율권의 보장과 활성화 사업의 종류, 서원 관리주체의 책무, 활성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력양성과 교육·컨설팅 실시, 정부기관·기초자치단체·민간단체·유림단체등 광역 차원의 교류 및 협력,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사업대상과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규정, 사업비 지원과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원 기한,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 결과 보고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서원 관리·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서원의 기부채납 혹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유림이나 문중 혹은 서원을 운영하는 개인은 서원의 개방적 운영과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이나 문중 단일 선조를 배향하는 서원은 공공재로 판단토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림이 소유한 서원 가운데 정상적인 서원 시설을 갖춘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공화된 민족 교육문화 자산의 영역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림들이 재정부족과 고령화,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서원 본연의 기능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서원의 가치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유림들의 동의하에 제향공간을 제외하고 기타 공간에 대해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거나 공공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서원의 관리운영에 사회적 공익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은 서원이 모시고 있는 선현들의 정신적 자산과 유산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서원은 민족의 공유자산이다. 서원이 활성화 되려면 유림들이나 후손의 힘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시청과 관련 유림, 이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려는 교육청과 문화원, 문화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해야 이를 보존할 수 있을뿐더러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은 유림들이 향사를 지내는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 활용하기도 하고 제향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거나 문화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활용 단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선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간에 지역사회 출신의 정년퇴임 교수를 서원장으로 초빙하여 상설 강좌를 개설 하거나 일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서원들이 있다.

(3) 서원시설의 위탁에 대한 유림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

많은 유림들은 서원이 존현(尊賢)의 공간인 관계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근암서원이나 설봉서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의 공공화는 서원 관리운영의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서원이 받들고 있는 분들의 선양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향사시설을 제외한 서원 공간에 대한 운영의 위탁이라는 항목을 서원 유림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서원 답의 적은 소출로 제향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춘추향을 제외하고는 자물쇠로 잠가놓는 서원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목재 건축은 갈고닦고 사람의 훈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보수만 반복할 뿐이다. 자치단체,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학자,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위탁은 서원의 수명을 오래 끌고 갈 것이다.

6. 결론

서원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이후 성리학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조선사회를 움직이는 기둥이었고 조선사회 교육 시스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세기 식민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유교가 새로운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유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 그 결과 서원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서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이 매우 취약해졌다.

서원이 다시 우리 교육기관,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가 우리시대의 문화자원, 정신 자원이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교의 현대적 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원이 유교를 기본으로 한 교육 기관으로 거듭 태어난다면 서원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의 운영 시스템이 대폭 보강되어야 하고, 서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추어 서원의 자구적인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유학적 인간관과 서원 교육

공자에게서 비롯된 유학은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서 규정한다. 덕성의 함양을 통한 인격 완성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품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고, 그 씨앗이야말로 여타의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사람이게 해주는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¹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한 맹자에 와서 확정되는 성선설은 바로 그러한 유학적 인간 이해의 산물이었다.

사람을 가능성의 존재로 본다는 것은 곧 미완성의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인간은 감각과 육체의 능력 등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하고, 인지와 감성 등의 기능은 물론이고 도덕 판단과 실천의 능력도 불완전 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불린다. 인간의 위대함은 태어난 시점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후천적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후천적인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다. 『논어』 첫 장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얼마나 기쁜가”라는 구절은 배움을 통해 자아의 완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기쁨을 언급한 것이고, “길 동무 셋 가운데 내가 스승으로 삼아 배울 만 한 사람 한 사람쯤은 있기 마련이다”는 구절은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과 관계 속에 배움과 공부가 있기 마련이라는 이른바 배움의 일상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배움의 가장 유효한 형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었다. 그러므로 유학은 끊임없이 배움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격의 완성을 향한 배움을 위해 학교의 설립과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장려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북송대에 등장한 유학인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성인을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의 하나인 교육의 의의를 더욱 강조했다. 이 시기 성리학에서 스승의 의의와 역할을 중시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 지식의 전수 경로를 따지는 도통(道統)의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교육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

배움을 통해 추구해야 할 진리가 높고 먼 어떤곳에 있는것이 아니라 밥먹고 사람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학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경험이 다 배움임을 강조했다.³ 성리학에 영향을 준 선불교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를 모두 깨달음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고정적이고 형식적인 수양방법을 배제했던 것처럼.

1. 『孟子·離婁』,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2. 시마다 겐지, 『주자학과 양명학』 25쪽~33쪽.

3. 『中庸集註』,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자연과의 교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에서 겪는 사건들이 모두 공부와 수양의 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중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독서와 강학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로를 계발시키고 분발하는 학교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학교들 중에서도 부와 권력 등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이익을 위한 학문(爲人之學)이 아닌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학문(爲己之學)에 중점을 두고,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 없이 자율적인 방식의 교육이 가능한 서원이 가장 선호되었다. 주자를 비롯한 송대 성리학자들이 의욕적으로 전개한 서원건립 운동은 그러한 인식의 결과였다.

주자는 유학이 당나라 시기에 와서 사장학 중심으로 흘러감으로써 공자와 맹자가 강조한 일상의 실천윤리와 수양의 학문에서 과거를 위한 공부로 변질된 것을 비판하고, 그 보완책으로 관학과는 별도의 성리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것은 곧 서원설립 운동으로 나타났다.

주자는 「백록동규후서(白鹿洞規後叙)」에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옛 성현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하는 뜻은 다 의리를 풀이하고 밝혀 그 몸을 닦은 뒤에 미루어 남에게 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이지, 한갓 넓게 보고 열심히 기억하여 문장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녹봉(祿俸)의 이익이나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학문하는 사람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⁴며 옛날의 위기지학의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서원 건립에 힘을 기울인 취지를 말하고 있다. 백록동서원 건건을 통해 서원의 제도를 확립해 새로운 교육을 증진하려한 주자의 구상은 명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300여개소의 이름난 서원이 들어설 정도로 성행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사정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경향 각지에는 서당·향교·서원·성균관 등 공사립의 다양한 학교가 있었지만, 유학적 인격인 선비를 양성하고 세련되고 깊이 있는 유교 문화를 기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서원이었다. 조선사회는 선비들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었고 선비들은 교육을 통해 길러졌는데, 그 선비 양성의 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서원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퇴계의 서원건립 운동으로 본격화된 서원의 출현은 여말에 수입된 성리학 이 땅에서 착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앞서 언급했듯 성리학은 과거를 위한 학문 혹은 말단적인 문장 짓기로서의 학문을 지양하고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인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고, 바로 그러한 유학적 교육관에 부응해 새롭게 나타난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보급은 교육의 무게중심이 교육형식의 측면에서 관학에서 사학으로 옮겨가고, 교육목표의 측면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종래의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대체하며 교육주체의 측면에서는 재지사림이 훈구관료를 대체해 가는 조선중기의 전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퇴계는 위기지학을 “도리를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삼고, 덕행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삼아서, 먼 것보다 가까운데서, 밖보다 안에서 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실천하기를 기약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서,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실천하는 데 힘쓰지 않고 거짓을 꾸

4. 『聖學十圖·白鹿洞規後叙』,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 今之爲學者, 既反是矣.”

미 고 바깥으로 좋아서 이름을 구하고 칭찬을 취하는” 위인지학과 엄격히 구분하고자 했다. 이는 서원건립과 운영에 열성이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학문과 혹은 교육관과 서원에 거는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관료가 되기 위한 과거공부를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물론 그들도 관료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내면의 덕성 함양이 본령이 되어야 할 교육이 권력과 명예를 낚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천자에서 평민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⁵는 『대학』의 구절이 말해주듯 도덕중심주의의 사고를 지녔던 성리학자들은 내면의 덕성이 갖추어지면 정사(政事)는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낙관론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은 향촌에 은거하며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주변에 자연스런 감화와 교화를 미치는 한편 후학 교육을 통해 유학의 도를 이어가는 것이 관료에 나아가 어진 정치를 펴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것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서원을 통한 교육이었다. 요컨대 서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는 위기지학의 실현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한국 서원의 효시는 종종 38년(1543) 경상도 풍기군 순흥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그런데 백운동서원은 그 고장 출신의 고려말 유학자이던 안향을 제향 하고자 건립한 문성공묘에 부속된 ‘건물’로서의 서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강학 공간으로서의 강당, 동서재와 존현처로서의 사묘(祠廟)를 기본 구조로 하되 과거공부를 물리치고 강학·장수를 근본 기능으로 삼음으로써 사묘는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확립한 인물은 주세붕의 뒤를 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해 이를 소수서원으로 발전시켰던 퇴계 이황이었다.⁶

퇴계 이황은 중국의 주자와 뜻을 같이 하여 “문장과 과거와 이록(利祿을 추구하는 습성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미친 지경으로 내달리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서울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가 모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깜깜하게 모르고 학문에 전혀 힘쓰지 않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선비는 산이나 들판으로 숨어 들어가 함께 들은 것을 강구하고, 도(道를 밝혀 자기를 완성하고 남을 완성시키니, 후세에 서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며 서원 건립운동을 추진하게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다. 백운동서원의 사액운동을 비롯하여 임고(臨臯)·이산(伊山)·영봉(迎鳳)·역동(易東), 연 경(研經) 등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기울인 퇴계의 노력은 그의 사후 후학들이 건원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 결과 옥산(1572), 도산(1574), 여강(1575), 도남(1605), 도동(1605), 병산서원(1610) 등이 속속 출현하여 권역별 거점 서원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17~18세기 200년 동안만도 무려 257개의 원사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⁷

그러한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퇴계 이황의 강학과 장수의 터전이었던 안동의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온실이자 퇴계학파의 산실인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도산서원이 자리한 곳은 뒤쪽으로 작은 산

5. 『大學』,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6. 정만조, 「도산서원과 영남의 지식문화」(『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3), 17쪽

7. 정만조,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142쪽.

등성이가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돌아서 흐르며 그 강 너머에는 푸른 평원이 펼쳐져 있어 절경을 이룬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퇴계 이황은 50세 때(1557년)에 이곳에 터를 잡고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세워 제자들을 받아들여 10여 년 동안 인재양성에 힘썼다. 퇴계 사후에 그를 흠모하던 제자와 안동의 선비들이 기존의 건물에 사당을 갖추고 진도문(進道門), 동서재(東西齋), 광명실(光明室), 전사청(典祀廳), 장관각(藏板閣) 등을 보완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춘 뒤 나라에 요청해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았다.

도산서원 서립의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퇴계의 사후 선조 5년 4월에 열린 도산서당 문도들 모임에서 ‘선사를 제향하는 사묘’를 도산서당 뒤에 세우기로 한 결의였다.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선조 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선조 8년 여름에 서원의 규모를 완성하고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으며, 상덕사에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고 석채례를 행함으로써 선조 9년 2월 13일 도산서원이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도산서원의 원규를 비롯한 운영원칙과 교육활동은 다른 서원에서 준용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 도산서원은 수백년 동안 한국 성리학의 요람이자 서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3. 서원교육의 현대적 복원, 선비문화수련원

1) 선비문화수련원 현황

선비문화수련원은 2001년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부설 교육기관 설립을 결의함으로써 출범해 2002년부터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퇴계 이황 탄신 500주년 행사를 끝낸 1개 월 후인 2001년 11월이었다. 퇴계 선생 탄신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당시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은 크게 나아진 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 의식 있는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창달할 사회윤리 실천의 주체를 양성해 도덕입국에 기여하고자” 안동권 유림들의 힘을 모아 선비문화수련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비를 기르는 교육기능인 양사(養士)와 선현을 기리고 받드는 존현(尊賢)의 기능을 수행하던 도산서원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서원 고유의 교육기능을 회복하려는 염원의 발로였다.

그러한 취지로 설립된 선비문화수련원은 재원과 시설 그리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퇴계 문중에서 쾌척한 1억 원이 종자돈이 되어 출범한 수련원은 이듬해부터 수련이 시작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강연료, 중식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운영경비 외에도 초기 수련원의 시설확보 역시 어려운 과제였다. 그래서 도산서원에서는 입교식, 알묘례 등 전통체험 행사만 치르고, 주된 수련과 숙식은 인근의 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박시설에서 주로 해결했다.

이후 수련생이 늘어나면서 한국국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연수시설인 국학문화회관을 임차해 사용하다, 2011년 4월에 이르러서야 퇴계종택 뒤 5,390m²(1,630평)의 부지에 연건평 면적 2,067m²(625평)의 원사가 준공됨으로써 첨단 강의실과 숙소를 갖추고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기 수련원 운영을 맡았던 원장이하 임직원들은 여직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의 자원봉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공직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으로, 선비정신의 시대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이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운영 예산과 열악한 연수시설에도 불구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들의 헌신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선비문화수련원은 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체계는 원장 아래 수련본부와 행정본부의 양부가 중심부서로서 연수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부설기관으로 전통예절교육원이 있다. 수련본부 산하에는 수련1,2실과 지도위원실이 있어 원내외에서 행해지는 수련업무를 맡고 있다. 수련1실은 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유림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운영업무와 지자체등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수련2 실은 군인, 공무원, 기업, 일반인 등 대상의 수련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도위원실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수초기 교장, 교육장 등 교직에서 은퇴후 자원봉사로 연수업무에 헌신하며 초석을 놓은 20명의 지도위원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련활동 지도 및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행정본부 산하의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총무 실은 경리회계, 인사, 자산과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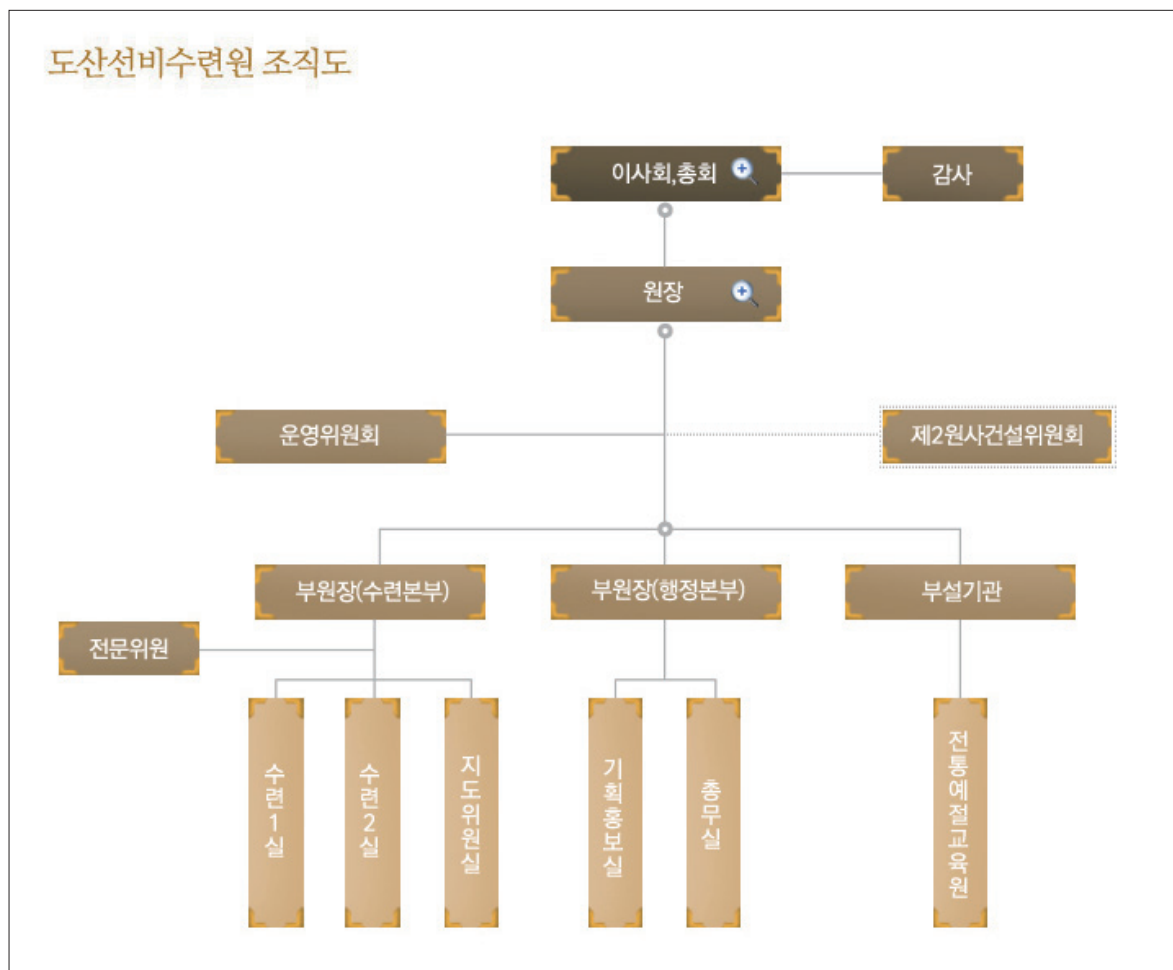


그림 1. 도산선비수련원 조직도

연수원의 시설은 크게 수련원 내의 교육시설인 양사재(養士齋)와 숙박시설인 숙야재(夙夜齋) 및 식당을 비롯한 부대시설 그리고 수련원 외부의 현장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설은 강의가 행해지는 강습실, 다목적 체험을 위한 육예실, 분임토의를 위한 가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프로젝트와 컴퓨터 등 첨단설비를 갖춘 80명 수용규모의 시설이다. 숙박시설은 20개실 총 80명 수용규모의 숙소인 숙야재와 휴게실 및 식당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 교육장으로는 선비문화수련원의 본원이랄 수 있는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및 퇴계 명상길, 그리고 퇴계기념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멀지않은 곳에 있는 퇴계의 묘소와 이육사 문학관, 하계마을의 독립운동기적비가 중요한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박물관과 서후에 소재한 학봉종택도 수련과정에서 방문학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선비문화수련원의 예산은 세입기준으로 2013년 32억8,436만5천원이며,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8억1,679만5천원이 증가한 41억116만원이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의 총액 가운데 보조금이 26억5천만원이고 자체수입이 14억5,116만원이다. 보조금은 국비 21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간의 성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해 운영되어 왔지만 선비문화수련원은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수련원 발전의 단적인 지표는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수련생의 숫자이다. 2002년 수련을 실시한 이후 초기 3년간의 수련생 수는 매년 몇 백 명 수준에 머무르다 1,030명이 다녀간 2005년부터 매년 약 천 명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6,245 명에 이르렀다. 이후 수련생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 12,312명, 2011년 13,389 명, 2012년 20,438명에 이르렀고 지난 2013년에는 35,564명이 다녀갔다.⁸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2014년에는 45,000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의 예약상황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 40%이상의 수련생 증가가 예상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참여 계층이나 직종에 있어서도 많은 확대발전이 있었다. 2008년까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세 교육의 당사자들이 대부분이고, 인근 지역의 공직자, 군인 등의 일반인과 단체가 가끔 참여하는 형편이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유수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사기업과, 공직자 등으로 대상 계층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표1. 교육 대상별 만족도_2013

교육 대상	만족도
교원	96.90%
공무원	92.70%
기업인	88.90%
일반인	95.10%

8. 수련원이 개원한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수련에 참여한 총 인원은 98,971명에 이른다(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2014년도 정기이사회·총회'자료)

교육 대상	만족도
대학생	77.50%
초등학생	80.20%
중학생	66.20%
고등학생	76%

표2. 교육 내용별 만족도_2010~2012

교육 대상	만족도
선비문화 체험의 가치	87.60%
수련기관 요원들의 관심도와 자세	87.40%
교육과목의 짜임새와 내용	82.30%
교육 시설	90.80%
강의내용과 수준 및 방법	88.00%
현장교육에 대한 예상기여도	90.60%

다녀간 수련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조사한 수련만족도 결과를 보면, 교육 내용, 강의 내용·수준·방법, 선비문화 관련 유용한 경험과 기회부여, 현장교육에 대한 예상 기여도등의 전체 항목에 걸쳐 최소82%에서 90%에 이르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연수가 본궤도에 오르던 2009년의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아직 연수전용 원사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시설에서 연수가 행해졌고, 대상 계층도 주로 인근 지역의 교원 및 공무원 중심이던 당시의 만족도 조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교원 및 행정공무원의 연수만족도_2003~2008

	교육내용 만족도	강의내용·수준·방법 만족도	선비문화 경험 만족도	현장 예상기여도 만족도	수련기관의 관심과 수련요원 자세 만족도	수련기관의 환경과 편의시설 만족도
교원	91.00%	87.60%	93.50%	88.60%	97.60%	58.20%
공무원	87.50%	89.30%	95.60%	87.50%	97.40%	64.30%

당시는 표에서 볼 수 있듯, 교원과 행정공무원 모두 수련환경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전 항목에 걸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비문화 경험과 수련기관의 관심 및 요원들의 자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련기관의 관심과 수련요원의 자세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시 선비문화수련원은 사무를 전담하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직에서 은퇴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임직원들이 전용 연수공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연수생들을 오직 사명감 하나로 열의를 가지고 응 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수련 참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련생을 맞이하고 연수를 꾸려갔던 이들의 사명감과 열성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전용 연수 시설이 없어서 퇴계 종택 근처의 민박시설을 이용하다가 이후 국학진흥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수련기관의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0% 전후로 나타나게 했을 것이다.⁹

선비문화수련원의 연수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09년 당시 선비문화수련원을 이끌고 있던 김병일 이사장은 앞에서 인용한 발표자료에서 그간의 수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련 시설의 개선, 교육내용 및 강의방법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 수련원의 관심 및 수련업무 담당자의 자세, 수련참여 계층의 다양화 확대 등 대상의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었다.¹⁰ 당시 제기된 개선과제는 대부분 구상과 계획대로 실현되었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역량임을 감안해 조직공통체에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장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각계 여론 주도층들의 숭신수범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수의 확대를 추진해 결실을 거둔 것은 팔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선비문화수련원의 교육과정

선비문화수련원의 교과과정은 대상의 연령과 계층·직종 등에 따른 차별적 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현장 방문 교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저학년용 교재인 『선비정신을 찾아서』와 고학년용 교재인 『선비정신의 향기』가 각기 지난해 편찬되어 현장과 입소 교육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종의 교재는 ‘선비정신의 가르침’·‘훌륭하신 선비를 찾아서’·‘사자소학의 지혜’·‘인의예지와 바른 인성’·‘퇴계선생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된 「지혜편」과 ‘인사예절 실습’·‘어린이 활인심방’·‘정심투호’ 등으로 구성된 「정심편」, ‘제기차기’·‘웃놀이’로 구성된 「놀이편」 등 3개의 장으로 목차는 동일하되 고학년과 저학년의 학습역량을 감안한 내용 기술상의 난이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방문교육은 일선 초등학교의 교실을 찾아가 앞서 소개한 교재에 의거해 오전 학과 4 시간에 걸쳐 선비정신과 퇴계선생의 가르침, 인사예절, 투호놀이(활인심방체험) 등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1일 입소과정은 교재를 활용한 강의실에서의 선비정신 이해 교육과 도산서원 방문 알묘와 참관 및 퇴계종택과 이육사문학관 방문 등의 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 김병일, 「선비정신의 현대적 계승」(남명학연구원 2009년 학술대회 자료집『선비정신과 공직자의 윤리』, 2009. 9) 17쪽~18쪽.

10. 앞의 자료 「선비정신의 현대적 계승」에서 김병일 이사장은 1)여타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는 60% 내외의 연수환경 관련 만족도와 관련해, 정신과 뜻을 중시했던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는 해도 열악한 연수 환경에 무조건 적응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우선은 임차를 해서 쾌적한 시설을 사용하고 이후 자체 연수시설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계획대로 2011년의 원사건립으로 1차 해결되었고 현재 더 욱 늘어나는 연수생을 맞기 위해 2015년 완공예정인 제2원사 건립 공정이 진행중이다. 2)교육내용 및 강의 방법의 지속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수련 이후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과제를 실행할 결의와 다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했는데, 이는 퇴계종택 등 인근의 현장을 활용한 체험교육의 확대와 분임토의와 발표로 구체화 되었다. 3)수련기관의 관심 및 수련요원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수련자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들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해 나아가되 자원봉사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4)수련대상의 다양화 및 확대방안 과 관련해 종래의 학생과 교사 및 인근지역의 공무원, 군인, 학부모 등을 주 대상으로 하던 데에서 기업체 대상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수련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가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1일, 1박2일, 2박3일 등의 수련과정이 있는데, 1일 과정에서의 수련원의 강의실을 활용한 선비정신에 관한 강의와 도산서원, 퇴계종택, 이육사문학관 참관을 기본교육으로 하고, 과정일수에 따라 활인심방 등의 체험교육, 유교문화박물관 관, 독립운동기적비, 퇴계묘소 등의 현장교육, 그리고 분임토의 등이 선택적으로 보태진다.

성인교육 역시 과정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장의 강의(‘선비정신의 현대 적 조명’)과 이사장의 강의(‘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에 이어 퇴계명상길 걷기, 도산서원탐방 및 서원의례(알묘례) 체험, 퇴계종택 방문, 분임토의 및 팀 발표, 퇴계시 공원, 퇴계묘소,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 이육사문학관 참관 등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이론 강의는 최소화하고 선비정신의 체화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장체험을 중시한다. 현장체험은 유적지 탐방과 종택방문으로 이루어진다. 퇴계 묘소와 하계마을의 독립운동기적비, 유교문화박물관, 이육사문학관 등이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이 현장체험은 옛 선비들의 자취를 찾아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뜻을 몸으로 배우는 한편, 오늘날 계승해 살아가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비정신을 체득하는 현장수업이다. 이는 유교 문화와 퇴계정신의 자취가 그 어느 곳 보다 오롯이 남아있는 주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저녁에 자율적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이전의 다양한 수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선비정신을 내면화하고 연수 후 일상 속에서의 실천과제를 정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전체 수련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선비문화 수련원에서는 김병일 이사장이 오랜 시간 공직에서 인생을 먼저 살아가는 경륜과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한 경험을 살려 가능한 모든 연수생들의 토의에 직접 참여해 조언과 지도를 하면서 내실 있는 분임토의가 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분임토의는 우선 선비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목표에 해당하는 대주제와 그것을 위한 실천과제인 소주제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들 주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지양하고 반드시 선비정신의 일상적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게 한다. 그래야만 연수 후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실천가능하기 때문이다.¹¹⁾ 많은 수련팀들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선비정신의 실천 가치에 대한 몰입현상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몰입도는 수련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는 자료로 엮어져 복사 배포되는데, 이 자료는 다음날 발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수 이후 자신들이 선정한 과제의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분임토의의 결과는 다음날 분임 대표의 실천과제 발표를 통해 전 체 수련 참가자들이 공유하며, 토론 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11. 예컨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지향과제로 정했다면 실천과제는 정해진 날에 용돈 드리기,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 드리기, 한 달에 한번 찾아뵙기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근 몇 년 사이 수련과정의 순서에 변화가 있었고 정해진 연수 일자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선비문화수련원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해 본 수련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서울서 아침 일찍 출발해 입소한 수련생들은 입교식에 이은 김종길 원장의 ‘선비정신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은 후 점심식사를 하고 도산서원을 찾아 참관하고서 제유사의 망기(望記)를 받고 제복을 갖추어 입은 후 상 덕사에 알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한다.

이어서 퇴계종택으로 이동해 ‘종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 종택에서는 84세인 퇴계의 16대 종손이 직접 수련생들을 맞이해 무릎을 꿇은 채 몸에 밴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나눈 후 손수 쓰고 낙관을 한 ‘오도제세(吾道濟世; 선인들이 물려준 가르침으로 세 상을 구제한다)’ 글씨를 선물로 주는데, 수련생들에게는 종손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것 보다 마음에 새길 값진 선물이다.¹²

이어서 수련원 강의실로 들어와 김병일 이사장이 ‘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진행하는 강의를 경청하면서, 오늘날 물질적 성취와 정신적 가치의 괴리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며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선비정신이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임을 함께 공감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분임토의를 하면서 낮에 배우고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병일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일일이 각 분임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하는 이 분임 토의는 ‘공동체(조직)에 필요한 사람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4개 분임으로 나뉘어 5시간에 걸쳐 밤이 늦도록 진행되는 토의는 ‘자기성찰과 실천계획서 작성’으로 마무리 된다.

둘째날은 이른 아침 첫 과제로 활인심방(活人心方) 체험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퇴계 선생을 비롯한 옛 선비들 심신수련의 필수과목이기도 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종택을 나온 수련생들은 종택 앞 퇴계천가에 있는 시비의 내용을 살펴보고 퇴계가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매일 자신을 성찰하려는 겸손한 자세에 감명을 받고, 종택 옆 퇴계시공원에 있는 96자의 자명(自銘)에서 퇴계의 성실함과 겸손함,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인간애에 감동을 한다. 이어서 퇴계의 묘소에 가서는 묘소가 소박하고 겸손한 데 놀라며 선생의 고결한 인품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이어 묘소 입구의 퇴계 후손들의 집성마을인 하계리(下溪里)에 들른다. 하계리에는 독립운동기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마을에서만 타 시군의 전체와 비슷한 수인 25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되었다. 조선의 선비이자 퇴계의 후예들답게 항상 의(義)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사적을 접한 수련생들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하계리에서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육사문학관에 이른다. 역시 퇴계의 14대손으로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17차례나 감옥을 드나들다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와의 만남은 선비란 어떤 사람이며, 오늘날 선비정신을 배우는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게 한다. 또한 70을 넘긴 육사의 따님 이육비 여사가 보여주는 겸손한 언행과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찾아온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12. 퇴계 종손은 매년 수련생을 포함한 종택 방문객을 위해 3만점에 이르는 붓글씨를 직접 쓰는데, 2012년의 주제는 ‘예인조복(豫人造福)(남을 칭찬함으로써 내 복을 짓는다)’이었고, 2013년의 주제는 ‘사해춘택(四海春澤)(온 세상에 파스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다)’이었다.

현장에서 돌아온 수련생들은 중식을 먹은 후 강의실에 모여 어젯밤 분임별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한 후 각자의 각오를 다진 후 수료식과 더불어 1박2일의 수련과정을 마친다.

수련을 마치고 나서는 수련생들은 대부분 낯고 형식적이라는 유교와 선비정신에 대한 편견 속에 큰 기대 없이 찾아 왔다가 새롭게 눈과 귀가 열리고 의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다. 어떤 이는 퇴계의 삶과 생각으로부터 배운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하고, 또 어떤 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육사의 선비정신을 떠올리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 등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4.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비결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연수의 중심에는 퇴계 이황이 있다. 강의실에서의 교육이든 현장에서의 답사와 체험이든 항상 퇴계의 자취와 정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련생들이 발견하고 감동받는 핵심 메시지는 교과서에서 배운 성리학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한 지역의 어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퇴계의 정신이다. 그것은 퇴계종손에게서 발견되고, 하계마을의 독립운동 기적비와 이육사문학관에서 발견되며, 유교문화박물관의 기록유산 속에서도 발견된다.

선비문화수련원은 강의실과 강의실 밖의 관련 유적들을 활용한 강의와 체험을 통해 도산서원의 중심인물이자 성공한 리더였던 퇴계가 그 중심에서 있는 전통적 가치가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조화롭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옛 선현들처럼 군자를 지향하고 성인을 따라 배우기를 추구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투철하고 일관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고 즐겁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러한 정신적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이르는 원칙이나 지침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남아있는 긍정적인 전통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유학적 가치의 핵심은 자기 욕망의 절제와 타자에 대한 공감적 배려의 仁이고, 그것은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유학적 가치의 핵심인 인(仁)을 그리고 그것을 체화해 드러낸 퇴계의 경敬의 마음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에서 소중한 가치이다.

원래 유학의 진리는 고원한 것이 아니라 비근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 가치의 현재화와 일상화이다. 그것은 전통적 가치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실천덕목으로 재해석하고 일상사 가운데 실제적인 행동 규범으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 가치의 일상적 실천덕목화란 유학적 가치의 핵심인 仁을 우리들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의 실천원리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퇴계언행록』 도처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퇴계의 모습이다.

여러 학생들과 상대할 때에 마치 존귀한 손님이 좌석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화기(和氣)가 훈훈하고 강의가 다정하고 친절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환히 통달해서 의심나거나 불분명한 것이 없었다.¹³

선생은 21세에 부인 허씨許氏를 맞아서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였다.¹⁴

“형제간에 잘못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주어도 됩니까?”라고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우선 나의 성의를 다하여 상대방을 감동하도록 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서로간의 의리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서로 간에 성의로 부합함이 없이 대뜸 직설적인 말로 나무란다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고 하셨다.¹⁵

여기서 인용한 것은 일상의 수많은 관계 중에서 제자·부인·형제를 향한 퇴계의 태도와 처신이지만, 그 외에도 아버지·친척·이웃은 물론이고 집안의 노복이나 아랫사람 등에 관한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다양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보여준 퇴계의 모습에 일관된 것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만나는 대상에 대해 베푸는 인애(仁愛)의 마음이다이다. 그러한 마음에 바탕한 퇴계의 태도는 그와 만나는 모든 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러한 베품을 받은 상대의 마음은 다시 퇴계를 바라보는 존경의 시선과 몸짓으로 돌아와 퇴계를 행복하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유학이 추구하는 개인적 행복과 이상적 사회 실현의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사회 전체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지혜이다. 탈것과 먹는 음식, 입는 옷, 자는 집 등 생활의 조건과 환경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과 그러한 감정의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활동 영역은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 지역, 국가, 세계로 나눌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다종다기한 직업과 직종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현대인의 일상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와 아버지로서 자녀와, 가게 주인으로서 고객과, 이웃으로서 이웃과 등등 처한 영역과 직종에 따라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행복은 내가 짓는 내면적 자족과 충만에서 기인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존중 등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마음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절반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실망, 불쾌함, 고통, 분노 등으로 인한 불행감은 상대가 나에게 보이는 무관심과 무시, 배척, 멸시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대인접물(待人接物)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행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늘리는 길은 자명하다. 일상의 관계 속 상대에 대해 진심어린 인애(仁愛)의 마음과 태도로써 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13. 『退溪言行錄·起居語默之節』

14. 『退溪言行錄·律身』

15. 『退溪言行錄·居家』

실행은 공자의 말과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끼치지 않는”¹⁶것에서 출발한다. 유학은 원래 거창하고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실행함으로써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유학에서 흔히 강조하는 ‘일용사물지도(日用事物之道)’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추구 해야 할 진리(道)는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를 “도(道)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道)가 아니다”¹⁷고 설명했는데, 그 의미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유학이 말하는 진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공자나 퇴계가 다시 지금 여기에 오더라도 묻고 추구할 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 유교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미를 묻고 그를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일상의 실천에서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여러 비결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퇴계라는 걸출한 롤 모델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퇴계는 이미 500년도 더 지난 16세기라는 과거의 인물이다. 그럼에도 퇴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저작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고 그가 강학하던 도산 서당이 오늘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올바른 사람의 도리 따스한 사람의 마음,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그의 후학과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조화로운 사귀음으로 나타났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위기에는 의롭고 희생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 뜻을 따르면서 배려와 겸손의 마음과 헌신의 삶으로써 만나는 이 누구에게나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생들이 한결같이 인상 깊은 감동의 만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퇴계 종손과의 대화, 이옥비 여사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은 이곳에 있는 그분들의 존재이다.

선비문화수련원에는 40명의 임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이사장과 원장 그리고 평직원의 차이가 있고, 연수 기획·행정지원·연수운영과 지도 등 각기 맡은 일은 다르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겸손한 태도와 온화하고 친절 한 응대로 수련생들을 맞이하고 안내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주역들이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일정을 밤낮으로 같이하는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수련요원들의 마음가짐과 일거수 일투족의 몸짓은 수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다양한 직군의 수련생 8,0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친절도 조사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또 하나의 성공비결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를 보면, 대개 반나절의 단체단위 현장교육 및 당일과정이 주를 이루는 초·중·고생이나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에 부정적 편견을 지니기 쉬운 연령층인 대학생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친절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90.6%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수련기관요원의 친절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16. 『論語·顔淵』, “己所不欲, 勿施於人.”

17. 『中庸』,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표4. 직군별 수련기관요원 친절도_2013 (선비문화수련원 제공)

항 목	교 원	기 업	공무원	일반인	대학생	초·중·등학생	전 체
응답백분율(%) (수련기관요원 친절도)	98.2	95	97.2	99.5	79.8	73.9	90.6
설문인원(명)	704	3,528	495	421	336	2,595	8,079
비 중(%)	8.7	43.7	6.1	5.2	4.2	32.1	

‘수련기관요원’에는 이사장과 원장은 물론이고 현장을 함께하는 젊은 연수요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강의교육이든 야외 현장교육이든 선비문화수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퇴계의 삶의 자취와 만나고 그러한 뜻을 이어 살아가는 퇴계종손과 이옥비 여사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과 뜻에 가장 깊이 흡수된 이들이다. 그러한 흡수된 좋은 마음이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져다주고, 연수생들을 향해서는 친절하고 겸손한 응대로 드러나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공자가 말한 “아는 데서 나아가 좋아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더 나아가 즐거워하는데까지 이른” 결과이다. 이들은 선비문화수련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러한 일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퇴계종손이 강조하는 ‘예인조복(譽人造福)’의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들 ‘수련기관요원’을 가진 것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다.

5. 서원문화 계승의 방향과 과제

과거 서원은 세속적 욕망의 추구를 위한 학문이 아닌 덕성의 함양을 통한 인격적 자아의 완성을 지향한 유학의 교육관을 가장 잘 체현한 사학 교육기관으로서 스승과 제자간의 인격적 감화와 지식의 전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인격의 완성은 물론이고 그러한 인격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는 지식인으로서의 선비를 길러내는 요람이었다.

선비의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남(出處)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상에 도(道)가 있으면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에 도가 사라지면 물러나 몸을 닦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대의 치란(治亂)을 막론하고 현실에 뛰어들거나 물러나 은거하는 등 각기 선택은 다양했지만, 제대로 된 선비라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했다. 현실에 뛰어들어선 선비들은 잘못된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경륜과 능력을 발휘했고, 물러나 은거한 선비들은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올곧은 삶의 모습을 지킴으로써 세속에서 횡행하는 불의와 이익을 좇는 기풍을 비판하고 삶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조선이라는 전통사회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그 문화의 깊이를 더해갔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선비들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뒤로하고 대의를 앞세웠고, 도덕적 용기에 근거해 불의에 항거했으며, 때로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이들 조선 선비들이 이념과 지향으로 세워진 것이 서원이고, 또 서원은 그러한 선비들을 낳았으며, 그러한 의미 있는 공간이 우리 곁에 도처에 남아있다. 따라서 서원은 예전의 선인들

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의 우리의 노력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당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제시하는 감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교사찰의 일반 대중과의 만남의 공간화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많은 불교 사찰은 신자들의 신앙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 방문과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고, 나아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 감성과 이성적 태도와 가치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현재적 삶과 소통함으로써, 전통이되 지나간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적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서원도 그래야한다.

가치, 감성, 태도 등을 포괄하는 우리의 전인적 삶과 유리된 전통, 사람이 소외된 전통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박물관의 유물들도 단순한 과거가 화석화된 사물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 우리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공간인 서원은 우리들과 소통하면서 형식은 달리한다해도 예전 선인들이 지향했고 오늘날 필요로 하는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에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서원의 사회교육적 기능의 강화를 의미한다. 사회교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거 서원이 행했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풍속을 선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사회를 선하게 했던 교화가 다름 아닌 사회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형식을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은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서원은 고립에서 벗어나 과거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자신을 단장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현재 봄가을 두 차례 향사하는 제향중심에 그치고 겨우 낡고 허물어지는 것을 고쳐 보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원은 학생, 일반,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감성적 체험과 지식 습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학술대회든 단체 모임을 통해서든 병산서원에 다녀간 이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한다. 매미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여름 한낮 입교당에서의 독서와 달뜨는 밤 만대루에서 묵도한 강과 산 그리고 하늘이 빛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세상의 먼지 속에서 분주히 이욕 혹은 명예를 쫓느라, 혹은 고단한 살림살이에 지쳐 자신을 잊고 살다가 서원에서의 짧은 체험이 어렴풋이나마 자신의 본모습을 보고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체험의 기회가 많아져서 서원을 다녀가는 이들이 세상살이에 비틀대는 삶을 다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아니라면,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느끼는 소쇄함과 평온함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도산서원의 사례에서처럼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써 배움과 깨달음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면 서원이 옛날에서 오늘로 건너와야 하고, 먼지 쌓인 침묵의 은둔에서 털고 세상 속으로 나서야 한다.

불교문화와의 만남 : 템플스테이

최근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의해 집계가 시작된 2004년을 기점으로 36,902(3,207)명, 2005년 52,549(6,617)명, 2006년 70,914(9,497)명, 2007년 81,652(13,533)명, 2008년 112,800(20,106)명, 2009년 140,893 (19,399)명, 2010년 172,954(20,045)명, 2011년 212,487(24,550)명으로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170,392(23,752)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내부자료)¹⁾. 템플스테이 참가자 예측에 관한 보고에서도 2015년에 내국인 292,088명과 외국인 39,785명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템플스테이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결과는 템플스테이의 문화관광자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령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템플스테이는 관광 가치, 교육 가치, 정신건강 가치, 사회 소통 가치, 그리고 복지 가치 등 사회, 문화, 경제를 포함한 전반에 순기능을 갖는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1. 템플스테이 개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11개 지역 총 33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한시적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월드컵 이후 지속적인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화장실, 샤워시설 등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02년 아시안 게임 등 후속 국제 행사기간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한국의 이색적이고 독특한 전통 사찰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템플스테이를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기업연수프로그램, 일부 대학 교과목 선정 등을 통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템플스테이의 관심이 고조되 었으며, 2004년에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조직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축함으로써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템플스테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사찰의 노력이 결합되어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 괄호안의 숫자는 외국인 참가자 인원수. 2012년 참가자 수 감소는 집계방식 변화로 인한. 템플스테이 지정 및 운영규정(2012. 1. 17. 제정공포)에 따라 참가자 집계방식이 2시간 이내의 사찰체험자 및 산사축제 참가자 를 제외함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음.

전통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서구인의 동양불교문화 관심 증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중앙정부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국가 관광산업으로 템플스테이 활성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템플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시설비 지원으로 전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찰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재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숙박공간, 프로그램 운영공간, 화장실 및 세면실 등 수용력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수용태세의 개선은 자칫 불교문화 및 한국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문화를 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근원이 되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전국 33개 운영사찰을 필두로, 2008년 87개 사찰, 2012년 기준 109개 사찰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3).

한편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관광으로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및 체험관광 등으로의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얻을 수 있는 심신의 휴식과 정신적 활동인 참선수행 등 심신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적 불교문화 및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광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OECD로부터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선정(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OECD, 2009))되는 등 한국의 대표 관광사업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정신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의 가치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 됨에 따라 사회전반의 물질만능주의 만연, 선대로부터 계승되어온 전통적 가치 및 윤리관의 파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위협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외와 정신적 빈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다양한 사회병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는 건전한 개인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축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정체성 구현은 물론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향후 템플스테이는 국민의 관광여가 욕구 증대, 삶의 질 향상 욕구,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 현대인의 여가문화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여가관광 프로그램으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 심신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 및 심신 건강형 여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바, 그 중심에는 심신 치유에 대한 현대인의 회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동양 정신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과 더불어 중국, 일본과 동남아 시아는 물론 중동 지역에서까지 불기 시작한 한류 바람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 관광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고, 한국의 유명 관광지 뿐 아

나라 가장 한국 적인 전통과 그 진수를 보존하고 있는 불교문화를 한국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템플스테이의 정의

템플스테이를 정의하는데 있어 템플스테이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 현재의 운영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선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한국의 전통사찰은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의 가치로 인해 관광의 대상이 되어 왔다(손대현, 2000). 일반인들은 종교적 서원, 심신의 수련, 사찰 문화유적 탐방 등의 목적으로 전통불교 사찰을 찾고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중들은 전통사찰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가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의 기능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종교수행 기능으로 써 종교적 수행과 포교라는 본래의 기능이며, 둘째 역사문화 보전기능으로 사찰건축과 사찰 내에 소장된 역사·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적 유산 가치(heritage value)를 창출하며, 셋째 생태환경보존기능으로 산중사찰은 임상을 양호하게 보존함으로써 산의 건전한 산림생태가치(ecological value)를 창출하고, 넷째 관광휴양자원기능으로 전통사찰의 자연성과 역사문화 성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이호길, 한동기, 2009).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한다, 조용한 절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사찰은 산사라는 입지와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에게 심신의 수련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근래 들어 일상의 각박함을 달래려는 도시인들에게 전통적인 산중사찰은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의미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상당수의 산중사찰에서는 심신의 휴식에 대한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에서의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전통사찰에서의 휴식은 방문자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을 수련하는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템플스테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9). 템플스테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지니는 산림생태환경과 관광휴양자원으로의 가치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개방적인 자세에서 여가활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템플스테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혜택이며, 이는 템플스테이가 일상에서 지친 참가자들에게 심신의 안정 및 재충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약하면 산림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는 휴식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인들의 여가관광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기준 정부지정 문화재 8,840점 중 불교문화재가 총 3,144점, 그 가운데 국보나 보물 총 1,776점 중 1,129점이 불교문화재로 보고되고 있으며(이호길, 한동기, 2009),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전통사찰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불, 참선, 108배, 다도, 발우공양 등 불교의식 및 불교의례 등 무형적인 전통불교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전통사찰들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즉 전통사찰은 문화유산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템플스테이를 문화유산관광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인간의 문화적 행위 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과 같은 유형 문화유산과 전통적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식, 민속, 예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으로 나뉘며,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지선, 이훈, 2010). 문화유산관광의 관점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유, 무형의 불교문화유산, 즉 불교철학, 사찰생활방식, 불교의식 및 의례, 건축물, 유적 등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 공적인 문화유산관광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잊어져 가는 현실에서 내국인들에게 있어서도 템플스테이는 훌륭한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된다.

그러나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탐닉하는 방법으로 ‘숙박을 통한 사찰생활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여가나 관광을 목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을 잠시 들러 개인의 서원, 사찰 경내의 유적물(지)관람, 자연과 더불어 짧은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문형태들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순관람(sightseeing)을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방문형태로 본다면, 이에 비해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찰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적극적 형태의 방문체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라이프’와도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개천(2005)은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이상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 서산사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한 바 있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경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찰의 종합문화생활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김철원, 윤혜진, 2008: 131).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벽예불에서 저녁공양에 이르는 스님들의 일상을 따라함으로써 참가자 스스로가 전통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각종 수행 및 생활 방식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목적에도 템플스테이를 ‘불교문화체험’으로 명시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9).

한편 종교관광의 관점에서 사찰관광이라는 용어들이 소개된 바 있다(이항구, 1988; 이호길, 한동기, 2009). 사찰관광을 종교의 교육적 기능, 견문확대 및 교양적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 관광의 형태(이항구, 1988)로 보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 동기나 순례의 목적 이외에 문화휴양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것을 사찰에 대한 종교관광의 매력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종교관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지순례지 방문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성지순례관광은 종교적 의무 또는 신앙 고취의 목적으로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이며(이병원, 2009), 성지순례 참가자들의 주된 동기는 종교적인 의무수행, 신앙회복, 개인적인 희망 및 서원의 실천, 성전 및 건축물을 보기 위함 등(Cohen, 1992; Hudman, 1992; Pfaffenberger, 1983)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종교관광 및 성지순례관광의 동기는 종교적 동기를 중심으로 순례 지역의 역사나 문화, 건축물 등을 탐닉하려는 동기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를 종교관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동기 측면에서 템플스테이는 종교관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

아야 한다. 우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불교도인들이 전체 참가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2010). 이는 템플스테이의 주된 참가동기가 종교적 측면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템플스테이의 주된 참가동기로 수행 및 자아성찰의 기회 등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심신의 재충전 및 문화체험 등의 문화휴양적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따라서 템플스테이는 종교관광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자연환경과 전통불교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전통사찰에서 숙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는 내, 외국인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여가/관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산사에서 생활체험은 삶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자연과의 교감,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탐닉, 정신적 수양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와 심신의 안식처를 제공한다(정운조, 전병길, 2009).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템플스테이를 ‘숙박을 통한 불교 문화(유산) 생활체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템플스테이 체험 : 여가관광욕구에 대한 보상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체험하는 것일까? 최근 정운조와 전병길(2009)은 여가관광체험으로서의 템플스테이체험을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으로 구분하고,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교육체험, 휴식체험, 대인교류감 등이 이완이나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체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의 체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더불어 템플스테이 체험의 효과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였다(전병길, 정운조, 2011). 두 연구를 토대로 템플스테이는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대한 생활체험으로 도전감, 유능감, 신체적 역동감, 모험감, 성취감 등 전형적인 서구식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체험과는 달리 한국적인 자연환경과 전통불교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적 자연관(자연교감 및 자연동화감), 심신의 이완, 자기성찰, 정신문화적 풍요로움 등 정(靜)적인 체험을 제공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전통사찰들은 산사(山寺)로써 대부분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번잡한 도시생활을 떠나 산사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의 교류 기회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자연에 대한 존엄을 느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과 자연이 하나 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스키, 등산, 암벽타기 등 활동지향적인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연 정복감과 같은 서구식 자연관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서구식 자연관에서 나타나는 자연정복감이나 경외감 등은 자연을 정복 및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템플스테이에서 나타나는 불교적 자연관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과 심리적인 안식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템플스테이 체험의 또 다른 매력은 현대인들의 실존적 의미 추구차원에서 ‘나’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불, 참선, 108참회, 명상 등의 프로그램은 일상의 번뇌와의 단절과 전통적인 수행의례에 대한 직접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 발견이나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참선수행을 통해 고요한 사유와 종교적 명상을 통해 정신과 마음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찾아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가경험의 정신적 순기능은 여가관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해서도 강조되어왔다. 가령 일찍이 자아탐색 및 평가(exploration and evaluation of self),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자아인식(self-perception), 깨달음(enlightenment), 변화(change) 등 여가관광활동과 관련한 자기성장의 개념들이 논의된 바 있다(Arnould & Price, 1993; Crompton, 1979; Csikszentmihalyi & Kleiber, 1991; Schmidt & Little, 2007).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자기성장 체험이 템플스테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전병길·정윤조(2011)의 연구는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이 반성, 회고, 자기한계의 인식, 깨달음, 자기성찰, 자기갱신,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자기성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전통불교문화의 유형, 무형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적 속성은 문화적 측면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Crompton, 1979). 실제로 템플스테이 기간 불교의례 및 사찰생활, 불교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불교정신문화에 대한 지식 확충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적 욕구 충족 혹은 지식 획득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병길, 정윤조, 2011). 여가관광활동이 지적 욕구 충족과 지식 획득의 장(場)을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논의(Beard & Ragheb, 1980)가 템플스테이 장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불교의례 및 사찰생활은 불교적 자연관과 절제된 생활 태도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발우공양은 참가자들에게 절제된 식습관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각인시킨다. 즉 여가활동이 지니는 학습의 효과가 템플스테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님 또한 참가자의 교육체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참가자들은 스님과의 교류(e.g. 개인적 대화, 다담(茶談))를 통해서도 깨달음은 물론 새로운 불교문화지식 등을 얻는다(전병길, 정윤조, 2011).

일반적으로 여가동기는 크게 자기개발 및 자기향상동기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의 두 가지 동기로 나눌 수 있다(채선애·한성열, 2002). 특히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동기는 여가관광활동의 주요동기로 알려져 왔으며, 이미 일상도 피, 심신의 안정감, 휴식, 스트레스 해소, 이완 등은 여가관광활동의 핵심적인 체험임이 확인되어왔다(Beard & Ragheb, 1983; Ross & Iso-Ahola, 1991).

자기성장체험과는 구분되는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매력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템플스테이는 자기개발 및 자기향상동기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의 두 가지 여가동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은 산사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각박한 도심 생활과 일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어,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얻게 된다(전병길·정윤조, 2011). 같은 맥락에서 정윤조·전병길(2009)의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이완(relaxation)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을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체험은 참가자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또한 운영주체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주된 참가동기가 일상탈출 및 휴식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9; 2010), 실제로 일부 사찰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4. 템플스테이 체험의 효과

전병길과 정운조(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 개인의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관광활동의 단기효과가 누적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가정(성영신 등, 1996)을 고려한다면 템플스테이는 궁극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정서적 역량 함양

자연과의 교감, 불교의식 및 생활, 다양한 이벤트(e.g. 탑돌이, 칭찬하기 등) 참여,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서적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평소 개인이 안고 있었던 갈등, 불안, 우울 등 부정정서를 극복하게 되고 나아가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정적 정서의 충전과 스트레스 해소로부터의 정신적 회복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기성찰이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성장 체험은 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을 이끌게 된다. 사찰경내·외의 자연적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얻게 되는 자연동화 체험과 휴식체험도 직접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화와 안녕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켜 참가자들의 정서적 역량의 함양을 이끄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적 역량 및 인지적 역량 함양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은 참가자의 삶의 태도 변화,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이타심 증진 등 사회관계 유지 및 강화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참가자 개인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령 칭찬하기나 공동체프로그램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대인관계의 기술 향상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통해 개인의 사회화를 함양시킨 것으로 보이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대인관계 기술과 대인 유대감 형성을 위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템플스테이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체험의 단기적 효과로 참가자들의 자기인식, 자신감, 자기존중감, 자아향상감 증진 등 인지적 역량의 함양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참가자들은 108배, 108 염주 꿰기와 같은 수행, 그리고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 이외에 자기유능감, 자신감, 자기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자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5. 템플스테이 사업 활성화 동력

1)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업단과 운영사찰들의 개별적인 운영활동 및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 하고있다. 성과관리체계를 통

해 운영사찰들의 운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운영사찰 지원예산을 성과중심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운영사찰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시켜 템플스테이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있다. 또한 템플스테이 운영 품질을 향상시키고 참가자들의 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방법인 운영사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별 운영사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운영사찰 모니터링은 운영사찰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사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운영사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사찰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운영사찰을 지원하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 그리고 열린 사찰 실현을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의 기본 정신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와 대중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 핵심 프로그램(예: 발우공양, 예불, 참회정진, 참선, 간 경, 사찰 안내, 울력, 다도, 포행, 사경과 사불, 탁본, 다담, 인경, 108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교육체험, 휴식체험 등 템플스테이 고유의 체험요소와 내용을 반영하여 참가자의 체험만족도 및 애호도 제고,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한 사회통합지향 프로그램(형성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치악산 구룡사, 2008), 가족을 위한 심리치 유 템플스테이(월정사, 2010)), 지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고려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전통문화 프로그램의 예로 골굴사의 선무도, 전등사의 한지공예와 단청, 백담사의 ‘님의 침묵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등), 지역관광 여건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충청남도의 템플스테이 플러스원(+1) 투어, 화엄사는 2012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대중문화 연계 프로그램(장육사의 캠핑 템플스테이, 마곡사의 한류스타 김민중과 함께, 월정사의 산사음악회, 백담사의 도종환 시인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등)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신록사와 내소사의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 장육사의 비만해소 프로그램, 용문사와 화엄사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법흥사와 월정사의 군장병 심신수련 프로그램, 기업 및 단체 연수 프로그램, 수도사의 슬로푸드 및 치유식(사찰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 등을 통해 특화되고 융합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휴먼웨어 역량 강화

템플스테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의 열쇠는 운영주체의 인적 역량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채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급여체계 및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등 기본 직무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직무 수행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템플스테이 운영자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현재 운영사찰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사찰별 전문/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템플스테이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기관 설립은 불교문화사업단 내에 두고, 대학 연계 또는 지역 연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4) 지자체 협력 강화

현재 자자체들은 관 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 관광자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3** 여수 세계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에 템플스테이가 숙박시설로 활용되거나 문화관광자원으로 소개되었듯이 메가 이벤트와의 연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거 충 청남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듯이, 타 지자체에서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단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사찰의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템플스테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진 등의 휴먼웨어나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지난 해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17세기 중반까지의 역사와 건축적 특성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자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세계에 그 가치를 새롭게 알리게 된 것이다.¹

오늘의 학술세미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기획된 자리이다.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는 본 발제에 앞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명하여주시고, 본 발제는 향후 한국의 서원 문화를 향후 ‘어떻게 계승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제안이라 보면 좋을 듯 하다.

발제자는 이 발제를 통하여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과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서원문화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지기를 기대한다.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과 가치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구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다.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장이었다.

1)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이들 고급 지성들의 개성과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은 현대 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1. 이상해, 2019,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 학보』 9호, 한국서원학회.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 -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2) 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각각 특징 있는 여러 모습들로 밝혀진다. 9개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그들 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 ‘결집’, ‘소통’, ‘대변’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론 형성과 사회적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만의 특성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활동 거점으로 국난기에 의병창의라든가, 연명상소, 격렬한 학문토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3)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모든 서원을 상징하는 사우와 강학공간과 함께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도산서원의 경림정,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돈암서원의 응도당 등은 대표적 건물들이다.

4) 유교문화 자료관·박물관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단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고 제향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원의 역사와 전통,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

2. 서원문화 활용 현황과 과제

일반인들에게 서원은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문중의 유적’, ‘비슷한 건물 배치’ 등으로 서원의 가치와 의미, 진정성이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다. 이런 탓으로 서원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 활용이 매우 저조했다. 최근 들어 문화재청에 의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서원활용과 이해가 전에 비하여 많이 진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활용사업들에서 보이는 콘텐츠들을 보면 60-70%가 유사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많다. 그리하여 해당 서원의 특화된 문화가 보이지 않고, 더욱이 진정성의 측면에서 서원 문화와 다른 사례들이 접목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서원문화의 지성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수요층도 유아와 초등생이 많은 점, 그래서

2. 이해준 외, 2018,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시기도 방학이나 주말을 한정한 아쉬움이 크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여 볼 것은 이러한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일반성이 주도하는 활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는 해당 서원이 지닌 문화적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올바르게 전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³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들은 각각의 독특한 문화 특성들을 간직하고 있다. 9개 서원의 특징과 성격은 대개

- 소수서원 : 1543년 건립. 安珦 제향, [최초 사액서원, 경관, 제향(도동곡), 문서]
- 남계서원 : 1552년 건립. 鄭汝昌 제향, [경관, 건축배치의 정형화, 의병(향촌)활동]
- 옥산서원 : 1573년 건립. 李彦迪 제향, [건축, 고문서, 옥계구곡]
- 도산서원 : 1574년 건립. 李滉 제향, [퇴계학맥, 경관, 별시 강회, 장서 출판]
- 필암서원 : 1590년 건립. 金麟厚 제향, [호남수원(운영인맥), 자료문서, 현대강학]
- 도동서원 : 1605년 건립. 金宏弼 제향, [건축디테일, 소학, 경관]
- 병산서원 : 1613년 건립. 柳成龍 제향, [경관, 건축, 제향],
- 무성서원 : 1615년 건립. 崔致遠 제향, [지방관과 흥학, 병오의병]
- 돈암서원 : 1634년 건립. 金長生 제향, [호서수원(학맥), 예학, 예서 출판]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서원들이 가진 문화유산 특성과 가치를 반드시 고려하고 주목하여, 향후 계승과 활용에 콘텐츠 화하고 특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서원들이 대부분 교육·강학, 지성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향·의례 기능만이 남아 전해지지만, 건축·경관 구성상 내외 공간의 문화적 활용가치와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향의례와 제향인물의 상징적 공간인 사우, 그리고 지성인들의 강회와 토론의 장이었던 강당, 지역 지성들의 교류와 회합의 공간이었던 누정 등등이 각각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며 존속해 왔다. 그러나 건축물 활용도 제향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많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유림이나 문중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앞으로의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에서 숙고할 과제는 후손이나 유림 중심의 제향(인물)과 건물 보존에서 나아가, 서원문화의 종합성과 특성을 개발한 서원특화 콘텐츠의 발굴, 활용의 의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서원문화가 인물(추승), 후손, 제향, 의례 중심으로 축소, 굴절되었다며, 이를 이번 기회에 탈각하여 서원문화가 지닌 정치, 교육, 의례, 도서 출판, 창작예술 등 종합적 성격을 이해시키고, 특히 지역과 학맥, 지성사적 활동의 전당이였음을 역사와 자료, 인맥과 학맥으로 밝혔으면 한다.

3. 이해준 외, 2015, 『한국의 서원 특화프로그램 계획』,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그리하여 ‘지성사의 거점으로서 고품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 ‘서원 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물제향 등)’이 함께하는 각 서원문화의 가치를 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원 활용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단체들의 전문성과 서원 특성에 맞는 활용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활용 단체들의 해당 서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성사적 문화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각 서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유사,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서원들의 특화 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또 유·초년생이 중심이 되고, 엘리트 층이나 지성인들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상층이 축소 굴절되기도 한다. 한편 즐기고 흥미로운 것에 치중하여 진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으며, 지성사, 문화예술과의 연계 노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서원의 특화와 활용 프로그램 제안자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원연구자나 서원관련 유림들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선시대 정신문화의 상징인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이 의례적인 춘추향사만을 지내는 곳으로 각인되어서도 안 되고, 현재처럼 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층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이며,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도 문제이다.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은 해당 서원의 지역 지성사적 전통, 제향인물의 학문, 강학 유서,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특성을 소재로 계승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 주목하는 9개 서원의 계승 활용에서는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품격, 지성적,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하여 활용시키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과 종합성(경관, 지성, 교육, 의례, 인물, 유적)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하고 이중 9개 각 서원별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자원들을 콘텐츠화하여 개발하고, 수요층을 고려하여 수요층별 관심과 기대에 대응할 다양한 프로그램(연령, 그룹, 주제별 유기화)을 개발 하였으면 한다.

3.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방향

한국의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 서원들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 추승·제향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 지성사적 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곳, 철학적 사색과 문학적 창의성을 공감하게 하는 우수한 경관 자원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다.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 통을 대표하는 곳이며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서원문화는 “유형적” 문화자원과 함께 훨씬 더 중요한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다. 서원에서 실현한 선비들의 지성 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문화와 지성의 세기’에 필적하는 현대와 미래 지성사회에 더욱 필요한 계승과 활용의 방향이자 가치일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콘텐츠의 선정

서원문화는 본래 지성사, 정신사, 천인합일의 경관 속에서 소규모 엘리트 문화로 체험되고, 고품격으로 차별화되었던 문화이다. 교육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한국문화 브랜드로서 서원문화는 이러한 본연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재생시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럴 때 진정한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발제자는 활용의 콘텐츠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1)9개 서원이 지닌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 종합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2)서원별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지성사적 전통(경관, 학맥, 지성, 교육, 의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조선의 서원문화가 지니고 있던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교육, 지성, 문화교류의 가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 ‘9개 서원별 특화된 콘텐츠’ 등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계승,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품격과 지성적인 가치와 모습을 재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서원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원문화의 진정성이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서원에서 조선시대 지성의 품격과 권위, 그리고 스승과 학생의 수준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시대가 달라졌고, 과거에 비하여 부족하고 열악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며, 한편으로 이는 활용 활성화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발제자는 어쩌면 활용과 선후로 짝을 이루면서 추구하여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도 생각된다.

한편 서원문화의 활용에서 수요층과 콘텐츠도 다시 생각해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일부 서원에서 보이는 유아들이나 초등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그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 혹은 사회적 지성인들이 서원문화에 맞는다. 또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는 서원에서 이루어질 체험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토론회, 학술세미나, 시문학 발표 등이 서원의 품격에 맞고, 가능하다면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교육, 도덕, 정치, 시사 토론회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지성, 문화교류 가치의 전승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그 의미와 가치가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9개 서원들은 가치 있고 차별화된 특별 한 자원을 지닌 유산이다. 서원은 도덕과 지성, 교육, 문화교류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생되고 계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 서원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활용

9개 서원들이 각 서원이 지닌 특별하고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를 찾아 활용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법만 중시한 채 각 서원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경쟁력은 저하,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이들 서원은 각기 다른 저명성리학자를 추승, 제향 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으로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들 서원은 유·무형의 특별한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종합적으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이들 서원이 가진 독특하고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원을 교육과 체험, 참여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화하면 현대적, 지성적, 교육적으로 재인식되어 활용 가치가 상승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활용자원의 성격에 맞는 연령, 성별, 성격 등을 고려한 수요층별 맞춤형, 유기적 활용콘텐츠의 선정, 개발, 홍보 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효과는 더욱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철학, 문학, 역사기행) 등의 자리를 마련하면 활용효과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발제자는 이에 더하여 수요층과 대상,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하여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초등학교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이,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 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학술 세미나, 그리고 서원의 명성과 품위에 맞는 활용(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 고급 선비문화의 공간(역사 경관)이자 철학적 의미가 깊은 명소에서의 체험, 그리고 나아가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환경, 정치, 여성문제, 시사토론회 등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서원의 품격에 더 맞는다. 어쩌면 이를 콘텐츠화하면 현대적, 지성적, 교육적, 정적, 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많아 문화적 복합기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⁴

2) 서원별 활용, 특화 콘텐츠(유형)

향후 서원별 계승, 활용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각 서원의 유산 특징을 구안하여 서원별로 활용 콘텐츠를 선정하는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서원 별로 8-10가지 자원을 선정하여 이를 관련 전문가나 유림들과 함께 토론하고, 경쟁력과 차별성 있는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때 서원간의 연계성과 차별성도 감안하면 좋겠고, 자원 유형과 수요층, 활용의 구체적 방안 등도 모색되었으면 한다.

서원 본연의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한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토대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재를 예들어 보면

4. 나아가 이제는 대를 이어 유교문화의 내면적 가치를 이어갈 인력양성의 자체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의 광범한 적극적 동원(양성, 연계)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 돈암서원, 도산서원, 무성서원, 소수서원
- 경관, 건축 배치 : 소수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 9개 서원
- 제향과 의례 전통 :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 서원문화 유적답사, 유물(기록) : 9개 서원(도산, 옥산, 필암서원)

등이 우선 지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경관과 기능, 제향 인물의 학문, 사상, 정치적 업적,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서원이 지니는 사회사적 의미, 전통의례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적 측면의 기록들, 다양한 유적과 기록 자료의 보존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활용을 차별성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기능, 특성을 나누어

- 인물 중심의 서원 : 제향 인물과 관련
- 강학 중심의 서원 : 교육 및 학문활동
- 의례 중심의 서원 : 제향 등 의례와 의식의 이벤트화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전시, 체험, 기행, 답사 등 학습장 등으로 특화하여 개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자원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의례, 교육 문화 체험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서원 유적답사체험, 경관, 건축자원 활용한 문화공간 활용, 유적과 유물, 자료관·전시관 운영, 서원문화제 개최 등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 표에서 보듯 서원별로 자원의 특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과 테마들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 유형을 상기하면서 서원별 콘텐츠를 상정, 세부적으로 특화시키고, 해당 서원의 상대적 가치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주된 수요층도 확정하여 이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과 체험, 참여 방법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표1.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유형

유형별	주요 내용(예)	방법
교육의례	- 서원 제향 의례, 교육의례(강학, 시회) - 지역 사족 의례 : 향음례, 향사례, 향약, 향회	체험
전통교육	- 서원교육 및 강학 활동 프로그램 . - 고강(시험), 서원 생활문화 체험, 유림과의 토론	체험 토론
인물사상	- 인물연구, 저술 자료집 편간 -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 - 발표, 교육, 토론 등 프로그램 특화	교육 토론 조사
문화유적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유물 - 관련 주변 유교 유적 답사(고택, 누정, 재실, 묘소 묘비 등)	답사 발표
공간활용	-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활용 - 고전 강독, 정신 학술 교육, 특강 등 - 지자체, 유림, 대학, 연구소, 교육청 등과 연계	활용
자료관, 서원축제	- 서원 문화 축제(인물, 학맥, 역사, 지성활동) - 전시관 : 인물 및 서원관련 유물 및 고문서, 전시 - 홍보자료 발간(서원문화, 제향인물), 교양서 안내서 발간	전시 홍보

두 번째의 예시는 각 서원별로 돋보이는 인물과 역사, 건축배치, 주변 유적 등을 콘텐츠로 선정하여 특화 주제를 삼고 그 구체적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구상하는 것이다. 서원별 특화된 테마로 대상 수요층과 성격에 따라 활용 콘텐츠를 만들면 특성과 차별·경쟁력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은 테마와 콘텐츠를 예시해본다.

[예] 9개 서원별 특화 콘텐츠 예시

- 소수서원 : 향사의례, 거점과 강학 체험, 사색로 체험과 유물관 관람
- 남계서원 : 최초로 정형화된 서원, 일두 정여창과 서원 창건, 남계서원
- 옥산서원 : 화재 이안적의 자취를 따라, 서원에서 경험하는 선비문화(제향, 강학), 유물이 말하는 화재와 옥산서원
- 도산서원 : 도산서원의 의례·강회 원생 체험, 퇴계학 지성캠프(강좌, 토론) 예던길 걷기와 유적 답사
- 필암서원 : 하서의 도학과 호남성리학, 필암서원의 역사, 유물
- 도동서원 : 사액 봉행제, 소학이 남겨주는 메시지
- 병산서원 : 류성룡 리더십 교육, 상소로 본 소통의 한마당
- 무성서원 : 교화와 흥학의 터전, 강학과 병오창의, 서원 관련 유적 답사
- 돈암서원 : 호서 수원, 예학의 거점, 제향, 강학 체험 이벤트

그리고 이들 활용 프로그램과 기획에서 ① 주제 ② 자원특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③ 대상층 ④ 기본방향 ⑤ 프로그램일정계획 ⑥ 교육자료 ⑦ 소요인력 ⑧ 예산, 기자재, 기타 사항 등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타 서원과 비교, 검토, 보완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4.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연계 활용

이상에서 각 서원별 특화와 활용을 전제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면 이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4가지 정도 제안, 상정하여 보고자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400여 년의 지속된 역사와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의 측면에서 한국 유학과 서원문화 전반을 대변하는 중요 유산이며, 각 각의 탁월 문화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서원 제향의식
-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역할
- 서원의 위치와 배치공간의 특수성 및 건물 건축의 우수성
-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 현판과 기문 등등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

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각되듯이 이를 연계하여 계승, 활용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바로 본 절에서는 이러한 9개 서원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연계, 상생하여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과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즉 서로 다른 역사 배 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9개 서원들이 독자성(특성)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다른 서원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서원문화를 보다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진닌 특징과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제자는 세계유산 한국서원의 연계, 통합 프로그램으로 4개의 안, 즉 제1안으로는 한국의 9개 서원 연계 투어, 제2안으로는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제3안으로는 서원유림 교류회 등. 제4안으로는 한국의 서원 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하여 본다.

1) 1안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이 기획은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을 탐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서원이 보여주는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 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9개 서원으로 지역성을 상징하며 그 서원이 지니는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 각각 독특한 서원문화를 함께 살피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 기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9개 서원 유림, 전통문화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관리자 등 문화유산 관련 인력 등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일정은 1 박 2일로 3개 서원을 묶어 월 1회 3개월 연속 운영(코스별 운영, 토요일~일요일)하며, 총 12회로 4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운영은 서원 전문가(통합관리단, 전문위원)의 인솔, 특강으로 진행하고, 해당 서원들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과 안내자료 준비하고, 참가자들은 소감 및 답사 기행문을 제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예상 프로그램과 일정(안)은

- 제1코스: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제2코스: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제3코스: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기획 조정하되 대체로 서원 소개[안내], 건물, 경관, 건축 특성, 제향, 자료 문서 등 [탐방 체험], 제향인물 및 다양한 역사, 활동 설명[특강, 토론], 사색 체험 등등으로 구성하여 각 서원의 특화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서원의 공통적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2) 2안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이 기획안은 한국의 서원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귀중한 활용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의 특별한 성격과 가치를 연계된 서원을 탐방하면서 연속 체험 하고, 서원별 비교 체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체로 테마는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당호,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서원 관련 유림이나 제향인물의 후손, 서원관련 연구자,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서원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한다.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2회씩 12회를 운영하며,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으로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선택)한다. 테마별로 특별 강사 및 인솔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및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은 상세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획과 구상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테마를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로 정한다면 매월 주제와 해당 서원을

- 1월, 7월; 교육강학: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2월, 8월; 경관(구곡)문학: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3월, 9월; 건축당호: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4월, 10월; 제향 의례: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5월, 11월; 인물사상 학맥: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6월, 12월; 도서·출판: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등으로 선정하여 일정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들을 제시하여 본다면 ‘書院의 山水와 講會 및 山水實景’ 체험으로 테마를 잡았을 경우 대상 서원을 도산서원(天光雲影), 옥산서원(風月無邊), 필암서원(廓然大公), 도동서원(秋月寒水), 남계서원(吟諷詠歸), 병산서원(翠屏晚對) 등으로 하여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서원의 강회, 시회를 함께 열어 그 성격을 이해하고, 서원 경관과 역사 인물을 노래한 시문을 정리,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를 겸하는 방안 등도 좋을 듯하다.

3) 3안 「한국 서원유림 교류회」

이 기획은 9개 서원의 원임과 유림들의 교류, 연계 프로그램(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계승, 활용의 성과와 과제, 방향의 점검 등과 서원별 역사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을 협의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면 좋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권유 받은 한국의 서원문화 발전, 계승을 위한 사후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 문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하다.

대상과 주 참여자는 9개 서원별 5~6명으로 30-40명 내외로 하고 관련 서원 전문가와 보존관리단,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이 함께하고, 1박 2일의 연수와 답사로 지역간 교류를 겸하여 영남권과 호서·호남권, 으로 나누어 연 2회, 통합 교류 2회로 9개 서원이 분담하여 개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개최하는 서원에서는 해당 서원의 제향과 의례, 연혁과 건물 안내해설(전문가, 서원 장의) 자료를 준비하고, 공통의 연수 주제와 초청특강, 발표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현대적 의미 계승에 대한 분임토론을 하면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4) 4안 「한국 서원문화축제」 개최

마지막으로 9개 서원이 교류, 연계하는 한국의 서원문화 축제를 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매년 특화된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알리고, 계승과 활용, 보존관리를 지속화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매년 주제별로 특화하여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서원문화를 재조명, 널리 알리고 전국 9개 서원 관련 유생들과 서원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 서원, 인물 관련 학술회의(국제, 학회) 개최
- 서원관련 문화 답사, 기행
- 특화된 서원문화 이벤트 개발 (도산 별시, 강학거점례, 사액봉행제, 제향의례, 상소활동 등)
- 서원, 인물 관련 학술회의(국제, 학회) 개최
- 9개서원 홍보와전시
- 영상, 예술 공연, 책자 발간

등을 구안하여 조직화하고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지역, 혹은 서원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향후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그리고 9개 서원의 연계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물론 이 제안과 방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9개 서원이 공동으로 이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올바르게 가치 있게 전승,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 주목해 보면 한국의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던 선비들의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이었다. 서원은 제향인물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맥별 독특한 사상, 교육 방식, 운영 모습을 지녔고, 지성인들이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로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고 실현하는 기능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제향의례를 비롯하여 사회교육과, 도서관과 출판 기능 등 여러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로,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 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이제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거 듭나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지성과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서원문화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그리고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미래문화자산!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문경 근암서원을 중심으로-

1. 머리말

국내에 남아 있는 서원의 대부분은 제향 공간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학 공간은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이다. 서원 훼손 후 서당운영과 가학으로 교육의 명맥이 이루어졌으나 일제 강점기 근대식 소학교가 생기면서 점점 전통적인 공간에서의 강학 기능은 쇠퇴 일로를 걸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훼손된 이후 꾸준히 복설이 이루어져 숫자면에서는 현재 조선 후기 수준¹으로 회복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이다. 교육공간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음에도 이렇게 복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유교 정신의 계승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다. 어쩌면 이런 점이 서 원의 세계유산등재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문경 근암서원은 17세기에 건립되었던 수많은 서원 중 하나이다. 특별한 이슈라고 여겨질 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당 창건부터 치자면 약 500 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인물조차도 명확한 자료가 없어 잘 알기가 어렵다. 새삼 기록의 중요성과 보존의 절실함을 느껴본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근암서원에 마지막으로 배향되었던 인물인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1679~1759) 선생의 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대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서원의 일반적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청대 선생은 조선 후기 숙종·영조 연간에 활동한 영남 퇴계학파의 대표적인 문신이자 학자이다. 선생은 20세가 되던 1698년부터 81세로 눈을 감기 열흘 전까지인 1759년 7월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약 30여 권에 이르는 분량이다. 62년 동안 의 기록은 후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현재는 43년간의 일기가 15책 분량으로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1702년~1704년 21706년~1713년 31719년~ 1725년 41727년 51731년~1734년 61736년~1739년 71745년~1759년 사이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 일기를 통해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권상일의 삶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지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기	대구	강원	울산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총계
현존 서원	213	144	103	68	36	32	27	23	9	9	6	2	1	1	1	1	675
미복원 서원	100	46	37	19	21	25	15	6	11	3	0	2	3	0	0	1	289
계	313	190	140	87	57	57	42	29	20	12	6	4	4	1	1	1	964

대원군 시기 서원철폐령으로 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서원으로 남한에 존속되었던 숫자가 22개소였음에도 현재 675개소로 다시 복원 혹은 신설되거나 명칭을 변경 하는 등을 통해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당시 훼손된 서원 가운데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복설된 서원이 271개소로 조사 되었다. <박성진, 「서원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2013.>

1. 전국 지역별 서원 분포 현황(2021년 10월 현재)

이 중 일기에 나타난 근암서원의 기록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살펴보면 22세때인 1702년에 서원에 목재 홍여하와 사담 김홍민의 배향일 논의를 시작으로 죽기 2달 전 까지인 1759년 5월 까지 근암서원 관련되는 일들을 일기에 기록²하였다. 모두 64건이지만 결본과 검색시 누락된 부분까지 합하면 백 여번 이상에 걸쳐 서원을 찾고 서원에 대한 일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서원들도 이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청대일기에서처럼 평생을 두고 서원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근암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원의 복설과정과 배향인물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 근암서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운영 및 활용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국내 천 여 곳에 가까운 향교와 서원은 제향공간으로서의 활용은 거의 100%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서원의 경우에는 훼손 후 100여년 동안 꾸준히 다시 복설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서원 공간의 80%를 차지하는 강당과 동재, 서재, 관리사 및 고직사 등은 일 년에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제향의 기능만 필요하다면 사우만 복원 했었어야 했는데, 오늘날 이런 사안을 두고 고민 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2. 근암서원 복설과정

근암서원은 1870년 훼손 후 백 여년을 넘긴 1975년과 1979년에 각각 강당과 사당을 중건하였다. 이후 고직사 등 부속사를 건립하였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복설 과정과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순 없지만 전국적으로 서원이 복설될 때 이곳도 마찬가지로 유행처럼 번진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경지역은 석탄 산업이 활발해 가행 광산만 하더라도 40여개소가 넘을 시기였다. 석탄생산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었을 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비성장기이면서 동시에 유림들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복설되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하다. 복설 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역 내의 유림들 간에, 타지역간에 교류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즈음 문경시의 유림단체인 향교, 성균관유도회, 성균관청년유도회, 박약회, 답수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문경유림단체협의회’가 2005년 7월 창립을 했다.

이 단체에서 가장 먼저 문경시에 건의한 사업이 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원인 근암서원의 제대로 된 복원이었다. 문경시 모든 유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담당자를 맡고 있던 터라 서원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난다.

서원의 역사가 짧은 것도,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다른 서원의 배향인물에 비해 저평가되는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문화유산이 별로 없었고, 서원을 운영하는 관리운영회도 형편이 넉넉하질 못했다.

2. 본문 참고자료에서 참고

지정된 문화재가 없으니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질 않았고, 서원 복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질 않았다. 다행히 3년여의 노력 끝에 경북도청의 도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금으로 국비 15억을 비롯하여 지방비를 포함해 3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지역의 유림뿐 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복설 작업에 착수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서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지는 궐철 이전에 서원이 차지하고 있던 부지의 1/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서원 부지로 추정되는 곳은 이미 민가가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부지는 농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가와 농토를 매입해야 하는 1차 과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다들 잘 아는 얘기겠지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토지와 건물 매입 이다. 더구나 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무조건 식의 막무가내가 될 때가 많다. 다행히 배향인물들의 후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서원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부지 확보 후 선행한 사업이 복원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이었다. 기본계획이 잘 세워지고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 복원 부지에 대한 시굴 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시굴작업을 통해 과거 서원에 사용되었던 석물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석물들을 통해서원의 건축 규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초석은 기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서원 강당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며 강당의 규모를 알면 사당과 동서재의 크기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먼저 문경지역의 인문적, 자연적 환경을 분석하고 서원 건축의 구성체계를 확인했다. 일반적인 서원의 발생과 기능에서 서원건축의 구성체계와 배치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문헌과 고지도를 토대로 근암서원의 역사적 위상을 살피고 이를 종합하여 복원 기본구상과 원칙을 세웠다.

보통 조선시대에 건립된 건물들은 토지문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지와 건물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주도 불부합되고 지목에서도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근암서원도 마찬가지로 건립당시의 모습은 서원 궐철과 함께 서원 부지는 개인소유로 상당수 넘어간 상태였으며 서원의 과거 위격에 맞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근암서원 복설의 경우 건축 비용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만큼은 근암서원 문중에서 해결을 해야 사업이 가능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수 많은 서원의 복설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잘 해결이 된 모양이다. 최근에 복설된 안동의 호계서원과 영양군의 영산서원, 영주의 이산서원은 각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건립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운영도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하지만 관리비와 운영비 부분까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충북 진천군에서도 백원서원 복설을 준비 중이며 강원도 원주시에도 칠봉서원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작년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궐철 후 서원 복설시 문중과 유림의 힘으로 복원이 되었다면 2000년 이후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곧 지자체에서 서원을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근암서원이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었다.

처음 근암서원을 복설하자고 했을 때 유림 대부분의 의견은 제향공간에만 관심이 있었다. 강학공간과 동서재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었다. 오랜 기간 설득을 통해 강당은 현대식 교육시설을 완비했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온돌구조에서 전기 판넬 구조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을 건물 안으로 배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현대적인 시설로 설계했으면 어떠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암서원의 배치는 우리나라 서원의 보편적 배치형태인 전학후묘를 따랐으며 배치 축성은 사당에서 사당삼문, 강당, 루문을 정확히 일직선축의 중심에 배열시키고 강당 앞에 동재와 서재를 대칭 배열 시켰다. 경북 지역 서원 중 배치구성이 전학후묘, 전재후당 배치의 예는 구미 금오서원, 달성 도동서원, 경주 옥산서원과 서악서원, 안동 병산서원과 임천서원, 역동서원, 도산서원, 봉화의 삼계서원, 상주 도남서원 등 도내 전역에 분포한다. 한편 전학후묘, 전당후재 배치는 문경의 소양서원, 상주 홍암서원, 청도 자계서원, 영천 창대서원 등 그 예가 많지 않다. 특히 상주와 문경 소재 향교는 모두 전당후재형이란 점에 주목이 된다. 훼손 이전의 배치 구성을 갖춘 서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존하는 상주, 문경 지역에 현존하는 서원, 향교 배치구성이 전학후묘, 전당후재의 배치구성 비율이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여기에 건립시기는 16~17세기에 집중되었고 지형적인 차이에 의해 강학구역이 전재후당 또는 전당후재 배치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처음에는 근암서원의 지형이 서북향이 낮고 남동향은 높은 경사지에 입지해 있어서 입구부분에 홍살문을 세워 서원 영역임을 표시하려 했지만 예산부족과 부지협소 의 문제로 세우지는 못했다. 건물의 구성은 사당 1동, 전사청 1동, 삼문 1동, 강당 1동, 동재 1동, 서재 1동, 내곽 화장실 1동, 루문 1동, 관리사 1동, 외곽 화장실 1동 등 모두 10동의 건물을 복원했다.

3. 근암서원 배향인물

근암서원에는 모두 일곱 분을 배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 분 또는 두 세분을 배향하는데 비해 조금 많이 배향하고 있긴 하다. 1665년(현종 6)에 우암 홍언충 선생을 모시는 서원으로 창건된 뒤 뒤이어 1669년에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을, 1693년에는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 1540~1593)과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0~1674)를, 1876년(정조 10)에는 활재(活齋) 이구(李渠, 1613~1654)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3),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0~11750) 선생이 배향되어 있다. 이 중 청대 선생은 배향된 일곱분 중 유일하게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산북면 서중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1) 우암 홍언충

홍언충(洪彦忠, 1473 ~ 1508)은 자가 직경(直卿)이고 호는 우암(鴈庵)이며 본관은 부림(부계, 지금의 군위 부계)이다. 아버지는 허백정(虛白亭) 홍귀달(洪貴達) 선생으로서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고 사후에 문광이라는 시호가 주어졌다. 우암은 허백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봉화 청량산 안중사에서 이우, 황맹 현과 함께 독서 하였고 허암 정희량, 용재 이행, 읍취헌 박은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많은 시문을 나누었다.

23세때인 1495년(연산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된 이후, 다음 해에는 정희량, 박은 등 13인과 사가독서를 하였고 26세 때에는 홍문관 저작과 박사 등을 역임하고 가을에 질정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후에 홍문관 부수찬이 되고 이조 좌랑에 전보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503년에 수찬에 올랐으며 그해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글을 올려 임금에게 직간하다 노여움을 사서 진안에 유배되었다. 부친 홍귀달이 경원으로 유배 될 때 다시 거제도도 이배 되었다. 거제도도 이배되던 중 조령에 이르러 1506년 중종반정(34세)이 일어나 풀려났다. 그뒤 중종이 성균관 직강에 제수하였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고 술과 시로 여생을 보냈다. 1508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부인은 무반(武班) 남손(南蓀)의 따님이며 슬하에 삼남 삼녀³를 두었으나 후사가 없어 근래에 이르기까지 외손들이 봉사하고 있다. 그의 문집 『우암고』에는 시가 총 245제 41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회를 형상화한 술회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벗과의 주고받은 차운시와 죽음을 애 도한 만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갑자년(1504)에 진안현에 귀양살이를 할 때 앞으로의 일을 장차 예측 할 수 없이 돌아가므로 스스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자신의 만사를 지어 비명을 짓고 아들에게 훈계하였다 한다. 우암선생의 자만시는 현재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大明天下 日先照國	대명 천하에 해 먼저 비추는 나라
男子姓洪 名忠字直	남자의 성은 홍이요 이름은 충, 자는 직이라
半生迂卒 文字之攻	반생토록 오황하여 문자에만 골몰하다가
在世州有 二年而終	세상에 난 지 서른하고 두해만에 생을 마쳤네
命何云短 意何其長	명은 어찌 그리 짧으며 뜻은 어찌 그리도 긴가
卜于古縣 茂林之鄉	옛 고을에 무덤 정하니 고향은 무림이라
雲山在上 灣碕在下	위에는 구름 산이요 아래는 물굽이라
千秋萬歲 誰過斯野	천추만세 뒤에 누가 이 들을 지나갈꼬
指點徘徊 其必有悵然者矣	손으로 가리키며 배회하면서 반드시 슬퍼할이 있으리라. ⁴

36년의 길지 않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우암 홍언충에 대해 창설재 권두경 (창설재 권두경, 1654~1725)은 『우암집』 서문에서 청명한 삶의 자세와 문장에 뛰어난 ‘시가사걸’로 칭송된 그의 면모를 특기하였고, 활재 이구는 건원시통본주문에서 홍언충의 문장과 직도가 뛰어난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직절명신으로 평가하였다.

1665년(현종 7)년 그의 사후 157년이 지나 문경의 근암서원에 배향이 되었고 1786년(정조 10) 몰후 278년이 지나 양산서원에 경재 홍노와 부친 허백정 홍귀달과 함께 모셔져 있다.⁵

3. (1자)홍망지(洪望之) (2자)홍연지(洪隣之) (3자)홍민지(洪憫之) (1녀)정영(鄭英)의 처 (2녀)최언준(崔彦浚)의 처 (3녀)홍윤최(洪胤崔)의 처

4. 홍언충, 『寓庵稿』, 券二, 「自挽」. 이 시 역시 『속 동문선』, 제18권, 「잡서(雜書)」부분에 실려 있다.

5. 권진호, 『우암 홍언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 『우암 홍언충의 삶과 시세계』, 2016. 12. pp26~37.

2) 한음 이덕형

한음 이덕형(1561~1613)은 임진왜란과 여진족의 성장, 명의 쇠퇴 등으로 요약되는 16세기 말~17세기 초 대내외적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이다. 조부는 증 좌찬성 이진경(李振慶),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이민성(李民聖)이며, 어머니는 현령(縣令) 유예선(柳禮善)의 딸이다. 영의정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사위이다.

1580년(선조 13) 약관의 나이에 별시 문과에 수석으로 급제하면서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되었으며, 재주 있는 신하로 선발되어 선조로부터 서적을 받았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인 31세의 나이에 대제학에 추천되었으며, 영의정을 세 차례나 역임하였고,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무엇보다 임진왜란에서 국가를 위해 명나라, 일본과 외교를 통해 국가를 구하는데 공을 쌓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한음은 어떻게 근암서원에 배향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그의 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조부 이진경은 벼슬은 지내지 못했지만 혼인을 통해 영남과 연고를 가지게 된다. 그는 상주 일대에 강력한 재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상주김씨 김윤중의 딸과 혼인하였다. 부인 상주김씨의 묘소가 상주 내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진경은 상주에 주거 기반을 두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과정에서 그는 처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것을 짐작된다.

후일 한음이 조모 산소의 관리와 성묘에 정성을 다하고, 상주를 고향으로 인식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연고는 한음이 김홍민, 김홍미 형제, 정경세, 이준 등 상주 출신의 명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34년 당시 상주목사였던 큰아들 이여규가 임소에서 『한음집(漢陰集)』을 간행한 것도 근암 서원에 배향된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17세기 중반 근암서원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비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서원은 단순히 강학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독서하면서 자신을 계발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게다가 서원은 사람들이 친목을 위해 결성한 수계(修契)의 장소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당시는 문경이 아니라 상주 관할이다 보니 상주목사로 부임한 지방관들이 자주 내방하는 곳이었고, 인근 사람들은 산양의 근암서원에서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하고, 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음 사후 근암서원에 한음을 배향하자는 의론은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활재 이구(1613~1654)와 목재 홍여하(1620~1674)이다. 두 사람은 각각 영순면과 산양면 출신으로서 17세기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근암서원의 향현사를 건립하여 우암 홍언충을 배향한 지 5년 후 1669년에 다시 향현사에 한음의 봉안을 추진하는 발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봉한음선생통본주문 奉漢陰先生通本州文>이 작성되어 사림에 가부를 묻는 첫 번째 통유(通諭)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내통문>에서는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드릴 일자 선정을 도내에 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목재 홍여하의 역할이 주목된다. 목재가 한음을 근암서원에 배향하는 일은 허목(허목, 1595~1682)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전말을 유추할 수 있다.

상주 산양현 근암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 그곳에 영천 신응거가 상주목자로 재임할 때 서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당을 건축하여 우암 홍선생을 향사했으며, 근래에 근암서원이라 불렀습니다. 우암은 바로 저의 고숙조입니다. 이에 상주의 유사들이 ‘한음 이선생 또한 우리 고향 사람이다. 고을의 제로들과 이 선생의 동방들은 모두 제사를 모시는 곳이 있지만, 유독 이선생만 없다. 이는 유림들의 유감스러운 일이니, 우암과 근암서원에 나란히 향사함이 마땅하다.’라 하면서 의론이 합치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상순 정사에 향사례를 거행하고, 의식에 필요한 글을 집사에게 부탁하여 짓게 한 뒤에야 여러 선비들의 마음에 흡족하였기 때문에 저는 감히 재배하고 청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집사께서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좋은 문장을 지어 사문의 성대한 거동을 빛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용문을 통해, 첫째 근암서당이 사당을 건립한 뒤에 1660년경에 서원으로 승격 되었으며, 둘째 사당에 우암 홍언충이 먼저 배향되었으며 한음을 같이 배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홍언충은 이 지역 출신이자 홍귀달의 넷째 아들로써 갑자사화에 같이 변을 당한 인물이다. 당시 명망을 보았을 때 근암서원에 배향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이한 것은 당시 유림들이 한음을 ‘우리 고향 사람’으로 인식 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 상주 지역에 한음을 향사하는 사당이 없어 근암서원에 같이 배향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음이 상주 지역 유림들에게 차지하는 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암서원에 한음이 배향된 가장 큰 이유는 남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세력을 더욱 공고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홍언충은 선조 인물이므로 당파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한음 이후에 배향된 홍여하, 이구 등은 모두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다. 게다가 홍여하는 송시열 일파와의 알력으로 벼슬에서 쫓겨났으며, 이구는 율곡의 성리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상주의 유림들이 한음을 배향하려고 한 데에는 이덕형-홍여하-이구-김홍민 등 지역 출신 선배들을 봉향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세력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음의 근암서원 배향은 당시 상주 출신 유림들에게 한음이 지니는 정신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⁶

3) 사담 김홍민

김홍민(金弘敏, 1540~1594)의 본관은 상산이며 자는 중원(重遠)인데 후일 임보(任甫)로 고쳤다. 호는 사담(沙潭)이다. 모친 창녕 조씨는 계공랑 조한신의 따님이시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부친인 후계 김범은 사담이 기운이 약하고 나이가 어리다며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사담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고, 지니고 있던 물건을 주고 동년배 중의 선학자에게 구걸하여 배우기까지 하였다. 결국 부친인 후계 선생으로부터 시와 예를 배워 가학을 계승하였다.

156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삼년상을 마친 사담은 1569년 과거의 초시에 응시하여 1등한 후 이듬해 회시에도 일등한 후 전시에서 병과 3등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1570년 성균관 학유를 시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 성주교수, 예문관검열, 예조좌랑, 홍문관 수찬, 병조좌랑, 1583년에는 병조좌랑, 1588년인 49세에는 사간원 사간과 홍문관 응교를 제수 받았다. 50세가 되던 1589년에는 청주목사 겸 춘추관 편수관을 맡았다.

6. 오용원,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 『한음 이덕형에 대한 후인의 기억과 기록』, 2017.12. pp102~103.

1579년 40세때 예조좌랑을 역임하고 그해 여름에 제천 현감에 나간 적이 있었다. 사담은 제천 현감으로 재직시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인 진주 강씨 출신의 강천민(姜天民, 1560~1640)과 협력하여 선조 13년인 1580년에 퇴계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남당서원을 세워 지역에서 문풍을 일으켰다. 남당이라는 명칭은 남당(南塘)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인데, 생도들에게 이것으로 가르침을 삼고자 한 것이다. 공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자 고을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워 칭송하였다 한다.

1592년 봄 병으로 체직(遞職)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임진왜란을 만났다. 임진왜란 때에는 상주의 서북 지대와 속리산에 근거를 둔 충보군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593년 5월 모친상을 당하여 의병대장으로 서의 직임은 내려놓고 보은에 영전을 마련하여 봉헌하다가 이듬해인 1594년 6월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후일 근암서원에 봉안하면서 집안에서는 효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업적을 상징하는 말로 효충을 내걸고 있으며 그 업적으로 서원에 배향이 되었다.

가휴 조익은 사담이 의병대장이 되었을 때 간단하게 인물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미칠바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일찍부터 아는 분으로 평소에 기개와 절의가 있었다. 말이 강개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뜻이 있었다. 반드시 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 보통 사람들 이 미칠 바가 아니다.⁷

사담이 돌아가자 사람들은 선인이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창의군의 군량유사를 지낸 박수지는 사담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누가 어진 사람은 장수를 누린다고 했던가”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생인 성극당 김홍미⁸가 쓴 행장에 도공에 대해 선인이라고 한다면 공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평하였다.

같이 교유한 이들은 모두 일세의 명류였는데 그 사람됨을 애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이 사망한 후에 공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안타까워마지 않았다. 비록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공에 대해서는 감히 홍보지 않았으며, 모두가 ‘아무개 같은 이가 바로 선인善人이다’고 말하였다. 아! 이에서 더욱 공이 지켜온 바를 알 수 있다.⁹

4) 활재 이구

이구(李渠, 1613~1654)는 자가 대방(大方)이고 호는 활재(活齋), 산양처사(山陽處士)이다. 17세기 전반기에 평생을 순수 처사로 살았던 인물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종실인 효령대군의 8세손이다.

7. 『가휴집』, 「진사일기」, 1592. 8. 16.

8. 김홍미(金弘微, 1557년 ~ 1605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 관료, 성리학자이다. 자(字)는 창원(昌遠)으로, 호는 성극당(省克堂), 성극(省克)이고,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바로 대과를 보지 않고,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했으며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이 후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근무하였으며 형제가 옥당에 근무하여 사대부들의 부러움을 샀다. 정 여립의 난 관련자로 누명을 쓰고 기축옥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 당색으로는 동인이었다가, 뒤 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질 때 남인이 되었다. 남명 조식(曹植), 서예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며, 류성룡의 조카사위이고 류운룡의 사위이다. 역사와 제자백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경연에서 반드시 옛 사례를 인용하여 당시의 일을 정정함으로써 왕의 찬탄을 받았다. 선박 제조 기술이 있어서 선조는 그에게 관옥선 설계 제조와 거북선 설계 제조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9. 『검간선생문집』, 「임난일기」, 1592.5. 17

이구는 공조정랑을 지낸 아버지 이광흡(李光洽, 1583~1652)과 어머니 장수황씨 사이에서 1613년(광해군 5) 2월 11일 충청북도 괴산의 중원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는 외가인 산북 대도촌에 살았다가 또다시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단정한 면모를 보였다. 성장하면서 설선¹⁰(薛瑄, 1389~1464)의 글을 읽다가 ‘유자가 도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장은 단지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다.’라는 대목에서 깨우치는 바가 있어 주자서와 퇴계집을 가지고 단서를 구하고 힘쓰는 바탕으로 삼았다.

병자호란(1636년) 이후 가족들을 이끌고 외가인 상주 산양으로 이주하여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성리학에 전심하였다. 그는 항상 “이기(理氣)라는 것은 성정의 큰 본원이요, 학문의 큰 두뇌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폐단은 이 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역상(易象)·예가(禮家)·천문(天文)·주수(籌數)·율력(律曆)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매우 박학다식 하였다.

청주 경씨 선공감역 유후의 딸과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으나 먼저 사망하여 임천 조씨 병절교위 인보의 딸과 다시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젊은 나이에 산양에 옮겨 오면서 세상의 영리에는 힘쓰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천덕과 왕도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살피는데 힘썼다. 이 시기에 활재 이구의 주요저술이 마련되었다.

채헌징¹¹은 활재집 발문에서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이 일찍이 이르기 “도술(道術)의 없어지고 찢어짐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이유는 실로 이기(理氣)를 간파하여 밝히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시고서는 드디어 회암(晦庵)이 발휘하신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근본으로 하면서 후론에 이르기까지 더욱 더하고 미루어 밝히었다. 그리고 일세의 여러 현인들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논의한 것이 성명(性命)의 본원을 밝히고 체용(體用)의 분수를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편 기를리와 같은 종으로 여기는 것이 육상산에서 나왔음을 아시고 폐단이 후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였다. 간사잉어(看史剩語)는 손수 수시로 차기를 적어 자신의 설을 적은 것으로, 대개 이치를 깨닫고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이었다. 느끼고 분개함에 쉬지 않는 뜻이 실로 그 가운데에 붙여져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언제 일찍이 이런 의론이 있었으며 또 한 언제 이런 식견이 있었는가. 경인년의 한 소장으로 말한다면 인의와 군친에 대한 말은 바로 정수리자리에서 상하로 한침을 놓은것이니 지금까지

10. 명나라의 철학자. 자는 덕온(德溫), 호는 경헌(敬軒). 산서 지방의 하진(河津) 출생. 정주학(程朱學)을 바탕으로 하여, 복성(復性)으로써 으뜸을 삼았음. 하동학과(河東學派)의 창시자로 일찍 이 주희의 백록동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 설부자(薛夫子)라고 불렀다. 그는 이(理)는 마음속에 구비되어 있고, 성(性)은 곧 이(理)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진사 출신으로 일찍이 대리시정경(大理寺正卿), 예부시랑(禮部侍郎),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문청(文淸). 저서 《독서록(讀書錄)》, 《설문청집(薛文淸集)》 등(等)이 있음.

11. 채헌징(蔡獻徵, 1648(인조 26)~1726(영조 2)).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문수(文叟). 호는 우헌(愚軒)·여물헌(與物軒). 용궁(龍宮) 출생. 채천계(蔡天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채이복(蔡以復)이고, 아버지는 채기종(蔡起宗)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順天金氏)로 김경장(金慶長)의 딸이다. 재종숙 채지수(蔡之洙)에게 입양되었으며, 홍여하(洪汝河)·이현일(李玄逸)의 문인이다.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조·병조의 낭관(郎官)을 거쳐 사간원의 정언·헌납, 사헌부지평, 시강원필선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진주목사·인동현감·영해부사 등을 지냈다. 영해부사로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문풍(文風)을 고취시켰다. 저서로는 『우헌문집(愚軒文集)』 3책이 있다.

지 상소문¹² 중 에 가장 명언이 되었다.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론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르지 않았음을 알게 하였으니 우리 유학계의 행은 대개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¹³

활재의 남긴 글중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인년 상소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하여 김용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효종 즉위년, 즉 병인년에 있었던 영남 유생들의 연명 상소는 통상적인 상소와는 달리 참여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단적 정치 행위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이의 학문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상소는 행적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것 보다 훨씬 진전된 비판의 논리를 보여주었다는 사상사적 의미가 있다. 그가 이 글에서 특히 역점을 둔 것은 이이의 학문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행적의 문제는 거칠고 사소한 것이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의 폐단이라고 했다.¹⁴

식산 이만부는 활재의 한평생을 말하기를, “만난 세상이 불행하였고, 뜻과 학업은 방대했으나 수명이 짧았으며, 나아가서는 세상에 쓰이지 못했으며 물러나서는 후대에게 전수해 줄 수 없었던 매우 불행한 삶”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짧았던 삶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식산의 절실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또 청대 권상일은 활재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에서 그가 옛날 거처했던 도촌을 지나면서 활재 집터에 고목 한그루만 남아 있어 그곳에 말을 매어두고 당시의 일을 고목에게 물어본다. 청대는 활재를 한유와 노중련에 비유하였다. 한유는 불교와 도교 등 이단의 세력을 온 몸으로 막고 유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은 인물이며, 노중련은 진 나라가 예를 버리고 공을 숭상하자 동해로 들어가 빠져 죽겠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볼 때 활재는 상당한 기개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

이구는 1644년(인조 22) 명이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역을 쓰지 않고 자신이 명의 절기에 따를 절기서를 지어 이에 따랐다. 존명의리는 활재 이구의 사상을 지배하는 개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52년(효종 3)에 부친상과 다음해에 모친상을 연이어 당하면서 상사에 몰두하다가 1654년(효종 5) 8월 25일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두달 뒤인 10월 괴산 연풍의 장풍산에 안장되었다. 활재 이구의 학문과 정신은 청대 권상일 등 후대 많은 존송의 대상이 되어 사후 130여년이 지난 1786년(정조 10) 근암서원에 배향되었다.

12. 경인년은 1650년(효종 1)으로서 영남유림에서 율곡의 승무(陸廡, 문묘(文廟)의 양무에 위(位)를 모시던 일)운동에 대하여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영남유림에서는 율곡의 승무 운동에 대응하여 1649년 12월 유직을 소수로 한 <영남유생논우계 율곡불합종사소(嶺南儒生論牛 溪栗谷不合從祀疏)>를 950여명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2월에 봉정하였다. 활재는 이 반대 유소를 주도적으로 집필하였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후일 금고 되기도 하였다.

13. 『活齋集』, 『活齋先生文集跋(蔡獻徵)』. 활재집은 7권 4책.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권두경(權斗經)·이만부(李萬敷)의 서문이, 권말에 채헌징(蔡獻徵)의 발문이 있다.

14. 김용현, 「활재 이구의 철학이론과 그 사상」,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70.

15. 전성건, 「활재 선생의 시와 철학」,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 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56~57.

5) 식산 이만부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이조판서를 지내고 관중추부사에 오른 근곡 이관징의 손자요, 이조참판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박천 이옥의 둘째 아들로써 현종 5년 12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중서요, 호는 식산(息山)이며 본관은 연안이다. 그의 가계는 근기남인의 명문이었으며 지봉 이수광의 외손이기도 하다.

식산이 경상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4세때 상주의 외답 노곡리 식산의 아래에 터를 잡고 이거하였다. 그의 고조부인 이창정(李昌廷, 1573~1625)은 광해군의 난정을 피해 문경 농암의 청화산에 은거하여 화음무구옹(華陰無求翁)이라 자호했고, 인조반정 이후 다시 출사하여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때부터 영남 북부지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식산의 호는 이 지명을 딴 것이다. 식산은 당파싸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유배과정을 지켜보면서 치열한 당쟁으로 지친 조선 후기 사회를 염두에 두고 쉼다(息)는 이미지를 가지로 호를 삼았다. 그리고 유현의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 영남을 좋아하여 이곳에 거주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실상은 1697년 조부의 상을 치루며 닥친 극심한 가난으로 한양의 족한정을 떠나 둘째 부인 풍산류씨 고향인 영남 상주부로 이주한다. 이때 부친 이옥도 함께 이거하지만 이듬 해에 사망하고 만다. 1710년부터 3년간은 고조부가 계셨던 문경 화음(지금의 농암면 화산리)으로 이주했다가 이후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원림을 경영하고 독서와 강학에 매진하며 시문과 서술을 창작하였다.¹⁶

식산의 증조부인 이심(李禔, 1597~1648)은 청절의 선비로 칭송이 자자했던 분으로서 학행이 뛰어난 유일지사를 천거하는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로 천거되어 대군의 사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문경현에 은거하여 자제들을 훈육했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문경 가운에 있는 소양서원에 배향되었다.

주희와 이황은 이주하는 곳마다 암자와 정사를 경영하며 다양한 시문을 창작하였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식산역시 3~4번 주거지를 옮겨 은거하면서 다양한 시문과 예술작품을 창작하였다.

퇴계학파의 종장 이현일을 예방하여 평소 주장해오던 성리설인 ‘천도유경설(天道有敬說)’¹⁷에 대하여 이현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대부분의 인물이 노론과 그 인물들을 비판하는데 식산 역시도 『만동사의(萬東祠議)』¹⁸를 지어 만동묘에 명나라 신종황제와 제후국의 신하 송시열을 함께 배향하는 것을 성토함으로써 노론계 학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인다. 1708년에는 조선의 성리학 저술을 분류하여 편집

16.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원림경영과 누향록에 구현된 문학세계」,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 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180~181.

17. 이은호,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천도유경설(天道有敬說) 연구(研究)」, 『동양철학연구』 56, 동양철학연구회, 2008, pp. 75~96 “息山은 天道有敬說에서 天道와 人道가 제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誠과 敬 또한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라는 주장을 펼친다. 더 나아가 올바른 敬의 면목을 알기위 해서는 다시 程朱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의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상황과 결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록 그의 주장이 독창적이거나 정주학이나 퇴계의 성리학을 뛰어넘는 차원의 입론이 아니고 또한 龍頭蛇尾격의 마무리로 끝을 맺고 있지만 당시 조선의 사회가 程朱의 종지를 벗어나 공리사변으로 치닫고,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온갖 모순을 양산해내는 상황에 맞서 성리학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한 유학자의 성찰적 태도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18. 권상하(權尙夏)가 1703년 괴산군 화양동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명나라 신종황제와 송시열 (1607~1689)을 함께 배향하려 할 때 이만부는 목숨을 걸고 만동사의(萬東祠議)를 지어 비례(非禮)라고 성토했던 문장이다. 이 글은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내용이었으므로 식산집에는 실리지 못하고 『식산집보유(息山集補遺)』로 간행되어 식산전서 2책, 269~271쪽에 수록되었다.

한 『도동편¹⁹』을 완성한다. 여기에서는 당색을 초월하여 공정한 마음으로 이이, 김장생 등 서인계 학자들의 성리설도 수용하였다.

식산이 도동편을 완성하고 나서 오치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만부는 일일에 문인 다수가 참여했지만 다른 사람의 비평을 듣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내가 겪은 죽고 사는 것이 갈라지는 2개의 큰사건(1707년에 두 자녀를 잃은 사건)은 봄을 맞으니 더욱 심하게 느껴져 말로 할 수가 없다. 지난 해 11월초에 리숙에 거처하면서 도동편을 수정하였는데 함께 일한 사람이 수 명이고, 왕래하며 이 일에 동참한 사람도 많았다. 12월 중순께는 도남서원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가까운 곳의 사우와 더불어 교정하였다.(중략) 오직 초고를 베끼는 일은 겨우 마쳐서 권수로 는 20권인데, 책은 십문으로 분류하여 제법 가지런하고 정돈된 것이 참고하여 살펴 는 데는 편리하나, 다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론하지 못하니 고루한 병폐를 면하지 못할까 한스럽다.²⁰

식산은 일생을 학문에 몰두한 남인의 산림학자이다. 서울과 상주, 인근 문경과 영 주등지를 넘나들며 학문에 몰두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이루었다. 그의 학문 은 외가인 이수광의 영향, 처가에서 유래한 이황, 유성룡의 영향을 받으며, 성리학, 예학 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서예 등에 걸쳐 다방면에 깊이 있는 성과를 남겼다. 그의 삶과 학문을 살펴보면 이만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학문과 영남의 학문을 잇거나 종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성리학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조선의 현실은 학문적,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태도는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¹

6) 목재 흥여하

흥여하(洪汝河, 1620~1674)는 자는 백원, 호는 산택재, 혹은 목재, 본관은 부림이며, 아버지 대사간 홍호(洪鎬, 호 無住)와 어머니 장흥고씨(고경명의 손녀이자 고종 후의 따님)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부친을 따라 서울에 있을 때 우복 정경세 (1563~ 1633)를 만난 적이 있었다. 정경세가 『중용』 첫 장의 뜻을 묻자 ”‘기가 형체를 이루어서 이도 부여되었다(氣以成形而理亦賦)’라고 한다면 기가 앞이고 이가 뒤 인 것만 같습니다. ‘亦賦’자 대신 ‘本具’字를 쓰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라 하니, 정경세가 앞으로 큰 선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654년(효종 5, 35세)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시강원 설서·성균관 전적·사헌부 감찰·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57년(효종 8) 외직으로 고산도 찰방이 되어 민폐를 제거하기도 하였고, 1659년에는 경성 판관이 되어 어진 정사를 펼쳤다. 병마절도사 권우의 모함을 받고 파면되어 충청도 황간으로 떠나가니, 고을 백성들이 서로 길을 막고 울면서 중국의 조주를 다스렸던 한유의 치적에 비유하였다. 41

19. 성리학 전반을 정리, 편찬했던 저술. 십문(十門)의 유형별로 성리학을 집대성해낸 책.

20. <『息山集』 卷7, <答吳致重 3서>>

21.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 시·군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257.

세가 되던 1660년 유배에서 풀려나자 문경으로 돌아와서 산택재(山澤齋)를 짓고, 학문을 강마하는 한편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였다. 이후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지만 그해 겨울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5세였다.

목재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문집 『목재집』에는 257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흥여하는 평상시 내면의 수양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 시는 1661년 41세때 충청도 황간에 정배되었다가 고향 문경 울리로 돌아온 일을 읊은 시이다.

還鄉倦客自長沙	지친 객 장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病眼依稀舊物華	병든 눈엔 옛 물화 희미하게 보이네
芳草空洲六七里	빈물가 육칠 리에 꽃다운 풀 자라나고
杏花疏雨兩三家	가랑비 내리는 두세 집에 살구꽃 피었네
候門童僕悲兼喜	문에서 기다리던 아이는 울다가 기뻐하고
滿架書籤整復斜	서가 가득한 책은 정리했다 다시 펴보네
把酒東隣來釣伴	이웃 사람 술 가지고 와서 함께 남시하며
共嘆何事到天涯	무슨 일로 귀양을 갔냐며 함께 성을 내네 ²²

마치 지금의 모습을 보는 듯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고향산천과 사람들에게 푸근한 마음을 가진듯 하다. 마음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것은 삶과 학문에 있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흥여하는 20세때 휘찬여사(彙纂麗史²³) 범례를 짓고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27세때 사서발범구결(四書發凡口訣)을 지었고, 경성판관 시절에 천군(天君)과 팔잡(八箴)을 지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울곡으로 돌아온 뒤에는 명명덕찬(明明德贊) 존성재기(尊性齋記) 등을 지었고, 53세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산절하여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일명 동사제강의 범례를 만들고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동성원(海東姓苑)도 편찬하였다.

흥여하는 17세기 후반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역사가로서 더욱 유명하다. 동국통감 제강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휘찬여사』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대로 된 역사서를

22. 흥여하, 『목재집』 권1, 「詠懷」 참조.

23. 목재 흥여하가 고려시대에 관해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로서 『목재가숙휘찬여사(木齋家塾彙纂麗史)』라고도 한다. 전 4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6은 세가(世家)로서, 고려 태조에서 공양왕까지 32명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적고 있다. 우왕과 창왕에 관한 것을 세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고려사』와 같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고려사』에서는 반역전(叛逆傳)에 수록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책에서는 신서인전(辛庶人傳)을 따로 설정·수록하고 있다. 권7~19는 지(志)로, 천문지(天文志)·오행지(五行志)·지리지(地理志)·예지(禮志)·악지(樂志)·여복 지(輿服志)·선거지(選舉志)·백관지(百官志)·식화지(食貨志)·병지(兵志)·형법지(刑法志) 등 11개 분야로 되어 있다. 권20~46은 열전(列傳)으로, 왕후(王后)·제원비전(諸院妃傳)·종실전(宗室傳)·신서인전·명신전(名臣傳)·의열전(義烈傳)·유학전(儒學傳)·탁행전(卓行傳)·행인전(行人傳)·양리전(良吏傳)·문원전(文苑傳)·방기전(方技傳)·환자전(宦者傳)·혹리전(酷吏傳)·폐행전(嬖幸傳)·간신전(姦臣傳)·반역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권47은 외이부록(外夷附錄)으로, 거란전(契丹傳)·여진전(女眞傳)·일본전(日本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을 통해 이 책은 기전체(紀傳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자기의 안목으로 『고려사』를 간략하게 줄여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저자가 고려사를 휘찬하면서,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하던 중국의 역사 서술방법을 적용해 외이부록을 따로 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가 젊은 날부터 가졌던 이상이며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을 짓게 된 까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홍여하는 이황과 류성룡의 찬, 장흥효의 묘갈, 류진과 이휘일의 행장 등을 지었고 이현일은 그를 적극 높였다. 또 정경세는 홍여하의 『휘찬여사』를 교정하고 서문을 지었으며, 뒷날 유주목은 홍여하의 묘갈을 지었다. 이렇게 볼 때, 홍여하는 17세기 전반에서 후반 갈암 이현일로 이어지는 퇴계 학통의 중심적 위치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여하의 대표적인 철학 관련 저술로는 독서차기(讀書劄記)와 명명덕찬(明明德贊) 존성재기(尊性齋記), 제양명집주자만년정론후(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등을 들 수 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을 지었다. 이후 그는 영남 남인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숙종 5년 대사간 권유는 홍여하의 증직을 요구했지만 영의정 허적 등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대사헌 이현일은 그에 대해 경학을 공부하고 행동이 단정하여 사람의 영수가 되었으며, 역사에 능하여 조경이 일찍이 칭찬하였다고 하여서 추증을 청하므로 마침내 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7) 청대 권상일

권상일(權相一)은 본관은 안동이요,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이다. 1679년(숙종 5) 산북면 서중리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일곱 분 중 유일하게 서원이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심(深)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로 부사 달의(達意)의 딸이다.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 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이른 나이에 이렇게 저술을 할 수 있는 힘은 이미 7살부터 학업을 시작했고, 한 해 동안 『史略』 7권을 독파할만큼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8세에 어머니를 따라 영주 외가로 가서 외조부 이달의(李達意)로부터 한유의 시를 배울 때는 재능을 보여 어른들로 부터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19세 때에는 선성김씨 진사 김가주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으며²⁴ 이듬해인 20세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쓴 일기를 죽기 전인 81세까지 쉬지 않고 62년 간을 씀 없이 썼다. 이것이 곧 『청대일기』이다.

1705년 2월에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외조부의 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동년 8월에는 한성시에 합격하는 영광도 따랐다. 그러나 1706년 3월에는 혼인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내 선성김씨와 사별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주이씨 이만영의 딸을 재취로 맞으면서 개인과 집안의 안녕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해에는 향시에 입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학문에 더욱 매진하여 1710년 32살의 나이에 득남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6월 문과에 합격하는 큰 경사를 맞보았다.

1710년(숙종 3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으며, 1715년 저작·전직·직장 등을 역임하였고, 1720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1722년(경종 2)에 병조좌랑을 지냈고, 1727년(영조 3)에는 만경현령이 되어 이듬해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사전에 탐지하여 영문에 보고하였고, 난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

24. 장인 김가주는 문과 중시 출신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김담(金澹)의 8세손이다. 권상일의 처가는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양반 가문으로 처고조 김우익(金友益)은 문과를 거쳐 서윤을 지냈고, 처고조 김종호(金宗灝)는 진사였다.

다. 1731년 영암군수와 사헌부장령을 지냈고,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하여 간행하였다. 이듬해 상소하여 민폐 근절책과 관기숙정 방안을 건의하였다. 홍문관의 계청에 의하여 경연에 참석하여 소신을 진술하였다. 그해 울산부사가 되어 춘추관편 수관을 겸임하고, 구강서원(龜江書院)을 창립하여 학문을 진흥시켰으며, 공씨에게 군역을 면제하는 등의 선치를 하였다.

1741년 시강원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45년 봉상시정, 이듬해 사헌부헌납, 사간원사성, 사헌부집의,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1748년 우부승지로 물러났다.

뒤에 대사간, 판결사, 홍문관부제학, 한성좌윤, 지중추부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이황을 사숙하여 「사칠설(四七說)」을 지어 이(理)와 기(氣)를 둘로 분리하고, 이는 본연의 성이며 기는 기질의 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청대집』 18권, 『초학지남(初學指南)』, 『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 『소대비고(昭代備考)』, 『가범(家範)』, 『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과 『일기(日記)』 30여 권이 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죽림정사, 근암서원에 배향되었다.

그의 학문은 곧 위기(爲己)의 학문으로 이학(理學)의 규명에 투철한 것이었다. 그는 이(理)를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實體)라 여겨 이(理)에 근거하여 기(氣)가 화생(化生)한다는 이생기(理生氣) 내지는 먼저 이(理)가 존재한 이후에 기(氣)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이선기후(理先氣後)를 근본으로 하는 이기생성론(理氣生成論)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상정(李象靖)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면서 이의 주재성(主宰性)과 제약성(制約性)만 강조하는 데 대하여 그는 이단(異端)의 설에 가깝다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또한 이황이 수정하기 전의 사칠설(四七說)을 조술하여 이와 기를 완전히 이물(二物)로 분리하고, 이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 되고, 기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된다고 하였다.

또 성(性)은 그 자체에 지각이 있어 본연의 성은 기와의 교섭(交涉) 없이 자체의 지각에 의하여 자체의 발동에 따르고, 기질의 성은 또한 이와의 교섭 없이 자성(自性)의 지각에 의하여 자체의 발동을 바로 따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情)을 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본연의 성이 따라서 성립된 정(情)은 곧 이발(理發)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기질의 성에 따라 성립된 정은 기발(氣發)이 되는 것으로, 두 개의 정은 그 성질에서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와 기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사단(四端)은 이의 발(發)이고, 칠정(七情)은 기의 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남 주리파(主理派)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치우친 만큼 그의 생활도한 이의 원리를 좇는 엄격함을 고수하였다. 글을 읽을 때에도 외우기 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힘썼으며, 문장에도 수식보다는 이치와 논리가 바로 서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술을 괴롭힌다 하여 매우 회의적이어서, 서당에 있을 때에는 경서만을 일관되게 강론하였다.

4. 근암서원의 운영과 활용 프로그램

사당 영역을 제외하곤 근암서원의 건물과 부지는 문경시 소유다. 전국적으로 서원이 지자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안다. 다만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몇 곳이 있다.²⁵ 현실적으로 지자체 재산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현재 문경시의 경우 각 문중과 개인 중에는 정자와 종가 등을 이미 기부했거나 향후 기부채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사실 복설 당시 유림과 서원관련 문중에서는 운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향과 향사에 관심이 더 많았다. 시에서 조건을 내세우기를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 줄 것을 오랫동안 건의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다. 결국 유림들의 서원 복원의 본래 목적은 제향공간의 확장과 지역의 위상 세우기에 관심이 더 많았다.

문경시에서도 처음부터 운영을 맡을 계획은 없었다. 복원 전부터 계획으로는 유림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유림들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유림들과의 의견마찰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운영은 문경시에서 맡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근암서원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박물관과 기념관은 모두 6곳이다. 문경새재에 있는 옛길박물관을 위시하여 자 연생태박물관, 석탄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운강이강년기념관, 박열의사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3~4명 정도이고 연간 소요 예산이 건물별 3억을 상회한다. 2021년 근암서원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주체별	유림	문중	지자체	사단 법인	학교 법인	개인	알수 없음	총계
서원수	377	255	11	5	5	20	2	675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계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근암서원 선비문 화체 협교실	문경 한자왕 선발 대회	
20,990	17,100	1,000	22,000	30,000	10,000	101,090

(단위:천원)

이외에 근암서원 건물 유지비와 보수, 관련 사업을 모두 합하면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지자체에서 서원 운영에 자체예산을 1억 이상 편성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국내에 산재하는 서원중 상당수는 제향에 따른 제수비용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반면에 활용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서원에 대한 지원은 고을 수령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근암서원 강당에 강좌 등 수업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안(書案) 60개는 한국서원연합회의 도움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좌식의자도 구입하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25. 서원 관리 주체그림

근암서원에서는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5월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3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혼례, 공연, 특별강좌 등의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단체의 회의와 대학원생 논문 발표, 학회 세미나, 청소년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문화단체의 문화행사 등 연간 다양한 단체 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중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 인문학 아카데미

본 강좌는 지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들의 배움의 장이다. 그간 지역 내에서 펼쳐진 인문학 강좌는 초청강연과 박물관 대학, 시민 명륜강좌 정도였다. 한 장소에서 몇 달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주부대학, 여성대학, 농협대학 등의 단체에서 회원들을 위한 친목도모 형식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강좌였다.

복설이 이루어진 첫해인 2011년에는 ‘서원이란 무엇인가?’, ‘사서삼경이란 무엇인가’, ‘주역이란 무엇인가’, 등 기본적인 소양을 위주의 과목을 위주로 시작했다. 이후 근암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중심으로 매년 한 두분씩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의 경우 배향인물 중 활재 이구선생과 식산 이만부 선생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매주 한 강좌씩 개설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재 이구에 대하여는

8월 27일 금오공대 박인호 교수의 ”활재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8월 30일 안동대 전성건교수의 ”활재선생의 시와 철학“

9월 3일 한양대 김용현교수의 ”활재 이구의 철학사상“

9월 6일 점촌중학교 권용현 교사의 ”활재이구의 생애와 문학세계“

식산 이만부에 대하여는

9월 10일 안동대 신두환교수의 ”식산 이만부의 삶과 문학“

9월 13일 한국국학진흥원 김주부연구원의 ”식산의 문학“

9월 17일 경북대 정재훈교수의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9월 20일 성균관대 대동문화원 함영대 연구원의 ”식산 이만부의 학술정신과 경학“²⁶

이렇게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살다간 학자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배우게 되었다.

근암서원의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강당의 규모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강당 마루에는 성인 남성 30~35명 정도가 들어가면 될 정도이다. 주로 강좌를 하게 되면 적게는 50명 정도에서 많으면 100여명 정도가 강좌에 참여하는데 많이 참석할 때는 강당 밖의 뒷마루와 왼편 방까지 개방하기도 한다.

근암서원 강좌 준비는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해당강좌의 강사는 직접 섭외를 한다. 아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강좌가 개설되면 대부분 공모형식을 통해 대행 사업으로 진행할 것

26.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8강좌에서 10강좌를 진행해 왔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해 책 발간만 하기로 함.

이다. 예산 22,000천원 중 12,000 천원은 강사비와 교재제작비, 기타 강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10,000 천원은 강좌 후 근암서원연구총서 시리즈²⁷로 발간하고 있다.

2022년 위드코로나가 되면 앞으로의 강좌는 지역 인물들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문경 지역에 있는 서원에 모셔진 인물들을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 외에도 정자와 관련된 인물과 정자 건립에 대한 과정 등을 배워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2)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출사동이는 문경시의 캐릭터로서 과거에 급제한 후 임금님이 내려준 어사화를 꽃고 환하게 웃는 선비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여 기쁜 소식을 듣는 고장, 희망에 찬 문경의 모습을 상징한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지역의 초등학교생들과 청소년 등이 출사동이처럼 밝은 선비의 자세로 자라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문경 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이다.

2011년 처음 시작할 때의 체험과정은 사자소학과 한자 등을 배우는 옛글 교육, 선비의 생활태도를 배워보는 선비체험, 예절, 관례, 다례를 체험하는 예절교육, 투호, 제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 만큼 널리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160명이 참가해 '부모와 함께하는 출사동이 문화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매년 시행착오를 거쳐 프로그램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며 교재 제작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2014년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복장 입기', '선비의 생활태도 및 예법 체험', '예절-관례-다례를 체험하는 예절교육', '투호-제기차기-널뛰기 등 민속놀이', '문경아리랑 유래 알고 배우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전통복장을 입고 서원을 둘러보고 배례를 익힌 후 선현에 대한 배향을 한 후 선비의 생활 및 태도, 예법, 자세들을 익혀 자신을 낮추는 방법도 배운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를 알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루 동안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진행해 줄 선생님이 필요했다. 유림 중에서 선발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유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가 가장 제격이다. 2011년부터 프로그램 운영은 교장 선생님을 훈장으로 모셔서 진행을 했다. 초등학교생들을 지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초등학교생들 대부분이 10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하기에 매우 힘이 든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훈장으로 모신 것은 가장 적임자라고 본다.

27. 근암서원연구총서 시리즈. 1집, 『청대 권상일의 생애와 사상』, 2015, 2집, 『우암 홍언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 2016, 3집,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 2017, 4집,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2018, 5집, 『문경의 구국과 근암서원』, 6집, 『근암서원의 배출인물』, 2021년 근간예정.

프로그램 교재는 교육청과 근암서원 훈장들이 함께 만들었으며 내용은 1장에서 예절을 통해 한국 전통의 예의문화를 소개하고 남자와 여자의 절하기 등 기본예절을 주로 다루었고, 2장에서는 내 고장 바로알기를 통해 문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배려를 하였다. 3장에서는 학교 교육과 서원의 역할을 소개했고, 4장에서는 시대에 맞는 선비정신을 5장에서는 사자소학을 직접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6장에서는 원본소학집주를 7장에서는 선현들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190페이지의 분량으로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재만 보더라도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한자왕 선발대회

수능에서 가장 성적을 올리기 힘든 과목이 국어과목이라고 한다. 예전 같으면 수학이나 영어가 제일 힘든 과목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험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기록에 적혀 있는 문자 중에는 상당수가 한자어이다. 즉 한자어의 뜻을 모르면 명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한자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이해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빠르며 생각도 깊어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서원의 기본과목들이 모두 한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 한자와 관련된 수업과 행사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요 신문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한자의 입력과 세로쓰기 인쇄가 불편해졌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로쓰기·국한 문혼용체 인쇄에서 가로쓰기·한글전용으로 바뀌어나가며 본격적으로 한자가 보조 문자로 격하되었다.

이후 한국어 표기에서 한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한자병기로서 한글 옆에 괄호(括弧)를 쳐서 그 안에 한자(漢字)를 표기(表記)하는 방식(方式)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2%가 정규 교육과정(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7%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아침자습, 방과 후 학교 학습)을 통해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한문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600자’가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과서 부재로 인하여 전국의 학생들마다 한자를 배우는 수준이 상이하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한문’이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존재하며, 한자 교육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문’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존재한다. 한문 시간에 가르치는 한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가 기준이 되며, 중학교용 한자 900자, 고등학교용 한자 900자가 배정되어 있다.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한글 상용화가 되어가기는 하나 아직까지 한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연유로 근암서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자왕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문경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이 예선을 거쳐 참가했다. 문제는 처음에는 한자자격수준 5급 상당으로 치러

졌으나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 교육지원청 배정 한자 500자, 근암서원에서 배우는 ‘예의와 학문’ 교재 가운데 사자소학편 등에서 출제됐다. 이는 근암서원 선비체험 교실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전통 선비복을 입고서 경건한 자세로 시험에 응했다.

첫회는 2011년 10월에 개최하였는데, 먼저 각 학교별로 예선을 치른 후 학교별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출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시험 후 채점을 시작해 당일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학교 대표로 출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학생들 대다수가 수업 이해도가 좋다고 한다. 근암서원에서 한자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후 전국 지자체 몇 곳에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문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게도 현재는 문경시와 구미시에서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4) 기타

근암서원은 인문학 아카데미와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교실, 한자왕 선발대회 외에도 연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 또는 활용을 하고 있다.

서원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모든 시민에게 개방을 하도록 조례를 정했으며, 문경시민이 아니라도 목적에만 부합되면 조건 없이 임대를 하도록 했다.

먼저 회의 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문경시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각 학교별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를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 가장 먼저 회의 장소를 선택한 단체는 서원이 속한 산북면의 이장단 회의였다. 이동의 문제점은 있으나 대 체적으로 회의공간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두 번째는 세미나 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았지만 대학원생들의 석박사과정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세미나 또는 논문지도 등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전통혼례식장으로서의 활용이다. 요즘 특별한 공간에서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커플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원과 같은 전통공간도 예식장으로 충분히 활용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강당이 있는 마당에서는 혼례식을 치루고, 폐백은 강당 내에서 이루어졌다. 예식을 마친 후에는 하객들에게 주차장에 출장 뷔페를 시켜놓고 예식장 식당을 대신했다.

네 번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지역 내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주부모임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휴대폰 없이도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과 1박 2일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외에도 동아리 또는 다양한 단체에서 학술활동과 수련활동을 개최해 왔다. 앞으로도 근암서원은 30명~50명 정도규모가 진행되는 행사 또는 단체 활동에 언제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5. 진정성 있는 서원의 활용은 무엇인가?

이제는 활용과 관련되어 고민할 차례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이미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화재청에서도 서원과 향교에 대한 활용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지자체에서 서원과 향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활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충남 최초의 사액서원인 충현서원²⁸은 선비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부터 서원문화제를 해 오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서울 도봉서원²⁹에서도 문화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서원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은 내년(202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165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07건, 「문화재야행」 45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3건, 「고택·종갓집 활용」 45건 등 총 405건을 선정하였다. 작년에는 생생문화재 160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6건, 문화재야행 42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건, 고택·종갓집 활용 40건 등 총 400건을 선정하였다. 작년에 비해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이 좀 줄긴 했지만 문화재가 있는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본다.

활용과 관련한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호는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³⁰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서원, 두 번째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서원, 세 번째는 문화 체험공간으로서의 서원을 정리하였다.

먼저 관광자원으로서의 서원은 무엇보다 경관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서원이 산을 뒤로하고 물을 보는 위치에 건립되는데 이는 경관적 요소를 충분하게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이를 퇴계선생의 서원의 입지적 요소를 강조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만큼 교육적 성과가 크다“

28. 조선시대의 학자인 서기(1523~1591)가 중국의 주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 서기는 서경 덕, 이지함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지리산과 계룡산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한 분이다. 처음에는 ‘박약재’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이존오·이목·성제원 등을 추가로 모셨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 되었다. 광해군 2년(1610)에 복원하고 조현을 추가로 모셨으며 인조 3년(1625)에 나라에서 인정한 사액서원으로 ‘충현’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뒤 김장생·송준길·송시열 등의 위패를 추 가로 모시고 지방 유생들을 교육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폐쇄되었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76년 새로 복원한 것이다.

29. 도봉서원은 서울에 소재한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으로 도봉산 입구 등산길에 오르면 우측 옛 영국사 터에 위치 해 있다. 남언경이 양주목사로 부임하여 1573년(선조6)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광조(趙光祖)의 학문적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다. 창건과 동시에 '도봉(道峰)'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송시열(宋時烈)을 추가 배향하였다. 1775년(영조 51) 어 필사액을 다시 받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400여 년간 양주, 파주, 포천, 서울지역에 있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 훼철되었으며 위패는 땅에 묻었다. 1903년 지방유림에 의해 단을 설치하여 봄, 가을에 향사를 지내 오다가 6.25전쟁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1970년 도봉서원재건위원회가 구성되어 1971년 복원 매년 음력 3월10일(춘향제), 9월10일(추향제)에 전국 유림 및 지역유지가 모여 전통향사를 지내고 있다.

30. 이상호,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유학연구』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6. pp444~457.

서원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려 했던 근본 입장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경관적 요소는 산사들과 더불어 현대 관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힐링의 대상지로 활용될 수 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라고 보았다. 서원은 배향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고, 이 인물들은 그 지역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관계되어 있다. 역사 인물에 의해 서원의 가치가 부각되기도 하고, 서원을 통해 역사 인물의 스토리가 재구성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원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미되고, 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배치되면,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 교육공간으로서의 서원이다. 서원의 강화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방법이다. 사회교육이나 유교 및 전통 기반 체험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해서는 이흥재, 장미진의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서 서원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례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들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 정신문화를 이을 수 있는 가치로서 ‘선비정신’을 설정하고 이러한 선비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교에서 말하는 ‘교양을 갖춘 양심’과 ‘본분을 지키는 지성’, 그리고 ‘도덕을 지키는 시민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초등학생도 맞춤형으로 대학생과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경기도 이천의 설봉서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서원의 활용이 일반 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나 다양한 종류의 예절교육, 그리고 학생 체험 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서원이다. 정정숙의 연구에 따르면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³¹⁾ 공간이라고 했다. 서원은 그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지역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고가 있는 인물이 배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독특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은 유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며 서원 자체의 공간을 활용해 실경뮤지컬 등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활용의 방법이다. 이외에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서원 스테이도 좋은 활용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1. 정정숙, 『중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63.

다음은 진성수가 제안한 서원의 활용방안³²⁾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진성수는 ‘서원 문화유산 활용 및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았다. 구성인력은 민,관,학 의 협조 하에 서원, 유학사상, 문화콘텐츠 전문가 5~10명을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여기에서 서원관련 ‘전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최대한 검토, 활용하여 전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대내외적 조건을 검토한 후 자료를 통합하여 DB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북지역 서원 현황에 대한 문화재청과 서원연합회 간의 통계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다섯 가지 제안한다.

첫 번째 오감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되, 1회성 축제형태 진행은 가능한 지양한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충효 예절교육과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되었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전통과 현대를 매개하거나 교차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획도 생각해 볼만하고 얘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교의 음악과 미술, 서예와 다도 등에서 착안하여 오감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고 했다. 이에 조선 선비들이 즐겨하던 시,서,화에 다도와 음악까지 융합한 신선한 기획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지역 서원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되, 교육과 해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현황 파악과 기초자료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자산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중의 하나이다. 결국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귀중한 자료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지역 마다 중심 사찰별로 자료관이나 정보박물관 등이 건립되어 있다. 만약 서원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지역 내 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박물관이나 자료관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형 차별화된 서원문화유산 브랜드의 개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역발전을 통한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함께 문화체험형 기업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기억한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새로운 잠재적 문화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서원문화유산을 지역 향토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출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자원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안정적 계승을 위해 후속세대 발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보존, 관리, 새로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실시 등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적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후속세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이 현대적 활용을 위해 3가지 조건 즉 1) 서원의 보존, 관리 및 시설지원을 하드웨어 2)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창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3) 현대적 문화계승과 전달자인 후속세대로서 인적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를 보존하

32. 진성수,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0집, 2016.

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리, 복원, 관리 등 보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주차장, 교육, 휴식 공간, 숙박 등 편의시설 신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원의 경관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원의 역사와 문화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현대의 변화된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킬만한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서원의 현대적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이상호의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활용 방안 제언」과 진성수의 「전북지역 서원이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두 연구자의 내용만 잘 검토하고 실현한다면 서원의 올바른 활용은 잘 이루어질 듯하다.

이 장에서는 상기 검토된 다양한 활용관련 논의 외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서원 관련 행정을 하면서 느낀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서원 매입! 이제는 고민할 때

국내 대부분의 서원은 배향된 인물과 제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유와 관리자 또한 관련 문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원을 출입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고령자이다. 신규회원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향사때 마다 느끼는 것은 작년에 오셨던 분이 올해는 더 이상 오시질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막을 내린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유교의 맥과 제향의식은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다. 한가지 아쉬움은 향교와 서원에 젊은 층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의 시간 뒤에 과연 제향공간에 의식을 치를 사람이 몇이나 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유교적 제사 의식은 일반 가정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런 분위기에 서원의 추가 건립이나 제향의식의 확대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한다.

몇 해 전부터 고택 문화재를 소유한 개인이나 정자, 재사 등을 가지고 있는 문중에서 기부의사를 종종 밝혀오고 있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자식이 있어도 더 이상 고향과 종택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다시 귀향할 일은 더욱 없다. 문중 차원에서든 마찬가지로 문중에서 소유한 재산을 이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도 앞서의 예처럼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서원이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체납을 받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물이 더 퇴락되기 전에 지자체에서는 서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제향공간은 예전처럼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강당영역은 활용하면 된다.

물론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과 운영을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운영관련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 근암서원의 경우 모든 건물과 강당영역을 포함한 관리사, 주차장의 토지는 문경시 소유로 되어 있다. 다만 제향공간의 토지는 관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몇 년 내에 모두 기부체납 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수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현재 봄, 가을 두 번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제수비용은 연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소유자가 다르면 지원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보수시에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축시에는 보조를 하는 지자체 재산으로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운영도 가능해진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서원은 적어도 수 백년간 그 지역의 정체성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곳이며, 배향된 인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지역민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할 명분은 충분히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 운영시에 관한 수령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힘들었다고 봐야한다. 물론 서원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서원은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한 지속을 할수 있다. 이 핵심적인 두 가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북카페로 변화를 주면 어떨까!

서원은 책과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 고택을 활용해 북카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젊은 청년들이 지방으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 같기도 하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다준 일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서원이나 고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낡고 오래된 건물과, 을씨년스러운 주변 경관, 곳곳에 보이는 거미줄, 삐걱 거리는 문짝들, 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 등은 이곳에 정을 붙이기에 쉽지 않은 풍경들이다.

그러나 이곳은 백 여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면 살던 곳이다. 글 읽는 소리가 조석으로 들렸으며 아궁이에서는 하루 세 번 연기가 올랐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가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좋지만 그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문화의 전승이 한세대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험한 것은 다르게 마련이다.

특이한 것은 고택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의 기억은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삶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전통이란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본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계승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가면 안동권씨 노동재사³³에 북카페가 들어서 있다. 서점 이름은 가일서가(佳日

33. 고려 개국공신인 권행(權幸)의 후손 가운데 한 갈래인 안동권씨 북야공파가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특히 '가일권씨'라 불릴 만큼 안동권씨 중에서도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온 곳이다. 이곳에 있는 노동재사는 안동시 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1770년(영조 46) 방숙 권구의 덕을 기려 지방 주민이 창건했으며 강당 정면 5칸 측면 2칸의 T자형 집으로 정문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슬 3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書家)이다. 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색다름에 놀랄 것이 다. 지금까지 보아오던 고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원형을 훼손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간 활용을 북카페라는 분위기로 만 들었다는 것이다.

뒷마루에서 책을 읽어 본 기억이 있는가? 기억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현재 전국에서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소양고택의 한옥스테이와 북카페,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싸리재고택 북카페, 일두고택이 있는 함양 개평마을 지인공간 북카페, 안동 가일마을 책방점 북카페인 가일서가 등이 있다.

이 중 안동에 있는 가일서가는 안동시 풍산면에 위치하며 가일마을은 전통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 가운데 한 곳으로 수곡고택, 남천고택 등 600여년의 역사가 전해지는 안동 권씨일가 세거지에 위치한다. ‘ㄱ’자형 건물로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기단 높은 마루가 보인다. 마루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방에는 판매하는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판매하는 책들은 책방 주인이 직접 골라서 가져왔다고 한다. 공간이 좁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관심있는 책만을 전시하고, 책 표지에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고르기에 쉽도록 해 두었다. 마굿간은 카페 주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문을 하면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고택과 책이 어우러진 공간인 이유로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잘 꾸며져 있다. 이 집 주인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여기에 비해 서원을 살펴보면 강당이라는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방이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각은 실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카페로 활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현재 서원을 북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현대식 건축물에 이름을 서원을 넣어서 운영하는 곳은 여럿 있다.

3) 서원스테이

향교와 서원을 합하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수와 비슷하다. 202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은 모두 968개소이다. 서원은 675개소, 향교는 234개소로서 909개소가 된다. 숫자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활용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이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불교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푸른 자연이 살아있는 맑고 고요한 산사 그 곳에는 우리 민족이 피워낸 소박한 문화와 쌀 한 톨, 한 방울의 물에서 지혜를 찾은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템플스테이를 찾은 방문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2558명(내국인 1299명, 외국인 1259명)이었다. 그 후 10년만에 템플스테이는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엄청난 발전이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조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명상 등 관광의 새로운 패턴변화와 종교에 대한 시각적 변화 등으로 인해 템플스테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광상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원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 보기 위해 서원 스테이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1,548명이 참여하여, 서원이 고택 스테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적이 있다.³⁴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사찰 스테이와는 달리 이용자의 감수성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높은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원 스테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근암서원에서 지금까지 10여년간을 운영해 오면서 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보았다. 결과는 사용자 모두가 만족을 했다는 것이다. 향후 시설에 대한 보완을 조금만 한다면 스테이 공간으로서는 제격인 공간이다. 동재와 서재 공간에서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한다. 근암서원 동재와 서재의 방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많은데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각 한 곳이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처음 서원을 복원할 때 서원관계자 및 유림들은 동서재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를 반대하였다. 전통적인 공간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몇 차례의 회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건립후에 유림들이 더 만족해 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서원 중 동재와 서재에서 실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위해 사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적이 있었다. 서원스테이도 정책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시설 정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제도권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틀만 잡힌다면 비지정 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서원 스테이를 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MOU체결

관내 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육청 부속시설 또는 체험공간 활용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래 서원이란 전통시대의 교육기관이다. 제향 공간은 유림에서 활용을 하고, 강학공간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건물의 보수와 유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학교를 관장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서원은 새로운 교육의 실험 장소로도 적격이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문경시에서는 서원 복설과정에서 미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2년여의 시간을 두고 서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지도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이 절실했으며 당시 근암서원의 복설은 교육청으로 보아서도 좋은 기회였다.

34. 정정숙, 위의연구, p.30.

당시 또 한가지의 고민은 운영을 하되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문제는 퇴직 선생님 중 자원봉사 또는 전통교육에 대한 소양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맡아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선에서 오랜 가르침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 문경 근암서원의 학생들 인성프로그램은 퇴직 교장선생님들께 서 맡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인원 배정은 교육청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지역에 서원이 없다면 향교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되는 유림들과의 적절한 소통과 협의,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는 서원과 향교의 활용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리라 본다.

결국 서원 활용시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일 것이다. 근암서원의 예만 보더라도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부분 초등학교 재학생들로서 교육청에서 관내 각급 학교에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서원 활용사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각 지역별 교육청임을 명심해야 한다.

6. 맺음말

근암서원은 다른 대부분의 서원처럼 대원군 시절 휘철 후 1970년대 후반 사당과 강당 등 1차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완전한 모습을 갖춘 서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역 유림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아쉽게도 유림들에 의한 활용과 운영에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제향만 맡게 되었다. 결국 근암서원의 활용과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문경시에서 맡게 되었다.

문경시에서는 자체행사로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한자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전통혼례, 각종 세미나, 회의, 연수 등 다양하게 서원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복원된 서원이 근암서원처럼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서원 관계자인 지역의 유림들은 선현제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원을 향시 개방하여 사람들을 맞이할 계획은 없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점도 분명 있다. 서원 건축물 자체가 현대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젊은 인재의 부재, 예산의 뒷받침, 상시관리 인력의 부재, 접근성의 불편함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올해 8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거쳐 전

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가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핵심은 세가지이다. 전통서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전통서원발전위원회의 설치, 전통서원의 지정 및 등록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전통사찰 보존법과 비슷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서원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서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모든 서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서원 활용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한정³⁵되어 있고, 장소성에 있어 접근이 불편하거나 사우만 남은 곳, 해당 지자체의 관심 밖인 곳은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각 서원마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서원은 더 이상의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마다 정체성이 되어 왔고 그 지역의 대표 인물들이 모셔진 공간이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우리의 정신과 공간이라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5. 서원의 문화재 지정여부

유형별	비지정	문화재 자료	유형 문화재	기념물	향토 유적	사적	만속 자료	총계
서원수	405	144	51	42	21	10	2	675

※ 참고자료 <청대일기에 나타난 근암서원 관련 기록>

연번	년도	월일	주요내용
1	壬午 (1702, 肅宗 28)	2월 26일	서원에 홍목재와 김사담의 배향일을 논의함
2		4월 7일	근암서원의 봉안 제문을 대제학 권유에게 요청일
3	戊子 (1708, 肅宗 34)	11월 3일	가친께서 근암서원을 사퇴하는 일로 향중에 단자
4	己丑 (1709, 肅宗 35)	1월 4일	가친을 모시고 서원 재사에 감. 오늘이 알묘회임
5		1월 5일	용궁 권인중 어른과 권계가 서원에 왔기에 얘기를 나눔
6	辛丑 (1721, 景宗 1)	1월 5일	근암서원에 모여 사당에 참배. 아픈몸을 이끌고 다녀옴
7		1월 20일	소청을 도남서원에서 근암서원으로 옮김. 소수가 권장
8	癸卯 (1723, 景宗 3)	8월 9일	재임 통문을 써서 신태수에게 보내고, 한 재임은 도남서원에 가는 지정하여서 뽑기로 함
9		9월 8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회원들을 만나 보고 돌아왔다.
10		10월 20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황숙에게 재임 통문을 써 보냈다.
11	甲辰 (1724, 景宗 4)	윤4월17일	섬계 권장이 함창 채 침지 집에서 근암서원에 오셨다.
12		5월 20일	치증을 데리고 근암서원에 가서 문루에 앉아 연구를 지었다.
13		6월 27일	국범이 근암서원에 공부하러 오는 길에 홍씨 어른의 편지를 받 음
14		10월 2일	근암서원 사람이 와서 지중의 짧은 편지를 전하였음
15		10월 20일	식산 어른이 근암서원에 오셨기에 찾아뵈었다.
16		10월 21일	식산 어른이 서원 편액을 새겨 거는 일로 김룡사에 가고자 나 에게 같일 갈 것을 요청함
17		10월 22일	근암서원의 편액 새기는 일을 시작했다.
18		11월 29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재임의 통문을 써서 김세체에게 보냄
19		12월 15일	한밤중에 세수를 하고 제복을 입은 다음 명륜당 앞에 자리를 마련하고 북쪽을 향하여 곡 하며 슬픔을 다한 뒤 사배를 마치고 파함
20	乙巳 (1725, 英祖 1)	1월 2일	근암서원 인편을 통하여 식산 어른 및 치중 형제에게 편지를 써 부침
21		2월 1일	식산 어른 편지에 내일 근암서원에 왔다가 그 참에 우리 집 관례를 볼 것이라고 함
22		3월 13일	이 상사 아저씨가 지난번 근암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단연코 원장의 임무를 행할 뜻이 없어서 여러 차례 사임 단자를 내어 체임되었다.
23		4월 2일	저녁에 도연 이씨 아저씨 형제가 근암서원에 왔다기에 가서 뵈 었다.
24	乙巳 (1725, 英祖 1)	5월 1일	들으니 근암서원의 수석을 권점하여 해남 현감을 지낸 이천여를 선출하였다고 한다.
25	丁未 (1727, 英祖 3)	1월 4일	밤에, 근암서원에 갔는데, 모인 인원은 30인이었다.
26		3월 7일	근암서원의 수석을 오늘 권점하여 상사 이경옥 어른을 선출하 였다고 한다. 서원의 일이 정돈되고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니, 다 행이다.
27		윤3월14일	근암서원 원장이 자리에 나와서 가 뵈고 밤에 돌아왔다. 진사 이기 룡도 와서 그의 백씨 어른의 편지를 받아 보았는데, 20일 도문연에 와서 만나 보기를 청하는 것이다. 답장을 썼다.
28		4월 1일	울리이진사, 소은천권원장및고서오가도룡이를 쓰고 곧장 근암 서원에 와 모였다. 들으 니, 줄포이씨어른은 뜻밖에도 장천에 사는 그의 외손주 상을 당하여 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29	癸丑(1733, 英祖 9)	10월28일	근암서원이 이달 15일에 거재하기로 정하였으나, 여러 선비가 모두 사정이 있어서 일전 에 비로소 왔다고 한다.

연번	년도	월일	주요내용
30	丙辰 (1736, 英祖 12)	11월30일	서울과 지나온 길에 천연두가 크게 번져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 고, 근암서원 근처에 머물렀다.
31	乙丑 (1745, 英祖 21)	6월 7일	예천 김예이 상사와 이삼로 종숙이 지난달 북계서당에 와 머무 르다가 그 참에 다른 곳 을 둘러서 근암서원에 오셨다.
32		7월 15일	근암서원 원장이 왔다.
33		8월 1일	근암서원에 가서 원장을 만나보았는데 고순약도 왔다.
34		9월 4일	저녁밥은 먹은 뒤에 들으니, 지평 정도중이 나를 찾아서 우리 마을에 와 지금 근암서원 에 머물러 잔다고 하여 가보고 싶지만 빌려 타고 갈 말을 구할 수 없고 또 날도 어두워져 서 한탄스럽다.
35		11월24일	계부를 모시고 근암서원에서 기다렸는데 원장도 왔다.
36	丙寅 (1746, 英祖 22)	윤3월24일	자인이화국이 찾아왔는데, 막근암서원원장이 되어 개좌에 나가는것이다. 밤에 서원의 재사에 잠깐 나가 화국을 만나보고왔다
37		7월 12일	사촌형재화가근암 서원으로 가려고하였으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서로 만나서 조용하 게 정담을 나누고 싶어 자고 가도록 만류했다.
38		9월 1일	근암서원의 원장이 보러 왔는데 도남서원의 향사가 이달 4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에서 길을 나선 것이다.
39	丁卯 (1747, 英祖 23)	6월 1일	배경과 자순이 보러 왔는데 서당의 순강을 고사하는 일 때문에 지금 근암서원에 머무르 고 있다.
40		7월 12일	안맹호가 찾아왔는데 원장도 왔다. 어제밤에 □□ 조숙과 함께 근암서원에서 잤다고 한다.
41	戊辰 (1748, 英祖 24)	5월 26일	유전 삼로 종숙께서 지나다가 들렀는데, 어제 북계에서 근암서원에 와 자고 지금 도곡으 로 향하였다.
42		10월 6일	수계소의 경로회에 갔다. 이일은 지난번 대승사의 접회 모임에서 여능 이양장서주장한 것을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좋다고 하여, 1년에 근암서원 별소와 영빈서당 별소에 서 나는 곡식 열섬씩을 각각 덜어내어 서봉가을로 두번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회원 은 예소살이상으로 제한한다고 규례를 정하고 수좌는 용휴노형이며, 모두14인이다. 해 여와 광국을 판공 유사로 삼았다.
43		11월 13일	근암서원 원장이 류여문과 함께 찾아왔다가 갔는데 곧바로 사람 과 말을 보내 왔기에 근 암서원 재사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 누었다. 모인 사람은 십여 인 남짓이다.
44	己巳 (1749, 英祖 25)	2월 2일	반계서당에서 일찍 길을 나서 돌아오다가 막곡 앞에 이르러 길에 서 외남 객사종을 만났 다. 그의 9대조 진사공의 묘갈문을 청하려 고 그에게 근암서원에 왔다가 비를 만나 하루 를 머무르고 지금 막 반계서당을 향하여 떠난 것이라고 한다.
45	己巳 (1749, 英祖 25)	8월 2일	아침에 근암서원에 가서 현관에게 통문을 써서 보냈다.
46	己巳 (1749, 英祖 25)	11월 23일	저문 뒤에 풍산 이□진□ 군이 찾아와서 어제 근암서원에서 잤 다고 말하였다. 들으니 김룡사에서 공부하던 모든 사람들이 절에 서 걸어 내려왔다고 한다. 이는 백화사의 중 두 명이 병으로 죽 어서 마음속으로 놀랐기 때문이다.
47	辛未 (1751, 英祖 27)	윤5월 1일	들으니 오늘 훈장이 면 안의 순제를 근암서원에 모여 고사한다 고 한다.
48	壬申 (1752, 英祖 28)	6월 15일	참봉 이자순이 근암서원에 들러서 분향을 하고 보러 왔다.
49	壬申 (1752, 英祖 28)	7월 16일	들으니 서당 거점은 근암서원을 빌려서 오늘 옮겨 들어 갔는데 서당 마을이 전염병으로 불안해서이다.
50	癸酉 (1753, 英祖 29)	2월 16일	근암서원 임원도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도남서원 재임 도 와서 어쩔 수 없 어서 밤에 서원 재사에 가 재임 한 사람을 선출 하고 또 현관에게 통문을 쓰고 곧바로 돌 아왔다.
51	癸酉 (1753, 英祖 29)	3월 8일	근암서원 향례가 임박해서 원장과 재원이 연이어 보러 왔다.

연번	년도	월일	주요내용
52	癸酉 (1753, 英祖 29)	8월 2일	고재임이 오고, 근암서원 원장도 왔다. 오전에 나아가니 모인 인원이 10여인이다.
53	甲戌 (1754, 英祖 30)	윤4월27일	상주 목사가 근암서원에 체문을 내렸다.
54	甲戌 (1754, 英祖 30)	5월 2일	근암서원 원임이 모두 모여 관아에서 내린 체문에 따라 유생이 소재한 면의 서당에 통문을 발송하고, 똑 각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강회 날짜는 이달 17일로 정하였다.
55	乙亥 (1755, 英祖 31)	1월 4일	새배 손님과 근암서원 알현으로 아주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조용히 조섭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56	乙亥 (1755, 英祖 31)	8월 13일	근암서원 원장이 보러왔다. 도남서원에서는 근래 풍파가 일어나 수임과 부임이 다 패지를 보내어 스스로 물러났다.
57	丙子 (1756, 英祖 32)	6월 28일	존도서와에설사와이집이돌고있어근암서원재사로옮겨머무른다. 다음 달 초1일 서원내 별도의 장소로 들어와 모여 거점한다고 한다.
58	丙子 (1756, 英祖 32)	11월 9일	근암서원 경로회를 열었다. 문징, 여능 등 여러사람이 보러 왔다. 아홉 노인이 왔다고 한다.
59	丁丑 (1757, 英祖 33)	2월 22일	오후에 예방아전의 고목을 받아보니 감영의 관문이 당도하였다고 한다. 곧바로근암서원으로 가서 명륜당 앞뜰에서 거애하였다. 원장원징상사가 오고 모인 인원도10여인이다. 그길로재사방에머물렀다.
60	丁丑 (1757, 英祖 33)	3월 20일	나라에 큰 경사가 있는 데다 큰 슬픔이 있으니 글을 올려 진 술하는 것은 분수와 의리에 있어 그만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근암서원에 갔는데 원장도 왔다.
61	丁丑 (1757, 英祖 33)	4월 1일	이번 성복은 당연히 전패 앞 곡반하는 곳에서 해야 하나. 근력 이 부족하여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암서원에 가 할 계획이다.
62	丁丑 (1757, 英祖 33)	12월 9일	인근 지역의 여러 사람이 근암서원에 모여 곡반을 행하였다.
63	戊寅 (1758, 英祖 34)	6월 2일	비경과 용여가 근암서원에 모여 면 안의 순제를 채점하였다.
64	己卯 (1759, 英祖 35)	5월 1일	오늘 국담(인현왕후 김씨의 담제)를 지내고 근암서원에서 조촐하게 곡반을 행하는데, 병으로 가서 참석하지 못하니 너무나 황송하다.

영감의 공간으로서의 서원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1. 들어가며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 인류가 보다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야 할 유산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한국의 서원」이 우리만이 숨겨둔 보물 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유산으로서 서원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더 많은 노력으로 이 곳을 알려야 할 숙제를 얻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을 지닌 국가와 도시들은 세계유산 지정이 갖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보존, 활용, 교육, 관광은 세계유산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논점이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계에 당면한다. 보존과 활용은 간수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양날의 검’ 으로 문화재계의 화두가 되어왔고, 교육과 관광은 지식과 기술, 인성 등 사람을 기르는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반면 관광은 여가의 일부로서 좀 더 가벼운 흥미요소로 다뤄진다. 때문에 문화재, 문화유산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보존과 교육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과 관광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에 기대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에 유네스코가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UNESCO World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Toolkit)』에서는 총 10가지의 체크 리스트를 제안하고 있다. ▲목적지 관광의 이해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발 ▲지역사회 및 기업 참여 ▲방문객과 소통 ▲관광 인프라 개발 관리 ▲상품, 경험 및 서비스를 통한 가치 부가 ▲방문객 행동 관리 ▲자금 및 투자 확보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성공 모니터링이 바로 그 것이다. 즉,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 기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유산의 가치와 훼손, 지역 주민의 삶 침해(overtourism)를 우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은 이제 모든 방면에서 시작점에 놓여 있다. 때문에 목표와 방향성을 갖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본고에서는 서원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짚고 산재한 과제를 돌아본다.

2. ‘누가’의 핵심, 거버넌스

「한국의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초기에 사립학교였던 중국 서원은 세월이 흐르면

서 ‘관학’이 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서원은 처음부터 줄곧 ‘사림’이었다. 중국 서원이 관료 양성에 뜻을 모았다면, 한국의 서원은 선현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닦았다.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향’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으로 제자나 후손들은 그 학문과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적, 고문서, 목판 등에서 그 지적 활동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제향 물품과 기록문서에는 옛 생활문화가 녹아있다. 특히 책을 펴내거나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은 현대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서원」에는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가 서려 있다. 선비들은 자연을 통해 사색하고 깨달음을 얻고 둘러앉아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책을 펴내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다. 또한 의병이 모여 격문을 짓고, 임금에게 올리는 차갑고 대쪽 같은 ‘연명상소’를 위해 당당하게 붓을 들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의 서원」에는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 제향, 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담긴 것이다.¹

「한국의 서원」은 사림이라는 향촌 지식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이 사림은 지방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으로서 도덕성, 청렴함, 사회모범적인 태도로 사회 지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다. 서원을 구성하는 재정도 이러한 사림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마련했다. 조선시대 조정은 일부 서원에 대해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여 합법화 한 사액 서원과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서원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한국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서원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액서원은 서적, 토지, 노비의 제공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지원이 서원의 운영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다. 즉, 사액서원은 정부의 ‘팔길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엄격한 거버넌스를 갖춘 조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세계유산으로서의 독보성을 짚어보았을 때, 서원을 구성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이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들은 앞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자체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거버넌스’는 일방적·계층적 통치를 의미하는 ‘정부’와 달리 종래의 계층제(관료제나 전통적 형태의 정부 조직) 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등 확장된 여러 유형의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양식에 토대하는 국가운용방식이다.² 거버넌스는 현대적인 용어이지만, 계층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서원은 일방적 통치가 아닌 시민사회의 의지로 구성되는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원은 세운 이,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 존경받고 기려지는 대표 인물, 그리고 노동력까지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적인 방향성도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서원의 1차적인 고객은 지역사회다. 이곳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시행 주체와 방문자, 자원조달까지 모든 첫 걸음은 지역에서의 관심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참조 및 재구성(<http://k-seowon.or.kr/>)

2. 정정길 외(2020), 『정책학원론』, 260쪽 발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에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이렇게 제시한다.

“관리 구조에 대한 청사진이란 없다.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들은 무엇이 좋은 관리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을 목적지 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한국의 서원」은 등재 신청 당시 역할 분담과 구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했다.

표 1.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역할 분담 및 구성

구분	이행 기관	역할	구성
총괄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세계유산 관리 총괄 -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계유산팀, 보존 정책과
통합관리	이사회	·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 -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통합관리계획 자문	광역, 기초, 서원, 학술전문가
	사무국 (서원관리단)	· 위원회 운영 및 통합관리 실무 주체 - 서원OUV 보호 및 유산 모니터링 관리 - 유산 전시, 교육, 홍보	사무국
현장관리	광역자치단체	· 신청유산의 현장 관리 - 현장에서 서원관리 직접 수행 - 서원 관리단 행정 및 재정 지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관리단 포함)	-서원관리단 행정 및 재정 지원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함양군
	서원 운영자	· 서원 운영 - 서원 운영위원회 개최 - 제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9개 서원

*출처: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2018), 『「한국의서원」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47쪽발췌

그리고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결정문의 권고사항에는 a.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 b.9개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해설 개발이 있다. 통합 관리 계획상의 역할 및 업무에는 문화재청이 총괄을 하며, 통합관리를 이사회와 사무국(서원관리단)이 수행하며, 현장관리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서원운영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통합관리주체인 서원관리단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서원 운영자 협의회 및 주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서원」은 총 6개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 서원이 포함된 지역사회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의견 수렴과 주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조들이 서원을 운영하는데 활용했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훑아보는 것은 「한국의 서원」이 가진 고유한 무형 콘텐츠를 기억함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을 서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안한다. 이 거버넌스 안에는 교통, 인프라 등 재원을 포함하여 공동의 목표, 상호 간의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즉, 「한국의 서원」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것이다.

3. 자료의 축적과 큐레이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가장 선행한 것은 기존 자료의 수집과 정리다.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서원이 가진 가치와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자료이자 분야의 확장,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서원」도 현재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자료의 축적 방식과 수요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큐레이션’과 자료의 디지털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다.

큐레이션(curation)은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큐레이터(curator)는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큐레이션과 디지털의 합성어로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디지털 보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001년 런던에서 개최된 ‘Digital Curation : Digital Archives, Libraries and e-Science’ 세미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³ 큐레이션은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개인 선별을 하여 공급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문화재청도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발맞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기술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원형기록 DB구축과 문화유산 지식정보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양날의 검을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 눈높이와 상황에 따라 지능형으로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봇(가칭 Dr.Heritage)의 개발과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 역사도시에 과거 역사 속 문화재와 인물, 사건 등을 시공을 초월하여 경험 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시스템 등의 도입 준비는 「한국의 서원」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충실한 자료의 축적과 많은 주체들이 포함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서원 중심의 역사 연구 그리고 고증에 근거한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필요에 맞게끔 큐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2D 방식의 도면과 지도를 4D로 구현하거나 한자로 된 자료를 국문과 영문 등으로 변환하는 작업 등이 가장 기본적인 추진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표 2. 문화재청 디지털기반 자료활용 관련 사업 요약

주요과제	실행과제	세부 내용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디지털 기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GIS) ·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 -문화유산 원형기록 -문화유산 지식정보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보급 -시대별 4차원 공간 조성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3. 노수경(2015),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황 및 금오서원 적용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제5호 발췌

주요과제	실행과제	세부 내용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시대 국민의 쉼이 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활용 힐링콘텐츠 ·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안심 향유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 플랫폼 개발 -비대면 입장시스템 확보 -로봇 해설사 도입

*출처: 문화재청(2021). '2021주요업무계획' 발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목적지 관광의 이해’에서 다루는데, “주요 데이터 및 증거를 한 곳에 모아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누가 데이터/정보 격차를 메울수 있는가?’에 대한 자답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고 연계시키고 연결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해야하는 장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축적과 큐레이션이 가능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다. 수요자의 필요를 찾는 데에서 관광은 시작하는데, 어떠한 목적의 관광객이 방문해도 맞춤형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술적인 면모 외에도 「한국의 서원」이 자체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 목적, 기대 효과, 만족도,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등 현재의 서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한다. 큐레이션의 핵심은 다양성과 맞춤형이다. 서원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4. 교육과 관광의 사이에서, 메타버스 스토리텔링

서원의 가치는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와 함께한다. 때문에 서원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은 선비정신, 인성함양, 사군자, 예절, 한옥체험 등을 주제로 추진되어 온 것이 돋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서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내년도 2022년 사업까지 선정하였다.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김치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인데, 2021년 선정된 사업을 일부 검토한 결과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보였다.

표 3.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중 서원 프로그램

광역	기초	대상문화재		사업명
시도	시군구	국가지정 (국보,보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국가민속, 등록)	시도지정	
대구	달성군	달성도동서원중정 당·사당·담장 (보물 제350호) 달성도동서원 (사적제 488호)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 의 ‘道’

광역	기초	대상문화재		사업명
시도	시군구	국가지정 (국보,보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국가민속, 등록)	시도지정	
경기	용인시	심곡서원 (국가사적530호)	충렬서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호) 양지향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3호)	조선의선비정신, 용인에서꽃피우다
충북	괴산군	화양서원 (사적417호) 화양구곡 (명승110호)		화양서원 1박2일 선비 체험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사적 제 383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 (사적166호)		최치원의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사적제242호/유네스코세계유산)	장성향교 (전남도문 화재제105호) 고산 서원(전남도기념물 제63호) (시기념물9호)	청렴,절의,의기찾아떠나는 선비문화체험여행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 (사적154호)	서악서원 (경상북도기념물19 호)	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리더쉽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사적170호)		2021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선비의삶-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사적260호)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목계서원 (경상북도 민속문 화재 제 19호)	꼬마도령의 놀이터 목계서원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경남	함양군	남계서원 (사적제499호) 일두고택 (국가민속문화재제 186호)		백세청풍(百世淸風)을 탐닉하다

*출처: 문화재청,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선정목록' 중 일부 발췌

이밖에도 서원은 지자체와 함께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서원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로 본연의 교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현장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비대면 활용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시기인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였고, 학교수업조차 비대면이 익숙해진 세대들을 겨냥한 교육 방식의 변화는 서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서원의 공간을 향유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세계인들을 온라인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일맥상통한다. 디지털 박물관, 온라인 박물관을 구현할 때 2010년대까지의 이슈는 AR, VR의 구현, 인터랙티브 맵(쌍방향 지도, 사용자에 의해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실감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기반은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었고 자원을 친숙하게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역할을 했다.



그림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지도 “서원의 하루”

즉, 현대적인 친숙한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공간을 선보임으로 인해 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데 기여한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보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2021년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메타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Meta(초월)과 Universe(우주)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 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쉬』(1992)에서 용어와 초기 개념이 제시된 이후 현재에는 다양한 산업과 사회분야로 확장하며 소비와 생산이 서로 선순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로 통용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개념으로는 가상공간에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을 ‘맵’으로 구현하고 이 곳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사의 ‘제페토’가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3D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10대 이상 어린이, 청소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임으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로블록스는 2분기 월 이용자가 약 2억 6백만 명이고 마인크래프트는 1분기 기준 약 1억 4천만 명, 포트나이트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약 8010 만 명이 이용한다.⁴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2020년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가상공간에서 청와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도 2020년에 언택트 어린이 박물관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버를 오픈해 게임과 역사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서비스를 시작했다.

4. 이원용, “‘일일 이용자 4800만’ 로블록스, 게임을 넘어 ‘진정한 메타버스’로”,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10월 13일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013174217577c5fa75ef86_1&md=20211013180257_R)



그림 2. 마인크래프트에 구현된 청와대
출처 : 청와대 유튜브 직접 갈무리 (https://youtu.be/Lk92k_k1HMA)



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는 어린이박물관 마인크래프트 맵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직접 갈무리 (https://youtu.be/PLaVgd_j-9Y)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의 구현이 기존의 게임과의 접목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고증에 의한 정확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게임 콘텐츠도 역사적 고증에 의한 사례가 많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현은 더 정밀하고, 가상세계에 실제 자신의 존재를 심어 현실공간의 모방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향교·서원 문화재, 메타버스) 등의 사업 지원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서원」이 준비해야 할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해 앞선 ‘스토리텔링’이다. 건축과 경관은 현실에 근거하여 가상현실세계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공간이 추구하는 의미성은 스토리텔링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필암서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육 공간 안에 있는 ‘경장각(經藏閣)’이다. 이곳 귀공포 상부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두(龍頭)를 꽃아 매우 화려하게 치장했다.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 맞추어 댄 나무 부재를 공포(棋包)라 한다. 이 곳에 용두를 의장적(意匠的) 표현으로서 장식한 것은 왕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인종이 내린 묵죽도(墨竹圖)가 보관되어 있기에 이곳을 용머리와 국화문으로 조각한 것이다.”⁵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얽힌 스토리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 서순복이 짚어낸 필암서원의 스토리텔링의 사례처럼 이용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언어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발굴한다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응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5. 서순복(2021),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475쪽 발췌

5. 나가며

아름다운 경관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서원」이 단지 스쳐가는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영감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본고에서는 서원이 지향해야하는 가치를 ‘영감의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 공간성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해야하며, 특히 서원과 밀접한 지역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공감하여 ‘서원 문화’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관광이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피력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원의 지속가능성을 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축적을 통해 큐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타버스와 같은 확장된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관광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국의 서원」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들과 서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노력 끝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곳을 찾는 1차 관광객은 지역주민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원은 문화기반시설로서, 공동체의 정신문화를 공유하던 문화의 장으로서 기능한 곳이다. 서원의 역사성과 깊이 있는 의미에 공감하는 이들이 서원이 더 알 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이 곳이 현대의 우리 가 체감하는 것 보다 더 사람 친화적이고 복직이는, 많은 문화를 담은 복합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가상공간에서 구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방향성에는 기술적인 접근에 앞서 서원의 정신을 담은 스토리 텔링 발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남(古南)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금오서원(金烏書院) 앞의 못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서원의 묘 우와 여러 재에 들어가 보니 한결같이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퇴락한 모습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니 그저 탄식이 일어날 뿐이었다.

- 노상추일기, 1768년(영조44) 4월 10일⁷⁶

모든 문화유산은 위기를 견뎌왔고 기회를 가졌다. 조선의 무관 노상추는 영조 44 년에 삶터 인근 서원의 퇴락을 우려하였지만 2021년 현대의 우리는 여전히 서원과 함께 존재한다. 서원은 한결같이 이 곳에 있으니, 다시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한국의 서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6. 이수환(2018), 「『노상추 일기로 본 선산지역의 서원』, 2018 지역문화유산과 선비정신 학술포럼 자료집 발췌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1. 머리말

‘한국의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자로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고, 2021년 가입한 지 71주년이 되었다. 세계유산에 대한 근거는 1972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두고 있다. 한국은 ‘한국의 갯벌(2021)’, ‘한국의 서원(2019)’,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남한산성(2014)’,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조선왕릉(200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2)’,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수원화성(1997)’, ‘창덕궁(1997)’, ‘석굴암과 불국사(1995)’, ‘종묘(1995)’, ‘해인사장경판전(1995)’ 등 15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¹ 세계유산은 모든 인류가 함께 보호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가치 있고 중요한 유산이다. 세계유산의 등록은 5천 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세계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한국의 서원’은 중국과 동아시아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성리학 사상을 유무형으로 발전시켜 역사적 건축물과 무형의 문화자원을 현대에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² 특히 향교와 서원이 전통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문화 계승에서도 유산적 가치를 더한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의 서원이다. 그러나 전국에 남아 있는 234개의 향교와 500여 개의 서원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젊은 층에 매력적인 전통문화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고령화되어가는 향교와 서원이 지역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인들로부터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게 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갖고자 한다.

2. 향교·서원 관광체험 프로그램 현황

‘한국의 서원’을 필두로 향교와 서원이 지역의 문화유적 명소로 관광 수요층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국민여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유적 방문율이 33%를 차지한 점에 근거를 둔다.³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지원사업을 통해 향교와 서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도 관광 수요층 확대의 궁극적 목

1.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hl=ko&mid=1OyJ4knFa4JZB-V4O2CoaUHAz65vORM_dP&ll=36.91135586140775%2C127.23306113735725&z=9 (2021.10.5.)

2. 이상해,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 학보 제9호.

3.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01.02.)

적이 있다.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목적은 ‘문화 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향교·서원 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 ‘자립적·지속적·체계적 활용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다.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은 ‘문화재 향유에 이바지하는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의 목표를 위해 인성교육(인문학 강좌)과 예절교육(전통의례), 음악회(국악, 클래식), 민속공 연(무용, 연극) 등 4개의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이를 위해 향교와 서원은 ‘문화재와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해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⁴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교문화활성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향교·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도모하며,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대적 조류에 부응 하도록 함’, ‘향교·서원 전문가(청년유사)를 양성하여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계승세대 육성’, ‘향교·서원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및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유교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반을 두고있다.⁵ 이를 위해 ‘지향척도 : 프로그램의 주제와 특성을 잘 드러내는가?’, ‘흥미 척도 :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를 활용하는가?’, ‘구성 척도 : 프로그램의 짜임새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지식 척도 :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활동 척도 : 체험활동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의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된다.⁶ 이를 위해 향교와 서원은 ‘해당 향교·서원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변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안) 기획’, ‘주변 지역의 향교 또는 서원 2개소를 코스에 포함한 권역 단위로 제안’, ‘세부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 : 향교·서원의 유래와 역사, 인물 등을 강사가 소개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 향교·서원의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탐방 프로그램 : 지역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한다.⁷

프로그램 설계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향교·서원의 공간이 현대적 공감대를 구축한 체험관광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세계유산의 가치 보전을 위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참여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를 살펴본다.

1) 문화재청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

문화재청의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은 교육 및 학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20.3%,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4. 문화재청, “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보도자료”, 2021.

5. 성균관유교활성화사업단, “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9.

6. 방미영,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자문보고서”, 2021.

7.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향교·서원 선정 공모”, 2021

서가 16%, 단체프로그램이어서가 13.6%, 여행나들이가 8.9%,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표 2>와 같이 진행요원의 응대가 4.41%, 프로그램 안내 및 해설이 4.40%, 프로그램 이해와 재미가 각각 4.34%, 관람 동선 안내가 4.29%, 문화재특성 반영이 4.28% 순으로 나타났다.⁸

표 1.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

(질문 : 귀하께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자 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교육 및 학습	여행· 나들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단체 프로그램이 어서	기타
전체		4,538	20.3%	38.8%	8.9%	16.0%	13.6%	2.3%
성별	남	1,758	23.5%	38.1%	9.3%	13.0%	13.1%	3.0%
	여	2,780	18.2%	39.3%	8.6%	17.9%	14.0%	1.9%
연령	20세 미만	1,169	6.9%	48.1%	5.2%	9.2%	27.8%	2.7%
	20~29세	285	10.9%	42.1%	12.3%	15.4%	17.2%	2.1%
	30~39세	513	12.3%	44.8%	12.5%	18.5%	9.0%	2.9%
	40~49세	953	16.2%	41.8%	12.3%	19.9%	7.2%	2.6%
	50~59세	646	27.7%	29.7%	9.4%	23.1%	9.1%	0.9%
	60~69세	472	44.5%	24.6%	5.5%	16.1%	7.0%	2.3%
	70세 이상	324	49.7%	25.3%	5.9%	12.7%	5.6%	0.9%

표 2.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

(질문 : 귀하께서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수	사전 홍보	교통 편/접근성	참신성	재미	프로그램 이해	문화재 특성 반영	편의 시설	운영 시설	관람 동선 안내	진행 요원 응대	프로그램 안내 및 해설	전반적 만족도
전체	4,584	4.17	4.14	4.32	4.34	4.34	4.28	4.10	4.21	4.29	4.41	4.40	4.37
성별	남	1,778	4.18	4.16	4.31	4.32	4.31	4.27	4.10	4.21	4.29	4.39	4.35
	여	2,806	4.16	4.13	4.32	4.36	4.35	4.30	4.11	4.22	4.29	4.42	4.39
연령	20세 미만	1,182	4.12	4.14	4.28	4.29	4.27	4.25	4.04	4.18	4.26	4.31	4.35
	20~29세	286	4.15	4.12	4.30	4.37	4.36	4.36	4.17	4.31	4.35	4.47	4.35
	30~39세	516	4.10	4.12	4.40	4.44	4.44	4.32	4.17	4.29	4.39	4.53	4.43
	40~49세	955	4.28	4.22	4.42	4.46	4.46	4.37	4.18	4.28	4.37	4.53	4.45
	50~59세	651	4.27	4.17	4.36	4.40	4.39	4.34	4.12	4.26	4.32	4.45	4.45
	60~69세	477	4.20	4.17	4.26	4.30	4.28	4.24	4.16	4.17	4.24	4.37	4.34
	70세 이상	331	3.81	3.83	3.98	3.94	4.01	3.97	3.84	3.89	3.92	4.06	4.07

8. 문화재청,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2018.

문화재청이 운영한 2018년 향교·서원 문화관광콘텐츠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나타났다. 10대의 참여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40대로 21.7%, 50대가 14.8%, 30대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율은 20대가 6.5%이며, 70대가 7.5%로 나타났다.⁹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이 ‘교육 및 학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3.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콘텐츠 참여 연령층 분포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수	4398	1,182	286	516	955	651	477	331
비율	100	26.9	6.5	11.7	21.7	14.8	10.8	7.5

2)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는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콘텐츠의 흥미에 대한 만족도는 4.63, 강사 등 운행진에 대한 만족도는 4.73, 콘텐츠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68,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4.29,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05 순이다. 또한, 향교·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였다는 응답은 4.45,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였다는 응답은 4.59, 재참여 의사는 4.68, 타인에 대한 홍보의사는 4.65, 전반적인 만족도는 4.8이다.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참여자의 분포도를 <표 4>와 같다. 2017년에는 10 대의 비율이 24.07%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는 60대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20대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참여 연령층의 증감은 10대가 20.87%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60대가 1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참여 연령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은 체험프로그램의 구성이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연령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한다.¹⁰

9. 문화재청,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2018.

10. 한교남, “유교전통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망과 개선점”,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회」 (2018): pp.11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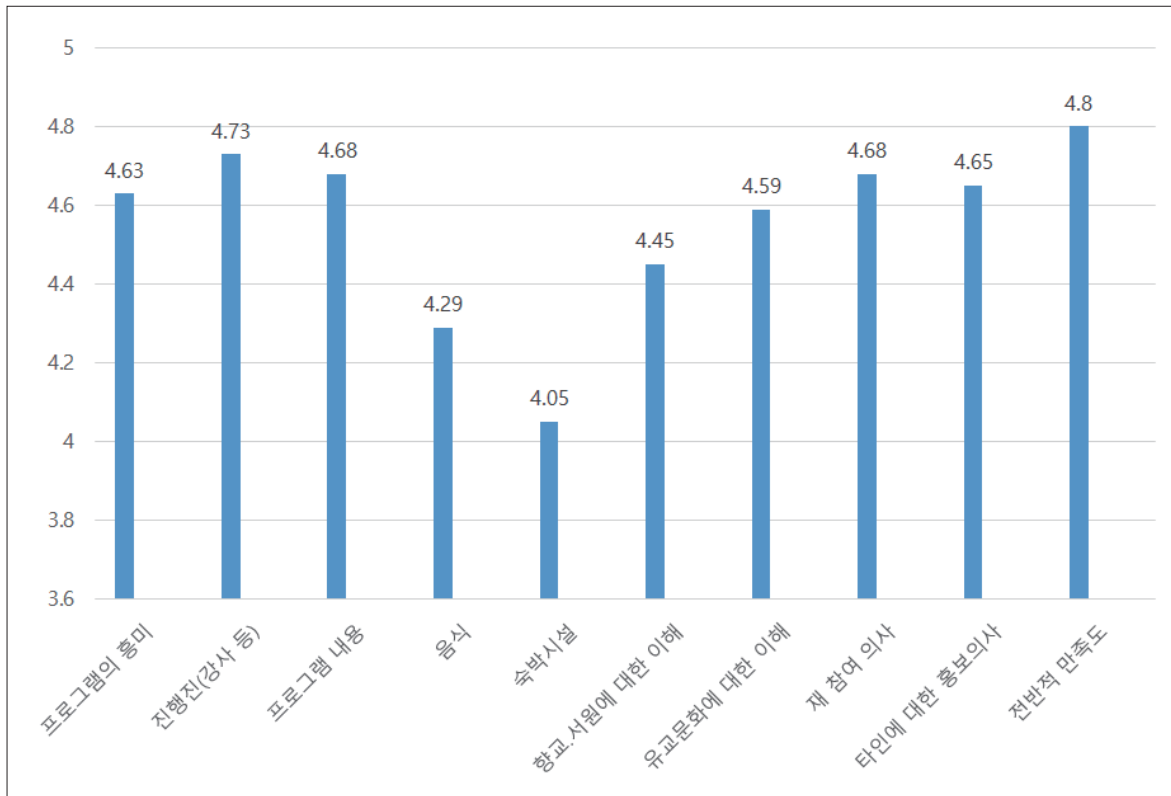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

표 4. 향교·서원 문화관광콘텐츠 2017년, 2018년 참여 연령별 증감 분포도

구분	합계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율	100	2017	24.07	5.62	8.64	13.10	14.4	18.3	15.8
	100	2018	3.2	1.1	2.7	8.0	22.2	37.2	25.6
증감	100	2018 대비 2017	▽ 20.87	▽4.52	▽5.94	▽5.1	△ 7.8	△ 18.9	△ 9.8

출처: 성균관 유교 문화 활성화 사업단, 「2017년 종합보고서 및 2018년 종합보고서」에서 재구성.

3. 향교·서원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

향교·서원 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점 논의가 필요하다. 관광체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파인과 길모어(Pine & Gilmore)가 제시하는 4가지 요소가 관광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파인과 길모어는 기존의 산업기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경제의 확장을 일으켰듯이 서비스에서 체험을 분리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파인과 길모어의 체험경제 이론은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의 4가지 요소로 추출되며, 유형의 제조상품과 무형의 서비스상품과는 달리 구매자들이 가치 있는 상품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이끌림이 담겨있다.¹¹

11.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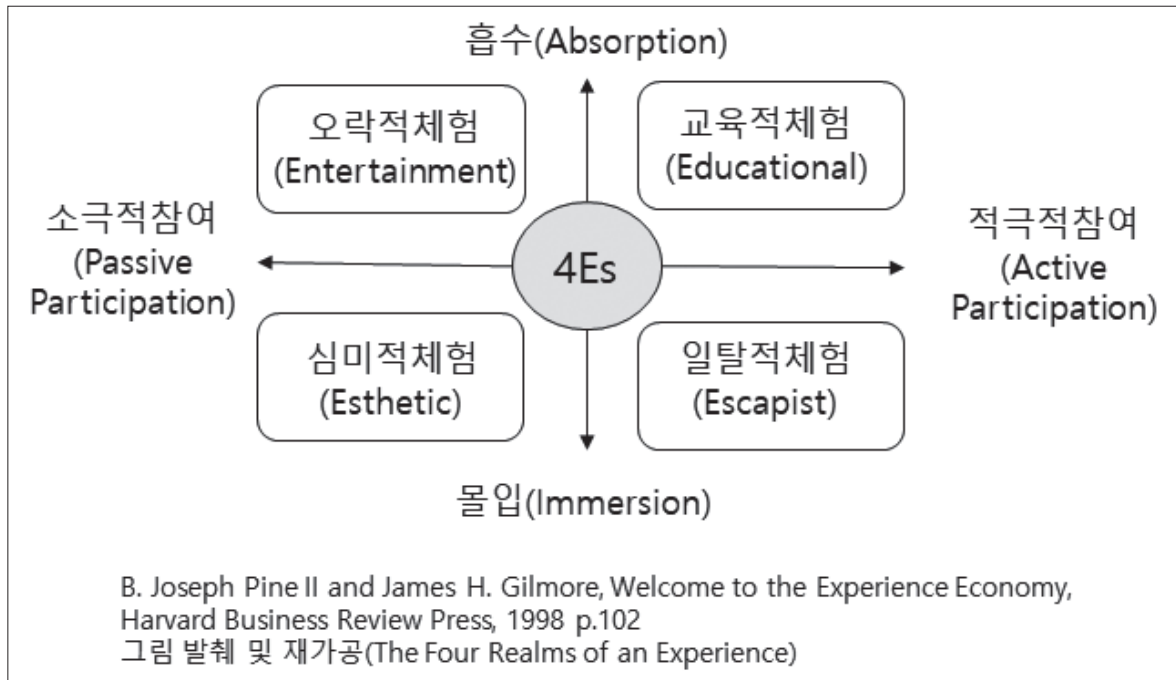


그림 2. Pine & Gilmore(1999)의 체험경제이론 요소

1) 관광체험 프로그램 분석

파인과 길모어(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근거로 관광만족과 추천의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적 체험요소는 향교·서원이 전통 문화에서 경험한 선비문화가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적 체험요소는 현대인들이 위라벨과 소확행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요소는 심미적 체험이 내적 감성을 공유하는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쳤지만 추천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탈적 체험요소는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교·서원 체험 관광객들은 일탈적 체험 요소에 크게 구해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전통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탈적 체험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체험의 일탈적 체험요소가 미흡한 것은 향교·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전통적 교육 체험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향교·서원이 전통성 요소에서 일탈적 체험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 의복을 입고 선비문화를 제대로 익히는 프로그램의 상시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역동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심미적 체험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체험의 심미적 체험요소가 미흡한 것은 심미적 체험은 개인 적이며, 내적인 감성에 따라 공감되는 부분이 공유되기 때문에 외적인 역동성 체험 요소에서는 공유되지 않기에 내면의 흥을 일으킬 수 있는 심미성을 체험요소에 첨가한다면 역동성 요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혁신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탈적 체험요소에는 영향을 미쳤다. 교육적 체험은 전통문화를 문화원형으로 계승하고 있었어 혁신성 요소에서 체험되지 않았다. 오락적 체험은 문화관광객들이 체험한 콘텐츠가 특별히 재미있거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 또한 독특한 매력을 통해 감성을 자극받는 체험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 요소가 일탈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 체험놀이 등 시간적인 이동을 통해 일상의 탈출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2) 관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방향

세계유산은 문화관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관광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집객적 효과를 들 수 있다.¹³ 문화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문화관광이 타 분야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문화관광상품이 대표적 예이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증대되기에 지역마다 크고 작은 축제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의 문화적 효과는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갖게 한다. 향교·서원이 문화관광으로 확대되어 문화적 효과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의 집객적 효과는 방문 동기와 방문 목표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게 한다. 향교·서원이 문화관광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교·서원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체험은 참가객들이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콘텐츠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오락적 체험은 참가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해 일상 환경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 콘텐츠다.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체험요소 중 가장 미흡한 점이 바로 일탈적 체험요소이다. 즉, 관념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축제의 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체험은 단순히 미학적 체험이 아니라 미적 대상을 오감을 통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다. 향교·서원은 뛰어난 건 축물로 심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조성 및 관리 소홀로 오감을 통해 내면으로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심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

3)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향교·서원의 가치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것은 한시적 현상이지만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필요하다.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2.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172~173

13.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37~44.

첫째, 향교·서원의 교육적 체험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어갈 후대들을 위해 VR/AR, 전자출판, 게임 등 소셜미디어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영상콘텐츠가 필요하다.

둘째,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는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과 민속놀이를 재해석하여 현대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향교·서원의 교육과 배례의 엄숙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오락적 관광 체험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웃고 떠드는 오락적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체험의 신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향교·서원의 건축물은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주변 경관과 둘레길 조성을 통해 심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교·서원의 일탈적 체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의상을 입고 관광체험을 하는 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교·서원의 건축물이 여름과 겨울에 취약한 구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관광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뉴미디어 시대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과 연계하여 홍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MZ세대가 홍보방안을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향교·서원의 관광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덟째, 전국의 향교·서원이 순례 코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교·서원순례길(가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¹⁴

4. 맺음말

세계유산 관광체험은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 니라’ 즉 ‘옛것을 익숙하게 알고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는 공자의 말¹⁵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지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서원이 관광체험 콘텐츠는 현대 인들에게 옛것을 익숙하게 알게하는데 있다.

문화의 습성상 향유하지 않으면 시대가 지나면서 망각의 문화로 기억되지 않는다.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는 전통문화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향교·서원이 후손들에게 생활 속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려고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콘텐츠를 창출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MZ세대

14.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174~175.

15. 성균관, ‘사서(四書)’, 2021. pp.44.

들에게 옛것을 옛것 그대로 전달한다면 소통의 부재를 겪을 수 있기에 향교·서원의 관광체험에는 트렌드 반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시 전통과 역사적 관점에 머무르지 말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MZ세대는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버스가 놀이터이며 콘텐츠다. 이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 유림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유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체험 콘텐츠 기획 강좌를 개설하여 관광 트렌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 개설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유산' 제도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광체험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에 대해 상시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체계를 통해 향교·서원의 지역적 특화 문화예술 공연 및 콘텐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도심권에서 떨어져 있는 세계유산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볼만한 가치, 체험할만한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교·서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차별화된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보고(寶庫)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과 활용방안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교·서원이 내 고장의 자랑거리여야 관광체험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에 대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스토리텔링할 수가 있다.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

1. 통합적인 설명·해석의 원칙

세계 문화유산의 설명·해석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요구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문화유산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설명·해석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 설명·해석은 “대중의 문화유산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쇄물과 전자출판물, 대중강좌, 현장 장치, 그리고 직접 관련된 현장 외부 장치,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설명·해석 과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훈련·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었다. 또한 이 헌장은 문화유산 설명·해석의 7대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

원칙1: 접근성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원칙2: 정보원(Information Sources)

원칙3: 주변 환경과 맥락 중시(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원칙4: 진정성 보존(Preservation of Authenticity)

원칙5: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Sustainability)

원칙6: 포용성 중시(Concern for Inclusiveness)

원칙7: 연구, 훈련 및 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은 이와 같은 7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유산 구역이 서로 다른 지점에 분포하기 때문에 각각에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특히 이들 원칙 중 원칙3, 6, 7에 주목해야 한다.

원칙3의 요건: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광범위한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 배경,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해석은 유산지의 역사, 정치, 정신과 예술적 배경이 갖는 다층의 의미를 탐구해야 하며, 유산지의 문화·사회와 환경 등 각 방면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주변 경관, 자연 환경, 지리적 배경 환경은 유산지의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불가분의 부분이므로 마찬가지로 설명·해석에 고려해야 한다. 설명·해석은 유산지의 문화, 정신 전통, 이야기,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작품, 시각예술, 현지 풍습과 음식 유산 등 무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원칙6의 요건: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반드시 유산 전문가, 해당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 그밖에 이해 당사자 사이의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학제적인 전문지식을 통합해 설명·해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자, 지역사회 구성원, 보호 전문가, 정부 당국, 유산지 관리자와 해설사, 관광 기획자, 그리고 기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유산지의 설명·해석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유산 소유자,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의 전통적인 권리와 책임, 이익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7의 요건: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는 문화유산지에 대한 설명·해석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구성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해석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또는 확충하는 방식에 따라 설명·해석 프로그램과 장비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설명·해석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이 유산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부단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며, 학술적 분석과 대중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관광객과 관련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유산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원칙7은 국제 회의와 세미나 개최, 전문가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별 회의의 개최도 장려한다. 이는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다양한 설명·해석 방법과 경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7대 원칙을 따르는 전제 하에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원 탄생의 역사와 자연 지리적 배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가치의 설명·해석과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갖춘 설명·해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곳의 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토론을 강화해서 통합된 학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2. 중국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해석

‘한국의 서원’에 적합한 설명·해석 체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중국의 대형 연속유산인 대운하의 설명·해석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운하는 중국 동북부와 중동부 평원을 관통하는 거대한 내륙 수로 체계로, 중국의 8개 성·직할시를 관통해 흐른다. 북쪽에서 수도 베이징을 거쳐 텐진, 허베이, 산둥, 허난, 안 후이, 장수를 거쳐 저장성에 이른다. 대운하는 기원전 5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건설돼 7세기(수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국 통일의 수로교통 체계가 되었다. 그 뒤 일련의 거대한 공사로 산업혁명 이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토목공사가 되었다. 대운하는 여러 왕조를 걸쳐 건설, 유지되었고 13세기(원나라)에 대운하는 발전의 최고봉에 달했다. 인공수로 2,000여 km를 포함한 통일 내륙 항로망이 형성돼 황하·장강 등 중국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5대강 유역을 연결했다. 대운하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내륙 교통수송 방식이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운하는 2014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중국은 2020년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전승 계획>을 수립했고 보호, 관리, 설명·해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운하의 유산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 중 두 장(章)은 대운하 유산의 설명·해석과 가치 전파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설명·해석의 수단에서는 대운하 문물과 무형문화유산의 표지·설명 체계의 구축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운하 문화유산의 표지·설명 체계는 보호관리의 요건과 관람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형식을 통일하고, 규범을 제정하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고, 적절한 규모를 정하고, 합리적 기능으로 관람객의 관람체험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유산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 설명 내용은 대운하 문화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깊이가 있고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현대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해서 현장 설명·해석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고고유적 공원 조성, 전문 박물관 체계의 구축, 국가유산 경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박물관 체계에는 장수양저우(江苏省扬州) 중국대운하박물관, 허난뤄양(河南省洛阳)수당(隋唐) 대운하박물관, 산둥지닝(山东济宁)하도총독부(河道總督府) 유적박물관, 그리고 장수화이안(江苏淮安) 대운하 수공과기관(水工科技館), 저장닝보(浙江宁波)하해(河海) 박물관, 샤오싱저둥(绍兴浙東) 운하박물관, 허난 카이펑비엔허(河南开封汴河) 박물관이 포함됐다. 대운하 국가유산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고 대운하 역사도시, 현대도시, 향촌전원, 자연경관 등 구간별로 다른 환경 특성에 따라 문화가치의 설명·해석, 생태환경 보호체험, 경관관람을 결합했으며,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이 융합, 발전된 공공문화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홍보 활동 방안을 보면, 대운하에 관련된 포럼으로 양저우 세계운하도시포럼, 항저우 대운하국제포럼 등이 있다. 축제에는 중국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국제 기념물 유적의 날, 국제 박물관의 날, 세계 물의 날, 중국 물주간과 중요 전통명절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에서 《분주한 대운하》그림책, 《대운하화전(大運河畫傳)》을 출간했다. 여력이 있는 지방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색이 있는 도서를 편찬한다. 《대운하의 이야기》 등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판을 나누어 출간했다.

대운하의 설명·해석 체계가 모두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대운하의 서로 다른 유역별 배경에 따라 중시한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운하의 노선은 베이징과 톈진(京津), 고대 연나라·조나라(燕趙), 고대 제나라·노나라(齊魯), 황하 중하류(中原), 회하·양자강(淮揚), 고대 오나라·월나라(吳越) 문화구역을 통과하며, 이에 따라 구현된 대운하의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표현 방식에도 차이점이 있다.

3. ‘한국의 서원’의 가치 특징

1) 가치 특징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 시대(15~19세기)의 9곳 서원을 포함하는 하나의 연속유산이다. 유산은 중국의 신유가사상이 조선왕조에 전래된 이후 현지화 과정에서 생겨난 서원 문화 전통을 독특하게 증명한다. 유산 구성은 한국 중부 및 남부지역에 위치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곳의 서원을 포함한다. 이들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 학설을 한국에서 발전 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등재기준(iii): ‘한국의 서원’의 교육실천과 사회활동은 한국 신유가사상의 문화적 전통을 독특하게 증거한다. 그 중 많은 교육 실천과 사회활동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과 한국 현지의 실체가 서로 적응하고 융합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서원은 기능과 계획,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변형성과 현지화의 과정을 탁월하게 증거한다.

2) 중국과의 교류 특징

‘한국의 서원’은 고대 아시아 문명이 교류하고 상호 참조한 산물이며, 중국에서 기원한 유가문화가 아시아 문화권에 전파되어 발전하고 현지 문화와 융합하여 구현된 것이다. 이코모스 평가의 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온 신유가사상이 한국 현지의 실재와 적응하고 융합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서원은 기능과 계획, 건축 등 여러면에서 이러한 변형성과 현지화의 과정을 탁월하게 증거한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신유가 서원이 중국 서원의 계발과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며, 서원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전파되고 교류한 것을 증거한다. 루산(廬山)국립공원은 1996년에 등재기준 (ii), (iii), (iv)과 (vi)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장시성(江西省) 루산은 중화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불교와 도교 사원 그리고 유학의 기념비적 건축(가장 뛰어난 대사가 이곳에서 강론했다)이 대단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완전히 융합되어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들 예술가는 중국 문화에서 자연에 대한 심미적 방법을 개척했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은 중국 4대 서원 가운데 으뜸이며, “중국내(海內) 제일서원”이라고 불린다. 장시성 지우장시(九江市) 루산 우라오봉(五老峰)의 남쪽에 있다. 세계유산 루산국립공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백록동서원은 남당(南唐)의 승원(昇元)연간(940년)에 건립된, 중국 최초의 완전한 서원이다. 그것의 운영 방식은 후대에 본보기가 됐다. 해외의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해졌다. 한국 유가서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영주 소수서원은 대 유학자인 이황(1501~1570)이 1543년에 창건했다. 처음 이름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는데, 명칭이 백록동서원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2010년, 백록동서원과 한국 소수서원은 우호관계를 맺었다. 한국 소수서원에서 백록동서원을 방문할 때 공자와 주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4. 서원 설명·해석의 현황 분석

현장에서 조사 연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원 설명·해석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내용에 근거했다. 신청서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9곳 유산지에 대해 통합 설명·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번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보존관리단은 영문 홍보책자를 만들어 9곳 유산지를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통합 소개했다. 동시에, 일부 유산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도왔으며, 관광객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공공교통, 숙박, 관광지안내 책자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통합 보존 관리단은 앱을 만들어 해당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은 관람 안내와 여러 언어 해설을 통해 유산지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보가 이미 실현됐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9곳 유산지 정보를 통합 한 홈페이지 <http://en.seowonheritage.org/>은 현재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나와 있어 속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전개한 활동들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기술되었는데, 서원은 계속 강화, 제향, 교류의 전통적 가치를 이어가는 데 진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예절행사를 열뿐 아니라 좀더 현대적인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관람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여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환경보호, 정치, 교육 등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 활동은 현지의 특색 유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연속유산으로서 서원의 통합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코모스의 평가의견서에 9곳 유산지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에 대한 권고가 제시되었다. 현재의 관광객 관리와 설명·해석 체계는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연속 유산에 부합하는 일련의 통합적인 설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해석 전략 제안

다음으로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해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두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한국의 서원’의 가치요소 중 통합 설명·해석에 적합한 측면을 추출하고 설명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설명·해석의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1) 가치요소 특징의 통합 설명·해석 제안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하나의 통합적 설명·해석 체계가 각 유산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과정에서 9곳 서원은 각자의 특색을 형성했다. 이러한 특색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기존의 설명·해석 체계를 통해 가치가 전파 되고 있는데, 그러한 특색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은 일련의 공유하는 설명·해석 방식을 만들고 모든 서원의 공통적인 특징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어가 포함된다. 가치관, 역사 서열, 경관 배치. 이 세 개의 핵심어는 각각 사상·사회 차원, 시간 차원, 공간 차원 등 세계유산 가치의 세 개 차원에 관련된다. 모든 서원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공통성이 매우 크다.

(1) 가치관

여기서 핵심 집단은 사림이다. 사림파는 조선왕조의 중요한 정치 파벌로, 훈구파와 대립한 정치세력이다. 정치 파벌로서 사림파의 학술적 주장은 이상정치의 성리(性理)를 추구하고 유교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재야 출신인 이들 집단은 예의를 매우 중시했으며, 향촌사회에 서원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고 그 뒤의 조선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서원’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가사상을 결합해 형성된, 정치적 요구와 사회조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유산이다. 서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해석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원은 특정한 시기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간학자들이 창조한, 지식을 전파하고 중요한 전통 가치를 전승하는 장소이다. 중국 신유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현지화 과정을 거쳐 서원은 강학·제향·교류 등 3대 주제의 공공(公共)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향토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도덕적 요구와 정치 이념을 지키면서 조선왕조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한반도에서 상당히 전형적인 초기의 ‘공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인의 사고와 상호교류, 공론 형성,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원에 대한 통합적 설명·해석은 서원이 역사적으로 전파한 지식과 이념의 내용을 설명·해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술교육과 향토 조선사회의 현실, 정치참여를 결합하려는 노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

것은 선명한 시대 특징과 조선 문화 특질을 갖춘 활동이다. 학술 이념은 정치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참여의 뚜렷한 구현이다. 이것에 내포된 가치관은 귀중한 것이다.

(2) 역사적 발전과정

대중의 인지도를 생각할 때, 시간적 단서는 가장 쉽게 이해되며 그것으로 대중을 유산의 서사체계 차원으로 가장 쉽게 이끌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9곳 유산지를 포함하는데, 건립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 시계열을 이루는 서로 다른 시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서원 중에서 가장 일찍 건립된 소수서원(1542)은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이어받았다. 다음으로 남계서원(1561), 도산서원(1570), 옥산서원(1572), 필암서원(1590), 도동서원(1605), 병산서원(1613), 무성서원(1630), 돈암서원(1632)의 순이다. 이들 서원은 시간 서열에서 각기 서원 체계 발전의 중요한 사건들의 결절점을 이룬다. 소수서원은 모든 서원의 시작이다. 남계서원은 전적으로 사림집단이 건립을 지지한 최초의 서원이다. 옥산서원은 사림서원 학술체계가 이루어진 표지이다. 도산서원은 사림 학술을 전승한 증거이다. 위에서 기술한 서원은 시대가 이르며, 이들 서원에서 사림 집단이 서원 건설에 영향력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뒤 1590년의 필암서원부터 서원은 사회적 의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필암서원은 서원 관리와 재정 운영 체제를 대표한다. 도동서원은 강학 규범을 증거한다. 병산서원은 사림의 공공사상이 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표지이다. 무성서원은 서원의 현지 사회에 대한 교화를 대표한다. 돈암서원은 예학의 성취를 상징한다.

이들 서원이 놓인 서로 다른 시기, 9곳 서원이 함께 서원체계의 부단한 발전을 증거하는 시간적 맥락은 서원의 배치와 건축유형이 점차 표준화되는 특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요컨대 명확한 시간 서열을 갖춘 서사 체계의 구축에 통해 각각의 서원이 갖는 독특성을 통합 설명·해석 체계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서원 체계의 풍부한 역사적 발전과정도 전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계획과 건축배치

일부 서원(최초의 소수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교류공간을 나누어 배치하는, 비교적 표준화된 배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공간 배치와 서원 기능의 밀접한 결합은 ‘한국의 서원’이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지역의 서원과 구별 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통합적인 설명·해석 체계에서는 계획과 건축 배치의 특색을 중 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지 선정에서 ‘한국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 지역을 선택하며, 자연 속에서 성리를 사색하고 연구한다. 이들 서원은 산·하천·계곡·밭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사림 집단은 이런 자연환경이 마음의 승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사림 집단은 정자(누)가 심신수련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풍치를 관상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자는 보통 서원의 입구 쪽에 설치되어 선비들이 속세의 소란함을 수행장소의 밖에 격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건축배치를 일련의 구체적인 설명 수단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참관자들이 서원 공간 배치의 지혜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한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서원의 건축배치는 끊임없이 표준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제향과 강학, 교류는 모두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중축선을 따라 제향, 강학, 교류공간의 순서로 배치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축 입지와 배치의 특징은 (소수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의 공통점이다. 이는 가시화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세 가지 가치의 특징에 대한 총괄은 등재신청서의 유산 가치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진행한 것이다. 서원 세계 문화유산은 매우 풍부한 가치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적인 설명·해석에 맞게 가장 특색 있고 활용성(적용성) 있는 측면을 선택해 전체적인 설명을 간결하게 진행해야 한다. 학술단체가 정치에 참여한 가치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사회 차원, 서원 체계의 발전 맥락을 표출한 시간 차원, 그리고 입지 선정과 건축배치의 표준화된 특성을 구현한 공간차원, 이 세 가지는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갖는 특색의 관점을 충분히 부각시킨다. 동시에 이 세가지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³, 곧 문화유산지의 설명·해석은 좀 더 넓은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 배경과 주변 환경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를 통해 참관자들이 서원의 웅대하고 깊이 있는 역사적 함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9곳 유산지의 공통성과 개별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설명·해석과 전시 기술 방법의 건의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설명·해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분석 한다. ① 전시관, ② 미디어 플랫폼, ③ 안내문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전시관

현재 9곳 유산지 중에 일부는 전문 전시관이 있어서 각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한 유산지(소수서원 혹은 다른 곳)를 선택해서 ‘한국의 서원’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서원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석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기존 전시관을 개조)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장기적 또는 한시적으로 서원 주제에 관해 전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서원의 세계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기존 전시관의 전시 안내를 다소 조정하고, 서원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석한 전시관을 설치하거나 전문 전시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참관자들이 9곳 서원 중 어디에가든지 다른 서원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화된 유산지 표지 체계(signage system)를 완비해서 시각적인 안내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9곳 서원의 전시관마다 관람권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관람권 체크포인트(passport checkpoint)’를 설치하고 9곳 유산지에 대한 전용 관람권을 설계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한편으로 참관자가 더 많은 서원을 흥미롭게 관람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관자들이 모든 서원을 참관하지 못하더라도 관람권에 다른 서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좀더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미디어 플랫폼

우선 <http://en.seowonheritage.org/> 사이트를 다시 복구해야 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른 언어의 설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핸드폰 앱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의 SNS와 결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facebook, twitter, instagram, tripadvisor, triposo 등 기존 사교/여행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문적인 섹션을 설치하고 많은 아름다운 이미지로 흡인력을 높인다. 예산이 있으면 9곳 서원이 3D 디지털 스캐닝과 전시를 진행하고, 특히 자연환경, 건축 배치, 건축구조 등을 중국, 일본 등지의 서원과 비교하며, 매체에 간행물을 게재해서 독자들이 그 공간 특징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한다.

(3) 해설

안내문에 대해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서원에 대한 통합적 기술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차별화된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다. 곧, 서로 다른 유형의 참관자, 예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 일반 관광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참여자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안내문을 설계해야 한다.

다시 예를 들어 중국의 관광객에 대해서 서원의 자연환경을 기술할 때 중국의 옛 시를 인용하면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로, 달성군의 도동서원은 낙동강을 면하고 있는데, 문 앞에는 하늘 높이 솟은 은행나무가 있고, 입구 누각은 수월루라고 부른다. 밤에는 두보(杜甫)의 “星垂平野阔, 月涌大江流(별은 드넓은 들판에 드리워 있고, 달이 솟아오른 큰 강물이 흐른다.)”와 같은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다. 병산서원의 환경은 유난히 탁 트여있어 해질 때 만대루에 올라 바라보면 강물이 출렁여 금빛 물결이인다. 맞은편 절벽이 빛나고 있으니 두보의 시 “翠屏宜晚对, 白谷会深游(푸른 절벽은 늦을녘에 마주 대할 만하고,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이 모여 그윽이 즐기기에 좋구나.)”의 경지를 연상시킨다.

그밖에 주의할 것은,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점이다. 역사마을의 한 요소로서 그리고 서원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서술하는 방향은 다소 다를 것이다. 서원을 통합적으로 소개할 때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안내자나 해설사의 훈련에 대해서는, 서원 해설사의 종합적인 훈련, 경연대회, 세미나 등의 활동, 정기적인 관광객의 피드백 정보 수집, 연구 능력 향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밖에 서원의 설명·해석 전문 지침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안내 문이 좀 더 서원의 통합성을 부각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6. 결론

‘한국의 서원’의 통합적인 설명·해석은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 맥락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서원의 가장 특색 있고 활용(적용) 가능한 측면에 대해 집약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설명·해석 체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치의 특징에 대한 제안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가치의 특징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층위를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1) 사상·사회 차원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사립)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학술교육과 조선 향토사회의 현실과 정치 참여를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2) 시간 차원에서는 서원 체계의 발전 맥락을 표현한다. 명확한 시계열적 서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서원 체계의 풍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전면적으로 표현한다. 3) 공간 차원에서는 입지 선정과 건물배치의 표준화 특징을 구현하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교류공간의 배치와 서원의 기능을 긴밀하게 결합한 특징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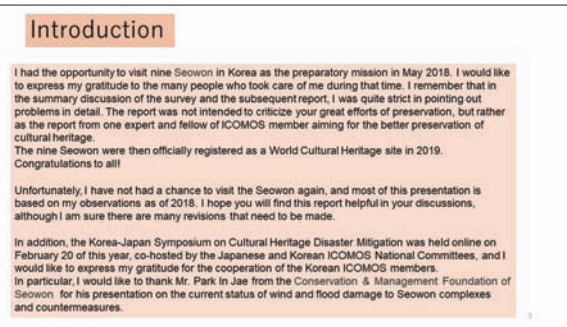
기술적인 수단에 관해서는 ① 전시관, ② 미디어 플랫폼, ③ 안내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킨다. 9곳의 서원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전시관을 만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복구하며, 사회적 교류와 관광 플랫폼과 결합한다.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해 해설을 진행한다.

중국 대운하의 통합적인 설명·해석·홍보 전략은 표준화된 사인 체계, 박물관과 국가유산 경로 체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원’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書院」のよりよい保存と活用のために
 -‘한국의 서원’의 좀 더 나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발표자료 1



발표자료 2

1. 일본 이코모스의 가리야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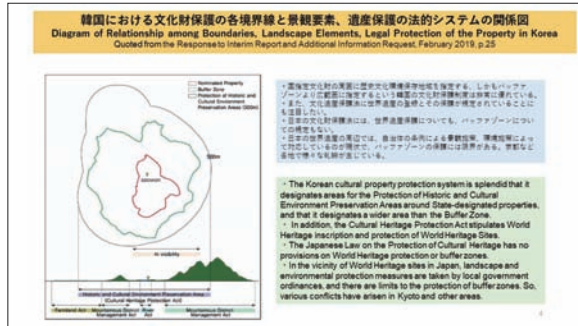
왼쪽 아래의 사진은 2018년 5월 28일 병산서원의 현지조사 시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문화재보호의 각 경계선과 경관요소, 유산보호의 법적 시스템의 관계도입니다.

2. 머리말

저는 2018년 5월에 모의 현지조사로 한국의 세계유산 후보인 9개 서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많은 분들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조사 시 현지에서의 질의, 최종 총괄 토론 등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엄격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원군(書院群) 문화유산의 좀더 나은 보존을 위해 한 전문가로서 또 ICOMOS의 동료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후 서원군은 2019년에 정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뒤 서원군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없었고, 이번 저의 발표는 대부분 2018년 시점의 견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토론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2월 20일에 일본과 한국 이코모스의 두 국내위원회가 공동 개최로 한일문화유산 방재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한국 이코모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특히 서원보존관리단의 박진재 씨는 서원군의 풍수해 현황과 대책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발표자료 3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Korea
Quoted from the Dossier

Articles 23-26	State designation	Designation of important buildings, monuments, sites, artifacts,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folk materials on the national heritage list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rticles 70-74	City/provincial designation	Provisions on the designation of heritage on city/provincial heritage lists,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Material,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cultural heritage committees, the bearing of expenses, and reporting, and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 27/Articles 13,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protection zone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or protection zones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en specially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state-designated heritage
Article 13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Mandatory designation of Heritage Preservation Areas around a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premonitory ordinances
Article 19	World Heritage Inscrip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y order any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that could affect a World Heritage site, etc. or it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 World Heritage Site, etc. and it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발표자료 4

3. 한국에서 문화재 보호의 각 경계선과 경관요소, 유산 보호 법적 시스템의 관계도

- ・ 이 그림은 이코모스의 요청에 대해 한국이 2019년 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 이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구성자산인 영역을 표시하며, 그 주위의 녹색 선은 버퍼존을 나타냅니다. 그 바깥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국가지정 사적에서 최대 500m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버퍼존을 포함하며, 또한 구성자산으로부터의 가시범위를 충분히 넘습니다.
- ・ 이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게다가 버퍼존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 ・ 또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유감스럽게도 세계유산 보호에 대해서도, 버퍼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세계유산 주변 보호는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경관 시책, 환경 시책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퍼존 보호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으며 교통 등 각지에서 보호와 개발을 둘러싸고 다양한 알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적 보호 시스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적 보호 시스템 중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정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23조에서 26조는 국가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의한 중요건조물, 사적, 미술품, 무형문화재 등의 국가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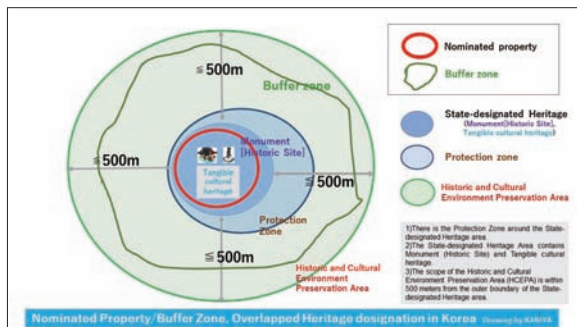
제70조에서 7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자료의 등록, 문화유산의 지방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비용부담, 보고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제27조와 범시행령 제13조 ~ 15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보존시설이나 보존구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제19조는 세계유산 또는 그것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저는 국가지정 사적과 제27조의 보호구역의 차이를 실은 알지 못합니다.



발표자료 5



발표자료 6-1

5. 구성자산과 버퍼존 등 유산 지정의 중복관계

빨간 동그라미는 세계유산의 구성자산으로, 이 안에 국가지정 사적과 유형 문화재가 포함됩니다. 짙은 파란색 영역에서 나타나는 국가 사적은 때로 구성자산의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깥쪽에 짙은 파란색 굵은 테두리 선으로 둘러싸인 보호구역이 필요에 따라서 설정됩니다.

이것들 주위에 버퍼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재신청서에는 버퍼존의 경계는 구성자산 주위의 산이나 강, 평지, 마을과 농지, 그밖에 보호구역을 포함해 설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해 그 조치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최대 500m에 이르는 보존지역은 버퍼존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 각 서원의 개별 과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 현지조사 때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결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같은 공통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해결된 과제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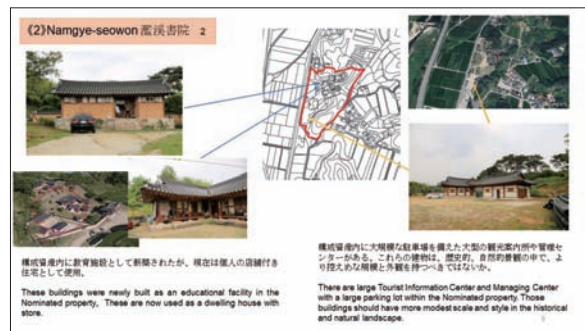
1) 소수서원

중앙에서 왼쪽은 수리 시 고재(古材)를 취급합니다. 왼쪽 위 기숙사에는 옆에 고재가 노출 전시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실내의 적절한 장소에 넣어두고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아래의 정자는 수리를 통해 서까래가 거의 교체되었습니다. 고재를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른쪽은 구성자산에 인접한 선비촌입니다. 이 시설은 서원과 인접한 완충지역에 있습니다. 대규모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만들어졌는데, 그 건물 복원(復元)의 엄밀성에 위화감이 있습니다.



발표자료 6-2-1



발표자료 6-2-2

2) 남계서원

이 건물은 기둥의 하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가 이루어졌지만 장부구멍 등의 부분에서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은 새 건물로, 원래는 교육·연수시설로 건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자산 안에 있으며, 현재는 점포가 딸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규모 주차장으로, 구성자산 안에 있습니다. 대형 관광안내소와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역사적, 자연적 경관 속에서 좀더 절제된 규모와 외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료 6-3



발표자료 6-4

3) 옥산서원

왼쪽: 홍수 이후, 2016년에 진행된 수리공사에서 목판 보관고의 목부재와 지붕기와가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오른쪽: 옥산서원유물관(2010 준공)에는 귀중한 서적 수집품들이 수납·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박물관은 구성자산에 인접해 있고, 그 장소는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도산서원

서원 건물에 인접해 구성자산 안에 있는 전시박물관의 외관 디자인은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발표자료 6-5-1



발표자료 6-5-2

5) 필암서원

1. 조감도에 나타나듯이 서원과 가까운 남쪽의 부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원, 교육 센터, 전시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주변 풍경과 역사적 풍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지요?
2. 강당, 사당, 판목고 건물은 수리를 통해 옛 기와가 대부분 새 것으로 교체되었는데, 옛 기와는 되도록 많이 재사용했어야 했습니다.



발표자료 6-6



발표자료 6-7

6) 도동서원

왼쪽: 많은 조사보고서, 수리공사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안내판은 좀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안내소 - 문화재청에서 나온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인데,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 병산서원

위: 새 주차장에서 서원으로 가는 길가의 경관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이 새로운 방문자센터의 높이와 형태는 자연의 풍경 속에서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발표자료 6-8



발표자료 6-9-1



발표자료 6-9-2

8) 무성서원

왼쪽 위: 토담 너머 선명한 색의 2층 민가 건물.

오른쪽 위: 주변이 다소 난잡한 경관. 민가 위에 태양광 패널.

오른쪽 아래: 주변에 있는 평지붕 농가의 옥상에 경사지붕을 인 곡물 건조장.

9) 돈암서원

(1) 건물 배치의 변천

왼쪽 위: 건물 배치의 변천.

왼쪽 아래: 2006년에 신축된 산양루는 이 서원의 현대적 활동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위치, 규모, 형태 등에 대해 엄밀한 역사적 고찰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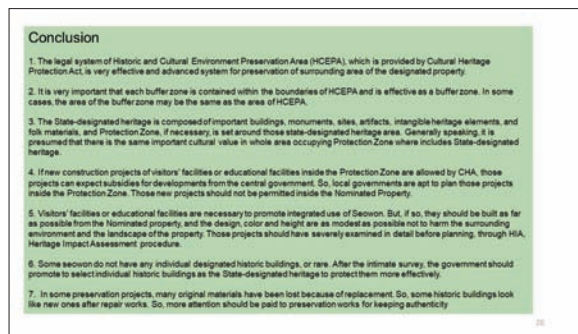
오른쪽 위: 돈암서원은 1634년에 완성되었으나 홍수로 인해 1881년에 현재 위치에 4개의 건물이 이전되었다. 이어서 1971년까지 응도당 등 3개의 건물이 이축되었다. 그 뒤 1999, 2000, 2006년에 건물을 지어졌다. 이 때문에 부지 계획이나 건물 배치의 역사성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아래: 홍살문과 하마비의 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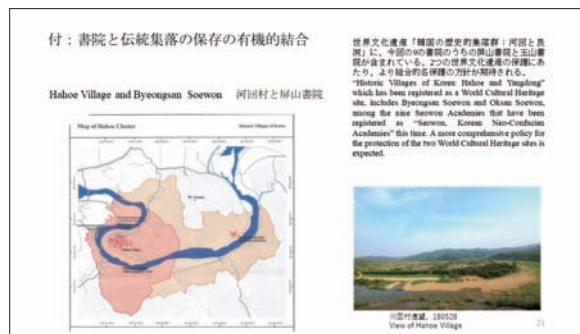
이코모스로부터 당초 장소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2018년에 이설한 것. 왼쪽은 내가 현장조사 했을 때의 사진, 오른쪽은 추가정보(Supplementary Information)에 게재된 이설 후의 사진.

(2) 예학관과 한옥마을

예학관과 한옥마을은 교육시설과 체험숙박시설 정비로서 2014년부터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구성자산에 인접해 있으며 국가지정 보호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개발입니다.



발표자료 7



발표자료 8

7. 결론

1.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HCEPA) 제도는 지정 물건의 주변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이다.
2. 각 버퍼존이 HCEPA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버퍼존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퍼존 영역이 HCEPA 영역과 같아도 좋을지 모른다.
3. 국가가 지정한 유산은 중요한 건축물, 기념비, 유적, 공예품, 무형유산 요소, 민속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들 국가가 지정한 유산의 주위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유산을 포함한 보호구역 전체에 개별적인 국가지정 유산과 동일한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4. 보호구역 안에서 방문자용 시설이나 교육시설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문화재청에 의해 허가되었을 경우, 그런 프로젝트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보호구역 안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구성자산 안에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5. 방문자 시설과 교육시설은 서원의 통합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구성자산에서 가능한 한 떨어진 장소에 건설하고 디자인, 색상, 높이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되도록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 프로젝트는 HIA의 절차에 의해 계획하기 전에 엄격하고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 몇몇 서원에는 부지 안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역사적 건조물이 없거나 드물다. 정부는 면밀한 조사를 한 뒤 개별적인 역사적 건조물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7. 몇몇 보존사업에서는 당초의 부재가 많이 교체되어 사라지고 있다. 몇몇 역사적 건조물은 수복 작업 후 새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1. 글을 시작하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이고 문화재 보호 목적은 사익우선주의보다는 공익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하고 기회를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족이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문화 국가 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분야 못지않게 문화 분야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68조(대통령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규정은 국가목적에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헌법」의 문화 관련 규정들을 지원·보충하여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의 지침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가목적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가의 최고 집행권자인 대통령에게 문화 국가 이념의 성실한 책무를 지우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은 문화영역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바탕 위에서 온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규범으로 문화국가를 지속해서 추구해야 할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 국가가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와 활동원칙 그리고 방향을 확실해 정해주고 있다. 이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가 바로 민족유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류 유산 보호 정책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중대한 책무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당성의 법적 근거로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은 문화재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높은 규범성을 지니고 전하여 내려오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승계 전승하는 증거문물로서 보존하되, 무조건 절대적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문화국가 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면서 국민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향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신장하도록 활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정책에서 문화재보존과 함께 문화재 활용을 정책의 주요 행동방침으로 보고 있는 문화재 활용정책과 통합적 홍보를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2. 문화재 활용의 개념과 의미

1) 개념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용어적 개념은 사전적 의미, 법률적 의미, 사회적 의미, 유산적 의미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1) 사전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과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사용의 대전제는 대상물의 능력과 기능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의미이다.

(2) 법률적 의미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문화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법 전반적인 목적이나 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 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시·공간적으로 제한 없이 효율적 사용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적 의미

문화재 활용의 사회적 의미로는 ‘문화재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기능·능력 등을 살려 지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이는 문화재의 본질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재 잠재적 가치와 기능을 새롭게 해석 발견하여 시대성에 맞는 가치를 부여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문화재 소비시장에 내놓는 행위이다.

(4) 유산적 의미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설명 센터가 2021년에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에 생긴다.

이 국제기구인 세계유산 협약 취지에 맞는 세계유산의 해석 원칙과 사례를 연구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 기관이다. 해석센터의 주요업무는 세계유산 해석이 원칙과 방법론 연구, 세계유산 관련 자료 수집, 온라인 정보서비스,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이런 세계유산 해석 분야 기관과 문화유적의 해석과 해설에 관한 이코모스 현장(2008)에 기초하여 생각할 경우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싶다.

① 문화재 해석(解釋, interpretation)의 의미

일반적으로 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혹은 그 언어에 의한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한다(위키백과).

이에 반해 문화재해석은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징을 찾는 일로 주관성을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과거의 문화재를 해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첫째,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재미있어야 하고, 셋째 정확해야 한다.¹

시간적·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해당 문화재를 좀 더 많이 누리게 하고 그 문화재를 좀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해당 문화재를 전시대와 동시대 사람들과의 연관 안에 놓음으로써 현재 우리의 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의 눈을 통해서 문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시간적·공간적으로 먼 문화재에 대한 해석은 현재 문명적 담론과 사회적 현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사회과학적 해석을 더 한다.

문화재의 인문학적 해석은 전통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소수의 전문연구자에 의해 결정된 문화재 가치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문화재를 해석하는 경우이다. 인문학적 해석은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일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선택된 문어와 문장에 의해 제도화되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된 내용은 근대국가 또는 민족국가에서 ‘공식기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학·경제학 등의 학문적 관점에서 다수 관계자가 풀어낸 문화재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대주의적 시각으로 인문학자의 언어가 아닌 사회과학자 언어로 해석 전달하는 사회과학적 해석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② 전달형식

문화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해석을 수행하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해석의 방향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람객에서 바르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화재를 해석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① 관람객 자주식, ② 해설자 안내식, ③ 수혜자 체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람자 자주식은 관람자가 기록자료를 보면서 자가 이동하여 이해하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자주식, 전시식, 책자식, 장치식 등이 있다. 해설자 안내식은 해설가가 인솔 이동 해설, 특정 지점에 자리하여 해설하는 기법으로 거점식, 이동식, 강연식 등이 있다. 수혜자 체험식은 문화재 방문자가 과거 인간의 기본생활인 의·식·주·행·문(衣·食·住·行·文)의 문화상을 생생하게 몸소 겪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활동기법으로 재현식, 학습식, 예술식 등이 있다.

1. 마이클 인우드(Michael Inwood, 1944~)는 옥스퍼드 철학 시리즈의 목적으로 헤겔 철학에 관한 해석논집을 편집하면서 서문에서 헤겔 같은 철학자를 다룰 때의 조건을 원용하여 문화재해석론에 적용함.

관람자 자주식	자주식	관람로를 따라 지도, 책자, 안내판 등으로 이해하는 방법
	거점식	박물관·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둘러보면서 이해하는 방법
	장치식	음성기기 및 동영상 기기를 통해 문화재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자 안내식	이동식	관람객을 직접 인솔 문화재를 이동하면서 해설하는 방법
	거점식	일정 경점이나 장소에서 자리하여 해설하는 방법
	강연식	옥내외 특정 장소에서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수혜자 체험식	재현식	문화재 성립과 당시 사회적 생활상을 경험하는 방법
	학습식	문화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
	예술식	해석된 내용을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전통을 창조하는 방법

2) 문화재 활용의 방향

문화재 활용의 방향은 크게 ① 문화재의 현재화, ② 문화재의 대중화, ③ 문화재의 산업화, ④ 문화재의 세계화란 기본노선을 기울인다.

현재화	원형 유지 - 기능회복 - 일상문화화
대중화	누림의 생활화 - 스마트 정보화 - 서비스 고도화
산업화	문화재 관광 - 문화산업화 - 대표 브랜드화
세계화	국외 문화재 활용 - 세계유산 등재 - 국제협력 적극화

3) 문화재 활용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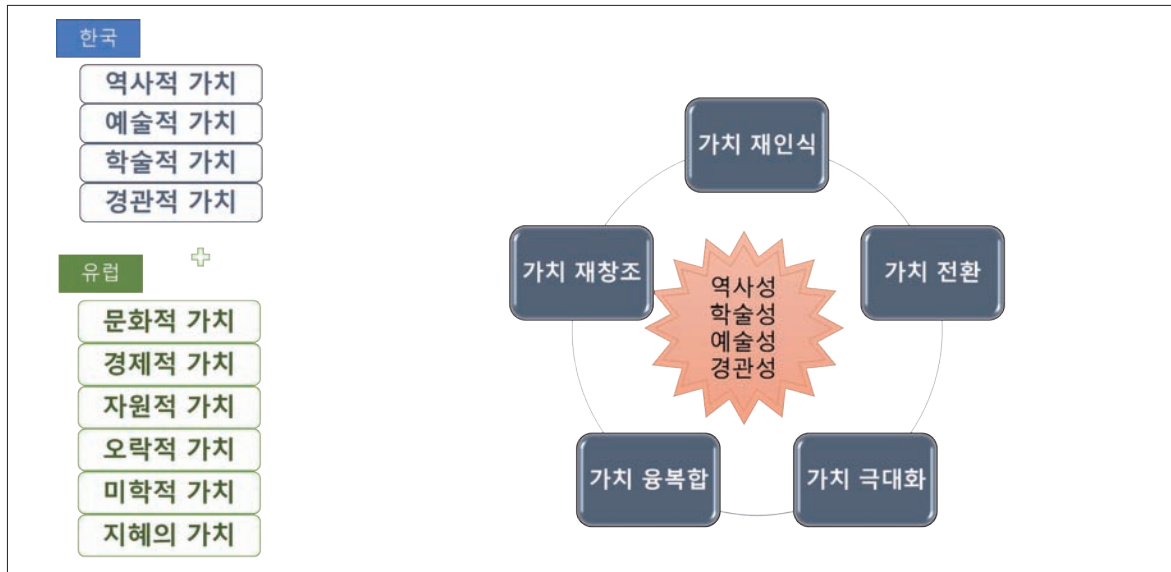
문화재 활용의 근본 방도는 ‘문화재를 말하게 하라’ 방식으로 찾아 기획한다. 문화재를 말하게 하는 방식은 스스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융복합해, 국제협력을 통해 말하게 한다.

문화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	수집보존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여 말하게 하라	고증복원
문화재와 사람과 통합하여 말하게 하라	향유체험
문화재와 모든 분야를 융복합하여 말하게 하라	학문예술
문화재와 매체를 복합하여 말하게 하라	문화콘텐츠
문화재와 국제협력을 통해 말하게 하라	해외교류

4) 문화재 활용가치의 선순환

문화재 활용가치를 지정가치(역사성·학술성·예술성·경관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문화적·경제적·자원적·오락적·미학적·지혜적)를 재인식 - 전환 - 극대화 - 융합 - 재창조란 경로를 선순환적으로 구조화하고 과정별로 할 일의 정도를 수준을 유지한다.

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정은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는 일이고 문화재 가치의 전환과정은 새롭게 해석되고 부여된 문화재의 가치로서 문화재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문화재 가치의 극대화 과정은 통합적인 인식체계로 문화재 가치를 바라보아 가장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문화재 가치의 융복합과정은 문화재 가치를 다른 가치나 매체와 결합해 서로 조화시키는 과정의 일이고, 문화재 가치 재창조 과정은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나 가치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 부여하여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5) 문화재 활용의 인식 전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관람 위주의 소극적 활용으로 떨어져서 보고, 들어가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동결적 활용이 었다.

현재의 문화재 활용은 수요자 중심의 체험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궁리하여 문화재를 일상에서 향유 소비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문화재 관광 상품화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한 전략자원과 지역의 장소형 마케팅화를 위한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태적 활용이다.

3. 문화재 활용정책

1) 문화재 활용의 정책환경

문화재 활용의 정책환경은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측면에서 그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적 환경

문화재 활용정책은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설정 목표에 따라 세부과제로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문화 분권’을 추진한다는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문화 분권’ 국정철학이 문화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문화재 정책도 서울 중심에서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분권적 철학을 담고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화 분권이란 지역문화의 자치이며 지역문화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문화의 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정책이다.

(2) 사회적 환경

1962년부터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정책은 ‘원형보존’이 행정의 최고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기초를 유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주의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활용에 대한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문화재 분야의 유네스코 활동의 확장으로 국제적 안목이 넓어지면서 2000년도부터 학계 등에서 문화재의 동결적 보존에서 동태적 보존의 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없는 보존 없고, 보존 없는 활용 없다”라는 생각을 공론화하였다. 이에 행정에서도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관심을 가져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서 문화재 가치를 지정가치인 역사적 가치·학술적 가치·예술적 가치·경관적 가치 중심에서 활용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어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유산 교육적 가치·문화 관광적 가치 등 내재적,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공의를 끌어냈다.

유네스코의 국제 규범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문화재가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되어 문화재를 동결적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동태적 활용 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화시키면서 문화재를 국가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제고의 상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여가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간 문화 소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문화재를 향유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책당국도 문화재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재를 구경만 하는 관람 중심주의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3) 행정적 환경

문화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급의문화소비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법정 행정계획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행(5년 단위)하여 지방정부에 문화재 활용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2002년부터 제1차 계획을 시작하여 2007년 제2차, 2012년 제3차, 2017년 제4차에 걸쳐 시행한 결과 문화재 활용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문화재 활용의 시대에서 문화재경영의 시대로 전환전략을 구상한다.

문화재 활용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행정조직을 강화하였다. 2005년에 문화재활용정책과 신설하여 활용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2009년에 문화재활용국을 신설하여 문화재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2016년에 문화재활용 국내 문화유산교육팀(과 단위)을 신설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용성을 문화재 관광과 문화재교육으로 확장하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였다.

2) 문화재 활용정책 기본계획

(1) 정책의 사명과 미래상

문화재 활용정책은 문화재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를 시대성을 반영한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화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사명과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 다양하게 구현 되는 전통문화, ② 생기찬 젊은 문화공간, ③ 가까이 있는 문화동산, ④ 편리한 문화놀이터, ⑤ 특화된 콘텐츠와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웠다.

사명	· 문화재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미래상	· 융·복합적 활용으로 살아 숨 쉬는 문화 공간화	
핵심 전략	· 다양하게 구현되는 전통문화 · 생기 찬 젊은 문화공간 · 가까이 있는 문화동산 · 편리한 문화놀이터 · 특화된 콘텐츠, 개성 있는 프로그램	
정책 목표	· 단기 : 1지자체 1활용사업 · 장기 : 1문화재 1활용사업	
정책 방향	엄격 -지루한 문화재	▶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고 흥미-재미-의미가 있는 문화재
	잠기고 텅 빈 문화재	▶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문화재
	찾아가 힘든 문화재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재
	불편한 문화재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재
	활용이 유사한 문화재	▶ 킬러 콘텐츠, 슈퍼스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재

(2)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1지자체 1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세워 문화재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임을 깨닫게 한 후 장기적으로는 1문화재 1문화재활용사업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엄격하고 지루한 문화재를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고 흥미-재미-의미가 있는 문화재로 만들고, 잠기고 텅 빈 문화재를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문화재

로, 찾아가기 힘든 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재로, 불편한 문화재를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재로, 활용이 유사한 문화재를 킬러콘텐츠 슈퍼스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재로 만들고자 한다.

(3) 정책 강령



문화재 활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강령의 기본입장을 ①문화재 문턱은 낮게, ②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③국민 행복은 크게로 정하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매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보고(觀, SEE) - 느끼고(感, FEEL) - 즐김(樂, ENJOY)을 근본 규범으로 세우고 있다.

(4)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적

문화재 활용의 목적은 ‘활용이 보존의 근본 방도’란 정책이념을 실현하고 문화재를 역사교육장과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화로 만들어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향유 서비스 혜택을 지방으로 확산하여 균등화를 추구하고 관람객 중심의 특화된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자리하게 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정책이념 실현	문화재 활용이 보존의 근본 방도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 상품화	지역문화재의 역사교육장
지방확산, 균등화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향유 서비스 혜택
지속 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관람객 중심의 특성화
국부창출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최우효적 활용
국가경쟁력 확보	MINE 산업 상승효과 기반환경 조성

(5)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3대 목표

문화재 활용정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활용 성과목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 ① 조사-연구-분석-해석 방향, ② 전달방식 및 매체 미디어, ③ 실현 프로그램 목표 설정하여 학습-감성-행동별로 활용성과를 이루려고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다.

① 문화재 활용 학습 목표

문화재 활용의 학습 목표는 무엇을 배우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문화재 향유 소비 체험이 완료되었을 때 관람객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한 이유 3가지 이상을 설명하게 하여 그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한다.

② 문화재 활용 감성 목표

문화재 활용의 감성 목표는 문화재보호 행동화의 원동력과 감성을 자극하여 관람 동기를 부여하고 지혜를 얻는 영감(靈感)을 착상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는 관람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를 애호하는 행위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활용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사회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여겨 문화기획가와 기관의 문화재 활용 상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인식능력을 배양한다.

③ 문화재 활용 행동목표

문화재 활용의 행동목표는 체험, 전시, 기타에서 얻은 지식정보나 영감을 행동화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시민의 자발적 문화재보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활용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를 방문하게 하는 동기를 부추기고 활용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바람직한 문화재 체험문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6)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기능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는 교육-관리-홍보 측면에서 기능을 한다.

① 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은 문화재를 더욱 잘 알고-보다 잘 느끼고-보다 잘 이해할 기회를 얻어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한다.

② 관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은 문화재 관람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의식변화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정신을 일어나게 한다.

③ 홍보적 측면

홍보적 측면은 동태적 문화재 정책을 널리 알리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 확충에 간접적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3) 지역 문화재 활용정책사업 종류

구 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 문화재	고택증가	세계유산
사업 대상	향교·서원· 산사, 고택·증가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서원	1.5~2km 지역에 다수의 문화재- 문화시설- 상권이 밀집·집적된 권역	문화재 보유 사찰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고택·증가	세계유산 (서원 제외) 세계 기록유산
시작 연도	2008	2014	2016	2017	2020	2010
추진 방식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국비 보조율	40%	40%	40%	40%	40%	50%
지원 예산 (원)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시범: 5천만 집중: 1억 지속: 2억	1억~5억 (시범형 2억)	시범육성형3~4 천만 집중육성형 5천~8천만	2억	2억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 ‘생생문화재’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가 지역을 살리고 돈을 버는 공공재로 자리하고 문화기획가란 신종 직종이 나타나는 등 문화재 알기와 홍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도 수반되어 문화재의 수동적 동결적 보존에서 능동적 동태적 보존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뤄 2014년에 향교·서원문화재, 2016년에 문화재 야행, 2017년에 전통산사문화재, 2020년에 고택·증가문화재로 분리하여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10년에 시작된 세계유산 홍보사업을 명칭 변경하여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하고, 2022년 부터는 향교·서원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던 세계유산 서원문화재를 추진형식과 내용을 분리하여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다.

(1) 향교(鄕校)·서원(書院)문화재 활용덕목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의 학교생활과 교육목표를 내용적 요건이 근간을 이룬다. 더불어 ‘옛 선비의 교양덕목 6예(藝)’인 예(禮),악(樂),사(射),어(禦),서(書),수(數)를 현대화하여 꿈(희망),끼(소질),피(지혜),깡(용기),꾼(장인),꼴(개성) ‘신 인재 인성덕목 여섯 쌍기역’으로 꾸며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인문학과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발현하고 계승하며, 전통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향교·서원문화재 연도별 지원 건수 및 예산(국비:억 원)

지역의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원은 2014년 38건에 국비 12억 원을 지원을 시작으로 8년이 지난 2022년에는 107건(280% 증)에 51억 원(425% 증)으로 증대하여 발전 정도가 괄목할만하다.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수	38	71	77	87	95	97	113	116	107
예산	12	21	22	28	31	31	51	51	51

그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문화재를 2022년부터 세계유산활용사업으로 변경 전환하여 5개소에 국비 438,8천 원을 지원한다².

4. 문화재활용 통합홍보 마케팅

1) 방식

세계유산 서원을 비롯해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 향유 소비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 홍보방식을 보도-홍보-광고 3가지를 변별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문화재 소비 세상과 교감하기 위한 보도와 홍보는 같지 않으므로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여도 사회적 관심에 쏠려 외면당하기 쉽다. 따라서 전통은 전통대로, 소통을 현재의 형식으로, 기술은 당대의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2. 1. 경북 경주 옥산서원 93,000 천원, 2. 충남 논산 돈암서원 165,000 천원, 3. 전남 장성 필암서원 52,500 천원, 4. 전북 정읍 무성서원 72,500천원, 5. 대구 달성 도동서원, 55,800천원

방식	항목
보도 press	정보전달, 뉴스, 국민·외신
홍보 communication	소통, 문화재, 국민·국내·국외
광고 commercial	판매, 상품·아이디어·저작권, 사용자, 재화 돈과 귀결

2) 고객관리

문화재 향유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문화상품을 알리기 위해 홍보 매체별-지역별-단계 별로 접근성이 우수한 홍보 채널의 다각화로 메시지를 전파한다. 매체는 미디어-언론-입소문-오프라인별로 사전-진행-사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공급한다. 기초작업으로 소비자의 DB화 및 중요한 자료화, 통계자료집 발간 등을 꾸준히 한다.

매 체 별		단 계 별		
구분	내용	단계	명칭	내용
미디어	TV(지상파-케이블), 라디오	1 단계	사전 홍보	다수국민 대상 문화상품인지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이슈성 홍보
언론	기획기사, 인터뷰, 현장취재	2 단계	진행 홍보	방문-구매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현장취재, 인터뷰
입소문	SNS, 블로거, 포털사이트, LMS-DM	3 단계	사후 홍보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한 언론 보도 내용 게시, 온라인 자발적 소문 마케팅
오프 라인	전단지, 초청장, 광고지, 현수막, 전광판			

3) 고객유인

문화재 활용정책 홍보는 문화상품 마케팅 기법으로 통합적으로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과 감성마케팅 그리고 착한 소비와 가치 소비를 전제로 신규 문화재 향유 소비자를 유인하고 마니아층을 지속해서 두텁게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행단체 문화재 활용상품 홍보 책자 배포, SNS 채널과 카드뉴스를 통한 문화재 활용상품 소개 및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시 ICT 기술(AR, VR,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고객유인 디지털콘텐츠를 확보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2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ICT 실감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향교·서원문화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서원과 충청남도 서천군 문헌서원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8억 원을 지원한다.

5. 글을 마치며

문화재는 이제 과거 사람들의 유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흔적도 미래시간에 유산이되므로 문화재활용도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흔적과 기억이 지어지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만들어 가는 전통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est Hobsbawm)과 테런스 레인저(1929~2015)는 '전통의 창조'란 제목의 이 책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³이란 것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전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 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전통의 감춰진 뒷모습들이 흥미로울 뿐이다.

유럽에서 창조된 전통 또는 만들어진 전통에서 소위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라고 주장한다.

전통의 만들어짐은 근대 국민성의 형성 과정과 국민주의에 의한 현상으로,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정체성 창조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만들어진 전통으로는 성경과 시온주의, 일본 무술, 스코틀랜드의 킬트 및 타르틴 무늬, 그리고 주요 종교들의 전통 등이 있다.

통제된 과거는 국민의 통합된 정체성으로 재생산된다. 과거는 공동의 기억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역사보다 큰 역할을 한다. 과거와 문화재가 이와 같은 정치적 생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사적 구성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만들어진 전통과 과거 그리고 문화재는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논점에서 한국의 서원문화재 활용정책과 통합적 홍보도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서원문화재 지정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인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사회과학적 해석을 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정책의 최종 성과인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여긴다.

3. 1983년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과 테런스 레인저가 동명의 책에서 들고나온 개념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지난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영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 이유는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 8개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 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8건의 유산에 대한 심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한국의 서원’은 7월6일에 심의가 완료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부석사와 더불어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도시가 되었다. 등재된 9개의 서원은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함양의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이다.

본 글에서는 서원의 보존관리와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서원의 가치와 현황

소수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서원」은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과,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전체유산과 각 구성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즉 각각의 유산이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제향(祭享), 강학(講學), 유식(遊息)의 공간과 주변경관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서원은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의 명신이며 대학자인 회현 안향(安珦) 선생을 추모하고 그분의 열을 계승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사묘를 건립하고 영정을 봉안하고 강학당을 세워 강학의 중심으로 삼도록 했으니 이것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며 후에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라 하였다.

이 서원에 봉안(奉安)된 회현 안향 선생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도입한 선구자였다. 선생이 활약한 13세기 후반 충렬왕(忠烈王), 충선왕(忠宣王) 당시의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駙馬國)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

태였다. 정치는 기강을 잡지 못하고 국민의 풍속은 무속(巫俗)에 찌들어 있었다. 선생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서는 주자학(朱子學)을 도입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 행정, 문화, 교육면에서 유교 교리에 따른 많은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그 후 명종 4년(1549)에 풍기군수 퇴계 이황이 서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국가적인 뒷받침을 위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여 그 이듬해인 1550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친필 현판과 함께 토지(土地), 서책(書冊), 노비(奴婢) 등을 하사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그 후 소수서원은 크게 발전하여 이 나라의 중요 교육 연구기관으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소수서원은 그 역사만큼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재급 유물도 많아 지금도 끊임없이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우선 소수서원 자체가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숙수사지 당간지주 보물(보물 제59호), 대성지성문성왕 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강학당 (보물 제1403호), 서충대친림연회도(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 (지방유형문화재 제330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지방유형문화재 제331호) 등이 있다.

맑게 흐르는 죽계천 건너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는 흰색글씨와 붉은 색이 칠해진 “경(敬)”자 바위가 있는데 이는 모두 주세붕이 손수 써서 새긴 글씨이다. 주세붕의 문 집인 무릉잡고에는 석벽에 경(敬)자를 새기려고 하니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이 괴이하 게 여긴다고 하고, 또 마땅히 마음속으로 공경할 것이지 굳이 돌에 새길 필요는 없다. 라고 하여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말을 찾게 되어 여러 벗에게 보이고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자만 안된단 말인가? 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회헌(晦軒)이 회옹(晦翁)에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할지라도 이 각석(刻石)이 마멸되지 않아 1천년 후에 이를 일러 경석(敬石)이 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라는 구절이 있어 경자 바위가 새겨진 유래를 알 수 있다.

서원 내에는 명종 임금의 직접 써서 내렸다는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판이 전해 지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지 6년만인 명종4년(1549)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취임하여 이 곳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한바 이듬해인 1550년에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이름을 짓게 하고 사액을 내려주게 되었다. 신광한은 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이라고 한 까닭을 “학문의 도가 쇠퇴하여 강구되지 못한지 오래이고, 배우고 그 이치를 강명(講明)하지 않으면 몸을 닦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경(敬)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의(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서원이름 을 소수(紹修)라고 한 까닭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 白雲洞紹修書院 臣竊惟爲學之道廢而不講久矣 學而不講明其理 不知修己之爲何事 既不能敬而直之於內 況能義以方之於外乎 此紹修之所以名書院也 -

이에 임금께서 손수 ‘소수서원(紹修書院)’의 글자를 써서 현판에 새겨 하사하시면서 노비(奴婢), 전답(田畓), 서책(書冊)을 함께 내려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근래에는 영정을 보관하기 위해 영정각(影幀閣)을 지어 회현영정을 비롯한 주자, 주세붕, 이황, 이원익, 허목 등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으며, 서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사료관(史料館)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옛 선비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강학과정으로 사마선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영주 선비정신을 구현한 선비촌을 조성하여 각종 체험을 하게 하여 옛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수박물관을 건립하여 서원 관련 유물과 영주지역의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무형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므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과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1. 소수서원 소재 문화재 및 건축물 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사적 제55호	소수서원(紹修書院)	-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 강학당(講學堂)	강학공간
비지정	지락재, 학구재, 일신재, 직방재, 장서각	강학공간
보물 제1402호	문성공묘(文成公廟)	제향공간
비지정	전사청(典祀廳)	제향공간
보물 제59호	영주 속수사지 당간지주(幢竿支柱)	유식공간
비지정	경자바위, 소나무 군락, 경림정, 취한대, 광풍대	유식공간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	기타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기타
보물 제717호	주세붕 초상	기타
지유 제238호	서충대친림연회도	기타
지유 제330호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	기타
지유 제331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	기타
비지정	고직사(庫直舍)	관리사
비지정	영정각(影幀閣)	관람공간
비지정	사료관(史料館)	관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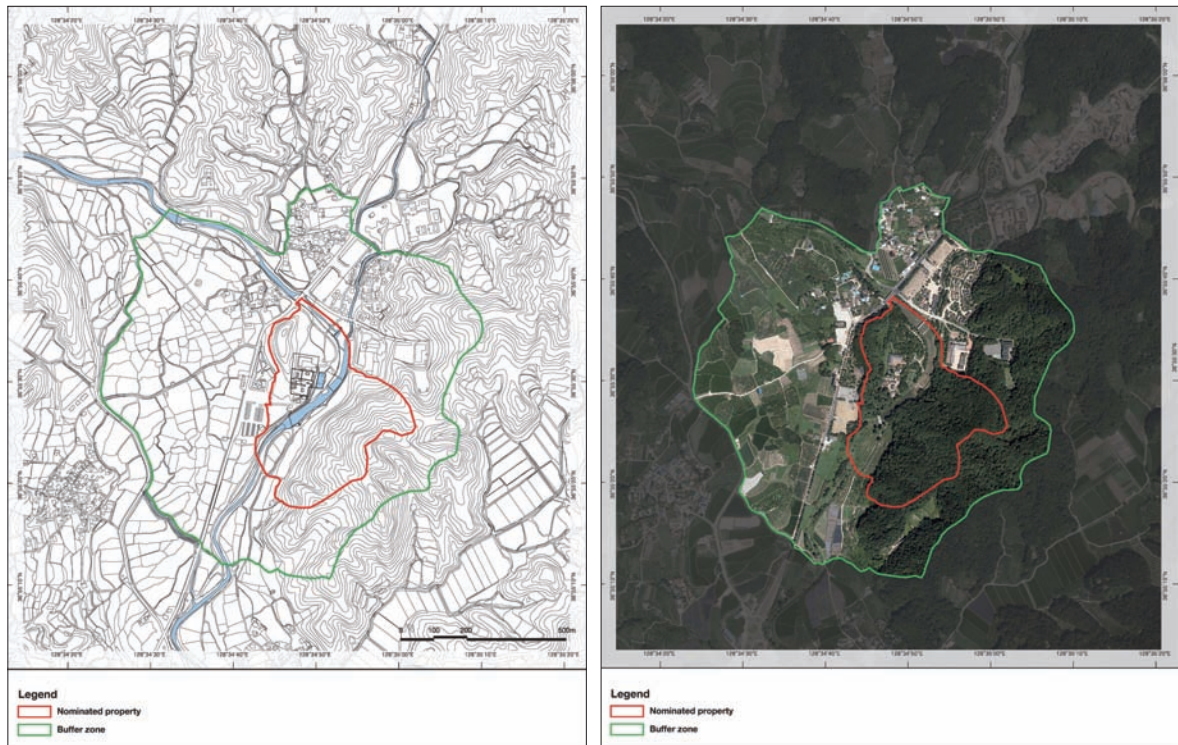


그림 2. 소수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4. 소수서원 보존상태

소수서원의 유산구역안인 경내에는 주요구성요소들이 집중되어 이는 지정문화재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정문화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완충구역의 대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지형 보존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1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유산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서원의 건축물 보존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5. 보존관리 대책

소수서원은 서원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며 서원 소유로 난개발에 휘말릴 소지는 거의 없다. 소수서원은 현재까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와 영주시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조건축물이 많은 서원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감시설비와 CCTV, 소화전과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

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근의 소방서와도 긴밀한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영주소방서와 주기적으로 합동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한 건축물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현지 조치 및 대규모 예산투입의 경우 국비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6. 홍보와 활용 대책

소수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30만명 이상 찾아오는 유명관광지이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소수서원의 홍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시청과 소수서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활동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원 안내 팸플렛과 각종 홍보물을 구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서원’ 통합 팸플렛 및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원이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원의 활용사업으로는 서원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사마선비과정, 서원스테이, 경독(經讀), 예절교육, 인성교육, 선비유림생활체험, 유림 및 일반시민을 위한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원이 과거의 공간만이 아닌 현재에 살아 숨 쉬는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장 서원의 보호 및 활용

2.a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1차)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김철주
--------------------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이상해
---------------------------------	-----

2.b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차)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금창현
-------------------	-----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이왕기
------------------------------------	-----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주변 환경 및 경관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최종희
--------------------------------------	-----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체계 점검 및 실행과제	박소현
-------------------------------------	-----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박성진
------------------	-----

2.c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3차)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조두원
-----------------	-----

9개 서원 보존관리 현황	장기진
---------------	-----

한국의 서원 개요 및 OUV 설명	이상해
--------------------	-----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설명	박소현
----------------	-----

2.d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4차)

한국의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한필원
-------------------------	-----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샤리프 샴스 이몬 (Sharif Shams Imon)
---------------	----------------------------------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	이해준
------------------	-----

2.e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이해준
--------------------	-----

활용-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고찰	최영갑
----------------------	-----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등재서원을 중심으로)	박소현
-------------------------------	-----

문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강진갑
--------------------------	-----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환
불교문화와의 만남: 템플스테이	전병길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해준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엄원식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노수경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	방미영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	옌 하이밍 (Yan Haiming)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	가리야 유가 (Kariya Yuga)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	박동석
한국의 서원 관리·홍보·활용의 현황과 대책	금창헌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Ⅱ

발	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	
진	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후	원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디	자	인	그래픽코리아
발	행	일	2021.12.
주	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028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전	화	및 팩스	02-3673-5443 / 02-3673-5444
홈	페이지	지	k-seowon.or.kr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I